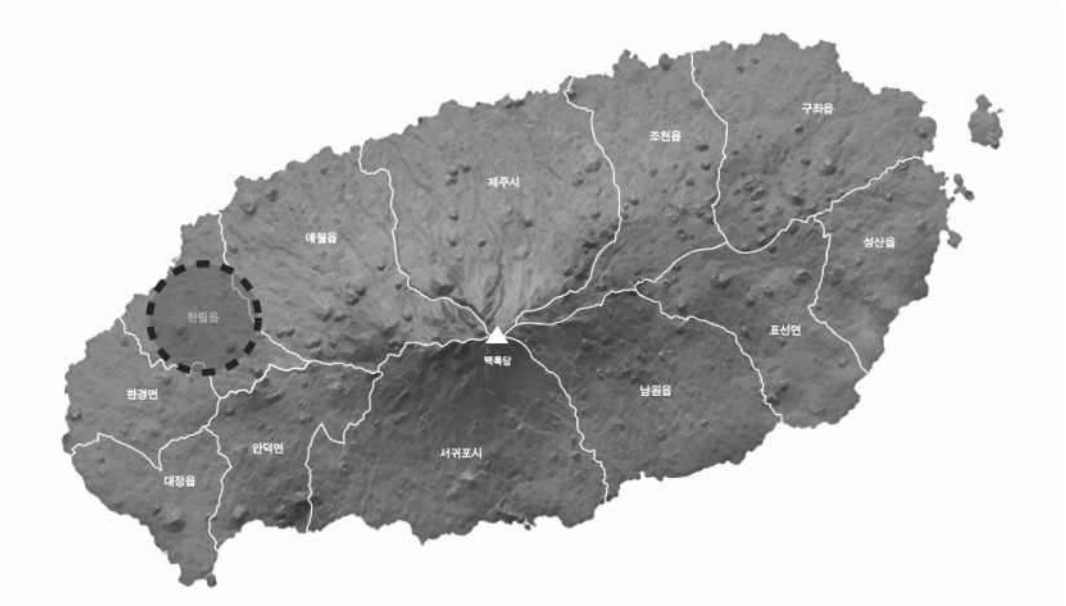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649-01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5
-한림읍 대림리

구술: 김한보, 홍국진
채록·전사·표준어 대역: 문덕찬



제주특별자치도
JRI 제주학연구센터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5
한림읍 대림리

목 차

Ⅰ. 사업 개요 ····· 5
1. 사업 목적 ····· 5
2. 사업 기간 ····· 5
3. 연구 참여자 ····· 5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 6
5. 사업 추진 과정 ····· 7
6. 표준어 대역 ····· 8
7. 주석 ····· 8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 8

Ⅱ. 구술 자료 ····· 11
1. 조사 마을 ····· 11
2. 제보자 일생 ····· 47
3. 밭일 ····· 80
4. 들일 ····· 162
5. 바다일 ····· 225
6. 의생활 ····· 254
7. 식생활 ····· 307
8. 주생활 ····· 380
연구 참여자 ····· 440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진행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결과물인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여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3개년에 걸쳐 이루어진 채록 사업의 성과물인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1~36)는 현장에서 조사된 내용을 그대로 전사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은 물론 어휘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보고서는 제주어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서 보고서 활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의 제한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주어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다는 작업이 불가결한 일이다.

나아가 표준어로 대역하고 주석을 달아 만든 ≪제주어구술자료집≫ 발간은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 제12조에도 부합한 일로,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2. 사업 기간

2020년 3월 10일~2020년 12월 31일

3. 연구 참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연구진은 2014년부터 시작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의 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현지 조사와 표준어 대역 담당자를 가급적 동일하게 함으로써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4년 조사한 대정읍 구억리와 애월읍 봉성리, 2015년 조사한 한림읍 대림리의 구술 채록 보고서는 자료의 양이 적어서 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 조사하였다. 이미 조사한 내용과 제보자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보자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제보자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어 대역’ 사업의 연구진 현황과 그 역할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진 현황과 역할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의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는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지점과 제보자·조사자

번호	조사 지점	제보자	조사자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5. 사업 추진 과정

‘2020 제주어 채록 사업 자료 표준어 대역 발간 및 보급 사업’은 약 9개월이 소요되었다. 현지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추가 채록을 실시하고, 조사된 내용을 전사하도록 하였다.

전사의 통일성과 표준어 대역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달 한 차례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구진 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열렸는데, 이때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제주어 표기와 표준어 대역을 통일하려고 애썼다. 연구진 모임을 매달 가진 것은 오류를 가급적 줄이고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다음은 회의를 거치며 통일시킨 내용이다.

- 제주어 표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체언과 조사,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 개인 정보는 숨김표로 표시하고, 청취가 안 되는 부분은 음절수만큼 꽃표(**)를 사용하였다.
- 필요하지 않은 잡담은 삭제하였다.
-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와 표준어를 동일하게 하였다.
- 문장부호 가운데 마침표와 쉼표는 휴지(休止)와 문맥에 따라 표시하였다.
- ‘하다’의 경우 ‘ᄒᆞ다’가 아닌 경우는 ‘허다’로 표기했다. ‘허는구나, 헷구나’처럼 ‘ㅓ’로 통일했고, 분명하게 ‘하다’로 발음한 경우에는 ‘하다’도 허용하였다.
- 제보자의 발음이 표기와 다르게 나는 경우는 발음기호인 대괄호([ ]) 안에 표기하였다.
- 보고서의 번호는 2019년에 이어 제주시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순서대로 부여하였다. 따라서 ‘제주시 외도동’ 구술 자료가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29』가 되는 것이다. 구술 자료의 @는 조사자, #은 제보자라는 표시이다. 제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1, #2, #3 …처럼 표시하였다.
- 활자 크기는 11포인트로 하고, 첫 줄은 ‘들여쓰기’를 하였다.
- 장 구분은 두 줄을 띄었다.

한편 월별에 따른 주요 추진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에 따른 추진 내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지 추가 조사										
추가 전사										
표준어 대역										
자료집 편집·교열, 감수										
자료집 발간										

6. 표준어 대역

표준어 대역의 근거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두었으며, 몇 가지 원칙을 정하여 통일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된 자료 가운데 10시간 분량의 구술 자료를 표준어로 대역하였다. 이는 제보자에 따른 구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다.
- 조사된 내용 순서에 따라 표준어 대역을 하였다. 곧 조사자와 제보자가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표준어 대역 또한 이에 따랐다.
- 표준어 대역은 소괄호(( )) 안에 넣었다.
- 표준어 대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문맥에 맞게 의역할 경우는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 대응 표준어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어를 그대로 옮겨 작은따옴표(‘ ’)로 표시하고, 주석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예: ‘바령팟’을)
- ‘에, 으’ 따위의 담화 표지도 가급적 그대로 두었다.
- 외래어는 번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대로 두었다.

7. 주석

주석은 원칙적으로 표준어로 바꿀 수 없는 경우, 문맥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쓰인 경우, 지명 등 부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주석은 각주로 하되, 제주어에 각주 번호를 부여하였다.
- 주석은 주어-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 주석의 대상은 대응 표준어가 없을 경우, 본래의 뜻과 달리 쓰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경우 등으로 하였다.
- 지명인 경우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주석을 달았다.
- 동일한 내용을 주석으로 처리할 때는 면수(3~4면 간격)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8. 제주어 구술 자료집 일람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간한 ≪제주어구술자료집≫은 <표 4>와 같다.

<표 4> 조사 지점과 제보자·연구자

번호	조사 지점	구술 제보자	연구자
1	제주시 도련1동	양상수, 이술생, 이영숙, 김옥순, 이성칠	김순자
2	조천읍 선흘1리	조수용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수생, 김민순	김선희
4	성산읍 고성리	김두하, 정계춘	김승연
5	표선면 표선리	고옥년, 송봉휴	허영선·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고영주, 정갑선	김보향
7	서귀포시 보목동	강진우, 김금전, 양정상, 이정선, 현원후, 한승옥	최연미
8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신원홍, 고희정	김성용
9	한경면 고산리	김인세, 이영형, 이술색	신우봉
10	한림읍 월령리	강춘랑, 고상춘, 양창부, 문국자	안민희
11	조천읍 함덕리	한아섭, 이용진	김미진
12	구좌읍 한동리	오문봉, 오태봉	김보향
13	성산읍 삼달리	김해생	김미진
14	표선면 성읍리	송순원, 이미생, 현신생	김순자·허영선
15	남원읍 수망리	김상옥, 김두천, 현금옥, 김승남, 고신화	최연미
16	서귀포시 하원리	김기연, 오연옥	김승연
17	안덕면 대평리	강인숙, 양성지	김성용
18	대정읍 신도리	변동휘, 이부자, 유순옥, 박창임, 김희옥, 진옥열	신우봉
19	한경면 청수리	문창림, 강성현, 강대흥, 이오생, 오옥희, 김춘선, 강영래, 고성이, 박성요, 오행순	안민희
20	애월읍 고내리	고두규, 장윤삼, 고원방	김보향
21	조천읍 신촌리	김옥녀, 이명언	안민희
22	제주시 우도면	한두영, 고옥녀, 홍한옥	김승연
23	성산읍 온평리	송옥금, 강문홍, 강백년	김순자·허영선
24	표선면 세화리	강필문, 고옥화, 송인생, 장술생, 강기수, 김청자, 현봉화, 김양선	최연미
25	남원읍 태흥리	오윤생	김미진·권미소
26	한경면 신창리	진인중, 이순녀	김보향
27	한림읍 옹포리	장경욱, 양순자, 장정자, 김화원	신우봉
28	애월읍 구엄리	김여환, 홍창자	김성용
29	제주시 외도동	김용국, 김건웅, 김창영, 이옥희, 강옥자, 고창휘	김순자·허영선
30	제주시 노형동	문춘자, 현춘화	안민희·김보향
31	서귀포시 토평동	조풍자, 김수절, 양성아	김보향
32	안덕면 덕수리	양기옥, 김동권	김순자·최연미
33	대정읍 인성리	정인춘	김미진·권미소
34	대정읍 구억리	강영지, 임춘자	김성룡
35	한림읍 대림리	김한보, 홍국진	문덕찬
36	애월읍 봉성리	강규방, 김화자	고창근

Ⅱ. 구술 자료

(@ 문덕찬, #1 김한보, #2 홍국진)

1. 조사 마을

101001 @ 대림리 마을 형성에 대허영 한 번 골아줘봅서.(대림리 마을 형성에 대해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1001 #1 대림리[1] 마을 형성이라든지 그 입주가 시작헷던 것은 사실은 저 지금 뭐 저 증거는 엇수다. 웨 그런고 허며는 과거에 리 내에 잇는 어디 자체적으로 거 서적으로 남아낫는디 그 중간에덜 다 어지럽다고 다 불태와 불엇어마씨. 겐 없는데 우리 향지를 만들 때도 게 헤십주게. 설촌 유력에 보며는 약 육백여 년 전으로 셍각이 뒈는데, 거기에 거 흔 칠십이, 칠십일 년도에, 이 년도꺼지는 그 저장고를 헤볼까 헤서 지금 이 저 한림매일시장허곡 그 주유소 잇는 뒤에 좀 굴이 잇엇수다게. 그때 사람덜이 걸 정리허다 보니까, 그 저 석기가 나왓어마씨. 돌, 저, 도끼라든지, 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레 나와낫는데, 그걸로 볼 때는 아주 오랜 옛날에, 석기시대 사름이 살앗다는 걸 추측이 뒈는데, 것은 그저 그 어떤 서류상으로는 읏고 단 석기로 봐서는 그때 살아낫다는 걸 알 수 잇엇는데.(대림리 마을 형성이라든지 그 입주가 시작했던 것은 사실은 저 지금 뭐 저 증거는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은 과거에 리 내에 있는 어디 자체적으로 그거 서적으로 남았었는데 그 중간에들 다 어지럽다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없는데 우리 그래서 향지를 만들 때도 그렇게 했었지요. 설촌 내력에 보면은 약 육백여 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거 한 칠십이, 칠십일 년도에, 이 년도까지는 그 저장고를 해볼까 해서 지금 이 저 한림매일시장하고 그 주유소 있는 뒤에 좀 굴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저 석기가 나왔어요. 돌, 저, 도끼라든지, 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리 나왔었는데, 그걸로 볼 때는 아주 오랜 옛날에, 석기시대 사람이 살았다는 것이 추측이 되는데, 그것은 그저 그 어떤 서류상으로는 없고 단 석기로 봐서는 그때 살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101001 @ 그게 어디에 잇어낫수가?(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101001 #1 그게 지금 이야기헴수게. 그 저 오일장허고 오일장 이짝에 주유소 잇지 아니허꽈? 주유소 잇는 뒤 밧디덜 잇어낫수다. 굴을 파단 보니까. 굴이 잇어십주기. 잇어낫는데 거길 보니까 저, 임○○씨허고 이젠 돌아갓수다마는 흔 멧 사름덜이 거길 파다보니까 것이 나와 가지고 그때.(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 오일장하고 오일장 이쪽에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 있는 뒤 밭에들 있었습니

1) '대림리'는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이다.

다. 가서 굴을 파다 보니까. 굴이 있었습지요. 있었었는데 거길 보니까 저, 임○○씨하고 이젠 돌아갔습니다만 한 몇 사람들이 거길 파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서 그때.)

101001 @ 혹시 고인돌이 거기 잇인 건 아니고마씨? 돌 영 헤 가지고, 돌 영 허는 거 잇지 안허꽈?(혹시 고인돌이 거기 있는 건 아니고요? 돌 이렇게 해 가지고, 돌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1001 #1 아이, 그건 엇고마씨. 그래가지고 걸로 볼 때는 석기 시대부떠 사름이 살다가, 그 살아낫다는 것을 증명헐 수 엇주마는, 지금 현재 확실헌 것도 엇주마는 대개 우리 대림리는 한 육백여 년 전이부떠 사름이 살지 안헷는가, 건 뭐냐며는 각 족보별로 성씨덜 족보를 따준다든지 뚜로 저 우리가 볼 때는 약 육백 년 내지 칠백 년 정도가 설촌뭰 유래가 뒈어 잇고.(아니, 그건 없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볼 때는 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다가, 그 살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확실한 것도 없지만 대개 우리 대림리는 한 육백여 년 전에부터 사람이 살지 안했는가, 건 뭐냐면 각 족보별로 성씨들 족보를 따준다든지 또, 저 우리가 볼 때는 약 육백 년 내지 칠백 년 정도가 설촌된 유래가 되어 있고.)

101001 @ 게믄 조선 시대 전에 고려 시대 쯤 뒈겟네예.(그러면 조선 시대 전에 고려시대 쯤 되겠네요.)

101001 #1 예, 그렇게 뒈고 그게 그 각 씨족별로 족보를 통일헤 보면 그렇게 뒛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는 과거에는 대림리를 선돌[2], 입석[3]이라고 불러오다가 그게 그 저 대림이라고 헌 것은, 그때 선돌이라고 불러오다가 그 지역 펭창헷다 헤가지고 그 다음부떠는 대림이라고 불러난 건디, 한 육백여년 전이부떠는 대림이라고 헷수다.(예, 그렇게 되고 그게 그 각 씨족별로 족보를 통일해 보면 그렇게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당시는 과거에는 대림리를 '선돌', '입석'이라고 불러오다가 그게 그 저 대림이라고 한 것은, 그때 '선돌'이라고 불러오다가 그 지역 팽창했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대림이라고 불렀던 건데, 한 육백여 년 전에부터는 대림이라고 했습니다.)

101001 @ 거 어디 선돌이 어디 잇긴 잇수가?(그거 어디 선돌이 있긴 있습니까?)

101001 #1 예, 저 선돌이 잇수다. 어디 저, 그게 그 우에 크게 잇어낫는데 수원[4] 농지 정리 사업허면서 더러 우의 것은 멜라져 불고 현재 그것이 그 천구백 번진가 그건 향지에 나왓수다만.(예, 저 선돌이 있습니다. 어디 저, 그게 그 위에 크게 있었었는데 수원 농지 정리 사업하면서 더러 위에 것은 무너져 버리고 현재 그것이 그 천구백 번진가 그건 향지에 나왔습니다만.)

101001 @ 향지에예?(향지에예?)

101001 #1 도로변에 수원허고 대림더레 도로변에 이십주게. 그래서 그 돌을 놓고 선돌이라고 허고 입석이라고도 헤나십주게. 게서 거길 중심으로 헤가지고 사름

2) '선돌'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의 옛 지명이다.
3) '입석'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의 옛 지명으로 '선돌', '입석촌', '입석동' 모두 같은 지명이다.
4) '수원'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이다.

이 살아난 것을 생각이 뒈어마씀. 그 원인은 그 저 그 돌, 돌로 흔 벡 메다쯤 ᄌᆞᄁᆞ디는 ᄄᆞ로 탑이 잇엇수다. 예, 탑도 잇엇는데 그 탑도 역시 수원 농경지 정리 사업 허면서 것을 없애버려 가지고 그 ᄌᆞᄁᆞ디는 지금 농업용수 땅꼬가 그 ᄌᆞᄁᆞ디 올라간 잇수다.(도로변에 수원하고 대림으로 도로변에 있습지요. 그래서 그 돌을 놓고 '선돌'이라고 하고 '입석'이라고도 했었습지요. 그래서 거길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살았던 것을 생각이 되어요. 그 원인은 그 저 그 돌, 돌로 한 백 미터쯤 곁에는 따로 탑이 있었습니다. 예, 탑도 있었는데 그 탑도 역시 수원 농경지 정리 사업 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려서 그 곁에는 지금 농업용수 탱크가 그 곁에 올라간 있습니다.)

101001 @ 물땅꼬.(물탱크.)

101001 #1 예, 그걸 그렇게 올라가 잇어가지고 그, 선돌이라고 허다가 게서 이제 대림이라고 헷고, 대림은 왜 대림이라고 헷느냐면 아까 첨 말이 바뀌엇수다게. 그 선돌이라고 허게 뒌 동기는 그 돌로 인해가지고, 예.(예, 그걸 그렇게 올라가 있어서 그, '선돌'이라고 하다가 게서 이제 대림이라고 했고, 대림은 왜 대림이라고 했냐면 아까 참 말이 바뀌었습니다요. 그 '선돌'이라고 하게 된 동기는 그 돌로 인해서, 예.)

101001 @ 입석 잇으니까?(입석 있으니까?)

101001 #1 예, 입석 잇으니까 선돌이라고 헤 오다가 그다음엔 우리 대림리가 글자 그대로 이 한림읍이라든지 이 일대에서 그 옛 어르신덜 말에 의하면은 남방에[5], 큰 남방에ᄀᆞ뜬 거예, 그게 그 대림 순두내[6] 근처에서 나무를 비어다가 남방에라든지 ᄀᆞ레, ᄀᆞ렛방에[7], ᄀᆞ렛도고리[8], 도고리를 다 팟다는 것을 옛 어른덜이 우리 대림 사름만 아니라, 한림[9] 이 근처 사름들은 다 이야기를 허는 걸 볼 때, 아, 대림은 그만큼 그 밀림지대엿구나.(예, 입석 있으니까 '선돌'이라고 헤 오다가 그다음엔 우리 대림리가 글자 그대로 이 한림읍이라든지 이 일대에서 그 옛 어르신들 말에 의하면은 '남방에', 큰 '남방에'ᄀᆞ뜬 거예, 그게 그 대림 '순두내' 근처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남방에'라든지 맷돌, 'ᄀᆞ렛방에', 'ᄀᆞ렛도고리', 함지박을 다 팠다는 것을 옛 어른들이 우리 대림 사람만 아니라, 한림 이 근처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 아, 대림은 그만큼 그 밀림지대였구나.)

101001 @ 숲이 큰.(숲이 큰.)

101001 #1 예, 예, 숲이 짓어노난, 이런 생각을 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적[쩍]으로 돌고 보면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땅덜이 비옥허여마씨. 구릉들[뜰] 땅이라고 허면은. 겐 이 거기서 목축도 허고 소도 길르면서 대림리, 거기서부떠 살기 시작헷구나, 이렇게 생각이 뒈고. 그 탑을 왜 세왓느냐 허면은 건 그 건해[10], 우리

---

5) '남방에'는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이다.
6) '순두내'는 대림리와 한림리로 이어지는 건천이며, 비가 많이 올 때는 한림항으로 흐른다.
7) 'ᄀᆞ렛방에'는 사람의 손으로 돌려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기구, 또는 마소로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큰 매이다.
8) 'ᄀᆞ렛도고리'는 맷돌을 들여앉히고 갈 때 밑에 밭쳐 쓰는 큰 함지박이다.
9)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이다.
10) '건내'는 터를 볼 때 지관들이 쓰는 방위에 관한 말이며 서북방을 말한다.

대림선 거기.(예, 예, 숲이 울창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주도적으로 돌고 보면 지금이나 그 옛날이나 땅들이 비옥해요. 구릉들 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거기서 목축도 하고 소도 기르면서 대림리, 거기서부터 살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탑을 왜 세웠느냐 하면은 건 그 '건해', 우리 대림에선 거기.)

101001 @ 건해?('건해'?)

101001 #1 건해, 예, 건해가 비니까, 것을.('건해', 예, '건해'가 비니까, 것을.)

101001 @ 거 무슨 뜻이우꽈? 건해.(거 무슨 뜻입니까? '건해'.)

101001 #1 건, 지리학, 요즘 지관덜이 이야기 허는 걸 그 저.(건, 지리학, 요즘 지관들이 이야기 하는 걸 그 저.)

101001 @ 건, 아, 그 건자, 한자로.(건, 아, 그 건자, 한자로.)

101001 #1 예, 그 한자로 다 잇수다마는, 그래가지고 거기 탑도 세와가지고 대림리 그 저 그 양, 양 어깨를 보호한단 뜻으로 걸 세우고 뚜로, 그 입석[11]이엔 헌 것은 뚜로, 저 선돌 더 막아 올린 원인은 에, 과거에는 그 수원리가 우리 대림리에서 신미년에, 수원리 설촌햇습니다게. 것도 다 우리 대림이라나십주게.(예, 그 한자로 다 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 탑도 세워서 대림리 그 저 그 양, 양 어깨를 보호한단 뜻으로 그것을 세우고 또, 그 '입석'이라고 또, 선돌 더 막아 올린 원인은 에, 과거에는 그 수원리가 대림리에서 신미년에, 수원리 설촌되었습니다. 것도 다 우리 대림이었었지요.)

101001 @ 원래 다 대림이엇는데.(원래 다 대림이었는데.)

101001 #1 대림이랏는데 수원서가 그 탑도 세우고 뚜로, 그 선돌 위에가 뚜로, 큰 돌 올려놔나십주게. 것을 올려두면은 수원서는 저 을신[12]이 동허면, 동허면은 그 수원이 헤롭다 이겁니다.(대림이었었는데 수원서가 그 탑도 세우고 또, 그 선돌 위에 또, 큰 돌 올려놨었지요. 그것을 올려두면 수원서는 저 '을신'이 동하면, 동하면 그 수원이 해롭다 이겁니다.)

101001 @ 아, 을신?(아, '을신'?)

101001 #1 예.(예.)

101001 @ 을신이 동허면?('을신'이 동하면?)

101001 #1 을신방이니까예. 거 동헌다는 게 높으면 말입니다, 동허면 자기네가 헤롭다 이레가지고 허니까 대림서는 대림서 갈라간 부락이주마는, 아, 걸 올려두며는 내리촤불고. 내리촤불고 헤 가지고, 그 상당히, 예.('을신방'이니까예. 거 동한다는 게 높으면 말입니다. 동하면 자기네가 해롭다 이래서 하니까 대림어서는 대림에서 갈라진 부락이지만, 아, 걸 올려두면 내리쳐버리고. 내리쳐버리고 해 가지고, 그 상당히, 예.)

101001 @ 싸움을 헤낫구나.(싸움을 했었구나.)

---

11) '입석'은 대림리에서 수원리로 가는 길목에 선돌이 있다. 선돌은 입석이라고 하여 마을 이름이 '선돌', '입석촌'으로 불리었다.

12) '을신'은 터를 볼 때 지관들이 쓰는 방위에 관한 말이며 동남방을 말한다.

101001 #1 우 알력 부락에서 알력이 생겨십주게. 겐디 그때 ᄆᆞ침 그 ᄌᆞ꼿디 살아난 박○○이엔 헌 사름이 그 우에 올려논 돌을 혼자 들다시피 헤 가지고, 그렇게 힘이 장사라난 사름이 잇어 가지고 그런 알력이 잇엇고. 그 돌을 더 보호한 원인이 그 지형상으로 대림은 건내고 수원은 을신내방이니까 그걸 내리촤놧다는, 이렇게 헤 가지고 그 유치가 뒈엇는데, 다음 ᄯᅳ로 지세상으로는 게 가지고 싸왓주마는 대림은 그 베 형국이라 헤낫습니다예, 과거에는. 형체가 전체로 보며는 그 베가 들어오는 형체라 헤 가지고 베 형국, 베 형국 헤낫는데 그것도 역사상으로 보며는 요기 조금 넘어간 디 저 베중이왓[13]이라 헤가지고 베가 들어와서 머무는 곳이다 이레 가지고 허는디, 거기 높은 동산 잇어가지고 베중이왓이고.(위 아래쪽 부락에서 알력이 생겼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곁에 살았던 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위에 올려놓은 돌을 혼자 들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힘이 장사였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런 알력이 있었고. 그 돌을 더 보호한 원인이 그 지형상으로 대림은 건내고 수원은 을신내방이니까 내리쳐버렸다는,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유치가 되었는데, 다음 또 지세상으로는 그거 가지고 싸웠지만 대림은 그 배 형국이라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형체가 전체로 보면 그 배가 들어오는 형체라 해 가지고 배 형국, 배 형국 했었는데 그것도 역사상으로 보면 요기 조금 넘어간 데 저 '베중이왓'이라 해가지고 배가 들어와서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 높은 동산 있어가지고 '베중이왓'이고.)

101001 @ 베중이왓?('베중이왓'?)

101001 #1 예, 건, 밧, 왓이라고 헌 건 밧을 의미하는 겁니다.(예, 건, 밭, 밭이라고 한 건 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101001 @ 베중이왓.('베중이왓'.)

101001 #1 예, 그 ᄌᆞ꼿딘 그 저 무덤을 볼 때도 거기에 그 저 옛날 절충장군이라든지 ᄯᅳ로 저 유격대장이라고 헤십주, 그 비문에 보며는. 양 씨 묘인디 그 저 베중이왓 거기 묻엇는데, 걸로 보더라도 옛 어른덜 그 저 베 형국이라 알다시피 베가 그 지세상으로 저 서쪽을 향헤서 그 산을 씌야 헐 건디, 저 그 묘를, 겐디 건 저 남쪽으로 돌린 원인이 옛 어른덜의 말에 의하면 베 치가 영 반대로 돌아가지 안 헙니까예?(예, 그 곁에는 그 저 무덤을 볼 때도 거기에 그 저 옛날 절충장군이라든지 따로 저 유격대장이라고 했었지, 그 비문에 보면. 양씨 묘인데 그 저 '베중이왓' 거기 묻었는데, 걸로 보더라도 옛 어른들 그 저 배 형국이라 알다시피 배가 그 지세상으로 저 서쪽을 향해서 그 산을 써야 할 건데, 저 그 묘를, 그런데 건 저 남쪽으로 돌린 원인이 옛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배 키가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요?)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그래 가지고, 그 산을 그렇게 썻다, 이렇게 허고 걸 중심으로 헤 가지고.(그래 가지고, 그 산을 그렇게 썼다, 이렇게 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101001 @ 지금으로 보면 위치가 어느 정도쯤 됩니까?(지금으로 보면 위치가 어

13) '베중이왓'은 대림리 근처에 있는 배 모양의 밭이 있는 지명이다.

느 정도쯤 됩니까?)

101001 #1 위치는 까깝수다. 여기. 우리 동네 밋테고.(위치는 가깝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 밑이고.)

101001 @ 그 저 천주교회 잇는 쪽은 아니고?(그 저 천주교회 있는 쪽은 아니고?)

101001 #1 아니.(아니.)

101001 @ 거긴 아니고?(거긴 아니고?)

101001 #1 예, 그래서 아주 거 베중이왓이라고 헌 것이, 배 형국이 증거로 뚜로 돗통밧[14]이라고 잇수다. 건 뭐냐면은.(예, 그래서 아주 거 '베중이왓'이라고 한 것이, 배 형국이 증거로 또, '돗통밧'이라고 있습니다. 건 뭐냐면.)

101001 @ 돗통?('돗통'?)

101001 #1 예, 네 젓을 돗 자예. 그때 그 아, 삿대 돗 자, 삿대 돗 자 써 가지고 그, 글로 베가 들어오며는 영 삿대질허면서 그레 올라가낫다 헤 가지고 거 저 돗통밧, 돗통밧 이름이 잇고.(예, 노 저을 돛자예. 그때 그 아, 삿대 돛자. 삿대 돛자 있어 가지고 그, 글로 배가 들어오면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그리 올라갔었다 해 가지고 거 저 '돗통밧', '돗통밧' 이름 지어 있고.)

101001 @ 그건 한수리[15]?(그건 한수리?)

101001 #1 아닙니다, 것도 우리 대림.(아닙니다, 것도 우리 대림.)

101001 @ 원래 수원리, 현재는 그게 한수리꽈? 수원이꽈?(원래 수원리, 현재는 그게 한수리입니까? 수원입니까?)

101001 #1 아니. 대림이우다.(아니. 대림입니다.)

101001 @ 지금도 대림?(지금도 대림?)

101001 #1 예.(예.)

101001 @ 아, 그러면 그 대림이 지금 바당에 부터 잇구나예? 어딘가.(아, 그러면 그 대림이 지금 바다에 붙어 있구나? 어딘가.)

101001 #1 대림 그거 바당 관계를 이야기허쿠다. 그 저 그렇게 뒈어서 돗통밧이 잇고 뚜로 저 그 향사 앞에는 두수개[16]라는 것이 잇습니다.('대림' 그거 바다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저 그렇게 되어서 '돗통밧'이 있고 따로 저 그 향사 앞에는 '두수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101001 @ 두수개?('두수개'?)

101001 #1 예, 건 그 개밧이라고 헤 가지고, 두수개 자를 써 가지고 베가 들어오는 곳, 그렇게 가는 디가 잇고. 또 대림 저 로타리 ᄌᆞᆺ디 보믄 동산 잇는데, 거기가 돗대 세와난 흔적이 잇어낫는디 그 돗대는 해방.(예, 건 그 '개밧'이라고 해 가지고, 두수개자를 써 가지고 배가 들어오는 곳, 그렇게 가는 데가 있고. 또 '대림' 저 로터리 곁에 보면 동산 있는데, 거기가 돛대 세웠던 흔적이 있었었는데 그 돛대

14) '돗통밧'은 대림리 근처에 있는 된 밭 이름이다.
15) '한수리'는 한림읍 한수리이다.
16) '두수개'는 한림읍 대림리 이사무소 앞에 있는 지명이다. '개밧'이라고도 한다.

는 해방.)

101001 @ 대림 동산이엔 허믄 천주교 쪽 동산 말이우꽈?('대림' 동산이라고 하면 천주교 쪽 동산 말입니까?)

101001 #1 아니.(아니.)

101001 @ 거 저 더 올라왕?(거 저 더 올라와서?)

101001 #1 예, 거.(예, 거.)

101001 @ 더 올라왕 예?(더 올라와서 예?)

101001 #1 리 사무소 ᄒᆞ끔 더 올라왕. 로타리가 잇는 그 ᄌᆞᄁᆞ디 ᄒᆞ고 ᄯᅳ로 섯동네[17]에 보면 거기 돗대가 들어가난 돗대가 잇고 ᄯᅳ로 저 섯동네라 헤 가지고 수원 올라가는 그 ᄌᆞᄁᆞ디 ᄒᆞᆫ 밧 들어간 디가 거기가 저 돗대 세와난 것이 잇수다. 그 돗대는 언제ᄁᆞ지 잇엇냐 허며는 일제 말엽ᄁᆞ지도 그것을 리 사무소 정문에 양쪽으로 세와 가지고 기둥을 헤낫수다. 게 그 돗대 그것이 잇어서, 그걸 배 형국이라 헷고. 헤서 그 건 옛 지관덜이 베 형국이다 이렇게 일컬엇습니다게.(이 사무소 조금 더 올라와서. 로터리가 있는 그 곁에 하고 따로 '섯동네'에 보면 거기 돛대가 들어갔던 돛대가 있고 따로 저 '섯동네'라 해 가지고 수원 올라가는 그 곁에 한 밭 들어간 데가 거기가 저 돛대 세웠던 것이 있습니다. 그 돛대는 언제까지 있었냐 하면 일제 말엽까지도 그것을 이 사무소 정문에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 기둥을 했었습니다. 게 그 돛대 그것이 있어서, 그걸 배 형국이라 했고. 해서 그 건 옛 지관들이 배 형국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요.)

101001 @ 그거는 이제 남아잇는 것이 엇고마씨?(그거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없고요?)

101001 #1 예, 겐디 또 그디 수원은 어째서 그, 그 우리 대림에 잇을 때 수원이 와서 거기 입주허기로는 거 연도는 잘 모르겟습니다만 거 향지엔 잇수다. 그디 저 김○○라는 경주 김씨 할으버지가 거기 와서 입주헐 때 셔 가지고 그때 수원이라 안 허고 ᄌᆞ물케[18].(예, 그런데 또 거기 수원은 어째서 그, 그 우리 대림에 있을 때 수원이 와서 거기 입주하기로는 거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 향지엔 있습니다. 거기 저 김○○라는 경주 김씨 할아버지가 거기 와서 입주할 때 있어 가지고 그때 수원이라 안 허고 'ᄌᆞ물케'요.)

101001 @ ᄌᆞ물케?('ᄌᆞ물케'?)

101001 #1 예, ᄌᆞ물케라고 헤 가지고 대림리 잠수동, 잠수동이라 헷수다. 그것이 우리 비로소 수원도 대림이엇고, 또 한림은 ᄯᅳ로 역시 그 갑신년에 대림이라낫다가.(예, 'ᄌᆞ물케'라고 해 가지고 대림리 '잠수동', '잠수동'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비로소 수원도 대림이었고, 또 한림은 또 역시 그 갑신년에 대림이었다가.)

101001 @ 갑신년이믄?(갑신년이면?)

101001 #1 그 저 천팔백팔십일[19] 년도우다.(그 저 천팔백팔십일 년도입니다.)

---

17) '섯동네'는 대림리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동네 이름이다.
18) 'ᄌᆞ물케'는 한림읍 수원리의 옛 이름이다.
19) '천팔백팔십일'은 제보자가 갑신년을 1884년을 1881년으로 잘못 말했다.

101001 @ 아, 그때 분구가 뒛구나.(아, 그때 분구가 됐구나.)

101001 #1 예, 그때에 상대[20]허고 한림이 그때도 우리 대림서 분리뒈십주게. 분리뒈고 헷는데 왜 수원은 일쯕 뒈고 한림은 나중에 뒛느냐, 게믄 그때는 해상으로 겨울 들면은 바다에 가 가지고 죽은, 그 해상으로 늘 시체가 올라오면은.(예, 그때에 상대하고 한림이 그때도 우리 대림에서 분리되었습지요. 분리되고 했는데 왜 수원은 일찍 되고 한림은 나중에 됐느냐, 그러면 그때는 해상으로 겨울 들면 바다에 가 가지고 죽은, 그 해상으로 늘 시체가 올라오면.)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거 저 거기서 책임지라고 헤 가지고 대림서 막 떼몰아나십주게. 그게 한림 매립허기 전이니까, 겐, 게노니까 이젠 그 수원서도 거리가 멀어 가지고 막 또 저 ᄆᆞ을 분리허겟다고도 허고 허니까 어짜피 에이 저것덜 끊엉 메껑, 저 영장 치우렌 허젠.(거 저 거기서 책임지라고 해가지고 대림서 마구 다몰았지요. 그게 한림 매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랬었으니까 이젠 그 수원서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마구 또 저 마을 분리하겠다고도 하고 하니까 어차피 에이 저것들 끊어서 맡겨서, 저 송장 치우라고 하려고.)

101001 @ 하하. 그니까 바다가 갈라져 불어사, 시체 올라와도 그디서 알앙 처리헐 거니까.(하하.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려야, 시체 올라와도 거기서 알아서 처리할 거니까.)

101001 #1 그래 가지고 저 거긴 신미년에 수원이 분리뒈십주게. 분리뒛는데.(그래 가지고 저 거긴 신미년에 수원이 분리됐습지요. 분리됐는데.)

101001 @ 신미년이면 멧 년도우꽈?(신미년이면 몇 년도입니까?)

101001 #1 신미년이 그 저, 나갈 때 대림리 향지 드리쿠다.(신미년이 그 저, 나갈 때 '대림리' 향지 드리겠습니다.)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그때 분리가 뒈엇고, 한림은 갑신년이라면 천팔백팔십이 년이우다. 그때 한림허고 상대도, 상대는, 신미년보다는 흔 칠팔십 년 나중인디예, 갑신년보다는. 게서 거기는 또 한림서는 거 어디고, 멩랑동[21]이엔 헌 디서부떠 살기 시작혜십주.(그때 분리가 되었고, 한림은 갑신년이라면 천팔백팔십이 년입니다. 그때 한림하고 상대도, 상대는, 신미년보다는 한 칠팔십 년 나중인데, 갑신년보다는. 그래서 거기는 또 한림에는 거 어디고, '멩랑동'이라고 한 데서부터 살기 시작했었지.)

101001 @ 예. 멩랑동.(예. '멩랑동'.)

101001 #1 살기 시작혜 가지고 걸, 거리도 멀고, 여기 오니까 항상 그 상동에는 옛부떠 사름이 많이 살고 거긴 족게 다녀서 허니까, 괄세 받아지고 허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분리허겟다고 막 헤 가지고 걸.(살기 시작해 가지고 걸, 거리도 멀고, 여기 오니까 항상 그 상동에는 옛부터 사람이 많이 살고 거긴 적게 다녀서 하니까,

20) '상대'는 한림읍 상대리이다.
21) '멩랑동'은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괄시 받아지고 하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분리하겠다고 마구 해 가지고 걸.)

101001 @ 한림 쪽에서?(한림 쪽에서?)

101001 #1 예, 저도 분리뭰 디는, 분리뭰 연도는 확실히 그 저가 얘기헌 대로 천팔백팔십이 년도에, 갑신년도 분리가 뒈신디, 그때 그 분리가 뒈멍서라 그 부락 내에서 이웃 부락간에 소송도 잇고, 거 뭣고 저 싸움이 잇어나신디, 건 왜 그런고 허면은 한림 그 한림 거 이리에 보며는 대림허고 분리뒈난, 게서 거 소송헤난 저 뭣고 판결문덜이 잇어낫수다.(예, 저도 분리된 데는, 분리된 연도는 확실히 그 저가 얘기한 대로 천팔백팔십이 년도에, 갑신년도 분리가 됐는데, 그때 그 분리가 되면서 곧 그 부락 내에서 이웃 부락 간에 소송도 있고, 거 무엇이고 저 싸움이 있었었는데, 건 왜 그런 것인가 하면은 한림 그 한림 거 이리에 보면 대림하고 분리되니까, 게서 거 소송했던 저 무엇이고 판결문들이 있었습니다.)

101001 @ 한림이리 사무소에?(한림이리 사무소에?)

101001 #1 예, 이리에, 우린 그건 읏어나십주, 엇어나신디, 게 대림 상대허겟다고 허니까 양계장이 고문서 그디 잇수가 허난, 아이 고문서 읏덴 허니까 아 우리 동네에 이 사무소에 공문서가 잇수다 헤 가지고 그걸 보니까 연도꺼지도 팔십일 년도에 분릴 허면서 그 사름들이 저 그냥 분리헌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잇어십주기. 저 경계를 어딜로 허라, 뚜로 해상 상으로는 해초잡이 무신거 저 경계선을 이 한림 서쪽에는 한림서 허겟다, 싸움 알력이 잇어노니까, 거 또 상동에서 갈라갓으니까 상동에 잇는 그 부락 내 공금, 돈 하고 그땐 그 돈 하고 뚜로 저 땅덜토 갈라 달라, 게도 우리 대림서는 텃세로 그걸 아이 갈라줘십주게. 알력 잇당 두 번이나 걸 소송을 헤도 베, 그 갈라가지믄 갈라갓주, 그거꺼지도 뭐 어떵 헐 거 뭐 잇냐, 야튼 판결을, 판결문은 경 나와십디다. 그렇게 헤 가지고 걸 아이 뭰 허는디.(예, 이리에, 우린 그건 없었지요, 없었는데, 게 대림 상대하겠다고 하니까 양계장이 고문서 거기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 고문서 없다고 하니까 아, 우리 동네에 이 사무소에 공문서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보니까 연도까지도 팔십일 년도에 분리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 그냥 분리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지요. 저 경계를 어디로 하라, 따로 해상 상으로는 해초잡이 무엇 저 경계선을 이 한림 서쪽에는 한림에서 하겠다, 싸움 알력이 있었으니까, 거 또 상동에서 갈라갔으니까 상동에 있는 그 부락 내 공금, 돈 하고 그땐 그 돈하고 따로 저 땅들도 갈라달라, 그래도 우리 대림서는 텃세로 그걸 아니 갈라줬지요. 알력 있다가 두 번이나 걸 소송을 해도 배, 그 갈라가지면 갈라갔지, 그거까지도 뭐 어떻게 할 거 뭐 있느냐, 아무튼 판결을, 판결문은 그렇게 나왔습디다. 그렇게 해가지고 걸 아니 된 하는데.)

101001 @ 그땐 게믄 그게 개인 땅이 아니고? 부락 땅?(그땐 그러면 그게 개인 땅이 아니고? 부락 땅?)

101001 @ 예, 예, 그건 부락 땅. 그렇게 헤십주게. 아, 그렇게 헤 부니까 또 그것만 그 당시 헌 게 아니라 그 한림서는 지금 한림 그 저 도항선 메는 디, 그 바다 일대가양, 거 매립이 거 삽십이 년도에 매립이 뒛수다. 게 그 전에는 글로 막 해초

류가 올라오며는 그걸 헤다가 밧디 걸름도 허곡 허니까 그걸 허레 가며는 대림서는 과거에 우리 대림 셔나니까 허레 가며는 한림선 걸, 경 안 뒌다, 그걸 막으레 오며는 그때 저 이, 이○○허고 뚜로 저 이, 임○○이엔 허는 사름하고, 이, 이○○이엔 헌 사름이 심떼가 쎄난 모양이라마씸, 그 저 가서 대림 사름 막 돌앙 강 그 저 몸ᄀᆞ뜬 것도 올라와시문 헤서 허여 오곡 허며는, 이제는 이놈으 새끼덜 못 허게 헤 가며는 그 두 어른들이 모다 죽이켄 허영 막 억압을 헤 가지고 와신디 옛날 그 심 자랑으로 거 때령 놓고 헤 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잇습니까 헤 가지고 그 고소장이 내용이 경 됌십디다.(예, 예, 그건 부락 땅. 그렇게 했습지요. 아, 그렇게 해 버리니까 또 그것만 그 당시 한 게 아니라 그 한림서는 지금 한림 그 저 도항선 매는 데, 그 바다 일대가요, 거 매립이 거 삽십이 년도에 매립이 됐습니다. 게 그 전에는 거기로 마구 해초류가 올라오면 그걸 해다가 밭에 거름도 하고 하니까 그걸 하러 가면 대림서는 과거에 우리 대림 있었으니까 하러 가면 한림선 걸, 그렇게 안 된다, 그걸 막으러 오며는 그때 저 이, 이○○하고 또 저 이, 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 이○○이라고 하는 사람이 힘이 셌던 모양이지요, 그 저 가서 대림 사람 마구 데려서 가서 그 저 모자반 같은 것도 올라왔으면 해서 하여 오고 하면, 이제는 이놈의 새끼들 못 하게 해 가면 그 두 어른들이 모두 죽이겠다고 해서 아주 억압을 해 가지고 왔는데 옛날 그 힘 자랑으로 거 때려서 놓고 해 가지고,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해 가지고 그 고소장이 내용이 그렇게 됐습디다.)

101001 @ 게난 그 축항이 셍긴 때가 그 매립헐 때 셍겻수가?(그러니까 그 축항이 생긴 때가 그 매립할 때 생겼습니까?)

101001 #1 네, 게 가지고 건 삽십이 년도에 매립헷수다.(네, 그래 가지고 건 삽십이 년도에 매립했습니다.)

101001 @ 게니까 그때 매립허멍 축항이 셍긴 거구나예?(그러니까 그때 매립하면서 축항이 생긴 거구나?)

101001 #1 예, 그거 게서 한림 저 일삼일사 번지엔 헤 가지고, 거.(예, 그거 그래서 한림 저 일삼일사 번지라고 해 가지고, 거.)

101001 @ 예, 일삼일사 번지.(예, 일삼일사 번지.)

101001 #1 그 일대가 다 일삼일사번지, 매립헌 디가.(그 일대가 다 일삼일사 번지, 매립한 데가.)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게 그거 싯는데, 그디가 과거엔 대림이라십주. 대림이라낫는디. 매립허멍 그저 갈라져십주.(그래 그거 있는데, 거기가 과거엔 대림이었지. 대림이었었는데. 매립하면서 그저 갈라졌지.)

101001 @ 한림으로 갈라지고예?(한림으로 갈라지고요?)

101001 #1 그렇게 헤불고 난 또 저 수원서는 그 한림서 허는 거 봐 가지고 경계를 놔 가지고 뚜로 이젠 수원 너미 땅이 작다, 갈라가도. 그렇게 헤 가지고 그걸 이의를 거니까 그 ᄉᆞ또가 완 어떵 어떵 뒌 거냐 허니까 거 이래서 왓습니다 허니

까, 아무 날 아무 시에 글로 가니까 거기서 거 현장에서 대령허라, 그렇게 명을 내리니까 수원허고 우리 대림이 갓는데, 대림, 대림서는 신, 야튼 저 제주대학교 저 단과대학 학장, 거 저 초대 감사원장 헤난 그 사름이.(그렇게 해버리고 난 또 저 수원서는 그 한림서 하는 거 봐 가지고 경계를 놔 가지고 또 이젠 수원 너무 땅이 적다, 갈라가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의를 거니까 그 사또가 와서 어떻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거 이래서 왔습니다 하니까, 아무 날 아무 시에 거기로 가니까 거기서 거 현장에서 대령하라, 그렇게 명을 내리니까 수원하고 우리 대림이 갔는데, 대림, 대림서는 신, 아무튼 저 제주대학교 저 단과대학 학장, 거 저 초대 감사원장 했던 그 사람이.)

101001 @ 신○○ 교수님?(신○○ 교수님?)

101001 #1 예, ○○이가 ○○이 그 고조가 영 간 보니까 그때 임 뭣이가 대답을 헴시니까 그 ○○이 고조가, 사또, 내가, 내가 대답하리다. 이 간밤이 이슬 맞앙 큰 것들이 뭣을 안다고 헙니까? 이놈들광 물어보십시오. 이 저 수원 비석거리 비석이 어떠어떠흔 비석이 멧 개가 세왓졋냐 물어보십시오. 게니까 이젠 얼룬 대답을 못헌 거라마씨. 거 보십시오. 자기네 경계랑 놔 둡센 허고 어제랑 이석헌 것을 압네까? 내가 대답허겟습니다, 허연 팍 돌려쳐부니까 어떻게 힘도 씨고, 게난 저 완력이 오죽 좋앗수가게. 게난 이제 그것을 허니 그 어른 허는 말이 영 허니까, 그게 사또는 영 봐가지고 현 위치 그대로 허라. 경 헤부니까 이제 지금 수원초등학교 잇는 그 땅도 우리 대림 땅이고 이 묵은 일주도로로 위쪽은 다 대림이라십주게.(예, ○○이가 ○○이 그 고조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그때 임 뭣이가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이 고조가, 사또, 내가, 내가 대답하리다. 이 간밤에 이슬 맞아서 큰 것들이 뭣을 안다고 헙니까? 이놈들과 물어보십시오. 이 저 수원 비석거리 비석이 어떠어떠한 비석이 몇 개가 세워졌느냐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젠 얼른 대답을 못 한 거예요. 거 보십시오. 자기네 경계랑 놔 두라고 하고 어제랑 이석헌 것을 압니까?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해서 팍 돌려버리니까 어떻게 힘도 쓰고, 그러니까 저 완력이 오죽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니 그 어른 하는 말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사또는 이렇게 봐가지고 현 위치 그대로 하라.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제 지금 수원초등게교 있는 그 땅도 우리 대림 땅이고 이 묵은 일주도로로 위쪽은 다 대림이었지요.)

101001 @ 게난 지금 바당 쪽도 그 용운동[22] 가기 전까지는 대림이우꽈?(그러니까 지금 바다 쪽도 그 '용운동' 가기 전까지는 대림입니까?)

101001 #1 예, 용운동 알로 저 용운동이 어디냐 허면 대림 긋뗑이에 가서, 그 옛날은 용운동이나 수원리나 거 다 대림 지경이라나니까. 거기 가 가지고 동을 저 입주 시작헤 가지고 동이 뒈십주게. 게니까 거 용운동만 허니까 또 셍각이 나는 게 그래서 그 해방뒌 그때꺼지도, 에 또, 해방 뒈 가지고 흔 칠팔 년 임○○씨 읍장 때꺼지, 아, 리장 때꺼지도 우리 대림서 거기 가서 공동 입어를 헤십주기. 공동 입어

22) '용운동'은 한림읍 수원리의 한 지역이다. 과거 '가자위', '가좌동'으로 불리었다.

를 헤 가지고.(예, ‘용운동’ 아래로 저 ‘용운동’이 어디냐 하면 대림 끝에 가서, 그 옛날은 ‘용운동’이나 수원리나 거 다 대림 지경이었으니까. 거기 가 가지고 동을 저 입주 시작해 가지고 동이 됐습지요. 그러니까 거 ‘용운동’만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래서 그 해방된 그때까지도, 에 또, 해방 되어 가지고 한 칠팔 년 임○○ 씨 읍장 때까지, 아, 이장 때까지도 우리 대림서 거기 가서 공동 입어를 했지요. 공동 입어를 해 가지고.)

101001 @ 공동 입어?(공동 입어?)

101001 #1 공동 입어, 바당에 가서 들어가가지고 해녀들이 뭐 물질덜 헤 오는 이런 역할을 헤낫는데, 걸 헤 오다가 그 가좌동[23] 쪽도 사름덜 하영 살아가고 우리 대림은 어물덜이 없어가니까, 그때부턴 ᄃᆞ톼 가지고 우리 대림허고 소송을 헷수다. 소송을 허니까 우린 또 대림이 이겨십주게. 이겨노난 법에서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그디 말고도 공동 입어로 늘려갓수다.(공동 입어, 바다에 가서 들어가서 해녀들이 뭐 물질들 해 오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걸 해 오다가 그 ‘가좌동’ 쪽도 사람들 많이 살아가고 우리 대림은 어물들이 없어가니까, 그때부턴 다퉈 가지고 우리 대림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하니까 우린 또 대림이 이겼지요. 이겼으니까 법에서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거기 말고도 공동 입어로 늘려갔습니다.)

101001 @ 게난 가좌동허고 용운동은 ᄀᆞ튼 마을 아니우꽈?(그러니까 ‘가좌동’하고 ‘용운동’은 같은 마을 아닙니까?)

101001 #1 예, 예, 같은 마을.(예, 예, 같은 마을.)

101001 @ 겐디 이젠 용운동이엔 허고? 예전엔 가좌동이엔 허고?(그런데 이젠 ‘용운동’이라고 하고? 예전엔 ‘가좌동’이라고 하고?)

101001 #1 예, 옛날은 가좌동, 가좌동 헤십주게. 아, 그래 가지고 걸 그 땐 공동 입어를 헤 가지고 허고 법원에서 판결을 경 내렷는디, 그래서 그때ᄁᆞ지도 우리 해녀들이라든지 강 허다가 이젠 것이 ᄄᆞ로 법이 바껴가지고 어촌계에 가입뒈사 헌다고 이래 갓고 또 바당에는 얼마 점점 해녀는 족아지고, 겐 거 등한시헨 내불고, 수원서도 ᄄᆞ로 대림, 한수리[24], 지금 현재 천주교 일대 그 주유소 잇는 그 알 뒤칩꺼지도 우리 대림으로, 경 뒈엇수다, 행정구역이 대림으로 뒈고. 게고 저 동쪽으로 가믄 그 저 에 또 빗그물[25]이라고 허는 그 물이 이십주게.(예, 옛날은 ‘가좌동’, ‘가좌동’ 했습지요. 아, 그래 가지고 걸 그 땐 공동 입어를 해 가지고 하고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데,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 해녀들이라든지 가서 하다가 이젠 것이 따로 법이 바뀌가지고 어촌계에 가입돼야 한다고 이래 가지고 또 바다에는 얼마 점점 해녀는 적어지고, 그래서 그거 등한시해서 내버리고, 수원서도 따로 대림, 한수리, 지금 현재 천주교 일대 그 주유소 있는 그 아래 뒷집까지도 우리 대림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이 대림으로 되고. 그리고 저 동쪽으로 가면 그 저 에 또 ‘빗그물’이라고 하는 그 물이 있습지요.)

---

23) ‘가좌동’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용운동의 옛 지명이다.
24) ‘한수리’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이다.
25) ‘빗그물’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물이다.

101001 @ 빗그물? 빗그물예.(‘빗그물’? ‘빗그물’요.)

101001 #1 예, 거기 잇는데 그 일대도 다 대림으로 현재꺼지도 대림서 통치헴수다. 그디도 대림사동이라 헤 가지고.(예, 거기 있는데 그 일대도 다 대림으로 현재까지도 대림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 가지고.)

101001 @ 예, 대림사동.(예, 대림사동.)

101001 #1 예, 잇어 가지고, 그 바당도 잇고.(예, 있어 가지고, 그 바다도 있고.)

101001 @ 아니 대림사동은 어디 천주교 쪽이 대림사동 아니우꽈?(아니 대림사동은 어디 천주교 쪽이 대림사동 아닙니까?)

101001 #1 예, 그렇게 뒈 가지고 대림사동서도 이제 현재 바당을 두고 잇주마는 우리 상동에는 그 수협에 가압뒌 사름이 얼마 엇어마씨, 상동에는. 경 허니까 걸 등한시헤가지고 그냥 내부는 입장입주.(예, 그렇게 돼 가지고 대림사동서도 이제 현재 바다를 두고 있지만 우리 상동에는 그 수협에 가압된 사람이 얼마 없어요, 상동에는. 그렇게 하니까 걸 등한시 해가지고 그냥 내버리는 입장이지.)

101001 @ 해녀도 잇수가? 현재는.(해녀도 있습니까? 현재는.)

101001 #1 한 멧 분 이실 거우다.(한 몇 분 있을 것입니다.)

101001 @ 대림에예?(대림에요?)

101001 #1 예, 예, 잇어도 그디 얼마 가질 안 허여마씨. 젊은 땐 헤나건지 헤도 이디선 살까 헤도. 게서 경계란 것은 그렇게 헤서 허니 수원은 그렇게 땅이 족위진 원인이 그때 현장에서 대기허라 헤 가지고 헷는디 가서 게난 그자 그대로 헌 것까지 수원은 작아지고 상대도 역시 그 고문서에 보며는 그 하천, 내로 어느 쪽 무슨 질, 서쪽이랑 한림허곡 이쪽이랑 대림 허라, 겡덜 그추룩 헨 내렷다고 헤 가지고 경계선 그디서 막 싸와난 모양이라마씨, 옛 어른덜이.(예, 예, 있어도 거기 얼마 가질 안 해요. 젊은 땐 했었는지 해도 여기선 살까 해도. 거기서 경계란 것은 그렇게 해서 하니 수원은 그렇게 땅이 작아진 원인이 그때 현장에서 대기하라 해 가지고 했는데 가서 그러니까 그저 그대로 한 것까지 수원은 작아지고 상대도 역시 그 고문서에 보면 그 하천, 내로 어느 쪽 무슨 길, 서쪽이랑 한림하고 이쪽이랑 대림 하라, 그렇게들 그처럼서 내렸다고 해 가지고 경계선 거기서 마구 싸웠던 모양이에요, 옛 어른들이.)

101001 @ 상대는 그 위로고예?(상대는 그 위로고요?)

101001 #1 예, 상댄 이 바로 우입주기. 게서 상대허고 싸와난 거는 없는데, 한림허고 수원서 싸와난 거는, 거 저 고문서가 이서마씀게.(예, 상대는 이 바로 위이지요. 게서 상대하고 싸웠던 거는 없는데, 한림하고 수원서 싸웠던 거는, 거 저 고문서가 있어요.)

101001 @ 마을이 나눠지면서.(마을이 나눠지면서.)

101001 #1 예, 게고 저 상대는 우리 대림서 지역이 원체 광활허니까 같이 나눠졋다 이렇게 허고, 그 끗대 뚜로 상대는 그 당시꺼지도 사름덜 많이 살앗지마는 그 인동 장씨허고 모커리 양칩이서 거기 살앗다, 그 근거는예. 그렇게 뒈서 분리가 뒌

겁니다게.(예, 그리고 저 상대는 우리 대림서 지역이 원체 광활하니까 같이 나눠졌다 이렇게 하고, 그 끝에 따로 상대는 그 당시까지도 사람들 많이 살았지만 그 인동 장씨하고 곁채 양씨집에서 거기 살았다, 그 근거는요. 그렇게 돼서 분리가 된 겁니다.)

101001 @ 게난 그 수원리 그 평평헌 요디 땅허고예, 여기 대림 여기가 제일 넓은 디 아니우꽈? 제일 평평허고 넓은 디가 그것이 이 갈라진 거고나. 수원 쪽으로 갈라진 거고.(그러니까 그 수원리 그 평평한 요기 땅하고요, 여기 대림 여기가 제일 넓은 데 아닙니까? 제일 평평하고 넓은 데가 그것이 이 갈라진 거구나. 수원 쪽으로 갈라진 거고.)

101001 #1 게난 수원초등학교, 그 일주도로 잇지 아니허꽈게.(그러니까 수원초등학교, 그 일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101001 @ 예, 예.(예, 예.)

101001 #1 일주도로 잇는 디로 아랜 수원이고, 우이 그 수원초등학교도 건 우리 대림이라마씨.(일주도로 있는 데로 아랜 수원이고, 위에 그 수원초등학교도 건 우리 대림이에요.)

101001 @ 대림이라.(대림이라.)

101001 #1 대림인디 그 알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읍사무소 가는 길 잇고, 수원 그 저 한수리, 거기꺼지도 그 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허다가, 그 한수리꺼지도 가며는 알더레 내려가는 길이 잇수다. 그 길로 헤 가지고 현재.(대림인데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읍사무소 가는 길 있고, 수원 그 저 한수리, 거기까지도 그 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하다가, 그 한수리까지도 가며는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 가지고 현재.)

101001 @ 일주도로는 그 옛날 일주도로예?(일주도로는 그 옛날 일주도로요?)

101001 #1 예, 도항선 잇는 그 일대꺼지도 현재 매립도 허고 건, 우리 대림으로 헤 가지고 대림사동으로 헨, 지금도 행정구역상 대림더레 왕 투표도 허고, 모든 것을 그 저 ᄀᆞ치 관장헙니다.(예, 도항선 있는 그 일대까지도 현재 매립도 하고 건, 우리 대림으로 해 가지고 대림사동으로 했어, 지금도 행정구역상 대림으로 와서 투표도 하고, 모든 것을 그 저 같이 관장합니다.)

101001 @ 게, 여기 대림이엔 허는디, 한수풀이엔도 허는디예.(게, 여기 대림이라고 하는데, 한수풀이라고도 하는데요.)

101001 #1 아, 한수풀이엔 허는 것은 그 한자가 클 한, ᄯᅩ로 '하다'.(아, 한수풀이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가 글 한, 또한 '하다'.)

101001 @ 클 한예?(클 한요?)

101001 #1 예, 이렇게 헤 가지고 다대, 다대동, 다대시, 다대동, 이렇게 헤 가지고 한림도 많을 다자 썬양. 예, 경 헤 가지고 한림, 대림 다 뒈어 가지고 허다가 이제 그 한림서 분리된 끗데, 그 명칭을 한림으로 헤십주기.(예, 이렇게 해 가지고 '다대', '다대동', '다대시', '다대동', 이렇게 해 가지고 한림도 많을 다자 썼어요.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한림, 대림 다 되어 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 한림서 분리된 끝에, 그 명칭을 한림으로 했습지요.)

101001 @ 한수풀이난 클 한 자에 한허고 수풀 림 자에 림헤서.(한수풀이니까 클 한 자에 한하고 수풀 림 자에 림해서.)

101001 #1 겐디 이제 대림 거니까, 그 한림, 한림허여 가지고.(그런데 이제 대림 거니까, 그 한림, 한림하여 가지고.)

101001 @ 게니까 한수풀은 대림이 맞는 거우꽈?(그러니까 한수풀은 대림이 맞는 것입니까?)

101001 #1 예.(예.)

101001 @ 원래 대림인데 이것이 내려갼 한림이, 한수풀이 내려간 한림이 뒛구나예? 대림이 맞는 거 담다예.(원래 대림인데 이것이 내려간 한림이, 한수풀이 내려간 한림이 됐구나? 대림이 맞는 거 닮다예.)

101001 #1 게 길도 우리 대림도 우리 집도 한수풀로 오길이우다. 예.(게 길도 우리 대림도 우리 집도 한수풀로 오길입니다. 예.)

101001 @ 예, 맞수다. 여기 오단 보난 한수풀 오길이엔 뒈십디다.(예, 맞습니다. 여기 오다가 보니까 한수풀 오길이이라고 됐습디다.)

101001 #1 게, 저 한수풀로 오길이우다. 그래서.(게, 저 한수풀로 오길입니다. 그래서.)

101001 @ 유래가 게믄 한수풀은 대림, 한수풀이엔 허다가 아니면, 대림이엔 헤신가마씨, 어떵 헤신가마씨?(유래가 그러면 한수풀은 대림, 한수풀이라고 하다가 아니면, 대림이라고 했는가요, 어떻게 했는가요?)

101001 #1 아니, 그걸 몽땅 어우러 가지고 대림, 수원, 한림, 상대꺼지가 제일 처음은 그 인구가 막 족을 때니까 그 선둘[26], 선둘 허는 것에 다 포함뒈어나십주게.(아니, 그걸 몽땅 어울려 가지고 대림, 수원, 한림, 상대까지가 제일 처음은 그 인구가 아주 적을 때니까 그 '선둘', '선둘' 하는 것에 다 포함되었었지요.)

101001 @ 예, 선둘 포함허고.(예, '선둘' 포함하고.)

101001 #1 이제 선둘이엔 헌 것이 이젠 원래 가다가 그.(이제 '선둘'이라고 한 것이 이젠 원래 가다가 그.)

101001 @ 선둘은 요 지역만 선둘이엔 헌 거 아니우꽈?('선둘'은 요 지역만 '선둘'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101001 #1 아니우다, 전체가.(아닙니다, 전체가)

101001 @ 전체가?(전체가?)

101001 #1 예, 전체가예.

101001 #1게서 분리뒈기 전이부떠 선둘이라난. 게 선둘이엔 허다가 이제 그 대림, 이제 그 향지에 그거 어져강 보믄 압니다만, 그 저 에 이조 그 멧 년도에 ○○이 목사던가, 그 목사가 와 가지고 행정허니까 그때부떠 대림, 선둘을 대림이라 헤

26) '선둘'은 '선돌'이라고 하며 한림읍 수원리와 대림리 사이에 있는 석기시대 입석(立石)을 말한다.

십주게. 대림이라 허고 그 저 한림, 수원은, 수원은 그때 즘수동[27].(거기서 분리되기 전에부터 '선둘'이었어. 게 '선둘'이라고 하다가 이제 그 대림, 이제 그 향지에 그거 가져가서 보면 압니다만, 그 저 에 이조 그 몇 년도에 ○○이 목사든가, 그 목사가 와 가지고 행정 하니까 그때부터 대림, '선둘'을 대림이라 했습지요. 대림이라 하고 그 저 한림, 수원은, 수원은 그때 '즘수동'.)

101001 @ 즘수동?(즘수동?)

101001 #1 예, 즘수동이라 헤 가지고 그건 대림리 잠수동, 그렇게 뒈고 한림은 다대.(예, '즘수동'이라 해 가지고 그건 대림리 '잠수동', 그렇게 되고 한림은 '다대'.)

101001 @ 다대동?('다대동'?)

101001 #1 다대동이란가 이렇게 헤 가지고 허다가 분리뒌 끗데 뚜로 한림으로 개칭뒛수다. 게난 이제 수원서는 아직 자기네는 그 저 그 부락에는 향지도 읏고 역대가 엇수다. 단 것을 볼 때는 수원초등학교 그 저 보며는 거기서 그 저 교지라든지 뚠 거 헐 때 수원리 출생을 보며는 대림 그 저 어디고 이 저 한수리 즈끗디 저 대섬밧[28], 대섬밧이렌 헤낫수다.('다대동'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다가 분리된 끝에 따로 한림으로 개칭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원서는 아직 자기네는 그 저 그 부락에는 향지도 없고 역대가 없습니다. 단 것을 볼 때는 수원초등학교 그 저 보면 거기서 그 저 교지라든지 다른 거 할 때 수원리 출생을 보면 대림 그 저 어디고 이 저 한수리 곁에 저 '대섬밧', '대섬밧'이라고 했었습니다.)

101001 @ 대섬밧?('대섬밧'?)

101001 #1 예, 그게 그 한림 항구허고 부튼 딘디, 거기에.(예, 그게 그 한림 항구하고 붙은 덴데, 거기에.)

101001 @ 거 튼대섬[29]?(거 튼대섬?)

101001 #1 예, 튼대섬, 거기도 현재 우리 대림 경계우다. 대림 경계고 현재도 대림서도 걸 통제허여마씨, 그꺼지도. 도항선 잇는 디도 대림 번지난, 그꺼지도 허는 원인은 그때 그 저 수원리, 초창기도 보면 수원초등학교 책 ᄀᆞ뜬 거 보면은 그 저에, 김○○란 어른이, 거 우리 조상이우다. 그 분이 한수리 그 번지꺼지도 저 거기 향지에 나와 잇수다. 거기 와 가지고 입주허여서 수원리를, 그 잠수동을 설촌헷다 경 뒛수다, 거기 수원은. 게고 한림서는 한림 서쪽이 그것을 허니까 그 김해 김씨, 거 뭣 서라마는 야튼 것도 명의가 둘렷수다. 난 게도 나이도 많고 헤부난 일름은 잊어불엇수다마는. 그런 과정으로 헤 가지고 한림 설촌뒈고, 뒈 가지고 오래 가니까 인구가 불어나고 허난 한림은 번지 뒈고 수원은 뚜로 인구도 불어나긴 헷주마는 해당 어업을 하는 사름덜도 많으니까, 우린 불어나긴 헷주마는 그 떠멧긴 것이 갈라멧긴 것이 그 바당 해상에서 영장 치우렌 헨, 게 가지고 분리뒈어낫수다. 상대도 역시 한림 분리뒐 때 ᄀᆞ찌 상대도 분리뒈고양. 겐디 이것이 그 뚠 부락, 저 명월[30]ᄀᆞ

27) '즘수동'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옛 명칭이다.
28) '대섬밧'은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 지경의 '튼대섬' 부근의 지명이다.
29) '튼대섬'은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에 있는 한림 항구이다.
30)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이다.

뜬 것도 보니까 명월, 상대, 아니 명월, 상명[31], 동명[32], 이 일대 문딱 거 다 명월에 포함뒈어십주기. 게난 이 부근에는 대림허고 명월이 가장 오랜 부락이고, 큰 부락이라, 초창기엔 커낫다, 이것을 알 수 이십주기.(예, '튼대섬', 거기도 현재 우리 대림 경계입니다. 대림 경계고 현재도 대림서도 걸 통제해요, 그까지도. 도항선 있는 데도 대림 번지니까, 그까지도 하는는 원인은 그때 그 저 수원리, 초창기도 보면 수원초등학교 책 같은 거 보면은 그 저 에, 김○○란 어른이, 거 우리 조상입니다. 그 분이 한수리 그 번지까지도 저 거기 향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와 가지고 입주하여서 수원리를, 그 '잠수동'을 설촌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수원은. 그리고 한림서는 한림 서쪽이 그것을 하니까 그 김해 김씨, 거 뭣 있었지만 아무튼 것도 명의가 달렸습니다. 난 그래도 나이도 많고 해버리니까 이름은 잊어버습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해 가지고 한림 설촌되고, 돼 가지고 오래 가니까 인구가 불어나고 하니까 한림은 번지 되고 수원은 따로 인구도 불어나긴 했지만 해당 어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린 불어나긴 했지만 그 떠맡긴 것이 갈라 맡긴 것이 그 바다 해상에서 영장 치우라고 했어, 그래 가지고 분리됐었습니다. 상대도 역시 한림 분리될 때 같이 상대도 분리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다른 부락, 저 명월같은 것도 보니까 명월, 상대, 아니 명월, 상명, 동명, 이 일대 모두 거 다 명월에 포함됐지요. 그러니까 이 부근에는 대림하고 명월이 가장 오랜 부락이고, 큰 부락이야, 초창기엔 컸었다, 이것을 알 수 있지요.)

101002 @ 중심이 대림, 명월 딱 큰 부락이 이신디 나중에는 각각 나눠졋구나예, 각각. 음, 이 동네 이 마을 주로 성씨들이 구성이 어떵 뒙니까? 어떤 성씨들이 오랫동안 살아왓수가?(중심이 대림, 명월 딱 큰 부락이 있는데 나중에는 각각 나눠졌구나예, 각각. 음, 이 동네 이 마을 주로 성씨들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성씨들이 오랫동안 살아왔습니까?)

101002 #1 서씨, 박씨, 김씨, 양씨 이런 어른덜이 그 설촌헤 가지고 오래뒈어낫수다.(서씨, 박씨, 김씨, 양씨 이런 어른들이 그 설촌해 가지고 오래되었었습니다.)

101002 @ 양씨, 박씨, 김씨.(양씨, 박씨, 김씨.)

101002 #1 예, 서씨.(예, 서씨.)

101002 @ 김씨는 한 본이우꽈?(김씨는 한 본입니까?)

101002 #1 아니우다. 경주 김씨 잇고 김해 김씨 잇고, 영 뒈우다.(아닙니다. 경주 김씨 있고 김해 김씨 있고, 이렇게 됩니다.)

101002 @ 예, 가장 오래뒌 성씨는 어떤 성씨우꽈?(예, 가장 오래된 성씨는 어떤 성씨입니까?)

101002 #1 확실히는 모르주마는 이 저 우리가 파악허곡 그 족보상으로 보며는 양씨, 양씨허고 서씨, 각 씨덜이 제일 처음 입주를 허고 우리도 경주 김씨우다마는 우리는 거 저 그 다음에 저 동촌에, 동쪽에서 그 수원리를 설촌헷젠 허는 경자 의

31) '상명'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이다.
32) '동명'은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이다.

자 할으버지가 지금, 지금은 한수리고 대림사동 경계에 와 가지고 입주허기 시작허니까 수원 잠수동이 뒈고 이 본동은 그자 본동대로만 헤서 대림리로 헷고. 또 본동네도 여긴 저 입전동이라 헤근에 잇고, 리 사무소 잇는 딘 중동, 저 아래는 동화동, 광희동, 또 개석이왓[33] 헤 가지고 것도 베 형국이니까 베가 와서 물 대일 때, 물 대난 위치다 허여 가지고 그 지금 ᄀᆞ뜨면 가시왓[34], 가시왓 헙니다만.(확실히는 모르지만 이 저 우리가 파악하고 그 족보상으로 보면 양씨, 양씨하고 서씨, 각 씨들이 제일 처음 입주를 하고 우리도 경주 김씨입니다만 우리는 거 저 그 다음에 저 동촌에, 동쪽에서 그 수원리를 설촌했다고 하는 경자 의자 할아버지가 지금, 지금은 한수리고 '대림사동' 경계에 와 가지고 입주하기 시작하니까 수원 '잠수동'이 되고 이 본동은 그저 본동대로만 해서 대림리로 했고. 또 본 동네도 여긴 저 '입전동'이라 해서 있고, 이 사무소 있는 데는 '중동', 저 아래는 '동화동', '광희동', 또 '개석이왓' 해 가지고 것도 배 형국이니까 배가 와서 물 대일 때, 물 대니까 위치다 하여 가지고 그 지금 같으면 '가시왓', '가시왓' 합니다만.)

101002 @ 개석이왓?('개석이왓'?)

101002 #1 개석이왓으로.('개석이왓'으로.)

101002 @ 갯 헐 때는 갯, 바당 갯이우꽈?(갯 할 때는 갯, 바다 갯입니까?)

101002 #1 예.(예.)

101002 @ 개석이왓.('개석이왓'.)

101002 #1 그래 가지고 그 저 베 형국이니까 일름덜이 나온 거라마씨.(그래 가지고 그 저 배 형국이니까 이름들이 나온 거지요.)

101002 @ 그 저 김○○ 교장네는 어디, 어디 김씨꽈?(그 저 김○○ 교장네는 어디, 어디 김씨입니까?)

101002 #1 그디도 경주우다. 경준디 그디도 살암수다. 이젠 그 집에 김 교장, ○○이네가 살젠 그디 잇수다 뭐.(거기도 경주입니다. 경주인데 거기도 살고 있습니다. 이젠 그 집에 김 교장, ○○이네가 살려고 거기 있습니다 뭐.)

101002 @ 예, 오래 뒛지예? 그디가.(예, 오래 됐지요? 거기가.)

101002 #1 아 그디는, 우리도 경주 김씨우다마는 거기는 입도 후보단도 저 흔 입도 십 대쯤 뒐 거우다, 거기는.(아 거기는, 우리도 경주 김씨입니다만 거기는 입도 후보다도 저 한 입도 십 대쯤 될 것입니다, 거기는.)

101002 @ 그 분이?(그 분이?)

101002 #1 예, 그래 가지고 ᄀᆞ뜬 경주라고 헙니다마는 우린 대안군파고 그딘 영공파.(예, 그래 가지고 같은 경주라고 합니다만 우린 대안군파고 거긴 영공파.)

101002 @ 게난 처음부떠 이디 완 산 거우꽈?(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와서 산 것입니까?)

101002 #1 그 저 족보엔 보며는 그 하르방이, 할망이 그 저 김○○이네 그것이,

33) '개석이왓'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34) '가시왓'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예전에는 '개석이왓'이라고도 했다.

거 무슨 이야기냐 허며는 어디 서촌에 살다가, 아덜 미릇 남편도 돌아가고 허니까, 아들 하날 업고 대림으로 와 가지고 경 헤서 경주 김씨라 허고 경 헨, 서촌 살아나니까, 저 수룡동[35], 저 어떤 고산[36] 그 우이에.(그 저 족보엔 보면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저 김○○이네 그것이, 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디 서촌에 살다가, 아들 미리 남편도 돌아가고 하니까, 아들 하날 업고 대림으로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경주김씨라 하고 그렇게 했어, 서촌 살았으니까, 저 '수룡동', 저 어떤 '고산' 그 위에.)

101002 @ 수룡동?('수룡동'?)

101002 #1 예, 거기에 선묘가 싯수다. 이제도 그디.(예, 거기에 선묘가 있습니다. 이제도 거기.)

101002 @ 수룡동에?('수룡동'에?)

101002 #1 선묘가 잇고 그 다음 이 대부떠는 대림 지명이 뒈어서 번지는 잊혓수다마는 저 양지올레[37] 거기가 이 대 묘가 잇는데 글로부떠 설촌뒌 끗데, 그 사름네는 이 동네서만 그자 멧 대가 그 살앗수다. 선조들이 살고 그 삼판디, 김○○이네가 삼판데, 큰 가진 우리 대림 그대로 살고 셋 가지는 저 애월읍 곽지에 김○○ 교장이라고 헤서 거기 흔 중가지는 살고 또 족은 가지는 또 저 김○○씨라든지 ○○네가 족은 가진데 거기서는 우리 대림에 형제가 살다가 근래에는 다 후손들이 어디 시ᄀᆞ뜬 디 가서 살고 허는디.(선묘가 있고 그 다음 이 대부터는 대림 지명이 되어서 번지는 잊혔습니다만 저 '양지올레' 거기가 이 대 묘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설촌된 끝에, 그 사람네는 이 동네서만 그저 몇 대가 그 살았습니다. 선조들이 살고 그 삼파인데, 김○○이네가 삼파인데, 큰 가진 우리 대림 그대로 살고 둘째 가지는 저 애월읍 곽지에 김○○ 교장이라고 해서 거기 한 중 가지는 살고 또 작은 가지는 또 저 김○○씨라든지 ○○네가 작은 가진데 거기서는 우리 대림에 형제가 살다가 근래에는 다 후손들이 어디 시 같은 데 가서 살고 하는데.)

101002 @ 살고 잇고예, 그 신○○ 교수님네도 신씨도 여기 삽니까?(살고 있고요, 그 신○○ 교수님네도 신씨도 여기 삽니까?)

101002 #1 예, 신씨는 저 가식이왓[38] 헤 가지고 거기가 아주 벌족이 그 저 신○○ 이네, 아주 촌에는 뚠 딘 모양인데, 그 십팔 대 조인가 이 분덜이 그 선묘가 요 대림 저 거기 구백 멧 번지에 그 선묘가 거기 잇수다. 선묘 그 다음부떠는 여기서 죽 사람덜이영 삽니다. 지금도 대림 신○○ 그 교수네도 잇고, 교수여에 칠 촌 아저씨뻘 뒈는 사름덜도 여기 삽니다. 그 사름넨 여기서 아주 부유허게 삽주. 그래서 그 신○○ 교수님네도 그 옛날 대림리 분할뒈기 직전ᄁᆞ지도 부락을 대신헤 가서 경 경계도 따줘낫젠 나오는디양. 그 저 신 선달, 신 선달헷수다게. 선달이라믄 이제 무과, 게서 우리 알던지도.(예, 신씨는 저 '가식이왓' 해 가지고 거기가 아주 벌족이 그 저

35) '수룡동'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수룡동이다.
36)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이다.
37) '양지올레'는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명이다.
38) '가식이왓'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신○○이네, 아주 촌에는 다른 데는 모양인데, 그 십팔 대 조인가 이 분들이 그 선묘가 요 대림 저 거기 구백 몇 번지에 그 선묘가 거기 있습니다. 선묘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 죽 사람들이랑 삽니다. 지금도 대림 신○○ 그 교수네도 있고, 교수여에 칠 촌 아저씨벌 되는 사람들도 여기 삽니다. 그 사람네는 여기서 아주 부유하게 살지. 그래서 그 신○○ 교수님네도 그 옛날 대림리 분할되기 직전까지도 부락을 대신해 가서 그렇게 경계도 따졌었다고 나오는데요. 그 저 신선달, 신선달했습니다. 선달이라면 이제 무과, 게서 우리 알던지도.)

101002 @ 마을에서 힘이 막 잇는.(마을에서 힘이 아주 있는.)

101002 #1 예, 신○○ 그 교수네 우리 막 어릴 적이는 박거리에 죄인들 심어당 가둔 디가 셔나서마씨. 신○○ 교수 웃대 사름덜이영. 겐디 그 신○○ 교수 살아난 터는 요 가식이왓이 남아잇수다.(예, 신○○ 그 교수네 우리 아주 어릴 적에는 바깥채에 죄인들 잡아다가 가둔 데가 있었어요. 신○○ 교수 윗대 사람들이랑. 그런데 그 신○○ 교수 살았던 터는 요 '가식이왓'에 남아있습니다.)

101002 @ 가식이왓.('가식이왓'.)

101002 #1 게난 그 번지 ᄀᆞ뜬 것도 저 뚠 데 책엔 보믄 나왓수다만, 나 이제 늙어불고 허니까 다 잊엇수다마는.(그러니까 그 번지 같은 것도 저 다른 데 책엔 보면 나왔습니다만, 나 이제 늙어버리고 하니까 다 잊었습니다만.)

101003 @ 게난 여기에 옛날에는 주로 이 동네에서 무슨 일들을 많이 헷수가? 살아 오멍.(그러니까 여기에 옛날에는 주로 이 동네에서 무슨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살아오면서.)

101003 #1 일들마씨?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다 농사짓고 목축업 ᄌᆞ끔 헷수다.(일들요? 우리 동네에서는 거의 다 농사짓고 목축업 조금 했습니다.)

101003 @ 농사를 짓고, 목축업.(농사를 짓고, 목축업.)

101003 #1 목축업은 상대 사름덜 많이 허고, 여기는 거의 다 예로부떠 농사를 짓고 살앗수다.(목축업은 상대 사람들 많이 하고, 여기는 거의 다 예로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101003 @ 농사엔 허믄 어떤 것들을?(농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101003 #1 거 전에는 그 보리, 조, 콩 요런 걸로 많이 헤십주. 그 저 허고 ᄯᅳ로 나중에 그 목화씨가 들어오니까 멘네, 목화를 멘네, 멘네엔 헤낫수다게. 게 역시 그 제주도에서는 비옥한 토지가 뒈니까 대림서만 제주도에서는 그 저 멘네가 많이 낫덴 헙니다.(거 전에는 그 보리, 조, 콩 요런 걸로 많이 했지. 그 저 하고 따로 나중에 그 목화씨가 들어오니까 면화, 목화를 면화, 면화라고 했었습니다. 게 역시 그 제주도에서는 비옥한 토지가 되니까 대림서만 제주도에서는 그 저 면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101003 @ 게믄 여기는 목축은 어떤 걸 길르와낫수가?(그러면 여기는 목축은 어떤 걸 길렀었습니까?)

101003 #1 목축덜은 소, 말예.(목축들은 소, 말요.)

101003 @ 소, 말, 목장이 어디 상대 위에 잇어낫수가?(소, 말, 목장이 어디 상대 위에 있었습니까?)

101003 #1 예, 저 우리 대림 목장이 상대리, 아 검악[39] 이 번지로, 일, 이, 삼서 칠 번지ᄁᆞ지 허고 산 이십이 번지로 이십구 번지ᄁᆞ지가 대림 목장이라낫수다. 게서 작년, 재작년도에 거 풀아불엇수다.(예, 저 우리 대림 목장이 상대리, 아 금악 이 번지로, 일, 이, 삼에서 칠 번지까지 하고 산 이십이 번지로 이십구 번지까지가 대림 목장이었습니다. 게서 작년, 재작년도에 그거 팔아버렸습니다.)

101003 @ 아, 산 일부터 이십구까지?(아, 산 일부터 이십구까지?)

101003 #1 예.(예.)

101003 @ 그 검악 쪽에예?(그 금악 쪽에요?)

101003 #1 아니, 림 이 번지로부떠 칠 번지ᄁᆞ지 허고, 그 산 번지허고 림[40] 번지허곤 ᄄᆞ납니다. 게난 그 산 번지는 저 지적도가 육천분지 일이고, 이디 것은 이천분의 일입주게. 그렇게 뒈니까 그 이 번지로 시작헤서 칠 번지ᄁᆞ지 허고, ᄀᆞ찌 연접뒈엇수다만. ᄄᆞ로 이십이 번지에서 이십칠 번지ᄁᆞ지가 대림 목장인디, 그디가 ᄒᆞᆫ 십오 정, ᄒᆞᆫ 십육 정 뒛수다.(아니, 임 이 번지로부터 칠 번지까지 하고, 그 산 번지하고 임 번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산 번지는 저 지적도가 육천분지 일이고, 여기 것은 이천분의 일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 번지로 시작해서 칠 번지까지 하고, 같이 연접됐습니다만. 따로 이십이 번지에서 이십칠 번지까지가 대림 목장인데, 거기가 한 십오 정, 한 십육 정 됐습니다.)

101003 @ 정보, 십오 정보?(정보, 십오 정보?)

101003 #1 예, 허고 ᄄᆞ로 밋테 또 암수목장이라 헤 가지고, ᄒᆞᆫ 오 정 잇어낫는데, 그건 우리 대림서 전기 사업헐 때에 돈이 없으니까 시설비로 헤 가지고 걸 팔아버렷수다.(예, 하고 따로 밑에 또 암수목장이라 해 가지고, 한 오 정 있었었는데, 그건 우리 대림서 전기 사업할 때에 돈이 없으니까 시설비로 해 가지고 걸 팔아버렸습니다.)

101003 @ 음, 팔아불고.(음, 팔아버리고.)

101003 #1 목장.(목장.)

101003 @ 목장을. 바당에는 그 뭐 베나 아니면 해녀 일들이나 이런 건 어떵 헤나신고예?(목장을. 바다에는 그 뭐 배나 아니면 해녀 일들이나 이런 건 어떻게 했었습니까?)

101003 #1 바당에는 전이나 지금이나 아까도 얘기헷지마는 그땐 저 힘이 들엇주마는 멀어도 거의 다 상동에서는 '용운동', 이젠 '용운동'이렌 헙니다만 '가좌동' 그 바다에서들 입어를 허고 일부에서는 한림 그 저 그 대섬땅[41] 거기 가서 입어를 헷수다.(바다에는 전에나 지금이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땐 저 힘이 들었지만 멀어

39) '검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를 말한다.
40) '림'은 임(林)으로 제보자가 두음법칙에 따라 발음하지 않고 '림'이라고 발음하고 있다.
41) '대섬땅'은 한림읍 한수리에 포험된 한림항 북쪽 방파제와 이어진 큰 여를 말한다. '튼대섬'이라고도 한다.

도 거의 다 상동에는 용운동, 이젠 용운동이라고 합니다만 가좌동 그 바다에서들 입어를 하고 일부에서는 한림리 그 저 그 '대섬땅' 가서 입어를 했습니다.)

101003 @ 대섬, 튼대섬예?('대섬', '튼대섬'요?)

101003 #1 예, 튼대섬에서 그 일대를.(예, '튼대섬'에서 그 일대를.)

101003 @ 음, 거기서 어업 작업을, 어로 작업을 헷구나예?(음, 거기서 어업 작업을, 어로 작업을 했군요?)

101003 #1 예.(예.)

101003 @ 베도 잇고. 해녀들은 거기서 물질도 허고예?(배도 있고, 해녀들은 거기서 물질도 하고요?)

101003 #1 예, 예. 여기서 그때 물질헐 때는 테왁[42] 지곡덜 입어헷당 추우며는 몸 풀젠 짇을케 ᄀᆞ져당 내려가곡 ᄒᆞ여낫는데, 그게 그때 ᄒᆞᆫ 칠십년도 이후에는 해녀가 쏵 줄어들어 불어서마씨.(예, 예. 여기서 그때 물질할 때는 '테왁' 지고들 입어했다가 추우면 몸 풀려고 땔감 가져서 내려가고 했었는데, 그게 그때 한 칠십년도 이후에는 해녀가 싹 줄어들어 버렸어요.)

101003 @ 쏵 줄어들언.(싹 줄어들었어.)

101003 #1 예.(예.)

101003 @ 게난 그 해녀들은 불턱[43]이엔 헙니까? 그디 강덜.(그러니까 그 해녀들은 '불턱'이라고 합니까? 거기 가서들.)

101003 #1 예, 예. 불턱에 강.(예, 예. '불턱'에 가서.)

101003 @ 불 쬐멍 몸 풀고.(불 쬐면서 몸 풀고.)

101003 #1 예.(예.)

101003 @ 음, 경 헨 살아낫구나예. 게난 이 저 주로 크게 허는 거는 농사고?(음, 그렇게 해서 살았었군요. 그러니까 이 저 주로 하는 거는 농사고?)

101003 #1 예.(예.)

101003 @ 목축도 허고 바당일도 허고, 바당에도 강 허고, 워낙 여러 가지로 이 동네가 커노난, 마을마다 밑에는 바다 일, 위에는 목축, 그런 식으로 헷고나예?(목축도 하고 바닷일도 하고, 바다에도 가서 하고, 워낙 여러 가지로 이 동네가 크니까, 마을마다 밑에는 바다 일, 위에는 목축, 그런 식으로 했구나?)

101003 #1 예.(예.)

101004 @ 거 우리 이 마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덜이 잇언게, 여기 보믄 다 넓은 평야라부난 멀리 가사 오름도 이실 거고, 오름도 잇수가?(거 우리 이 마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던데, 여기 보면 다 넓은 평야이니까 멀리 가야 오름도 있을 거고, 오름도 있습니까?)

101004 #1 오름 엇어, 엇수다.(오름 없어, 없습니다.)

---

42)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으로 지금은 박 대신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다.

43) '불턱'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녹이기 위하여 마련해 간 땔감으로 불을 지펴서 쬐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이다.

101004 @ 저 상대리에 그거는?(저 상대리에 그거는?)

101004 #1 아, 천아오름[44].(아, '천아오름'.)

101004 @ 천아오름.('천아오름')

101004 #1 것도 그때는 것도 대림이라나십주마는 상대리가 분리뒈면서 것도 상대로 가불고.(그것도 그때는 것도 대림리였습니다만 상대리가 분리되면서 그것도 상대리로 가버리고.)

101004 @ 가불고, 게난. 어디 내 뭐, 여기 어디 내가?(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디 내 뭐, 여기 어디 내가?)

101004 #1 순두내[45]라고 잇수다, 잇어 가지고.('순두내'라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101004 @ '순두내'가 잇구나.('순두내'가 있구나.)

101004 #1 그 내가 그 내로 경계를 헤 가지고 한림 분리뒐 때에 서쪽은 한림, 동쪽은 우리 대림 영 해 가지고 것이, 순두내.(그 내가 그 내로 경계를 해 가지고 한림리 분리될 때에 서쪽은 한림리, 동쪽은 우리 대림리 이렇게 해 가지고 것이, '순두내'.)

101004 @ 맞아, 순두내. 순두내가 쭈욱 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맞아, '순두내'. '순두내'가 죽 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101004 #1 저 한림 그 저 매일시장 잇는 글로 헤 가지고 이게 우리 대림을 거쳐 가지고 귀덕삼리, 삼리 넘어서 뚜로 쩌어 눈오름[46] 밑에꺼지 갓수다.(저 한림리 그 저 매일시장 있는 거기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 대림리를 걸쳐 가지고 귀덕삼리, 삼리 넘어서 따로 저 '눈오름' 밑에까지 갔습니다.)

101004 @ 아, 누운오름 밑에까지?(아, '누운오름' 밑에까지?)

101004 #1 예, 저 새벨오름[47] 물도 글로 갈려져마씨.(예, 저 '새벨오름' 물도 거기로 갈라져요.)

101004 @ 아, 새별오름 좀 내려오면 누운오름 잇지 안허꽈예?(아, '새별오름' 좀 내려오면 '누운오름' 있지 않습니까?)

101004 #1 예, 겐디 그게 우론 가달이 으라 갠디, 천아오름 일대로 내려오는 내가 뚜로 저 그 상대를 거쳐 가지고 우리 대림이영 합수뒈고, 뚜로 눈오름 내려오는 물이 저 보섭물내[48]옌 헌 디 거기서 합수뒈고 허여 가지고, 그 상대허고 검악허고 경계가 보섭물내, 보섭물내 헤 가지고.(예, 그런데 그게 위로는 물길이 여러 개인데 '천아오름' 일대로 내려오는 내가 따로 저 그 상대리를 걸쳐 가지고 우리 대림리랑 합수되고, 따로 '눈오름' 내려오는 물이 '보섭물내'라고 하는 데 거기서 합수되고 하여 가지고, 그 상대리하고 금악리하고 경계가 '보섭물내', '보섭물내' 해 가지고.)

---

44) '천아오름'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마을 남동쪽에 있는 낮은 오름이다.
45) '순두내'는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지경을 지나는 내이다.
46) '눈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서쪽에 낮게 가로누운 오름이며 '누운오름'이라고도 한다.
47) '새벨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의 시온목장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며, 들불 축제 장소이다.
48) '보섭물내'는 한림읍 상대리와 금악리 경계에 있는 내이다.

101004 @ 보섭?(보습?)

101004 #1 예, 보섭이란 것은 밧 가는 보섭인디.(예, '보섭'이란 것은 밭 가는 보습인데.)

101004 @ 보섭. 보섭 올레[49]?(보습, 보습 '올레'?)

101004 #1 예, 예.(예, 예.)

101004 @ 보섭 올레? 올레는 그 저 뭐, 그 다음 올레는 영 들어가는 올레?(보습 '올레'? '올레'는 그 저 뭐, 그 다음 '올레'는 이렇게 들어가는 '올레'?)

101004 #1 아니, 보섭물내옌 허는 것은 보섭 형치에 그 지경이, 그 내에 그 저 보섭 형치에 빌레[50] 우의 그 물이 뿔지 아니헌 물이 잇수다게.(아니, '보섭물내'라고 하는 것은 보습 형태에 그 지경이, 그 내에 그 저 보습 형태에 '빌레' 위에 그 물이 삐지 아니하는 물이 있습니다.)

101004 @ 아, 아.(아, 아.)

101004 #1 게서 그 ᄌᆞ꼿디 글로 갈라지니까 상대도 거기, 거기가 상대 일번지마씸. 우리 대림 일번지는 요 땅꼬 ᄌᆞ꼿디고.(그래서 그 곁에 거기로 갈라지니까 상대리도 거기, 거기가 상대리 일번지요. 우리 대림리 일번지는 요 물탱크 곁이고.)

101004 @ 아, 게난 그디가 보섭물내. 그 여기 바위는 아까 그 선돌[51]은 바위꽈? 아니면 그냥 세워놓은 거꽈?(아, 그러니까 거기가 '보섭물내'. 그 여기 바위는 아까 그 '선돌'은 바위입니까? 아니면 그냥 세워놓은 것입니까?)

101004 #1 선돌, 선돌 허는 돌이 궹장이 크우다, 돌이. 그 돌이 지금 저 아까도 ᄀᆞᆯ앗주마는 저 수원 우이 조끔 올라오곡, 우리 대림서 내려가면 그 저 동산에 그 저 땅꼬 물, 저수지 땅꼬 잇는디 그디 잇수다, 뭐.('선돌', '선돌' 하는 돌이 굉장히 큽니다, 돌이. 그 돌이 지금 저 아까도 말했지만 저 수원리 위에 조금 올라오고, 우리 대림리서 내려가면 그 저 동산에 그 저 탱크물, 저수지 탱크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뭐.)

101004 @ 그디 잇고예? 현재도 잇고?(거기 있고? 현재도 있고?)

101004 #1 예, 현재도 잇고마씨. 게난 질 우에 올레 막은 것은 그 돌도 저 뭣고? 저 농지 정리 사업허는 디서 조끔 비틀어져불고 ᄌᆞ꼿디 것덜은 더러 치와불어십다다마는, 거기 그 위에 올려놘 돌 싯고마씨.(예, 현재도 있고요. 그러니까 길 위에 '올레' 막은 것은 그 돌도 저 뭣이고? 저 농지 정리 사업하는 데서 조금 비뚤어져 버리고 곁에 것들은 더러 치워버려십디다만, 거기 그 위에 올려놓은 돌 있고요.)

101004 @ 게난 바위도 그런, 혹시 다른 바위나 뭐 이런 바위, 어디 이름 이신 바위들이 잇수가?(그러니까 바위도 그런, 혹시 다른 바위나 뭐 이런 바위, 어디 이름 있는 바위들이 있습니까?)

101004 #1 그 외에는 어디 이름이신 바우가 엇수다. 특별히, 예.(그 외에는 어디 이름있는 바위가 없습니다. 특별히, 예.)

---

49)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50) '빌레'는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힌 돌이다.
51) '선둘'은 한림읍 수원리와 대림리 사이에 있는 큰 돌이다.

101004 @ 예, 엇고예, 그 어디 굴은 아까 골안게?(예, 없고요, 그 어디 굴은 아까 말하던데?)

101004 #1 아, 굴은 그 전에는 없어낫는디 아까도 골앗수다만 칠십년도 초 뭴쯤일 거우다만. 그때에 흔 멧 사름덜이, 아, 칠십년도 초가 맞수다. 초에 그 새마을 운동헐 때에, 우리 대림서가 전국에서 그 저 고구마 저장고를 질 처음 헷수다. 처음 헤나니까, 그것 헤서 성공뒈니까 그 임○○이엔 헌 사름이 아주 농사에 열심헙주게. 그 사름 아들 뚤덜 잇수다마는. 그 사름덜허고 이○○이란 이런 멧 사름이 아, 이디 영 굴 저 저장고도 허며는 멧 십 집 넘이로 돌아가멍 흑을 쌓곡 허며는 요 보온이 뒈는구나. 이레서 굴 안네 온도가 따시니까 그 조끔 입구 나시난, 그때 간 멧 번을 간 일을 헤십주게. 일허단 보난덜 그런 것이 나타나서마씸예. 게난 그게 그때 걸 우리 대림서 그걸 보관허지 아니허고 문화재에 보고 헤부니까 그때 도에서 완 다 가져가불지 안 헷수가? 그때.(아, 굴은 그 전에는 없었는데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칠십년도 초 될쯤 일 것입니다만. 그때에 한 몇 사람들이, 아, 칠십년도 초가 맞습니다. 초에 그 새마을 운동할 때에, 우리 대림리가 전국에서 그 저 고구마 저장고를 제일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으니까, 그것 해서 성공되니까 그 임○○이이라고 한 사람이 아주 농사에 열심히 하지요. 그 사람 아들 딸들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하고 이○○이란 이런 몇 사람이 아, 여기 이렇게 굴 저 저장고 하면은 몇 십 집 너머로 돌아가면서 흙을 쌓고 하면은 요 보온이 되는구나. 이래서 굴 안에 온도가 따뜻하니까 그 조금 입구 났으니까, 그때 가서 몇 번을 가서 일을 했습지요. 일하다가 보니까들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걸 우리 대림리서 그걸 보관하지 아니하고 문화재에 보고해버리니까 그때 도에서 와서 다 가져가버리지 안 했습니까? 그때.)

101004 @ 아니, 게난 그 굴 이름은 뭐 엇어낫수가?(아니, 그러니까 그 굴 이름은 뭐 없었습니까?)

101004 #1 게난 그디가 그 저 붉은굴[52], 붉은굴 헤마씨.(그러니까 거기가 그 저 '붉은굴', '붉은굴' 해요.)

101004 @ 붉은굴이렌예?('붉은굴'이라고요?)

101004 #1 예, 그 일대가 아주 너르우다. 널르고 붉은굴 일대는 흔, 그 도유지, 그때는 군유지라낫는디, 군유지 땅덜이 한 댓 필지 잇수다. 그 일대 낭덜도 싯고, 굴도 셔 나니까 ᄉᆞ삼사건 때 그디 저 시정자덜 그디 강 총도 맞앗수다. 맞안 죽음도 헤나고.(예, 그 일대가 아주 넓습니다. 넓고 '붉은굴' 일대는 한, 그 도유지, 그때는 군유지였었는데, 군유지 땅들이 한 댓 필지 있습니다. 그 일대 나무들도 있고, 굴도 있었으니까 사삼사건 때 거기 저 시정자들 거기 가서 총도 맞았습니다. 맞아서 죽음도 했었고.)

101004 @ 거기가예?(거기가요?)

101004 #1 수원초등학교 우이우다, 뭐.(수원초등학교 위입니다, 뭐.)

52) '붉은굴' 한림읍 대림리 지경에 있는 굴이다.

101005 @ 그 위에예. 게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들이 잇어나신고예?(그 위에요. 그럼 이 마을에는 무슨 기관들이 있었습니까?)

101005 #1 기관은 지금 현재는 뭐, 기관이라고는 별도 엇수다. 저 뭐 리사무소 잇는 대림리사무소하고, 교회허고.(기관은 지금 현재는 뭐, 기관이라고는 별도 없었습니다. 저 뭐 이사무소 있는 대림리사무소하고, 교회하고.)

101005 @ 교회도 잇구나예.(교회도 있군요.)

101005 #1 예, 교회, 천주교라든지.(예, 교회, 천주교라든지.)

101005 @ 절간?(절?)

101005 #1 예, 절간도 하나 잇고, 또 그 서부병원.(예, 절도 하나 있고, 또 그 서부병원.)

101005 @ 음, 서부병원도 잇고.(음, 서부병원도 있고.)

101005 #1 거기덜 좀 잇주마씨.(거기들 좀 있지요.)

101005 @ 옛날에 무슨 기관이 잇어나진 안 헷수가?(옛날에 무슨 기관이 있었지는 안 했습니까?)

101005 #1 옛날에는 그 큰 기관이라는 건 엇고, 그 대림리사무소 잇어나기 전에 그 저 독심터[53]라고 헤 가지고, 이젠 부인회장네 집덜 짓엇수다만, 거기 집 읏을 때는 대림, 상대, 귀덕 사름덜이 와 가지고 그 여기 와서 글공부를 헤나십주, 일제 강점기에.(옛날에는 그 큰 기관이라는 건 없고, 그 대림리사무소 있기 전에 그 저 '독심터'라 해 가지고, 이젠 부인회장네 집들 지었습니다만, 거기 집 없을 때는 대림리, 상대리, 귀덕리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여기 와서 글공부를 했었지, 일제 강점기에.)

101005 @ 아, 서당?(아, 서당?)

101005 #1 예, 서당에. 예, 경 헷당 저것이 또 을신년 태풍으로 그디가 멜라지난 지금 리사무소 잇는 딜로 집을 뚜로 옮겨가자고 헷는데, 그때꺼지도 우리 어린 때꺼지도 나도 서당학교 ᄒᆞᆫ 일 년 뎅겻수다. 그때 상대허고 귀덕 사름덜 여기 많이 완, 많진 안 헤도, 그 춤 거 와근에 갓수다. 게난 두 개 학급이라낫수다, 서당헐 때에.(예, 서당에. 예, 그렇게 했다가 저것이 또 을신년 태풍으로 거기가 허물어지니까 지금 이사무소 있는 데로 따로 옮겨가자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어릴 때까지도 나도 서당학교 한 일 년 다녔습니다. 그때 상대리하고 귀덕리 사람들 여기 많이 와서, 많지는 안 해도, 그 참 거 와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학급이었습니다, 서당할 때에.)

101005 @ 아, 게믄 거의 학교 형태네예? 그 훈장이 허는 게 아니고 선생이 ᄀᆞ르치는 거?(아, 그러면 거의 학교 형태네요? 그 훈장이 하는 게 아니고 선생이 가르치는 거?)

101005 #1 예, 학교 형태라는 거는 그 저 수원에는 해방뒈니까 의무교육제로 헤 가지고 각 부락마다 학교를 짓으라고 헐 때에 우리 대림서도 학교를 막 짓젠 헤십

53) '독심터'는 옛날 대림리서 책 읽고, 글공부하는 쉼터이다.

주. 경 허다가.(예, 학교 형태라는 거는 그 저 수원리에는 해방되니까 의무교육제로 해 가지고 각 부락마다 학교를 지으라고 할 때에 우리 대림리서도 학교를 마구 지으려고 했지. 그렇게 하다가.)

101005 @ 큰 동네인디 학교 하나 짓젠 헤실 건디예?(큰 동네인데 학교 하나 지으려고 했을 것인데요?)

101005 #1 예, 리민총회를 멧 번 허면서 그걸 지을라고 허다가 헤낫는데, 그게 그 수원 학구가 족고 영 허니까, 이젠 수원 뎅겨나고 허니까, 그 옛날 일제 시대에 한림중학교, 아, 한림초등학교 다 다녀나니까, 그거 그디 수원 가불 바에는 한림초등학교 가겟다고 헤 가지고 학구가 이젠.(예, 이민총회를 몇 번 하면서 그걸 지으려고 하다가 했었는데, 그게 그 수원 학구가 작고 이렇게 하니까, 이젠 수원 다녔었고 하니까, 그 옛날 일제 시대에 한림중학교, 아, 한림초등학교 다 다녔으니까, 그거 거기 수원 가버릴 바에는 한림초등하교 가겠다고 해 가지고 학구가 이젠.)

101005 @ 한림에 초등학교를 세와부니까.(한림에 초등학교를 세워버리니까.)

101005 #1 예, 경허난 이젠 수원초등학교가 우리 대림 땅에 잇음이라도 수원초등학교라십주.(예, 그러니까 이젠 수원초등학교가 우리 대림리 땅에 있음이라도 수원초등학교지.)

101005 @ 아, 가까운 쪽으로?(아, 가까운 쪽으로?)

101005 #1 겐 그때 그 수원초등학교 강 비석들 보믄양, 부지 매입이라든지 학교 시설헐 때에 큰 돈 내놓고 허는 사름 다 대림 사름덜 내어낫수다게.(그래서 그때 그 수원초등학교 가서 비석들 보면요, 부지 매입이라든지 락교 시설할 때에 큰 돈 내놓고 하는 사람 다 대림리 사람들 내었었습니다.)

101005 @ 대림 사름덜이.(대림리 사람들이.)

101005 #1 비석에 다 올라가 이십주마는.(비석에 다 올라가 있습지만.)

101005 @ 지금도 수원초등학교 잇는 번지가 대림 번지우꽈?(지금도 수원초등학교 있는 번지가 대림리 번지입니까?)

101005 #1 예, 대림 번지우다.(예, 대림리 번지입니다.)

101005 @ 그러니까 어쩌면 이름만 수원초등학교지 사실은 대림초등학교.(그러니까 어쩌면 이름만 수원초등학교지 사실은 대림초등학교.)

101005 #1 예, 그 관계를 우리 대림허고도 수원서가 한참 그 리민들끼리 알력이 셧수다. 왜 그러냐 허며는 왜 대림 땅에 짓어 놓고덜 수원학교라고 허느냐? 그때는 우리 대림서는 수원학교를 아이 가겟다. 그디 갈 바에는 한림으로 가겟다 헤 가지고 안 뎅겨나십주게.(예, 그 관계를 우리 대림리하고 수원리서가 한참 그 이민들끼리 알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대림리 땅에 지어 놓고들 수원초등학교라고 하느냐? 그때는 우리 대림리서는 수원초등학교를 안 가겠다. 거기 갈 바에는 한림초로 가겠다 해 가지고 안 다녔었습지요.)

101005 #1 경 헷다가 수원서 그디 학교를 짓어 놓고, 저 그 멧 해 뒈어 가니까 뚜로 교육청광 과정에서 대림서는 그디 가지 못허게 헤서 수원 가라. 기에 간 경계

를 때려 버려부난 홀 수 읏이 수원 다녀십주.(그렇게 했다가 수원리서 거기 학교를 지어 놓고, 저 그 몇 해되어 가니까 따로 교육청과 과정에서 대림리서는 거기 가지 못하게 해서 수원초 가라. 거기 가서 경계를 때려 버려버리니까 할 수 없이 수원초 다녔었습지요.)

101005 @ 게니까 요기까지는 수원 가고, 여기까지는 한림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 불엇구나.(그러니까 요기까지는 수원초 가고, 여기까지는 한림초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갈라 버렸구나.)

101005 #1 예, 지금도 현재 그저 지역별로는 대림허고 한수리는 그 수원초등학교 ᄀᆞ튼 관할인데, 그 저 거의 다 한림 가붑니다, 지역상으로. 우리도 역시 그 저, 우리 아이덜토 우리 오남맨디 다 수원초등학교 나왓수다.(예, 지금도 현재 그저 지역별로는 대림리하고 한수리는 그 수원초등학교 같은 관할인데, 그 저 거의 다 한림초 가버립니다, 지역상으로. 우리도 역시 그 저, 우리 아이들도 우리 오 남매인데 다 수원초등학교 나왔습니다.)

101005 @ 아, 여긴 수원 가는 게 훨씬 ᄇᆞ딜 거라예.(아, 여긴 수원초 가는 게 훨씬 가까울 것이지요.)

101005 #1 아니, 그 ᄇᆞ디기도 협주마는 학구가 경 등록뒈어부난.(아니, 그 가깝기도 하지만 학구가 그렇게 등록되어버리니까.)

101005 @ 음, 학구가 경 정헤져 부니까? 어쩔 수 엇이.(음, 학구가 그렇게 정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101005 #1 예, 예.(예, 예.)

101006 @ 음, 그렇구나. 이쪽 이 마을에 보통 계들, 마을계가 잇지 아니허꽈? 마을계, 마을계가 어디 이십니까?(음, 그렇구나. 이쪽 이 마을에 보통 계들, 마을계가 있지 않습니까? 마을계, 마을계가 어디 있습니까?)

101006 #1 아, 저, 예, 예. 저 계가 상당이 많아십주예. 그 전에는 어려우니까 동네 리에서도 흔 십오 명, 이십 명덜 계를 헤 가지고 허며는 상부상조허기 위헤 가지고 혼례헐 때에 술 멧 춘이 주곡 쌀 흔 가마썩 헌다든지, 모인다든지 이렇게 헤 가지고 계가 많이 헷엇고.(아, 저, 예, 예. 저 계가 상당히 많았습지요. 그 전에는 어려우니까 동네 이에서도 한 십오 명, 이십 명들 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상부상조하기 위해 가지고 혼례할 때에 술 몇 추니 주고 쌀 한 가마니씩 한다든지, 모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계를 많이 했었고.)

101006 @ 계 이름이 뭐렌 헤낫수가? 계 이름?(계 이름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계 이름?)

101006 #1 그 계 이름덜 특별이 짓진 안 헷수다.(그 계 이름들 특별히 짓지는 안 했습니다.)

101006 @ 특별이 짓진 안 허고?(특별히 짓지는 안 하고?)

101006 #1 예, 게서 동네에 경 아주 성헤나십주게. 우리도 계에 들어 가지고 허며는, 제일 처음은 결혼허기 어려우니까, 저 득세기 쉰 개 보유허곡, 또 술 흔 춘이

계꾼에서 허곡 쌀 한 가마니 헤 준다, 큰일 때는 또 경조사에, 영장 때는 경 허곡 뚜로 잔치 때는 이만저만 헤 준다, 이래가지고 막 헐 디서, 그 계가 한참 막 성헐 때는 성해낫는데, 그 저 뭐냐, 전쟁 전에라든지 그때꺼지 뚜로 이제 중간, 그때 뭐 일본말로 다나무시, 다나무시렌 계가 잇엇수다.(예, 그래서 동네에 그렇게 아주 성했었습지요. 우리도 계에 들어 가지고 하면은, 제일 처음은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저 달걀 쉰 개 보유하고, 또 술 한 추니 계꾼에서 하고 쌀 한 가마니 해 준다, 큰일 때는 또 경조사에, 영장 때는 그렇게 하고 따로 잔치 때는 이만저만 해 준다, 이래서 마구 할 데서, 그 계가 한참 아주 성할 때는 성했었는데, 그 저 뭐냐, 전쟁 전에라든지 그때까지 따로 이제 중간 뭐 일본말로 '다나무시', '다나무시'라는 계가 있었습니다.)

101006 @ 다나무시.('다나무시'.)

101006 #1 예, 건 또 돈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계주가 돈을 모여 가지고 주며는 나중 돌아가면서 그 저 그.(예, 건 또 돈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계주가 돈을 모여 가지고 주면은 나중 돌아가면서 그 저 그.)

101006 @ 돈 주는 거지예? 돈 돌아가멍 돈을 받는 거라. 음, 받는 거라.(돈 주는 거지요? 돈 돌아가면서 돈을 받는 거야. 음, 받는 거야.)

101006 #1 계주가 셔 가지고 다나무시 ᄀᆞ튼 거 헤낫수다.(계주가 있어 가지고 '다나무시' 같은 거 했었습니다.)

101006 @ 게난 여러 사름이 모영은에 흔번 이 사름이 받으면 다음 받고.(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번 이 사람이 받으면 다음 받고.)

101006 #1 다음 돌아가멍, 것도 저 그 일본말로 구찌비끼[54] 헤 가지고, 재수보기 뽑아가지고 ᄎᆞ례헨예.(다음 돌아가면서, 것도 저 일본말로 '구찌비끼' 해 가지고, 재수보기 뽑아 가지고 차례했어요.)

101006 @ 제비뽑기 헤근에.(제비뽑기 해서.)

101006 #1 그래가지고 것이 아주 성황리에 허다가 그게 너무 화폐 가치가 없어가니까, 없어져 가니까 그 저 일차 화폐가 오십이 년 이월 십육일날 일차 화폐 개혁뒈고, 이차가 육십삼년도에 저것 그 이차 화폐 개혁 헷수다, 과거는 그 저 교환허니까.(그래서 것이 아주 성황리에 하다가 그게 너무 화폐 가치가 없어 가니까, 없어져 가니까 일차 화폐가 오십이년 이월 십육일에 일차 화폐 개혁되고, 이차가 육십삼년도에 저것 그 이차 화폐 개혁 했습니다, 과거는 그 저 교환하니까.)

101006 @ 환허다가 원으로 바뀐 게 오십이년도예?(환하다가 원으로 바뀐 게 오십이년도지요?)

101006 #1 육십 멧 년도우다.(육십 몇 년도입니다.)

101006 @ 그 원으로 바뀐 게 육십 멧 년도우꽈? 오십이 년도에는 뭐?(그 원으로 바뀐 게 육십 몇 년도입니까? 오십이 년도에는 뭐?)

101006 #1 환으로 뒈어서.(환으로 됐어.)

54) '구찌비끼'는 일본말로 우리말로 제비뽑기를 말한다.

101006 @ 환으로, 그냥 환?(환으로, 그냥 환?)

101006 #1 그때 저 멧 원 헷던 간에 오십이 년 이월 십육일이우다. 난 그땐 뭐 조껀 잇어 가지고 웨우게 뒛는디.(그때 저 몇 원 했든 간에 오십이 년 이월 십육일입니다. 저는 그때는 뭐 조건 있어 가지 외우게 되는데.)

101006 @ 오십이 년도, 전쟁통이네예?(오십이 년도, 전쟁통이지요?)

101006 #1 예, 전쟁 때 갓수다, 일차 화폐개혁은. 겐 이차는 박정희 때고마씨.(예, 전쟁 때 같습니다, 일차 화폐개혁은. 그래서 이차는 박정희 때고요.)

101007 @ 이 동네 풍습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잇수가? 이 동네 풍습이.(이 동네 풍습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동네 풍습이.)

101007 #1 풍습이란 것은 과거 그 저 특별한 풍속이, 특별한 풍속이 엇수다. 우리 상동에는 절도 없고, 교회도 지금이야 많이 잇수다마는 그런 뭣이 잇으니까 허뒈, 그 저 유교를 신봉허여 가지고 저 헌 풍속이라나십주게.(풍습이란 것은 과거 그 저 특별한 풍속이, 특별한 풍속이 없습니다. 우리 상동에는 절도 없고, 교회도 지금이야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뭣이 있으니까 하되, 그 저 유교를 신봉하여 가지고 저 헌 풍속이었습지요.)

101007 @ 마을제나 뭐 이런 것들은?(마을제나 뭐 이런 것들은?)

101007 #1 아, 마을제는, 에, 그게 그 시초는 언제 헷는지는 몰라양. 시초는 언제 헌지 몰르는데, 그 전에 우리 대림서는 나 이장헐 때꺼지도 소서를 두엇수다. 부락 소서라면.(아, 마을제는, 에, 그게 그 시초는 언제 했는지는 몰라요. 시초는 언제 한지 모르는데, 그 전에 우리 대림리서는 나 이장할 때까지도 소사를 두었습니다. 부락 소사라면.)

101007 @ 소사, 소사?(소사, 소사?)

101007 #1 예, 이제 ᄀᆞ뜨면 급숩주게.(예 이제 같으면 급사지요.)

101007 @ 급사. 예.(급사. 예.)

101007 #1 이 사름이 허므는 그 저 어디 회의를 허게 뒈면 오늘 메칠 날 향회우다. 뜨로 행정관청에서 어떤 곧 전화 오민 것도 곧 부름씨도 허여 주고, 영 마탕 허고, 큰일 나며는 소서가 그 집에 가서 뒈지도 잡아주곡, 불도 때어주곡.(이 사람이 하면은 그 저 어디 회의를 하게 되면 오늘 며칠 날 향회입니다. 따로 행정관청에서 어떤 곧 전화 오면 것도 곧 심부름도 하여 주고, 이렇게 맡아서 하고, 큰일 나면 소가가 그 집에 가서 돼지도 잡아주고, 불도 때어주고.)

101007 @ 마을제는 언제 헤난 걸 뭐 ᄀᆞᆯ아줍서.(마을제는 언제 했던 걸 뭐 말해 주십시오.)

101007 #1 예, 저 마을제는 그게 그 시초는 모르쿠다. 시초는 모르는데, 그게 그 때 그 칠십삼 년도에 폐쉐뒈엇수다. 것도 나 이장 때 폐쉐뒈어십주게. 게난 연도를 나가 알아지는 겁주. 그 전엔 소사 잇고, 그걸 헌 원인이 행정이라든지 요즘은 지원헤 주는데 지원이 읏고, 부락 운영 과정도 부락민들이 리 사무소에 모여 가지고, 이장이라든지 이젠 사무장이주마는 서기도 두곡 허여나니까, 허엿는디 지정을 그 절

을 헐려고 허믄, 그 그냥 칼로 젓 찔렁 죽입주게. 기실루와야 뒈어마씨. 뒤에 허영.(예, 저 마을제는 그게 그 시초는 모르겠습니다. 시초는 모르는데, 그게 그때 그 칠십삼 년도에 폐쇄되었습니다. 것도 나 이장 때 폐쇄되었습지요. 그러니까 연도를 나가 알 수 있는 거지. 그 전에 소사 있고, 그걸 한 원인이 행정이라든지 요즘은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 없고, 부락 운영 과정도 부락민들이 이사무소에 모여 가지고, 이장이라든지 이젠 사무장이지만 서기도 두고 하였으니까, 하였는데 지정을 그 절을 하려고 하면, 그 그냥 칼로 젓 찔러서 죽이지요. 그슬려야 돼요. 뒤에 해서.)

101007 @ 돗 그슬영은에, 예, 예.(돼지 그슬려서, 예, 예.)

101007 #1 온채로 올려 가지고 절을 허영, 그래낫는데, 그렇게 헤 가지고.(통째로 올려 가지고 절을 해서,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101007 @ 제를 올릴 때 예?(제를 올릴 때 예?)

101007 #1 예, 제 올령 헤 가지고 초헌, 아헌, 이렇게 해서 삼헌관이 잇고 거기 저, 대축, 집례, 대축 이 두 사름이 잇는 거고.(예, 제 올려서 해 가지고 초헌, 아헌, 이렇게 해서 삼헌관이 있고 거기 저, 대축, 집례, 대축 이 두 사람이 있는 거고.)

101007 @ 대축, 대축은?(대축, 대축은?)

101007 #1 고허는 사람예.(고하는 사람요.)

101007 @ 고허는 사람.(고하는 사람.)

101007 #1 대축 그렇게 허고 뚜로 그 봉로 봉향, 향 놓고, 봉로봉향이.(대축 그렇게 하고 따로 그 봉로봉향, 향 놓고, 봉로봉향이.)

101007 @ 봉로봉향?(봉로봉향?)

101007 #1 예, 그런 사름 뚜로 잇고 첨작헐 자가 잇고, 이렇게 헤낫수다.(예, 그런 사람 따로 있고 첨작할 자가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101007 @ 언제 그걸 헷수가?(언제 그걸 했습니까?)

101007 #1 그게 그 지제허는 것이 거 칠십오 년도에 지제헷수다.(그게 그 지제하는 것이 거 칠십오 년도에 지제했습니다.)

101007 @ 아, 게난 지제는 그렇게 헌디, 일 년 중에 어느 때에?(아, 그러니까 지제는 그렇게 하는데 일 년 중에 어느 때에?)

101007 #1 아, 그 새해 들어가지고 첫째 정일에 헷수다, 정일에. 정일에 만약 그 부락 내에서 어떵 헌 영장이 난다든지 허며는 걸 뚜로 연기헤 가지고, 다음 정일에 헷수다.(아, 그 새해 들어서 첫째 정일에 했습니다, 정일에. 정일에 그 부락 내에서 어떻게 한 영장이 난다든지 하면은 걸 따로 영기해 가지고, 다음 정일에 했습니다.)

101007 @ 아, 아, 정일에.(아, 아, 정일에.)

101007 #1 겐디 그걸 허젠 허며는 이 총회를 열어 가지고 메칠 안 허곡 헌관들 뽑아 가지고, 그 중관[55]뒌 사름덜은 일주일간을 제를 모시는 차릴 집에 가서 합숙을 헤십주게. 경ᄒᆞ곡 뚜로 저 집집마다 금줄을 메고.(그런데 그걸 하려고 하면 이 총회를 열어 가지고 며칠 안 하고 헌관들 뽑아 가지고, 그 중관된 사람들은 일주일

55) '중관'은 제관으로 선택된 사람들을 말한다.

간을 제를 모시는 차릴 집에 가서 합숙을 했습지요. 그리고 따로 집집마다 금줄을 매고.)

101007 @ 금줄, 금줄?(금줄, 금줄?)

101007 #1 예, 금줄.(예, 금줄.)

101007 @ 금줄예, 금줄.(금줄요, 금줄.)

101007 #1 그걸 매 가지고 곧 절을 들여낫수다. 겐 제 이 홀리기 것도 저 우리 집이서 나간 건디 저 뭐냐, 향지에 올랏수다.(그걸 매 가지고 곧 절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 호리는 것도 저 우리 집에서 나간 것인데 저 뭐냐, 향지에 올랐습니다.)

101007 @ 그때는 마을제도 허고, 혹시 여긴 할망당[56]은 엇어낫수가?(그때는 마을제도 하고, 혹시 여긴 '할망당'은 없었습니까?)

101007 #1 아, 할망당도 잇엇수다. 할망당은 저 거 번지가 향지엔 나왓수다. 향지에 나왓는디 저 대림사동에서 그디 즈끗디 그디 무슨 아파트엔 허더라? 그 아파트 즈끗디 저, 바닷가에서 한 오십 메다쯤 떨어진 데 큰 폭낭도 잇곡 그디서 제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건 이월달에 헷수다. 이월 초 중에 걸 영등굿[57]이라든지 일로 헷는데.(아, '할망당'도 있었습니다. '할망당'은 저 거 번지가 향지에는 나왔습니다. 향지에 나왔는데 저 대림사동에서 거기 곁에 거기 무슨 아파트엔 하더라? 그 아파트 곁에 저, 바닷가에서 한 오십 미터쯤 떨어진 데 큰 팽나무도 있고 거기서 제를 지내고, 거기서 이제 건 이월에 했습니다. 이월 초 중에 걸 '영등굿'이라든지 일로 했는데.)

101007 @ 건 바당에?(건 바다에?)

101007 #1 예.(예.)

101007 @ 바당일 잘 헤 달렌 허는 거?(바다일 잘 해 달라고 하는 거?)

101007 #1 예, 게니까 바당에도 잘 뒈렌 허고 뚜로 일반 아기덜토 잘 키와도렌 허고, 목적도 각자가 헹. 겐디 그 저 축에 내용도 보며는 저 온 벡성이 다 건강허고, 또 어업에서는 어업이 잘 뒈고, 농사짓는 사름덜은 농사도 잘 뒈라 허고, 우마 이런 것도 잘 뒈게 허라 허여 가지고 이런 축 뒈엇수다.(예, 그러니까 바다에도 잘 되라고 하고 따로 일반 아기들도 잘 키워달라고 하고, 목적도 각자가 해서. 그런데 그 저 축에 내용도 보면 저 온 백성이 다 건강하고, 또 어업에서는 어업이 잘 되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도 잘 되라하고, 우마 이런 것도 잘 되게 하라 하여 가지고 이런 축 되었습니다.)

101007 @ 건 이월?(건 이월?)

101007 #1 이월 초싱에 헷수다.(이월 초승에 했습니다.)

101007 @ 초싱에.(초승에.)

101007 #1 초싱에, 그것도 정일에 헷수다. 그 저 물도 여기선 봉천수를 떠다 먹

56) '할망당'은 제주에서는 할망이란 여자를 가리키며, 마을 근처에 동굴이 있으면 그것을 '할망당'으로 모시는 풍습이 있는데 여신(女神) 숭배사상에서 온 것이다.

57) '영등굿'은 영등신을 맞이하여 치르는 당굿이다.

는데 봉천수 없이 꼭 저 바당 ᄌᆞ꼿디 가가지고 저 빗구물[58], 빗구물 허여 가지고 그 물을 질어다가 지주도 허고, 또 때도 그 지관덜 모욕도 그걸로 허고, 또 떡도 만들고 부쪄나십주.(초승에, 그것도 정일에 했습니다. 그 저 물도 봉천수를 떠다 먹는데 봉천수 없이 꼭 저 바다 곁에 가서 저 '빗구물', '빗구물' 하여 ᄀᆞ지고 그 물을 길어다가 제주도 하고, 또 때도 그 지관들 목욕도 그걸로 하고, 또 떡도 만들고 붙였었지.)

101007 @ 바당에 그 솟아나는 물예?(바다에 그 솟아나는 물요?)

101007 #1 예, 예. 게서 그 지루개[59]에는 그 물, 빗구물, 빗구물 허는디, 이제 한림, 이제 저 대림사동, 뭐냐 이 저 도항선 잇는디 ᄌᆞ꼿디우다.(예, 예. 그래거 그 '지루개'에는 그 물, '빗구물', '빗구물' 하는데, 이제 한림리, 이제 더 대림사동, 뭐냐 이 저 도항선 있는데 곁에입니다.)

101007 @ 예, 예.(예, 예.)

101007 #1 거기 저 비석도 세와지곡, 그 저 빗구물이란 물이 잇수다.(거기 저 비석도 세워지고, 그 저 '빗구물'이란 물이 있습니다.)

101007 @ 아, 빗구물.(아, '빗구물'.)

101007 #1 겐디 그 저 빗자가 뚠 사름덜은 그 저 구자 뭐냐 비둘기 구자에, 아이 저 거북 구자에 저 그.(그런데 그 저 '비'자가 다른 사람들은 그 저 '구'자 뭐냐 비둘기 '구'자에, 아니 저 거북 '구'자에 저 그.)

101007 @ 비, 비허믄 날 비?(비, 비하면 날 '비')

101007 #1 아, 그 무슨 자? 이젠 나이가 잇언 춤, ᄋᆞ든아홉이우다게. 게난 다 잊어불곡 연도 ᄀᆞ뜬 것도 다 몰라마씸게.(아, 그 무슨 자? 이젠 나이가 있어서 참, 여든아홉입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연도 같은 것도 다 몰라요.)

101007 @ 아이, 그 대단허우다게, 진짜.(아니, 대단합니다, 진짜.)

101007 #1 겐 그디 저 빗구물 길어다가 ᄯᅩ로 헤낫수게. 게난 그 삼일간을 합숙을 헤서양.(그래서 거기 저 '빗구물' 길어다가 따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일간을 합숙을 했어요.)

101007 @ 음, 그거 제 올리젠 허면.(음, 그거 제 올리려고 하면.)

101007 #1 예, 예.(예, 예.)

101007 @ 몸을 아무 것도 허지 말고 조용히 잘 헤야 뒈니까.(몸을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잘 해야 되니까.)

101007 #1 예.(예.)

101008 @ 게난 그런 풍습, 게 이 마을에 과거에는 아까 뭐 특산물 허며는 어떤 것들?(그러니까 그런 풍습. 그럼 이 마을에 과거에는 아까 뭐 특산물 하면은 어떤 것들?)

101008 #1 특산물, 이 부근에서 우리 대림서가 그 귀덕, 수원, 한림읍 일대서 제

58) '빗구물'은 한림읍 대림리 지경 바닷가에서 솟는 용천수이다.
59) '지루개'는 한림읍 대림리 바닷가 지경이다.

일 처음 양파 및 양배추를 시작헷수다. 게난 대림서들 본받다시피 헤 가지고 딴 동네덜 전파뒈엇수다.(특산물, 이 부근에서 우리 대림리서가 그 귀덕리, 수원리, 한림읍 일대서 제일 처음 양파 및 양배추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리서들 본받다시피 해 가지고 다른 동네들 전파되었습니다.)

101008 @ 그 전이는 뭐 특별헌 거 엇어수가?(그 전에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까?)

101008 #1 그 전에는 보리, 조, 그자 콩, 고구마 헷는디, 고구마도 과거에는 식량으로 먹을 만큼만 허다가 일제시대 말부터 그 저 저장을 위헤서 절간을 허엿고, 또 그 끗데 또 역시 육이오 아니 사삼사건이 끝나니까 또 전분공장이 셍겨가지고 전분용으로 헤서 그게 헤 가지고 고구마덜 많이 헷수다.(그 전에는 보리, 조 그저 콩, 고구마 했는데, 고구마도 과거에는 식량으로 먹을 만큼만 하다가 일제 강점기 말부터 그 저 저장을 위해서 절간을 하였고, 또 그 끝에 또 역시 육이오 아니 사삼사건이 끝나니까 또 전분공장이 생겨가지고 전분용으로 해서 그게 해 가지고 고구마들 많이 했습니다.)

101008 @ 게난 감저뻿데기 헤 가지고 ᄆᆞᆯ리왕은에, 공출허고.(그러니까 고구마 고지 해 가지고 말려서, 공출하고.)

101008 #1 예, 예. 그거 나도 그거 막 많이 헤십주기. 많이 헤 가지고 나 저 고구마 다수확상ᄁᆞ지 탓수다.(예, 예. 그거 나도 아주 많이 했습지요. 많이 해 가지고 나 저 고구마 다수확상까지 탔습니다.)

101008 @ 다수확상? 많이 허믄 멧 평이나 정도 허믄 뒈는 거?(다수확상? 많이 하면 몇 평이나 정도 하면 되는 거?)

101008 #1 우리는 헐 때에 절간 흔 백이십 푸대꺼지 헷수다.(우리는 할 때에 절간 한 백이십 포대까지 했습니다.)

101008 @ 아이고, 그걸 밧디서 썰엉 널읍니까?(아이고, 그걸 밭에서 썰어서 널습니까?)

101008 #1 밧디서 그냥 갈곡, 나이 많은 사름은 못 헙주. 우리도 그 저, 아이덜 많이 일 시겻는데 갈아가며는 욮뎅이에 주성 놔뒷당 다 갈아노면 또 그걸 메왕 그 절간 기계 곶당 썰곡 헤십주게. 밤엔 썰곡 춤 박허게 살앗수다. 그 낮엔 고구마 갈곡, 경 허젠 허므는 그 저 늙은이덜은 허리 아팡 죽지 못허니까 일요일 날을 택해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덜 갈고 경 헹은에도 허고, 비 왐직허면 밤이도 ᄃᆞᆯ아강.(밭에서 그냥 갈고, 나이 많은 사람은 못 하지요. 우리도 그 저, 아이들 많이 일 시켰는데 갈아가면은 옆에 주워서 놔뒀다가 다 갈아놓으면 또 그걸 모여서 그 절간 기계 갖다가 썰고 했습지요. 밤엔 썰고 참 박하게 살았습니다. 그 낮엔 고구마 갈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 저 늙은이들은 허리 아파서 죽지 못하니까 일요일 날을 택해 가지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들 갈고 그렇게 해서 하고, 비 올 것 같으면 밤에도 데려가서.)

101009 @ 밤이도 허곡, 맞수다게. 게 이제 이 마을 대림리에 다른 마을에 비헹

뭐 자랑할 수 잇는, 자랑거리가 어떤 것들이 잇수가? 이 대림리에는.(밤에도 하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마을 대림리에 다른 마을에 비해서 뭐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 대림리에는.)

101009 #1 뭐, 농사로마씸?(뭐, 농사로요?)

101009 @ 아니, 게난 이 마을 자랑이, 자랑거리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는 어떤, 다른 디는 엇인 거? 뭐 이렇게 자랑헐만헌 거?(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 자랑이, 자랑거리들이 혹시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는 어떤, 다른 데는 없는 거?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

101009 #1 다른 동네 없어 가지고 근래, 과거에는 우리 대림서가, 대림허고 명월서가 첨 인재가 제일 잘 난덴 해나십주기, 일제 강점기부떠. 경헌디 그때는 춤 한림면사무소에는 그때는 대림면사무소렌 헤낫수다게. 멘장이 대림 사름이고 직원덜이 흔 멧 사름 아니라서 거의 다 우리 대림 사름이라, 그렇게 헤 가지고 허고, 또 양○○ 본처라든지 우리 대림서 흔 부락 내에서 두 사름 국회의원 입후보허곡 허면서 헤낫는데 근래는 특히 행정에 우리 대림이 없어마씸게, 공무원덜이. 그것이 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게.(다른 동네 없어 가지고 근래, 과거에는 우리 대림리에서, 대림리하고 명월리서가 참 인재가 제일 잘 난다고 했습지요. 일제 강점기부터. 그런데 그때는 참 한림면사무소에는 그때는 대림면사무소라고 했었습니다. 면장이 대림리 사람이고 직원들이 한 몇 사람 아니라서 거의 다 우리 대림리 사람이야,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또 양○○ 본처라든지 우리 대림리서 한 부락 내에서 두 사람 국회의원 입후보하고 하면서 했었는데 근래는 특히 행정에 우리 대림리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그것이 젤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101009 @ 아, 옛날에는 인물들이 꽤 잇어낫구나예? 예, 맞아.(아, 옛날에는 인물들이 꽤 있었었구나예? 예, 맞아.)

101009 #1 예.(예.)

101009 @ 뭐 교육자도 잇고 뭐, 교수도 잇고.(뭐 교육자도 있고, 교수도 있고.)

101009 #1 아, 예, 거 저 교수도 잇고, 교육장도 잇고, 거 도지사도 잇고, 초대 총무국장, 삼대 산업국장, 이 저 우리 대림 사름이라나십주기.(아, 예, 거 저 교수도 있고, 교육장도 있고, 초대 총무국장, 삼대 산업국장, 이 저 대림리 사람이었습지요.)

101009 @ 경찰들도 많이 잇어낫수가?(경찰들도 많이 있었습니까?)

101009 #1 예, 경찰덜은 근래 잇엇다가 저 박○○이가 서장꼬지 지내고예. 또 박사 과정 허는 디는 신○○ 교수가 허고, 또 아덜이 박사 뒈고, 또 자랑허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아덜이 고대에서 박사 뒈고, 박사도 흔 예실곱 명쯤 잇수다.(예, 경찰들은 근래 있었다가 저 박○○이가 서장까지 지내고요. 또 박사과정 하는 데는 신○○ 교수가 하고, 아들이 박사 되고, 박사도 예슬곱명쯤 있습니다.)

101009 @ 게난 아드님은 고대에서 박사, 게믄 거기서 교수허고마씨?(그러니까 아드님은 고대에서 박사, 그러면 거기서 교수하고요?)

101009 #1 아니우다. 그 국방대학원 강사로 잇다가 국가기술연구소, 거기 저 실장으로 갓수다게.(아닙니다. 그 국방대학원 강사로 있다가 국가기술연구소, 거기 저 실장으로 갔습니다.)

101010 @ 걸랑 쉬엇당 골아줍서. 이제 마을에 대헤서는 이제 혹시나 더 골을 거 잇수가?(걸랑 쉬었다가 말해주십시오. 이제 마을에 대해서는 이제 혹시나 더 말할 거 잇습니까?)

101010 #1 마을에 대헤서 뭣을 주목헤 가지고?(마을에 대해서 뭣을 주목해 가지고?)

101010 @ 아이, 게난 이 마을에 대헤서 아까 곧지 못헌 말들 혹시나 이시믄?(아니, 그러니까 이 마을에 대해서 아까 말하지 못한 말들 혹시나 있으면?)

101010 #1 겐디 마을에 대헤서 그 장례 문화?(그런데 마을에 대해서 그 장례 문화?)

101010 @ 장례, 장례 문화. 예, 뭐 장례 문화도 물어보긴 헐 거우다마는.(장례, 장례 문화. 예, 뭐 장례 문화도 물어보긴 할 것입니다만.)

101010 #1 그런 것덜이 지금은 다 개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춤 공동묘지라든지 매장이 이렇게들 나가부니까 어떻게 섭섭흔 사름덜토 이실 건디, 게고 그 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거의 다 미리 퉤엇고, 또 우리 본리에 대헤서는 특별이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로 미릇 놧수다.(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개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참 공동묘지라든지 매장이 이렇게들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섭섭한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저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거의 다 미리 되었고, 또 우리 본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주도에서는 두 번째로 미리 놓았습니다.)

101010 @ 먼저, 수도를 제일 먼저?(먼저, 수도를 제일 먼저?)

101010 #1 예.(예.)

101010 @ 한림보단도 먼저?(한림리보다도 먼저?)

101010 #1 예, 그 군사혁명 때에 저 새ᄆᆞ을 사업으로 헤 가지고 제일 먼저 수산허고 우리 대림이 일차적으로 관정 굴착을 헤십주기. 겐 그때 박정희 군사혁명 당시에 그 재건위원장으로 대림 완 물 먹어봔 저.(예, 그 군사혁명 때에 저 새마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일 먼저 수산리하고 우리 대림리가 일차적으로 관정 굴착을 했습지요. 그래서 그때 박정희 군사혁명 당시에 그 재건위원장으로 대림리 와서 물 먹어봐서 저.)

101010 @ 게난 건 지하수 뽑아 올린 거?(그러니까 건 지하수 뽑아 올린 거?)

101010 #1 예, 예, 아 이 물이 전국에서 일위다. 겐 탁 칭찬헤 줘십주게, 박정희가.(예, 예, 아 이 물이 전국에서 일위다. 그래서 탁 칭찬해 줬습지요, 박정희가.)

101010 @ 그때 물은 처음으로 헌 거꽈?(그때 물은 처음으로 한 것입니까?)

101010 #1 예, 예, 처음으로 헤 가지고 그때 헐 때도 부민들은 안 허고 우리 대림 사름덜, 상당이 협동심이 강허여마씨. 경 헨 일본허고 **허고 서울 강 사는 사름

덜이 많이 힘을 얻어 가지고 다 그걸 설치헤십주게.(예, 예,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 때 할 때도 부락민들은 안 하고 우리 대림리 사람들, 상당히 협동심이 강해요. 그렇게 해서 일본하고 **하고 서울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힘을 얻어 가지고 다 그걸 설치했습지요.)

101010 @ 수고헷고예,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어른신 살앗던 얘기를 들어보쿠다. 좀 쉬엇당 허게마씨.(수고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어르신 살았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하게요.)

2. 제보자 일생

102001 @ 어르신 살아난 이야기 들어보쿠다예. 그 저 낳고 자란 과정에 대헤서 골아줘봅서?(어르신 살아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저 낳고 자란 과정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2001 #1 그 낳고 자란 것은 옛날에 뭐 낳고 자란 거야 뭐 자연적으로 낳고 자라십주마는 그때는 우리가 날 적에는 지금ᄀᆞ찌 산부인과가 엇어십주게. 게믄 그자 열 둘 임신헤 가지고, 열 둘 뒈믄 으레이 날 꺼 영 허연 그자 동네 조금 솔수룩헌 여자들이 게믄 그 집이 가 가기고, 저 출산헐 때에 도와주고 헷지마는 못 젼딤의 공으로 낳곡 헤십주. 그래서 자라믄 그자 흔 예실곱솔 넘엉 그 해방 이후에는 그때도 쪼끔 살림께나 허는 집이는 저 서당 혹교에 다니고, 게 아니믄 안 다니고 이렛는데, 특히 우리 대림서는 일제시대에, 또 뭐냐 일본 가서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하우다. 제일 많읍주. 요 한림 멧 사름. 그리고 ᄯᅳ로 저 해방 이후, 저 일제시대 ᄯᅳ로 역시 저 일본놈을 상대로 헤 가지고 독립운동을 헌 사름덜이 한림읍지에도 잇주마는 흔 네댓 사름은 대림 사름이고, 또 거 일본 유학헐 때, 저 일본 가서 명치대학교라든지 와세다대학에 다닌 사름덜토 우리 대림 사름덜 많으고, 이레노니까 우리 대림서 향학열이 상당이 높아마씨. 거 공직에도 그땐 많이 들어가고, 그 흔 멧 십년ᄁᆞ지만 헤도, 또 교직원이 가장 많아낫수다, 면이서. 그래서 하다가 어떵 어떵 그 다음부떠는 아이들이 ᄯᅳ로 서울도 가불곡 경 헤노니까 근래는 츰 공직자덜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츰, 상당이 츰 문촌, 문촌 허여 가지고 경 헨 잇어나십주. (그 낳고 자란 것은 옛날에 뭐 낳고 자란 거야 뭐 자연적으로 낳고 자랐습지요만 그때는 우리가 날 적에는 지금같이 산부인과가 없었습지요. 그러면 그저 열 달 임신해 가지고, 열 달 되면 당연히 날 거 이렇게 해서 그저 동네 조금 알만한 여자들이 그러면 그 집에 가 가기고, 저 출산할 때에 도와주고 했지만 못 견딤의 공으로 낳고 했습지요. 그래서 자라면 그저 한 예닐곱살 넘어서 그 해방 이후에는 그때도 조금 살림 깨나 하는 집에는 저 서당 학교에 다니고, 그렇게 않으면 안 다니고 이랬는데, 특히 우리 대림리서는 일제시대에, 또 뭐냐 일본 가서라든지 대학 교수들이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요 한림리 몇 사람. 그리고 따로 저 해방 이후, 저 일제시

대 따로 역시 저 일본놈을 상대로 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한림읍지에도 있지만은 한 네댓 사람은 대림리 사람이고, 또 거 일본 유학할 때, 저 일본 가서 명치대학교라든지 와세다대학에 다닌 사람들도 우리 대림리 사람들 많고, 이랬으니까 우리 대림리서 향학열이 상당히 높아요. 거 공직에도 그땐 많이 들어가고, 그 한 몇십 년까지만 해도, 또 교직원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면에서.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이 따로 서울도 가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근래는 참 공직자들이 얼마 없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참, 상당히 참 문촌, 문촌 하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있었었지요.)

102001 @ 게난 이 저 태어나신 건 멧 년도에 태어나셧수가?(그러니까 이 저 태어나신 건 몇 년도에 태어나셨습니까?)

102001 #1 나마씸?(나요?)

102001 @ 예, 예.(예, 예.)

102001 #1 삼십이 년생이우다.(삼십이 년생입니다.)

102001 @ 아, 삼십이 년이믄?(삼십이 년이면?)

102001 #1 이제 팔십아홉이라마씨.(이제 팔십아홉이에요.)

102001 @ 예, 그 혹시 뭐 군대도 가오고예?(예, 그 혹시 뭐 군대도 가오고요?)

102001 #1 군대는 막 늦언 갓수다. 저 왜 늦언 갓느냐 허면 우리가 해병 사기생으로 가낫는디, 그땐, 해병 사기생으로 가서 조병창에 가서 혼 일주일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간 그 갑자기 아침 식사 끗데는, 아, 모이라 헤 가자고 모이니까, 호적은 나가 두 나가 늦읍주기. 게난 그때 그 연령 미달로 돌아왓수다.(군대는 아주 늦어서 갔습니다. 저 왜 늦어서 갔느냐 하면 우리가 해병 사기생으로 갔었는데, 그땐, 해병 사기생으로 가서 조병창에 가서 한 일주일간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가서 그 갑자기 아침 식사 끝에는, 아, 모이라 해 가지고 모이니까, 호적에는 나이가 두 살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연령 미달로 돌아왔습니다.)

102001 @ 아, 군대 갓단, 처음에 갓단, 처음에 갓단예?(아, 군대 갔다가, 처음에 갔다가, 처음에 갔다고요?)

102001 #1 예. 게난 돌아온 끗데.(예, 그러니까 돌아온 끝에.)

102001 @ 그게 멧 년도라마씨, 군대에서 돌아온 때가?(그게 몇 년도에요, 군대에서 돌아온 때가?)

102001 #1 그게 육이오사변 직홉주기. 네.(그게 육이오사변 직후입니다. 네.)

102001 @ 육이오사변 직후.(육이오사변 직후.)

102001 #1 게난 우리 동기덜이 그때 해병 사기생으로 간 사름덜이 인천상륙작전깟지도 다 헷주.(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그때 해병 사기생으로 간 사람들이 안천상륙작전까지 다 했지.)

102001 @ 아, 게믄 그 저 사기생으로 간에 참전헷구나예?(아, 그러면 그 저 사기생으로 가서 참전했구나예?)

102001 #1 참전을 못 헤십주. 두 나 거, 호적으로 두 나가 내려부니까.(참전을

못 했습지요. 두 살 거, 호적으로 두 살이나 내려버리니까.)

102001 @ 아, 그때 가시믄 참전헤실 건디.(웃음)하하.(아, 그때 갔으면 참전했을 것인데. (웃음)하하.)

102001 #1 그때 돌아와십주기.(그때 돌아왔습지요.)

102001 @ 호적에 내령 올려부난. 삼춘네 부모님도 여기 출신이우꽈? 어머니도? (호적에 내려서 올려버리니까. 삼촌네 부모님도 여기 출신입니까?)

102001 #1 예, 어머님도 대림이고 아버님도 대림이고, 저 우리 웨가는 교육계 오래 근무헷던 김○○ 교장 선셍이 우리 사춘이고, 검찰청 사무국장인 김○○씨가 우리 육촌 뒈우다. 우리 어머님네도 그렇게 뒈고 뚜로 우리 족은아버님네도 옛날 한림고등학교도 교감으로 와나실 거우다. 아, 그 김○○ 선셍이라 헤 가지고. 일제시대 일본서 명문 대학교덜 나오고, 또 우리 사춘덜도 역시 또 영문학 박사라든지 헤 가지고 대학교수덜 허고.(예, 어머님도 대림리이고 아버님도 대림리이고, 저 우리 외가는 교육계 오래 근무했던 김○○ 교장 선생이 우리 사촌이고, 검찰청 사무국장인 김○○씨가 우리 육촌 됩니다. 우리 어머님네도 그렇게 되고 따로 우리 작은아버님네도 옛날 한림고등학교도 교감으로 왔었을 것입니다. 아, 그 김○○ 선생이라 해 가지고. 일제시대 일본서 명문 대학교들 나오고, 또 우리 사촌들도 역시 또 영문학 박사라든지 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하고.)

102001 @ 게, 삼춘은 멧 남, 멧 녀에 멧 번째로 나왓수가?(그럼, 삼촌은 몇 남, 몇 녀에 몇 번째로 나왔습니까?)

102001 #1 나, 우리가 이남 이녀로, 저 우리 가정은. 겐 우리 저 나가 이남 이녀 중에 질 막내로 태어나십주. 겐 우리 누님도 큰누님 잇엇고, 작은누님 잇엇는데, 작은누님은 육이오사변 때에 행방불명 뒈어 가지고 이북 갓다고 헙니다. 그 거기 이산가족 찾기 때도 그때도 소문 들엇수다마는 그 저 동경 옛날 올림픽 때에 그 제일교포 나신디 전화 와 가지고, 연락 와 가지고, 저 거기에 구경 오라고, 아이 나 저 아이덜 키우고 돈도 어렵고 허연 아이 가겟다고 허니까, 그 비용은 저.(나, 우리가 이남 이녀로, 저 우리 가정은. 그래서 우리 누님도 큰누님 있었고, 작은누님도 있었는데, 작은누님은 육이오사변 때에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이북 갔다고 합니다. 그 거기 이산가족 찾기 때도 그때도 소문 들었습니다만 그 저 동경 옛날 올림픽 때에 그 재일교포 나에게 전화 와 가지고, 연락 와 가지고, 저 거기에 구경 오라고, 아니 나 저 아이들 키우고 돈도 어렵고 해서 아니 가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은 저.)

102001 @ 겐 누게가 전화 온 거라마씨?(그래서 누구가 전화 온 것입니까?)

102001 #1 저 일본서마씨.(저 일본에서요.)

102001 @ 일본서 아는 사름이 전화 온 거마씨?(일본서 아는 사람이 전화 온 것입니까?)

102001 #1 예, 우리 거 ᄀᆞ뜬 연령에 잇는 신○○이엔 허는 사름안티서 연락이 와 가지고, 돈 저, 옴만 허면 비용은, 저 누님이 와 가지고 만나고 이북서 왕 물어주켄 헴저, 오라 오라 헨. 겐 그걸 그 말 ᄀᆞᆯ으난 우리 김○○ 교장 선셍님이 사춘이

난 너 잘못 뎅이당 큰일 난다고 헨, 그런 말 들어낫수다. 가지 말렌 헨, 겐 아이 가불엇수다.(예, 우리 거 같은 연령에 있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와 가지고, 돈 저, 오기만 하면 비용은, 저 누님이 와 가지고 만나고 이북서 와서 물어주겠다고 하고 있어, 오라 오라 했어. 그래서 그걸 그 말 말하니까 우리 김○○ 교장 선생님이 사촌이니까 너 잘못 다니다가 큰일 난다고 해서, 그런 말 들었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아니 가버렸습니다.)

102001 @ 아, 게난 그 일본이 조총련, 조련계, 조총련에서 영 연락이 온 거구나예?(아, 그러니까 그 일본이 조총련, 조련계, 조총련에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군요?)

102001 #1 아마 경 헌 셍이라마씨. 게 그때도 뭣들 아무 연락이 없엇는데, 그 이산가족 찾기 위헤서 헐 때에 우리 대림 사름이 두 사름이 간 만난 사름이 셔마씨. 게난 그때 말이 저 일본, 아이 평양에서 병원장헴젠, 경 헤낫수다. 겐 그 말만 들어가지고 그 이산가족 찾기 신청을 헷수다마는 헤당 아이뒈언, 아버진 못헷수다.(아마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럼 그때도 뭣들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그 이산가족 찾기 위해서 할 때에 우리 대림리 사람이 두 사람이 가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 저 일본, 아니 평양에서 병원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만 들어가지고 그 이산가족 신청을 했습니다만 해당 안 돼서, 아버진 못했습니다.)

102002 @ 게난 부모님도 쭉 농사만 헷수가?(그러니까 부모님도 쭉 농사만 했습니까?)

102002 #1 예, 아버님도 저 젊을 때는, 아버님도 저 일본으로 허여 가지고 이북 간 살다가 해방뒌 돌아왓수다.(예, 아버님도 저 젊을 때는, 아버님도 저 일본으로 하여 가지고 이북 가서 살다가 해방돼서 돌아왔습니다.)

102002 #1 아, 아버님은? 이북에 갓다가 해방이 뒈면서 돌아온 거예? 그디 간 멧 년 산 거우꽈? 오래 산 거꽈?(아 아버님은? 이북에 갔다가 해방이 되면서 돌아온 거지요? 거기 가서 몇 년 산 것입니까? 오래 산 것입니까?)

102002 #1 아마 산 건 십일년쯤 살아십주, 일본서 살단.(아마 산 건 십일년쯤 살았습지요, 일본서 살다가.)

102002 @ 게난 그 후 아버님만 올라간 거고, 자식, 식구들은 여기 잇고?(그러니까 그 후 아버님만 올라간 거고, 자식, 식구들은 여기 있고?)

102002 #1 예, 예. 우리 어머니도 젊을 때는 일본 좀 가나고예.(예, 예. 우리 어머니도 젊을 때는 일본 좀 갔었고요.)

102002 @ 일본 가나고?(일본 갔었고?)

102002 #1 어머니랑 일본 갓다가 우리 아버진 그때 이북 가불엇십주기.(어머니랑 일본 갔다가 우리 아버진 그때 이북 가버렸습지요.)

102002 @ 이북?(이북?)

102002 #1 예, 그때는 일본 갓단 일제 강점기니까예.(예, 그때는 일본 갔다가 일제 강점기니까요.)

102002 @ 그, 아아, 게난 저기 해방뒈기 전에 이북을 가불엇단 말이우꽈?(그, 아아, 그러니까 저기 해방되기 전에 이북을 가버렸단 말입니까?)

102002 #1, 예, 예. 겐 해방뒈난 돌아왓수다.(예, 예. 그러니까 해방되니까 돌아왔습니다.)

102002 @ 해방뒌 내려완. 일본 갓다가, 이북 갓다가, 해방뒌 내려온 거구나예.(해방돼서 내려왔어. 일본 갔다가, 일본 갔다가, 해방돼서 내려온 거군요.)

102002 #1 예, 예.(예, 예.)

102002 @ 어머니도?(어머니도?)

102002 #1 아니우다. 어머님은 저 가보도 아니허고, 어머니는 일본에 살다가 저 아이덜 키우곡 허난 여기 내려완 나도 이디서 낳고, 우리 누님만 일본서 낫수다.(아닙니다. 어머님은 저 가보지도 아니하고, 어머니는 일본에 살다가 저 아이들 키우고 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나도 여기서 낳고, 우리 누님만 일본서 낳았습니다.)

102002 @ 아들 둘은 이디서, 이디 완 낳고? 게믄 어 해방 전이 난 거 아니라 예? 한참 전이.(아들 둘은 여기서, 여기 와서 낳고? 그러면 어 해방 전에 낳은 거 아닙니까? 한참 전에.)

102002 #1 예, 예. 겐 일제시대 우린 학굘 다녀십주. 이 한림초등학교.(예, 예. 그래서 일제 강점기 우린 학교를 다녔습지요. 이 한림초등학교.)

102002 @ 한림, 한림국민학교예? 한림국민학교 다니고, 게믄 중학교는?(한림, 한림국민학교요? 한림국민학교 다니고, 그러면 중학교는?)

102002 #1 중학교, 한림중학교 다닐 적에 해병대 지원헨 갓다가 돌아와나고.(중학교, 한림중학교 다닐 적에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가 돌아왔었고.)

102002 @ 삼십이 년 생이엔 말을 호적에 경 헌 거꽈? 아니면?(삼십이 년 생이라고 말을 호적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102002 #1 호적엔 삽십사 년 생으로 뒈고, 원 나이로는 삼십이 년이우다. 게고 그땐 우린 갓다 와 가지고 그때 한림중학교 나와 가지고 뚜로 저 제주상고, 제주상고 일회우다. 그래서 저.(오적에는 삼십사 년 생으로 되고, 원 나이로는 삼십이 년입니다. 그리고 그땐 우린 갔다 와 가지고 그때 한림중학교 나와 가지고 따로 저 제주상고, 제주상고 일회입니다. 그래서 저.)

102002 @ 그디 강 자취허멍예?(거기 가서 자취하면서요?)

102002 #1 예, 자취헤십주.(예, 자취했습지요.)

102002 @ 게믄 뭐 여기서 다 뭐, 수업료영 먹을 거영 어떵 걸?(그러면 뭐 여기서 다 뭐, 수업료랑 먹을 거랑 어떻게 걸?)

102002 #1 그 일요일 뒈며는 집이 왕 쏠, 저.(그 일요일 되면 집에 와서 쌀, 저.)

102002 @ 가져가고.(가져가고.)

102002 #1 예, 가져강은에 자취헤십주게.(예, 가져가서 자취했습지요.)

102002 @ 그때는 걸어 다니지 아니 헤실 거고 뭐?(그때는 걸어 다니지 안 했을 거고?)

102002 #1 예, 저 수원으로 와 가지고 가곡, 귀덕으로 왕 차 타낫수다.(예, 저 수원리로 와 가지고 가고, 귀덕리로 와서 차 탔었습니다.)

102002 @ 수원서도 타고, 귀덕서도 타고?(수원리서도 타고, 귀덕리서도 타고?)

102002 #1 예, 일주도로로, 그땐 일주도로벳기 엇어십주.(예, 일주도로로, 그땐 일주도로밖에 없었습지요.)

102002 @ 그때 차는 뭐 도라꾸 차꽈? 뭐꽈?(그때 차는 뭐 트럭 차입니까? 워입니까?)

102002 #1 도라꾸, 흔 이삼 년 간은 도라꾸에 사름 시끄곡, 또 버스[뻐스]로도 다니곡 헤낫수다. 그때 저 버스라고는 제주버스가 주동이고 남진버스[뻐스]허고 영주버스[뻐스]는 질 나중에 나오고 경 헷수다. 그 시 회사에서 나오는디 경 헤도 그 저 손님, 사름덜이 많이 오니까 그 버스[뻐스], 그 저 짐차에도 허곡, 우리 혹교 다닐 때는 돌으멍 짐차에도 올랑탕 갑주기. 강 헹 차비 아이 내영.(트럭, 한 이삼 년 간은 트럭에 사람 싣고, 또 버스로도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 버스라고는 제주버스 주동이고 남진버스하고 영주버스는 제일 나중에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시 회사에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그 저 손님,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버스, 그 저 짐차에도 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달리면서 짐차에도 올라타서 가지요. 강서 해서 차비 아니 내어서.)

102002 @ 게난 시에 학교 다닐 때는 멧 살 때쯤이우꽈?(그러니까 시에 학교 다닐 때는 몇 살 때쯤입니까?)

102002 #1 그때 열여더아홉, 스무 술끄지, 스무 술끄지 헤십주.(그때 열여덟아홉, 스무 살까지 했습지요.)

102002 @ 아, 게난 군대는 못 가고?(아, 그러니끄 군대는 못 가고?)

102002 #1 아, 군대 갓다 왓수다. 군댄, 군대는 저 고등학교 졸업 마치니까.(아,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군댄, 군대는 저 고등학교 졸업 마치니까.)

102002 @ 아, 졸업헨.(아, 졸업해서.)

102002 #1 이거 저 말헷수다마는 제일 처음 해병 사기생으로 가니까 무법천지로 구보 시켯당 뚜리곡 구보 시켯당 뚜리고만 헤둠서, 그때는 총도 아이 주고 헤나니까, 거 얼마 가고 싶은 셍각이 엇어마씨. 마치 곧 졸업 마치멍서라 교육계에 잇는 사름 좀 면제 헤나고, 또 읍사무소 병무 담당, 그디만 면제뒈어낫수다. 게난 거 곧 졸업 마침과 동시에 한림읍사무서 호병계에 간 군대 갓수다. 겐 혹끔 빨리 헤십주. 빨리 헨 그때 한림멘이 읍으로 승격뒈 가지고 초대읍장 선거허게 뒈니까 그 당시는 그 김○○창구 멘장, 난 그때 멘사무소에 이시난, 김○○창구 멘장 때에 난 그디 갈 때에, 현직에 잇일 때에 그 김○○ 멘장허고 또 임○○이는 초등학교 교장허다가 멘장, 초대읍장으로 출발을 헤십주. 김○○ 멘장은 두 헤 허니까. 겐 그 헐 때에 임 멘장이 초등학교 교장이면서도 그 원 고향은 우리 대림이라십주게. 대림이고 헌디 난 현직에 잇는 그 한림읍사무소에 잇으니까 김○○ 운동을 헤십주기. 겐 그 임○○이가 당선뒈고 김○○ 떨어져부난 그 헤 설러불엇다. 다음 뚜로 그 저.(이거 저

말했습니다만 제일 처음 해병 사기생으로 가니까 무법천지로 구보 시켰다가 때리고 구보 시켰다가 때리고만 하고 있으면서, 그때는 총도 아니 주고 했었으니까, 거 얼마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마치 곧 졸업 마치면서라 교육계에 있는 사람 좀 면제했었고, 또 읍사무소 병무 담당, 거기만 면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졸업 마침과 동시에 한림읍사무소 호병계에 가서 군대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했습지요. 빨리 해서 그때 한림면이 읍으로 승격돼 가지고 초대읍장 선거하게 되니까 그 당시는 그 김○○ 면장, 난 그때 면사무소에 있으니까, 김○○ 면장 때에 난 거기 갈 때에, 현직에 있을 때에 그 김○○ 면장하고 또 임○○이는 초등학교 교장하다가 면장, 초대읍장으로 출발을 했습지요. 김○○ 면장은 두 해 하니까. 그래서 그 할 때에 임면장이 초등학교 교장이면서도 그 원 고향은 우리 대림리었습지요. 대림리이고 한 데 난 현직에 있는 그 한림읍사무소에 있으니까 김○○ 운동을 했습지요. 그래서 그 임○○이가 당선되고 김○○ 떨어져버리니까 그 해 사표를 내었다. 다음 따로 그 저.)

102002 @ 멘장 선거를 헷구나?(면장 선거를 했구나?)

102002 #1 예, 그땐 뭐 공무원허고 뭐이고, 부정선거 헐 때난, 선거 집집마다 고무신도 앗당 주고, 누구 영 헤나십주.(예, 그땐 뭐 공무원하고 뭐이고, 부정선거 할 때니까, 선거 집집마다 고무신도 가져다 주고, 누구 이렇게 했었습지요.)

102002 @ 오십 한 오년도쯤? 멧 년도쯤 퉬 거 담수가? 졸업헐 땐 멧 년도쯤?(오십 한 오년도쯤? 몇 년도쯤 될 거 같습니까? 졸업할 땐 몇 년도쯤?)

102002 #1 나가 육, 오십, 하여튼 다 잊어버려 가지고.(나가 육, 오십, 하여튼 다 잊어버려 가지고.)

102002 @ 아이 근데 삼십이 년 생이면 오십이 년도쯤 뒈면 스무 살쯤 퉬 거고예? 나이 스무살 전이 졸업헌 거 아니우꽈? 멧 살 때 졸업헷수가?(아니 근데 삼십이 년 생이면 오십이 년도쯤 되면 스무 살쯤 될 거고요? 나이 스무 살 전에 졸업한 거 아닙니까? 몇 살 때 졸업했습니까?)

102002 #1 졸업혜 가지고, 그때 그 스무 살 때에 그 저 고등학교 뎅길 때우다.(졸업해 가지고, 스무 살 때에 그 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102002 @ 스무 살 때?(스무 살 때?)

102002 #1 예.(예.)

102002 @ 아, 나이 들언 다닐 때구나. 맞아, 경 혜야 이 시기가 맞암직 허우다.(아, 나이 들어서 다닐 때구나. 맞아, 그렇게 해야 이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102002 #1 한림중학교 일회덜이 우리영 ᄀᆞ튼 동창덜이우다.(한림중학교 일회들이 우리랑 같은 동창들입니다.)

102002 @ 일회?(일회?)

102002 #1 예, 아, 한림고등학교 일회도.(예, 아, 한림고등학교 일회도.)

102002 @ 한림고, 한림고며는 여실고헐 때?(한림고, 한림고면 여실고할 때?)

102002 #1 아니.(아니.)

102002 @ 한림공고?(한림공고?)

102002 #1 한림공고 허기 전에 한림중학교.(한림공고 하기 전에 한림중학교.)

102002 @ 예, 공고 허기 전에 맞수다.(예, 공고 하기 전에 맞습니다.)

102002 #1 한림 그 문씨옌 헙디마는 문○○이네 뚜로 저 문○○허고 뚜로 양, 양○○네, 그 ᄀᆞ뜬 우리 연령이랍주게. 문○○이는 그 당시 우리 동창들서도 저 어디고 그 고등학교 졸업허멍서라 법원 서기 모집헐 때에 그 법원에 가낫수다.(한림리 그 문씨라고 합디다만 문○○이네 따로 저 문○○하고 따로 양, 양○○네, 그 같은 우리 연령이었지요. 문○○이는 그 당시 우리 동창들 중에도 저 어디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법원 서기 모집할 때에 그 법원에 갔었습니다.)

102002 @ 게난 중학교 졸업헨 바로 고등학교 간 게 아니구나?(그러니까 중하교 졸업해서 바로 고등학교 간 게 아니구나?)

102002 #1 아이 난 그때 흔, 나가 건즘 일 년쯤 놀단 들어갓수다, 뭐. 그땐 동네가 그땐 성 직허노렌 허고양. 저 누게 후원헤 주도 안 허고 도저이 못 험직헤덴 헨, 시에 나들멍이라도 그때 제주상고 갓수다, 야간. 야간으로 들어간 거기 졸업헷수다.(아니 난 그때 한, 나가 거의 일 년쯤 놀다가 들어갔습니다, 뭐. 그땐 동네가 그땐 성 지키겠다고 하고요. 저 누구 후원해 주지도 안 하고 도저히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시에 나들면서라도 그때 제주상고 갔습니다, 야간. 야간으로 들어가서 거기 졸업했습니다.)

102002 @ 이 동네는 이디 성 직허레 가는 디는 어디? 성이?(이 동네는 여기 성 지키러 가는 데는 어디? 성이?)

102002 #1 성은 금능으로 허여 가지고 귀덕까지 장성이엇수다.(성은 금능리로 하여 가지고 귀덕리까지 장성이었습니다.)

102002 @ 명월성 잇인 그디도?(명월성 있는 거기도?)

102002 #1 예, 그 우로 헤 가지고. 게서 우리 대림서는 한림삼리 우로 난 그 성들. 수원서도 그 우로 강 폭도덜 들지 못허게 성 직허곡 대림서도 가곡, 그 장성이난양. 허곡 고림동은 별도로 헤 가지고 돌라져 가지고 성 베낏디서 살안, 고림동 성도 지켜낫수다.(예, 그 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대림리서는 한림삼리 위로 난 그 성들. 수원리서도 그 위로 가서 폭도들 들지 못하게 성 지키고 대림리서도 가고, 그 장성이니까요. 하고 고림동은 별도로 해 가지고 따라져 가지고 성 바깥에서 살았어, 고림동 성도 지켰었습니다.)

102002 @ 그게 육이오 때도 지켜낫수가?(그게 육이오 때도 지켰었습니까?)

102002 #1 육이오사변이 떠나가니까 그때ᄁᆞ지도 쪼끔 지켯수다.(육이오사변이 떠나가니까 그때까지도 조금 지켰습니다.)

102002 @ 그때ᄁᆞ지 직허고?(그때까지 지키고?)

102002 #1 겐 그 육이오사변이 터지니까 건즘 다 지원병들도 하영 나가불고 뚜로 이디서 시달리느니 지원헹 스스로 가곡 헤십주게.(그래서 그 육이오사변이 터지니까 거의 다 지원병들도 많이 나가버리고 따로 여기서 시달리느니 지원해서 스스

로 가고 했습지요.)

102002 @ 음, 게난 그 사삼사건이 완전이 종료가 뭰 건 한 오십, 육이오보다 더 지낭이우꽈?(음, 그러니까 그 사삼사건이 완전히 종료가 된 건 한 오십, 육이오보다 더 지나서입니까?)

102002 #1 아, 지낫수다. 에, 또 그게 질 나중꺼지는 흔 팔 년간은, 칠 년간은 성 지켯수다. 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소탕은 뒈어도 그중에 그 저 이, 이○○이란 사름 하나가 살아남아 나니까 미리 경 지켜낫주. 것도 저 우리 향지에 나왓수다, 일름이. 건 향지에 거 저 편집위원은 나가 허고, 나허고 요기 임○○이엔 헌 사름 둘이 걸 만들어난 헷수다마는 난 전인 그걸 웨와 낫는디, 하, 딱 다 잊어비언.(아, 지났습니다. 에, 또 그게 제일 나중까지는 한 팔 년간은 성 지켰습니다. 건 일반적으로 거의 다 소탕은 되어도 그중에 그 저 이, 이○○이란 사람 하나가 살아남아 나니까 미리 그렇게 지켰었지. 것도 저 우리 향지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건 향지에 거 저 편집위원은 나가 하고, 나하고 요기 임○○이라고 한 사람 둘이 걸 만들었던 했습니다만 난 전에는 그걸 외웠었는데, 하, 딱 다 잊어버려서.)

102002 @ 게난 그게.(그러니까 그게.)

102002 #1 우린 또 학교 뎅이당도 그때 밤이 오면은 보초 사레 뎅여나십주게.(우린 또 학교 다니다가도 그때 밤이 오면은 보초 사러 다녔었습지요.)

102002 @ 성은 그때 돌로 영 쌓아져낫수가?(성은 그때 돌로 이렇게 쌓아졌었습니까?)

102002 #1 예, 돌로 저 리민덜 그때 무신 뭐 어디서 보수를 받는 거우꽈게? 집집마다 두 사름 시민 두 사름 다 나강은에 거 ᄒᆞ루 뱔리 짓젠 ᄒᆞ니까, 강 돌 저, 젊은 사름덜이라든지 심 없는 여ᄌᆞ들은 돌 져 오고 그 씬 사름덜은 그 다곡 헤 가지고 낭도 빗겨 놩 이중 턱으로 헤 가지고, 이 알로로는 산만이 막 노피곡, 올라가며는.(예, 돌로 저 이민들 그때 무슨 뭐 어디서 보수를 받는 것입니까요? 집집마다 두 사람 잇으면 두 사람 다 나가서 거 ᄒᆞ루 빨리 지으려고 하니까, 가서 돌 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힘 없는 여자들은 돌 져 오고 그 센 사람들은 그 쌓고 해 가지고 나무도 빗겨 놔서 이중 턱으로 해 가지고, 이 아래로는 산만큼 아주 높이고, 올라가면.)

102002 @ 아, 가운데는 사람 다니게, 이중 통로?(아, 가운데는 사람 다니게, 이중 통로?)

102002 #1 우리 영 손들러가지고 헌 만큼은 다와 놩, 그 우론 영 요만이 좁게 허영 ᄯᅳ로 사름 다니도록 헤 뒁 그 우터레 흔 짐 더 다와. 그것이 놔둬시믄 문화재 가치가 잇는 건디, 저 밧디들 다 치와 불언.(우리 이렇게 손들어서 한 만큼은 쌓아 놔서, 그 위로는 이렇게 요만큼 좁게 해서 따로 사람 다니도록 해 둬서 그 위로 한 줄 더 쌓아와, 그것이 놔뒀으면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인데, 저 밭에들 다 치워 버렸어.)

102002 @ 맞아, 밧디들 다 치와 불어실 거우다.(맞아, 밭에들 다 치워 버렸을

것입니다.)

102002 #1 학교 다닐 때, 보초 일을 헤십주. 그디 성 직허곡 부락은 부락대로 허고, 그 저 중요 목다리는 부락 내에서도 뚜로 역시 거 저 보초 막 직허나곡 헷는디. 한참 그 폭도가 심헐 때는 귀덕서도 증명 ᄆᆞ치지 안 허민 뎅이질 못헤마씨. 대림서도 그 저 한청단장 증명을 받아사 한림 가져마씨. 한림은 그 저 천주교 편이 건디 막, 막이 셧수다. 우리 대림은 그 막이 일로 얼로 오당 보난 거 저 로타리 잇지예? 거기 잇고, 가식이왓[60] 잇고, 수원으로 가는 그디 잇고, 요디 잇어.(학교 다닐 때, 보초 일을 했습지요. 거기 성 지키고 부락은 부락대로 하고, 그 저 중요 목다리는 부락 내에서도 따로 역시 거 저 보초 마구 지켰고 했는데. 한참 그 폭도가 심할 때는 귀덕리서도 증명 마치지 안 하면 다니질 못해요. 대림리서도 한림청년단장 증명을 받아야 한림을 가져요. 한림리는 그 저 천주교 편에 것인데 막, 막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림리는 그 막이 여기로 어디로 오다가 보니까 거 저 로터리 있지요? 거기 있고, '가식이왓' 있고, 수원리로 가는 거기 있고, 요기 있어.)

102002 @ 게난 그 사삼 때라부난.(그러니까 그 사삼 때이니까.)

102002 #1 예, 예.(예, 예.)

102002 @ 그니까.(그니까.)

102002 #1 거 ᄉᆞ삼 때난 그거 잇고 일제시대 때는 방범용 금동막[61]이란 게 잇엇수다.(거 사삼 때니까 그거 있고 일제시대 때는 방범용 '금동막'이란 게 있었습니다.)

102002 @ 금동막예?('금동막'요?)

102002 #1 예, 각 동리별로 자치 내에서, 자치 내에서 운영허고 행정이서 후에 아짐 없이. 그 금동막이라 헤 가지고 거 젊은 사름덜이라든지 남ᄌᆞ덜 겨울철이 뒈면 그 저 막 짓어 앚엉 불 살롸 놩 직허당, 밤이 도둑이나 들카부덴 돌아보곡 헤십주기. 그것이 금동막이렌 게 잇어십주게.(예, 각 동리별로 자치 내에서, 자치 내에서 운영하고 행정에서 가지는 거 없이. 그 '금동막'이라 해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남자들 겨울철이 되면 그 저 막 지어서 앉아서 불 때어 놔서 지키다가, 밤에 도둑이나 들까 싶어서 돌아보고 했습지요. 그것이 '금동막'이란 게 있었습지요.)

102002 @ 게난 초등학교영 중학교영 다닐 때는 어딜로 다닙디가?(그러니까 초등학교랑 중학교랑 다닐 때는 어디로 다닙디까?)

102002 #1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 그 이 천주교로 가는 길이 읏엇수다.(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저 그 이 천주교로 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102002 @ 예, 그 길이 잇어십주.(예, 그 길이 있었습지요.)

102002 #1 그 길이 없엇어마씨.(그 길이 없었어요.)

102002 @ 아, 엇언.(아, 업었어.)

102002 #1 우리 초등학교 삼학년 때서사 그 길 빳수다. 이 가석이왓 사름덜 헤

60) '가식이왓'은 한림읍 대림리에 있는 지경이다.
61) '금동막'은 사삼사건 때 대림리 일대에서 보초 서는 곳이라 할 수 있다.

가지고 한림 그 저 멩랑동으로 나가는 족은 질이 잇수다. 글로 다니다가 우리 저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혼 삼학년 때쯤 뒈난, 그 이학년 때쯤일 거라. 일, 이학년 때 서사 그 저 귀덕삼리 헤 가지고 리 사무소 앞이서 천주교레 나가는 길 그때 만들엇수다.(우리 초등학교 삼학년 때에야 그 길 빼었습니다. 이 '가석이왓' 사람들 해 가지고 한림리 그 저 명랑동으로 나가는 작은 길이 있습니다. 거기로 다니다가 우리 저 중학교, 아니 초등학교 한 삼학년 때쯤 되니까, 그 이학년 때쯤일 거야. 일, 이학년 때에야 그 저 귀덕삼리 해 가지고 이 사무소 앞에서 천주교로 나가는 길 그때 만들었습니다.)

102002 @ 예, ᄀᆞ치덜 다녀실 거라, 그때예?(예, 같이들 다녔을 거야, 그때요?)

102002 #1 양?(예?)

102002 @ 아니, 사람덜 허고 ᄀᆞ치덜, 혼자만 다닌 게 아니고, ᄀᆞ치덜.(아니, 사람들 하고 같이들, 혼자만 다닌 게 아니고, 같이들.)

102002 #1 예게, ᄀᆞ치 가곡말곡 어린 때, 경 어려도 다 일학년 거 저 수원, 아 귀덕, 한림초등학교에 귀덕이라든지 뚜로 저 도노밋[62] 아이도 한림초등학교, 중학교 때 걸엉 뎅겨십주게. 거막도 저, 월령, 그 어린아이도 다 결석도 아이허고 메일 잘 나와마씨.(예, 같이 가고말고 어릴 때, 그렇게 어려도 다 일학년 거 저 수원리, 아 귀덕리, 한림초등학교에 귀덕리라든지 따로 저 '도노밋' 아이도 한림초등하교, 중학교 때 걸어서 다녔습지요, 금악리도 저, 월령리, 그 어린아이도 다 결석도 안 하고 매일 잘 나와요.)

102002 @ 책보 쌍, 책보 영 메영.(책보 싸서, 책보 이렇게 메어서.)

102002 #1 준둥이에 무껑.(잔등이에 묶어서.)

102004 @ 무슨 놀이 헙디가? 그때는. 무시거 허멍 놉디가? 아이덜 허고.(무슨 놀이 합디까? 그때는. 무엇 하면서 놀았습니까? 아이들 하고.)

102004 #1 아이덜 그 저 겨울철 뒈면 대개 쪽기차기 그걸 많이 허고.(아이들 그 저 겨울철 되면 대개 제기차기 그걸 많이 하고.)

102004 @ 쪽기차기.(제기차기.)

102004 #1 게고 놀 때는 깡통차기 헤 가지고 방학 때 놀 때는 가운디 마루 원 그려 가지고 깡통 앗다가 놩 숨엉 잇당 그거 직허는 사름 피혜뒁 그걸 차 불민 이기곡, 경 헤낫는디, 깡통도 영.(그리고 놀 때는 깡통차기 해 가지고 방학 때 놀 때는 가운데 마루 원 그려 가지고 깡통 가져다가 놓아서 숨어 있다가 그거 지키는 사람 피해둬서 그걸 차 버리면 이기고, 그렇게 했었는데, 깡통도 이렇게.)

102004 @ 깡통차기. 거 멀리 날앙 가게 허는 거마씨?(깡통차기. 거 멀리 날아서 가게 하는 거지요?)

102004 #1 아니, 가까운 디 차마씨.(아니, 가까운 데 차요.)

102004 @ 겐디 이기는 거는 어떵 헤야 이기는 거우꽈? 창은에 어디?(그런데 이기는 거는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입니까? 차서 어디?)

---

62) '도노밋'은 '도노미'에 사잇소리가 붙은 꼴이며, 현재 애월읍 봉성리이다.

102004 #1 아이, 그 이기곡 지는 게 읏어마씨. 그 직허는 사름ᄀᆞ라 그 저 직허는 사름 하나 시민 나머진 그 저 어디 강 곱앗당 피헐 때 그걸 왕 차불믄 똑 살아나곡.(아니, 그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그 지키는 사람더러 그 저 지키는 사람 하나 있으면 나머진 그 저 어디 가서 곱았다가 피할 때 그걸 와서 차버리면 똑 살아나고.)

102004 @ 아, (웃음)하하하.(아, (웃음)하하하.)

102004 #1 게곡 뚜로 저 구녁치기, 거 저 여ᄌᆞ아이덜은 안 헷주마는 구녁치기라고 헤 가지고 뚜로 그땐 그 저 물방에라고 허여 가지고 각 우리 동네도 두 밧디 셧수다마는 거 저, 모든 곡석을 허믄 거 방앗간에 강, 아주 그 저 물방에 가 가지고 그걸 찧곡 헤나십주게. 그 집 짓엉 내붑주게. 그디서 그 저 쉐, 물 메와 가지고 저 보리도 찧곡 저 뭐냐 가루도 빻곡, 조코고리ᄀᆞ뜬 것도 둥그리곡 허는디, 겨울 들믄 집 짓어지니까 아이덜 학교 갓당 오당, 그때는 거기서 초등학교 뎅기는 아이덜산디 중학교꺼지도 거기서 그 구녁치기 헤양. 영 둥글락이 헤 가지고 가운디 고망 뚤른디 멀리서 흔 이메다 흔 디서 데껑 그 구석치기 헤십주.(그리고 따로 저 구멍치기, 거 저 여자아이들은 안 했지만 구멍치기라고 해 가지고 따로 그땐 그 저 연자방아라 하여 가지고 각 우리 동네도 두 곳이나 있었습니다만 거 저, 모든 곡식을 하면 거 방앗간에 가서, 아주 그 저 연자방아 가 가지고 그걸 찧고 했었습지요. 그 집 지어서 내버리지요. 거기서 그 저 소 말 메워 가지고 저 보리도 찧고 저 뭐냐 가루도 빻고, 조이삭같은 것도 둥그리고 하는데, 겨울 들면 집 지어지니까 아이들 학교 갔다가 오다가, 그때는 거기서 초등하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중학교까지도 거기서 구멍치기 해요. 이렇게 둥그렇게 해 가지고 가운데 구멍 뚫은 데 멀리서 한 이미터 한 데서 던져서 그 구멍치기 했습지요.)

102004 @ 게, 뭘로 데끼는 거라마씨? 돌?(그럼, 뭘로 던지는 거지요? 돌?)

102004 #1 이건 구석치기는 쒜돈, 엽전으로 헷주마씨.(이건 구멍치기는 쇠돈, 엽전으로 했지요.)

102004 @ 쒜돈, 엽전으로.(쇠돈, 엽전으로.)

102004 #1 예, 그런 놀이허곡 여자들은 고무줄놀이양. 고무줄놀이 허고, 또 특이 그 저 어렷을 때는 일본놈덜 침략헌 놈들이난양, 그 땅따먹을락, 게서 땅따먹을락은 늬 개 코찡허게 이렇게 멘들아 가지고 저쪽에 이쪽에 헤 가지고 동그랑헌 그 저 뭐 유리 벌러진 거라든지 불에 영 태왕, 구젱이딱살로도 헤낫수다. 걸 헹 태왕 어디꺼지 가면은 영 구분허영 나 땅 허영은에, 그거 셔도 고만 잇엇으면 영 나 땅, 땅따먹을락은 그렇게 일본놈덜 거 이제 생각허믄 그런 거 저 침략국이니까양, 그거 일본에서들 뭐 헹 땅따먹을락.(예, 그런 놀이하고 여자들은 고무줄놀이요. 고무줄놀이하고, 또 특히 그 저 어렸을 때는 일본놈들 침략한 놈들이니까요, 그 땅따먹기, 그래서 땅따먹기는 네 개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저쪽에 이쪽에 해 가지고 동그란 그 저 뭐 유리 깨진 거라든지 불에 이렇게 태워서, 소라딱지로도 했었습니다. 걸 해서 태워서 어디까지 가면은 이렇게 구분해서 나 땅 해서, 그거 있어도 그

만 있었으면 나 땅, 땅따먹기는 그렇게 일본놈들 거 이제 생각하면 그런 거 저 침략국이니까요, 그거 일본에서들 뭐 해서 땅따먹기.)

102004 @ 게니까 땅따먹기 헤난 거 일본식이구나예? 게 저도 뭐 생각나는 게 이신디 다서께오니니 뭐니 허는 거 잇엇수가?(그러니까 땅따먹기 했던 거 일본식이군요?)그럼 저도 뭐 생각나는 게 있는데 '다섯께오니니' 뭐니 하는 거 있었습니까?)

102004 #1 아, 아. 그 다스께 허는 건 살려달란 말입주기. 다스께오니[63]옌 허는 건, 것도 밤에 허여. 그 저 곱앗다가 저 영, 너 누게? 누게? 영 일름 골으믄 건 죽는 겁주기. 겐 그 사름이 못허게 헹은에 숨엇당 왕 영 줄로 가믄 돌아왕 게 툭 치믄 그 영 부쪄둔 사름 살아낭 도망가고. 겐 걸 다 죽이면은 걸 심으레 간 사름은 곱앗당 왕 계속허곡.(아, 아. 그 '다스께' 하는 건 살려달란 말이지요. '다스께오니'라고 하는 건, 그것도 밤에 해. 그 저 숨었다가 저 이렇게, 너 누구? 누구? 이렇게 이름 말하면 건 죽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못하게 해서 숨었다가 와서 이렇게 줄로 가면 달려와서 게 탁 치면 그 이렇게 붙여둔 사람 살아나서 도망가고. 그래서 걸 다 죽이면은 걸 잡으러 간 사람은 숨었다가 와서 계속하고.)

102004 @ 게난 그 오니가 거 이제 심는구나, 오니가?(그러니까 그 술래가 거 이제 잡는구나, 술래가?)

102004 #1 예, 예.(예, 예.)

102004 @ 오니가 돌아다니멍 심는 거라.(술래가 돌아다니면서 잡는 거야.)

102004 #1 게 심으나 지적허믄 그자, 겡 그걸 못허믄 오닌 심으레만 뎅길 겁주게.(그럼 잡으나 지적하면 그저, 그래서 그걸 못하면 술래는 잡으러만 다닐 거지요.)

102004 @ 다스께가 무사 다스껜고예? 다스께가 다섯 개가 아니우꽈?('다스께'가 왜 살려달라인지요? '다스께'가 다섯 개가 아닙니까?)

102004 #1 아니, 아니. 다스께, 다스께란 말은 일본말이우다. 살려달라여. 다스께 허믄예.(아니, 아니. '다스께', '다스께'란 말은 일본말입니다. 살려달라야. '다스께' 하면요.)

102004 @ 아, 일본말. 아, 다스께.(아, 일본말. 아, '다스께'.)

102004 #1 다스께, 그레 허믄 살려달라, 이 말입주게.('다스께', 그리 하면 살려달라, 이 말이지요.)

102004 @ 아, 다스께오니, 우린 뭣도 몰르고 헤낫수다. (웃음)하하.(아, '다스께오니', 우린 뭣도 모르고 했었습니다. (웃음)하하.)

102004 #1 그 저 여자들은 대개 줄 그 저 고무줄놀이덜 많이 허고.(그 저 여자들은 대개 줄 그 저 고무줄놀이들 많이 하고.)

102004 @ 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뭐 공기놀이도 허고예?(고무줄놀이, 고무줄놀이, 뭐 공기놀이도 하지요?)

102004 #1 허곡 또로 공기놀이도, 놀인 대개 그늘 ᄀᆞ튼 디라든지 거리에서 아이덜이 공기놀이도 허고. 헌데 거 공기놀이 허는 것은 저 막 어린 때에 초등학교 흔

63) '다스께오니'는 놀이의 종류를 일컫는 일본말로, 밤에 하는 숨바꼭질의 일종이다.

이삼학년 때 놀이 좀 허곡, 거 다스께오닌 건 ᄒᆞ끔 더 커사 허고예.(하고 따로 공기놀이도, 놀이는 대개 그늘같은 데라든지 거리에서 아이들이 공기놀이도 하고. 하는데 거 공기놀이 하는 것은 저 아주 어릴 때에 초등학교 한 이삼 학년 때 놀이 좀 하고, 거 '다스께오니'는 건 조금 더 커야 하고요.)

102005 @ 일제시대 무시거 막 바치렌 허고 허지 안 헷수가?(일제시대 무엇 마구 바치라고 안 했습니까?)

102005 #1 아, 저, 공출이라고 잇엇수다.(아, 저, 공출이라고 있었습니다.)

102005 @ 공출?(공출?)

102005 #1 공출이라고 헤 가지고는 그 저 쏠도 바치곡, 뒈지, 소도, 또 왕은에 일본놈덜이 저 공출헤내렌 허믄, 저 옹포 도축장에 강은에, 읍사무소, 그때 면사무손디 술, 뻬 지적허여 놩 막 헤낫수다. 우리도 저 그 이 통지에도 큰 도새기 질루왕 허니깐 아, 그때 공출허렌 헤 가지고 헤당 뒈어십주게.(공출이라고 해 가지고는 그 저 쌀도 바치고, 돼지, 소도, 또 와서 일본놈들이 저 공출해내라고 하면, 저 옹포 도축장에 가서, 읍사무소, 그때 면사무소인데 살, 뼈 지적하여 놔서 아주 했었습니다. 우리도 저 그 이 통지에도 큰 돼지 길러서 하니깐 아, 그때 공출하라고 해 가지고 해당 됐습지요.)

102005 @ 도새기도 바치렌 헤낫수가?(돼지도 바치라고 했었습니까?)

102005 #1 예, 예.(예, 예.)

102005 @ 아.(아.)

102005 #1 게난 그때 우리 족은아버지 잔치 도새기렌 막 질루완 헷을 때에, 우리 어릴 땐디 우리 하르버님은 저 뭣옌 골앗느냐 허믄 분시 모르고 그 우에서덜은 영 저 이것, 이 아덜 누게, 동경 무슨 대학 다니는디 언제 잔치 때에 그 도새기를 잡암수다. 이건 안 뒙니다 허난 담 몰을 때가 딱 셍각나마씨. 겐 우리 하르버지가 경 허니까 누게 일본 대학교 간 사름 없어. 영 헤가도 맞수다, 맞수다. 어디 강 들어봅서. 허멍 경 헷수다, 우리 하르버지가. 그게 그 말 들으난 우리 족은아방 일름 영 썽 가멍, 도새기 몰아가젠 담끄지 헤쌍 헷단 그냥 돌아간 거라.(그러니까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 잔치 돼지라고 마구 길러서 했을 때에, 우리 어릴 때인데 우리 할아버님은 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분수 모르고 그 위에서들은 이렇게 저 이것, 이 아들 누구, 동경 무슨 대학 다니는데 언제 잔치 때에 그 돼지를 잡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하니까 담 허물어질 때가 딱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누구 일본 대학교 간 사람 없어. 이렇게 해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게 그 말 들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 이렇게 써 가면서, 돼지 몰아가려고 담까지 허물어서 했다가 그냥 돌아간 거야.)

102005 @ 아, 게도 막 ᄉᆞ정허난. (웃음)하하하.(아, 그래도 마구 사정하니까. (웃음)하하하.)

102005 #1 예, 허곡 쉐덜토 거세헤 가지고양, 그 농사지을 때에 거세헤 가지고

동니에서, 저 심 쎈, 우리 동네믄 용천 대부라 혜 가지고 김○○네 하르방네 마당에 강 쉐 눅졍 무껑, 그 저 노끈 위로 헹은에.(예, 하고 소들도 거세해 가지고요, 그 농사지을 때에 거세해 가지고 동네에서, 저 힘 센, 우리 동네면 용천 대부라 해 가지고 김○○네 할아버지네 마당에 가서 소 눕혀서 묶어서, 그 저 노끈 위로 해서.)

102005 @ 거 거세렌 헙니까, 아니면 불 불라분덴 헙니까?(거 거세라고 합니까, 아니면 불 바른다고 합니까?)

102005 #1 거세옌 헹은에 건 불불라, 불불라분덴 허는디. 그 일제시대 말엽이 뒈니까 그 기술이 잇어가지고 거 집집덜 불을 까고 그 전에는 여기서 소를 눅져놩 저 이 저 어욱이라고, 아이 그 저 뭣고? 억새, 억새 곧아 나오기 전에 미 빵 그것을, 그거 상당이 질깁니다게, 것을 꼬앙 콥 멕영 문지럽게 혜 놩은에 쉐불알 막 영 부쪄 놩 영 영 나오믄 가운디로 무껑 늬 사름이 듕길 겁주게. 경 혜 노민 그 듕이는디 끗데는 낭께기 이만헌 거 손잡이로 양쪽으로 무껑 듕여가믄 막 쉐가 장석허멍 들러퀴어도 까 줘붑주기. 까 줘불민 막 허여 가지고 저 쉐막에 놩 메영 흔 열흘 간은 멍석 쳐 가지고 그 저 베리지 안 허게 허고, 충이라든지 나쁜 거 아이 들게 헹은에, 겡 저 거세도 혜낫수다. 게난 그건 어떤 그 저 기술 없이 그 동니에서 그자 흑끔 힘때도 잇곡, 쉐 가진 사름네신디 강은에, 그 마당이 강은에 거세를 많이 혯수다.(거세라고 해서 건 불깐다, 불까버린다고 하는데. 그 일제 강점기 말엽이 되니까 그 기술이 있어서 거 집집들 불을 까고 그 전에는 여기서 소를 눕혀놔서 저 이 저 억새라고, 아니 그 저 뭣인가? 억새, 억새 곧아 나오기 전에 새품 빼서 그것을, 그거 상당히 질깁니다, 것을 꼬아서 쇠기름 먹여서 매끄럽게 해 놔서 소불알 막 붙여 놔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가운데로 묶어서 네 사람이 당길 거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당기는데 끝에는 나뭇개비 이만큼한 거 손잡이로 양쪽으로 묶어서 당겨가면 아주 소가 신음하면서 날뛰어도 까 줘버리지요. 까 줘버리면 마구 하여 가지고 저 외양간에 넣어서 매어서 한 열흘 간은 멍석 쳐 가지고 그저 보이지 안 하게 하고, 충이라든지 나쁜 거 아니 들게 해서, 그렇게 저 거세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 저 기술 없이 그 동네에서 그저 조금 힘도 있고, 소 가진 사람에게 가서, 그 마당에 가서 거세를 많이 했습니다.)

102005 @ 일제시대 때는 초등학교 때 닮고 중학교 때도 일제 강점기엿수가?(일제시대 때는 초등학교 때 같고 중학교 때도 일제 강점기였습니까?)

102005 #1 아니우다. 해방뒌 후에.(아닙니다. 해방된 후에.)

102005 @ 아니고예. 게난 초등학교 때는 일제 강점기?(아니고요. 그러니까 초등하교 때는 일제 강점기?)

102005 예. 중학교 때는 그 저 ᄉᆞ삼사건 때라나십주.(예. 중학교 때는 그 저 사삼사건 때였습지요.)

102005 @ 중학교 때는예.(중학교 때는요.)

102005 #1 예.(예.)

102005 @ 그때 학교는 계속허는 거 아니라예?(그때 학교는 계속하는 거 아니지

요?)

102005 #1 예. 게난 일제, 막 어릴 때라부난 다른 건 뭐 일제시대 때 생각나는 것 엇수가?(예, 그러니까 일제, 아주 어릴 때니까 다른 건 뭐 일제시대 때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102005 #1 일제시대에 학교라고 허는 것은, 그때는 상당이 저 마음대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 헷수다. 이제 ᄀᆞ뜨면 빽이 없는 사름덜은 들어가지 못 헤십주기. 게난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헷수다만 우리 아바님도 엇고, 우리 족은아버님, 춤 일제시대라고 그때 그 일본 가 가지고 대학교 뎅겨불고 허니까 어머니 혼자니까 제일 처음 들어가질 못헷어마씨,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 동창덜보단도 나가 ᄒᆞᆫ 이년 늦게 들어갓수다, ᄀᆞ뜬 연령에서는. 겐 들어가고 중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 ᄆᆞ칠 때니까 아버님도 안 계시고 두 어른덜 엇어 가지고, 전쟁 때고 허니까 막 어려우난 학교를 못 가게 뒈어노난, 우리 누님이 마치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여자덜 학교 뎅이는 사름이 극히 드물어십주기. 겐디 우리 누님은 상당이 그 저 향학열이 상당이 발달헤서마씨. 게난 공부도 저 남녀 공학에서 저 일등이랏수다. 겐디 저 육지 가가지고 돈 벌언 그때 돈 오만 원 보내니까, 뚠 사름덜은 보낸 지 후 난 저 시월 이일부떠 한림중학교레 가낫수다. 게 잇다가 한림중학교 나오니까 ᄯᅳ로 그때 전쟁이 한창 때고 허니까 고등학교를 가야겟다고, 그땐 돈이 없어 가지고 게난 하, 이거 육질 가불카 군인 갈까 영 헐 따름 시에 마치 그 제주상고가 가을 들어야 학셍 모집 헌다고 허니까, 에, 그디 강 나오켜, 겐 야간이엔 허니까 우리 매형이 목수질헤나십주게. 목수일 잘 헤낫수다. 저 어디 취직 아니 허면는 시에 강 목수일이라도 허멍 나 학교 뎅기쿠다. 느냥으로 헹 가켄 허믄 허라, 나 돈은 읏다. 돈은 읏다 헤도 겐 서울 강, 아, 서울이렌 헤쩜쩌, 제주시에 가 가지고 자취허멍 낮에는 목수일 좇아 뎅이멍 일도 허고, 용돈 벌멍 학교 다녓수다.(일제시대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상당히 저 마음대로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못 했습니다. 이제 같으면 백이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 했습지요.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아버님도 없고, 우리 작은아버님, 참 일제 강점기라고 그때 그 일본 가 가지고 대학교 다녀버리고 하니까 어머님 혼자니까 제일 처음 들어가질 못했어요, 초등학교. 그래서 우리 동창들보다도 내가 한 이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같은 연령에서는. 그래서 들어가고 중학교 갈 때는 초등학교 마칠 때니까 아버님도 안 계시고 두 어른들이 없어 가지고, 전쟁 때고 하니까 아주 어려우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니까, 우리 누님이 마치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여자들 학교 다니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지요. 그런데 우리 누님은 상당히 그 저 향학열이 상당히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저 남녀 공학에서 저 일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육지 가서 돈 벌어서 그때 돈 오만 원 보내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낸 지 후 저는 저 시월 이일부터 한림중학교로 갔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한림중하교 나오니까 따로 그때 전쟁이 한창 때고 하니까 고등하교를 가야겠다고, 그땐 돈이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하, 이거 육질 가버릴까 군대 갈까 이렇게 할 따름 시에 마치 그 제주상고가 가을 들어야 학생 모집한다고 하니까, 에, 거

기 가서 나오겠어, 그래서 야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매형이 목수질했었습지요. 목수일 잘 했었습니다. 저 어디 취직 아니 하면 시에 가서 목수일이라도 하면서 나 학교 다니겠습니다. 너대로 해서 가겠다고 하면 하여라, 내 돈은 없다. 돈은 없다 해도 그래서 서울 가서, 아, 서울이라고 하고 있어, 제주시에 가 가지고 자취하면서 낮에는 목수일 좇아 다니면서 일도 하고, 용돈 벌면서 학교 다녔습니다.)

102005 @ 게난 일제시대는 초등학교 때고, 사삼사건 때는 중학교 다니고?(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는 초등학교 때고, 사삼사건 때는 중학교 다니고?)

102005 #1 예.(예.)

102006 @ 게난 사삼사건 때는 여긴, 이 마을은 소개 안 헷지예?(그러니까 사삼사건 때는 여긴, 이 마을은 소개 안 했지요?)

102006 #1 예, 이 마을은 소개 안 헷수다. 이 ᄆᆞ을엔 그때 그렇게 헤낫수다. 일제시대부떠 농업학교 많이 다니고, 거 대학교 많이 다닌 것이 한림 동네서 대림이랏수다. 한림읍지에도 보니까 그렇게 뒈십다마는, 게니까 그때 그 저 대림서는 사삼사건 때 그 임○○란 사름이 그때 농업학교 위원장꼬지 지냇젠 헌 사름이라서마씨. 겐 그 사름 싯고 헤서산디 저 그 식구 그 덕으로산디 대림은 폭도 아이 들언 헌 디가 한림에선 대림이우다. 대림허고 저 고내[64], 고내가 도적으로 폭도 아이 들어낫젠 허여마씨.(예, 이 마을은 소개 안 했습니다. 이 마을엔 그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부터 농업학교 많이 다니고, 거 대학교 많이 다닌 것이 한림 동네서 대림리였습니다. 한림읍지에도 보니까 그렇게 됐습디다만, 그러니까 그때 그 대림리서는 사삼사건 때 그 임○○란 사람이 그때 농업학교 위원장까지 지냈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있고 해서인지 저 그 식구 그 덕으로인지 대림리는 폭도 아니 들어서 한 데가 한림에서 대림리입니다. 대림리하고 저 고내리, 고내리가 도적으로 폭도 아니 들었었다고 해요.)

102006 @ 겐 이 성 지키레 가민 이 위쪽으로, 귀덕 쪽으로 성이 잇엇수가?(그래서 이 성 지키러 가면 이 위쪽으로, 귀덕리 쪽으로 성이 있었습니까?)

102006 #1 아니우다. 저 금능으로 헤 가지고 한림삼리 우이 그 내창이 잇수다.(아닙니다. 저 금능리로 해 가지고 한림삼리 위에 그 내가 있습니다.)

102006 @ 예, 예.(예, 예.)

102006 #1 그 우로 헤 가지고 귀덕, 귀덕도 내창이 잇수다. 귀덕삼리 우로.(그 위로 해 가지고 귀덕리, 귀덕리도 내가 있습니다. 귀덕삼리 위로.)

102006 @ 게믄 요기 좀 우에 아니꽈예? 요쪽으로 가야.(그러면 요기 좀 위에 아닙니까? 요쪽으로 가야.)

102006 #1 아니, 이 위에마씨.(아니, 이 위에요.)

102006 @ 아, 일로, 일로 맞아. 일로 가야. 게믄 저 웃드르[65]에서 소개허연 온 사름덜 이 동네 완 막 살지 안 헷수가?(아, 이리로, 이리로 맞아. 이리로 가야. 그러

64) '고내'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를 말한다.
65)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면 저 '웃드르'에서 소개해서 온 사람들 이 동네 와서 마구 살지 안 했습니까?)

102006 #1 예, 많이 살앗수다. 현○○이네라든지 강○○이네, 여러 사름 살앗수다.(예, 많이 살았습니다. 현○○이네라든지 강○○이네, 여러 사람 살았습니다.)

102006 @ 응, 완에.(응, 와서.)

102006 #1 예, 그 사름덜은 오고, 그 현○○이엔 헌 사름은 상대서 우리 동네와 가지고, 아덜 데리고 헨 왓는디, 아들은 오꼿 폭도로 가불어나십주. 소개헨 올 때 폭도가 아니고 저 그 젊으니까 오지 아니헌 사름은 어느 부락만 허고 소개헐 때 ᄀᆞ찌 내려와불믄 폭도 아이 뒈고, 거기서 숨엇다가 저 폭도 뒈불어십주기. 허고 그 사삼사건 때는 당헌 자는 사허고 피한 자는 살아십주. 어떤 말이냐 허며는 밤에는 폭도 무서와 가지고 다 곱아불고, 뚜로 낮에는 경찰 무서와서 다 곱읍주기. 경 험서라 껄린 사름은 죽어십주. 낮에 껄린 사름은 경찰안테 죽을 거고, 밤에 폭도안티 껄린 사름은 폭도안티 죽을 거고. 겐디 이디 왕덜 막 그 저 쏠 내노렌 허멍 그 저 집에 불 부치겟다. 압박이 심헤십주게. 그 사름덜 대개 폭도덜 오믄 그 저 먹을 거부떠 털어가나십주.(예, 그 사람들은 오고, 그 현○○이이라고 한 사람은 상대리서 우리 동네 와 가지고, 아들 데리고 해서 왔는데, 아들은 그만 폭도로 가 버렸습지요. 소개해서 올 때 폭도가 아니고 저 그 젊으니까 오지 아니한 사람은 어느 부락만 하고 소개할 때 같이 내려와버리면 폭도 아니 되고, 거기서 숨었다가 저 폭도 돼버렸습지요. 하고 그 사삼사건 때는 당한 자는 사하고 피한 자는 살았습지요. 어떤 말이냐 하면은 밤에는 폭도 무서워 가지고 다 숨어버리고, 따로 낮에는 경찰 무서워서 다 숨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걸린 사람은 죽었지요. 낮에 걸린 사람은 경찰한테 죽을 거고, 밤에 폭도한테 걸린 사람은 폭도한테 죽을 거고. 그런데 여기 와서들 마구 그 저 쌀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 저 집에 불 지르겠다. 압박이 심했습지요. 그 사람들 대개 폭도들 오면 그 저 먹을 거부터 털어갔습지요.)

102006 @ 밤이 왕은에.(밤에 와서.)

102006 #1 남자덜 ᄀᆞ치 거기 가곡. 게 우리도 그 저 오월 십일 선거 반대로 헤 가지고 상대꺼지 가낫수다.(남자들 같이 거기 가고. 그럼 우리도 그 저 오월 십일 선거 반대로 해 가지고 상대리까지 갔었습니다.)

102006 @ 여기는 서북청년단도 잇어낫지예?(여기는 서북청년단도 있었었지요?)

102006 #1 서북청년단은 그 저 제일 처음은 폭도 심으레, 아, 저 사삼사건 일어나멍서라 없엇는데, 그 중반에 들어가니까양, 이 서북청년단이 제일 못 뒌 짓을 헷수다. 게 가지고 이놈덜 와서 사름덜 많이 죽이고, 그자 나쁜 말은, 그 전에는 우리 제주도민덜 상당이 춤 유교 사상이 잇어 가지고 예의도 바르곡 말씨도 좋아낫는데, 그 놈들이 와 가지고 개새끼옌 허는 말을, 그 서북청년단들이 와 가지고 그 말을 써십주게.(서북청년단은 그 저 제일 처음은 폭도 잡으러, 아, 저 사삼사건 일어나면서 없었는데, 그 중반에 들어가니까요, 이 서북청년단이 제일 못 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놈들 와서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저 나쁜 말은, 그 전에는 우리 제주도민들 상당히 참 유교 사상이 있어 가지고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좋았었는데,

그 놈들이 와 가지고 개새끼라고 하는 말을, 그 서북청년단들이 와 가지고 그 말을 썼습지요.)

102006 @ 나쁜 말을 퍼뜨련예?(나쁜 말을 퍼뜨렸습니까?)

102006 #1 나쁜 사람덜이난 이 새끼, 개새끼, 겐 거 그때부터라십주. 허고 또 그 때 한림중학교 오 선셍허고 강 선셍 서너 이가, 거 음악 선셍허고 영어 선셍허고 너 이가.(나쁜 사람들이니까 이 새끼, 개새끼, 그래서 거 그때부터였지. 하고 또 그 때 한림중학교 오 선생하고 강 선생 서너 이가, 거 음악 선생하고 영어 선생하고 넷 이가.)

102006 @ 오○○ 선셍님 아니고?(오○○ 선생님 아니고?)

102006 #1 오○○이엔 그 사름은 명월 사름인디 그 사름은 아주 우리보다 후배고마씨.(오○○이라고 그 사람은 명월리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주 우리보다 후배고요.)

102006 @ 아, 후배구나예.(아, 후배구나.)

102006 #1 그 저 이북서 내려온 사름덜이, 이북서 내려완 그 서너이 잇엇는디 그 저 김○○ 선셍 그 사름 하나만 나를 상대를 헤 가지고 나를 좁아먹지 못헨 춤 막 애써십주게. 겐 그놈덜이 이디 왕 저 선셍질 허면서 그저 아이덜안티도, 선셍 하나만 돌아온 것이 아이라 족으카부덴 헤사신디 혼 차썩 데레와노난 즉시 선셍들 헤십주. 겡 막 학셍덜 구타헤 불곡 요만이만 잘못헤도 허곡 메날 그 저 육이오사변 터지기 전부떠도 제식훈련 헤가지고 한림초등학교 강, 아, 이 저 구 면사무소 서펜이, 거기서 허영 한림 일주를, 메날 제식훈련 헤가지고, 저 노래 불르멍 저 돌아왕 학교 수업 태반 시키믄 그때사 집이 가낫수다. 매날 그런 훈련만 허고.(그 저 이북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북서 내려와서 그 서너이 있었는데 그 저 김○○ 선생 그 사람 하나만 나를 상대를 해 가지고 마를 잡아먹지 못해서 참 아주 애썼지요. 그래서 그놈들이 여기 와서 저 선생질하면서 그저 아이들한테도, 선생 하나만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적을까 싶어서 했었는지 한 차씩 데려와 놓으니까 즉시 선생들 했습지요. 그래서 마구 학생들 구타해버리고 요만큼만 잘못해도 하고 맨날 그 저 육이오 사변 터지기 전부터 제식훈련 해서 한림초등하교 가서, 아, 이 저 구 면사무소 서편에, 거기서 해서 한림 일주를, 맨날 제식훈련 해서, 저 노래 부르면서 저 돌아와서 학교 수업 태반 시키면 그때야 집에 갔었습니다. 맨날 그런 훈련만 하고.)

102006 @ 그 중학교 때예?(그 중학교 때요?)

102006 #1 예, 그땐 훈련 심헷고, 그 우리 선배덜 그 한림중학교 그 저 운동장서 열 시 사름 죽어낫수다. 게고 그 선싱덜이 춤 못뒌 짓을 많이 헤십주게. 경 허단 그때 육이오사변이 탁 터지니까 그놈으 선셍덜이 그 서이, 너이가 그 못뒌 짓을 허단, 어떤 분 뚜로 그 방위 장교로 헨 군인가불엇어마씨. 군인 가멍 것덜 직허여 부니까 한림중학교서 저 대수 선셍허고 강○○ 선셍허고,또 저 소○○ 서무과장허고, 학셍 서무과장이엔 ○○ 선셍 아방이우다.(예, 그땐 훈련 심했고, 그 우리 선배들 그 한림중학교 그 저 운동장서 열세 사람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들이 참 못

된 짓을 많이 했습지요. 그렇게 하다가 그때 육이오사변이 탁 터지니까 그놈의 선생들이 그 셋이, 넷이 그 못된 짓을 하다가, 어떤 분 따로 그 방위 장교로 해서 군인 가버렸어요. 군인 가면서 것덜 지켜버리니까 한림중학교서 저 ○○ 선생하고 강○○ 선생하고, 또 저 소○○ 서무과장하고, 학생 서무과장이라고 ○○ 선생 아버지입니다.)

102006 @ 김○○? 김○○ 선셍.(김○○? 김○○ 선생.)

102006 #1 예, 그 사름덜 시 사름이 저 칠월칠석날 모슬포 간 죽엇수다.(예, 그 사람들 시 사람이 저 칠월칠석날 모슬포 가서 죽었습니다.)

102006 @ 모슬포?(모슬포?)

102006 #1 예.(예.)

102006 @ 그 저, 모슬포 거기 어디라?(그 저, 모슬포 거기 어디야?)

102006 #1 그때에 전쟁, 그 비행장 헤난 디, 거 무슨?(그때에 전쟁, 그 비행장 했던 데, 거 무슨?)

102006 @ 알드르[66], 알드르? 아, 섯알[67], 섯알.('알드르', '알드르'? 아, '섯알', '섯알'.)

102006 #1 그 화약, 저 화약공장 창고 헤난 디서 죽엇수다. 나도 저 우린 유가족이 아니니까 아니헹 볼 건디, 나 저 그.(그 화약, 저 화약공장 창고 했던 데서 죽었습니다. 나도 저 우린 유가족이 아니니까 아니해서 볼 것인데, 나 저 그.)

102006 @ 게난 사삼사건 땐 뭐 저 친척들 중에 피해 본 사름덜은 엇고마씨?(그러니까 사삼사건 땐 뭐 저 친척들 중에 피해 본 사람들은 없고요?)

102006 #1 우리 친척덜은 사삼사건ᄒᆞ고 일제시대에 피해본 사름덜은 엇수다.(우리 친척들은 사삼사건하고 일제시대에 피해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102006 @ 예.(예.)

102006 #1 왜 엇냐 허면은, 저 우리 고산[68] 열두촌 형님입니다마는 그 사름은 일제시대에 해외로 나갓다가 죽엇젠 허니까 그 일제시대고 허난, 완 그 유골 왓다고 허여 가지고, 겐 이제 그 장로교회 잇는 디서 그 저 진씨 산 땅이라 헤 가지고, 큰 행사 시믄 그디 강 헙주게. 그디서 다 허연 갓는디, 그 어른이 해방뒈언, 해방뒈니까, 십일월달 미군덜이 들어오난 그 사름도 ᄀᆞ찌 들어와십주기. 게난 거 소상 넘언 대상 곧 가까웁게 뒈난, 게난 그게 그 소상돗 잡안 잔치ᄁᆞ지 헷수다, 뭐. 겐디 그때 간 그디 간 영어 베완 완 그 영어 통역허연 돌아다니면서, 통역헷수다, 그 사름. 겐 허고 또.(왜 없느냐 하면은, 저 우리 '고산' 열두촌 형님입니다마는 그 사람은 일제시대에 해외로 나갔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그 일제시대고 하니까, 와서 그 유골 왔다고 허여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회 있는 데서 그 저 진씨 산 땅이라 해 가지고, 큰 행사 있으면 거기 가서 하지요. 거기서 다 해서 갔는데, 그 어른

66) '알드르'는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지경이며, 비행장이 있던 곳이다.
67) '섯알'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절울이' 북록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오름 가운데 서쪽 오름이다. 사삼사건 때 많은 양민들이 희생당했던 곳이다. '섯알오름'이라고도 한다.
68)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말한다.

이 해방되어서, 해방되니까, 십일월달 미군들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도 같이 들어왔습지요. 그러니까 거 소상 넘어서 대상 곧 가깝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소상할 돼지 잡아서 잔치까지 했습니다, 뭐. 그런데 그때 가서 거기 가서 영어 배워서 와서 그 영어 통역해서 돌아다니면서, 통역했습니다, 그 사람. 그래서 하고 또.)

102006 @ 아, 소상은 죽어불어시카부덴 소상을 헌 거라마씨?(아, 소상은 죽어버렸을까 싶어서 소상을 한 것인가?)

102006 #1 예, 게. 유월ᄁᆞ지 와십디다, 일제시대에.(예, 그래. 유월까지 왔습디다, 일제 강점기에.)

102006 @ 경 헤신디.(그렇게 했는데.)

102006 #1 예, 유월ᄁᆞ지 와신디.(예, 유월까지 왔는데.)

102006 @ 살아 돌아왓구나예.(살아 돌아왔구나.)

102006 #1 예, 김○○라고 그 아덜도, ○○라고 허는 사름도 잇는디, 겐 돌아오고, 또 그 사삼사건 때도 그 우리 일가에는 피해 본 사름 엇수다. 허고 육이오사변 때도 죽은 사름이 엇고.(예, 김○○라고 그 아들도,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고, 또 그 사삼사건 때도 그 우리 일가에는 피해 본 사람 없습니다. 하고 육이오사변 때도 죽은 사람이 없고.)

102007 @ 죽은 사름이 엇고. 아이고 거 뭐 춤, 게난 결혼은 언제 헷수가?(죽은 사람이 없고. 아이고 거 뭐 참, 그러니까 결혼은 언제 했습니까?)

102007 #1 결혼은 그 저 나가 ***을 맡아 가지고 한림멘사무소에서 그때 헷수다.(결혼은 그 저 내가 ***을 맡아 가지고 한림면사무소에서 그때 했습니다.)

102007 @ 아, 게믄 멧 살 때?(아, 그러면 몇 살 때?)

102007 #1 저, 스물시 솔마씨.(저. 스물세 살요.)

102007 @ 스물시 솔에. 여자 삼춘은 어디?(스물세 살에. 여자 삼촌은 어디?)

102007 #1 이 저 원래는 한림, 한림이랏수다만, 저 부모네가 일본 가부니까 저 귀덕 외할망칩 잇으니까, 그 저 그때 한림 부읍장 그 고모 뚤이우다.(이 저 원래는 한림, 한림이었습니다만, 저 부모네가 일본 가버리니까 저 귀덕 외할머니 집 있으니까, 그 저 그때 한림 부읍장 그 고모 딸입니다.)

102007 @ 게 어떵 허연 만납디가?(게 어떻게 해서 만납디까?)

102007 #1 만남은 저 결혼허게 뒈니까 우리 할으바님네도 잇고 헤신디 날 보고 막 결혼허렌 헤도 어떵 어머님, 아버님, 아 저 아버진 안 계셧수다만 그때 어머님이라든지 이야기 허는 것이 어떵 ᄆᆞ음 잘 안 들고 허연, 예, 예, 대답만 허면서, 그때는 귀덕 사름덜이 약간 일로 왓다갓다 헙주게. 전쟁 때고 허니까. 겐 마치 거리에 나간 보니까 어디 저 새각시 살암저, 장게가라, 가라 허연, 헐 셍각을 안 허는디 경 멧 개월 이야기허는 과정에서, 그 넘어가는 걸 보니까 둘이 넘어가는 거라, 그때 아요거 몸도 호리호리허고 ᄆᆞ음에 들언, 그 ᄯᅳ로 귀덕 친구덜신티 알아봐십주게. 알아보니 누게엔 허쿠테, 하, 이거.(만남은 저 결혼하게 되니까 우리 할아버님네도 있고 했는데 날 보고 마구 결혼하라고 해도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 아 저 아버진 안 계

셨습니다만 그때 어머님이라든지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마음 잘 안 들고 해서, 예, 예, 대답만 하면서, 그때는 귀덕 사람들이 약간 일로 왔다갔다 하지요. 전쟁 때고 하니까. 그래서 마치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어디 저 새색시 살고 있다, 장가가라, 가라 해서, 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렇게 몇 개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 넘어가는 걸 보니까 둘이 넘어가는 거야, 그때 아 요거 몸도 호리호리하고 마음에 들어서, 그 따로 귀덕 친구들에게 알아봤습지요. 알아보니 누구라고 하길래, 하, 이거.)

102007 @ 소개헤 주라 헷구나예?(소개해 주라 했구나?)

102007 #1 겐 그때 학생이 소개헤 주난, 귀덕 친헌 사름인데 이모님네 집에 자주 오난, 게 강 이야기허난 부모님네가 일본 싯고 허난 일본에만 가젠 막 준비헴젠 허난, 그디만 가켄 헴젠 허난. 저 중개헌 사름도 말이 좋아십주게. 겐 간, 아니여, 부모님덜 이제 다 일본 가도 이제 느냥으로 벌엉먹엉 느냥으로 살아야주 그냥 먹여 줄 사름 엇나, 아무 디도. 이제 경 말앙 저 나 말만 들라, 나 말 들라. 이제 뚠 디 강근에, 그 저, 들엄직이 골아십주게, 저 장톡[69]에 뒌장 놩 양에잎 겆드당 꾹 놩 망텡이에 들이청은에 저 걸머졍은에 웃드리[70] 촐왓디 뎅이는 게 낫다, 낫다, 그디 살아가난. 그디 어떵 어떵 허연.(그래서 그때 학생이 소개해 주니까, 귀덕 친한 사람인데 이모님네 집에 자주 오니까, 그래 가서 이야기하니까 부모님네가 일본 있고 하니까 일본에만 가려고 마구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만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 중개한 사람도 말이 좋았습지요. 그래서 가서, 아니야, 부모님들 이제 다 일본 가도 이제 너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어서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지 그냥 먹여줄 사람 없나, 아무 데도. 이제 그렇게 말아서 저 내 말만 들라, 내 말 들라. 이제 다른 데 가서, 그 저, 들 수 있게끔 말했습지요, 저 장독에 된장 놔서 양하잎 갖다가 꾹 놔서 망태기에 들이쳐서 저 걸머져서 '웃드리' 꼴밭에 다니는 게 낫다, 낫다, 거기 살아가니까. 거기 어떻게 어떻게 해서.)

102007 @ 아니 게난 그 무슨 말이우꽈? 장톡에?(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말입니까? '장톡'에?)

102007 #1 장톡이엔 헌 건 그 저 뒌장 통이라든지 멘들아 가지고 옛날 장이라든지 젓을 담아 가지고 밧디 뎅길 땐 그거 담앙 뎅입주게. 그것으로 헤십주게.('장톡'이라고 한 건 그 저 된장 통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 옛날 장이라든지 젓을 담아 가지고 밭에 다닐 땐 그거 담아서 다니지요. 그것으로 했습지요.)

102007 @ 아, 게난 장 담는 거.(아, 그러니까 장 담는 거.)

102007 #1 장톡. 게난 우는 막아야 허고.('장톡'. 그러니까 우는 막아야 하고.)

102007 @ 양에.(양하.)

102007 #1 게난 그 가을 때 뒈면 ᄂᆞ물은 막 내리지만, 거 읏일 때는 양엣잎 헤당 걸로 막안 뎅겨나십주게. 게 그 하르방이 경 골으난 것도 그럴 법 허여불다 영 생각허연. 허허.(웃음)(그러니까 그 가을 때 되면 나물은 막 내리지만, 거 없을 때는

69) '장톡'은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들에 일하러 다닐 때 된장이라든지 젓을 담고 다니는 통이라고 말할 수 있다.

70)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이다.

양하잎 해다가 걸로 막아서 다녔었습지요. 그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것도 그럴 법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허허.(웃음))

102007 @ 게난 만나긴 어디서 만난 거라마씨?(그러니까 만나기는 어디서 만난 거예요?)

102007 #1 아, 게난 그 귀덕 사름 통헤 가지고 이야기허니까 좀 허고파 헴젠 허난, 그게 또 다음에 촞아간 만나십주게. 멧 번, 질 처음은 가도 피헤불곡, 가도 피헤불곡, 경 헨 혼 서너 번 헤 가난 마치 만난 말허여 보난 어떵 어떵 통허연. 하하하.(웃음)(아, 그러니까 그 귀덕 사람 통해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좀 하고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게 또 다음에 찾아가서 만났습지요. 몇 번, 젤 처음은 가도 피해버리고, 가도 피해버리고, 그렇게 해서 한 서너 번 해 가니까 마치 만나서 말해서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통했어. 하하하.(웃음))

102007 @ 하하하.(웃음) 경 헨 얼마난 사귀언 결혼헌 거우꽈?(하하하.(웃음) 그렇게 해서 얼마나 사귀어서 결혼한 것입니까?)

102007 #1 혼 너댓 둘 사귀언.(한 네댓 달 사귀었어.)

102007 @ 게난 중매멍 연애멍 반반이구나예?(그러니까 중매면서 연애면서 반반이구나?)

102007 #1 허허허.(웃음)(허허허.(웃음))

102007 @ 몰란 헌 건 아니고 중매헌 사름이 얼굴 확인혜근에, 그렇구나게, 이미 얼굴 알고예, 모르는 얼굴은 아니고 아는 얼굴이난 어르신이 딱 찍엇구나.(몰라서 한 건 아니고 중매한 사람이 얼굴 확인해서, 그렇구나, 이미 얼굴 알고요, 모르는 얼굴은 아니고 아는 얼굴이니까 어르신이 딱 찍었구나.)

102007 #1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2008 @ 사주도 보난에 맞앗덴 ᄀᆞᆯ읍디가, 누게가?(사주도 보니까 맞았다고 말합디까, 누구가?)

102008 #1 ᄉᆞ주, 건 우리 어머니가 봔 완 허난. 좋덴만 헴젠 허난.(사주, 건 우리 어머니가 봐서 와서 하니까. 좋다고만 하고 있다고 하니까.)

102010 @ 그때 게난 결혼식을 어디서 헷수가?(그때 그러니까 결혼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102010 #1 아, 이 집이서.(아, 이 집에서.)

102010 @ 여기서 헷수가? 게믄 뭐.(여기서 했습니까? 그러면 뭐.)

102010 #1 예식은 못 헷수다게.(예식은 못 했습니다.)

102010 @ 예식은 안 허고.(예식은 안 하고.)

102010 #1 차 탄에 족두리 썽 왕. 허허.(웃음)(차 타서 족두리 써서 와서. 허허.(웃음))

102010 @ 음.(음.)

102010 #1 우리 결혼헐 때꺼지도 우리 대림리에서는 김○○ 선셍이라고 헤 가지고, 게곡 그 ᄀᆞ뜬 올레[71]우다만, 그 사름 하나, 그 사름허고 ᄯᅳ로 저 이 신○○이

라는 사름 두 사름이 지금 저 주례헤 가지고 결혼식덜 헤나십주. 그 웨는 결혼식헌 사름 엇수다. 우리보다 밑에 사름덜은.(우리 결혼할 때까지도 우리 대림리에서는 김○○ 선생이라고 해 가지고, 그리고 그 같은 '올레'입니다만, 그 사람 하나, 그 사람 하고 따로 저 이 신○○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저 주례헤 가지고 결혼식들 했었습지요. 그 외는 결혼식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보다 밑에 사람들은.)

102010 @ 물 탕 강 돌아오지 안 헙디가, 어디?(말 타서 가서 돌아오지 안 합디까, 어디?)

102010 #1 우린 그 물론 아니허고 저 그땐 버스가 엇이난 그 짐차.(우린 그 말로는 안 하고 저 그땐 버스가 없으니까 짐차.)

102010 @ 짐차로 허연?(짐차로 했어?)

102010 #1 예, 짐차로 허연. 운전수 옆이는 신랑 신부 둘이 앚곡 뒤엔 식구덜 앚곡.(예, 짐차로 했어. 운전수 옆에는 신랑 신부 둘이 앉고 뒤엔 식구들 앉고.)

102010 @ 뒤엔 이불이엉 실으고, 경 헨. 아, 경 헨 간 영 돌아오고 헷구나양?(뒤엔 이불이랑 싣고, 그렇게 했어. 아, 그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돌아오고 했구나예?)

102010 #1 예.(예.)

102010 @ 아니 실어 나르는 거, 이불도 실렁 갑니까?(아니 실어 나르는 거, 이불도 실어서 갑니까?)

102010 #1 아니, 새각시 칩이 강 실렁 와.(아니, 새색시 집에 가서 실어서 와.)

102010 @ 그디 강 그디서 실렁 오는 거지예?(거기 가서 거기서 실어서 오는 거지요?)

102010 #1 예.(예.)

102010 @ 신랑 신부는 운전석 앞이 앚고, 뒤에는 궤허고 이불허고 실렁 이디 왓구나예?(신랑 신부는 운전석 앞에 앉고, 뒤에는 궤하고 이불하고 실어서 여기 왔구나예?)

102010 #1 그 상객 오는 사름은 뒤에 타곡.(그 상객 오는 사람은 뒤에 타고.)

102010 @ ᄀᆞ져간 건 무시거꽈?(가져간 건 무엇입니까?)

102010 #1 ᄀᆞ져간 건 뭐.(가져간 건 뭐.)

102010 @ 그디서 실어서 온 건 궤허고 이불이고.(거기서 실어서 온 건 궤하고 이불이고.)

102010 #1 ᄀᆞ져간 것 뭣 엇어마씨, 뭐 그 함 ᄀᆞ져갓주마씨, 함.(가져간 것 뭣 없어요, 뭐 그 함 가져갔지요, 함.)

102010 @ 함만?(함만?)

102010 #1 함에는 그 저 이제ᄀᆞ뜨면 뭣고, 쉽게 말허믄 물건 풀러갈 때 계약섭주게.(함에는 그 저 이제같으면 뭣고, 쉽게 말하면 물건 팔러갈 때 계약서지요.)

102010 @ 게난 글자로 뭐 적곡 헹 담앙 헌 건 안 들고 가낫수가?(그러니까 글

71) '올레'는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이다.

자로 뭐 적고 해서 담아서 한 건 안 들고 갔었습니까?)

102010 #1 그 우리보단 미릇 헤난 사름덜은 계란도 ᄀᆞ져가곡 도새기도 시꺼 가곡 헤나신디, 겐디 우리 헐 땐 그건 엇고, 함에는 돈 좀 놩 갓수다.(그 우리보다 미리 했던 사람들은 계란도 가져가고 돼지도 실어 가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할 땐 그건 없고, 함에는 돈 좀 넣어서 갔습니다.)

102010 @ 돈으로, 음. 그 전인 도새기도 가져가곡.(돈으로, 음. 그 전에는 돼지도 가져가고.)

102010 #1 계란도 ᄀᆞ져가곡.(계란도 가져가고.)

102010 @ 계란도 ᄀᆞ져가곡 헤낫구나.(계란도 가져가고 했었구나.)

102010 #1 예, 예.(예, 예.)

102010 @ 이건 잔치헐 때 쓰렌.(이건 잔치헐 때 쓰라고.)

102010 #1 예, 잔치헐 때.(예, 잔치할 때.)

102009 @ 게믄 여기 올 때는 무신거, 거기서는 혼수로?(그러면 여기 올 때는 무엇, 거기서는 혼수로?)

102009 #1 혼수, 거 이불허고 주로 경대라고 헤 가지고, 화장대. 요런 거 ᄀᆞ져왓수다.(혼수, 거 이불하고 주로 경대라고 해 가지고, 화장대. 요런 거 가져왔습니다.)

102009 @ 네, 화장대허고. 뭐 그릇 ᄀᆞ튼 건 아니고?(네, 화장대하고. 뭐 그릇 같은 건 아니고?)

102009 #1 그릇 ᄀᆞ튼 건 별로 안 헷수다. 건 살아가면서 자기냥으로 헤십주.(그릇 같은 건 별로 안 했습니다. 건 살아가면서 자기대로 했습지요.)

102009 @ 집이서 결혼허고예? 사진도 집이서 찍엇수가?(집에서 결혼하고? 사진도 집에서 찍었습니까?)

102009 #1 그때 거 사진 별로 찍어신지 안 찍어신지 모르쿠다마는, 저기 신 사진들은 나중에.(그때 거 사진 별로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기 있는 사진들은 나중에.)

102009 @ 나중에 찍은 사진덜예.(나중에 찍은 사진들요.)

102009 #1 저 칠순잔치 헐 때, 사진관에 간 찍은 거마씨.(저 칠순잔치 할 때, 사진관에 가서 찍은 거요.)

102009 @ 그때 찍은 사진은 엇수가?(그때 찍은 사진은 없습니까?)

102009 #1 건 어디 막 둥글엄선게, 모르크라마씨.(건 어디 마구 뒹굴고 있던데, 모르겠어요.)

102009 @ 찍어낫구나양?(찍었었구나예?)

102009 #1 여기 또 팔순헐 때는 ᄯᅳ로 그저 서울 유람선에서 허여불고 허난.(여기 또 팔순할 때는 따로 그자 서울 유람선에서 해버리고 하니까.)

102009 @ 게난 여기 와근에 끝까지 살앗구나예.(그러니까 여기 와서 끝까지 살았구나.)

102009 #1 예, 이디 살앗수다. 거 팔순헐 때는 서울 가가지고, 우리 뚤네도 다

올라간.(예, 여기 살았습니다. 거 팔순할 때는 서울 가서, 우리 딸네도 다 올라가서.)

102011 @ 게난 장게간 다음에는 어디서?(그러니까 장가간 다음에는 어디서?)

102011 #1 우린 이 구들에 눕고, 그때 저 어머닌 이디 눕고 헤십주. 이거 고치기 전이라십주기.(우린 이 방에 눕고, 그때 저 어머닌 여기 눕고 했습지요. 이거 고치기 전이었습지요.)

102011 @ 아, 요 구들에 살앗구나예. 게믄 밧거리는?(아, 요 방에 살았구나. 그러면 바깥채는?)

102011 #1 밧거리는 ᄒᆞ끔 싯당 아이덜 폴기 전에 그 공부도 허젠 허니까.(바깥채는 조금 있다가 아이들 팔기 전에 그 공부도 하려고 하니까.)

102011 @ 아, 나중에 짓은 거.(아, 나중에 지은 거.)

102011 #1 예.(예.)

102011 @ 게 이거는?(그래 이거는?)

102011 #1 이 집 짓고 헐 때는 그 저 할으버님이 이 집 살다가 돌아가시난 상당이 오래십주게, 연도 모르쿠다, 몰라마씸, 나도.(이 집 짓고 할 때는 그 저 할아버님이 이 집 살다가 돌아가시니까 상당히 오랬습지요, 연도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나도.)

102011 @ 연도도 몰르고, 하여간 백 년은 아니주만 꽤 오래뒛겟다예.(연도도 모르고, 하여간 백 년은 아니지만 꽤 오래됐겠다.)

102011 #1 우리 부모님네가 백스무 살 넘어시난.(우리 부모네가 백스무 갈 넘었으니까.)

102011 @ 그러면 백 년 넘엇네예, 백 년.(그러면 백 년 넘었네요, 백 년.)

102011 #1 백 년쯤.(백 년쯤)

102011 @ 아, 예, 예. 이 게난 집 이거는 고쳐실 거고. 기둥은 이신 거 닮은 게예.(아, 예, 예. 이 그러니까 집 이거는 고쳤을 거고. 기둥은 있는 거 같은 게.)

102011 #1 원기둥이우다게. 이것들만 ᄀᆞᆯ아십주.(원기둥입니다. 이것들만 갈았습지요.)

102012 @ 바깟벽도 그대로고. 게난 여기 아까도 ᄀᆞᆯ앗주마는, 아이덜은 멧 남 멧 녀우꽈?(바깥벽도 그대로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말했지만, 아이들은 몇 남 몇 녀입니까?)

102012 #1 난 사남일녀우다.(난 사남일녀입니다.)

102012 @ 사남일녀예. 가네덜은 뭣덜 헴수가? 하나씩 ᄀᆞᆯ아봅서.(사남일녀요. 그 아이들은 뭣들 하고 있습니까? 하나씩 말해보십시오.)

102012 #1 딸은 저 몯이로 낫는데 저, 그 한림농협에 뎅이다가 겐 저 시에 간 살고예. 건 몯이 뚤이라.(딸은 저 맏이로 났는데 저, 그 한림농협에 다니다가 그래서 저 시에 가서 살고요. 건 맏이 딸이야.)

102012 @ 음, 그리고.(음, 그리고.)

102012 #1 아덜덜은 저 니 성제 모두 다 서울 간 대학교 나왓수다. 게난 저 서울 살고, 안양 살고, 세종시에 살고 헴수다.(아들들은 저 네 형제 모두 다 서울 가서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서울 살고, 안양 살고, 세종시에 살고 하고 있습니다.)

102012 @ 아이고, 거 학비 대젠 허난 엄청 힘들어신게예.(아이고, 거 학비 대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었네요.)

102012 #1 어려왓수다. 족은아덜은 그 저 고려대학교에서 따고, 셋놈은 홍익대학교고, 아 큰아덜은 중앙대학교고, 셋놈은 홍익대학교, 말젯놈은 저 재게 ᄀᆞᆫ젠 허난 거 저, 우○○이 나온 대학교.(어려웠습니다. 작은아들은 그 저 고려대학교에서 따고, 둘째 아들은 홍익대학교고, 아 큰아들은 중앙대학교고, 둘째 아들은 홍익대학교, 셋째 아들은 저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거 저, 우○○이 나온 대학교.)

102012 @ 어느 동네?(어느 동네?)

102012 #1 곧 튼나질 거우다만은.(생각날 수 있을겁니다만.)

102012 @ 큰아덜은 어디?(큰아들은 어디?)

102012 #1 중대 나왓수다.(중대 나왔습니다.)

102012 @ 중앙대.(중앙대.)

102012 #1 셋아덜은 홍익대. 말젯놈은 저. 재게 ᄀᆞᆫ젠 허난 잊어불엇수다.(둘째 아들은 홍익대. 셋째 아들은 저. 빨리 말하려고 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102012 @ 서울에예, 서울에.(서울요, 서울에.)

102012 #1 고등학교를 마치 연합고사를 봐 가지고 막 희망허지 안헤수가게. 게니까 그디 가보켄.(고등학교를 마치 연합고사를 봐 가지고 마구 희망하지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보겠다고.)

102012 @ 아이고, 돈 하영 들어시쿠다.(아이고, 돈 많이 들었겠습니다.)

102012 #1 예, 못 젼뎟수다. 게도 그디 신 죄로 다덜 잘 사니까.(예, 못 견뎠습니다. 그래도 거기 있는 죄로 다들 잘 사니까.)

102012 @ 아이고, 게메마씀. 뚤은?(아이고 그러게요. 딸은?)

102012 #1 뚤은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우리 딸이 이 학년 때부떠 부기하고 암산 대표로 시 동문통 거 여상에 가 가지고 경진대회 나가낫수다. 게난 졸업허기 직전에 실습을 한림 농협에서 실습허난 졸업 맡음과 동시에 뒷날부터 농협에 다녓수다. 농협에 다녓는디 그 흔 두 둘쯤 시니까, 두 둘쯤 뒛던가 그때 뒈난 뚜로 뎅기면서 그 농협 시험을 보렌 허난 시험을 봔 허난 일차로 합격헨 고산농협 가 가지고 흔 일년쯤 허단 뚜로 한림 왓수다.(딸은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우리 딸이 이학년 때부터 부기하고 암산 대표로 시 동문통 거 여상에 가 가지고 경진대회 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기 직전에 실습을 한림 농협에서 실습하니까 졸업 맡음과 동시에 뒷날부터 농협에 다녔습니다. 농협에 다녔는데 그 한 두 달쯤 있으니까, 두 달쯤 됐든가 그때 되니까 따로 다니면서 그 농협 시험을 보라고 하니까 시험을 봐서 하니까 일차로 합격해서 고산농협 가 가지고 한 일 년쯤 하다가 따로 한림 왔습니다.)

102014 @ 음. 어디 시집 갓수가?(음. 어디 시집 갔습니까?)

102014 #1 저 상가[72]에마씨.(저 '상가'에요.)

102014 @ 상가? 지금도 상가 살고예.(상가? 지금도 상가 살고요.)

102014 #1 아니 저, 이젠 시에 삽니다.(아니 저, 이젠 시에 삽니다.)

102014 @ 아, 게난 시집이 상가로구나예?(아, 그러니까 시집이 상가로구나예?)

102014 #1 게난 뚤이 상당이 수고혜십주게. 뚤허고 큰아덜허고 연령 차이가 다섯나 차이 나난.(그러니까 딸이 상당히 수고했습지요. 딸하고 큰아들하고 연령 차이가 다섯 나이 차이 나니까.)

102014 @ 아.(아.)

102014 #1 게고 저 큰아덜허고 셋아덜허고 연령 차이가 다섯나 차이우다. 게난 고등학교 쉽게 뎅긴 것이 그 저 질 처음 뚤 시집가기 전에는 자기냥으로 자취도 허곡 헷는데 시집간 지 후제는 뚤레 신 디서 덕들 봐십주기.(그리고 저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연령 차이가 다섯 나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쉽게 다닌 것이 그 저 젤 처음 딸 시집가기 전에는 자기대로 자취도 하고 했는데 시집간 지 후에는 딸네 있는 데서 덕들 봤습지요.)

102014 @ 아, 아. 오라방덜 공부시키젠 헌 거구나양.(아, 아. 오라버니들 공부시키려고 한 거구나.)

102014 #1 게고, 뚜로 큰메누리하고 큰아덜허고 셋아덜하고 다섯 술 차이라예, 게난 큰아덜 결혼허여 난 뚜로 셋아덜이 자기가 이 년간만 자기가 자기냥으로 그디서 합숙허난, 큰메누리가 저 큰아덜끄지 직장 들어가니까, 저기 거 서울 갈 때난.(그리고, 따로 큰며느리하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다섯 살 차이야,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결혼해서 나서 따로 둘째 아들이 자기가 이 년간만 자기가 자기대로 거기서 합숙하니까, 큰며느리가 저 큰아들까지 직장 들어가니까, 저기 거 서울 갈 때니까.)

102014 @ 음, 셋아덜은 그디 간 대학 다닌 거로구나.(음, 둘째 아들은 거기 가서 대학 다닌 거로구나.)

102014 #1 그 큰메누리는 이디서 대학 다년 서방 따라 나가난 그 큰아덜네 집이간 살아십주기. 그 성네 집이 간 살아십주기. 게난 뚜로 말젯놈은 역시, 아, 셋놈이구나 셋놈은 큰아덜네 집이 간 혼 이년 살안, 나머진 저 그 지 형수가 밥헤주고 빨래헤 주고 허난 그디 간 살면서 장게간 각시, 메누리 서울로 전근 갈 동안은 장게가도 큰성네 집이 살앗수다. 겐 메누리 올라가멍서라, 혼 저.(그 큰며느리는 여기서 대학 다녀서 서방 따라 나가니까 그 큰아들네 집에 가서 살았습지요. 그 형네 집에 가서 살았습지요. 그러니끄 따로 셋째 아들은 역시, 아, 둘째 아들이구나 둘째 아들은 큰아들네 집에 가서 한 이 년 살았어, 나머진 저 그 자기 형수가 밥해주고 빨래해 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살면서 장가가서 각시, 며느리 서울로 전근 갈 동안은 장게 가도 큰형네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올라가면서, 한 저.)

72) '상가'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를 말한다.

102014 @ 아, 게난 결혼헨에 대학을 다녀서마씨?(아, 그러니까 결혼해서 대학을 다녔어요?)

102014 #1 아니, 저, 큰아덜은 미리 저 결혼헤 가지고 직장에 다니니까. 결혼 그 일찍 헤신디, 게난 그 메누리가 여기 저 신협에 근무헷수다게. 우리 메누리 여자 질 처음으로 신협에 부장이라낫수다게. 겐 부장허단 그디 간 살아십주.(아니, 저, 큰아들은 미리 저 결혼해 가지고 직장에 다니니까. 결혼 그 일찍 했는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여기 저 신협에 근무했습니다. 우리 메느리 여자 젤 처음으로 신협에 부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부장하다가 거기 가서 살았습지요.)

102014 @ 아, 서울 간.(아, 서울 가서.)

102014 #1 게난 뚜로 간 보난 셋아덜이 그디서 학교 다념시난, 무신 큰아덜이난.(그러니까 따로 가서 보니까 둘째 아들이 거기서 학교 다니고 있으니까, 무슨 큰아들이니까.)

102014 @ 아, 이 년 동안은 혼자 살고 그디 올라가니까 그디서 밥을 얻어 먹엇구나예.(아, 이 년 동안은 혼자 살고 거기 올라가니까 거기서 밥을 얻어 먹었구나.)

102014 #1 예, 거디서 살안. 말젯놈도 뚜로 역시 지 성네 집이 간 그디서 살멍 대학교를 ᄆᆞ치고, 족은 것 뚜로 역시 지 성네 집이 살멍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ᄁᆞ지 나완.(예, 거기서 살았어. 셋째 아들도 따로 역시 자기 형네 집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대학교를 마치고, 작은 것 따로 역시 자기 형네 집에 살면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왔어.)

102015 @ 아, 큰메누리가 다 밥을 헤주고 헷구나예.(아, 큰며느리가 다 밥을 해주고 했구나.)

102015 #1 예, 우리 큰메누리가 춤 우리 집안을 살려십주. 경 아니헤시믄 버청 헤짐니까게?(예, 우리 큰며느리가 참 우리 집안을 살렸습지요. 그렇게 안 했으면 부쳐서 할 수 있습니까?)

102015 @ 처음은 뚤이 오라방덜 헤 주고 허단, 그다음은 큰메누리가 시동셍덜 다 허영 영 멕이고.(처음은 딸이 오라버니들 해 주고 하다가, 그다음은 큰며느리가 시동생들 다 해서 이렇게 먹이고.)

102015 #1 게난 큰메누리 덕을 잘 봐십주기. 게난 뚜로 이디서 막 일헤 가고 허난 아이덜 나난 칠순 땐 서울 간 허난 그 회사 직원덜이영 뚜로 고향 사름덜이영 허난 많이덜 왓수다게. 그디 저 사회 보는 사름 ᄒᆞᆫ 사름 허고, 노래 불러주는 여자 두 개허고 허연 칠순 지냇는디. 거 그디서 들어온 돈 다 나 주멍 이거 ᄀᆞ져강 이제랑 이거 쓰멍, 모자라면 우리가 다 허쿠다. 쓰렌 허멍 연설헙디다게. 겐 일흔 나난 칠십 난 헤부떠 일을 설러불어십주기.(그러니까 큰며느리 덕을 잘 봤습지요. 그러니까 따로 여기서 마구 일해 가고 하니까 아이들 나니까 칠순 땐 서울 가서 하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랑 따로 고향 사람들이랑 하니까 많이들 왔습니다. 거기 저 사회 보는 사람 한 사람 하고, 노래 불러주는 여자 두 개하고 해서 칠순 지냈는데. 거 거기 들어온 돈 다 나 주면서 이거 가져가서 이제랑 이거 쓰면서, 모자라면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 쓰라고 하면서 연설합디다. 그래서 일흔 나니까, 칠십 나는 해부터 일을 치워버렸습지요.)

102015 @ 음, 아 게난 저거 장소가 어디우꽈? 시에꽈? 어디우꽈?(음, 아 그러니까 저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입니까? 어디입니까?)

102015 #1 서울마씸.(서울요.)

102015 @ 서울, 서울서 헷구나. 아이고, 크게 헷구나게. 큰메누리가 원래 제주도 메누리꽈?(서울, 서울서 했구나. 아이고, 크게 했구나. 큰며느리가 원래 제주도 며느리니까?)

102015 #1 예.(예.)

102015 @ 게난 여기 질 우에 사위는 뭘 헴수가?(그러니까 여기 젤 위에 사위는 뭘 하고 있습니까?)

102015 #1 사윈 거기 병원 사무장이라, 사무장.(사윈 거기 병원 사무장이야, 사무장.)

102015 @ 지금은 퉤직허고.(지금은 퇴직하고.)

102015 #1 예, 겐 뚜로 팔순헐 때는 그때는 저 젊은 사름덜 신 한강 유람선에서 우리 팔순헷수다만.(예, 그래서 팔순할 때는 그때는 저 젊은 사람들 있는 한강 유람선에서 우리 팔순했습니다만.)

102015 @ 아, 팔순은 한강 유람선에서 헷구나. 하하하.(웃음)(아, 팔순은 한강 유람선에서 했구나. 하하하.(웃음))

102015 #1 겐 막 안 허켄 헤서마씨.(그래서 막 안 하겠다고 했어요.)

102015 @ 대단헌게마씨. 육지서예. 아이고, 경 헌 사름이 어디 시쿠가게.(대단한데요. 육지서요. 아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02015 #1 금강산도 저 우리 금혼식 때에 큰메누리허고 아덜허고 둘안 우리.(금강산도 저 우리 금혼식 때에 큰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데려서 우리.)

102015 @ 오십 년인가? 금혼식이.(오십 년인가? 금혼식이.)

102015 예, 오십 주년에.(예, 오십 주년에.)

102015 @ 사윈 무신거 헴수가?(사위는 무엇 하고 있습니까?)

102015 #1 사윈 이젠 자영업 헴수다.(사위는 이젠 자영업 하고 있습니다.)

102015 @ 자영업. 아까 그 어디 병원 사무장 허단.(자영업. 아까 그 어디 병원 사무장 하다가.)

102015 #1 게난 저 큰아덜도 퉤직허고. 이디서 큰메누리는 금융계통에 잇다가, 결혼허게 뒈난 헐 수 엇이 그만 둰 육지 가난 헐 거 엇이니까 이디 저디 헤봐도 벨 찬허고 허난, 저 살림 혼 일 년 못헤 가지고 허연 이제 그 미장원 원장이우다.(그러니까 저 큰아들도 퇴직하고. 여기서 큰며느리는 금융계통에 있다가, 결혼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만 둬서 육지 가니까 할 거 없으니까 여기 저기 별하지 안 하고 하니까, 저 살림 한 일 년 못해 가지고 해서 이제 그 미장원 원장입니다.)

102015 @ 아, 아, 거난 살림허멍 미장원 헷구나.(아, 아, 그러니까 살림하면서

미장원 했구나.)

102015 #1 예. 아덜이 뎅이지 말라, 뎅이지 말라 헤도 뎅연 잘 살아마씸. 다음 또 셋놈으네도 뚜로 역시 교사는 이디서 선생질 허당 가고.(예. 아들이 다니지 말라, 다니지 말라 해도 다녀서 잘 살아요. 다음 또 둘째 아들네도 따로 역시 교사는 여기서 성생질 하다가 가고.)

102015 @ 아, 여기서 허당 올라가고예?(아, 여기서 하다가 올라가고요?)

102015 #1 예. 말젯메누리도 교사고. 또 족은메누린 또 약사허고. 게난 그디서 지덜대로 다 잘 삽니다.(예. 셋째 며느리도 교사고. 또 작은며느린 또 약사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대로 다 잘 삽니다.)

102015 @ 지금도 헴겟네, 선생을.(지금도 하고 있겠네, 선생을.)

102015 #1 예.(예.)

102015 @ 서울에서예?(서울에서요?)

102015 #1 예.(예.)

102015 @ 약사는 뭐 계속 헐 거고.(약사는 뭐 계속 할 거고.)

102015 #1 게난 우리 손지만도 다른 말 아니라 서울대학교 서이우다.(그러니까 우리 손자만도 다른 말 아니라 서울대학교 셋입니다.)

102015 @ 아.(아.)

102015 #1 이 큰아덜에 손지 서울대학꼬지 나완 약대 간, 저 제약회사 연구관이고, 뚤도 서울교대 나와 가지고 서울서 손지도 선생이고, 또 저 이 말젯아덜, 말젯아덜에 아이덜토 역시 저 그 한양대학교 의대 나와 가지고 허고. 뚜로 저 말젯놈네도 그디 아이덜 저 서울대학교 허난 저 행정고시 합격헷수다.(이 큰아들에 손자 서울대학까지 나와서 약대 가서, 저 제약회사 연구관이고, 딸도 서울교대 나와 가지고 서울서 손자도 선생이고, 또 저 이 셋째 아들, 셋째 아들에 아이들도 역시 저 그 한양대학교 의대 나와 가지고 하고. 따로 저 셋째 아들네도 그디 아이들 저 서울대학교 하니까 저 행정고시 합격했습니다.)

102015 @ 음.(음.)

102015 #1 이제 대학교 아이 나온 건 둘이는 저 인천 영재고등학교 허고 뚜로 대전 영재고등학교 다념수다. 것덜 둘이 희망이 서울대학교우다.(이제 대학교 아니 나온 건 둘은 저 인천 영재고등학교 하고 따로 대전 영재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것들 둘이 희망이 서울대학교입니다.)

102015 @ 아, 영재고?(아, 영재고?)

102015 #1 예.(예.)

102015 @ 거기는 뭐 잘 허는 아이들만 가는 디예.(거기는 뭐 잘 허는 아이들만 가는 데요.)

102015 #1 예게. 학교도 저 기숙사 다 잇고.(예. 학교도 저 기숙사 다 있고.)

102015 @ 기숙사 다 잇고, 맞아.(기숙사 다 잇고, 맞아.)

102015 #1 우리 뚤네도 잘 살아마씸, 저 아덜도 저 칠급, 공무원 칠급에 합격뒈

언 다니고, 뚤 하나 그자 어디고, 충주 간호대학 나와 가지고 간호사헙니다. 족은아덜은 저 우리 저 웨손지 중엔 카이스트 나와 가지고 그디 박사 과정 헴수다.(우리 딸네도 잘 살아요, 저 아들도 저 칠급, 공무원 칠급에 합격되어서 다니고, 딸 하나 그저 어디고, 충주 간호대학 나와 가지고 간호사합니다. 작은아들은 저 우리 저 외손자 중엔 카이스트 나와 가지고 거기 박사 과정 하고 있습니다.)

102015 @ 웨손지믄 뚤에 아덜. 게난 손지가 웨손지영?(외손자면 딸에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외손자랑?)

102015 #1 열 개마씨.(열 개요.)

102015 @ 게 손지가 열인데 성손지는?(그래 손자가 열인데 성손자는?)

102015 #1 게난 뚤에 손지 서이, 아들에 손진 일곱이고.(그러니까 딸에 손자 셋, 아들에 손자는 일곱이고.)

102015 @ 그렇구나, 일곱이네. 게난 각각 둘씩 그러면?(그렇구나, 일곱이네. 그러니까 각각 둘씩 그러면?)

102015 #1 게난 꼭 열입주게. 족은집이 하나, 아이가 하나뿐이난, 뚤렌 서오누이난.(그러니까 꼭 열이지요. 작은집에 하나, 아이가 하아뿐이니까, 딸네는 셋 오누이니까.)

102015 @ 서오누이난 딱 열이구나. 야, 거 참 잘도 맞췃져.(셋 오누이니까 딱 열이구나. 야, 거 잘도 맞췄어.)

102015 #1 게난 일흔 넘은 후젠 농사를 딱 설러불어십주.(그러니까 일흔 넘은 후에 농사를 딱 치워버렸지요.)

102016 @ 게난 이제 십 멧 년 뒈신게예, 예?(그러니까 이제 십 몇 년 되었네요, 예?)

102016 #1 십 멧 년 넘어십주. 십구 년쳅주.(십 몇 년 넘었지요. 십구 년째지.)

102016 @ 십구 년체예?(십구 년째요?)

102016 #1 예.(예.)

102016 @ 게난 그 사이에 농사헤난 건 잘 기억헤지쿠가?(그러니까 그 사이에 농사했던 건 잘 기억할 수 있습니까?)

102016 #1 예게.(예.)

102016 @ 게도 헤난 거난 뭐.(그래도 했던 거니까 뭐.)

102016 #1 게도 나 저 농사허면서 나가 저 보리 다수확상도 받고, 고구마 다수확상도 받고, 저 내무부장관 표창꼬지 받앗수다, 다수확 허연.(그래도 나 저 농사하면서 내가 저 보리 다수확상도 받고, 고구마 다수확상도 받고, 저 내무부장관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다수확 해서.)

102016 @ 농사를 전문적으로 헷구나. 경허난 게 아이들도 영 다 공부시켯주. 게난 밧일은 고구마, 보리, 무시거, 무시거 헷수가? 보난 경운기도 이신게마씨.(농사를 전문적으로 했구나. 그러니까 그래 아이들도 이렇게 다 공부시켰지. 그러니까 밭일은 고구마, 보리, 무엇, 무엇 했습니까? 보니까 경운기도 있네요.)

102016 #1 경운기 저 굴려나건 디가 흔 이십 년 뭼수다마는, 저 우리 밧 버는 사름 저거 그자 거져가.(경운기 저 굴렸던 때가 한 이십 년 되고 있습니다만, 저 우리 밭 버는 사람 저거 그저 가져가.)

102016 @ 음.(음.)

102016 #1 이 우에 밧도 다 놈 헴수다. 요 마당에 잇는 거만 나 헨.(이 위에 밭도 다 남 하고 있습니다. 요 마당에 있는 거만 나 해서.)

102016 @ 아, 아. 옛날에 보리농사, 감제농사 크게 헤낫구나양?(아, 아. 옛날에 보리농사, 고구마농사 크게 했었구나?)

102016 #1 맥주보리 우리 단위 부락에서 질 처음 헤나십주. 전인 그게 술오리헤 나십주게. 겐디 막 꺼럽덴 허연. 겐디 거 맥주보리 헌 것이 수확도 많곡 경제적으로 수익 얻어십주기.(맥주보리 우리 단위 부락에서 젤 처음 했었습지요. 전에는 그게 쌀보리 했습지요. 그런데 아주 껄끄럽다고 해서. 그런데 거 맥주보리 한 것이 수확도 많고 경제적으로 수익 얻었습지요.)

102016 @ 그 저기 ᄀᆞ치 잇단 돌아가신 여자 삼춘님은 ᄀᆞ치 농사헌 거 아니라예?(그 저기 같이 있다가 돌아가신 여자 삼촌님은 같이 농사한 거 아닙니까?)

102016 #1 같이 농사허면서 자랑허는 말 아니우다마는 우리 할망[73]도 저 효도상ᄁᆞ지 받앗수다. 효도상 받고, 교육장상 받고, 또 지사상까지 받앗수다.(같이 농사하면서 자랑하는 말 아닙니다만 우리 '할망'도 저 효도상까지 받았습니다. 효도상 받고, 교육장상 받고, 또 지사상까지 받았습니다.)

102016 @ 게난 부모님을 원래 모셧구나?(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래 모셨구나?)

102016 #1 예. 나 환갑 때ᄁᆞ지 어머님 살앗수다.(예. 나 환갑 때까지 어머님 살았습니다.)

102016 @ 예, 요거는 어디 오래뒌 찬장 닮수다예, 이것도?(예, 요거는 어디 오래된 찬장 같습니다, 이것도?)

102016 #1 예, 저기 이제 저거 춤 오래 이서십주, 언제사 잇어신지.(예, 저기 이제 저거 참 오래 있었지요, 언제야 있었는지.)

102016 @ 요 때도 아마 요거, 요거예, 어디 그?(요 때도 아마 요거, 요거요, 어디 그?)

102016 #1 좋은 것덜은 다 풀아 먹어불고. 아이덜토 줘불고, 풀아 먹어불고. 이거 저 창고에 놘 둥글다가 마치 텔레비전 받침 뭣 헤젠 허난 그것.(좋은 것들은 다 팔아 먹어버리고. 아이들도 줘버리고, 팔아 먹어버리고. 이거 저 창고에 놘 뒹굴다가 마치 텔레비전 받침 뭣 하려고 하니까 그것.)

102016 @ 결혼식 허멍 장만헌 건 아니고, 그 전부떠 잇어난 건 아니우꽈?(결혼식 하면서 장만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까?)

102016 #1 예, 예.(예, 예.)

102016 @ 그 전부떠예, 밧일은?(그 전부터요, 밭일은?)

---

73) '할망'은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부인을 뜻한다.

102016 #1 우리 대림서 다 허렌 헌 대로 다 헤십주기. 이장 오 년 허여, 이 저 목장 조합장 칠 년 허여, 청년회장 허여, 새마을지도자 계속허여, 또 노인회장 팔 년 허여, 읍노인회 부회장, 한림농협도 원로회 창설헤 가지고 원로회장 허멍 문 헷수다.(우리 대림서 다 하라고 한 대로 다 했습지요. 이장 오 년 해, 이 저 목장 조합장 칠 년 해, 청년회장 해, 새마을지도자 계속해, 또 노인회장 팔 년 해, 읍노인회 부회장, 한림농협도 원로회 창설해 가지고 원로회장 하면서 모두 했습니다.)

102016 @ 여기선 대림에선 제일 잘 살아신게마씨, 아이들도 잘 크고, 교육을 잘 시켜신게.(여기서 대림에서는 제일 잘 살았었네요, 아이들도 잘 크고, 교육을 잘 시켰네.)

102016 #1 어떵 어떵 아이덜이 골을 말 잘 들어마씨.(어떻게 어떻게 아이들이 말하는 말을 잘 들어요.)

102016 @ 교육을 잘 시켜서. 중요헌 게 교육을 잘 시키는 거우다게.(교육을 잘 시켰어. 중요한 게 교육을 잘 시키는 것입니다.)

102016 #1 이제도 말 안 헤도 돈 주곡, 어버이날, 셍일 때도 허곡, 어디 잔치 먹으레 가멍오멍 멧십만 원썩 붙여주고, 가믄 주곡. 그걸로 어떵 어떵 살암수다.(이제도 말 안 해도 돈 주고, 어버이날, 생일 때도 하고, 어디 잔치 먹으러 오면가면 몇십만 원씩 붙여주고, 가면 주고. 그걸로 어찌 어찌 살아가고 있습니다.)

3. 밭일

103001 @ 여기 게난 밧일허는 건 어떤 것들이 잇수가?(여기 그러니까 밭일하는 하는 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1 #1 모든 거 다 헙니다. 보리도 갈고, 겨울철엔 보리 재게 갈고 그 그르에는 양배추 하고, 또 부로코리도 허고, 양파, 냉이파 이런 거 허고 그럽니다, 겨울엔.(모든 거 다 합니다. 보리도 갈고, 겨울철엔 보리 재우 갈고 그 보리그루에는 양배추 하고, 또 브로콜리도 하고, 양파, 냉이파 이런 거 하고 그럽니다, 겨울엔.)

103001 @ 옛날에 막 옛날에는 어떤 농사들이 잇어낫수가?(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어떤 농사들이 있었습니까?)

103001 #1 옛날에는 겨울철에는 돈 날 거는 안 허고 보리, 겨울철엔예, 보리도 허고, 보리콩, 이런 것을 좀 허고 밀도 좀 잇고.(옛날에는 겨울철에는 돈 날 거는 안 하고 보리, 겨울철엔요, 보리도 하고, 완두콩, 이런 것을 좀 하고 밀도 좀 있고.)

103001 @ 밀가루, 이 저, 그걸 밀예. 밀ᄀᆞ를, 그 웨에 옛날에도 무슨 마농이나.(밀가루, 이 저, 그걸 밀요. 밀가루, 그 외에 옛날에도 무슨 마늘이나.)

103001 #1 마늘 ᄀᆞ튼 것도 싱것주마는 그 무신 저, 과거에는 그자 자기 자급자족헐 정도만 심엇지, 돈 날 거로 마늘 많이 헤십주. 대개 그자 식량 작물로만 주로 허엿수다, 옛날에는. 지금은 저 양배추도 허고 양파도 허고 뚜로 부로코리라든지 각

종 많이 헙니다.(마늘 같은 것도 심었지만 그 무슨 저, 과거에는 그저 자기 자급자족할 정도만 심었지, 돈 날 거로 마늘 많이 했습지요. 대개 그저 식량 작물로만 주로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저 양배추도 하고 양파도 하고 따로 브로콜리라든지 각종 많이 합니다.)

103001 @ 게난 옛날엔 보리하고.(그러니까 옛날엔 보리하고.)

103001 #1 겨울철엔 밀하고, 또 마늘 조끔 허고.(겨울철엔 밀하고, 또 마늘 조금 하고.)

103001 @ 유채?(유채?)

103001 #1 아, 예, 유채.(아, 예, 유채.)

103001 @ 유채도 허고.(유채도 하고.)

103001 #1 유채도 제일 처음에는, 아주 옛날엔 안 헷수다. 아니 허다가 그게 그 저 군사혁명 난 이후에부떠는 그것을 많이 헷는디 요즘은 ᄒᆞ끔 덜 헴수다.(유채도 제일 처음에는, 아주 옛날엔 안 했습니다. 아니 하다가 그게 그 저 군사혁명 난 이후에부터는 그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

103001 @ 그 그루에는 넬 모리 저 보리 빌 거 아니우꽈예?(그 그루에는 낼 모레 저 보리 벨 거 아닙니까?)

103001 #1 예, 예.(예, 예.)

103001 @ 비어난 그르, 그르에는 무신거 싱거낫수가?(베었던 그루, 그루에는 무엇 심었었습니까?)

103001 #1 아, 유채, 그 저 겨울작물 싱거난 그르에는 조도, 조, 고구마, 콩, 팟, 녹디.(아, 유채, 그 저 겨울작물 심었던 그루에는 조도, 조, 고구마, 콩, 팥, 녹두.)

103001 @ 녹두.(녹두.)

103001 #1 이런 등등 허고, 또 산간으로 올라가며는 산디.(이런 등등 하고, 또 산간으로 올라가면 밭벼.)

103001 @ 산디?(밭벼?)

103001 #1 ᄯᅳ로 ᄆᆞ멀.(따로 메밀)

103001 @ ᄆᆞ멀.(메밀.)

103001 #1 겐디 그 저 보통 보면은 여름에는 그 저 비료 엇일 때난게, 옛날에는, 더러 밧 번해 두엇다가 뿌려낫수다. 비료가 없으면 잘 자리질 아니허니까 번헹 놔뒀다가 검질씨도 더 하곡 또 그 땅이 ᄒᆞ끔 더 부드러워집주게.(그런데 그 저 보통 보면 여름에는 그 저 비료 없을 때니까, 옛날에는, 더러 밭 애벌갈이해 두었다가 뿌렸었습니다. 비료가 없으면 잘 자리질 안 하니까 애벌갈이를 해서 놔뒀다가 김의씨앗도 더 많고 또 그 땅이 조금 ᄒᆞ끔 더 부드러워집니다.)

103001 @ 음.(음.)

103001 #1 또 요즘은 저 바당에서 나오는 해조류, 매우 걱정 헷주마는 그 전에는 사름덜이 부지런헤 가지고 비료 엇곡 귀헐 때니까 집이서 태움도 허고 바닷가에 그런 ᄆᆞᆷ으로 쉴 때가 엇어마씨. 아침 새벽이 강, 바당 쎄어난 것 때문에 것덜 정 왕

밧디 듬 꼴곡.(또 요즘은 저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류, 매우 걱정 했지만 그 전에는 사람들이 부지런해 가지고 비료 없고 귀할 때니까 집에서 태우기도 하고 바닷가에 그런 모자반으로 쉴 때가 없어요. 아침 새벽에 가서 바다 세었던 것 때문에 그것들 져서 와서 밭에 모자반 깔고.)

103001 @ 게난 듬북 ᄀᆞ뜬 거?(그러니까 듬북 같은 거?)

103001 #1 예, 예. 그런 것들 깔면은예, 그 저 보리 혼번만 잘 들어나시민 그 그르에 뚜로 고구마 심어도 잘 뒈고 멘네 심어도 뒈곡, 모두 잘 뒈어낫수다.(예, 예. 그런 것들 깔면은요, 그 저 보리 한번만 잘 들었었으면 그 보리그루에 따로 고구마 심어도 잘 되고 면화 심어도 되고, 모두 잘 됐었습니다.)

103001 @ 음.(음.)

103001 #1 게서, 경 헷는데 지금은 비료가 나 노니까 그런 것을 등한시헤지고 내불어.(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비료가 나 놓으니까 그런 것은 등한시해지고 내버려.)

103001 @ 멘네도 싱거낫구나양?(면화도 심었었구나예?)

103001 #1 예, 멘네.(예, 면화.)

103001 @ 멘네는 언제 파종헤낫수가?(면화는 언제 파종했었습니까?)

103001 #1 멘네는 지금 우리도 많이 헷수다, 멘네는. 멘네 갈면은 멘네 특히 땅을 골립니다. 토지가 원체 비옥헌 땅이나 웨에는 멘네 아이 뒈는 겁주기. 게 가지고 그 저 멘네는 여름에 갑니다. 여름에 헤 가지고 그 저, 가을이 끗나면은 그 그르엔 뚜로 보리 갈고, 멘네 그르에는.(면화는 지금 우리도 많이 했습니다, 면화는. 면화 갈면은 면화 특히 땅을 가립니다. 토지가 원체 비옥한 땅이나 외에는 면화 아니 되는 거지요. 그래 가지고 그 저 면화는 여름에 갑니다. 여름에 해 가지고 그 저, 가을이 끝나면은 그 그루에는 따로 보리 갈고, 면화 그루에는.)

보리농사

103002 @ 음. 멘네그르에도 보리를 갈앗구나. 게난 이제 보리부터 시작헤 보쿠다. 보리농사를 짓젠 허면 그 준비 과정이 어떵 헙니까?(음. 면화 그루에도 보리를 갈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보리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리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그 준비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103002 #1 그 옛날에는 보리 과정을 헐라면은 특히 저 식량자급용으로 보릴 갈앗는디예, 어떤 밧도 막론허고 걸름을 놔야 헙주기. 걸름 안 노면 아이 뒈니까 허고, 소 잇는 집에는 걸음 놔서 허고, 또 통지에 뒈지 질롸가지고 허고, 소에 걸름을 뒈지우리에 것당 노면은 뒈지가 것 먹으면서 뎅이멍 불리고 똥도 싸고 헤 가지고 골고루 불려주곡 허니까 걸음 허는디 그걸 뚜로 퉤비마저도 뒈지 걸름마저도 아껑 헤가지고 좀 힘들주마는 집에서 저 뭐냐 밖에 내논 것을 뚜로 놔서 그레 물 뿌리면서 보리씨 삐엉 막 뻽니다. 삐어가지고 ᄒᆞ끔썩 ᄒᆞ끔썩 ᄐᆞ다 놔 가지고 파종을 허면은 그때는 그 저 비료가 없어도 영 간 보리는 제대로 자라 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

고, 또 그걸 안 헤 가지고 간세흔 사름네가 예를 들면 저 퉤비를 그자 막 산파헤 가지고 헌 디는 얼마 걸질 안 헤 가지고 보리가 ᄒᆞ끔 덜 뒈곡.(그 옛날에는 보리 과정을 하려면은 특히 저 식량자급용으로 보릴 갈았는데요, 어떤 밭도 막론하고 거름을 놔야 하지요. 거름 안 놓으면 아니 되니까 하고, 소 있는 집에는 거름 놔서 하고, 또 돼지우리에 돼지 길러가지고 하고, 소에 거름을 돼지우리에 갖다가 넣으면은 돼지가 먹이 먹으면서 다니면서 밟고 똥도 싸고 해 가지고 골고루 밟아주고 하니까 거름 하는데 그걸 따로 퇴비마저도 돼지거름마저도 아껴서 해 가지고 좀 힘들지만 집에서 저 뭐냐 밖에 내놓은 것을 따로 놔서 거기 물 뿌리면서 보리씨 뿌려서 마구 뿌립니다. 뿌려서 조금씩 조금씩 뜯어 놔 가지고 파종을 하면은 그때는 그 저 비료가 없어도 이렇게 간 보리는 제대로 자라 가지고 수확이 많이 나고, 또 그걸 안 해 가지고 게으른 사람네가 예를 들면 저 퇴비를 그저 마구 산파해 가지고 한 데는 얼마 걸질 않아서 보리가 조금 덜 되고.)

103002 @ 게믄 걸름을 내 가지고 보리씨를 삐고 걸 ᄇᆞᆯ라.(그러면 거름을 내 가지고 보리씨를 뿌리고 걸 밟아.)

103002 #1 예, 막 ᄇᆞᆯ랑 삐어마씨.(예, 마구 밟아서 뿌려요.)

103002 @ 사름이 헹 ᄇᆞᆯ릅니까?(사람이 해서 밟습니까?)

103002 #1 예, 사름이 ᄇᆞᆯ라마씨. 또 많이 허는 디는 소로도 ᄇᆞᆯ리우고.(예, 사람이 밟아요. 또 많이 하는 데는 소로도 밟고.)

103003 @ 소로도 ᄇᆞᆯ리우고. 그걸 어떵 밧더레 가져갑니까?(소로도 밟고. 그걸 어떻게 밭으로 가져갑니까?)

103003 #1 그걸 망텡이에 담아 가지고 전이 그 저, 차라든지 마차로 시꺼 가곡, ᄯᅳ로 사름이 짊어지곡 헹은에 날라삽주게.(그걸 망태기에 담아 가지고 전에 그 저, 차라든지 마차로 실어 가고, 따로 사람이 짊어지고 해서 날라야지요.)

103003 @ 겐 그걸 가져가면은 밧디 강 그냥 뿌립니까, 어떵?(그래서 그걸 가져가면은 밭에 가서 그냥 뿌립니까, 어떻게?)

103003 #1 예, 게난 그걸 하나썩 ᄯᅳᆨᄯᅳᆨᄯᅳᆨ 끊엉 뿌립주기.(예, 그러니까 그걸 하나씩 딱딱딱 끊어서 뿌리지요.)

103003 @ 아, 음. 게믄 이제 하나 뿌리면 한 삼십 센치 강 하나 뿌리곡 허영.(아, 음. 그러면 이제 하나 뿌리면 한 삼십 센티미터 가서 하나 뿌리고 해서.)

103003 #1 경ᄁᆞ지는 안 헤도 그자 그것이 ᄒᆞ끔씩 푸석푸석헤 가면은, 영 영 허믄 골고루 들어갑주. 다 들어갑니다.(그렇게까지는 않아도 그저 그것이 조금씩 푸석푸석해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골고루 들어가지. 다 들어갑니다.)

103003 @ 아, 게믄 ᄒᆞ끔 푸석푸석헌 상태니까 퍼지고, 경 안 허믄 거기만 날 거 닮은디, 뿌린 디만예.(아, 그러면 조금 푸석푸석한 상태니까 퍼지고, 그렇게 안 하면 거기만 날 거 같은데, 뿌린 데만요.)

103003 #1 예, 게난 그추룩 허젠 허믄 인력이 많이 들어도 수확이 많이 납주기. 경헤도 사름덜이 그만큼 얼 먹어십주기.(예, 그러니까 그처럼 하려고 하면 인력이

많이 들어도 수확이 많이 나지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만큼 얼 먹었습지요.)

103003 @ 게난 다 경 헷수가?(그러니까 다 그렇게 했습니까?)

103003 #1 거의 다 경 헤십주기. 겐디 보리.(거의 다 그렇게 했습지요. 그런데 보리.)

103003 @ 씨 삐영은에 그걸 다 허연예.(씨 뿌려서 그걸 다 했어요.)

103003 #1 겐디 것을 그 저, 아까도 이야기헷습니다만 조끔 부지런헌 사름은 경 허고, 경 아니헌 사름은 그냥 내놧다가 밧데 걸음 놀 때는 사름 등으로 지고, 쉐이시끄고 헤 가지고, 쉐에 질메 놩양, 시껑 강은에 밧디 뿌려뒷다가 비가 온다든지 뚜로 저 적기에는 소로 헹 갈아십주.(그런데 그것을 그 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금 부지런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그냥 내놨다가 밭에 거름 놓을 때는 사람 등으로 지고, 소에 싣고 해 가지고, 소에 길마 놓아서요, 실어서 가서 밭에 뿌려뒀다가 비가 온다든지 따로 저 적기에는 소로 해서 갈았습지요.)

103003 @ 걸음 먼저 놓고 나중에 비 온 후에 그 씨를, 보리씨를 뿌려?(거름 먼저 놓고 나중에 비 온 후에 그 씨를, 보리의 씨앗을 뿌려?)

103003 #1 예, 밧디 강, 이제 다 적당한 환경을 놔 가지고 다 뿌립주게. 뿌리면은 뚜로 자기가 밧 갈고 넬은 보리 갈겟다 허면은 오늘 아시날 가 가지고 그걸 걸름을 다 놓는 거라양. 걸름 허대기고 뚜로 역시 저 그 특히 여자들 힘 많이 들어십주. 또 갈아논 끗데는 섬피를 허여마씨. 그레 가지고 그 씨를 감추아 가지고.(예, 밭에 가서, 이제 다 적당한 환경을 놔 가지고 다 뿌리지요. 뿌리면은 따로 자기가 밭 갈고 낼은 보리 갈겠다 하면은 오늘 전날 가 가지고 그걸 거름을 다 놓는 거야. 거름 흐트러뜨려서 따로 역시 저 그 특히 여자들 힘 많이 들었습지요. 또 갈아놓은 끝에는 끙게를 해요. 그래 가지고 그 씨를 감추어 가지고.)

103003 @ 게믄 저기 그건 일단 걸음 놓고, 먼저 걸음 먼저 놓고, 그다음에 밧을 갈고?(그러면 저기 그건 일단 거름 놓고, 먼저 거름 먼저 놓고, 그다음에 밭을 갈고?)

103003 #1 예.(예.)

103003 @ 그다음에 씨를 뿌리고?(그다음에 씨를 뿌리고?)

103003 #1 예.(예.)

103003 @ 그거는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잇고, 그냥 바로 걸음 내엉 씨 삐엉, 그 걸름에 씨 삐엉은에 강 뿌리는 경우도 잇고.(그거는 이제 최근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바로 거름 내어서 씨 뿌려서, 그 거름에 씨 뿌려서 가서 뿌리는 경우도 있고.)

103003 #1 예.(예.)

103003 @ 게믄 어떤 게 제일 많아낫수가?(그러면 어떤 게 제일 많았었습니까?)

103003 #1 겐 보편적으로는 그 저 그대로 강 산파허는 것이 많앗수다.(그래서 보편적으로는 그 저 그대로 가서 산파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103003 @ 음.(음.)

103003 #1 겐 우리 밧이 열 개라면 열 개 다 가서 그렇게 찌엉 허젠 허믄 힘이 들고, 또 허기가 상당히 어려웁주게. 어려우니까 어떤 밧에는 좀 내놧당 그추룩 큰 밧에는 ᄀᆞ튼 밧이라도 강 뿌리곡, 그추룩 걸음에 놔서 허여 가고, 뚜로 그추룩 아니헌 디는 이 밧쯤은 조금 비옥헌 땅이니까 경 안 헤도 뒈겟지 허여 가지고, 그냥 걸름 시꺼당 놩 뿌려 놔 가지고, 그레 또 쉐로 밧 갈고 씨 뿌려 가지고, 뚜로 섬피질 허멍 싱것고.(그래서 우리 밭이 열 개라면 열 개 다 가서 그렇게 찌어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지요. 어려우니까 어떤 밭에는 좀 내놨다가 그처럼 큰 밭에는 같은 밭이라고 가서 뿌리고, 그처럼 거름에 놔서 해 가고, 따로 그처럼 않은 데는 이 밭쯤은 조금 비옥한 땅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 하여 가지고, 그냥 거름 실어다가 놔서 뿌려 놔 가지고, 그곳으로 또 소로 밭 갈고 씨 뿌려 가지고, 따로 끙게질 하면서 심었고.)

103003 @ 음.(음.)

103003 #1 뚜로 일제 말엽부터 어떤 거는 생산을 장려허기 위헤 가지고 쪼금 개량으로양, 골보리[74]라고 허여 가지고, 저 그 씨 뿌려 가지고 고량에 씨 뿌령 쭉 갈아 놧다가 이월달쯤 뒈면은 그걸 골 갈라 가지고 그걸 그레 흑 더꺼버리고예. 이러면 보리가 더 잘 뒈어나십주.(따로 일제 말엽부터 어떤 거는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개량으로요, '골보리'라고 하여 가지고, 저 그 씨 뿌려 가지고 고랑에 씨 뿌려서 쭉 갈아 놨다가 이월쯤 되면은 그걸 골 갈라 가지고 그걸 그곳으로 흙 덮어버리고요. 이러면 보리가 잘 되었었습지요.)

103003 @ 아, 이월달에 흑을 더꺼예?(아, 이월에 흙을 덮어요?)

103003 #1 예, 골 갈아 가지고.(예, 골 갈아 가지고.)

103003 @ 골 갈아 가지고예. 골에 뿌려 가지고.(골 갈아 가지고요. 골에 뿌려 가지고.)

103003 #1 예, 이월 하순부떤.(예, 이월 하순부터는.)

103003 @ 그건 무사 이월달에 흑을 더꺼신고예?(그건 왜 이월에 흙을 덮었노?)

103003 #1 아, 그건, 겨울에 보리가 자라나가지고, 자라게 뒈어야 갑주. 그추룩 안 헨에 겨울러레 간다든지 허면은 그것이 묻어져버령 자라도 아니허곡, 또 늦엉 갈면은 뚜로 헤롭곡, 거니깐.(아, 그건, 겨울에 보리가 자라서, 자라게 돼야 갈지. 그처럼 안 해서 겨울로 간다든지 하면은 그것이 묻어져 버려서 자라지도 않고, 또 늦어서 갈면은 또 해롭고, 거니깐.)

103003 @ 아, 음.(아, 음.)

103003 #1 절기를 따라 가지고, 대충 이월에 보리 올려나십주.(절기를 따라 가지고, 대충 이월에 보리 올렸었습지요.)

103003 @ 양력 이월?(양력 이월?)

103003 #1 예.(예.)

103004 @ 음, 양력 이월에예. 게난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갈아낫수가?(음,

74) '골보리'는 보리 파종법 중 줄뿌림의 다른 말이다.

양력 이월에요. 그러니까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게 갈았었습니까?)

103004 #1 보리는 보통 십일월 초순부떠, 시월 하순부떠 십일월 초순ᄁᆞ지 보통 보리 갈앗수다.(보리는 보통 십일월 초순부터, 시월 하순부터, 십일월 초순까지 보통 보리갈았습니다.)

103004 @ 절기로 치면?(절기로 치면?)

103004 #1 예?(예?)

103004 @ 절기로 보면?(절기로 보면?)

103004 #1 예, 절기로 보면 그러니까 십이월 하순 뒈면 동지 전에 갈아가지고 보리가 동지 전에 난 것은 더 잘 뒈곡, 경 아니허믄 늦으면은 또 덜 뒈곡, 경 헷수다, 뭐.(예, 절기로 보면 그러니까 십이월 하순 되면 동지 전에 갈아가지고 보리가 동지 전에 난 것은 더 잘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늦으면은 또 덜 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3004 @ 그렇게 갈고.(그렇게 갈고.)

103004 #1 또 그 유채는 ᄀᆞᆺ 해방 직전ᄁᆞ지 일제시대는 유채들을 얼마 아이 갈앗수다. 식량감으로 보리만 갈고 허다가, 그것도 역시 유채 갈기 시작헌 것도 그 저 군사혁명 이후에 그 유채덜을 많이 갈아낫는데 보리보다, 건 웨 그런고 허면 그건 식량 작물이 아니고 저 돈을 받기 위헤 가지고 풀앙 돈 받고 헷수다, 유채 갈앙.(또 그 유채는 이제 해방 직전까지 일제 강점기는 유채들을 얼마 아니 갈았습니다. 식량감으로 보리만 갈고 하다가, 그것도 역시 유채 갈기 시작한 것도 그 저 군사혁명 이후에 그 유채들을 많이 갈았었는데 보리보다, 건 왜 그런고 하면 그건 식량 작물이 아니고 저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팔아서 돈 받고 했습니다, 유채 갈아서.)

103004 @ 음, 유채는예.(음, 유채는요.)

103004 #1 겨울엔 그거 허고 그 그르에는 일단 번허기 위해서 다음 곡석 갈기 위헤서 다 갈아야, 갈아뒷다가 여름, 여름 농사를 허기 위헤서, 여름 농사는 언제쯤 들어가느냐 허면은 그 저 유월달에 들어갑니다. 유월달에 들어가고.(겨울엔 그거하고 그 그루에는 일단 애벌갈이하기 위해서 다음 곡식 갈기 위해서 다 갈아야, 갈아뒀다가 여름, 여름 농사를 하기 위해서, 여름 농사는 언제쯤 들어가느냐 하면은 그 저 유월에 들어갑니다. 유월에 들어가고.)

103004 @ 유월절에예?(유월절에요?)

103004 #1 예, 고구마도 오월 하순부떠, 미릇 오월 하순부떠는 고구마는 ᄒᆞ끔이라도 미릇 싱거야 또 잘 뭰다고 헙니다. 그레가지고 그때 갈고. 또 역시 ᄀᆞᆺ 보리 그르 나면은 뭐 좋은 밧디는 멘네를 갈아십주기. 멘네 갈단 것이 그 일제시대 말엽이라든지 해방 직후 이런 좋은 나이롱 옷이라든지 아이 나올 때에 멘네를 갈앗지, 그 다음부떠는 이런 옷 기지 ᄀᆞ뜬 거 많이 날 때는, 나기 시작허니까 멘네를 아이 갈앗수다.(예, 고구마도 오월 하순부터, 미리 오월 하순부터는 고구마는 조금이라도 미리 심어야 또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갈고. 또 역시 이제 보리 그루 나면은 뭐 좋은 밭에는 면화를 갈았습지요. 면화 갈다가 그것이 그 일제 강점기 말엽이라든지 해방 직후 이런 좋은 나일론 옷이라든지 안 나올 때 면화를 갈았지, 그다음

부터는 이런 옷 옷감 같은 거 많이 날 때는, 나기 시작하니까 면화를 안 갈았습니다.)

103004 @ 게난 이 동넨 멘네 간 거는 다 옷 멘들젠 멘네 간 거우꽈?(그러니까 이 동넨 면화 간 거는 옷 만들려고 면화 간 거입니까?)

103004 #1 예, 예. 그레가지고.(예, 예. 그래서.)

103004 @ 이불도 허고예?(이불도 하고요?)

103004 #1 예, 예. 이불도 허고, 저 옷 만드는데, 그때 뒈면 여자들이 특히 더 힘들어나십주기. 걸 저 멘네가 막 한에 언제쯤 뒈느냐 허면은 그게 팔월달 뒈면은 꼿이 피어 가지고 소게 생깁주게. 그것을 아침 세벡이 가 가지고 다 따당 널엉, 저 촐왓디 갓다 와 가지고, 촐왓디 갓다 와 가지고 밤인 그걸 다 깝니다. 깡은에 뚜로 좀 누엇다가 뚜로 뒷날 아침 세벡이 촐왓디 가곡, 이렇게 햇는디, 그렇다고 헤 가지고 멘네는 메날 따는 건 아닙주게. 흔 사나흘에 흔 번썩이라도 따고.(예, 예. 이불도 하고, 저 옷 만드는데, 그때 되면 여자들이 특히 더 힘들었었습지요. 걸 저 면화가 아주 많아서 언제쯤 되느냐 하면은 그게 팔월 되면은 꽃이 피어 가지고 솜 생깁지요. 그것을 아침 새벽에 가 가지고 다 따다가 널어서, 저 꼴밭에 갔다 와 가지고, 꼴밭에 갔다 와 가지고 밤엔 그걸 다 깝니다. 또 좀 누었다가 또 뒷날 아침 새벽에 꼴밭에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면화는 맨날 따는 건 아니지요. 한 사나흘에 한 번씩이라도 따고.)

103004 @ 게난 건 보리 그르에 갈앙?(그러니까 건 보리 그루에 갈아서?)

103004 #1 보리 그르에도 갈고, 번헤영도 갈고.(보리 그루에도 갈고, 애벌갈이해서도 갈고.)

103005 @ 번헤영도 갈고. 이 보리씨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우꽈? 두 가지.(애벌갈이해서도 갈고. 이 보리씨 뿌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까? 두 가지.)

103005 #1 예, 산파허고 조파[75] 그겁주. 산파는 막 싹싹 뿌렁 내버리는 거고.(예, 산파하고 조파 그거지. 산파는 마구 싹싹 뿌려서 내버리는 거고.)

103005 @ 손으로예?(손으로요?)

103005 #1 골보리옌 헌 것은 고량에만 뿌리는 거고, 고량에만 뿌려도 그게 골을 갈면은 더 보리가 수확이 더 많아집주.('골보리'라고 한 것은 고랑에만 뿌리는 거고, 고랑에만 뿌려도 그게 골을 갈면은 더 보리가 수확이 더 많아지지.)

103005 @ 골에만 뿌리는 거하고, 그냥 싹싹 뿌리는 거허고?(골에만 뿌리는 것하고, 그냥 싹싹 뿌리는 것하고?)

103005 #1 예, 예.(예, 예.)

103005 @ 걸음에 서껑 뿌리는 거는?(거름에 섞어서 뿌리는 거는?)

103005 #1 걸음에 뿌리는 것은 일일이 아까도 이야기헷주만 그거는 쪼끔썩 ᄐᆞ다 노멍 뿌리는 거고예.(거름에 뿌리는 것은 일일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조금씩 뜯어 놓으면서 뿌리는 거고요.)

---

75) '조파'는 '골파'라고도 하는데 고랑에 씨를 파종하는 방법이다.

103005 @ 게믄?(그러면?)

103005 #1 힘이 더 들듭주기.(힘이 더 들지요.)

103005 @ 게믄 세 가지 방법이네예?(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네요?)

103005 #1 예, 예.(예, 예.)

103005 @ 그렇구나예.(그렇구나.)

103005 #1 그래서 허고, 또 나중에 비료 나옴 시작허니까 비료가 자유 판매됨 시작허난 그 저 그렇게 보리를 걸음에 찌엉 가는 보리는 읏어십주게.(그래서 하고, 또 나중에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까 비료가 자유 판매되기 시작하니까 그 저 그렇게 보리를 거름에 쪄서 가는 보리는 없었습지요.)

103005 @ 비료가 나온 후에는 걸음에 서껑 뿌리는 거는 엇어지고.(비료가 나온 후에는 거름에 섞어서 뿌리는 거는 없어지고.)

103005 #1 없어지고.(없어지고.)

103006 @ 게난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잇수가?(그러니까 보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06 #1 맥주보리하고 쏠보리허고 겉보리라고 혜 가지고 잇는데, 대맥, 과맥, 소맥, 맥주맥 이렇게.(맥주보리하고 쌀보리하고 겉보리하고 해 가지고 있는데, 대맥, 과맥, 맥주맥 이렇게.)

103006 @ 대맥은 뭐렌 헷수가?(대맥은 뭐라고 했습니까?)

103006 #1 대맥은 것도 이디선 겉보리라고 허는디, 겉보리라고 허고, 또 과맥은 쏠보리고, 또 저 맥주보리는 저 맥주회사용으로 들어가는 보리라고.(대맥은 것도 여기선 겉보리라고 하는데, 겉보리라고 하고, 또 과맥은 쌀보리고, 또 저 맥주보리는 저 맥주회사용으로 들어가는 보리라고.)

103006 @ 맥주맥예, 맥주맥?(맥주맥요, 맥주맥?)

103006 #1 소맥은 ᄀᆞ를 내어 가지고 여기서 제사떡이라든지, 떡을 혜 먹는다든지, ᄌᆞ베기를 혜 먹는다든지, 이렇게 허는디 많이 쓰는데, 그 생산량이 소맥은 제주 토양에는 잘 맞질 아니허여마씨, 보리만이 수확이 적읍주게.(소맥은 가루를 내어 가지고 여기서 제사떡이라든지, 떡을 해 먹는다든지, 수제비를 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많이 쓰는데, 그 생산량이 소맥은 제주 토양에는 잘 맞질 않아요, 보리만큼 수확이 적습지요.)

103006 @ 아, 제주 땅에 잘 안 맞는구나예?(아, 제주 땅에 잘 안 맞는구나예?

103006 #1 예, 그레가지고 허니까 거의가 보리가, 소맥은 자기 제사 때라든지 쓰기 위혜 가지고 소맥을 혜나십주.(예, 그래서 하니까 거의 보리가, 소맥은 자기 제사 때라든지 쓰기 위해 가지고 소맥을 했었습지요.)

103006 @ 게난 떡 만드는디?(그러니까 떡 만드는데?)

103006 #1 예, 떡 만드는디.(예, 떡 만드는데.)

103006 @ 음, 떡 만드는데. 그 쏠보리도 종류가 잇지 안 헙니까?(음, 떡 만드는데. 그 쌀보리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03006 #1 쏠보리는 대개 종류라고는 품종이 다른 것이 엇수다. 그냥 쌀보리, 대맥, 맥주맥, 소맥 이렇게 네 가지로.(쌀보리는 대개 종류라고는 품종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쌀보리, 대맥, 맥주맥, 소맥 이렇게 네 가지로.)

103006 @ 과맥, 소맥. 과맥은 아까.(과맥, 소맥. 과맥은 아까.)

103006 #1 쏠보립주.(쌀보리지.)

103006 @ 그게 쌀보리고, 겉보리가 대맥이고?(그게 쌀보리고, 겉보리가 대맥이고?)

103006 #1 예, 소맥은 그 저.(예, 소맥은 그 저.)

103006 @ 품종이 따로 잇는 건 아니고?(품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103006 #1 품종이 그 저 우선 과맥, 쏠보리에서는 품종이 두세 가지랏수다.(품종이 그 저 우선 과맥, 쌀보리에서는 품종이 두세 가지였습니다.)

103006 @ 과맥이?(과맥이?)

103006 #1 예, 낭 잘나는 거허고, 낭 ᄇᆞ뜬 낭.(예, 나무 잘나는 거하고, 나무 짧은 나무.)

103006 @ 낭 긴 거?(나무 긴 거?)

103006 #1 예.(예.)

103006 @ 낭 ᄌᆞ른 거허고, 낭 ᄇᆞ뜬 거예?(나무 짧은 거하고, 나무 짧은 거요?)

103006 #1 예.(예.)

103006 @ 낭 ᄇᆞ뜬 거허고, 낭 진 거?(나무 짧은 거하고, 나무 긴 거?)

103006 #1 예.(예.)

103006 @ 그걸 이름은 뭐렌 헷수가?(그걸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103006 #1 게난 그자 낭 난 거, 낭 ᄇᆞ뜬 거.(그러니까 그저 나무 잘난 거, 나무 짧은 거.)

103006 @ 낭 ᄇᆞ뜬 거, 낭 진 거?(나무 짧은 거, 나무 긴 거?)

103006 #1 예, 경헌디 그건 어떻게 허냐면은 낭 ᄇᆞ뜬 것은 ᄒᆞ끔 비옥헌 땅에 갈고, 낭 진 것은 쪼끔 게도 좋지 아이헌 밧디 갈아 놓고 허는디, 그렇지 아니허면, 걸음 아이 주곡 허민 낭 ᄇᆞ뜬 것쯤은 밧디 강 보믄 비어질 것이 엇입주기, 잘나지 아니 허영.(예,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나무 짧은 것은 조금 비옥한 땅에 갈고, 나무 긴 것은 조금 그래도 좋지 않은 밭에 갈아 놓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거름 안 주고 하면 나무 짧은 것쯤은 밭에 가서 보면 베어질 것이 없습지요, 잘나지 안 해서.)

103006 @ 수확이 잘 안 나는구나예? 수확이 많이 나는 건 낭 진 거?(수확이 잘 안 나는구나예? 수확이 많이 나는 건 나무 긴 거?)

103006 #1 낭 진 것이 ᄒᆞ끔 더 낫수다, 예.(나무 긴 것이 조금 더 났습니다, 예.)

103006 @ 그 웨에 맥주보리도 뭐 품종이 잇거나 허진 안 헷수가?(그 외에 맥주보리도 뭐 품종이 있거나 하지는 안 했습니까?)

103006 #1 예, 이게 비료가 난 끗데는 농부 일덜이 상당 한걸헤져십주기, 수확

도 하영 나고, 또 저 몸도 펜안허고. 수확을 많이 나가니까, 맥주보리, 아 그 저 비료난 끗데는 걸름덜을 등한시헤십주게. 과거엔 그 걸름 허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걸음 아니 노면 농사 아이뒐 거니까 벡 프로 씨 뿌리면 아이 뒐 거니까, 난 저 길가에 소똥이나 물똥이나 다 주워와마씨.(예, 이게 비료가 난 끝에는 농부 일들이 상당히 한가해졌습지요, 수확도 많이 나고, 또 저 몸도 편안하고. 수확을 많이 나가니까, 맥주보리, 아 그 저 비료난 끝에는 거름들을 등한시했습지요. 과거엔 그 거름 하는 게 상당히 힘이 들어서, 거름 안 놓으면 농사 아니 될 거니까 백 퍼센트 씨 뿌리면 아니 될 거니까, 난 저 길가에 소똥이나 말똥이나 다 주워와요.)

103006 @ 음.(음.)

103006 #1 우선 저 겨울에 굴묵[76] 때기 위헤 가지고 난로용으로도 좀 이용헷주마는 거의 다 밧디 갖당 퉤비용으로 써십주기.(우선 저 겨울에 '굴묵' 때기 위해 가지고 난로용으로도 좀 이용했지만 거의 다 밭에 갖다가 퇴비용으로 썼습지요.)

103006 @ 퉤비용으로?(퇴비용으로?)

103006 #1 예.(예.)

103006 @ 맥주보리하고 쏠보리는 그 이렇게 고고리가 달린 게 그 무슨 저기 알멩이가?(맥주보리하고 쌀보리는 그 이렇게 이삭이 달린 게 그 무슨 저기 알맹이가?)

103006 #1 예, 맥주보리는 두 줄로 나갑니다, 저 알멩이가. 두 줄로만 자라 가지고 허영. 고고리에 두 줄로 허고, 또 쌀보리는 넉 줄로 나가고예.(예, 맥주보리는 두 줄로 나갑니다, 저 알맹이가. 두 줄로만 자라 가지고 해서. 이삭에 두 줄로 하고, 쌀보리는 넉 줄로 나가고요.)

103006 @ 넉 줄로 허영, 게믄 쏠보리가 알멩이 많겟다예?(넉 줄로 해서, 그러면 쌀보리가 알맹이 많겠어요?)

103006 #1 예.(예.)

103006 @ 게믄 수확량도 쏠보리가 수확량이 더 많아마씨?(그러면 수확량도 쌀보리가 수확량이 더 많아요?)

103006 #1 수확량이 그 저 비슷비슷헙니다, 맥주보리는 쪼끔 놎은 땅에도 뒈고, 좋은 땅에 갈면 더 좋고. 또 저 쏠보리는 놎은 땅에 갈면 비료 엇고 허민 그때는 비어불 것이 엇어마씨, 좋지 아니헹.(수확량이 그 저 비슷비슷합니다, 맥주보리는 조금 낮은 땅에도 되고, 좋은 땅에 갈면 더 좋고. 또 저 쌀보리는 낮은 땅에 갈면 비료 없고 하면 그때는 베어버릴 것이 없어요, 좋지 안 해서.)

103006 @ 좋지 아니헹예?(좋지 안 해서요?)

103006 #1 예.(예.)

103007 @ 그 보리밧도 겨울에 밟아십주예?(그 보리밭도 겨울에 밟았습지요?)

103007 #1 보리밧 밟앗는디 그게 전이는 그 일제시대에는, 일제 말엽에는 학교 학생들도 동원시켜낫수다. 거 생산 늘리기 위헤서, 거 일본놈덜 그걸 먹고 살젠 허

7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니까 그걸 붋앗는디, 지금도 이 헤벤 땅에는 아이 붋아도 뒈주마는 조끔 고지대던지 한걸헌 디 올라간 디 가면 그걸 불라야 확실이 그 보리가 옴아져마씨. 보리가 옴아지고 수확도 하영 나고. 여기는 크게 붋는 것이 대림 땅은 춤 상당히 비옥헙주게양, 그 붋는 것이 크게 신경 쓰질 안 헤낫수다.(보리밭 밟았는데 그게 전에는 그 일제시대에는, 일제 말엽에는 학교 학생들도 동원시켰었습니다. 그거 생산 늘리기 위해서, 거 일본놈들 그걸 먹고 살려고 하니까 그걸 밟았는데, 지금도 이 해변 땅에는 아니 밟아도 되지만 조금 고지대든지 한가한 데 올라간 데 가면 그걸 밟아야 확실히 그 보리가 여물어요. 보리가 여물어서 수확도 많이 나고. 여기는 크게 밟는 것이 대림 땅은 참 상당히 비옥하지요, 그 밟는 것이 크게 신경 쓰질 않았었습니다.)

103007 @ 게난 거 사람이 불라마씨?(그러니까 그거 사람이 밟아요?)

103007 #1 예, 거 사름으로 불라마씨.(예, 그거 사람으로 밟아요.)

103007 @ 소나 말로 불르진 안 하고마씨?(소나 말로 밟진 않고요?)

103007 #1 소나 말로는 안 불르고예.(소나 말로는 안 밟고요.)

103007 @ 아, 말로는 안 불리고?(아, 말로는 안 밟고?)

103007 #1 예.(예.)

103007 @ 사람이 불랑?(사람이 밟아서?)

103007 #1 예.(예.)

103007 @ 사람이 거 멧 월달쯤 불라낫수가?(사람이 거 몇 월쯤 밟았었습니까?)

103007 #1 저 이월, 정이월에 헙니다.(저 이월 정이월에 합니다.)

103007 @ 음.(음.)

103007 #1 일월, 이월 초싱에.(일월, 이월 초승에.)

103007 @ 사름이 불르멍 노래도 허곡 헤낫수가?(사람이 밟으면서 노래도 하고 했었습니까?)

103007 #1 노래멍 말멍 거 붋는다는 게 특히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붋아주는 게 그게 좋아가지고 허는 건디, 그 질ᄀᆞᆺ 밧디 ᄀᆞ뜬 이런 밧은 아이덜 스스로가 연 놀린다든지 헤 가지고 불려주고.(노래면서 말면서 거 밟는다는 게 특히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밟아주는 게 그게 좋아서 하는 것인데, 그 길가 밭 같은 이런 밭은 아이들 스스로가 연 날린다든지 해 가지고 밟아주고.)

103007 @ 아, 그 밧 안에서 연 놀령?(아, 그 밭 안에서 연 날려서?)

103007 #1 예, 예. 그렇게 헤 가지고 불리믄 주인도 좋아허곡 밧도 좋곡 허주마는, 그 웨에는 그 시간적인 뭣을 기회가 엇고 허니까 그저 아이 불라도 뒈긴 헙니다.(예,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밟으면 주인도 좋아하고 밭도 좋고 하지만, 그 외에는 그 시간적인 뭣을 기회가 없고 하니까 그저 아니 밟아도 되기는 합니다.)

103007 @ 아, 아이덜이 연 놀리멍도 밧을 불랏구나?(아, 아이들이 연 날리면서도 밭을 밟았구나?)

103007 #1 그렇게 불린 디는 ᄒᆞ쏠 보리가 여물어마씨.(그렇게 밟은 데는 조금

보리가 여물어요.)

103008 @ 게믄 저기 검질은 멧 번 멥니까?(그러면 저기 김은 몇 번 맵니까?)

103008 #1 아, 검질은 두 번 멥니다마는, 두 번 멥니다만 혼 번도 보통이라마씨.(아, 김은 두 번 맵니다만, 두 번 맵니다만 한 번도 보통이에요.)

103008 @ 게 어느 때서부터 검질메기 시작헙니까?(그럼 어느 때서부터 김매기 시작합니까?)

103008 #1 일월달에 멥니다.(일월에 맵니다.)

103008 @ 일월달에 혼 번 메고, 그다음에 또?(일월에 한 번 매고, 그다음에 또?)

103008 #1 또 그때 저게 그 오월달에는 저기 우에 대우리 ᄀᆞ튼 거라든지 이런 걸 멥니다.(또 그때 저게 그 오월에는 저기 위에 귀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맵니다.)

103008 @ 자랏을 때?(자랐을 때?)

103008 #1 네, 아덜, 아덜 헤 가지고 하나썩 난 걸 다 뽑읍니다.(네, 아들, 아들 해 가지고 하나씩 난 걸 다 뽑습니다.)

103008 @ 게난 그때는 대우리 말고도 다른 검질도 이십니까?(그러니까 그때는 귀리 말고도 다른 김도 있습니까?)

103008 #1 예, 자란 것들은 우터레 올라오민 뽑주마는, 대개가 보리 안네는 대우리가 주로 많이 나십주게.(예, 자란 것들은 위로 올라오면 뽑지만, 대개가 보리 안에는 귀리가 주로 많이 났습지요.)

103008 @ 음, 대우리가 제일 많이, 게믄 저 처음 검질멜 때는 어떤 검질을 메엇수가?(음, 귀리가 제일 많이, 그러면 저 처음 김맬 때는 어떤 김을 매었습니까?)

103008 #1 처음은 그 ᄀᆞᆺ 보리 나면은, 갈면은 여자덜이 한걸치 안 헌게, 그 가을 풀이 보리왓디 사락사락 놔둔 것덜, 그걸로 벌레기 친다고 헙니다게. 그걸 하나씩 손으로 심엉 뽑곡, 그거 뽑아놓고 그때는 다음은 일월달에는 일일이 고지 잡앙 앚앙 검질들을 멧수다.(처음은 그 이제 보리 나면은, 갈면 여자들이 한가하지 않은게, 그 가을 풀이 보리밭에 사락사락 놔둔 것들, 그걸로 풀포기 친다고 합니다. 그걸 하나씩 손으로 잡아서 뽑고, 그거 뽑아놓고 그때는 다음은 일월에는 일일이 고지 잡아서 앉아서 김들을 매었습니다.)

103009 @ 보리 갈앙 검질멜 때 그 검질 종류는 아까 대우리 말앙은 어떤 것들이, 검질 종류가?(보리 갈아서 김맬 때 그 김 종류는 아까 귀리 말고는 어떤 것들이, 김 종류가?)

103009 #1 그 저, 진풀이엔 허영 진풀.(그 저, 별꽃이라고 해서 별꽃.)

103009 @ 진풀?(별꽃?)

103009 #1 진풀이라고 헤 가지고 지금도 많이 납니다마는, 진풀, ᄀᆞ시락쿨 이렇게 헤난.(별꽃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도 많이 납니다만, 별꽃, ‘ᄀᆞ시락쿨’ 이렇게 했었어.)

103009 @ ᄀᆞ시락쿨?(‘ᄀᆞ시락쿨’?)

103009 #1 예, 질어 가지고 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가 거 저, 요즘은 지금도 진풀이렌 불릅니다만, 그거 낭 그거허고.(예, 길어 가지고 긴다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거 저, 요즘은 지금도 별꽃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거 나서 그거하고.)

103009 @ 그거는 보리허고 구분이 잘 뒙니까?(그거는 보리하고 구분이 잘 됩니까?)

103009 #1 예, 지금도 우리 눌굽[77]에도 그거 낭 헙니다게.(예, 지금도 우리 ‘눌굽’에도 그거 나서 합니다.)

103009 @ 진풀, 아니 진쿨?(별꽃, 아니 별꽃?)

103009 #1 진풀.(별꽃.)

103009 #1 진풀, ᄀᆞ시락쿨?(별꽃, ‘ᄀᆞ시락쿨’?)

103009 @ 예, ᄀᆞ시락쿨은 또 어떵 셍긴 거우꽈?(예, ‘ᄀᆞ시락쿨’은 또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103009 #1 ᄀᆞ시락쿨은 진풀보다 ᄒᆞ끔 저 그 뭣헤마씸. 질게 벋질 아니헹 이 진풀이엔 헌 건, 풀이 안 나면서라도 제게 안 메어불믄 막 발 벋으면서.(‘ᄀᆞ시락쿨’은 별꽃보다 조금 저 그 뭐해요. 길게 벋질 안 해서 별꽃이라고 한 건, 풀이 안 나면서라도 재우 안 매어버리면 마구 발 벋으면서.)

103009 @ 아, 땅으로 발 벋어가는 거?(아, 땅으로 발 벋어가는 거?)

103009 #1 예, 땅으로 발 벋으멍 우이 거 줄기도 막 번어붑주게.(예, 땅으로 발 벋으면서 거 줄기도 마구 번어버리지요.)

103009 @ 그다음에 그 ᄀᆞ시락쿨은?(그다음에 그 ‘ᄀᆞ시락쿨’은?)

103009 #1 ᄀᆞ시락쿨은 경 아이헤도 뒈고마씨. 또 그 어떤 밧디는 그 저 오월달에 강 보민 감부기.(‘ᄀᆞ시락쿨’은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또 그 어떤 밭에는 그 저 오월에 가서 보면 깜부기.)

103009 @ 감부기?(깜부기?)

103009 #1 예, 건 어떠냐면은 보리가 제대로 자라질 못 허여 가지고, 그 보리가 여물어야 할 건디, 그때 그 거멍케 저 보리 고고리ᄀᆞ치 감부기가 익읍니다.(예, 어떠냐면 보리가 제대로 자라질 못 해 가지고, 그 보리가 여물어야 할 것인데, 그때 그 검게 저 보리 이삭같이 깜부기가 익습니다.)

103009 @ 건 보리 아니고?(건 보리 아니고?)

103009 #1 예, 예. 보릿대에서라도 건 막 그건 불량품이라고 헐까, 병신닮은 것덜.(예, 예. 보릿대에서라도 건 아주 그건 불량품이라고 할까, 병신같은 것들.)

103009 @ 돌연변이구나예?(돌연변이구나예?)

103009 #1 예, 예.(예, 예.)

103010 @ 아, 아, 감부기. 그러면 이제 그 수확은 유월절에예?(아, 아, 깜부기, 그러면 이제 그 수확은 유월절에요?)

---

77)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103010 #1 예.(예.)

103010 @ 수확을 헐 땐 어떵 수확을 헷수가?(수확을 할 땐 어떻게 수확을 했습니까?)

103010 #1 제일, 옛날 그대로 과거에는 손으로 다 일일이 손으로 비고, 뚜로 그것에 무꺼가지고 집이 왕 또 기계에 놔서 인력으로 걸 홀틉니다. 홀타가지고 것은 보리 홀타아논 끗데 도리깨로 실을 수도 싯곡, 물방에 강 미끈허게 골아가지고 쉐, 물로 불라가지고 장만허기도 허고.(제일, 옛날 그대로 과거에는 손으로 다 일일이 손으로 베고, 또 그것에 묶어서 집에 와서 또 기계에 놔서 인력으로 그걸 홅습니다. 홅어서 홅어놓은 끝에 도리깨로 실을 수도 있고, 연자매 가서 미끈하게 갈아서 소, 말로 밟아서 장만하기도 하고.)

103010 @ 게니까 호미로 비엉은에 무껑, 무껑 걸.(그러니까 낫으로 베어서 묶어서, 묶어서 걸.)

103010 #1 집이 뚜로.(집에 또.)

103010 @ 어떵 날라와마씨?(어떻게 날라와요?)

103010 #1 쉐에 시끄곡 사름 등으로 졍 날르고.(소에 싣고 사람 등으로 져서 나르고.)

103010 @ 쉐에 시끌 때는 거 얼마나씩 시꺼낫수가?(소에 실을 때는 거 얼마만큼씩 실었었습니까?)

103010 #1 시끄는 건 쉐에 따라 가지고 뚜납주마는, 쉐에 따라 뚜나고 보리뭇에 따랑 뚜납니다게. 그저 보리를 족게 시끄면은 저 으라 번 시끄고.(싣는 건 소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소에 따라 다르고, 보리뭇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저 보리를 적게 실으면은 저 여러 번 싣고.)

103010 @ 보리뭇을 족게 무끄믄 으라 단 시끄고.(보리뭇을 적게 묶으면 여러 단 싣고.)

103010 #1 예, 경 크게 무끄믄 허는디, 그 전이 그 보리 무생이, 찝 무생이 무끄는 정도면 건 첨 열 단 시끄고, 건 어떤 말이냐 허면 보리, 보릴 비어 가지고 그 보리낭, 그 보리 부뜬 양 그걸로 보릴 무끄면은 단 작아지는 것이고, 건 옛날 그렇게 뒀고, 뚜로 오래어가니까 그 뭐냐, 시장에 보리 무생이를, 끈을 풀앗수다.(예, 그렇게 크게 묶으면 하는데, 그 전에 그 보리 매끼, 짚 매끼 묶는 정도면 건 참 열 단 싣고, 건 어떤 말이냐 하면 보리, 보리를 베어 가지고 그 보릿짚, 그 보리 붙은 대로 그걸로 보리를 묶으면은 단 작아지는 것이고, 건 옛날 그렇게 됐고, 또 오래돼가니까 그 뭐냐, 시장에 보리 매끼를, 끈을 팔았습니다.)

103010 @ 맞아, 맞아.(맞아, 맞아.)

103010 #1 그건 근래 아주 육이오사변, 아 저, 뭐냐 이 새마을운동 허기 전에 풀앗고, 그 저, 그 이후에는 시장이서 끈을 풀민 그 끈을 사당 무꺼낫수다.(그건 근래 아주 육이오사변, 아 저, 뭐냐 이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팔았고, 그 저, 그 이후에는 시장에서 끈을 팔면 그 끈을 사다가 묶었었습니다.)

103010 @ 게난 그건 크겟네예? 보리로 무끌 때는 보리뭇이 족앗고, 끈으로 무끌 때는 보리뭇이 크고?(그러니까 그건 크겠네요? 보리로 묶을 때는 보리뭇이 작았고, 끈으로 묶을 때는 보리뭇이 크고?)

103010 #1 예.(예.)

103010 @ 근데 게믄 그 전에 보리로 무끌 때는 멧 뭇을?(그런데 그러면 그 전에 보리로 묶을 때는 몇 뭇을?)

103010 #1 막 줄아십주게.(아주 잘았습지요.)

103010 @ 소에 실어낫수가?(소에 실었었습니까?)

103010 #1 거 혼이 엇입니다.(거 한이 없습니다.)

103010 @ 혼이 엇어?(한이 없어?)

103010 #1 예.(예.)

103010 @ 혼 바리, 이런 말?(한 바리, 이런 말?)

103010 #1 혼 바리는, 저 촐은 혼 바리 헹, 저 마흔 뭇 시끄믄 혼 바리라고 헷주마는.(한 바리는, 저 꼴은 한 바리 해서, 저 마흔 뭇 실으면 한 바리라고 했지만.)

103010 @ 아, 마흔 뭇을 혼 바리렌?(아, 마흔 뭇을 바리라고?)

103010 #1 예, 우리 대림리는 마흔 뭇씩 혼 바리렌 허고, 뚠 디는 뚜로 중산간ᄀᆞ뜬 디는 쉰 뭇씩 혼 바리렌 헙니다.(예, 우리 대림리는 마흔 뭇씩 한 바리라고 하고, 다른 데는 중산간같은 데는 쉰 뭇씩 한 바리라고 합니다.)

103010 @ 촐 쉰 뭇을 혼 바리렌 허여예?(꼴 쉰 뭇을 한 바리라고 해요?)

103010 #1 예.(예.)

103010 @ 게난 그걸 혼 바리가 마흔 뭇?(그러니까 그걸 한 바리가 마흔 뭇?)

103010 #1 예.(예.)

103010 @ 그건 보리로 무꺼부난 족은 거난 그거구나.(그건 보리로 묶어버리니까 작은 거니까 그거구나.)

103010 #1 예.(예.)

103010 @ 게믄 크게 무끌 때는 혼 바리가?(그러면 크게 묶을 때는 한 바리가?)

103010 #1 예, 여러 뭇 시끄질 못헙주기.(예, 여러 뭇 싣질 못하지요.)

103011 @ 게난 그거는 딱 정헤진 건 엇고예? 경 헹 보리를 무껑 시꺼 와서, 집에 왕은에?(그러니까 그거는 딱 정해진 건 없고요? 그렇게 해서 보리를 묶어서 와서, 집에 와서?)

103011 #1 홀탕.(홅아서.)

103011 @ 게난 집에 왕은에 눌엇당, 아니믄 그냥 놔뒷당 홀트는 거우꽈?(그러니까 집에 와서 쌓았다가,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홅는 것입니까?)

103011 #1 아니, 대개 일기 봐 가면서 눌에다 눕니다.(아니, 대개 일기 봐 가면서 가리에다 쌓습니다.)

103011 @ 눌엉예.(쌓아서요.)

103011 #1 예, 눌어두엇다가 그 아침 새벡부터 매날 양쪽에 사름 앚져 가지고

허고, 흔 사름은 훌트곡 허면, 이거 또 이디 것들 받앙 영, 홀트는 것도 받앙 영, 막 홀트곡 허면은, 그럴 때는 시 사름이 필요허곡 허는디, 또 정 안 ᄒᆞ믄 흔 두 사름만 홀 때는, 그 저 둘이만 ᄒᆞ믄 인력이 부대낍주.(예, 쌓아뒀다가 그 아침 새벽부터 맨 날 양쪽에 사람 앉혀 가지고 하고, 한 사람은 홅고 하면, 이거 또 여기 것들 받아서 이렇게, 홅는 것도 받아서 이렇게, 마구 홅고 하면은, 그럴 때는 세 사람이 필요하고 하는데, 또 저렇게 안 하면 한 두 사람만 할 때는, 그 저 둘이만 하면 인력이 부대끼지.)

103011 @ 예, 보리 홀트는 건 뭐렌 헷수가?(예, 보리 홅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103011 #1 보리클[78].('보리클'.)

103011 @ 보리클은 그자 한 가지?('보리클'은 그저 한 가지?)

103011 #1 아니, 두 가지라낫수다. 영 쌀이 진 건디, 쌀이 진 건 흔 쌀 하나가 흔 열댓 개 뒈어 가지고 허민 그걸, 그걸 니 발, 그것에 네 발이 잇어마씀. 네 발은 그 꽂아논 거만이 좀 높읍주게. 네 발 허면은 사 등분 헤 가지고 헙니다.(아니, 두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쌀이 긴 건데, 쌀이 긴 건 한 쌀 하나가 한 열댓 개 되어 가지고 하면 그걸, 그걸 네 발, 그것에 네 발이 있어요. 네 발은 그 꽂아놓은 거만큼 좀 높습지요. 네 발 하면은 사 등분 해 가지고 합니다.)

103011 @ 게난 그거는 클이 보리 종류에 따랑 다른 클이 잇수가?(그러니까 그거는 틀이 보리 종류에 따라서 다른 틀이 잇습니까?)

103011 #1 예, 그거 두 가집니다. 맥주보리 홀트는 것은 쌀이 막 좀질아야 뒈고, ᄯᅳ로 술보리 ᄀᆞ뜬 건 또 간격도 벌어지고 헤십주기.(예, 그거 두 가집니다. 맥주보리 홅는 것은 살이 아주 가늘어야 되고, 또 쌀보리 같은 건 또 간격도 벌어지고 했습지요.)

103011 @ 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리 홀튼 다음에는?(아, 그렇구나. 그러면 보리 홅은 다음에는?)

103011 #1 보리 홀튼 다음에는 도리깨로 장만허는 디도 싯고, 또 그렇지 안 허믄 쉐, 물로 불랑은에, 불령 부수는 수도 싯고.(보리 홅은 다음에는 도리깨로 장만하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소, 말로 밟아서, 밟아서 부수는 수도 있고.)

103011 @ 게믄 그걸 보리 불랑 체영 걸러내어?(그러면 그걸 보리 밟아서 겨랑 걸러내어?)

103011 #1 예, 예. 경 막 불라지면은 사름으로 불린 거나 ᄯᅳ로 쉐로 불린 거나 도께로 불린 거나 메와 가지고 ᄇᆞ름 부는 디 강 다 불립주기게. 건 그렇게 허면서 상당히 힘들어십주. 게다가 저게 해방 이후에는 ᄯᅳ로 멕타기라고 헤 가지고 기계가 나와서 기계에서 그걸 저 장만헤주곡 불려주곡 헤낫수다. 겐디 그것도 역시 그건 끗 통에 멕타기고, 그것도 역시 나중에는 ᄯᅳ로 더 발달뒈니까 기계가 스스로 알아 가지고 ᄯᅳ로 역시 밧디 돌아다니면서 그자 무껑 놔두믄 다 밧디서 장만헤주고.(예,

78) '보리클'은 보리를 훑는데 쓰는 농기구이다.

예. 그렇게 마구 밟아지면은 사람으로 밟은 거나 또 소로 밟은 거나 도리깨로 밟은 거나 매워 가지고 바람 부는 데 가서 다 불리지요. 건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지요. 그러다가 저게 해방 이후에는 또 탈곡기라 해 가지고 기계가 나와서 기계에서 그걸 저 장만해주고 불려주고 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건 끝 통에 탈곡기고, 그것도 역시 나중에는 또 더 발달되니까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또 역시 밭에 돌아다니면서 그저 묶어서 놔두면 다 밭에서 장만해주고.)

103011 @ 요즘에는 다 밧디서 장만허영 나오는 거 아니우꽈?(요즘에는 다 밭에서 장만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103011 #1 예, 요즘은 아무 일헐 필요엇이 장만헤지믄 그자 보릿대는 보릿대대로 나와불곡 쌀만 뚜로, 정말 할 일이 엇입주기.(예, 요즘은 아무 일할 필요없이 장만해지면 그저 보릿대는 보릿대대로 나와버리고 쌀만 따로, 정말 할 일이 없습지요.)

103012 @ 그거는 나중에 방엣간에만 강 도정헤불믄 뒈는 거, 그거는 요즘 아주 편한 방법이고, 그때, 그 전에는 그걸 홀트곡 걸 볼리왕은에 불령은에, 불린 다음에는?(그거는 나중에 방앗간에만 가서 도정해버리면 되는 거, 그거는 요즘 아주 편한 방법이고, 그때 그 전에는 그걸 홅고 걸 밟아서 드려서, 드린 다음에는?)

103012 #1 불린 다음에는 ᄀᆞ시락 날려불면 저 멩텡이에 담아뒀다가 자기 먹을 만썩 강은에 그저 공장에 강 까까오곡, 뚜로 그 공장이 나기 전에는 ᄆᆞᆯ방엣간에 가 가지고 쉐로 그저 ᄆᆞᆯ방에에서 짛곡 헤십주.(드린 다음에는 까끄라기 날려버리면 저 망태기에 담아뒀다가 자기 먹을 만큼씩 가서 깎아오고 또 그 공장이 나기 전에는 연자매에 가 가지고 소로 그저 연자매에서 찧고 했습지요.)

103012 @ 게난 ᄆᆞᆯ방에 강 쉐로 짛곡 헐 때는 어떤 식으로 헤낫수가?(그러니까 연자매 가서 소로 찧고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103012 #1 짛고는 ᄆᆞᆯ방에에 가 가지고, 저 보리를 ᄒᆞᆫ 너댓 망텡이를 그레 비와 가지고 쉐 메우고 그저 물도 ᄒᆞ끔썩 뿌리멍 빙빙빙 돌아가믄 ᄆᆞᆯ로 돌아가믄 그것이 짛어집주게.(찧고는 연자매에 가 가지고 저 보리를 한 너댓 망태기를 그리 부어 가지고 소 메우고 그저 물도 조금씩 뿌리면서 빙빙빙 돌아가면 그것이 찧어지지요.)

103012 @ 게믄 그거는 ᄒᆞᆫ 번만 허는 건 아니지 안허꽈?(그러면 그거는 한 번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03012 #1 예.(예.)

103012 @ 거를 물 적셩은에 그 쉐가 멧 번 돌아가면?(거를 물 적셔서 그 소가 몇 번 돌아가면?)

103012 #1 그거를 멧 시간썩 돌아갑니다.(그거를 몇 시간씩 돌아갑니다.)

103012 @ 게믄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헹 헙니까?(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합니까?)

103012 #1 걸 쉐로 막 짛으면, 그걸 보면은 건즘 보리가 다 쏠이 낫구나 허민 그걸 중단헙주게.(걸 소로 마구 찧으면, 그걸 보면은 거의 보리가 다 쌀이 났구나

하면 그걸 중단하지요.)

103012 @ 중단헹.(중단해서.)

103012 #1 예, 예.(예, 예.)

103012 @ 게믄 그 그거를 쏠이 나오면, 그 나머지는 뭐렌 헴수가?(그러면 그 그거를 쌀이 나오면, 그 나머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03012 #1 쏠 나믄 저 망텡이에 담앙 그걸 불려 가지고 허면은 나머진 ᄀᆞ시락허고 푼뎅이엔 헤서.(쌀 나면 저 망태기에 담아서 그걸 드려 가지고 하면은 나머진 까끄라기하고 쭉정이라고 했어.)

103012 @ 푼뎅이?(쭉정이?)

103012 #1 예, 푼뎅이 ᄯᅳ로 나십주.(예, 쭉정이 또 났습지요.)

103012 @ 푼뎅이? 게믄 ᄀᆞ시락이나 푼뎅이는 데껴불고?(쭉정이? 그러면 까끄라기나 쭉정이는 던져버리고?)

103012 #1 아니, ᄀᆞ시락광 푼뎅이는 겨울에 저 굴묵 때엇수다.(아니, 까끄라기와 쭉정이는 겨울에 저 '굴묵' 때었습니다.)

103012 @ 그것도 굴묵 때고, 쏠 나오는 거 찌끄레기덜은, 그 찌끄레기 잘 구분이 뒙니까?(그것도 굴묵 때고, 쌀 나오는 거 찌꺼기들은, 그 찌꺼기 잘 구분이 됩니까?)

103012 #1 예.(예.)

103012 @ 그래서 쏠 나온 거는, 이제 쏠 나온 거는 밥헹 먹어도 뒈는 쏠이네.(그래서 쌀 나온 거는, 이제 쌀 나온 거는 밥해서 먹어도 되는 쌀이네.)

103012 #1 예게.(예.)

103012 @ ᄀᆞ레에 ᄀᆞᆯ지도 안 허고?(맷돌에 갈지도 안 하고?)

103012 #1 아니, 걸 ᄯᅳ로 장만헹 왕 그걸 ᄯᅳ로 저 그 집에서 밥을 헹 먹젠 허믄 ᄯᅳ로 보리쏠을 ᄀᆞᆯ아마씸, 저 ᄀᆞ레에. ᄀᆞᆯ앙 먹으는디 그걸 ᄯᅳ로 역시 저 근래는 ᄯᅳ로 저 근래가 아니고 흔 칠십년대 이후에는 방엣 공장 기계에 가 가지고 다 지엉 오면은 걸.(아니, 걸 또 장만해서 와서 그걸 또 저 그 집에서 밥을 해서 먹으려고 하면 또 보리쌀을 갈아요, 저 맷돌에. 갈아서 먹는데 그걸 또 역시 저 근래는 또 저 근래가 아니고 한 칠십년대 이후에는 방아 공장 기계에 가 가지고 다 지어서 오면은 걸.)

103012 @ 도정허는 거고예. 게난 그 ᄀᆞ레 ᄀᆞᆯ 때는 쏠이 막 뿌서지기도 허곡 막 허지 안헐 건가마씨.(도정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맷돌 갈 때는 쌀이 마구 부서지기도 하고 마구 하지 않을 건가요.)

103012 #1 예, 첨, 부서집주게. 부서지믄 ᄀᆞ를 ᄯᅳ로 쏠 ᄯᅳ로, ᄯᅳ로 저 거 뭣고? 막 줌진, 줌질게 나온 건, 아, 좀 이시민 튼나지쿠다마는, 아, 줌쏠[79], 줌쏠. 줌쏠 허영 나오면은 줌쏠ᄀᆞ뜬 거는 죽도 쒕 먹고예.(예, 참, 부서지지요. 부서지면 가루를 따로 쌀 따로, 또 저 거 뭣고? 아주 잔, 잘게 나온 건, 아, 좀 있으면 생각나겠습니

79) '줌쏠'은 잘게 부서진 보리쌀 따위이다.

다만, 아, ‘즘쏠’, ‘즘쏠’. ‘즘쏠’ 해서 나오면은 ‘즘쏠’같은 거는 죽도 쒀서 먹고요.)

103012 @ 게믄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뒈는구나예?(그러면 그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103012 #1 예.(예.)

103013 @ 밥혜 먹는 쏠하고, 즘쏠 나오고 그다음에 ᄀᆞ루, ᄀᆞ루는 또 뭐 헷수가?(밥해 먹는 쌀하고, ‘즘쏠’ 나오고 그다음에 가루, 가루는 또 뭐 했습니까?)

103013 #1 ᄀᆞ를 ᄀᆞ튼 것은 대개 그 저 막 어려울 때나 먹엇지, 그 ᄀᆞ를은 대개 그 저 뒈지 사료 ᄀᆞ뜬 거로.(가루 같은 것은 대개 그 저 아주 어려울 때나 먹었지, 그 가루는 대개 그 저 돼지 사료 같은 거로.)

103013 @ 음, 뒈지 사료로예. 음, 보리쌀.(음, 돼지 사료로요. 음, 보리쌀.)

103013 #1 집집마다 뒈지 질루는 원인도 퉤비 셔 노난에. 뚜로 어떤 집엔 큰일이나 허젠 허민 사료가 없이 체만 멕영 허니까 뒈지가 크지 아니허영 혼 잔치를 헌다든지 소상을 허게 뒈면 일 년 이상 걸립주게.(집집마다 돼지 기르는 원인도 퇴비 있어 놓으니까. 또 어떤 집엔 큰일이나 하려고 하면 사료가 없이 겨만 먹여서 하니까 돼지가 크지 안 해서 한 잔치를 한다든지 소상을 하게 되면 일 년 이상 걸리지요.)

103013 @ 일 년 이상예?(일 년 이상요?)

103013 #1 예.(예.)

103013 @ 게난 보리쏠로 경 헹 먹고, 보리쏠을 가지고 밥만 헤 먹는 건 아니고, 아까 보난 떡도 허고 허는디, 다른 거 또 뭐, 보리쏠로 허는 거 뭐 잇수가?(그러니까 보리쌀로 그렇게 해서 먹고, 보리쌀을 가지고 밥만 해서 먹는 건 아니고, 아까 보니까 떡도 하고 하는데, 다른 거 또 뭐, 보리쌀로 하는 거 뭐 잇습니까?)

103013 #1 보리쏠로 대개 주종이 먹는 음식으로 헤십주기. 떡 같은 것도 허는디, 건 대개 그 저 보리떡이라고 허고 삼메떡[80], 이런 것을 허는디.(보리쌀로 대개 주종이 먹는 음식으로 했습지요, 떡 같은 것도 하는데, 건 대개 그 저 보리떡이라고 하고 ‘삼메떡’, 이런 것을 하는데.)

103013 @ 삼메?(삼메?)

103013 #1 삼메떡이라고 헤 저 밀ᄀᆞ루ᄀᆞ치 떡 나오면 거 뭐 빵 종릅주기.(‘삼메떡’이라고 해 저 밀가루같이 떡 나오면 거 뭐 빵 종류지요.)

103013 @ 상웨, 상웨떡이렌도 안 헙니까?(‘상웨’, ‘상웨떡’이라고도 안 합니까?)

103013 #1 삼메떡, 삼메떡.(‘삼메떡’, ‘삼메떡’.)

103013 @ 삼메떡이렌 허연예. 그거는 어떻게 셍긴 거우꽈?(‘삼메떡’이라고 했어. 그거는 어떻게 생긴 거입니까?)

103013 #1 그건 저 집에서 기주라고 헤 가지고, 누룩 놔 가지고 누룩 ᄀᆞ를 놩은에 그 ᄀᆞ루에 헹 찌면은 발효뒈면은 요만큼썩 멘들아논 게 큽주게. 게믄 그걸 저.

80) ‘삼메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이다. ‘상웨떡’이라고도 한다.

(그건 저 집에서 기주라고 해 가지고, 누룩 넣어 가지고 누룩 가루를 넣어서 그 가루에 해서 찌면은 발효되면 요만큼씩 만들어놓은 게 크지요. 그러면 그걸 저.)

103013 @ 게난 요즘 보리빵 닮은 건가마씨?(그러니까 요즘 보리빵 같은 건가요.)

103013 #1 예, 예.(예, 예.)

103013 @ 요즘 보리빵 닮은 거, 그런 게 잇엇고, 아, 그러면 쏠로 밥헹 먹고, 떡은 그런 거 허는 거고, 다른 떡도 뭐 만들아난 거 잇수가? 보리로.(요즘 보리빵 같은 거, 그런 게 있었고, 아, 그러면 쌀로 밥해서 먹고, 떡은 그런 거 하는 거고, 다른 떡도 뭐 만들었던 거 있습니까? 보리로.)

103013 #1 보리로는, 그거, 그런 정도라십주기.(보리로는, 그거, 그런 정도였지요.)

103013 @ 음, 보리로 떡 만드는 건예.(음, 보리로 떡 만드는 건요.)

103013 #1 허곡 그 일반 떡은.(하고 그 일반 떡은.)

103013 @ 게믄 그 저 보리로 떡을 만들고, 또.(그러면 그 저 보리로 떡을 만들고, 또.)

103013 #1 보리낭은 땔감으로 쓰고.(보릿짚은 땔감으로 쓰고.)

103013 @ 보리로, 보리쏠로 허는 거는, 개역도 보리쏠로?(보리로, 보리쌀로 하는 거는, 미숫가루도 보리쌀로?)

103013 #1 예, 개역은 보통 오월 장마에 많이 헙니다. 거 웨 그러냐 허면은 날이 좋은 때는 밧디 강 일헐 따문에 비가 오곡 영 허면은 개역을 허는디 그 개역도 집에서 보리 큰 솟두껭이에 놔 가지고 불로 보깡 걸 젓이면서 보까가지고 것도 뚜로.(예, 미숫가루는 보통 오월 장마에 많이 합니다. 거 왜 그러냐 하면은 날이 좋은 때는 밭에 가서 일할 때문에 비가 오고 이렇게 하면은 미숫가루를 하는데 그 미숫가루도 집에서 보리 큰 솥뚜껑에 놔 가지고 불로 볶아서 걸 저으면서 볶아서 것도 따로.)

103013 @ 솟두껑에?(솥뚜껑에?)

103013 #1 예.(예.)

103013 @ 솟두껑에 그걸 젓이면서.(솥뚜껑에 그걸 저으면서.)

103013 #1 예, 그걸 젓이면서 보까 놩 그걸 뚜로 ᄀᆞ레에 ᄀᆞᆯ면은 그 저 개역이 뭽주게. 게믄 그것이 개역 뒈는 거마씨.(예, 그걸 저으면서 볶아 놔서 맷돌에 갈면은 그 저 미숫가루가 되지요. 그러면 그것이 미숫가루 되는 거요.)

103013 @ 그디 뭐 서끄진 안 허고?(거기 뭐 섞지는 안 하고?)

103013 #1 뭐 서끄지 아이 헷수다.(뭐 섞지 안 했습니다.)

103013 @ 사카린이나 뭐?(사카린이나 뭐?)

103013 #1 아, 그건, 근래 해방 이후라든지 저, 사까링이라든지 그 저, 대개 사까링입주. 사까링 서껑 허믄 맛이 좁주기. 옛날엔 사까링이란 건 엇어십주기.(아, 그건, 근래 해방 이후라든지 그 저, 대개 사카린이지. 사카린 섞어서 하면 맛이 좋지

요. 옛날에는 사카린이란 건 없었습지요.)

103013 @ 아 게난, 보리를 보깡 ᄀᆞ를 멘들앙 개역.(아 그러니까, 보리를 볶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미숫가루.)

103013 #1 예.(예.)

103013 @ 게난 개역도 만들앙 먹고, 또 뭐 보리로 헤 먹는 건, 다른 건 뭐 엇수가?(그러니까 미숫가루도 만들어서 먹고, 또 뭐 보리로 해 먹는 건, 다른 건 뭐 없습니까?)

103013 #1 보리로 헤 먹는 건 대개 그런 겁니다.(보리로 해 먹는 건 대개 그런 겁니다.)

103014 @ 음, 보리낭은?(음, 보릿짚은?)

103014 #1 보리낭은 거 보통 땔감으로 많이 썻수다. 땔감으로도 쓰고 쉐 조름에라든지 넣고 그건 쉐똥 싸니까 좀 그 저 거름도 허젠 놓곡, 헤 가지고 허고 게난 그.(보릿짚은 거 보통 땔감으로 많이 썼습니다. 땔감으로도 쓰고 소 꽁무니에라든지 넣고 그건 소똥 싸니까 좀 그 저 거름도 하려고 넣고, 해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그.)

103014 @ 보리낭을 넣는 이유는 거름도 허지만 그 저 질퍽허지 않게 허젠.(보릿짚을 넣는 이유는 거름도 하지만 그 저 질퍽하지 않게 하려고.)

103014 #1 예, 예. 게곡 ᄃᆞ로 저 집이서도 소나무라든지 나무 헹 오면 거의 다 땔감으로 보리낭을 담앙 쎠십주기.(예, 예. 그리고 또 저 집에서도 소나무라든지 나무 해서 오면 거의 다 땔감으로 보릿짚을 담아서 썼습지요.)

103014 @ 보리낭으로 불솜을 때는 거 밥헐 때도 다 보리낭으로 불솜앗수가?(보릿짚으로 불땔 때는 거 밥할 때도 다 보릿짚으로 불때었습니까?)

103014 #1 예, 예.(예, 예.)

103014 @ 보리낭으로?(보릿짚으로?)

103014 #1 예.(예.)

103014 @ 보리낭 금방 확확 타 불 거 닮은디예?(보릿짚 금방 확확 타 버릴 거 같은데요?)

103014 #1 활활 타난 게, 물 겆다 놩 튿아앉아사 헙주게.(활활 타니까 게, 물 갖다 놔서 붙어앉아야 하지요.)

103014 @ 물을?(물을?)

103014 #1 물을 겆당 정지에 놩.(물을 갖다가 부엌에 놔서.)

103014 @ 정지에 놩은에 거기서.(부엌에 놔서 거기서.)

103014 #1 ᄒᆞ끔썩 ᄒᆞ끔썩 물을 짓읍주.(조금씩 조금씩 물을 뿌리지.)

103014 @ 밥 ᄒᆞᆫ 번 짓젠 허믄 얼마나 들어갑니까?(밥 한 번 지으려고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103014 #1 그것도 양을 얼마라고 뭘 못헤마씨.(그것도 양을 얼마라고 뭘 못해요.)

103014 @ 혼을 못허여.(한을 못해.)

103014 #1 예. 건 그자 밥 그자 궤면은 불을 재게, 달게 솜아두고. 궨 끗데는 조금썩 끄집어내영 허고. 겡 어디 나가게 뒈면 꼭 불을 끼와사, 게 아니믄 큰일 나. 이 부억에 솟 앚인 디 허곡 그 ᄌᆞᆺ더렌 막 짇을케가 하영 이십주기. 웨 그런고 허면 날 우친 때라든지 뭐 헤 먹젠 허믄 그걸 꼭 보릿대를 많이 놔십주기. 게고 쪼끔 생이왓[81] 이신 사름덜은 자기 소낭 ᄀᆞ뜬 거 잇는 디서 솔잎 ᄀᆞ뜬 거 허영 오면은 보릿대를 덜 헤 가지고 넣지만은 경 못헌 사름은 다 보릿대로 땔감을 삼아십주기. (예. 건 그저 밥 그저 끓이면 불을 재우, 닳게 때어두고. 끓인 끝에는 조금씩 끄집어내어서 하고. 그렇게 어디 나가게 되면 꼭 불을 꺼야, 그렇게 아니면 큰일 나. 이 부엌에 솥 앉힌 데 하고 그 옆으로 아주 땔감이 많이 있습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날이 비가 올 때라든지 뭐 해 먹으려고 하면 그걸 꼭 보릿대를 많이 놨습지요. 그리고 조금 '생이왓'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나무 같은 거 있는 데서 솔잎 같은 거 해서 오면은 보릿대를 덜 해 가지고 넣지만은 그렇게 못한 사람은 다 보릿대로 땔감을 삼았습지요.)

103014 @ 솔잎도 헤당 땔감허고, 보리낭으로도 땔감허고, 보리낭으로 땔감을 많이 헷구나예?(솔잎도 해다가 땔감하고, 보릿짚으로도 땔감하고, 보릿짚으로 땔감을 많이 했구나?)

103014 #1 예.(예.)

103014 @ 게난 보리는 홀타난 다음에 무껑, 눌엉 놔뒀수가?(그러니까 보리는 훑어난 다음에 묶어서, 쌓아서 놔뒀습니까?)

103014 #1 거의 다 집이 오민 다 눌읍니다.(거의 다 집에 오면 다 쌓습니다.)

103014 @ 거 저 눌어가지고예?(거 저 쌓아서요?)

103014 #1 예. 족게 헌 사름은 혼 발만 허고, 소농에 대헤서는 그자 그 마당에영 돌아가멍 밋밋 보리낭 놔뒷다가 그냥 바로 홀틀 때도 싯고, 또 많이 헌 사름은 꼭 왕 눌어야마씨.(예. 적게 한 사람은 한 발만 하고, 소농에 대해서는 그저 그 마당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밋밋 보릿짚 놔뒀다가 그냥 바로 훑을 때도 있고, 또 많이 한 사람은 꼭 와서 쌓아야.)

103014 @ 눌을 때는 위에 ᄂᆞ람지[82]도 더끄곡, ᄂᆞ람지는 뭘로 만들앗수가?(쌓을 때는 위에 'ᄂᆞ람지'도 덮고, 'ᄂᆞ람지'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103014 #1 ᄂᆞ람지는 저 억새, 그 새라고 허는.(ᄂᆞ람지'는 저 억새, 그 띠라고 하는.)

103014 @ 새로 허는 거?(띠로 하는 거?)

103014 #1 예, 새로 헤 가지고 엮어뒷다가 놔두면.(예, 띠로 해 가지고 엮어뒀다가 놔두면.)

103014 @ 그다음에 우리가 보리로, 아까 보리낭허고, 보리쏠 멘드는 과정에서

81) '생이왓'은 나무가 심어진 조그만 임야를 말하는 것 같다.
82)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나오는 그 보리체렌 헙니까?(그다음에 우리가 보리로, 아까 보릿짚하고, 보리쌀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보릿겨라고 합니까?)

103014 #1 예, 보리체.(예, 보릿겨.)

103014 @ 보리체는 뒈지도 멕이고?(보릿겨는 돼지도 먹이고?)

103014 #1 예.(예.)

103014 @ 뒈지 멕이고예, 보리체는?(돼지 먹이고요, 보릿겨는?)

103014 #1 예.(예.)

103014 @ 그다음에 즘쏠은 죽 헹 먹기도 허고. 보리체가 보리까끄라기?(그다음에 '즘쏠'은 죽 해서 먹기도 하고. 보릿겨가 보리까끄라기?)

103014 #1 아, 까끄라기는 ᄀᆞ시락이라고 헤 가지고.(아, 까끄라기는 'ᄀᆞ시락'이라고 해 가지고.)

103014 @ 아, ᄀᆞ시락.(아, 까끄라기.)

103014 #1 그건 저 겨울에 부억, 방 따시게 허기 위헤 가지고 굴묵 짇엇수다.(그건 저 겨울에 부엌, 방 따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굴묵' 때었습니다.)

103014 @ 보리ᄀᆞ시락은 모앙 놔뒷당 굴묵 짇고.(보리까끄라기는 모아서 놔뒀다가 '굴묵' 때고.)

103014 #1그거 땔 때, 땔 때 아래 불살르고.(그거 땔 때, 땔 때 아래 불사르고.)

103014 @ 게난 ᄀᆞ시락은 언제 그 ᄀᆞ시락이 나오는 거우꽈? 보리 홀틀 때는 ᄀᆞ시락이?(그러니까 까끄라기는 언제 그 까끄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보리 홅을 때는 까끄라기가?)

103014 #1 보리 홀틀 땐 아이 나고, 장만헐 때 납니다.(보리 홅을 땐 아니 나고, 장만할 때 납니다.

103014 @ 보리 붋을 때?(보리 밟을 때?)

103014 #1 저 도리깨로 장만헐 때.(저 도리깨로 장만할 때.)

103014 @ 도리깨로 장만허단에 거를 불렁 나온 게 ᄀᆞ시락예?(도리깨로 장만하다가 거를 드려서 나온 게 까끄라기요?)

103014 #1 예.(예.)

103014 @ 그때 ᄀᆞ시락이 나오는구나.(그때 까끄라기가 나오는구나.)

103014 #1 예. 멕타기라든지 기계 나온 끗데는 ᄀᆞ시락허고 쏠허고 보리낭허고 다 분리뒈엉 나오니까 건 뭐 아주 그자 먹깁주게.(예. 탈곡기라든지 기계 나온 끝에는 까끄라기하고 쌀하고 보릿짚하고 다 분리되어서 나오니까 건 뭐 아주 그저 먹기지요.)

103014 @ 게난 멕타기는 언제부터 나와신고예?(그러니까 탈곡기는 언제부터 나왔는가요?)

103014 #1 멕타기는 우리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나왓다고 볼 수 이십주.(탈곡기는 우리 알기로는 해방 이후에 나왔다고 볼 수 있습지요.)

103014 @ 아, 그때부터 기계가 나왓수가?(아, 그때부터 기계가 나왔습니까?)

103014 #1 예. 해방 이후에도 당년엔 아이 나와서마씨. 혼 이삼년 후에. 겐디 그것이 우리 대림도 질 처음 아이 나왓다가 그 요디 저 방엣공장 신○○이네 집에, 거기서 정미소를 허난 그디 강 일일이 홀타논 보리를, 보리 고고리 채 담앙 그디 강 열 지엉 사둠서꼬지 다 장만헤나십주기. 경 헤낫다가 그게 이제 ᄎᆞᄎᆞᄎᆞ 혼 해썩 더해 가니까 돌아뎅이멍 왕 장만을 헤십주기.(예. 해방 이후에도 당년엔 아니 나왔어요. 한 이삼년 후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림리도 젤 처음 아니 나왔다가 그 요기 저 방아공장 신○○이네 집에, 거기서 정미소를 하니까 거기 가서 일일이 훑어 놓은 보리를, 보리 이삭 채 담아서 거기 가서 열 지어서 서둠서까지 다 장만했습지요. 그렇게 했었다가 그게 이제 차차차 한 해씩 더해 가니까 돌아다니면서 와서 장만을 했습지요.)

103014 @ 음.(음.)

103014 #1 초릇통에는 혼 부락에 ᄒᆞ나 시나마나 헤십주기, 그 보리 장만허는 멕타기가.(처음에는 한 부락에 하나 있으나마나 했습지요, 그 보리 장만하는 탈곡기가.)

103014 @ 게난 멕타기 이실 때부터 정미소도 셍기고?(그러니까 탈곡기 있을 때부터 정미소도 생기고?)

103014 #1 정미소 잇어난 끗데 멕타기가 셍겻수다.(정미소 있었던 끝에 탈곡기가 생겼습니다.)

103014 @ 아, 정미소가 먼저 셍기고?(아, 정미소가 먼저 생기고?)

103014 #1 예.(예.)

103014 @ 그러면 ᄆᆞᆯ방에에서 보리 장만헐 때는 언제까지 경 헤낫수가?(그러면 연자매에서 보리 장만할 때는 언제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103014 #1 그건 정미소라든지 멕타기가 나오기 전에마씨.(그건 정미소라든지 탈곡기가 나오기 전에요.)

103014 @ 게난 그게 언제쯤까지 잇어낫수가?(그러니까 그게 언제쯤까지 있었었습니까?)

103014 #1 그게 연도로는 확실히 이야기를 못허주마는 여하간 해방 전꼬지는 다 멕타기가 없어가지고 저 정미소 강.(그게 연도로는 확실히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하간 해방 전까지는 다 탈곡기가 없어가지고 저 정미소 가서.)

103014 @ 게난 저 해방 전이까지는 ᄆᆞᆯ방에도 강 허기도 헷는데 해방 시점으로 헤서 그 멕타기도 나오고, 정미소는 그전에 나오고예?(그러니까 저 해방 전에까지는 연자매도 가서 하기도 했는데 해방 시점으로 해서 그 탈곡기도 나오고, 정미소는 그전에 나오고요?)

103014 #1 예, 일제 시대부터 나오고.(예, 일본강점기부터 나오고.)

103014 @ 일제 시대때부터 나왓구나예.(일본강점기부터 나왔구나예.)

103014 #1 정미소도 이제 그 우리 대림서는 우리 동네 그 저 신○○이네 집이서가 제일 처음 나왓수다.(정미소도 이제 그 우리 대림리서는 우리 동네 그 저 신○

○이네 집에서가 제일 처음 나왔습니다.)

103014 @ 음.(음.)

103014 #1 게믄 그걸 귀덕삼리라든지 요 신서동에서는 다 우리 대림리로 보냇수다.(그러면 그걸 귀덕삼리라든지 요 신서동에서는 다 우리 대림리로 보냈습니다.)

103014 @ 정미소를예, 아, 게난 원래 처음 셍긴 정미소가 어디?(정미소를요, 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 생긴 정미소가 어디?)

103014 #1 위치가 그 신○○이라고 헤 가지고 그디 저.(위치가 그 신○○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저.)

103014 @ 지금도 잇수가?(지금도 있습니까?)

103014 #1 지금은 엇수다.(지금은 없습니다.)

103014 @ 지금은 엇고, 정미소가예. 게고 그 멕타기는 마을마다 다 잇어낫수가?(지금은 없고, 정미소가요. 그리고 그 탈곡기는 마을마다 다 있었습니까?)

103014 #1 멕타기, 아니 그게 마을마다 다 잇는 것이 아니라 그 부락내에서도 게도 쪼끔 돈 깨나 잇는 사름양, 잇는 사름이 하나 둘 삽주. 우리 동네도 하나 허면 부락을 질 처음 돌아뎅겻수다. 그래서 그 수입성이 많으니까 공장으로 시꺼 가던 것을 나도 나도 헤서 사십주게.(탈곡기, 아니 그게 마을마다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락내에서도 그래도 조금 돈 푼이나 있는 사람요,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사지. 우리 동네도 하나 하면 부락을 젤 처음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성이 많으니까 공장으로 실어 가던 것을 나도 나도 해서 샀습지요.)

103014 @ 멕타기 헐 때 얼마씩 쿰을 준 건고예?(탈곡기 할 때 얼마씩 삯을 준 건고?)

103014 #1 쿰은 그때 이 저 그 깡으로 잽니다. 그 저 멕타기 잇는 사름덜이 한 말 열 뒈들이 깡으로 거려냅니다.(삯은 그때 이 저 그 깡으로 잽니다. 그 저 탈곡기 있는 사람들이 한 말 열 되들이 깡으로 떠냅니다.)

103014 @ 깡으로?(깡으로?)

103014 #1 예, 그걸로 저 일곱 개 장만허면은 대싱 흔 뒈썩 계산헤서 그걸 그 저 쿰을 즉석에서 거져갑니다.(예, 그걸로 저 일곱 개 장만하면은 대승 한 되씩 계산해서 그걸 그 저 삯을 즉석에서 가져갑니다.)

103014 @ 게난 그 장만허는 것에 어느 만큼을 주는 거라마씨? 열 가마니 헷다 하면?(게난 그 장만하는 것에 어느 만큼을 주는 거지요? 열 가마니 했다 하면?)

103014 #1 열 가마니 허면은 그게 그 흔, 그자 말로는 약 흔 말 정도.(열 가마니 하면은 그게 그 한, 그저 말로는 약 한 말 정도.)

103014 @ 흔 말 정도 주렌 허고예. 게난 그 멕타기 허는 사름덜토 돈은 하영 벌어시쿠다예.(한 말 정도 주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탈곡기 하는 사람들도 돈은 많이 벌었겠습니다요.)

103014 #1 예, 게난 질 처음에 버는 거 봐 가지고 공장에 강 사당 걸 집집마다 뎅기면서 거 저 홀타논 걸 장만헤 주다가 이젠 츠츠츠 발달헤 가지고 많에져 가니

까 밧드로 가서, 집이 왕 막 덥곡 불편헙주게. 시꺼 뎅김도 불편허고 허연, 밧데 강 장만허면은 멕타기 영 메영 허믄. 게난 것도 경 허다가 나중에는 트렉타에 메왕 그냥 갈아가면서 장만.(예, 그러니까 젤 처음에 버는 거 봐 가지고 공장에 가서 사다가 걸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 저 홅어놓은 걸 장만해 주다가 이젠 차차차 발달해 가지고 많아져 가니까 밭으로 가서, 집에 와서 아주 덥고 불편하지요. 실어 다니기도 불편하고 해서, 밭에 가서 장만하면은 탈곡기 이렇게 메어서 하면. 그러니까 것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트랙터에 메워서 그냥 갈아가면서 장만.)

103014 @ 콤바인?(콤바인?)

103014 #1 예, 콤바인으로.(예, 콤바인으로.)

103014 @ 콤바인으로 허는 건 완전히 거기서 다 헤 놓는 거예.(콤바인으로 하는 건 완전히 거기서 다 해 놓는 거.)

103014 #1 게고 또 멕타기도 여러 해 멕타기로 헷수다.(그리고 또 탈곡기도 여러 해 탈곡기로 했습니다.)

103014 @ 멕타기도 엇어진 지가 오랫수다예. 멕타기, 멘텍기렌도 허고.(탈곡기도 없어진 지가 오랬습니다. 탈곡기, '멘텍기'라고도 하고.)

103014 #1 멘텍기, 허허허.(웃음)(탈곡기, 허허허.(웃음))

103015 @ 게 보리농사 허멍 잊어불지 못허는 일은 어떤 것이 잇수가?(그래 보리농사 하면서 잊어버리지 못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015 #1 잊어불지 못헌 것은 그자 일단 그 비가 오지 안 허믄 좋은디 비가 즛주 와 가면은 밧디서 비 오랑 내불 수도 잇고양. 이것이 제일 걱정이 뒈어서마씨.(잊어버리지 못한 것은 그저 일단 그 비가 오지 안 하면 좋은데 비가 자주 와 가면은 밭에서 비 오랑 내버릴 수도 있고요.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됐어요.)

103015 @ 장마 지기 전에 모든 게 해결이 뒈야 햇네예. 비가 와 노믄 문제가 뒈는구나.(장마 지기 전에 모든 게 해결이 돼야 했네요. 비가 와 놓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103015 #1 예. 비 오게 뒈믄 뒈싸놩 물리왕 허젠 허믄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어십주.(예. 비 오게 되면 뒤집어놔서 말려서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인력이 많이 들었습지요.)

103015 @ 아, 게난 비 많이 와 불면 안 뒈니까. 비 안 맞추젠 허믄 방법이?(아, 그러니까 비 많이 와 버리면 안 되니까. 비 안 맞추려고 하면 방법이?)

103015 #1 방법이 엇수다.(방법이 없습니다.)

103015 @ 방법이 엇어마씨? 뭐 어디?(방법이 없어요? 뭐 어디?)

103015 #1 뭐 그걸 날만 좋은 제 허젠 허믄, 그 보리옌 헌 것은 망종 넘은 보리는 꼬부라져분 보리라 허여 가지고, 보리가 다 꼬부라져불믄 거 비기가 어려웁주게.(뭐 그걸 날만 좋은 때 하려고 하면, 그 보리라고 한 것은 망종 넘은 보리는 구부러져버린 보리라 하여 가지고, 보리가 다 구부러져버리면 거 베기가 어려우지요.)

103015 @ 비기가 어려와. 게난 보리가 누가 곧는디 상강에 갈앙 망종에 수확한

다. 그 말은 맞수가?(베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보리가 누가 말하는데 상강에 갈아서 망종에 수확한다. 그 말은 맞습니까?)

103015 #1 상강 전에 갈아야 헙주. 상강 전에 그 보리가 나야 헙주.(상강 전에 갈아야 하지. 상강 전에 그 보리가 나야 하지.)

103015 @ 아, 보리가 나야, 상강 전이.(아, 보리가 나야, 상강 전에.)

103015 #1 시월달부떠, 시월 하순부떠 갈아가지고 십일월 이십일 전에 갈아야 헙주.(시월부터, 시월 하순부터 갈아가지고 십일월 이십일 전에 갈아야 하지.)

103015 @ 양력으로?(양력으로?)

103015 #1 예.(예.)

103015 @ 경 헌 다음에 유월절 뒈영은에 그때 장만허고.(그렇게 한 다음에 유월절 돼서 그때 장만하고.)

103015 #1 예. 유월, 오월 망종 뒈면은 느나 헐 것 없이 그땐 보리가 다 익어마씨. 조금 이른 건 망종 전에 다 허고, ᄒᆞ끔 늦뒌 건 망종ᄁᆞ지 다 허고.(예. 유월, 오월 망종 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땐 보리가 다 익어요. 조금 이른 건 망종 전에 다 하고, 조금 늦된 건 망종까지 다 하고.)

103015 @ 지금이 보리 수확 철이우꽈?(지금이 보리 수확 철입니까?)

103015 #1 예. 오늘이 오월 십구일이니까 요즘 한창입주.(예. 오늘이 오월 십구일이니까 요즘 한창이지.)

103015 @ 보리 수확이예.(보리 수확이요.)

103015 #1 예. 게믄 보리 장만한다, ᄯᅳ로 밧디 보리그루 저 그 비 오면 밧 갈레 간다. 이렇게 저 바쁜 절깁주게. 옛 어른덜이 저 가시아방 봐 져도 또꼬망으로 절을 ᄒᆞᆫ다 허는 것은 막 바빠 가지고 일을 허다 보니까 장인어른 봐 져도 춤 넘어가면서 펜안허우꽈? 허멍 고개만 끄딱허니까 그추룩 분주헌 때난 그래서 제라한 예의 갖춰 인사도 못 헌다는 말로.(예. 그러면 보리 장만한다, 또 밭에 보리그루 저 그 비 오면 밭 갈러 간다. 이렇게 저 바쁜 절기지요. 옛 어른들이 저 장인 봐 져도 똥구멍으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바빠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 봐 져도 참 넘어가면서 편안합니까? 하면서 고개만 끄덕하니까 그처럼 분주한 때니까 그래서 온전한 예의 갖춰 인사도 못한다는 말로.)

103015 @ 가시아방 봐 져도 뭐 헌다마씨?(장인 봐 져도 뭐 한다?)

103015 #1 또꼬망으로 절 ᄒᆞᆫ다.(똥구멍으로 절 한다.)

103015 @ 또꼬망으로 절 한다. 하하하.(웃음) 맞아. 하하하.(웃음) 영 봐 져도 인사 제대로 못허영 그냥. 가시아방이면 장인인디예, 아이고 춤.(똥구멍으로 절 한다. 하하하.(웃음) 맞아. 하하하.(웃음) 이렇게 봐 져도 인사 제대로 못해서 그냥. '가시아방'이면 장인인데요, 아이고 참.)

103015 #1 제일 바쁠 때가 이 철입주.(제일 바쁠 때가 이 철이지.)

103015 @ 게난 보리 철이 제일 바쁘구나예.(그러니까 보리 철이 제일 바쁘구나.)

103015 #1 예. 이거 헤서 보리 갈아가믄 비 오믄 또 갈아야지 뚜로 콩도 갈아야지. 뚜로 그 그르에 조도 갈아야지, 계속 농사 아니우꽈?(예. 이거 해서 보리 갈아가면 비 오면 또 갈아야지 또 콩도 갈아야지. 또 그 그루에 조도 갈아야지, 계속 농사 아닙니까?)

조농사

103016 @ 게난 이젠 조농사에 대헤서 물어보쿠다. 조농사 허젠 허면 준비가 어떵 헤야 뒙니까?(그러니까 이젠 조농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농사 하려고 하면 준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3016 #1 조농사는 보통 유월 하순에 시작헤 가지고 칠월 초싱 전에 조를 갈앗수다.(조농사는 보통 유월 하순에 시작해 가지고 칠월 초승 전에 조를 갈았습니다.)

103016 @ 유월 하순.(유월 하순.)

103016 #1 겐디 그.(그런데 그.)

103016 @ 겐디 보리 헌 그르에 한 달 정도는 시기가 잇구나예?(그런데 보리 한 그루에 한 달 정도는 시기가 있구나요?)

103016 #1 아, 예. 한 달 정도 여유가 충분히 이십주게. 조도 절 전이 칠월 칠일 전이 갈아야 뒌덴 헙니다게. 절 ᄀᆞ를 들어가지고 허는 거는, 아주 땅이 좋은 디는.(아, 예. 한 달 정도 여유가 충분히 있습지요. 조도 절 전에 칠월 칠일 전에 갈아야 된다고 합니다. 절 고비 들어서 하는 거는, 아주 땅이 좋은 데는.)

103016 @ 절 전이렌 허믄 절기 전에?(절 전이라고 하면 절기 전에?)

103016 #1 예.(예.)

103016 @ 절기 오기 전에.(절기 오기 전에.)

103016 #1 그래서 조는 보리 갈아 놩 바로 그 그르에 갈면은 조가 좋지 아니허여마씨. 혼 번 보리 그르를 갈아엎엇다가 뚜로 그 그르에 가서 조를 가는데 씨 뿌려 놔 가지고 걸 다 불려야 뒈어마씨. 쉐, 물로 헤 가지고.(그래서 조는 보리 갈아놔서 바로 그 그루에 갈면은 조가 좋지 않아요. 한 번 보리 그루를 갈아엎었다가 또 그 그루에 가서 조를 가는데 씨 뿌려 놔 가지고 걸 다 밟아야 돼요. 소, 말로 해 가지고.)

103016 @ 아, 그거는 쉐나 물로 불리는구나.(아, 그거는 소나 말로 밟는구나.)

103016 #1 예. 씨 삐여 놩.(예. 씨 뿌려 놔서.)

103017 @ 음, 씨 삐여 놩. 게난 저기 조 걸름은 어떵 헙니까?(음, 씨 뿌려 놔서. 그러니까 저기 조 거름은 어떻게 합니까?)

103017 #1 조에는 걸름, 퉤비 걸름이 없고 허니까 허질 안 헤낫수다. 비료 난 때는 비료로 허고.(조에는 거름, 퇴비 거름이 없고 하니까 하질 안 했었습니다. 비료 난 때는 비료로 하고.)

103017 @ 아, 게난.(아, 그러니까.)

103017 #1 비료 나기 전에는.(비료 나기 전에는.)

103017 @ 보리, 보리 비어난 그르가 걸름이 뒈는구나.(보리, 보리 베었던 그루가 거름이 되는구나.)

103017 #1 예. 게난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그르는 죽어도 베영 죽나 허여십주.(예.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보리그루는 죽어도 베어서 죽는다 하였습지요.)

103017 @ 죽어도?(죽어도?)

103017 #1 죽어도 베영 죽나. 만약 이 밧을 풀앗다고 허드레도, 저 그 보리그르로 풀앗다고 허드레도 그 그르는 뚜로 역사 픈 사름이라든지 이 사름덜이 그 밧디 가서 여름 농사를 짓나 헌다는 뜻에서 베영 죽나 헤십주.(죽어도 베어서 죽는다. 만약 이 밭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저 그 보리 루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그루는 또 역시 판 사람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여름 농사를 짓는다 한다는 뜻에서 베어서 죽는다 했습지요.)

103017 @ 게난 그만큼 보리그르는 뭔가 헤도 잘 뒈니까 자기네가 그걸 헤 가지고 베영 죽겟다, 그디서.(그러니까 그만큼 보리그루는 뭔가 해도 잘 되니까 자기네가 그걸 해 가지고 베어서 죽겠다, 거기서.)

103017 #1 예.(예.)

103018 @ 베영 죽나, 보리그르 베영 죽나. 그 말이구나. 거름은 그런 식으로 뭰거고, 그 아까 유월절?(베어서 죽는다, 보리그루 베어서 죽는다. 그 말이구나. 거름은 그런 식으로 된 거고, 그 아까 유월절?)

103018 #1 예, 칠월 칠일이.(예, 칠월 칠일이.)

103019 @ 그 전까지 헤서 그걸 가는디 조를 갈 때 조는 씨를 어떵 뿌립니까?(그 전까지 해서 그걸 가는데 조를 갈 때 조는 씨를 어떻게 뿌립니까?)

103019 #1 거 산파 뿌립니다, 조는 다.(거 산파 뿌립니다, 조는 다.)

103019 @ 산파, 산파로?(산파, 산파로?)

103019 #1 예.(예.)

103019 @ 손으로 싹싹싹?(손으로 싹싹싹?)

103019 #1 예. 그것이 망텡이에 씨 놩 뎅이멍, 둑지에 망텡이 둘러메엉 그자 손으로 뿌리는디 것도 좀 잘 뿌리지 안 허믄 싹싹 앗아노믄[83] 아이 뒈어마씨.(예. 그것이 망태기에 씨 넣어서 다니면서, 어깨에 망태기 둘러메어서 그저 손으로 뿌리는데 것도 좀 잘 뿌리지 않으면 '앗아노면' 안 돼요.)

103019 @ 그건 남자가 헙니까? 여자가 헙니까?(그건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103019 #1 그건 남즈 여즈 가리지 안 헤마씨.(그건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아요.)

103019 @ 가리지 안 허여.(가리지 않아.)

103019 #1 보통은 것을 콩콤허게 뿌리기 위헤서는 남자덜이 많이 뿌립니다. 밧갈당 놔둰은에 그것도 뿌리곡 허젠 허믄 남자덜이 힘들곡 허니까 여자덜도 뿌리는

83) '앗아놓다'는 물건을 손으로 집어 다른 자리로 옮기다.

디 우리 집이는 거의 다 씨를 우리 할망[84]이, 부인이 뿌려낫수다마는, 저 후삭삭 가게 골고루 잘 뿌려야 헙니다.(보통은 것을 꼼꼼하게 뿌리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많이 뿌립니다. 밭 갈다가 놔둬서 그것도 뿌리고 하려고 하면 남자들이 힘들고 하니까 여자들도 뿌리는데 우리 집에는 거의 다 씨를 우리 '할망'이, 부인이 뿌렸습니다만, 저 후삭삭 가게 골고루 잘 뿌려야 합니다.)

103019 @ 게난 보리 갈아난 그르 밧을 갈앙, 혼번만 가는 거우꽈?(그러니까 보리 갈았던 그루 밭을 갈아서, 한번만 가는 것입니까?)

103019 #1 예. 혼번 갈아 놩 뚜로 다음은 조 갈 때도 뚜로 혼번 갈앙 좁씨 삐여 가지고.(예. 한번 갈아 놔서 또 다음은 조 갈 때도 또 한번 갈아서 좁씨 뿌려 가지고.)

103019 @ 아, 게믄 두 번을 가는 거네예?(아, 그러면 두 번을 가는 거네?)

103019 #1 예, 예.(예, 예.)

103019 @ 씨 뿌리기 전이?(씨 뿌리기 전에?)

103019 #1 예, 예. 혼번 갑니다, 혼번.(예, 예. 한번 갑니다, 한번.)

103019 @ 혼번?(한번?)

103019 #1 보리그르 혼번 갈면, 뚜로 그 그르에 뚜로 혼 보름이라든지 더 잇당 비가 오면은 거기에 조씨 뿌리젠 갈앙 씨를 뿌립주기게.(보리그루 한번 갈면, 또 그 그루에 또 한 보름이라든지 더 있다가 비가 오면 거기에 좁씨 뿌리려고 갈아서 씨를 뿌리지요.)

103019 @ 음. 조씨 뿌리고예, 그 씨를 그렇게 뿌린 다음에는.(음. 좁씨를 뿌리고요, 그 씨를 그렇게 뿌린 다음에는.)

103019 #1 콩도 그렇게 허영 뿌리고.(콩도 그렇게 해서 뿌리고.)

103020 @ 게난 조밭 붋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붋앗수과?(그러니까 조밭 밟는 거는 어떤 식으로 밟았습니까?)

103020 #1 그 저 쉐 머리에 조끔 단단허고 헌 것을 머리에 메고 나머진 그 석멘 줄을 다음 소 야가기에 석 메곡 헹은에 혼 서너니 ᄆᆞ리 연결헹 메어가지고 이 저 혼 사름은 그 저 쉐만 이꺼둠서 밋밋 불려가믄 조름에 그 쉐 뚜라오고 그 가족이 쉐 ᄆᆞ는 사름이 셔마씨.(그 저 소 머리에 조금 단단하고 한 것을 머리에 매고 나머진 그 고삐 맨 줄을 다음 소 목에 고삐 매고 해서 한 서너 마리 연결해서 매어서 이 저 한 사람은 그 저 소만 이끌면서 밋밋 밟아가면 꽁무니에 그 소 따라오고 그 가족에 소 모는 사람이 있어요.)

103020 @ 쉐 혼 마리가 아니고, 멧 마리?(소 한 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103020 #1 예, 한 마리로 허는 건 아주 그 저 쉐 하나뿐이고 영 헌 디는 혼 마리로 허고, 나머지는 송아지라든지 뚠 쉐덜토 더 메고, 물덜토 걷당 불려줌도 허고.(예, 한 마리로 하는 건 아주 그 저 소 하나뿐이고 이렇게 한데는 한 마리로 하고, 나머지는 송아지라든지 딴 소들도 더 매고, 말들도 가져다가 밟아주기도 하고.)

84) '할망'은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부인을 뜻한다.

103020 @ 게믄 쉐를 사람이 끌면서 거를.(그러면 소를 사람이 끌면서 거를.)

103020 #1 예, 끌어당기멍 조름에 뚜로 쉐 모는 사람이 십주기게.(예, 끌어당기면서 꽁무니에 따로 소 모는 사람이 있습지요.)

103020 @ 쉐 모는 사름이 싯고.(소 모는 사람이 있고.)

103020 #1 예, 예. 게믄 저 빙빙 골고루 골고루 다 불라졍.(예, 예. 그러면 저 빙빙 골고루 골고루 다 밟아져서.)

103020 @ 물로도 불리고예?(말로도 밟고요?)

103020 #1 예, 예.(예, 예.)

103020 @ 쉐, 물 엇인 집인 어떵 헙니까?(소, 말 없는 집은 어떻게 합니까?)

103020 #1 읏인 집인 게난 수눌엉 헙주기게. 그 홀어멍집덜이라든지 쉐 엇인 디는 그 저 바깟사름 빌어뒁은에 쉐 하나를 빌엉 허주마는 경 아이 헌 디는 송아지라든지 밧 아이 가는 쉐 빌어당 불립니다.(없는 집은 그러니까 품앗이해서 하지요. 그 홀어머니들이라든지 소 없는 데는 그 저 바깥사람 빌려둬서 소 하나를 빌려서 하지만 그렇게 아니 한 데는 송아지라든지 밭 아니 가는 소 빌려다가 밟습니다.)

103020 @ 아, 밧 안 가는 소로, 송아지로?(아, 밭 안 가는 소로, 송아지로?)

103020 #1 예, 예.(예, 예.)

103020 @ 아, 그거를 빌어당은에 불리기도 허고. 게난 사람이 불리진 못헷구나.(아, 그거를 빌려다가 밟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밟진 못했구나.)

103020 #1 사름, 사름 발로도 해 불릅주.(사람, 사람 발로도 많이 밟지요.)

103020 @ 사름 발로도 불르고.(사람 발로도 밟고.)

103020 #1 사름으론 보통은 혼자 불릅니까게, 쉐 혼자만 심엉 불려가면 조름에 또 예펜은 그이라든지 아이라든디 조름에 불리곡.(사람으론 보통은 혼자 밟습니까, 소 혼자만 잡아서 밟아가면 꽁무니에 또 여편네는 그이라든지 아이라든지 꽁무니에 밟고.)

103020 @ 그때는 게난 혼자 할 수는 없고 같이 수눌엉은에.(그때는 그러니까 혼자 할 수는 없고 같이 품앗이해서.)

103020 #1 게난 그 전이는 홀어멍덜이 아이 살앙 그자 그 저 홀어멍덜 먹고 살젠 허니까 서방 공첩을 헤나십주기.(그러니까 그 전에는 홀어머니들이 아니 살아서 그저 그 저 홀어머니들 먹고 살려고 하니까 서방 공첩을 했었습지요.)

103020 @ 서방을.(서방을.)

103020 #1 예.(예.)

103020 @ 그때 무슨 기구도 필요허지 안 헙니까? 밧 불릴 때?(그때 무슨 기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밭 밟을 때.)

103020 #1 그 밧 불리는 기구도 일반 집에는 없엇수다. 없엇는데 저 어디고, 어음[85]서 내려와 가지고 사는 고○○이라고 허는 사름네 집이 우리 흔 이백여 세대 중에 그디 하나 큰 통나무에 발통ᄀᆞ찌 박박 저, 박아지게 멘들앙 끌엉 걸로 불려낫

85) '어음'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를 말한다.

수다마는.(그 밭 밟는 기구도 일반 집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 어디고, 어음서 내려와 가지고 사는 고○○이라고 하는 사람네 집에 우리 한 이백여 세대 중에 거기 하나 큰 통나무에 발굽같이 박박 저, 박히게 만들어서 끌어서 걸로 밟았었습니다만.)

103020 @ 통나무에 그 영 영, 그 뽀족헌 것덜 영 박힌 거?(통나무에 그 이렇게 이렇게, 그 뾰족한 것들 이렇게 박힌 거?)

103020 #1 예, 저 통나무로 불리는 것이.(예, 저 통나무로 밟는 것이.)

103020 @ 거 이름을 뭐렌 헷수가?(거 이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103020 #1 것 일름 잊어불어가지고. 허허.(웃음)(그거 이름 잊어버려서. 허허.(웃음))

103020 @ 돌테옌 허고 그런 말 헤신가마씨?(돌번지라 하고 그런 말 했었는가요?)

103020 #1 경허곡 뚜로 잘 아이 불려지면 끗데 또 섬피질 싹 헤노믄양, 골라지곡, 씨도 골라지곡.(그리고 또 잘 안 밟아지면 끝에 또 끙게질 싹 해놓으면요, 고르게 되고, 씨도 고르게 되고.)

103020 @ 섬피질.(끙게질.)

103020 #1 헤놩 불리는 것도 셔낫수다.(해놔서 밟는 것도 있었습니다.)

103020 @ 섬피질은 사람이 끕니까? 쉐는 사람이 끌어 다니고.(끙게질은 사람이 끕니까? 소는 사람이 끌어서 다니고.)

103020 #1 나무로 허여 가지고 넙찍허게 메영 돌 지둘롸 노믄 납작헙주게. 그걸 그자 혼번 끗으면 혼 두 고지썩은 싹 끗어지고, 걸 다 끗어놔놩 불리곡 허는디, 아이 불린 디도 예컨데 폿이라든지 뚜로 농사헤도 거 섬필 혼 줄 놩 싹 허면은 불리지 아이헌 농사덜토 지어나십주.(나무로 해 가지고 널찍하게 매어서 돌 지질러 놓으면 납작하지요. 그걸 그저 한번 끌면 한 두 이랑씩 싹 끌어지고, 걸 다 끌어놔서 밟고 하는데, 아니 밟은 데도 예컨대 팥이라든지 또 농사해도 거 끙게를 한 줄 놔서 싹 하면은 밟지 않은 농사들도 지었었습지요.)

103020 @ 게난 그 섬피로도 허고, 아까 남테[86]렌 말은 안 들어봣수가?(그러니까 그 끙게로도 하고, '남테'란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3020 #1 남테? 남테 게도 거 많이 헤신디, 난 거 혼 이백여 세대 중에서도 대림에 혼나 셔나니까, 그디도 얼마 저 우에 살아나니까 잘 아이 빌려주냐 허면은 우리 대림은 작지왓이니까 것이 얼마 잘 아이 뒈어마씨.('남테'? '남테' 그래도 거 많이 했는데, 난 거 이백여 세대 중에서도 대림리에 하나 있었으니까, 거기도 얼마 저 위에 살았었으니까 잘 아니 빌려주냐 하면은 우리 대림리는 자갈밭이니까 것이 얼마 잘 아니 되어요.)

103020 @ 아, 작지왓이라부난. 아, 그런 것이 필요엇엇구나예. 아, 그 저 어음

86) '남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이다.

그쪽에서는 그걸 많이 써낫구나.(아, 자갈밭이니까. 아, 그런 것이 필요없었구나. 아, 그 저 어음리 그쪽에서는 그걸 많이 썼었구나.)

103020 #1 예. 겐 그 사름이 목수고 헌 사름이니까.(예.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수고 한 사람이니까.)

103020 @ 지 스스로 만들앗구나예, 지 스스로 만들안.(자기 스스로 만들었구나, 자기 스스로 만들었어.)

103020 #1 예.(예.)

103021 @ 이 조팟디 검질은 어떵 메낫수가?(이 조밭에 김은 어떻게 매었습니가?)

103021 #1 아, 조팟디 검질은 일 년에 두 번, 시 번 메어사 헙니다. 제일 처음 조를 갈면은 벙뎅이 풀멍이라든지 꼭 흔 입 나올 때에 그때 강 벙뎅이 푼다고 헤 가지고 그 저 그 셍긴 풀덜이라든지 씨로 나지 아이 헤 가지고 보리 그르에 난 검질덜 거 살아난 것을 다 메면서 ᄌᆞ진 거는 ᄉᆞ꽈놩, 부 불 검질은 알맞게 헤 놩, 또 세 불 검질은 그디 강 줏인 거 뚜로 ᄉᆞ끄젠 허믄 세 벌 멧수다.(아, 조밭에 김은 일 년에 두 번, 세 번 매어야 합니다. 제일 처음 조를 갈면은 덩어리 풀면서라든지 꼭 한 입 나올 때에 그때 가서 덩어리 푼다고 해 가지고 그 저 그 생긴 풀들이라든지 씨로 나지 않아 가지고 보리 그루에 난 김들 거 살아난 것을 다 매면서 잦은 거는 솎아놔서, 두 벌 김은 알맞게 해 놔서, 또 세 벌 김은 거기 가서 잦은 거 또 솎으려고 하면 세 벌 맸습니다.)

103021 @ 시기적으로는 멧 월, 멧 월에 메엇수가?(시기적으로 몇 월, 몇 월에 매었습니까?)

103021 #1 조 갈아가지고 일주일만 시면 초불 멥주기.(조 갈아서 일주일만 있으면 애벌 매지요.)

103021 @ 초불 메고.(애벌 매고.)

103021 #1 초불 메고, 뚜로 두 불, 시 불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멥니다.(애벌 매고, 또 두 벌, 세 벌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맵니다.)

103022 @ 조팟디 검질덜은 이름이 뭐렌 헤낫수가?(조밭에 김들은 이름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103022 #1 조팟디 검질은 ᄀᆞ랏이라든지 또는 츰비늠, 쒜비늠, 또 저.(조밭에 김은 가라지라든지 또는 참비름, 쇠비름, 또 저.)

103022 @ 쒜비늠, 츰비늠?(쇠비름, 참비름?)

103022 #1 츰비늠.(참비름.)

103022 @ 츰비늠, 쒜비늠.(참비름, 쇠비름.)

103022 #1 뚜로 쑥.(또 쑥.)

103022 @ 숙?(쑥?)

103022 #1 예, 숙밧도 저기 저.(예, 쑥밭도 저기 저.)

103022 @ 숙이 아니라 쑥.('숙'이 아니라 '쑥'.)

103022 #1 숙입주기.(쑥이지요.)

103022 @ 아, 지금 현재 '쑥'이렌 헌 거예. 그 쑥도 검질이꽈?(아, 지금 현재 쑥이라고 한 거요. 그 쑥도 김입니까?)

103022 #1 예, 예. 검질이우다.(예, 예. 김입니다.)

103022 @ 쑥하고, 춤비늠하고 쒜비늠허고, 아까 또 ᄀᆞ랏. ᄀᆞ랏, ᄀᆞ랏?(쑥하고, 참비름하고 쇠비름하고, 아까 또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

103022 #1 예, ᄀᆞ랏은 처음은 조영 비슷헙니다만 고고리가 저 여물이 없는 거, 흔들흔들허곡 또 조팟딘 ᄀᆞ랏이고, 보리왓디는 대우리고.(예, 가라지는 처음은 조랑 비슷합니다만 이삭이 저 여물이 없는 거, 흔들흔들하고 또 조밭에 가라지고, 보리밭에는 귀리고.)

103022 @ 건 두 불, 세 불 검질멜 때 나오는 거구나.(건 두 벌, 세 벌 김맬 때 나오는 거구나.)

103022 #1 예.(예.)

103022 @ 초불에는 안 보이고?(애벌에는 안 보이고?)

103022 #1 예, 예.(예, 예.)

103022 @ 초불에는 안 보이고, ᄀᆞ랏은. ᄀᆞ랏은 두 불, 세 불 조가 ᄒᆞ끔 컷을 때.(애벌에는 안 보이고, 고라지는. 고라지는 두 벌, 세 벌 조가 조금 컸을 때.)

103022 #1 예.(예.)

103023 @ 그렇게 잇고. 그러면 이제 조 수확을 허젠 허면 어떵 헙니까?(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조 수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103023 #1 조는 걸 밧에서도 톧곡, 그 저.(조는 걸 밭에서도 뜯고, 그 저.)

103023 @ 아, 톧읍니까?(아, 뜯습니까?)

103023 #1 예. 톧아 가지고 멩텡이로 집이 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다 저 쉐로 시끄곡, 사름이 졍 왕 집이 데며뒷다가 집이서 톧앙 장만헤십주.(예, 뜯어 가지고 망태기로 집에 져오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다 저 소로 싣고, 사람이 져서 와서 집에 쌓아뒀다가 집에서 뜯어서 장만했습지요.)

103023 @ 아, 건 보리, 조를 비어 가지고 조 비엉 가져오는 방법이 잇고, 밧디서 직접 톧는 방법이 잇고. 조를 톧아불면 그 나머지는 그냥 밧디 내불어마씨?(아, 건 보리, 조를 베어 가지고 조 베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 밭에서 직접 뜯는 방법이 있고. 조를 뜯어버리면 그 나머지는 그냥 밭에 내버려요?)

103023 #1 아닙니다. 것 대를 무껑 것도 쉐, 물 사료로 멕입니께.(아닙니다. 것대를 묶어서 것도 소, 말 사료로 먹입니다.)

103023 @ 아, 것도 사료로 멕여예? 쉐 먹이로, 사료로, 쉐 사료. 음, 그러면 그것도 하여간 비긴 비는 거네예.(아, 것도 사료로 먹여요? 소 먹이로, 사료로, 소 사료. 음, 그러면 그것도 하여간 베기는 베는 거네요.)

103023 #1 예, 다 비어얍주.(예, 다 베어야지.)

103023 @ 다 비고. 음, 그 땅에 잇는 채로 톧앗수가? 아니면?(다 베고. 음, 그

땅에 있는 채로 뜯었습니까? 아니면?)

103023 #1 다 비어놩마씨, 다 비엉 놩.(다 베어놔서요, 다 베어서 놔서.)

103024 @ 비어 놩 튿은 거?(베어 놓아서 뜯은 거?)

103024 #1 예, 게 튿아당 고고린 뚜로 물방에에 가 가지고 저 시꺼 놩 빙빙 돌아가믄 졍 장만헤십주. 또 그럴 수도 잇고 집에 마당에 놔 가지고 도리께로 장만도 헷수다.(예, 그래 뜯어다가 이삭은 또 연자매에 가 가지고 저 실어 놔서 빙빙 돌아가면 져서 중만했습지요. 또 그럴 수도 있고 집에 마당에 놔 가지고 도리깨로 장만도 했습니다.)

103024 @ 그거는 맞아예, 이미 홀트긴 다 홀타진 거난.(그거는 맞아요, 이미 홅기는 홅어진 거니까.)

103024 #1 조는 홀튼다, 아이 헤 가지고 일일이 튿읍니다.(조는 홅는다, 아니 해 가지고 일일이 뜯습니다.)

103024 @ 고고리 손으로예. 음, 다 튿아 가지고, 그다음엔 그거를 도리께질 허거나 아니면 물방에에 강 걸 짛어. 물방에에 강 헐 때는 보리 헐 때나 마찬가지우꽈?(이삭 손으로요. 음, 다 뜯어 가지고, 그거를 도리깨질 하거ᄂᆞ 아니면 연자매에 가서 걸 찧어. 연자매에 가서 할 때는 보리 할 때나 마찬가지입니까?)

103024 #1 예.(예.)

103024 @ 보리영 똑 같읍니까?(보리랑 똑 같습니까?)

103024 #1 예, 게난 그 저 뭐 물방에는 수는 세 개 잇어 가지고 좋앗수다마는 그 한방통[87]엔 막 밀릴 거난 미릇 나가 이걸 허겟다고 헤 가지고 물방에에 가 가지고 족은 망테기에 툭 놔뒷다가 자기가 허곡, 뚜로 그렇지 않으면 순번을 매겨서 그렇게들 헤낫수다.(예, 그러니까 그 저 뭐 연자매는 수는 세 개 있어 가지고 좋았습니다만 그 '한방통'엔 아주 밀릴 거니까 미리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 가지고 연자매에 가 가지고 작은 망태기에 탁 놔뒀다가 자기가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순번을 매겨서 그렇게들 했었습니다.)

103024 @ 조는 뭐 마께질로 허진 안 헤낫수가?(조는 뭐 방망이질로 하지는 않았습니까?)

103024 #1 마께질, 그건 하찬연 집이, 많이 허지 않고 조끔 헌 것은 마께질로도 두드려낫는디, 많은 디는 도리께로라든지 물방에에 강 장만헷수다.(방망이질, 그건 하찮은 집에, 많이 하지 않고 조금 한 것은 방망이질로도 두드렸었는데, 많은 데는 도리깨로라든지 연자매에 가서 장만했습니다.)

103024 @ 음.(음.)

103024 #1 이 씨 허는 것은 마께로 다 헷수다. 조는 보통 씨 중에라도 홁곡 여물진 것을 허니까 그건 영 골령은에 흔 망텡이쯤 담앙 놔뒁 씨를 헤십주기. 그런 것은 마께로 독독 앚앙 두드려십주기.(이 씨 하는 것은 방망이로 다 했습니다. 조는 보통 씨 중에라도 굵고 여물진 것을 하니까 그건 이렇게 가려서 한 망태기쯤 담아

87) '한방통'은 무슨 일이 바로 꼭대기에 이른 판으로, 아주 바쁜 시기를 말한다.

서 놔둬서 씨를 했습지요. 그런 것은 방망이로 닥닥 앉아서 두드렸습지요.)

103024 @ 게난 밧디서 고고리 톹은 거는 망텡이에 헹 실렁 오고, 그냥 조 빈 거는 무껑은에?(그러니까 밭에서 이삭 뜯은 거는 망태기에 해서 실어서 오고, 그냥 조 벤 거는 묶어서?)

103024 #1 거 시꺼당 눌어뒷당 사료로 줘사, 쉐, 물 사료로.(거 실어다가 쌓아뒀다가 사료로 줘야, 소, 말 사료로.)

103024 @ 그거 무껑 실러올 때는 사람이 졍 왓수가?(그거 묶어서 실어올 때는 사람이 져서 왔습니까?)

103024 #1 사름도 져오곡, 쉐로도 시꺼 오곡.(사람도 져오고, 소로도 실어 오고.)

103024 @ 쉐로 시꺼 오고, 보리 식으로예.(소로 실어 오고, 보리 식으로요.)

103024 #1 예.(예.)

103024 @ 것도 멧 뭇 멧 뭇 잇어낫수가?(것도 몇 뭇 몇 뭇 있었었습니까?)

103024 #1 것도 멧 뭇이 없엇수다. 쉐에 따라 가지고 족은 쉔 그 ᄀᆞ르친 송아지쯤은 멧 뭇 아이 시끄곡, 큰 쉐 더 시끄곡.(것도 몇 뭇이 없었습니다. 소에 따라 가지고 작은 소는 그 이제 금방 가르친 송아지쯤은 몇 뭇 아니 싣고, 큰 소 더 싣고.)

103024 @ 음, 시끄고, 게믄 흔 바리가 멧 뭇이엔 허는 거는 없고예?(음, 싣고, 그러면 한 바리가 몇 뭇이라고 하는 거는 없고요?)

103024 #1 예.(예.)

103024 @ 거 무슨 걸로 무껏수가?(거 무슨 걸로 묶었습니까?)

103024 #1 그냥 조집으로.(그냥 조짚으로.)

103024 @ 조찝으로, 것도 조찝으로예?(조짚으로, 것도 조짚으로요?)

103024 #1 예.(예.)

103024 @ 것도 하영 못 무끄겟다예, 조찝으로 무끄젠 허믄.(것도 많이 못 묶겠다, 조짚으로 묶으려고 하면.)

103024 #1 겐디 조는 ᄒᆞ끔 조대가 그 저 보릿대보다 깁주기. 그래서 ᄒᆞ끔 더 크게 무꺼집니다.(그런데 조금 조짚이 그 저 보릿짚보다 길지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묶게 됩니다.)

103024 @ 아, 조대가 길어?(아, 조짚이 길어?)

103024 #1 예.(예.)

103024 @ ᄒᆞ끔 더 무꺼져예, 나중에 밧줄 셍기난 밧줄 상 밧줄로 무껏고예.(조금 더 묶어져요, 나중에 밧줄 생기니까 밧줄 사서 밧줄로 묶었고요.)

103024 #1 예.(예.)

103025 @ 예, 아까 좁쌀 만드는 거는 물방에나 도리께로 타작질 허영 허고, 그 다음에는?(예, 아까 좁쌀 만드는 거는 연자매나 도리깨로 타작질 해서 하고, 그다음은?)

103025 #1 그다음에는 뚜로 먹게 뒈면은 짛어얍주게. 쏠만 뽑고 체는 빨 거니

까. 짛어야 허는데 제일 처음 것도 역시 정미소가 나기 전에는 물방에에서 걸 저 그 아까ᄀᆞ찌 그냥 물방에, 사름으로도 허곡, 또 쉐, 물로 메와 가지고 빙빙 돌아가면 그 쏠이 나옵니다, 첸 체로 나오고.(그다음에는 또 먹게 되면은 찧어야지요. 쌀만 뽑고 겨는 뺄 거니까. 찧어야 하는데 제일 처음 것도 역시 정미소가 나기 전에는 연자매에서 걸 저 그 아까같이 그냥 연자매, 사람으로도 하고, 또 소 말로 메워 가지고 빙빙 돌아가면 그 쌀이 나옵니다, 겨는 겨로 나오고.)

103025 @ 그냥 조코고리 채로 담아?(그냥 조이삭 채로 담아?)

103025 #1 예, 조코고리 채로 담아 가지고 물방에가 둥그렁허지 안 헙니까게. 둥그렁 돌아가멍 그 저 조코고리를 비왕, 비와 가지고 이제는 밋밋 물방에가 돌아가면은 그 저 조만 나옵주기게.(예, 조이삭 채로 담아 가지고 연자매가 둥그렇지 않습니까.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그 저 조이삭 부어서, 부어 가지고 이제는 밋밋 돌아가면은 그 저 조만 나오지요.)

103025 @ 조만 나오믄 나머지는?(조만 나오면 나머지는?)

103025 #1 나머지는 담아뒷다가 그 저 조 ᄐᆞ로 거기서 체 ᄐᆞ로 나오지 안 헙니까게. 게믄 그걸 ᄯᅳ로 둘로 분석헤 뒷다가, 또 저 자기가 먹게 뒈면은, 그 방에에 가 가지고 ᄯᅳ로 그런 식으로 저 그 짛어야 헙주게.(나머지는 담아뒀다가 그 저 조 따로 거기서 겨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따로 둘로 분석해 뒀다가, 또 저 자기가 먹게 되면은, 그 방아에 가 가지고 또 그런 식으로 저 그 찧어야 하지요.)

103025 @ 아, 경 헹 놔뒷당 또 먹을려고 하면 그걸 한번 더 돌리는구나예.(아, 그렇게 해서 놔뒀다가 또 먹으려고 하면 그걸 한번 더 돌리는구나.)

103025 #1 예, 예.(예, 예.)

103025 @ 아니 그것도 ᄀᆞ레로는 안 허고마씨?(아니 그것도 맷돌로는 안 하고요?)

103025 #1 ᄀᆞ레로도 헤십주기.(맷돌로도 했습지요.)

103025 @ ᄀᆞ레로도 허고예, 물방에에 강도 허고.(맷돌로도 하고요, 연자매에 가서도 하고.)

103025 #1 그게 아주 좀 문명이 발달헤 가지고 정미소가 셍겨 가지고, 게난 정미소가 셍긴 때는 아주 한걸헤십주게. 그런 것을 정미소 간 허니까.(그게 아주 좀 문명이 발달해 가지고 정미소가 생겨 가지고, 그러니까 정미소가 생긴 때는 아주 한가했습지요. 그런 것을 정미소 가서 하니까.)

103025 @ 좁쏠 나올 거 아니우꽈? 그 좁쏠 말앙 나머지는 뭐렌 헙니까?(좁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좁쌀 말고 나머지는 뭐라고 합니까?)

103025 #1 좁쏠 말앙 그 저, 조에는 좁쏠 말앙 체허고 좁쏠만 이십주게.(좁쌀 말고 그 저, 조에는 좁쌀 말고 겨하고 좁쌀만 있습지요.)

103025 @ 체허고 좁쏠만. 조에서는 체허고 좁쏠만 나오는구나예?(겨하고 좁쌀만, 조에서는 겨하고 좁쌀만 나오는구나예?)

103025 #1 예, 좁쏠허고 체.(예, 좁쌀하고 겨.)

103026 @ 게믄 좁쏠로 만들엉 먹는 게, 일단 조팝도 헹 먹지만, 여러 가지 뭐 헹 먹어나지 안 헷수가?(그러면 좁쌀로 만들어서 먹는 게, 일단 조밥도 해서 먹지만, 여러 가지 뭐 해서 먹었었지 않습니까?)

103026 #1 여러 가지 헹 먹고 헤십주.(여러 가지 해서 먹고 했습지요.)

103026 @ 체는 뭐허고마씨?(체는 뭐하요?)

103026 #1 체는 돼지 사료로 허고.(겨는 돼지 사료도 하고.)

103026 @ 게믄 좁쏠로 만들엉 먹는 게, 일단 조팝도 헹 먹지만, 여러 가지 뭐 헹 먹어나지 안 헷수가?(그러면 좁쌀로 만들어서 먹는 게. 일단 조밥도 해서 먹지만, 여러 가지 뭐 해서 먹었었지 않습니까?)

103026 #1 예, 떡도 헹 먹고, 여러 가지 헹 먹고 헤십주.(예, 떡도 해서 먹고, 여러 가지 해서 먹고 했습지요.)

103026 @ 조론 무신 떡을 만들엇수가?(조로는 무슨 떡을 만들었습니까?)

103026 #1 조는 주로 이제 영장헐 때 돌레떡[88] ᄀᆞ튼 거 만듭니다.(조는 주로 이제 장사지낼 때 도래떡 같은 거 만듭니다.)

103026 @ 돌레떡.(도래떡.)

103026 #1 허고 ᄯᅳ로 오메기떡[89]이라 헤 가지고 술 담글 때 그 떡을 만들고 헷수다.(하고 또 '오메기떡'이라고 해 가지고 술 담글 때 그 떡을 만들고 했습니다.)

103026 @ 오메기떡 허고예. 그 외에 이 조로 술을 담갓지예?('오메기떡' 하고요. 그 외에 이 조로 술을 담갔지요?)

103026 #1 예.(예.)

103026 @ 게믄 조로 술 담그는 것은 어떤 식으로 헤낫수가?(그러면 조로 술 담그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103026 #1 조로 술 담젠 허민 우선 저 보리쌀 ᄀᆞ튼 것으로 술 틔와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예.(조로 술 담그려고 하면 우선 저 보리쌀 같은 것으로 술 띄워 가지고 누룩을 만들어서요.)

103026 @ 보리쏠 틔왕은에예?(보리쌀 띄워서요?)

103026 #1 보리쏠이라든지 특히 밀로 허면은 더 좋다고 헙니다. 겐 누룩을 만들어 뒷다가 그걸 ᄯᅳ로 누룩이 벌그룽허게 잘 발효가 뒌 것은 술맛도 좋고, 경 헹은에 멘들어 뒷다가 ᄯᅳ로 조로는 그 아까ᄀᆞ찌 조를 다 짛어가지고 삐정 밥을 허기도 허고 ᄀᆞ를로 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ᄯᅳ로 역시 누룩에 놩 ᄀᆞ찌 쪄마씨, 서껑.(보리쌀이라든지 특히 밀로 하면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만들어 뒀다가 그걸 또 누룩이 벌거스름하게 잘 발효가 된 것은 술맛도 좋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뒀다가 또 조로는 그 아까같이 조를 다 찧어 가지고 빚어서 밥을 하기도 하고 가루로 해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따로 역시 누룩에 넣어서 같이 쪄요, 섞어서.)

---

88) '돌레떡'은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이다.

89) '오메기떡'은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낸 떡이다. 술감으로 쓰이기도 한다.

103026 @ 일단 좁쌀, 생좁쌀 가지고?(일단 좁쌀, 생좁쌀 가지고?)

103026 #1 아니, 생좁쌀 그건 밥을 헌다든지 떡을 만든다던지.(아니, 생좁쌀 그건 밥을 한다든지 떡을 만든다든지.)

103026 @ 아, 일단 밥을 만들던지 헤 놓고 그거에다가 누룩을 서껑.(아, 일단 밥을 만들던지 해 놓고 그거에다가 누룩을 섞어서.)

103026 #1 예, 물 놓멍 알맞게 그저 반죽을 헌다 헤십주.(예, 물 넣으면서 알맞게 그저 반다 했습지요.)

103026 @ 게믄 걸 항아리에 담아 두는 거우꽈?(그러면 걸 항아리에 담아 두는 것입니까?)

103026 #1 예. 반죽을 헤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 두고, 그것이 발효가 뒈어 가지고 술이 뒙주. 경 질 처음 발효뒈 가지고, 발효뒈면은 우이 뜬 것은 청주라고 헤 가지고 허고, 아래 잇는 것은 저 탁배기[90], 막걸리라고 나오고.(예. 반죽을 해 가지고 항아리에 담아 두고, 그것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술이 돼지. 그렇게 젤 처음 발효되 가지고 발효되면은 위에 뜬 것은 청주라고 해 가지고 하고, 아래 있는 것은 저 '탁배기', 막걸리라고 나오고.)

103026 @ 찌꺼기는 떡 허고마씨? 오메기떡은 어떤 식으로 만들엇수가?(찌꺼기는 떡 하고요? '오메기떡'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103026 #1 아, 오메기떡은 조를 갈아다가 좁쏠 갈아당 그 저 그 고망 똘랑, 고망 똘랑은에 떡을 만듭주게.(아, '오메기떡'은 조를 갈아다가 좁쌀 갈아다가 그 저 그 구멍 뚫어서, 구멍 뚫어서 떡을 만들지요.)

103026 @ 예, 고망 똘랑 허는 거 맞수다게.(예, 구멍 뚫어서 하는 거 맞습니다.)

103026 #1 고망 똘랑 만들민 그것이 오메기떡입주.(구멍 뚫어서 만들면 그것이 '오메기떡'이지요.)

103026 @ 아, 술 하곤 다르게, 만드는 과정이 다르구나예?(아, 술하고는 다르게, 만드는 과정이 다르구나예?)

103026 #1 예, 그 오메기떡이엔 헌 것은 그냥 둥글락허게 헤 가지고 허믄 잘 익질 안 헙주게. 가운디 돌라가지고 고망 똘라 가지고 헤사 잘 익을 겁주.(예, 그 '오메기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둥그렇게 해 가지고 하면 잘 익질 안 하지요. 가운데 돌라서 구멍 뚫어 가지고 해야 잘 익을 거지요.)

103026 @ 그거는 것도 저기 ᄀᆞ를 쪄 가지고 고망 똘랑은에 걸 다시 찌는 거우꽈?(그거는 것도 저기 가루를 쪄 가지고 구멍 뚫어서 걸 다시 찌는 것입니까?)

103026 #1 아니, 걸 또 솟디 놩 익으면, 익으면 ᄄᆞ로 큰 다라이라든지 낭푼이에 떡을 건져 놩 문짝 거 손으로 달롱 쪄마씨. 쪙은에 다 쪄지믄 ᄄᆞ로 누룩을 놔 가지고 ᄄᆞ로 역시 문짝 달롱 찝주기. 쪄 놩 것을 ᄄᆞ로 망데기라든지 항에 담앙 놔 두민 것이 발효뒙주.(아니, 걸 또 솥에 넣어서 익으면, 익으면 또 큰 양푼이라든지 양푼이에 떡을 건져 놔서 몽땅 거 손으로 다져서 쪄요. 쪄서 다 쪄지면 또 누룩을 놔

90) '탁배기'는 걸러 내지 않은 그대로의 된 술이다.

가지고 따로 역시 몽땅 다져서 찌지. 쪄 놔서 것을 또 옹기라든지 독에 담아서 놔 두면 것이 발효되지.)

103026 @ 아, 건 술이 뒈는 거예. 게믄 그거는 술로 허는 거고. 오메기떡 허는 거는 것도 같은 과정으로 허당은에.(아, 건 술이 되는 거. 그러면 그거는 술로 하는 거고. '오메기떡' 하는 거는 것도 같은 과정으로 하다가.)

103026 #1 아까 술 멘들 땐 뭐 이 떡으로 주동을 헤십주.(아까 술 만들 때는 뭐 이 떡으로 주동을 했습지요.)

103026 @ 게난 오메기떡을 만들면 그 오메기떡을 항아리에 담아서 술을 만든다는 거네예. 골 놓곡 헹은에.(그러니까 '오메기떡'을 만들면 그 '오메기떡'을 항아리에 담아서 술을 만든다는 거네요. 엿기름 넣고 해서.)

103026 #1 골 놓는 게 아니고 누룩.(엿기름 넣는 게 아니고 누룩.)

103026 @ 예, 누룩. 골로 만든 누룩. 아, 게난 좁쏠 ᄀᆞ를로 허는 거 허고, 좁쏠로 밥 헹은에 허는 거 허곤 다른 거 아니우꽈?(예, 누룩. 엿기름으로 만든 누룩. 아, 그러니까 좁쌀 가루로 하는 거 하고, 좁쌀로 밥해서 하는 거 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103026 #1 예,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잇수다.(예,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03026 @ 밥으로 술 만드는 방법, 떡으로 술 만드는 방법이 잇구나예?(밥으로 술 만드는 방법, 떡으로 술 만드는 방법이 있구나예?)

103026 #1 예.(예.)

103026 @ 술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말이구나예.(술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그 말이구나.)

103026 #1 예.(예.)

103026 @ 감주도 그런 식으로 허고예.(감주도 그런 식으로 하고요.)

103026 #1 예?(예?)

103026 @ 감주?(감주?)

103026 #1 감주는 저 보리로 골을 놉니다. 골을 발아시겨 가지고, 혼 메칠만 발아시겨 가지고 놓으면 그것이 뿔리 나가고 뿔리 나가면 것이 저 골이 뒈는 건디 걸 ᄆᆞᆯ리와 뒷다가 그걸로 ᄀᆞᆯ앙 그 저 아까ᄀᆞ찌 조팝에 물 놓는다던지 뭣에 놩은에 그 저 익히면은 것이 감주가 뒈십주.(감주는 저 보리로 엿기름을 놉니다. 엿기름을 발아시켜 가지고, 한 며칠만 발아시켜 가지고 넣으면 그것이 뿌리 나가고 뿔리 나가면 것이 저 엿기름이 되는 건데 걸 말려 뒀다가 그걸로 갈아서 그 저 아까같이 조밥에 물 넣는다든지 뭣에 넣어서 그저 익히면은 것이 감주가 됐습지요.)

103026 @ 아, 그건.(아, 그건.)

103026 #1 게서 그걸 ᄯᅳ로 감줄 막 오래 졸르면은 저, 엿이 뒙주게, 막 오래.(그래서 그걸 또 아주 오래 졸이면은 저, 엿이 되지요, 아주 오래.)

103026 @ 막 오래 딸리면, 딸리면 엿이 뒈는 거고, 게난 그거는 누룩이 아니고

저기 아까 골로.(아주 오래 딸리면, 딸리면 엿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누룩이 아니고 저기 아까 엿기름으로.)

103026 #1 예, 골로, 골 놩은에.(예, 엿기름으로, 엿기름 넣어서.)

103026 @ 아, 누룩을 놓는 게 아니고 골 놔서, 술 만들 땐 누룩 놓고.(아, 누룩을 넣는 게 아니고 엿기름 넣어서, 술 만들 땐 누룩 넣고.)

103026 #1 예, 예, 술 만들 땐 누룩 놓고, 저 엿 만들 땐 저 골 놩은에.(예, 예, 술 만들 땐 누룩 넣고, 저 엿 만들 땐 저 엿기름 넣어서.)

103026 @ 으음, 엿 만들 땐 골 놓고. 조는 그런 식으로 떡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조팝은 어떤 식으로 지어 먹엇수가?(으음, 엿 만들 땐 엿기름 넣고. 조는 그런 식으로 떡도 만들고 술도 만들고, 조밥은 어떤 식으로 지어 먹었습니까?)

103026 #1 조팝은게 좁쏠은 보리밥보단 슴는 양이 흔 삼분의 일벳기 안 들어갑니다. 그 저 물 꿰가믄 좁쏠 놔 가지고 그자 익이면 뒈는디, 보리쏠은 미릇부터 놔 가지고 막 물 꿰왕 짐 들여놩 그 끗데 밥이 풀풀허게 허기 위혜서 좁쏠을 그 우에 놉주기. 좁쏠끄지 놩 젓이민 밥이 아주 풀풀허영은에 뒙주기.(조밥은요 좁쌀은 보리밥보단 삶는 양이 한 삼분의 일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 저 물 끓어가면 좁쌀 넣어 가지고 그저 익히면 되는데, 보리쌀은 미리부터 넣어 가지고 막 물 끓여서 짐 들여 놔서 그 끝에 밥이 풀풀하게 하기 위해서 좁쌀을 그 위에 놓지요. 좁쌀까지 넣어서 저으면 밥이 아주 풀풀해서 되지요.)

103026 @ 게난 그거는 보리쏠에 조 서껑 허는 거고.(그러니까 그거는 보리쌀에 조 섞어서 하는 거고.)

103026 #1 밥을.(밥을.)

103026 @ 조만으로도 밥을 헐 때 잇지 안 허우꽈?(조만으로도 밥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103026 #1 예, 조만으로 밥을 허는디 그게 저 대개 주식을 보리로 허다가 헌 거니까 조는 저 양이, 생산허는 양이 저 보리보다 적읍주기. 적으니까 막 바쁠 때는 조팝으로도 확 먹을 수 잇어도, 경 아니헐 때는 보리에 조에 서껑 먹어야 밥이 저 맛도 좋고예.(예, 조만으로 밥을 하는데 그게 저 대개 주식을 보리로 하다가 한 거니까 조는 저 양이, 생산하는 양이 저 보리보다 적습지요. 적으니까 아주 바쁠 때는 조밥으로도 확 먹을 수 있어도, 그렇게 아니할 때는 보리에 조에 섞어서 먹어야 밥이 저 맛도 좋고요.)

103026 @ 보통 서껑 먹엇구나예?(보통 섞어서 먹었구나예?)

103026 #1 예.(예.)

103026 @ 여긴 조가 모엿수가? 아니면?(여긴 조가 차졌습니까? 아니면?)

103026 #1 아, 그 여긴 좁쏠은 조가 흐린조 잇고 모읜조 잇고, 또 개발시리[91]가 이십주기. 서너 가지 조가 이서신디, 여기는 대개 흐렷수다. 왜 그런고 허면 모읜조 ᄀᆞ뜬 것은 여기 흐린조가 남군이나 저 산간에 강 갈면 또 모여집니다.(아, 그 여긴

91) '개발시리'는 이삭의 끝이 개의 발같이 세 가닥이고 쌀알이 거무스름한 차진 조의 한가지이다.

좁쌀은 조가 차조 있고 메조 있고, 또 '개발시리'가 있습지요. 서너 가지 조가 있었는데, 여기는 대개 차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메조 같은 것은 여기 차조가 남군이나 저 산간에 가서 갈면 또 메집니다.)

103026 @ 땅에 따라서?(땅에 따라서?)

103026 #1 예, 땅에 따라서, 게서 그 씨나 모윈조 씨덜이 잇긴 잇뒈 그 지형적으로 그 춤 개탕시가 강북 가민 귤이 뒈는 식으로 그런 격으로 조는 뭽니다게.(예, 땅에 따라서, 그래서 그 씨나 메조 씨들이 있긴 있되 그 지형적으로 그 참 탱자가 강북 가면 귤이 되는 식으로 그런 격으로 조는 됩니다.)

103026 @ 게난 여기는 조가 모이는 디?(그러니까 여기는 조가 메지는 데?)

103026 #1 아니우다. 흐렁, 흐렁.(아닙니다. 차져서, 차져서.)

103026 @ 흐렁, 흐리는디 딴 디 남군 쪽으로 강.(차져서, 차지는데 딴 데 남군 쪽으로 가서.)

103026 #1 거기 가면 더 모여집니다.(거기 가면 더 메집니다.)

103026 @ 모여져불고.(메져버리고.)

103026 #1 이디서도 대림[92] 일대 땅에서는 거의가 조가 좋으니까 많이 허고, 그 웨에는 여름에 저 콩도 갈곡, 풋도 갈곡, 녹디도 갈곡 이렇게 헤십주.(여기서도 대림리 일대 땅에서는 거의가 조가 좋으니까 많이 하고, 그 외에는 여름에 저 콩도 갈고, 팥도 갈고, 녹두도 갈고 했습지요.)

103026 @ 음, 조가 잘 안 뒈니까.(음, 조가 잘 안 되니까.)

103026 #1 예. 많이 나질 안 허여마씨. 또 여름 농사, 조, 콩, 녹두, 팟, 또 심지어 아주 좋은 밧 ᄀᆞ뜬 디는 질쌈헐 때는 그 멘네 이런 것도 갈앗수다.(예. 많이 나질 안 해요. 또 여름 농사, 조, 콩, 녹두, 팥, 또 심지어 아주 좋은 밭 같은 데는 길쌈할 때는 그 면화 이런 것도 갈았습니다.)

103026 @ 조는 종류가 어떤 것덜이 잇수가?(조는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26 #1 개발시리라 헤 가지고 흐린조허고 뚜로 모인 거허고.('개발시리'라 해 가지고 차조하고 또 메진 거하고.)

103026 @ 모인 건 뭐렌 헤낫수가?(메진 건 뭐라고 했었습니까?)

103026 #1 건 강돌와리[93].(건 '강돌와리'.)

103026 @ 강돌와리?('강돌와리'?)

103026 #1 예.(예.)

103026 @ 다른 이름 뭐 셍각나는 건 엇수가?(다른 이름 뭐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103001 #1 다른 이름은 엇고, 그 두 가지 셍각남수다.(다른 이름은 없고, 그 두 가지 생각나고 있습니다.)

---

92) '대림'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이다.

93) '강돌와리'는 쌀알이 노랗고 메진 조의 한가지이다.

103026 @ 모인 거는?(메진 거는?)

103026 #1 강돌와리.(‘강돌와리’.)

103026 @ 흐린 거는?(차진 거는?)

103026 #1 개발시리.(‘개발시리’.)

103026 @ 개발시리, 그 고고리가 모양이 달라낫수가?(‘개발시리’, 그 이삭이 모양이 달랐습니까?)

103026 #1 아니, 고고리는 건즘 같읍니다만은 좋은 밧디 헌 것은 개발시리옌 헌 것이 아주 고고리가 컷수다게, 이만씩. 허곡 또 강돌와리옌 헌 건 뚜로 줄곡.(아니, 이삭은 거의 같습니다만 좋은 밭에 한 것은 ‘개발시리’라고 한 것이 아주 이삭이 컸습니다, 이만큼씩. 하고 또 ‘강돌와리’라고 한 건 또 잘고.)

103026 @ 이 조밥도 모인 거는 밥을 헤 보면 영 메지는디.(이 조밥도 메진 거는 밥을 해 보면 이렇게 메지는데.)

103026 #1 예.(예.)

103026 @ 흐린 거는 막 게살게살[94] 헙니까?(차진 거는 아주 ‘게살게살’ 합니까?)

103026 #1 아니, 모인 것이 게살게살헙주.(아니, 메진 것이 ‘게살게살’하지.)

103026 @ 예, 모인 것이 게살게살허고예. 하하하.(웃음) 모인 것이 게살게살허고, 흐린 게 찰지고.(예, 메진 것이 ‘게살게살’하고요. 하하하.(웃음) 메진 것이 ‘게살게살’하고, 차진 게 찰지고.)

103026 #1 예, 아주 기름기 잇고 빈직빈직허고 찰지고.(예, 아주 기름기 있고 반작반작하고 찰지고.)

103026 @ 찰지고예. 근데 두 가지가 고고리 때부떠 색깔이 ᄒᆞ끔 다르지예?(찰지고요. 근데 두 가지가 이삭 때부터 색깔이 조금 다르지요?)

103026 #1 예, 예, 다릅니다.(예, 예, 다릅니다.)

103026 @ 고고리 때부떠.(이삭 때부터.)

103026 #1 대도 뚜납니다.(대도 다릅니다.)

103027 @ 대도 다르고예, 조찝으론 뭐 헷수가?(대도 다르고요, 조짚으로 뭐 했습니까?)

103027 #1 조찝은 다 쉐, 물 사료마씨.(조짚은 다 소, 말 사료요.)

103027 @ 사료로, 그 웨 땔감은 안 허고?(사료로, 그 외 땔감은 안 하고?)

103027 #1 예.(예.)

103027 @ 사료로예.(사료로.)

103027 #1 땔감도 뭐냐, 지들케가 엇이민 쉐 먹당 남은 거, 쉐, 물 먹당 남은 거, 말째라 가니까 뚜로 그걸 썰어가지고 사료로 먹여낫수다만은, 거 옛날은 조집 줭 내불믄 입이 건 쉐는 둥글어가지고 걸 먹는 디, 입이 매 ᄀᆞ뜬 쉐덜은 이파리만 톡톡 다듬앙 먹엉 내붑니다게. 게믄 그걸로도 저 땔감 써십주.(땔감도 뭐냐, 땔감이

94) ‘게살게살’은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나 밥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메진 모양이다.

없으면 소 먹다가 남은 거, 말제라가니까 또 그걸 썰어가지고 사료로 먹였습니다만, 거 옛날은 조짚 줘서 내버리면 입이 건 소는 둥글어가지고 걸 먹는 데, 입이 매 같은 소들은 잎사귀만 톡톡 다듬어서 먹어서 내버립니다. 그러면 그걸로도 저 뗄감 썼습지요.)

103027 @ 게난 쉐들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헤 불엇구나예.(그러니까 소들도 먹을 거, 안 먹을 거 구분해 버렸구나.)

103027 #1 예.(예.)

103028 @ 하하하,(웃음) 그 조농사 옛날에 헤낫주만은 뭐 생각나는 거 골아줍서.(하하하,(웃음) 그 조농사 옛날에 했었지만 뭐 생각나는 거 말해주십시오.)

103028 #1 그 가장 더웁주기. 더울 때, 가장 더울 때니까 쉐도 괴롭고 사름도 괴롭고, 걸 조농사 곧 끗나면, 콩이 조농사보다 ᄒᆞ끔 미릇 갑니다. 콩 앚으면 그런 디 강 김도 메고 뚜로 일허다 보면 한걸 안 헙주게.(그 가장 덥지요. 더울 때, 가장 더울 때니까 소도 괴롭고 사람도 괴롭고, 걸 조농사 곧 끝나면, 콩이 조농사보다 조금 미리 갑니다. 콩 앉으면 그런 데 가서 김도 매고 또 일하다 보면 한가 안 하지요.)

103028 @ 조팟 검질 멜 때가 제일 힘들고.(조밭 김맬 때가 제일 힘들고.)

103028 #1 겐디 것이 보통 검질 ᄀᆞ뜬 것은 여자들이 많이 메고, 남자덜은 솟 거념이나 허곡.(그런데 것이 보통 김 같은 것은 여자들이 많이 매고, 남자들은 소 돌보기나 하고.)

103028 @ 소 거념?(소 돌보기?)

103028 #1 예, 쉐, ᄆᆞᆯ 거념이나 허고.(예, 소, 말 돌보기나 하고.)

103028 @ 쉐 거념허고.(소 돌보기하고.)

103028 #1 예. 게서 그 소덜토 대개 칠월 중순이 뒈면은 농사가 다 끗나믄 저 목장에 올라갑주게, 것덜 번 쳐가지고. 돈 잇는 사름은 뚠 사름안티 저 봐 달라고 허영 보리 닷말만 주면은 여름 봐줘마씨.(예. 그래서 그 소들도 대개 칠월 중순이 되면은 농사가 다 끝나면 저 목장에 올라가지요, 것들 번 쳐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딴 사람한테 저 봐 달라고 해서 보리 닷 말만 주면은 여름 봐줘요.)

103028 아, 게믄 다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아, 그러면 다 개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103028 #1 예.(예.)

103028 @ 번 헤가지고 허기도 허고.(번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103028 #1 번쉐로 보는 사름덜도 잇곡, 쪼금 돈 잇는 사름덜이라든지 곡석을 많이 헌 사름은 그 놉 빌엉 헤근에 보리로 대엿 말, 다섯 말 내지 ᄋᆞᆺ 말을 줍주 뭐. 두 ᄃᆞᆯ간 멕이는 걸로마씨.('번쉐'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곡식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놉 빌어서 해서 보리로 대여섯 말, 다섯 말 내지 여섯 말을 주지요 뭐. 두 달간 먹이는 걸로요.)

103028 @ 게면 요 사름네 쉐 잇고, 잘 사는 사름이 봐 주는 쿰으로 보리 ᄒᆞᆫ 댓

말쯤 주멍 요 쉐 ᄒᆞ끔 번, 두 ᄃᆞᆯ 동안 봐 ᄃᆞ라, 나가 그걸 이껑 강은에 그디 강 멕이곡 헌 말입주양?(그러면 요 사람네 소 있고, 잘 사는 사람이 봐 주는 쿰으로 보리 한 닷 말쯤 주면서 요 소 조금 번, 두 달 동안 봐 달라, 내가 그걸 이끌어서 가서 거기 가서 먹이고 한 말이지요?)

103028 #1 예, 건 다 이디 가까운 디서가 아니고 여름철이면 저 광평[95]이라든지 솔도[96] 이디 사름덜이 멕여주겟다고 허멍 찾아옵니다. 게믄 그 사름덜 소덜 멕여난 끗데 ᄄᆞ로 쉐, ᄆᆞᆯ ᄆᆞᆯ아왕은에 쿰 받곡, ᄊᆞᆯ로 받곡. 그렌 그저 너미 그 저 광평이라든지 솔도렌 보리 ᄀᆞ뜬 것도 아이 뒈곡, 조도 아이 뒈고, 단 콩, ᄑᆞᆺ벳기 아이 뒙주기. 콩, ᄑᆞᆺ허고 ᄆᆞ멀, 거기는 ᄆᆞ멀 정도 헤십주.(예, 건 다 여기 가까운 데서가 아니고 여름철이면 저 '광평'이라든지 '솔도' 여기 사람들이 먹여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소들 먹였던 끝에 따로 소, 말 몰아와서 품 받고, 쌀로 받고. 그리로는 그저 너무 그 저 '광평'이라든지 '솔도'로는 보리 같은 것도 아니 되고, 조도 아니 되고, 단 콩, 팥밖에 아니 되지요. 콩, 팥하고 메밀, 거기는 메밀 정도 했습지요.)

103028 @ 감저, 고구마는 안 헤신가마씨?(고구마, 고구마는 안 했는가요?)

103028 #1 아, 고구마는 거기 헷수다.(아, 고구마는 거기 했습니다.)

103028 @ 게난 그 사름덜은 주식 보리가 필요허니까, 이 보리 ᄒᆞᆫ 댓 말, 보리 왕 아져가곡, 대신 두어 ᄃᆞᆯ 쉐 봐 주곡, 쉐 ᄆᆞᆯ앙 강 웃드르[97] 강은에예.(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주식 보리가 필요하니까, 이 보리 한 닷 말, 보리 와서 가져가고, 대신 두어 달 소 봐 주고, 소 몰아서 가서 '웃드르' 가서요.)

103028 #1 예, 예.(예, 예.)

콩농사

103029 @ 이젠 콩에 대허영 물어보쿠다예. 콩 농사 허젠 허믄 어떤 준비를 헤낫수가?(이젠 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콩 농사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를 했었습니까?)

103029 #1 콩은 종류가 ᄋᆞ라 가집주. 저, 이딘 저 표준말로는 다 ᄀᆞᆫ지 못허쿠다만은 겨울에 가는 것은 보리콩이라고 헤 가지고 우리 저 눌굽에 잇수다만은, 보리콩이 잇는 것이고, ᄄᆞ시 두부콩이 잇는 거고, ᄄᆞ로 저 메주콩이 잇고, 검은콩이 잇고 ᄒᆞᆫ 다섯 가지로 구분이 뒙니다. 게서 겨울에 싱그는 것은 보리 갈 때 싱그는 건데 보리 갈 때라든지 보리 갈기 ᄒᆞᆫ 일 개월 전에 건 저 싱그는 건 보리콩이라고 헤 가지고 먹곡, ᄄᆞ로 떡 시루에 놓는 용으로 보리콩을 갈아낫수다.(콩은 종류가 여러 가지지요. 저, 여기는 저 표준말로는 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겨울에 가는 것은 완두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저 '눌굽'에 있습니다만, 완두콩이 있는 것이고, 또 두

95) '광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이다.
96) '솔도'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경에 있는 화전마을이다.
97)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부콩이 있는 거고, 또 저 메주콩이 있고, 검은콩이 있고 한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심는 것은 보리 갈 때 심는 건데 보리 갈 때라든지 보리 갈기 한 일 개월 전에 건 저 심는 건 완두콩이라고 해 가지고 먹고, 또 떡 시루에 넣는 용으로 완두콩을 갈았었습니다.)

103029 @ 그 수확은 지금 헙니까?(그 수확은 지금 합니까?)

103029 #1 지금 많이 허고, 보리 익을 때 헙니다. 앞으로 혼 일 개월 뒈믄 익읍니다. 게서 저런 것을 보리콩이라 허고. 또 두부콩이란 것도 역시 봄에 혼 사월달쯤 뒈면은 그 번허기에 나 가지고, 거 완두콩이엔 헷다가, 저 표준어로는예, 그걸 또 좀 싱그고 그 웨에는 뚜로 메주콩이라 헤 가지고.(지금 많이 하고, 보리 익을 때 합니다. 앞으로 한 일 개월 되면 익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을 완두콩이라 하고. 또 두부콩이란 것도 역시 봄에 한 사월쯤 되면은 그 애벌갈이에 나 가지고, 거 완두콩이라고 했다가, 저 표준어로는요, 그걸 또 좀 심고 그 외에는 따로 메주콩이라 해 가지고.)

103029 @ 메주 당그는 거.(메주 담는 거.)

103029 #1 예, 그 콩이 이십주게. 게서 그것도 역시 홁은 콩, 즘진 콩 헤 가지고 혼 다섯 가지가 잇는디예, 그 콩 갈 때는 저 큰 비료라든지 뭣이 엇고 인력이 엇언 수월헙주. 검질 멤도 쉽곡 뚜로 역시 검불 아니헤도 그대로 자라고.(예, 그 콩이 있습지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굵은 콩, 잔 콩 해 가지고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그 콩 갈 때는 저 큰 비료라든지 뭣이 없고 인력이 없어서 수월하지요. 김매기도 쉽고, 따로 역시 검불 안 해도 그대로 자라고.)

103030 @ 게믄 보리콩은 보리 갈 때 ᄀᆞ찌 가는 거고, 나머지 콩은 언제 갈아?(그러면 완두콩은 보리 갈 때 같이 거고, 나머지 콩은 언제 갈아?)

103030 #1 나머지 콩은 거저 완두콩이라 헤 가지고 사월달에 그냥 번헌 디라든지 그 하나썩 싱경 놔두면은 올아가지고. 으름이도 먹고 경 헙주게. 그건 것이 잇고, 또 이 철에 유월 하순부떠 칠월 초순ᄁᆞ지 가는 것은 그 장콩도, 메주콩도 허고 뚜로 그 저 허는 겁주.(나머지 콩은 거저 완두콩이라 해 가지고 사월에 그냥 애벌갈이한 데라든지 그 하나씩 심어서 놔두면은 열어가지고. 여름에도 먹고 그렇게 하지요. 그건 것이 있고, 또 이 철에 유월 하순부터 칠월 초순까지 가는 것은 그 장콩도, 메주콩도 하고 또 그 저 하는 거지요.)

103030 @ 두부콩.(두부콩.)

103030 #1 예, 게서 그것이 뭣이냐 허믄.(예, 그래서 그것이 뭣이냐 하면.)

103030 @ 두부콩은 뭘 헷수가?(두부콩은 뭘 했습니까?)

103030 #1 두부콩은 그거 가는 과정도 그대로 밧디 가 가지고 그냥 콩을 유월 하순으로부떠 칠월 초순ᄁᆞ지 갈믄, 그것은 그자 그냥 콩이라고 헤 가지고 밧디 가서 삭삭 뿌려가지고 영 섬피질 싹 헹 놔뒀다가 헹 싱그고, 이 저 보리콩은 이 저 우잣 ᄀᆞ뜬 디라도 손으로 영 헹 겨울철에 싱그는 거고, 또 그저 콩의 종류로서는 아까ᄀᆞ치 두부콩도, 메주콩도 허고, 두부용으로 나오고, 것도 이 세 가지가 셔마씨.

즘진 콩, 홁은 콩 헤 가지고, 게서 그 즘진 것은 두부용으로 나가고 또 홁은 것은 메주콩으로 나가고.(두부콩은 그거 가는 과정도 그대로 밭에 가 가지고 그냥 콩을 유월 하순으로부터 칠월 초순까지 갈면, 그것은 그저 그냥 콩이라고 해 가지고 밭에 가서 삭삭 뿌려가지고 이렇게 끙게질 싹 해서 놔뒀다가 해서 심고, 이 저 완두콩은 이 저 터앝 같은 데라도 손으로 이렇게 해서 겨울철에 심는 거고, 또 그저 콩의 종류로서는 아까같이 두부콩도, 메주콩도 하고, 두부용으로 나오고, 것도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잔 콩, 굵은 콩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잔 것은 두부용으로 나가고, 또 굵은 것은 메주콩으로 나가고.)

103030 @ 아, 두불콩이 아니라 두부콩?(아, '두불콩'이 아니라 두부콩?)

103030 #1 예.(예.)

103030 @ 두부 허는 두부콩?(두부 하는 두부콩?)

103030 #1 예, 예. 겨고 뜨로 메주용으로 나가는 것은 집이서 뜨로 밥헐 때도 가치 서껑 먹읍주게. 보리쏠이라든지 좁쏠 놀 때.(예, 예. 그리고 또 메주용으로 나가는 것은 집에서 따로 밥할 때도 같이 섞어서 먹습지요. 보리쌀이라든지 좁쌀 넣을 때.)

103030 @ 콩밥으로예. 콩밥으로.(콩밥으로요. 콩밥으로.)

103030 #1 게서, 경헌디 인력이 이건 콩 가는 것은 조 가는 것보단도 더 수월헙주기. 건 뜨로 웃드리 화전밧디 싱거도 뒈고, 콩은.(그래서, 그런데 인력이 이건 콩 가는 것은 조 가는 것보다도 더 수월하지요. 건 따로 '웃드리' 화전에 심어도 되고, 콩은.)

103030 @ 화전밧디도 뒈고예.(화전에도 되고요.)

103030 #1 그건 가는 과정은 그러고 빌 때는 손으로 저, 옛날엔 앚아가지고 꺼꺼십주.(그건 가는 과정은 그러고 벨 때는 손으로 저, 옛날엔 앉아가지고 꺾었습지요.)

103030 @ 꺼꺼?(꺾어?)

103030 #1 예, 꺼껑, 꺼꺼가지고 걸 뜨로 무껑 집의 와 가지고 그걸 도리께 헹 장만허고.(예, 꺾어서, 꺾어가지고 걸 따로 묶어서 집에 와 가지고 그걸 도리깨 해서 장만하고.)

103030 @ 맞수다게. 콩 타작도 헤나십주.(맞습니다. 콩 타작도 했었지요.)

103030 #1 도리께로 장만헹, 나머지 저 이런 보리콩이라든지 뭣은 손으로 일일이 앚앙 깡 먹곡, 겐디 그 저 도께로 장만헌 콩도 역시, 저 그 장만헷다가 대는 사료용으로 쓰곡, 그 각지, 각지도 역시 사료용으로 허는디 쉐덜이 아주 반깁니다.(도리깨로 장만해서, 나머지 저 이런 완두콩이라든지 뭣은 손으로 일일이 앉아서 까서 먹고, 그런데 그 저 도리깨로 장만한 콩도 역시, 저 그 장만했다가 대는 사료용으로 쓰고, 그 깍지, 깍지도 역시 사료용으로 하는데 소들이 아주 반깁니다.)

103030 @ 잘 먹고, 그 콩ᄂᆞᆯ 허는 콩은 어떤 콩으로?(잘 먹고, 그 콩나물 하는 콩은 어떤 콩으로?)

103030 #1 거 저 여기선 그자 뭣고 지름콩 지름콩 헙니다. 씨가 좀 줄아마씨.(거 저 여기선 그저 뭣인가 주름콩[98], 주름콩 헙니다. 씨가 좀 잘아요.)

103030 @ 줄아? 줄아. 거는 게난 보리콩이 아니라 그냥 주름콩.(잘아? 잘아. 거는 그러니까 완두콩이 아니라 그냥 '주름콩'.)

103030 #1 예, 예. 주름콩, 주름콩.(예, 예. '주름콩', '주름콩'.)

103030 @ 콩주름 허는 거예?(콩나물 하는 거요?)

103030 #1 예, 예.(예, 예.)

103030 @ 주름콩, 두부콩, 주름콩, 메주콩, 다 구분은 헤낫구나.('주름콩', 두부콩, '주름콩', 메주콩, 다 구분은 했었구나.)

103030 #1 예. 겐 가는 시기도 쪼금 뚜나고.(예. 그래서 가는 시기도 조금 다르고.)

103030 @ 뚜나고예, 게믄 시기적으로 보리콩은 보리 갈 때, 두부콩이나.(다르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완두콩은 보리 갈 때, 두부콩이나.)

103030 #1 것은 사월에. 뚜로 이제 두부콩이라든지 홁은 콩은 유월 하순부떠 헤 가지고 칠월 초싱에.(것은 사월에. 또 이제 두부콩이라든지 굵은 콩은 유월 하순부터 해 가지고 칠월 초승에.)

103030 @ 칠월 초순에. 그게 그럼 수확은, 수확도 다 다른 시기가 뒈겟네.(칠월 초순에. 그게 그럼 수확은, 수확도 다 다른 시기가 되겠네.)

103030 #1 경헌디 그거 보통 겨울에 가는 거라든지 봄에 싱그는 것은 아주 수량이 족고 건 그자 먹을 정도로만 허고 뚜로 그 가을에, 여름에 가는 것은 많이 헤 가지고 그걸 팔면은 사다가 그 사름덜이, 업자덜이 사당 보리콩도 허고 메주콩도 허고.(그런데 그거 보통 겨울에 가는 거라든지 봄에 심는 것은 아주 수량이 적고 건 그저 먹을 정도로만 하고 따로 그 가을에, 여름에 가는 것은 많이 해 가지고 그걸 팔면은 사다가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사다가 완두콩도 하고 메주콩도 하고.)

103030 @ 여름에 허는 건 보리그르에 허는 거구나예?(여름에 하는 건 보리그루에 하는 거군요?)

103030 #1 예, 예. 보리그르에도 허는 디도 허고.(예, 예. 보리그루에도 하는 데도 하고.)

103030 @ 번헌 디도 허고예?(애벌갈이한 데도 하고요?)

103030 #1 예.(예.)

1030310 @ 번헌 거는 흔 해씩 쉬엇당 허는 거?(애벌갈이한 거는 한 해씩 쉬었다가 하는 거?)

103030 #1 밧을 번헌다는 것은 그 비료가 없으니까 계속헤 가믄 아이 뒈난 땅을 놀렁 놔두는 거, 농사가 잘뒌다 이겁주. 경 헹 번헹 놔두고.(밭을 애벌갈이한다는 것은 그 비료가 없으니까 계속해 가면 아니 되니까 땅을 놀려서 놔두는 거, 농사가 잘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애벌갈이해서 놔두고.)

98) '주름콩'은 콩나물을 만드는 콩을 일컫는 것 같다.

103031 @ 콩밧 걸름은 안 헤낫수가?(콩밭 거름은 안 했었습니까?)

103031 #1 콩밧 걸름은 그 보리라든지 뚠 것에 비료 써 가지고 허니까 그냥 헷수다.(콩밭 거름은 그 보리라든지 딴 것에 비료 써 가지고 하니까 그냥 했습니다.)

103031 @ 그냥?(그냥?)

103031 #1 게다가 이 저 비료가 나왓던 것이 일제시대 조끔 주다가 그다음 해방뒈니까 그 나오면은 그 반별썩 다 뿌려 가지고 멧 평에 얼마 아이 나와십주. 게믄 그 장ᄉᆞ꾼덜은양 어떵사 구입헷는지 비료 뎅이면서 풀곡, 이 일반 농민덜은 자기 땅 면적에 따라 가지고 할당 받앙 허곡, 게믄 할당은 뭐냐 허믄 불합격허면은 이장허고 서기가 놈 부친 것덜 다, 집집마다 멧 평짜리 멧 평짜리 전부 계산혜 뒷다가 그 절기에 따라 비료 나오면 걸 다 분배를 헤십주.(그러다가 이 저 비료가 나왔던 것이 일제강점기 조금 주다가 그다음 해방되니까 그 나오면 그 반별씩 다 뿌려 가지고 몇 평에 얼마 아니 나왔습지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은요 어떻게야 구입했는지 비료 다니면서 팔고, 이 일반 농민들은 자기 땅 면적에 따라 가지고 할당받아서 하고, 그러면 할당은 뭐냐 하면 불합격하면은 이장하고 서기가 남 붙인 것들 다, 집집마다 몇 평짜리 몇 평짜리 전부 계산해 뒀다가 그 절기에 따라 비료 나오면 걸 다 분배를 했습지요.)

103031 @ 배급을 그렇게 헷구나예, 자기네 땅 가진 것만큼만.(배급을 그렇게 했구나, 자기네 땅 가진 것만큼만.)

103032 #1 겐 비료가 나온 끗데부떠는 농사가 할만 헤십주.(그래서 비료가 나온 끝에부터는 농사가 할만 했습지요.)

103031 @ 그거는 배급헐 때 다 돈 받은 거 아니라예?(그거는 배급할 때 다 돈 받은 거 아니지요?)

103032 #1 예, 예. 걸로 돈 받안 사다 놘도 버치난 그 야미 비료를 가서 사당도 써십주게.(예, 예. 걸로 돈 받아서 사다 놔서도 부치니까 그 암거래 비료를 가서 사다가도 썼습지요.)

103031 @ 야미로예. 그렇게 비료를 경 헨 마련헤낫구나예.(암거래로요. 그렇게 비료를 그렇게 해서 마련했었구나.)

103031 #1 글쎄 이 비료가 자유 판매뒐 때부떠는 농부덜이 아주 펜안허고, 아주 좋앗수다.(글쎄 이 비료가 자유 판매될 때부터는 농부들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103032 @ 콩씨는 어떵 뿌려낫수가?(콩씨앗은 어떻게 뿌렸었습니까?)

103032 #1 건 산파로, 산파로 다 뿌립니다, 그냥. 여름에 허는 것은 멩텡이에 씨 놩 뎅이멍 그자 걸어가멍 삭삭 뿌렷십주.(건 산파로, 산파로 다 뿌립니다, 그냥. 여름에 하는 것은 망태기에 씨 넣어서 다니면서 그저 걸어가면서 삭삭 뿌렸습지요.)

103032 @ 그 전이 밧 갈고예.(그 전에 밭 갈고요.)

103032 #1 예, 밧 갈앙 끗데 뿌령 그거 섬피질허영.(예, 밭 갈아서 끝에 뿌려서 그거 끙게질해서.)

103032 @ 아아, 밧을 갈앙 뿌렁, 섬피질예?(아아, 밭을 갈아서 뿌려서, 끙게질요?)

103032 #1 예, 예. 게난 그 밧 가는 것이, 그것이 어려웁주게. 밧 갈곡, 밧 갈당 쉐 쉬와뒁 섬피질허고 뚜로 저.(예, 예. 그러니까 그 밭 가는 것이, 그것이 어렵지요. 밭 갈고, 밭 갈다가 소 쉬어두고서 끙게질하고 따로 저.)

103032 @ 게난 밧 갈멍서라 씨도 산파헷구나?(그러니까 밭 갈면서 씨도 산파했구나?)

103032 #1 아니, 밧 갈아놩, 밧 가는 조롬에 부인이 씨 뿌리지 않은 사름은 밧 가는 조롬에 뿌리고, 씨 못 뿌린 사름이 하마씨. 여자나 남자나, 저 못 뿌린 사름은 뚜로 쉐로 밧 갈당 그자 벡 펭쯤 내지 이벡 펭쯤 갈민 딱 쉐를 쉬와삽주게. 버청 못 갈앙, 사름도 쉬곡, 쉐를 쉬곡 헹은에, 쉴 때는 남자덜 쉬는 사름은 씨를 뿌리곡, 뚜로 비료 난 끗데는 비료도 주곡, 거 이제 다 버청 못헐 거니까 여자가 섬피질도 허고, 그레 가지고 춤 밧디 가믄 앚앙 놀 시간이 엇입주게.(아니, 밭 갈아놔서, 밭 가는 뒤에 부인이 씨 뿌리지 않은 사람은 밭 가는 뒤에 뿌리고, 씨 못 뿌린 사람이 많아요. 여자나 남자나, 저 못 뿌린 사람은 또 소로 밭 갈다가 그저 백 평쯤 내지 이백 평쯤 갈면 딱 소를 쉬게 해야지요. 부쳐서 못 갈아서, 사람도 쉬고, 소를 쉬게 해서, 쉴 때는 남자들 쉬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또 비료 난 끝에는 비료도 주고, 거 이제 다 부쳐서 못할 거니까 여자가 끙게질도 하고, 그래 가지고 참 밭에 가면 앉아서 놀 시간이 없습지요.)

103033 @ 섬피질까지예. 이 콩밧 검질은 어떵 멥니까?(끙게질까지요. 이 콩밭 김은 어떻게 맵니까?)

103033 #1 콩밧 검질은 혼번만 메민 뒙니다.(콩밭 김은 한번만 매면 됩니다.)

103033 @ 혼번만 메어예.(한번만 매어요.)

103033 #1 예, 예.(예, 예.)

103033 @ 언제 멥니까?(언제 맵니까?)

103033 #1 혼번 거는 칠월에 칠월 초순까지 갈면 칠월 하순부떠 팔월 중순끄지 콩밧 검질멥니다.(한번 거는 칠월에 칠월 초순까지 갈면 칠월 하순부터 팔월 중순까지 콩밭 김맵니다.)

103034 @ 콩밧 검질은 어떤 것들이 잇어낫수가?(콩밭 김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3034 #1 검질은 저 뭣고 제안지.(김은 저 뭣인가 바랭이.)

103034 @ 제안지예?(바랭이요?)

103034 #1 제안지라고 허여 가지고 그거 많이 낫고, 그자 그 제안지 풀이 제일 많이 낫수다.(바랭이라고 하여 가지고 그거 많이 났고, 그저 그 바랭이 풀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103034 @ 제안지 풀이예?(바랭이 풀요?)

103034 #1 예, 그리고 콩은 웃드리끄지도 뒙니다.(예, 그리고 콩은 '웃드리'까지

도 됩니다.)

103035 @ 그 콩은 수확허는 때가 언제?(그 콩은 수확하는 때가 언제?)

103035 #1 수확헐 때가 거 저 상강 전이 헙니다.(수확할 때가 거 저 상강 전에 합니다.)

103035 @ 상강 전이예, 상강 전이 비어 가지고, 경 헹 무껑.(상강 전에요, 상강 전에 베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묶어서.)

103035 #1 무껑 시껑, 쉐, 쉐에 시끄곡, 사름이 졍 왕 뜨로 그 가을엔 바쁘니까, 보리 갈아뒁, 저 어디 잘 데며뒷당양. 보리 갈아 뒁 마당이서 보리그르에 장만헙니다. 그래서 보리그르에 장만허다가 이제 저 뭐고, 콤바인 나온 지가 멧 헤 뒈질 안 헷수다. 그걸로 허믄 밧데기로 그자 장만허여지면 콩만 건져내지면 다.(묶어서 실어서, 소, 소에 싣고, 사람이 져서 와서 따로 그 가을엔 바쁘니까, 보리 갈아둬서, 저 어디 잘 쌓아뒀다가요. 보리 갈아 둬서 마당에서 보리그루에 장만합니다. 그래서 보리그루에 장만하다가 이제 저 뭐고, 콤바인 나온 지가 몇 해 되질 안 했습니다. 그걸로 하면 밭떼기로 그저 장만하여지면 콩만 건져내지면 다.)

103035 @ 게 콩은, 콩 수확헐 땐 콩은 꺼끈덴 말허는디.(그래 콩은, 콩 수확할 땐 콩은 꺾는다고 말하는데.)

103035 #1 게 꺼끄는 것은 콩이 대가 서니까 그 낫으로만 아니 헤 가지고 저 그 호미, 골겡이, 낫으로도 영 영 밀쳥 영 둥이멍 몽그리민 꺼꺼져마씨. 게난 꺼끈다 꺼끈다 허는 거라마씨.(그래 꺾는 것은 콩의 대가 서니까 그 낫으로만 아니 해 가지고 저 그 호미, 호미, 낫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밀쳐서 이렇게 당기면서 몽글리면 꺾어져요. 그러니까 꺾는다 꺾는다 하는 거지요.)

103035 @ 호미로 안 헹 골겡이로도 허고.(낫으로 안 해서 호미로도 하고.)

103035 #1 골겡이로도 뒈곡 호미로, 그 저 대개 무낀 호미로 많이 헙니다. 호미로 영 꺼끄믄 꺼꺼지니까.(호미로도 되고 낫으로, 그 저 대개 무딘 낫으로 많이 합니다. 낫으로 이렇게 꺾으면 꺾어지니까.)

103035 @ 아, 과짝 몰르니까.(아, 곧게 마르니까.)

103035 #1 예, 예.(예, 예.)

103035 @ 과짝 몰르니까 꺼꺼분다 허는 거구나. 그 왕 도리께질 헐 때는 막 팡팡 튀어불 거 아니우꽈예? 그걸 어떤 식으로.(곧게 마르니까 꺾어버린다 하는 거구나. 그 와서 도리깨질 할 때는 막 팡팡 튀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103035 #1 튀어도 전인 그 저 그런 댓자리가 잇엇수다만 이젠양, 마당에 영 튀는 건 과히 멀리 셔도 가빠라도 둘러치곡, 멍석덜 둘레에 쓰곡.(튀어도 전에는 그 저 그런 돗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이젠요, 마당에 이렇게 튀는 건 과히 멀리 서도 방수포라도 둘러치고, 멍석들 둘레에 쓰고.)

103035 @ 아, 멍석을 영 둘러?(아, 멍석을 이렇게 둘러?)

103035 #1 예, 예.(예, 예.)

103035 @ 그 안에 밖으로 영 둘러가지고.(그 안에 밖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103035 #1 예, 예. 그렇게 둘르기도 허곡, 그렇지 않으면 가빠라든지 비 오라나니까 그렐 쳐 놩 해도 뒈고, 또 하나썩 두 개썩 아이덜신더레, 아이덜이라든지 이거 콩 잘 주시라, 콩. 아이덜 담아졍 허믄. 저 아이덜 학교 갓다 왕 주실 때도 싯곡. (예, 예. 그렇게 두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방수포라든지 비 와나니까 그 곳으로 쳐 놔서 해도 되고, 또 하나씩 두 개씩 아이들 있는 데로, 아이들이라든지 이거 콩 잘 주워라, 콩. 아이들 담아져서 하면. 저 아이들 학교 갔다 와서 주울 때도 있고.)

103035 @ 콩 튀믄 막 어디꼬지 날라간덴 헤신디.(콩 튀면 마구 어디까지 나라간다고 했는데.)

103035 #1 게난 그 콩은 두드리멍 멀리 튀니까 콩방울은 사둔칩이 간덴 허영은에. 허허허.(웃음)(그러니까 그 콩은 두드리면서 멀리 튀니까 콩알은 사돈집에 간다고 해서. 허허허.(웃음))

103035 @ 콩방울은 사돈칩이꼬장 간덴.(콩알은 사돈집에까지 간다고.)

103035 #1 예, 튀니까.(예, 튀니까.)

103035 @ 튀니까예.(튀니까.)

103035 #1 그런 속담이 이십주.(그런 속담이 있습지요.)

103036 @ 거 이제 아까 헷주만은 콩으로는 여러 가지 허는 거 닮은디 뭘 헤 먹기도 허고 뭐?(거 이제 아까 했지만은 콩으로는 여러 가지 하는 거 같은데 뭘 해 먹기도 하고 뭐?)

103036 #1 두부도 허고, 메주콩도 허고, 볶아도 먹고, 국 끌영도 먹고, 죽 쒕도 먹고예.(두부도 하고, 메주콩도 하고, 볶아도 먹고, 국 끓여서도 먹고, 죽 쒀서도 먹고요.)

103036 @ 가루로 만들앙예, 콩죽 헹 먹고, 콩국도 헹 먹고, 두부도 허고, 메주도 허고, 참 콩이 여러 가지 많이 뭘 헷수다예, 진짜. 장콩은 메주 만들앙 장 허고. 이 콩이 역할이 대단허네예.(가루로 만들어서요, 콩죽 해서 먹고, 콩국도 해서 먹고, 두부도 하고, 메주도 하고, 참 콩이 여러 가지 많이 뭘 했습니다, 진짜. 장콩은 메주 만들어서 장 하고. 이 콩이 역할이 대단하네요.)

103036 #1 예.(예.)

103036 @ 게 콩을 얼마나 하영, 얼마나 갈아낫수가?(그래 콩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갈았었습니까?

103036 #1 그건 어떤 집엔 메주콩이난 그자 자기냥으로 가는 것이 잇고, 그렇게 아니 헤 가지고 허는 사름이 십니다. 저 그 토지가 많은 사름은 ᄒᆞ끔 넙게 갈고, 경 아니헌 사름은 오히려 장콩도 사당 담는 사람도 싯고마씨.(그건 어떤 집엔 메주콩이니까 그저 자기대로 가는 것이 있고, 그렇게 아니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 토지가 많은 사람은 조금 넓게 갈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오히려 장콩도 사다가 담는 사람도 있고요.)

103036 @ 게 어르신네는 콩은 얼마나 장만헤낫수가? (그래 어르신네는 콩은 얼

마나 장만했었습니까?)

103036 #1 우리는 그자 넉넉히 헷수다.(우리는 그저 넉넉히 했습니다.)

103036 @ 게난 집이서 이거 푸는 거 아니고?(그러니까 집에서 이거 파는 거 아니고?)

103036 #1 예.(예.)

103036 @ 이건 집이서 헤 먹는 걸로?(이건 집에서 해 먹는 걸로?)

103036 #1 헤 먹기도 허고 조끔 남은 건 시장이 가서.(해 먹기도 하고 조금 남은 건 시장에 가서.)

103036 @ 풀기도 허고?(팔기도 하고?)

103036 #1 예.(예.)

103037 @ 풀기도 허고예. 그 아까 쉐먹이도 헌 덴 허는디 콩찝은 뭘 헷수가?(팔기도 하고요. 그 아까 소먹이도 한다고 하는 데 콩짚은 뭘 했습니가?)

103037 #1 아, 것도 쉐, 물 사료로 씁니다.(아, 것도 소, 말 사료로 씁니다.)

103037 @ 아, 깍지하고 콩대하고 콩, 콩대지예?(아, 깍지하고 콩대하고 콩, 콩대지요?)

103037 #1 예.(예.)

103037 @ 입은 엇일 거고예. 콩대엔 헙니까?(잎은 없을 거고. 콩대라고 합니까?)

103037 #1 예. 콩꼬질.(예. 콩깍지.)

103037 @ 것이 콩꼬질, 콩꼬질, 콩꼬질. 콩찝으로 헹 그런 것덜, 쉐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것이 콩깍지, 콩깍지, 콩깍지. 콩짚으로 해서 그런 거들, 소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

103037 #1 예, 콩꼬질 잘 먹엇수다게.(예, 콩각지 잘 먹었었습니다.)

103037 @ 그게 잘 먹고예.(그게 잘 먹고요.)

103037 #1 게난 그것을 다 놔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멩텡이에 놔두던지, 잘 놔뎃다가 밧 갈레 갈 때던지 헐 때 그 특별 음식으로 다른 거 ᄀᆞ뜨믄.(그러니까 그것을 다 놔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태기에 놔두던지, 잘 놔뒀다가 밭 갈러 갈 때든지 할 때 그 특별 음식으로 다른 거 같으면.)

103037 @ 아, 쉐안테 주는 거를.(아, 소한테 주는 거를.)

103037 #1 예, 밧 갈레 갈 때.(예, 밭 갈러 갈 때.)

103037 @ 그때 강은에 너 수고헷다 허영 주고.(그때 가서 너 수고했다 해서 주고.)

103037 #1 집이도 밤이 그걸 줘얍주게. 밤이 그 그렇지 않으면은 저 어디 밧 갈레 갈 때나 저 웃드리[99] 밧 갈 때 일헐 땐 쉐 잘 먹어사 헐 거 아니우꽈? 낮이 멕이민 뭐 허고 허난 밤이 걸 멩텡이로 것당 잘 멕여사 뒷날 밧 갈레 갑주, 저 베고팡 허민 밧 갈당도 촐러레도 가곡 경 헙니다게.(집에도 밤에 그걸 줘야지요. 밤에

99)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나 마을이다.

그 그렇지 않으면은 저 어디 밭 갈러 갈 때나 저 '웃드리' 밧 갈 때 소 잘 먹어야 할 거 아닙니까? 낮에 먹이면 뭐 하고 걸 망태기로 갔다가 말 먹여서 뒷날 밭 갈러 가지, 저 배고파서 하면 밭 갈다가 꼴로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103037 @ 게 콩꼬질은 어떵 보관헷수가?(그래 콩깍지는 어떻게 보관했습니까?)

103037 #1 저 멩텡이에도 담아 두곡, 경 안 허면 저 푸대에도 담아 두고.(저 망태기에도 담아 두고, 그렇게 안 하면 저 포대에도 담아 두고.)

103037 @ 눌진 안 허고?(가리진 안 하고?)

103037 #1 눌기꼬진 안 헤도 뒈고.(가리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103037 @ 아, 눌진 안 헤도 뒈고?(아, 쌓기는 안 해도 되고.)

103037 #1 경 눌기꼬지 하영은 헤졈수가게.(그렇게 가리기까지 많이는 해지고 있습니까?)하고

103037 @ 아, 기꽝. 허허허.(웃음) 게난 그 도리께질 다 헤분 거난게 경 하질 안 헐 거우다예.(아 그렇습니까. 허허허.(웃음) 그러니까 도리깨질 다 해버린 거니까 많질 안 할 것입니다.)

103037 #1 예.(예.)

103037 @ 걸름콩이엔 헌 말은 안 들어 봣수가?(거름용 콩이엔 한 말은 안 들어 봤습니까?)

103037 #1 걸름콩이엔 헌 거 싯수다. 걸름콩옌 헌 것은 ᄀᆞ튼 콩은 콩인디 그때 콩이란 게 절기에 따라 가지고 유월 하순으로부떠 칠월에 갈아야 가을 콩은 것이 저 열매가 엽주게. 뚜로 그 걸름콩이엔 헌 것은 오월달에 갈아야.(거름용 콩이라고 한 거 있습니다. 거름용 콩이라고 한 것은 같은 콩은 콩인데 그때 콩이란 게 절기에 따라 가지고 유월 하순부터 칠월에 갈아야 가을 콩은 것이 저 열매가 열지요. 또 그 거름용 콩이라고 한 것은 오월에 갈아야.)

103037 @ 오월달에 갈앙?(오월에 갈아서?)

103037 #1 오월달에 갈면 이건 대만 이렇게 나곡, 콩각진 셔도 거 여물지 안 헙니다.(오월에 갈면 이건 대만 이렇게 나고, 콩까지는 있어도 거 여물지 안 합니다.)

103037 @ 여물질 안 허여?(여물질 않아?)

103037 #1 예, 게서 그것을 비어 가지고 고량에 쑥 끌앙 놔뒀다가 갈아 어펑 놔두면 그 저 퉤비라던지 뭣 아이 놔 줘도 다음 보리밧 이 년꼬진 좋읍니다.(예, 그래서 그것을 베어 가지고 고랑에 쑥 갈아서 놔뒀다가 갈아 엎어서 놔두면 그 저 퇴비라든지 뭣 아니 놔 줘도 다음 보리밭 이 년까지 좋습니다.)

103037 @ 언제쯤에 요거는 빕니까, 그 저 고량에?(언제쯤에 요거는 벱니까, 그 저 고랑에?)

103037 #1 고량에 거 고량에 꼬는 것은 저 그 일반 콩 닮지 아니 헤 가지고 미릇 헙주게, 미릇 싱근 거니깐.(고랑에 거 고랑에 까는 것은 더 그 일반 콩 같지 아니 해 가지고 미리 하지요, 미리 심은 거니까.)

103037 @ 음.(음.)

103037 #1 게난 이것은 저 칠월 하순부떠 팔월 초싱에 해 비엉 놔둡니다. 팔월 초싱에 싹 비어 가지고 열맬 올아도 고량에 싹 꼴앙 놔뒷다가 팔월 내에 뚜로 그걸 갈앙 어퍼붑주.(그러니까 이것은 저 칠월 하순부터 팔월 초승에 거의 베어서 놔둡니다. 팔월 초승에 싹 베어 가지고 열매를 열어도 고랑에 싹 깔아서 놔뒀다가 팔월 내에 또 그걸 갈아서 엎어버리지.)

103037 @ 아, 갈앙 어퍼불고.(아, 갈아서 엎어버리고.)

103037 #1 그렇게 헤야 뚜로 보릴 갈 겁주. 꼴앙은에 팔월에, 팔월이민 다 갑니다.(그렇게 해야 또 보릴 갈 거지. 깔아서 팔월에, 팔월이면 다 갑니다.)

103037 @ 아, 게난 그걸 헌 후제 뭘 갈앗수가?(아, 그러니까 그걸 한 후에 뭘 갈았습니까?)

103037 #1 대게 보리 갈앗수다.(대개 보리 갈았습니다.)

103037 @ 보리 갈안. 그 그르에 보릴 갈앗구나. 게난 그거는.(보리 갈았어. 그 그루에 보릴 갈았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103037 #1 먹진 못허고.(먹진 못하고.)

103037 @ 그 콩을 장만헤사 보릴 갈지만.(그 콩을 장만해야 보릴 갈지만.)

103037 #1 아니, 장만을 헤도 일찍 간 것은, 그렇게 일찍 간 것은 그디 콩이 대만 납주게. 각진 열어도 옴질 안헙니다.(아니, 장만을 해도 일찍 간 것은, 그렇게 일찍 간 것은 거기 대만 나지요. 깍지는 열어도 여물지 않습니다.)

103037 @ 걸름콩은 저 장만허지 않고 그 밧테 그 고량에 놩은에.(거름용 콩은 저 장만하지 않고 그 밭에 그 고랑에 놔서.)

103037 #1 예, 비엉 고량에 꼴앙 놔뒷당 갈아어펑 놔두믄 것에 뚜로.(예, 베어서 고랑에 깔아서 놔뒀다가 갈아엎어서 놔두면 것에 또.)

103037 @ 그게 걸름콩이구나.(그게 거름용 콩이구나.)

103037 #1 예.(예.)

103037 @ 그거는 이제 걸름용이네.(그거는 이제 거름용이네.)

103037 #1 예.(예.)

103037 @ 걸름용.(거름용.)

103037 #1 게난 걸름콩, 걸름콩 허는 거우다. 겐디 이것도 역시 또 잇는 집이서 헙주, 땅 잇는 사름덜, 겐 걸 줄을 알아도 토지가 족은 사름은 허질 못 헙주게.(그러니까 거름용 콩, 거름용 콩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또 있는 집에서 하지, 땅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걸 줄을 알아도 토지가 작은 사람은 하질 못하지요.)

103037 @ 콩찝도 불 솜아낫수가?(콩짚도 불 때었었습니까?)

103037 #1 콩찝은 거의 다 사료로 썻수다, 사료로.(콩짚은 거의 다 사료로 썼습니다, 사료로.)

103037 @ 사료로 많이.(사료로 많이.)

103037 #1 쉐먹이로 이거 반깁주게. 보릿대를 많이 땔감으로 써십주만은.(소먹이로 이거 반기지요. 보릿대를 땔감으로 썼습지만.)

103038 @ 게난 이 콩 농사허멍도 기억이 나는 거 잇수가?(그러니까 이 콩 농사하면서도 기억 나는 거 있습니까?)

103038 #1 콩 농사 허멍 기억이 남는 건 저 가을철이 가근에, 이 철입주게. 아, 이 철이 아니고, 저 누릿누릿헤 가믄 밧디 강 저 불 살롸 콩 궈 먹어낫수다.(콩 농사 하면서 남는 건 저 가을철에 가서, 이 철이지요. 아, 이 철이 아니고, 저 누릇누릇해 가면 밭에 가서 저 불 살려서 콩 구워 먹었었습니다.)

103038 @ 아, 콩을 궈 먹엇구나. 그거 타 가지고예.(아, 콩을 구워 먹었구나. 그거 타 가지고요.)

103038 #1 예. 아, 타는 게 아니고 낭채 비작비작 온 거, 그냥 책 정리헌 거 불 살랑 그레 드리치민 익어가민 낭채 돌린 거 깡 먹고.(예. 아, 타는 게 아니고 나무째 비작비작 연 거, 그냥 책 정리한 거 불 살려서 그리 들이치면 익어가면 나무째 달린 거 까서 먹고.)

103038 @ 게난 그거 언제쯤에 경 헤마씨?(그러니까 그거 언제쯤에 그렇게 해요?)

103038 #1 그건 보통 시월달에 헙니다.(그건 보통 시월에 합니다.)

103038 @ 시월쯤에.(시월쯤에.)

103038 #1 예, 시월, 십일월 경에.(예, 시월, 십일월 경에.)

103038 @ 그때 밧디 가민, 게믄 콩 보깡 먹는 거나 비슷헌 건데예.(그때 밭에 가면, 그러면 콩 볶아서 먹는 거나 비슷한 건데요.)

103038 #1 예, 난 그거 어떤 때 뚜로, 그 젊은 사름덜은 쉐 멕이레쯤 갓다가 밧임제 엇인 때덜 불 살라지민 놈의 밧디 강 흔 멧 낭 메에당 궝 먹고.(예, 난 그거 어떤 때 또, 그 젊은 사람들은 소 먹이러 갔다가 밭 임자 없는 때들 불 사르면 남의 밭에 가서 한 몇 나무 매어다가 궈서 먹고.)

103038 @ 하하하.(웃음) 콩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좋앗구나예.(하하하.(웃음) 콩도 하여간 여러 가지로 쓰임새가 좋았구나.)

밭벼농사

103039 @ 게믄 이제는 여기는 나룩이나 산디 헤낫수가?(그러면 이제는 여기는 벼나 밭벼 했었습니까?)

103039 #1 예, 아, 산디가 육돈디 저 나룩은 허는 사름이 우리 동네에서 흔 서너니 사람 돈 잇는 사람, 저 강정[100] 또는 명월[101]에 가서 헌 것을 직접 자기네냥으로 헌 것이 아니라, 뚠 사름 소작 줭 갈랑 시꺼 나르고, 또 우리 ᄀᆞ튼 사름은 나룩은 없엇고, 그 외에는 나룩 대비 쏠이라든지 이걸 많이 헤 먹어야 헐 거, 쓸 데 뒈면은 저 산디라고 헤 가지고 육도, 육도는 웃드리 강 갈아십주기.(예, 아, 밭벼가 육도인데 저 벼는 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한 서너 사람 돈 없는 사람, 저 강정

100) '강정'은 서귀포시 강정동이다.
101)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이다.

또는 명월에 가서 한 것을 직접 자기네대로 한 것이 아니라, 딴 사람 소작 줘서 갈라서 실어 나르고, 또 우리 같은 사람 벼는 없었고, 그 외에는 벼 대비 쌀이라든지 이걸 많이 해 먹어야 할 거, 쓸 데 되면은 저 밭벼라고 해 가지고 육도, 육도는 '웃드리' 가서 갈았습지요.)

103039 @ 아, 게난 육도렌 말은 뭐우꽈?(아, 그러니까 육도라는 말은 뭐입니까?)

103039 #1 그 산디, 산디를.(그 밭벼, 밭벼를.)

103039 @ 산디.(밭벼.)

103039 #1 산디라도 답이 아니고, ᄆᆞ른 땅에도 뭰다고 헤 가지고.(밭벼라도 답이 아니고, 마른 땅에도 된다고 해 가지고.)

103039 @ 게 ᄆᆞ른 땅에 뒈는 게 산딘데 걸 육도렌 허고. 아, 육도, 땅 육자, 육도구나예.(그래 마른 당에 되는 게 밭벼인데 걸 육도라고 하고. 아, 육도, 땅 육자, 육도구나.)

103039 #1 아, 나 저 한자로 써낫수마는.(아, 나 저 육도로 썼었습니다만.)

103039 @ 육도, 근데 나룩은.(육도, 그런데 벼는.)

103039 #1 나룩은 저 논밧디 나는 거는 수도, ᄆᆞ른 밧디 나는 거는 육도, 이렇게 나룩은 구별허지 안 헙니까게.(벼는 저 논밭에 나는 거는 수도, 마른 밭에 나는 거는 육도, 이렇게 벼는 구별하지 않습니까.)

103039 @ 물에서 나는 건 나룩인데 그건 수도, 그다음에 ᄆᆞ른 밧디 나는 건 육도.(물에서 나는 건 벼인데 그건 수도, 그다음에 마른 밭에 나는 건 육도.)

103039 #1 예.(예.)

103039 @ 그렇게 표현을 헷구나.(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103039 #1 겐디 또 그것은 이디 저 보리 그르에도 뒈긴 헙니다. 뒈긴 허드레도 대게 그 중산간 드르에 가 가지고 산디를 많이 헷는디, 건 어떻게 헷느냐 허면 야산이라든지 땅을 개간헤 가지고 흔 번 갈아 어퍼 가지고 벙뎅일 다 부수와 가지고 ᄄᆞ로 갈앙 ᄄᆞ로 갈곡 헷수다. 시 번 간 끗데 부각헌 땅이라야 ᄆᆞ멀을 갈 겁주기. ᄆᆞ멀 갈아노면 ᄆᆞ멀 그르엔 뒷헤엔 또 그 산디를 갑주기. 게서 산디 간 끗데는 콩 갈고, 게믄 또 검질 제와 가믄 놀려불어마씨. 놀령 거기서 목초 ᄀᆞ뜬 거 헷당, ᄄᆞ로 그렇게 허곡 허는디 이건 집이 ᄒᆞ끔 심을 때나 싯고 부지런허곡 경 헤야 웃드리 강 산디, ᄆᆞ멀을 헤낫수다. 매 집이서 헌 것이 아니고.(그런데 또 그것은 여기 저 보리 그루에도 되긴 합니다. 되긴 하드래도 대개 그 중산간 들에 가 가지고 밭벼를 많이 했는데, 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야산이라든지 땅을 개간해 가지고 한 번 갈아엎어 가지고 덩어리를 다 부숴 가지고 또 갈아서 또 갈고 했습니다. 세 번 간 끝에 부각한 땅이라야 메밀을 갈 거지요. 메밀 갈아 놓으면 메밀 그루에 뒷해엔 또 밭벼를 갈지요. 그래서 밭벼 간 끝에는 콩 갈고, 그러면 또 김 겨워 가면 놀려버려요. 놀려서 거기서 목초 같은 거 했다가, 또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건 집에 조금 심을 때나 있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해야 '웃드리' 가서 밭벼, 메밀을 했었습니다. 매 집에서 한

것이 아니고.)

103039 @ 아, 게난 산디가 웃드리 강 가난 산딘가마씨?(아, 그러니까 밭벼가 '웃드리' 가서 가니까 밭벼인가요?)

103039 #1 아니, 해벤도 뒈긴 헙니다. 허허허.(웃음)(아니, 해변도 되긴 합니다. 허허허.(웃음))

103039 @ 해변도예?(해변도요?)

103039 #1 아무래도 그렇게 허면은 웃드리 강 나 곧는 식으로 허면은 검질을 아이 메도 뭡주기.(아무래도 그렇게 하면은 '웃드리' 가서 나 말하는 식으로 하면은 김을 아니 매도 되지요.)

103039 @ 아, 검질을.(아, 김을.)

103039 #1 예, ᄆᆞ멀은 순전이 이건 시벌 갈앗다 어펏다 허멍 벙뎅일 다 부솽 놔뒷당 허면은 저 그 검질 아이 메엉 혼 번 갈아 놔두면 뚜로 저 십일월달 뒈민 수확허민 뭡주게, ᄆᆞ멀은.(예, 메밀은 순전히 이건 세 벌 갈았다 엎었다 하면서 덩어리를 다 부숴서 놔뒀다가 하면은 저 그 김 아니 매어서 한 번 갈아 놔두면 또 저 십일월 되면 수확하면 되지요, 메밀은.)

103039 @ ᄆᆞ멀예?(메밀요?)

103039 #1 게민 그 그른 놔뒷다가 봄 나믄 혼 번 갈아놩 뚜로 그 우터레 산디 갈젠 허믄 검질도 아이 메고 헙주게. 게고 산디 갈아도 뚜로 역시 조 불리듯 불려야 헙니다.(그러면 그 그루는 놔뒀다가 봄 나면 한 번 갈아놔서 또 그 위로 밭벼 갈려고 하면 김도 아니 매고 하지요. 그리고 밭벼 갈아도 또 역시 조 밟듯 밟아야 합니다.)

103040 @ 이 산디는 언제 갈아낫수가?(이 밭벼는 언제 갈았었습니까?)

103040 #1 언제 저 보통 이 오월달에 갑니다.(언제 저 보통 이 오월에 갑니다.)

103040 @ 오월달에, 콩 그 이른콩 갈 때?(오월에, 콩 그 올콩 갈 때?)

103040 #1 아이, 이건 산디는 해변 ᄀᆞ뜨면 그냥도 갑니다만 웃드리 그르에 따라 다르니까 ᄆᆞ멀 그르에 가는 것이니까 대게 오월, 유월 초승에 갑니다.(아니, 이건 밭벼는 해변 같으면 그냥도 갑니다만 '웃드리' 그루에 따라 다르니까 메밀 그루에 가는 것이니까 대개 오월, 유월 초승에 갑니다.)

103040 @ 음, ᄆᆞ멀은 가을에 십일월달에 ᄆᆞ멀?(음, 메밀은 가을에 십일월에 메밀?)

103040 #1 아이, 건 수확을 십일월달에 허고.(아니, 건 수확을 십일월에 하고.)

103040 #1 갈기는 그 칠월 하순에 갑니다.(갈기는 그 칠월 하순에 갑니다.)

103040 @ ᄆᆞ멀은?(메밀은?)

103040 #1 예, 절기는 칠월 하순에 갈아 뒷다가.(예, 절기는 칠월 하순에 갈아 뒀다가.)

103040 @ 저기 그것은 산디하고는 가는 시기가 다르구나예?(저기 그것은 밭벼하고는 가는 시기가 다르구나예?)

103040 #1 예, 예.(예, 예.)

103040 @ 산디는 오월달에.(밭벼는 오월에.)

103040 #1 예, 하작물은 하작물이지만은 그 저 가는 시기가 뜨납주기.(예, 하작물은 하작물이지만은 그 저 가는 시기가 다르지요.)

103040 @ 그 오월달에 갈믄 수확은?(그 오월에 갈면 수확은?)

103040 #1 수확은 가을에 허고마씨.(수확은 가을에 하고요.)

103041 @ 아, 거 일반 조 수확 때나 비슷허게 수확을 허는구나예, 산디가예?(아, 거 일반 조 수확 때나 비슷하게 수확을 하는구나, 밭벼가요?)

103041 #1 예, 거난 그땐 거름 ᄀᆞ뜬 것도 읏을 때니까 저 ᄆᆞ멀 그르에만 갈앙 내불민 수확 그냥 허여마씨. ᄆᆞ멀은 뜨로 역시 허젠 허믄 뜨로 그것이, 비료 나니깐 아주 좋암십주만은 비료 없으니까 그 일부러 불체, 불체를 헤 가젠 허믄 ᄃᆞᆫ딱 오줌 주멍 ᄆᆞᆯ리왕, 불체를 마당에 잘 ᄆᆞᆯ리왕 뜨로 그레 오줌 ᄀᆞ뜬 거라도 썩은 오줌 ᄀᆞ뜬 거라도 줭 ᄆᆞᆯ리와 가지고 헤 놩 그걸 쉐로 시껑 강 뿌려 놩 그 저 ᄆᆞ멀 싱거십주기. 게난 뚠 거는 아니 헤도 불체는 줭 놔둬삽주.(예, 그러니까 그땐 거름 같은 것도 없을 때니까 저 메밀 그루에만 갈아서 내버리면 수확 그냥 해요. 메밀은 또 역시 하려고 하면 또 그것이, 비료 나니까 아주 좋아하고있지만 비료 없으니까 그 일부러 재, 재를 해 가려고 하면 모두 오줌 주면서 말려서, 재를 마당에 잘 말려서 또 그리 오줌 같은 거라도 썩은 오줌 같은 거라도 줘서 말려 가지고 해 놔서 그걸 소로 실어서 가서 뿌려 놔서 그 저 메밀 심었습지요. 그러니까 딴 거는 아니 해도 재는 줘서 놔둬야지요.)

103041 @ 불체는 그 불타난 그거, 그 꺼멍헌 재예?(재는 그 불탔던 그거, 그 꺼먼 재요?)

103041 #1 예, 예.(예, 예.)

103041 @ 그거, 그걸로 걸름을 만들엇구나.(그거, 그걸로 거름을 만들었구나.)

103041 #1 그걸 꼭 뿌려사 ᄆᆞ멀도 잘뒈고마씨. 그걸 또 뿌리기 전까지 새밧이니까예 그 쉐도 보통 쉐론 갈지 못 헤마씨. 갈아 어프면 벙뎅이가 난 것덜 ᄃᆞᆫ딱 곰베로 갈아불던지 부수던지 딱 경 헹 놔두민 그 놈의 쉐덜, ᄆᆞᆯ덜 막 하영, 그런 흑덜 잇이민 ᄆᆞᆯ덜 막 가두엇당 내불믄 막 다둘리면 부솨불곡 허영은에 시 불 갈아사 ᄆᆞ멀은 좋읍니다.(그걸 꼭 뿌려야 메밀도 잘되고요. 그걸 또 뿌리기 전까지 띠밭이니까요 그 소도 보통 소론 갈지 못해요. 갈아 엎으면 덩어리가 난 것들 모두 곰방메로 갈아버리든지 부수든지 딱 그렇게 해서 놔두면 그 남의 소들, 말들 아주 많이, 그런 흙들 있으면 말들 마구 가두었다가 내버리면 마구 내쫓으면 부숴버리고 해서 세 벌 갈아야 메밀은 좋습니다.)

103041 @ 시불 가는 거예.(세벌 가는거.)

103041 #1 시불 갈앙 밧 죽영.(세벌 갈아서 밭 죽여서.)

103041 @ 나룩 헐 때도 마찬가지로 죽영?(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죽여서?)

103041 #1 아, 나룩은 바로 갈지만 저 ᄆᆞ멀은 그렇게 헤사 뒈어마씨. 이디 땅에

는 바로 흔번 갈아도 뒙니다. 이디 땅에서는 뒈지만 웃드리 땅에는 새왓 개간헌 디는 세 벌 갈아사.(아, 벼는 바로 갈지만 저 메밀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땅에는 바로 한번 갈아도 됩니다. 여기 땅에서는 되지만 '웃드리' 땅에는 띠밭 개간한 데는 세 벌 갈아야.)

103042 @ 나룩은 어떤 식으로 뿌렷수가?(벼는 어떤 식으로 뿌렸습니까?)

103042 #1 나룩은 안 헤봇수다만 저 그건 메 가지고 싱것수다게, 나룩은.(벼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 그건 모 가지고 심었습니다, 벼는.)

103042 @ 저 그것도 산파?(저 그것도 산파?)

103042 #1 아니, 직파.(아니, 직파.)

103042 @ 메, 메를 놔 가지고.(모, 모를 놔 가지고.)

103042 #1 예, 메종 놩.(예, 모종 놔서.)

103042 @ 메종 놔 가지고, 그 메종 놔 가지고 그 메종을 심엇수가?(모종 놔 가지고, 그 모종 놔 가지고 그 모종을 심었습니까?)

103042 #1 예.(예.)

103042 @ 일일이 심언?(일일이 심었어?)

103042 #1 하나씩 심엇수다.(하나씩 심었습니다.)

103042 @ 아, 그거는 저 육지서 허는 식으로 헌 거네예?(아, 그거는 저 육지서 하는 식으로 한 거네요?)

103042 #1 예. 산디도 메종 놩 싱거도 뒙니다.(예. 밭벼도 모종 놔서 심어도 됩니다.)

103042 @ 산디도?(밭벼도?)

103042 #1 예.(예.)

103042 @ 아, 거난 물에 허는 식으로 산디도 메종 놩 싱것단 얘기네예?(아, 그러니까 물에 하는 식으로 밭벼도 모종 놔서 심었다는 얘기네요?)

103042 #1 메종으로 그냥 이런 우영팟디라도 허영 물 주멍 키와 놩 그냥 싱급니다.(모종으로 그냥 이런 터밭에라도 해서 물 주면서 키워 놔서 그냥 심습니다.)

103042 @ 아, 그냥 씨 뿌리진 안 허고?(아, 그냥 씨 뿌리진 않고?)

103042 #1 그냥 씨 뿌려도 뒙니다.(그냥 씨 뿌려도 됩니다.)

103042 @ 아, 그냥 산디도 그냥 씨 뿌령 허는 것도 잇고, 메종으로 강은에 싱글 수도 잇고 그렇게 헷구나예.(아, 그냥 밭벼도 그냥 씨 뿌려서 하는 것도 있고, 모종으로 가서 심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군요.)

103042 #1 게서 찝은 뜨로 그 보통 나룩 허민 그 가을 들민 그거 씨 사야 헙니다. 게난 건 사다가 노도 꼬고, 신도 삼고, 멩텡이도 줃곡 뜨로 멍석도 줃고.(그래서 짚은 또 그 보통 벼 하면 그 가을 들면 그거 씨 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 사다가 노도 꼬고, 신도 삼고, 망태기도 겯고 또 멍석도 겯고.)

103043 @ 예, 맞아예, 새끼 꼴 때 필요헌 거난예, 맞수다. 이 검질은 몇 번 메어낫수가?(예, 맞아요, 새끼 꼴 때 필요한 거니까요, 맞습니다. 이 김은 몇 번 매었었

습니까?)

103043 #1 나룩밧디마씨?(논에요?)

103043 @ 예.(예.)

103043 #1 산디 갈 땐 혼두 번 밧디 멥니다. 저 그 ᄆᆞ멀 그르에 헌 것은 그냥 검질 아이 메도 뒈고, 또 그냥 이 해벤 간 디 헌 것은 검질을 혼두 번 메어.(밭벼 갈 땐 한두 번 밭에 맵니다. 저 그 메밀 그루에 한 것은 그냥 김 아니 매어도 되고, 또 그냥 이 해변 간 데 한 것은 김을 한두 번 매어.)

103044 @ 검질은 어떤 검질이 잇어낫수가?(김은 어떤 김이 있었습니까?)

103044 #1 검질은 보통 여름 검질은 제안지라고 헤서 이것들 많이 납니다.(김은 보통 여름 김은 바랭이라고 해서 이것들 많이 납니다.)

103044 @ 예.(예.)

103044 #1 제안지, 복쿨.(바랭이, 깨풀.)

103044 @ 복쿨, 복쿨?(깨풀, 깨풀?)

103044 #1 복쿨이라고 헤 가지고 이 저.(깨풀이라고 해 가지고 이 저.)

103044 @ 복쿨.(깨풀.)

103044 #1 예, 건 검질 형태는 모르쿠다마는 여기서.(예, 건 김 형태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103045 @ 복쿨예, 검질 형태는 잘 모르고. 그러면 이 수확은 어떤 식으로 헷수가?(깨풀요, 김 형태는 잘 모르고. 그러면 이 수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45 #1 뭣마씨, 산디?(뭐요, 밭벼?)

103045 @ 예, 산디.(예, 밭벼.)

103045 #1 산디 그것도 보리 홀트듯 건 보리클은 ᄒᆞ끔 엉기곡 나룩클은 조금 좀니다. 장만헐 때 뒈면 그거 보리 홀트듯이 다 홀타마씨. 홀타 가지고 허면 찝은 찝대로 나오고 그 고고리 체 나가면 그걸 ᄆᆞᆯ방에에 가 가지고 쉐 허영 그걸 빙빙 돌령.(밭벼 그것도 보리 홅듯 건 보리 그네는 조금 엉기고 벼 그네는 조금 잡니다. 장만할 때 되면 그거 보리 홅듯이 다 홅어요. 홅어 가지고 하면 짚은 짚대로 나오고 그 이삭 채 나가면 그걸 연자매에 가 가지고 소 해서 그걸 빙빙 돌려서.)

103045 @ 보리 허는 거나 비슷허구나.(보리 하는 거나 비슷하구나.)

103045 #1 예, 예.(예, 예.)

103045 @ 그 저 비는 것도 보리 허는 식으로 비고?(그 저 베는 것도 보리 하는 식으로 베고?)

103045 #1 예, 게 허고 무끄는 건 산디찝으로 무끄고.(예, 그래 하고 묶는 건 밭볏짚으로 묶고.)

103045 @ 그걸 실러 오는 건 똑 같고예? 그다음에 ᄆᆞᆯ방에에 강 허는 것도 보리 허는 식으로 허고예?(그걸 실어 오는 건 똑 같고요? 그다음에 연자매에 가서 하는 것도 보리 하는 식으로 하고요?)

103045 #1 에, 예.(에, 예.)

103046 @ 음, 거난 이 저 산디는 쏠, 곤쏠이난 식게 멩질 허젠 허믄 다 필요헌 거지예?(음, 그러니까 이 저 밭벼는 쌀, 흰쌀이니까 제사 명절 하려고 하면 다 필요한 거지요?)

103046 #1 예, 다 필요허는디, 그거 메집이 허는 것이 아니라 그 웃드리 강도영 보니까 흔 동네에 그자 너댓 사름덜 헙니다게. 허고 이넉냥으로 뚜로 더 그 이디서 가는 사름도 싯고, 또 물왓 ᄀᆞ뜬 딘 이디서 다 헙니다, 물 나는 밧.(예, 다 필요한 데, 그거 매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웃드리'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한 동네에 그저 너댓 사람들 합니다. 하고 이넉대로 또 더 여기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이 잘 괴는 밭 같은 데는 여기서 다 합니다, 물 나는 밭.)

103046 @ 아.(아.)

103046 #1 산디도.(밭벼도.)

103046 @ 식게헐 때 곤밥 헤야 뒈는 거고.(제사할 때 흰밥 해야 되는 거고.)

103046 #1 산디쏠로도 헤야 헙주게.(밭벼쌀로도 해야 하는 하지요.)

103046 @ 산디쏠로도 허고?(밭벼쌀로도 하고.)

103046 #1 예.(예.)

103046 @ 떡도 그걸로 허고?(떡도 그걸로 하고?)

103046 #1 예, 떡은 그 제펜이라고 헌 것은 산디나 나룩만 놔 가지고 헌 것이고, 여긴 조를 많이 가니까 조침떡[102] 우에 그걸 살짝 흰 걸로.(예, 떡은 그 '제편'이라고 한 것은 밭벼나 벼만 놔 가지고 한 것이고, 여긴 조를 많이 가니까 '조침떡' 위에 그걸 살짝 흰 것으로.)

103046 @ 아, 경도 헤낫수가?(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3046 #1 예, 것ᄀᆞ라 기증펜, 아, 기증펜이 아니고 등 부찐 떡.(예, 것더러 증편, 아, 증편이 아니고 등 붙인 떡.)

103046 @ 등 부찐 떡?(등 붙인 떡?)

103046 #1 예, 침떡에 등 부쪗다 허연.(예, 시루떡에 등 붙였다 해서.)

103046 @ 아, 침떡에 그 쏠로 헤 가지고?(아, 시루떡에 그 쌀로 해 가지고?)

103046 #1 제펜이라고 헌 것은 문딱 나룩쏠이라든지 산디쏠로만 멘든 것ᄀᆞ란 제펜이엔 허고, 그 반반 서꺼진 건 저 등 부찐 떡.('제편'이라고 한 것은 모두 볍쌀이라든지 밭벼쌀로만 만든 것더러 절편이라고 하고, 그 반반 섞어진 건 저 등 붙인 떡.)

103046 @ 등 부친 떡?(등 붙인 떡?)

103046 #1 예, 그건 쏠이 어려우니까 좁쏠로 그걸 절약헤 가지고 좁쏠로, 좁쏠은 집집마다 생산허는 거고. 그 산디라고 헌 것은 집집마다 생산이 아이 뒈주마씨.(예, 그건 쌀이 어려우니까 좁쌀로 그걸 절약해 가지고 좁쌀로, 좁쌀은 집집마다 생산하는 거고, 그 밭벼라고 한 것은 집집마다 생산이 아니 되지요.)

103046 @ 게난 우에 폿 놓지 안 헙니까?(그러니까 위에 팥 놓지 않습니까?)

---

102) '조침떡'은 좁쌀 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서 찐 시루떡이다.

103046 #1 그건 층과 층을 구분허기 위헤 가지고 풋을 서꺼사 혼동이 뒈지 안 헙주.(그건 층과 층을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팥을 섞어야 혼동이 되지 안 하지.)

103046 @ 예, 층과 층을 구분하기 위헤서 요만큼씩, 요만큼씩.(예, 층과 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만큼씩, 요만큼씩.)

103046 #1 예, 예.(예, 예.)

103046 @ 게서 거 서껑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헌 거라예.(그래서 거 섞어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렇게 한 거야.)

103046 #1 예, 예(예, 예.)

103046 @ 그 쏠 ᄀᆞ루를예? 쏠은, 나룩쏠은 그건 갈앙 왕 허는 거 아니우꽈?(그 살 가루를요? 쌀은, 볍쌀은 그건 갈아서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103046 #1 나룩쏠은게, 나룩쏠은 아까 ᄀᆞᆯ앗지만, 밧디 강 직파허는 거고양, 산디는 그대로 산파헙니다. 산파옌 헌 것은 갈아 가지고 씨 뿌려 가지고 섬피질 허영 ᄒᆞ끔 쉐로나 ᄆᆞᆯ로 ᄇᆞᆯ립니다.(볍쌀은요, 볍쌀은 아까 말했지만, 밭에 가서 직파하는 거고요, 밭벼는 그대로 산파합니다. 산파라고 한 것은 갈아 가지고 씨 뿌려 가지고 끙게질 해서 조금 소로나 말로 밟습니다.)

103046 @ 음.(음.)

103046 #1 ᄇᆞᆯ리는 것으로 끗납니다. (밟는 것으로 끝납니다.)

103046 @ 아, 그 물 이신 디서 허는 건 직파 헤불엇수가?(아, 그 물 있는 데서 하는 건 직파 해버렸습니까?)

103046 #1 그건 나룩이고 건 그 저 직파로 헤야 헙주게.(그건 벼이고 건 그 저 직파로 해야 하지요.)

103046 @ 직파? 심으는 게 아니고?(직파? 심는 게 아니고?)

103046 #1 예.(예.)

103046 @ 메종으로 심는 게 아니고?(모종으로 심는 게 아니고?)

103046 #1 아니, 메종으로 심는 것이, 그것이.(아니, 모종으로 심는 것이, 그것이.)

103046 @ 직파.(직파.)

103046 #1 예, 산판 그냥 씨 뿌려 가지고 허는 것이고.(예, 산파는 그냥 씨 뿌려 가지고 하는 것이고.)

103046 @ 아, 직파는 묘종 심는 거고, 산파는 씨 뿌려부는 거고.(아, 직파는 모종 심는 거고, 산파는 씨 뿌려버리는 거고.)

103046 #1 그냥 갈앙 섬피로 끗어불믄 뒈고.(그냥 갈아서 끙게로 끌어버리면 되고.)

103046 @ 그렇구나예, 그 게난 산디쏠 가지고 일단 밥이나 떡 만들 때에, 제사 때 쓰고, 그 외 그거 가졍 산디쏠로 뭐 헤 먹은 건 엇어낫수가?(그렇구나, 그 그러니까 밭벼쌀 가지고 일단 밥이나 떡 만들 때, 제사 때 스고, 그 외 그거 가져서 밭벼쌀로 뭐 해 먹은 건 없었습니까?)

103046 #1 그자 떡허고, 뭐 밥 허고벳긴.(그저 떡하고, 뭐 밥하고밖엔.)

103047 @ 음, 떡허고 밥허고예. 게믄 이 저 산디찝은 뭘 헷수가?(음, 떡하고 밥하고요. 그러면 이 저 밭볏짚은 뭘 했습니까?)

103047 #1 아, 그건 쉐, 물 사료로도 멕이고, 것도 역시 새끼도 꼬고, 신발도 삼고.(아, 그건 소, 말 사료로도 먹이고, 것도 역시 노도 꼬고, 신발도 삼고.)

103047 @ 음, 새끼도 꼬고예, 새끼 꼬고, 혹시 초가집 헐 때 집줄[103]은? (음, 노도 꼬고요, 노 꼬고, 혹시 초가집 할 때 '집줄'은?)

103047 #1 여기는 거 그런 것을 아껴 가지고 집줄 메는 것은 다 웃드리 가서 야산에 가서 새 비어당 헙니다.(여기는 거 그런 것은 아껴 가지고 '집줄' 메는 것은 다 '웃드리' 가서 야산에 가서 띠 베어다가 합니다.)

103047 @ 새 비어당 허고예, 집줄은 새 비영 허고. 그냥 다른 끈들은, 새끼들은 산디찝으로예?(띠 베어다가 하고요, '집줄'은 띠 베어서 하고. 그냥 다른 끈들은, 노들은 밭볏짚으로요?)

103047 #1 예. 노를 꼰다든지 배를 만든다든지, 뚜로 저 소 사료라든지 허는 것은 산디 걸로 허고.(예, 노를 꼰다든지 참바를 만든다든지, 또 저 소 사료라든지 하는 것은 밭벼 걸로 하고.)

103047 @ 음, 하여간 이 밧나룩도, 아니 산디도 도리께질허영 장만도 허고?(음, 하여간 이 밭벼도, 아니 밭벼도 도리깨질해서 장만도 하고?)

103047 예, 도리께질도 허곡 저 물방에에 강 허기도 허고.(예, 도리깨질도 하고 저 연자매에 가서 하기도 하고.)

103047 @ 거의 나오는 건 비슷허겟다예?(거의 나오는 건 비슷하겠어요?)

103047 #1 생산뒈엉 장만허는 건 비슷비슷 협주기.(생산되어서 장만하는 건 비슷비슷 하지요.)

103047 @ 예, 이 거난 산디 농사는 거의 안 헤낫구나예?(예, 이 그러니까 밭벼 농사는 거의 안 했었군요?)

103047 #1 우리 집도 좀 허긴 헷수다, 먹을 거나 허영.(우리 집도 좀 하긴 했습니다, 먹을 거나 해서.)

103047 @ 그땐 웃드리 강?(그땐 '웃드리' 가서?)

103047 #1 웃드리[104] 강 아니허고 이 해벤 밧디서 헤나십주.('웃드리' 가서 아니하고 이 해변 밭에서 했었습지요.)

103048 @ 아, 해변 밧디서예. 그거 허멍은 뭐 특별허게 생각나는 건 엇수가?(아, 해변 밭에서요. 그거 하면서는 뭐 특별하게 생각나는 건 없습니까?)

103048 #1 그거 허멍은 일반 농사와 꼭 마찬가지입주.(그거 하면서는 일반 농사와 꼭 마찬가지지요.)

103048 @ 꼭 마찬가지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예.(꼭 마찬가지요. 시기적으로도

103) '집줄'은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이다.
104)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그렇고요.)

103048 #1 제일 저 퉤비 걸름이라든지 마련허는 것은 겨울 작물에서 허고, 여름 작물에서 것을 얼마 안 허여마씨.(제일 저 퇴비 거름이라든지 마련하는 것은 겨울 작물에서 하고, 여름 작물에서 것을 얼마 안 해요.)

103048 @ 음.(음.)

103048 #1 게다가 것도 저 과학이 발달허여 가지고 비료 나옴 시작허니까 그 비료로 다 허고, 게믄 대가 더 질게 나고 수확량이 많앗수다.(그러다가 것도 저 과학이 발달하여 가지고 비료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비료로 다 하고, 그러면 대가 더 길게 나고 수확량이 많았습니다.)

103048 @ 게 멩질 헤 먹젠 허고, 제사 지내젠 허믄 하여간 이 쏠은 필요헌 거라부난 이건 뭐.(그래 명절 해 먹으려고 하고, 제사 지내려고 하면 이 쌀은 필요한 거라 버리니까 이건 뭐.)

103048 #1 예.(예.)

103048 @ 그 반지기밥[105]은 안 헨 먹엇수가?(그 '반지기밥'은 안 해서 먹었습니까?)

103048 #1 무사 안 헨 먹습니까? 우리 어릴 땐양, 셍일이라 허믄양 그냥 쏠밥을 다 헌 것이 아니라, 그 보리밥 허는디 그 이염더레 쏠을 놩은에, 아, 식겟밥도 갈라 먹곡, 어린 때에.(왜 안 해서 먹습니까? 우리 어릴 땐요 생일이라 하면요 그냥 쌀밥을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보리밥 하는데 그 옆으로 쌀을 놔서, 아, 제삿밥도 갈라서 먹고, 어릴 때에.)

103048 @ 그 뭐 저 뚜로 상에 뚜로 영 밥, 보통은 아버지네안테 뚜로예 반지기밥을 올려난 거 닮은디. 허허허.(웃음)(그 뭐 저 또 상에 또 이렇게 밥, 보통은 아버지한테 따로 '반지기밥'을 올렸던 거 같은데. 허허허(웃음))

103048 #1 게메 글암수게게, 셍일 ᄀᆞ뜬 거라든지 특별헌 때는 보리밥 헐 때에 흔펜더레 쏠을 놔 가지고, 그것만 노는 것이 아니라, 걸 헹은에 ᄒᆞ끔 서껑은에 그 웃어른안테 조상이라든지, 셍일 때라든지, 전 식구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쌀 때만 그추룩 헹.(글쎄 말하고 있습니다, 생일 같은 거라든지 특별한 때는 보리밥 할 때에 한편으로 쌀을 놔 가지고, 그것만 넣는 것이 아니라, 걸 해서 조금 섞어서 그 웃어른한테 조상이라든지, 생일 때라든지, 전 식구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도시락 쌀 때만 그처럼 해서.)

고구마 농사

103049 @ 이젠예, 고구마 농사 헤낫수가?(이젠요, 고구마 농사 했었습니까?)

103049 #1 예, 고구만 많이 헷수다. 우리 저 고구마 허연 다수확상도 받아낫수다.(예, 고구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 고구마 해서 다수확상도 받았었습니다.)

103049 @ 게 고구마예, 감저렌 허는디예. 이 감저 농사 허젠 허믄 준비를 어떵

105) '반지기밥'은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이다.

헤 낫수가?(그래 고구마요, '감저'라고 하는데요. 이 고구마 농사 하려고 하면 준비를 어떻게 했었습니까?)

103049 #1 감저 농사 허젠 허믄 그 우선 겨울철에 감저를 보관헙니다. 구 도에서 이십 도 사이에서.(고구마 농사 하려고 하면 그 우선 겨울철에 고구마를 보관합니다. 구 도에서 이십 도 사이에서.)

103049 @ 아, 따뜻허게.(아, 따뜻하게.)

103049 #1 예, 예. 구 도 알로 내려가도 추웡 감잔 썩고, 이십 도가 넘어가면은 발아뒈어붑니다, 겨울철이라도.(예, 예. 구 도 아래로 내려가도 추워서 고구마는 썩고, 이십 도가 넘어가면은 발아되어 버립니다, 겨울철이라도.)

103049 @ 발아뒈영.(발아되어서.)

103049 #1 게난 그것을 없게 헤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질 처음은 구뎅일 팡 그 그추룩 허영 온도에 맞게 허여 가지고 조집이라든지 이런 걸로 영 흑 가는 디는 더껑 가운데레 막 눕주기. 감저 눌 눌어가는 디로 허영. 게서 눌 눌엇다가 겨울에 꺼내영 쳐도 먹고 궈도 먹고, 뚜로 봄이 나면은 그 메종으로도 허고 허는디, 메종은 저거 사월 초순 전에 삼월 하순, 사월 초순 전에 메종을, 고구마 메종을 놓읍니다. 놓아 가지고 그걸 허면은 비니루 난 끗데는 재게 발아가 뒈는데 경 아니허믄 입하 사월절 들면은 그걸 놔 두면은 뚜로 그때 하지 때 뒈면 싹이 나 가지고 틔우면 보리 그르라든지 대게 땅에 강 싱그면, 보리 그르에 강, 후작으로예.(그러니까 그것을 없게 해 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젤 처음은 구덩이를 파서 그 그처럼 해서 온도에 맞게 하여 가지고 조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흙 가는 데는 덮어서 가운데로 마구 가리지요. 고구마 가리 가리어가는 데로 해서. 그래서 가리 가렸다가 겨울에 꺼내어서 삶아서도 먹고 구워도 먹고, 또 봄이 나면은 모종으로도 하고 하는데, 모종은 저거 사월 초순 전에 삼월 하순, 사월 초순 전에 모종을, 고구마 모종을 놓습니다. 놓아 가지고 그걸 하면은 비닐 난 끝에는 재우 발아가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입하 사월절 들면 그걸 놔두면 또 그때 하지 때 되면 싹이 나 가지고 틔우면 보리 그루라든지 대개 땅에서 심으면, 보리 그루에 가서, 후작으로요.)

103050 @ 보리 장만헌 후제, 그 그르에 이제 고구마 묘종을 심는구나예?(보리 장만한 후에, 그 그루에 이제 고구마 모종을 심는군요?)

103050 #1 예. 보리 후작으로 줄 비어 가지고 싱그는디, 그 싱그는 거리는 보통 저 줄광 줄 사이에는 흔 십 센티라든지 띄와 가지고 걸 싱급주기. 싱거뒷다가 걸 많이 싱근 사름덜은 김 ᄀᆞ뜬 거 메기 버치니까 거 저 여름 칠월달 뒈면은 웃드리 시꺼 강 골을 다 갑니다. 골 다 갈면양 흑덜 서꺼져서 감저도 더 잘 들곡 김도 메지 아니헤도 뒈곡 영 허는디.(예. 보리 후작으로 기는줄기 베어 가지고 심는데, 그 심는 거리는 보통 저 기는줄기와 기는줄기 사이에는 한 십 센티미터라든지 띄워 가지고 걸 심지요. 심어뒀다가 걸 많이 심은 사람들은 김 같은 거 매기 부치니까 거 저 여름 칠월 되면은 '웃드리' 실어서 가서 고랑을 다 갑니다. 고랑 다 갈면요 흙들 섞어져서 고구마도 잘 들고 김도 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103050 @ 골을 간단 얘기는, 이 골을(고랑을 간다는 얘기는, 이 고랑을.)

103050 #1 이랑에는 감젓줄을 영 싱그면은, 영 딱딱 싱그면은 줄을 이랑, 아래 야튼 디는 양쪽으로 골 갈면 흑도 지쳐지곡 뚜로 김도 메지곡, 걸 그렇게 헤십주, 경 헤 가지고.(이랑에는 고구마 덩굴을 이렇게 심으면은, 이렇게 딱딱 심으면 기는 줄기를 이랑, 아래 얕은 데는 양쪽으로 고랑 갈면 흙도 지쳐지고 또 김도 매어지고, 걸 그렇게 했습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3050 @ 게난 걸 더프젠 헌 거구나?(그러니까 걸 덮으려고 한 거구나?)

103050 #1 예, 쪼끔 더꺼집니다.(예, 조금 덮어집니다.)

103050 @ 예, 더꺼져예.(예, 덮어져요.)

103050 #1 예, 그래서 건 언제 수확을 허냐 허면은 보통 십일월달에 고구마를 수확허는디 일부는 전분 공장으로 팔기도 허고, 또 나머지는 저 좀 힘들더레도 돈 받기 위헤서는 절간도 허고 헤나십주.(예, 그래서 건 언제 수확을 하냐 하면은 보통 십일월에 고구마를 수확하는데 일부는 전분 공장으로 팔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저 좀 힘들더라도 돈 받기 위해서는 절간도 하고 했었습지요.)

103050 @ 예.(예.)

103050 #1 것도 전이는 그자 먹는 것만 셍각헤 가지고 집이서 쳐 먹고 메종 놓고 이것만 셍각헤 가지고 족게 묻어낫는데 나증에는 이게 전분 공장도 셍기고양, 뚜로 절간 감자도 전분 공장에서 사 가고 이러니까 많이 갈앗는디.(것도 전에는 그저 먹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집에서 쪄서 먹고 모종 놓고 이것만 생각해 가지고 적게 묻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전분 공장도 생기고요, 또 절간고구마도 전분 공장에서 사 가고 이러니까 많이 갈았는데.)

103051 @ 게 거름, 거름은 안 헤낫수가?(그래 거름, 거름은 않았었습니까?)

103051 #1 안 헷수다. 겐디 그 저 주정 공장 셍긴 것이, 주정 공장이라든가 전분 공장 셍긴 것이 해방 이홉주기게. 그 전에는 해방 이후보단 흔 칠십, 육십, 야튼 오십 년은 넘으니까 뭣 많이 셍겻수다. 흔 육십 년도 초반부떠 셍겻는디.(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저 주정 공장 생긴 것이, 주정 공장이라든가 전분 공장 생긴 것이 해방 이후지요. 그 전에는 한 칠십, 육십, 아무튼 오십 년은 넘으니까 뭣 많이 생겼습니다. 한 육십 년도 초반부터 생겼는데.)

103051 @ 그 전인 먹을 거로만 허다가 그때부터는 많이 헤 가지고 풀앗구나예?(그 전에는 먹을 거로만 하다가 그때부터는 많이 해 가지고 팔았군요?)

103051 #1 절간으로 허는 것은 농협으로 받아 가 가지고 허니까 수확량, 그 가격이 힘은 들고 인건빈 많이 들어도 그 전분 공장에 그대로 생감으로 픈는 것보단 절간헌 게 삼 배 더 많이 받읍니다.(절간으로 하는 것은 농협으로 받아 가 가지고 하니까 수확량, 그 가격이 힘은 들고 인건비는 많이 들어도 그 전분 공장에 그대로 생고구마로 파는 것보다는 절간한 게 삼 배 더 많이 받습니다.)

103051 @ 음. 그니까 그 어려운 거난. 게난 그 아까 다시 한번 물어보쿠다만은 감저가 처음 메종으로 헤 가지고 심을 때 한번 잘 골아줘봅서. 어떤 식으로?(음. 그

러니까 그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아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만 고구마가 처음 모종으로 해 가지고 심을 때 한번 잘 말해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103052 #1 아, 그건 저 일반 밧 갈듯 쉐로 갈아마씨, 쉐로 갈던지 경운기로 갑주기.(아, 그건 저 일반 밭 갈 듯 소로 갈아요, 소로 갈든지 경운기로 갈지요.)

103052 @ 예.(예.)

103052 #1 갈면은 거 저 그 여자덜이라든지 뚠 사람덜이 일일이 이걸 싱거 가지고 그 ᄉᆞ분의 일, ᄉᆞ분의 삼은 우터레 나가게 헤 둬사 빨리 발아뒈어 가지고.(갈면 거 저 그 여자들이라든지 딴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심어 가지고 그 사분의 일, 사분의 삼은 위로 나가게 해둬야 빨리 발아되어 가지고.)

103052 @ 줄기를 사분의 삼은 땅속에 묻어불고?(기는줄기를 사분의 삼은 땅속에 묻어버리고?)

103052 #1 예, 묻어마씨, 묻으멍덜 그 이파리가 잇지 안 허꽈? 이파리가 영 우터레 올려놩 묻곡.(예, 묻어요, 묻으면서들 그 잎사귀가 있지 않습니까? 잎사귀가 이렇게 위로 올려놔서 묻고.)

103052 @ 그 줄은 얼마나?(그 기는줄기는 얼마나?)

103052 #1 줄은 그 저 비가 많이 온 해는 ᄒᆞ끔 영 질곡, 경 아니허믄 막 ᄇᆞ따도 뭽니다게. 게난 너무 진 것은 짤랑 싱거사.(기는줄기는 그 저 비가 많이 온 해는 조금 이렇게 길고, 그렇게 아니하면 아주 짧아도 됩니다. 그러니깐 너무 긴 것은 잘라서 심어야.)

103052 @ 짤랑 싱그고?(잘라서 심고?)

103052 #1 예, 건디 그 감자는 양끗트로만 드는 거니까, 그 짤랑 싱거십주.(예, 그런데 그 고구마는 양끝으로만 드는 거니까, 그 잘라서 심었습지요.)

103052 @ 아, 감저 드는 것은 양끗트로만?(아, 고구마 드는 것은 양끝으로만?)

103052 #1 양끗트로만 들고, 가운디도 들긴 헙니다.(양끝으로만 들고, 가운데도 들긴 합니다.)

103052 @ 들기도 허는데, 음, 양끗트르만 드는구나.(들기도 하는데, 음, 양끝으로만 드는구나.)

103052 #1 게서 그 저장 방법은 그 저 구 도 이상 이십 도 그 새 온도를 조절허여 가지고 저장허고.(그래서 그 저장 방법은 그 저 구 도 이상 이십 도 그 사이 온도를 조절하여 가지고 저장하고.)

103053 @ 저장헐 때는예. 게난 감저밧디 검질은 어떤?(저장할 때는요. 그러니까 고구마밭에 김은 어떤?)

103053 #1 검질은 그 저 막 쉬웁니다, 건. 아까ᄀᆞ찌 골을 갈아붑주기. 골을 갈아불면은 손 보면서 하나씩 그 저 ᄃᆞᆼ여불민 큰 검질 아이 메도 뭽니다. 검질 메긴 메어야 허지만 ᄒᆞ끔 덜 힘듭주기, 일반 농사보다.(김은 그 저 아주 쉽습니다, 건. 아까 같이 고랑을 갈아버리지요. 고랑을 갈아버리면 손 보면서 하나씩 그 저 당겨버리면 아니 매도 됩니다. 김은 매긴 매어야 하지만 조금 덜 힘들지요, 일반 농사보다.)

103053 @ 검질 메는 횟수는?(김매는 횟수는?)

103053 #1 거 흔 번 메고, 것도 막 바쁠 때는 못 메는 수도 잇고. 경 헹 막 줄 벋으믄 굽어둠서 하나썩 서끈 거, 큰 거나양, 저 하나썩 메곡 그냥 내불 수도 싯고. 그 여름철 나민 그 뚠 검질 멤도 막 바빵 그때는 경 허고.(거 한 번 매고, 것도 아주 바쁠 때는 못 매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구 기는줄기 벋으면 굽어서 하나씩 섞은 거, 큰 것이나, 저 하나씩 매고 그냥 내버릴 수도 있고. 그 여름철 나면 그 딴 김매기도 아주 바빠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103054 @ 음, 게난 그 검질 종류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음, 그러니까 그 김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3054 #1 검질 종류는게, 저 제안지허고 뭐 가마귀웨줄 ᄀᆞ뜬 거.(김 종류는요, 저 바랭이하고 뭐 괭이밥 같은 거.)

103054 @ 가마귀궷줄?(괭이밥?)

103054 #1 예, 그런 거 잘 나는 것이 싯수다, 이만이 커 가지고 씨를 번성시켜 가지고 사름 몸에라도 탁탁 달라붓는 이런 종류라든지, 이 저 복쿨, 이런 것이 많이 나마씨.(예, 그런 거 잘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큼 커 가지고 씨를 번성시켜 가지고 사람 몸에라도 탁탁 달라붙는 이런 종류라든지, 이 저 깨풀, 이런 것이 많이 나요.)

103054 @ 게난 그 여름에 보통 검질메는 거 허고 같구나예.(그러니까 그 여름에 보통 김매는 거 하고 같구나.)

103054 #1 예, 건 그자 밧디서 메엉 내불고. 줄기는 쉐, 물 사료로 씁주기.(예, 건 그저 밭에서 매어서 내버리고. 덩굴은 소, 말 사료로 쓰지요.)

103054 @ 줄기?(덩굴?)

103054 #1 줄마씨, 줄.(덩굴요, 덩굴.)

103054 @ 게난 건 수확헤난 다음에?(그러니까 건 수확했던 다음에?)

103054 #1 예. 물이랑 것당 눌어 뒀다가, 건 아주 쉐나 물이나 주민 곤밥입주게, 잘 먹언.(예. 말이랄 갔다가 가려 뒀다가, 건 아주 소나 말이나 주면 흰밥이지요, 잘 먹어서.)

103055 @ 게믄 수확헐 땐 어떤 식으로 햇수가?(그러면 수확할 땐 어떤 식으로 했습니가?)

103055 #1 수확헐 땐 소로 간다든지 허영 그냥 나이 많은 사름덜신디, 밧 갈아가는양, 죽 갈아가는 양 일일이 다 줏읍니다.(수확할 땐 소로 간다든지 해서 그냥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밭 갈아가는 대로, 죽 갈아가는 대로 일일이 다 줍습니다.)

103055 @ 음, 예.(음, 예.)

103055 #1 다 줏어 가지고 반대레 톡톡톡 줏어 놔마씨. 경 아니허민 허곡 ᄯᅳ로 경 놓는 사름 싯고, 경 아니허믄 흔 사름은 골체에 받고 줏어 놓는 사름도 싯곡 허믄 골체에 줏은 건 읖더레 톡 건 모여지는 겁주. 모여지게끔 헹 비우는 수도 싯곡, ᄯᅳ로 바꼇디만 내쳐두곡 헙니다게. 경 허난 우리는 원체 고구마를 많이 헤 놓으니

까 토요일 일요일날만 갈아둡니다. 미리 줄랑 비어 뒷당도. 건 웨 가느냐 허면은.(다 주워 가지고 반대로 톡톡톡 주워 놔요. 그렇게 아니하면 하고 또 그렇게 놓는 사람 있고, 그렇게 아니하면 한 사람은 삼태기에 받고 주워 놓는 사람도 있고 하면 삼태기에 주운 건 옆으로 톡 건 모여지는 거지요. 모여지게끔 해서 비우는 수도 있고, 또 바깥에만 내쳐두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원체 고구마를 많이 해 놓으니까 토요일 일요일만 갈아둡니다. 미리 기는줄기랑 베어 뒀다가도. 건 왜 가느냐 하면은.)

103055 @ 아, 줄은 미리 비어두고?(아, 기는줄기는 미리 베어두고?)

103055 #1 예.(예.)

103055 @ 경 헹 밧 갈아부는구나, 갈멍.(그렇게 해서 밭 갈아 버리는구나, 갈면서.)

103055 #1 갈아가믄 아이덜은 그 어른덜보다 곱은 헙니다. 줏으멍 먹으렌 허곡 허믄 아이들 첨, 계속 줏어 놓게 허믄, 그 뚠 집도 경 헴신지는 모르지만, 아이덜 신 집은 그 일요일날, 토요일날 막 헙니다. 요즘 아이덜은 그런 일이랑 말앙 학교만 뎅기면서, 허허,(웃음) 우리 아이덜은 첨 고구마 ᄀᆞ뜬 거 늘 그런 과정을 헷수다.(갈아가면 아이들은 그 어른들보다 곱은 합니다. 주우면서 먹으라고 하고 하면 아이들 참, 계속 주워 놓게 하면, 그 딴 집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 있는 집은 그 일요일, 토요일 마구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일이랑 마랑 학교만 다니면서, 허허,(웃음) 우리 아이들은 참 고구마 같은 거 늘 그런 과정을 했습니다.)

103055 @ 골겡이로 파진 안 헤낫수가?(호미로 파진 않았었습니까?)

103055 #1 골겡이로는 소가 없는 집에, 그자 혼자 사는 집이나 이런 디덜 대게 골겡이로 많이 팝주게.(호미로는 소가 없는 집에, 그저 혼자 사는 집이나 이런 데들 대개 호미로 많이 파지요.)

103056 @ 음, 경 헷구나예. 이 십일월달에 고구마 수확허면 그걸 이제 보관허는 건 어떤 식으로 헷수가?(음, 그렇게 했구나. 이 십일월에 고구마 수확하면 그걸 이제 보관하는 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56 #1 보관허는 건 아까 이야기헙디게? 그 저 그냥은 구뎅일 팡, 그거 직경 흔 얼마옌 헐 거, 흔 직경 일 메다, 흔 이 메다, 건 뭐 많이 묻젠 허믄 크게 허고, 족게 묻젠 허믄 허는디 직경 흔 이 메다쯤 뒈게 헤서 동그랑케 파서 흔 일 메다 깊이로 파 가지고 돌아가면서는 조집대라든지 뚜로 저 억새 ᄀᆞ뜬 걸 놩은에 땅에 직접적으로 감저 부딪히지 아니허게, 그 보온 뒈게, 직접 부뜨믄 썩어붑주게.(보관하는 건 아까 이야기하였지요? 그 저 그냥은 구덩이를 파서 그거 직경 한 얼마라고 할 거, 한 직경 일 미터, 한 이 미터, 건 뭐 많이 묻으려고 하면 크게 하고, 적게 묻으려고 하면 하는데 직경 한 이미터쯤 되게 해 둥그렇게 파서 한 일 미터 깊이로 파 가지고 돌아가면서는 조짚이라든지 또 저 억새 같은 걸 놔서 땅에 직접적으로 고구마 부딪히지 않게, 그 보온 되게, 직접 붙으면 썩어버리지요.)

103056 @ 아, 예.(아, 예.)

103056 #1 경 안 허게 그딘 억새라든지 뚜로 저 조찝대라든지 걸 이 돌아가멍 채와 놩 그 가운데로만 고구말 비와마씨. 비왕 또 땅 우에 이만큼 노프게 영 헤서 걸 산ᄀᆞ찌 영 데밉주, 데며 놩.(그렇게 안 하게 거기는 억새라든지 또 저 조짚이라든지 걸 이 돌아가면서 채워놔서 그 가운데로만 고구마를 부어서 또 땅 위에 이만큼 높게 이렇게 해서 걸 산같이 이렇게 쌓지요, 쌓아 놔서.)

103056 @ 뭘로?(무엇으로?)

103056 #1 게난 그 억새라든지 땅속에 묻을 걸로, 경 헤 놩 그 우터레 뚜로 저 흑을 지칩니다, 보온허기 위헤서. 흑 지쳥 가운디 영 손으로 영 드밀앙 놔둘 디 넹겨뒁 흑 지쳥 허멍 걸 묻는디, 건 너미 ᄃᆞᆺ아도 감자가 썩곡, 너미 추워도 썩으니까 그 도수덜을 정헹, 우리는 그 저 짐작허영 헤낫주만은, 우리 헐 때는 그 저 온도를 구 도로부떠 이십 도ᄁᆞ지 그 중간을 헤야 아이 썩읍주게.(그러니까 그 억새라든지 땅속에 묻을 것으로, 그렇게 해 놔서 그 위로 또 저 흙을 지칩니다, 보온하기 위해서. 흙 지쳐서 가운데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놔둘 데 남겨둬서 흙 지쳐서 하면서 걸 묻는데, 건 너무 따뜻해도 고구마가 썩고, 너무 추워도 썩으니까 그 도수들을 정해서, 우리는 그 저 짐작해서 했었지만, 우리 할 때는 그 저 온도를 구 도부터 이십 도까지 그 중간을 해야 아니 썩습지요.)

103056 @ 예.(예.)

103056 #1 그래서 그건 허다가 우리 대림리에선 그 저 칠십이 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제일 처음 고구마 저장고를 만든 것이 우리 대림이우다, 도에서. 겐 그때 저 대통령, 그때 대통령 하사금 받고 표창도 받앗수다. 뚠 디서 모실포라든지 제주시서 왕 저장고 봐 나십주기. 게난 그것도 뚜로 도수를 맞추기 위헤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벽광 벽 새이에 흑을 딱 집어 놔서마씨.(그래서 그건 하다가 우리 대림리에선 그 저 칠십이 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제일 처음 고구마 저장고를 만든 것이 우리 대림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 대통령, 그때 대통령 하사금 받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딴 데서 모슬포라든지 제주시서 와서 저장고 봤었습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따로 도수를 맞추기 위해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벽과 벽 사이에 흙을 딱 집어 놨어요.)

103056 @ 아, 예.(아, 예.)

103056 #1 창고 만들 때, 고구마 저장고 만들 때. 양옆인 부로끄로 쌓아 가지고 부로끄 시더지지 아니허게 세멘허곡, 이쪽도 세멘 딱 발라 가지고 공그리허고, 가운데는 흑을 영 담아십주기. 그냥 덮기만 허민 추읍주기. 그냥 담아 놩 그 우의 천장 우의도 뚜로 영 흑을 다 ᄇᆞᆯ르고.(창고 만들 때, 고구마 저장고 만들 때, 양옆에는 벽돌 쌓아 가지고 벽돌 쓰러지지 않게 시멘트하고, 이쪽도 시멘트 딱 발라 가지고 콘크리트하고, 가운데는 흙을 이렇게 담았습지요. 그냥 덥기만 하면 춥지요. 그냥 담아 놔서 그 위에 천장 위에도 또 흙을 다 바르고.)

103056 @ 음.(음.)

103056 #1 이중 삼중으로 문을 딱 ᄃᆞᆯ앙 저 안네 강 추을 때는 영 강 보믄 전기 싸 주믄 뚜사지곡 신문지 영 두어 장 ᄉᆞᆯ아도 저장고 온도가 일 도는 올라갑니다.(이

중 삼중으로 문을 딱 달아서 저 안에 가서 추울 때는 이렇게 가서 보면 전기 켜 주면 따뜻해지고 신문지 이렇게 두어 장 살라도 저장고 온도가 일 도는 올라갑니다.)

103056 @ 음.(음.)

103056 #1 겐 또 추운 때는 경 헤주곡, 둣일 땐 문 ᄒᆞ끔 올아주고 허면서 허면은 저장고도 허여 가지고 허고. 저장고 없을 때는 집집마다 다 감저 푸대가 이십주게, 집집마다.(그래서 또 추운 때는 그렇게 해주고, 따뜻할 땐 문 조금 열어주고 하면서 하면은 저장고도 해 가지고 하고. 저장고 없을 때는 집집마다 다 고구마 포대가 있습지요, 집집마다.)

103056 @ 감저 눌이, 감저 눌이 잇다가 저장고 헤 가지고 저장고에 보관을 헷구나예.(고구마 가리, 고구마 가리 있다가 저장고 해 가지고 저장고에 보관을 했구나.)

103056 #1 예, 겐 저장고에 보관허연 잘 뒈어가단 이것이 그 주정 원료덜토 웨국에서 수입헤불고 전분 공장들도 망헤불고 헤가난 우리도 아이 갈아십주. 두 밧에 다 갈앗수다, 감저.(예, 그래서 저장고에 보관해서 장 되어가다가 이것이 그 주정 원료들도 외국에서 수입해버리고 전분 공장들도 망해버리고 해가니까 우리도 안 갈아습지요. 두 밭에서 다 갈았습니다, 고구마.)

103056 @ 게난 그거는 이제 씨고구마 저장허는 거예?(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씨고구마 저장하는 거?)

103056 #1 예.(예.)

103057 @ 씨고구마 저장허는 거고, 그 수확헌 다음에 절간 허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절간을?(씨고구마 저장하는 거고, 그 수확한 다음에 절간 하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절간을?)

103057 #1 절간 허는 방법은 일제 시대부떠 절간 기계가 나왓수다. 놀을 헤 가지고 굴러가믄 요만이 망 짜 가지고 고망에 올려놩 영 보선 구뎅이 모냥으로 요렇게 감저 이렇게 들여놓으면 굴리면은 이것이 탁탁탁 썰어져 나갑주게.(절간 하는 방법은 일제 시대부터 절간 기계가 나왔습니다. 날을 해 가지고 굴러가면 요만큼 망짜 가지고 구멍에 올려놔서 이렇게 보선 구덩이 모양으로 요렇게 고구마 이렇게 들여놓으면 이것이 탁탁탁 썰어져 나가지요.)

103057 @ 요, 요만씩, 요만씩예.(요, 요만큼씩, 요만큼씩요.)

103057 #1 예.(예.)

103057 @ 나오는 거예? 맞아.(나오는 거지요? 맞아.)

103057 #1 예.(예.)

103057 @ 게믄 그거를 나오믄 밧디 그냥 내불어 붑니까?(그러면 그거를 나오면 그냥 밭에 내버려 버립니까?)

103057 #1 예, 밧디 그냥 널어붑니께게. 밧디 그 벙뎅이 풀엉 여자덜이 앚앙 걸 다 영 골로루 널어불지 안 헙니까?(예, 밭에 그냥 널어버립니다. 밭에 그 덩어리 풀어서 여자들이 앉아서 걸 다 이렇게 골고루 널어버리지 않습니까?)

103057 @ 그냥 흑 위에?(그냥 흙 위에?)

103057 #1 예, 그냥 널어도 물르믄 흑도 다 떨어집니다게.(예, 그냥 널어도 마르면 흙도 다 떨어집니다.)

103057 @ 떨어져불고.(떨어져 버리고.)

103057 #1 게믄 그 저 비 왐직헌 날은 밤중이라도 강은에 그 희뜩희뜩헌 거 줍곡, 일기만 좋으믄 헌디 뚜로 비 많이 오믄 깝도 아이 주고.(그러면 그 저 비 올 것 같은 날은 밤중에라도 가서 그 희뜩희뜩한 거 줍고, 일기만 좋으면 한데 또 비 많이 오면 값도 아니 주고.)

103057 @ 맞아예. 경 헹은에 그걸로.(맞아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103057 #1 건 주정 원료로 받아십주게.(건 주정 원료 받았습지요.)

103057 @ 메칠이나 물립니까?(며칠이나 말립니까?)

103057 #1 아주 일기가 좋으면은 오 일이면 다 허고.(아주 일기가 좋으면 오 일이면 다 하고.)

103057 @ 물리는 기간이 오 일 정도?(말리는 기간이 오 일 정도?)

103057 #1 예.(예.)

103057 @ 게난 오 일 동안 비 맞아불믄 안 뒈겟다예?(그러니까 오 일 동안 비 맞아버리면 안 되겠어요?

103057 #1 예, 예.(예, 예.)

103057 @ 게니까, 음, 집이 왕 저 물리기도 허고예?(그러니까, 음, 집에 와서 저 말리기도 하고요?)

103057 #1 집이 왕 그 작산 거, 그 알 치, 알 치 ᄀᆞ뜬 거는, 알 치 ᄀᆞ뜬 거라든지 ᄒᆞ끔 겁죽이 두껍게 썰어진 거, 덜 물린 것덜은 집이 왕도 물리곡 헤십주기.(집에 와서 그 많은 거, 그 아래 치, 아래 치 같은 거는, 아래 치 같은 거라든지 조금 껍데기가 두껍게 썰어진 거, 덜 말린 것들은 집에 와서도 말리고 했습지요.)

103057 @ 절간 헌 것도 먹어낫지예?(절간 한 것도 먹었었지요?)

103057 #1 예, 그거는 뚜로 감저벳데기 검어도 돌다 허는 것이 그겁주게. 그것도 역시 우선 곤 것부떠 막 줏엉 썰어진 것덜 영 헤근에 이녁 먹을 것덜은, 뭐 허영 먹읍니까게? 그런 것은 허영 물방에에 강 ᄲᅡ사당 ᄲᅡ상 그건 ᄀᆞ를 멘들앙은에 감저떡도 헹 먹고.(예, 그거는 또 절간고구마 검어도 달다 하는 것이 그거지요. 그것도 역시 우선 고운 것부터 막 주워서 썰어진 것들 이렇게 해서 이녁 먹을 것들은, 뭐 해서 먹습니까? 그런 것은 해서 연자매에 가서 빻아서 그건 가루를 만들어서 고구마 떡도 해서 먹고.)

103057 @ 감저떡 헹 먹고예.(고구마떡도 해서 먹고.)

103057 #1 예, 거 먹어도 맛 좋읍니다.(예, 거 먹어도 맛 좋습니다.)

103057 @ 그 저 감저벳데기도 쳥 먹어나지 안 헷수가예?(그 저 절간고구마도 쪄서 먹었었지 않습니까?)

103057 #1 예, 예.(예, 예.)

103057 @ 청도 먹고예. 청 먹는 게 맛 좋아난 거 닮아마씨.(쪄도 먹고요. 쪄서 먹는 게 맛 좋으니까 거 같아요.)

103057 #1 예.(예.)

103057 @ 아, 절간 고구마는 경 헹은에 전분 공장에 강 프는구나예?(아, 절간 고구마는 그렇게 해서 전분 공장에 가서 파는군요?)

103057 #1 예, 예.(예, 예.)

103057 @ 음, 가격은 얼마나 헤낫수가?(음, 가격은 얼마나 했었습니까?)

103057 #1 가격은 오래부니까 액수를 모르쿠다.(가격은 오래되어 버리니까 액수를 모르겠습니다.)

103057 @ 음.(음.)

103057 #1 거는 생산만 허믄 농협에서 허곡, 뚜로 농산물 품위 직원이 농협이 ᄀᆞ찌 왕 걸 검사허고, 또 어떤 땐 주정 원료 공장에서도 직원이 나옵니다. 나와서 거의 다 주정 공장에서는 일 년에 흔 멧 부락 흔 멧 반디만 봉 나머지는 그저 농협에서가 등수 메경 뚜로 그 그날 직송도 허고, 부락에 창고 잇는 딘 창고에 쟁여 두엇다가 뒷터레 왕 시꺼가는 수도 싯고, 경 헙니다.(거는 생산만 하면 농협에서 하고, 또 농산물 품위 직원이 농협에 같이 와서 걸 검사하고, 또 어떤 땐 주정 원료 공장에서도 직원이 난옵니다. 나와서 거의 다 주정 공장에서는 일 년에 한 몇 부락 한 몇 곳만 봐서 나머지는 그 저 농협에서가 등수 매겨서 또 그 그날 직송도 하고, 부락에 창고 있는 데는 창고에 쟁여 두었다가 뒤로 와서 실어가는 수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103057 @ 저 이 다수확 헤나시난 이 고구마, 감저 농사허멍 어떵 저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잇수가?(저 이 다수확 했었으니까 이 고구마, 고구마 농사하면서 어떻게 저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03057 #1 야튼 일기만 좋아시믄 헤나십주게.(아무튼 일기만 좋았으면 했었습지요.)

103057 @ 일기만 좋으민 허고.(일기만 좋으면 하고.)

103057 #1 뚜로 아이덜 방학이나 언제 허코, 이게 질 생각이 납니다.(또 아이들 방학이나 언제 할까, 이게 젤 생각이 납니다.)

103057 @ 감저 방학을 헤낫수가?(고구마 방학을 했었습니까?)

103057 #1 아니 헷수다. 아니 헤도 그 아이덜 신 때 헤야 그걸 수확을 헤십주게.(아니 했습니다. 아니 해도 그 아이들 있을 때 해야 그걸 수확을 했습지요.)

103057 @ 음.(음.)

103057 #1 게곡 또 그즈음 거 고구마 ᄀᆞ뜬 거 많이 헤 놓으니까 아이덜을 경 부려집디다. 허허.(웃음)(그리고 또 그즈음 거 고구마 같은 거 많이 해 놓으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부려집디다. 허허.(웃음))

103057 @ 경헤도 공부덜은 다 잘 헤신게예.(그래도 공부들은 다 잘 했었네.)

103057 #1 예게, 자랑이 아니라 공부덜은 경헤도 잘 헤서마씨.(예, 자랑이 아니

라 공부들은 그래도 잘 했어요.)

103057 @ 지금 감저 묘종이 요만큼 나와실 거라양?(지금 고구마 모종이 요만큼 나왔을 거야?)

103057 #1 예, 예.(예, 예.)

103057 @ 게믄 이게 앞으로 보름쯤 잇이믄 그거 보리 그르에 싱그면 뒐 거 아니우꽈예?(그러면 이게 앞으로 보름쯤 있으면 그거 보리 그루에 심으면 될 거 아닙니까?)

103057 #1 예.(예.)

103057 @ 그 줄 비엉 싱그는 거잖아예? 그 아레 이신 것도 먹지 안 헷수가?(그 기는줄기 베어서 심는 거잖아요? 그 아래 있는 것도 먹지 않았습니까?)

103057 #1 건 구감. 구감이라고 헤 가지고 그거 저 베고플 때라든지 그냥도 그 저 그 먹읍니다게, 먹는디 ᄒᆞ끔 ᄀᆞ물아 난 때는 ᄒᆞ끔 먹을 것도 싯고 영 허는디 비나 ᄌᆞ주 와 놓고 허믄 얼마 먹을 거 엇입니다. 게도 그거 거의 다 그거 먹읍니다. 먹엉 속에 맛 좋은 거 이시믄 우리가 다 먹고 나머진 겁죽 ᄀᆞ뜬 거 다 벳겨불면, 겁죽엔 그거 다 떠나니까 다 골릅니다게. 게믄 그건 저 뒈지 주곡.(건 '구감'. '구감'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 저 배고플 때라든지 그냥도 그 저 그 먹습니다, 먹는데 조금 가물어 난 때는 조금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비나 자주 와 놓고 하면 얼마 먹을 거 없습니다. 그래도 그거 거의 다 그거 먹습니다. 먹어서 속에 맛 좋은 거 있으면 우리가 다 먹고 나머진 껍데기 같은 거 다 벗겨버리면, 껍데기엔 그거 다 떠나니까 다 곯습니다. 그러면 그건 저 돼지 주고.)

103057 @ 아, 뒈지도 주고예, 게난 묘종 감잔데 그것이 남아 잇인 거라예. 이거 다 뿔아 먹엇주만 뭔가 남아 잇는 거.(아, 돼지도 주고요, 모종 고구마인데 그것이 남아 있는 거야. 이거 다 빨아 먹었지만 뭔가 남아 있는 거.)

103057 #1 구감.('구감'.)

103057 @ 구감, 예, 그 웨에 농사는 무슨거 헤낫수가?('구감', 예, 그 외에 농사는 무엇 했었습니까?)

103057 #1 그 농사야 다 비슷비슷헤십주.(그 농사야 다 비슷비슷했습지요.)

기타 농사

103060 @ 수박 농사는 안 헤낫수가?(수박 농사는 안 했었습니까?)

103060 #1 수박 농사는 안 헤봣수다. 수박 농사는 아니 헤 보고 양파, 양배추 요런 건 좀 헷수다.(수박 농사는 안 해봤습니다. 수박 농사는 아니 해 보고 양파, 양배추 요런 건 좀 했습니다.)

103061 @ 참웨 농사도 안 헤봣수가?(참외 농사도 안 해봤습니까?)

103061 #1 안 헤봣수다.(안 해봤습니다.)

103062 @ 안 헤 보고, 고추는 좀 헤실 거고예.(안 해 보고, 고추는 좀 했을 거고.)

103062 #1 아, 고추도 안 헷수다. 참웨 농사는 좀 헤십주.(아, 고추도 안 했습니

다. 참외 농사는 좀 했습지요.)

103061 @ 참웨 농사 좀 헤보고예?(참외 농사 좀 해보고요?)

103061 #1 예, 뚜로 저 도마도 농사도 혼 번 헤 보고.(예, 또 저 토마토 농사도 한 번 해 보고.)

103061 @ 도마도?(토마토?)

103061 #1 혼 번 딱.(한 번 딱.)

103061 @ 최근, 최근에?(최근, 최근에?)

103061 #1 아니. 오래뒈엇수다.(아니, 오래되었습니다.)

103061 @ 오래뒈엇수가?(오래되었습니까?)

103061 #1 예.(예.)

103062 @ 고추는 뭘, 밧테 고추 갈아난 적은 엇고예?(고추는 뭘, 밭에 고추 갈았던 적은 없고요?)

103062 #1 밧디 저 우리 집이 자급자족허기 위헤 가지고 요 삼방만이 갈고 헷수다.(밭에 저 우리 집에 자급자족하기 위해 가지고 요 대청만큼 갈고 했습니다.)

103062 @ 집에예?(집에요?)

103062 #1 예.(예.)

103062 @ 집에 우영팟이 잇어낫수가?(집에 터앝이 있었었습니까?)

103062 #1 이거 허고 이거, 저거 혼 백 평은 뒐 거우다.(이거 하고 이거, 저거 한 백 평은 될 것입니다.)

103063 @ 백 평 뒈난, 아, 여기 헷구나. 게난 양배추도?(백 평 되니까, 아, 여기 했구나. 그러니까 양배추도?)

103063 #1 예, 양배추도 많이 헷수다.(예, 양배추도 많이 했습니다.)

103063 @ 양배추는 어떤 식으로 헷수가?(양배추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3063 #1 양배추는 종자를 저 일본서 수입헌 건디 사계약[106] 우린 많이 헷수다, 사계약, 만추[107]라고 헤 가지고 우리 헐 때ᄁᆞ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잇엇는디 그 사계약은 ᄒᆞ끔 이른 거고.(양배추는 종자를 저 일본서 수입한 것인데 '사계약' 우린 많이 했습니다, '사계약', '만추'라 해 가지고 우리 할 때까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그 '사계약'은 조금 이른 거고.)

103063 @ 사계약?('사계약'?)

103063 #1 뚜로 만추는 ᄒᆞ끔 늦은 거고, 이렇게 뒈는디. 저거 언제 메 놓느냐 허면 칠월에 놧다가 보릿대는 지금은 다 보릿대로 헤 가지고 다 그 일일이 놔도 그 전에는 땅을 쑥 갈아 가지고 그디 작지 한 디 줏어뒁 바닥을 짝 골롸근에 놩 그 저 이거 짝 골라진 땅 ᄀᆞ트믄 요 간격으로 헤 가지고 손으로 영 긋어뒁 영 영 영 좁아 놩 다 묻읍주기. 영 영 영 묻곡 헤 놩 그 우터레 보리낭 톡 더껑 물 질 처음 많이 줘사 헙니다.(또 '만추'는 조금 늦은 거고, 이렇게 되는데. 저거 언제 모 놓느냐 하

106) '사계약'은 양배추 종자의 하나이다.
107) '만추'는 양배추 종자의 하나이다.

면 칠월에 놨다가 보릿대는 지금은 다 보릿대로 해 가지고 다 그 일일이 놔도 그 전에는 땅을 쑥 갈아 가지고 거기 자갈 많은데 주워둬서 바닥을 짝 골라서 놔서 그 저 이거 짝 골라진 땅 같으면 요 간격으로 해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그어둬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집어 놔서 다 묻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고 해 놔서 그 위로 보릿짚 톡 덮어서 물 젤 처음 많이 줘야 합니다.)

103063 @ 음.(음.)

103063 #1 흠박이 물 줭은에 허면은 저거 ****을 영영 들렁 다니당 바로 이 보리낭을 다 걷어붑주기. 걷어둥 나머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 줘야 헙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줘 가지고 키우고, 뚜로 저것도 역시 버렝이 일지 안 허게 살충제도 뿌리고, 그레 가지고.(흡족하게 물 줘서 하면은 저거 ****을 이렇게 이렇게 들러서 다니다가 바로 보릿짚을 다 걷어버리지요. 걷어둬서 나머지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물 줘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물 줘 가지고 키우고, 또 저것도 역시 벌레 일지 않게 살충제도 뿌리고, 그래 가지고.)

103063 @ 검질도 메고예?(김도 매고요?)

103063 #1 예, 검질은 얼만 나질 안 헙니다.(예, 김은 얼마 나질 않습니다.)

103063 @ 게난 언제, 언제 싱경 언제 수확을 헙니까?(그러니까 언제, 언제 심어서 언제 수확을 합니까?)

103063 #1 게난 저거 팔월달에, 요즘은 그 저 사계약이엔 헌 종자가 많이 나오니까예, 나가 헐 때는 그 사계약허고 만추 ᄀᆞ뜬 걸 많이 헷는데, 그거 저 칠월에 싱급니다.(그러니까 저거 팔월에, 요즘은 그 저 '사계약'이라고 한 종자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할 때는 그 '사계약'하고 '만추' 같은 걸 많이 했는데, 그거 저 칠월에 심습니다.)

103063 @ 게믄 수확은?(그러면 수확은?)

103063 #1 수확은 그 저 십일월달, 십이월달에도 허곡, 경 안 허믄 뒷헤 이 삼월 나도록도 헙니다. 게믄 거 좋게 뒈면은 십이월 말 전에 수확을 헐 수 잇고, 나머지 좋지 안 허면은 그 일월달에 허는데 그 만생종허고 조생종이 뚜납주게. 혼 두 둘 사이가 뒙니다만.(수확은 그 저 십일월, 십이월에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뒷해 이 삼월 나도록도 합니다. 그러면 거 좋게 되면은 십이월 말 전에 수확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좋지 않으면은 그 일월에 하는데 그 만생종하고 조생종이 다르지요. 한 두 달 사이가 됩니다만.)

103063 @ 아, 게니까 만생종은 늦게 수확허고, 조생은 빨리 수확허고예?(아, 그러니까 만생종은 늦게 수확하고, 조생은 빨리 수확하고요?)

103063 #1 예.(예.)

103064 @ 이 무우, 무우는 헤 봣수가?(이 무, 무는 해 봤습니까?)

103064 #1 무우는 우리 먹을 거만 헷수다.(무는 우리 먹을 거만 했습니다.)

103064 @ 먹을 거만 허고예. 무우는 언제 싱급니까? 거는.(먹을 거만 하고요. 무는 언제 심습니까?)

103064 #1 무우가 제일 쉬와마씸. 이 저 우잣데 헤 보면은. 그냥 거 산파로도 허곡, 또로 ᄒᆞ끔썩 줍아 놔도 뒈곡 허는디 이거 저 무우가, 이것도 역시 칠월, 팔월 하순까지만 허믄 뒙니다.(무가 제일 쉬워요. 이 저 터앝에 해 보면. 그냥 거 산파로 하고, 또 조금씩 집어 놔도 되고 하는데 이거 저 무가, 이것도 역시 칠월, 팔월 하순까지만 하면 됩니다.)

103064 @ 아, 예.(아, 예.)

103064 #1 심엉 놔두민 뒷헤 봄까지.(심어서 놔두면 뒷해 봄까지.)

103064 @ 아, 게니까. 이 삼월, 이 삼월까지 나는 거고예?(아, 그러니까. 이 삼월, 이 삼월까지 나는 거고요?)

103064 #1 예.(예.)

103064 @ 지금은 무우 거의 없고예? 이 삼월까지 나는 거예?(지금은 무 거의 없고요? 이 삼월까지 나는 거지요?)

103064 #1 예. 이젠 다 고장 피언 졋수다게.(예. 이젠 다 꽃 피어서 졌습니다.)

103065 @ 맞수다게. 감자는?(맞습니다. 감자는?)

103065 #1 감자도 ᄒᆞᆫ 두 고지 놔 가지고 그냥 집이 먹을 거나 싱거낫수다게. 게서 그 감자는 보통 고구마 메종 놓을 적에, 봄이 싱경, 감자가 봄 감자허고, 가을 감자 두 가집주게. 두 가진디 이 우리 대림 경에는 작지왓이니까 감자덜 잘 뒈도 아니허고, 또로 그 자기 먹을 것덜 우잣디나예, 먹을 것덜 허고, 나머지 영업적으로라든지 그추룩은 하영덜 안 헙니다.(감자도 한 두 고지 놔 가지고 그냥 집에 먹을 거나 심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자는 보통 고구마 모종 놓을 적에, 봄에 심어서, 감자가 봄 감자하고, 가을 감자 두 가지지요. 두 가지인데 이 우리 대림리 경에는 자갈밭이니까 감자들 잘 되지도 않고, 또 자기 먹을 것들 터앝이나, 먹을 것들 하고, 남지 영업적으로라든지 그처럼은 많이들 않습니다.)

103065 @ 여기도 지실이엔 허지예?(여기도 '지실'이라고 하지요?)

103065 #1 예, 지실이엔 허고, 지실이엔도 허고, 표준어론 마령서옌도 허고.(예, '지실'이라고 하고, '지실'이라고도 하고, 표준어론 '마령서'라고도 하고.)

103065 @ 마령서엔도?(마령서라고도?)

103065 #1 예.(예.)

103065 @ 마령, 마령서?(마령, 마령서?)

103065 #1 예. 게 가지고 보통 이건 그 감자, 지실은 작지왓이 아니고 그냥 질왓[108]디 자갈 없는 디, 그 저 감자하고 당근은 그 저.(예. 그래 가지고 보통 이건 그 감자, 감자는 자갈밭이 아니고 그냥 '질왓'에 자갈 없는 데, 그 저 감자하고 당근은 그 저.)

103065 @ 게난 동촌[109]더레가 그디 땅들이 자갈이 별로 엇이난?(그러니까 '동촌'으로가 거기 땅들이 자갈이 별로 없으니까?)

---

108)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 흙이 갈려 있는 밭이다.

109) '동촌'은 제주시 동지역 동쪽 지역을 일컬으며, 조천읍, 구좌읍 일대를 말한다.

103065 #1 예.(예.)

103065 @ 그디가 뒈는구나.(거기가 되는구나.)

103065 #1 예, 그 저.(예, 그 저.)

103065 @ 몰레땅.(모래땅.)

103065 #1 몰레땅, 성산[110]더레, 아이 저 성산이엔 헤겸저, 구좌[111] 쪽에.(모래땅, '성산'으로, 아니 저 '성산'이라고 해지고 있네, 구좌읍 쪽에.)

103065 @ 구좌 쪽에, 예.(구좌읍 쪽에, 예.)

103065 #1 그레 그 당근 좋은 원인이 그레 반 모살밧이고 작지왓이 아니난 그 겁주게. 뚜로 고산[112] 그레가 감저, 지실 잘 뒈고.(그리 그 당근 좋은 원인이 그리 반 모래밭이고 자갈밭이 아니니까 그거지요. 또 '고산' 그리 고구마, 감자 잘 되고.)

103065 @ 예. 예, 감저 잘 뒈고예. 자갈덜이 엇이난.(예. 예, 감자 잘 되고요. 자갈들이 없으니까.)

103065 #1 예.(예.)

103066 @ 피도 농사 헤낫수가? 피.(피도 농사했었습니까? 피.)

103066 #1 피는 헤 보진 안 헷수다. 먹언 봣수다.(피는 해 보진 않았습니다. 먹어는 봤습니다.)

103066 @ 먹언 보고.(먹어는 보고.)

103066 #1 예.(예.)

103067 @ 게 ᄆᆞ멀은 헤나고예?(그래 메밀은 했엇고요?)

103067 #1 예, ᄆᆞ멀도 흔 두어 번 헷수다.(예, 메밀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103067 @ ᄆᆞ멀은 어떵 심엉 어떤 식으로 장만?(메밀은 어떻게 심어서 어떻게 장만?)

103067 #1 ᄆᆞ멀은 그 정상적으로 잇당 허게 뒈면 아주 수월허게 잘 뭡니다. 여기 저 해벤 밧디도 잘 뒈는디, 해벤 밧디는 일반 농사허고, 건 웃드리 강 새밧 농사헌다고 땅을 개간협주기. 개간헤서 쉐로도 갈고, 경운기로도 갈아낫수다만은, 갈멍 그 ᄆᆞᆫ딱 덩어리니까, 테역이니까, 죽 덩어리로 나옵니다.(메밀은 그 정상적으로 있다가 하게 되면 아주 수월하게 잘 됩니다. 여기 저 해변 밭에도 잘 되는데, 해변 밭에는 일반 농사하고, 건 '웃드리' 가서 띠밭 농사한다고 땅을 개간하지요. 개간해서 소로도 갈고, 경운기로도 갈았었습니다만, 갈면서 그 모두 덩어리니까, 떼이니까 죽 덩어리로 나옵니다.)

103067 @ 세 번 간 덴 허는 거구나.(세 번 간다고 하는 거구나.)

103067 #1 예, 일일이 걸 다 부수와마씨.(예, 일일이 걸 다 부숴요.)

103067 @ 예.(예.)

103067 #1 부수왕 놔뒁다가, 뚜로 걸, 뚜로 두 번 갑주기. 두 번 갈앙도 벙뎅이 난다든지 허믄 다 부수곡 헤 놩, 세 번채 갈앙.(부숴서 놔뒀다가 또 걸, 또 두 번

110) '성산'은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을 말한다.
111) '구좌'는 제주시 구좌읍 지역을 말한다.
112)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말한다.

갈지요. 두 번 갈아도 덩어리 난다든지 하면 다 부수고 해 놔서, 세 번째 갈아서.)

103067 @ 씨 뿌려?(씨 뿌려?)

103067 #1 예, 씨 뿌립니다.(예, 씨 뿌립니다.)

103067 @ 게난 것도 뭐 수확허는 거는 좋으나 궂으나 다 비슷허게예.(그러니까 것도 뭐 수확하는 거는 좋으나 궂으나 다 비슷하게.)

103067 #1 ᄆᆞ멀은 단 뭐냐 이 저 ᄆᆞᆯ방에에 가서 둥글리지 못 헙니다. 이 저 그냥 도께.(메밀은 단 뭐냐 이 저 연자매에 가서 굴리지 못합니다. 이 저 그냥 도리깨.)

103067 @ 도리께질로?(도리깨질로?)

103067 #1 도리께질로.(도리깨질로.)

103067 @ 도리께질로? 아, 그건 ᄆᆞᆯ방에로 굴리지 못허고.(도리깨질로? 아, 그건 연자매로 굴리지 못하고.)

103067 #1 예.(예.)

103067 @ 온전이 도리께질로만?(온전히 도리깨질로만?)

103067 #1 예.(예.)

103067 @ 그것도 헤 오는 거나, 시꺼 오는 거는 사람이나 ᄆᆞᆯ이나 뭐?(그것도 해 오는 거나, 실어 오는 거는 사람이나 말이나 뭐?)

103067 #1 예, 사름이나 쉐 헤 가지고.(예, 사람이나 소 해 가지고.)

103067 @ 사름이나 쉐 허 가지고 시꺼 오고. 그 메밀찝은 뭘 헷수가?(사람이나 소 해 가지고 실어 오고. 그 메밀짚은 뭘 했습니까?)

103067 #1 그것은 저 ᄒᆞ끔 성헌 때에, 곧 허멍서라 소나 말 주믄 먹읍니다만은. 경 아니허믄 그 저 이 ᄆᆞ쉬 ᄀᆞ뜬 거 지를 때라든지 담 에염이라든지 낭께기 걸쳥 그레 우터레 지쳥 놔뒷당 그 아레 굴룬쉐나 ᄆᆞᆯ이나 허믄 지쳥 놔뒷당 허고게, 아니믄 그거 불체 ** 것도 합니다게. 불체 멩글아 뒷다가 다시 ᄆᆞ멀밧디 퉤비.(그것은 저 조금 성한 때에, 곧 하면서 소나 말 주면 먹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면 그 저 이 마소 같은 거 길을 때라든지 담 옆이라든지 나뭇가지 걸쳐서 그리 위로 지쳐서 놔뒀다가 그 아래 군소나 말이나 하면 지쳐서 놔뒀다가 하고요, 아니면 그거 재 ** 것도 합니다. 재 만들어 뒀다가 다시 메밀밭에 퇴비.)

103067 @ 아, 거난 그걸 쉐 먹이로도 멕이고?(아, 그러니까 그걸 소 먹이로도 먹이고?)

103067 #1 예, 먹긴 먹읍니다만, 큰 사료는 뒈질 아니허여마씨.(예, 먹긴 먹습니다만, 큰 사료는 되질 않아요.)

103067 @ 큰 사룐 뒈질 안 허고. 게난 땔감으로 헷당 불체 쓰고.(큰 사료는 되질 않고. 그러니까 땔감으로 했다가 재 쓰고.)

103067 #1 예.(예.)

103067 @ 그것도 게난 저 불 솔아낫네예? 그걸로도.(그것도 그러니까 저 불 살랐었네요? 그걸로도.)

103067 #1 예.(예.)

103068 @ 메밀찝으론예. 담배도 갈아낫수가?(메밀짚으론요. 담배도 갈았었습니까?)

103068 #1 예, 담배 일 년 갈아낫수다. 하하.(웃음)(예, 담배 일 년 갈았었습니다. 하하.(웃음)

103068 @ 담배는 어떤 식으롣 헤낫수가?(담배는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103068 #1 담배는 저거 그 나 이장 때난게, 막 바빠 가지고 다 싱거 놧단 벵작 줘불어낫수다만은, 저 메종을 놉니다, 저것도. 저 메종 놔 가지고 봄에 저것은 이 저 보리 그르에도 싱그고 그 전에도 싱그는디, 메종 놔 가지고 저것은 삽십 센치 간격으로 저걸 하나썩 하나썩 일일이 싱급니다. 싱거 뒷다가 접순 나 가지고 접순 다 틋다주곡, 뜩로 이파리가 일곱 개, 읏둡 개 나믄 또 우 막아버려야 헙니다. 게난 그 저 이파리가 족아야 뒈어마씨.(담배는 저거 그 나 이장 때니까요, 아주 바빠 가지고 다 심어 놨다가 병작 줘버렸었습니다만, 저 모종을 놉니다, 저것도. 저 모종 놔 가지고 봄에 저것은 이 저 보리 그루에도 심고 그 전에도 심는데 모종 놔 가지고 저것은 삼십 센티미터 간격으로 저걸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심습니다. 심어 뒀다가 접순 나 가지고 접순 다 뜯어주고, 또 잎사귀가 일곱 개, 여덟 개 나면 또 우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 잎사귀가 작아야 돼요.)

103068 @ 음.(음.)

103068 #1 거믄 그걸 봐 가지고 다 뜩당 이젠, 뜩로 거 흔 번에 두 잎썩 다 여까마씨. 여깡 밧 그 담에라도 걸쳐 가지고 쭉 배에도 메어두곡, 뜩로 영 물리는 과정인디 반 이슬 맞아서 아이 뒈곡 허니까 걸 더꺼뒷당 읏름에 낮이믄 읏름에 더껏당 허믄 그게 색깔이 누렁헤야 이것이 좋다고 헤 가지고, 경 허영 건 전매청에서 왕은에 받아가는디 것도 등급 차이가 상당이 심헤마씸게.(그러면 그걸 봐 가지고 다 뜯어서 이젠, 또 거 한 번에 두 잎씩 다 엮어요. 엮어서 밭 그 담에라도 걸쳐 가지고 쭉 참바에도 매어두고, 또 이렇게 말리는 과정인데 반 이슬 맞아서 아니 되고 하니까 걸 덮어뒀다가 여름에 낮이면 여름에 덮었다가 하면 그게 색깔이 누레야 이것이 좋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 전매청에서 와서 받아가는데 그것도 등급 차이가 상당히 심해요.)

103068 @ 음.(음.)

103068 #1 경 헤근에 흔, 난 것도 일 년 흔 번 헤봣수다.(그렇게 해서 한, 난 것도 일 년 한 번 해봤습니다.)

103068 @ 예.(예.)

103068 #1 겐디 그 계속허는 사름도 셧는데 그것이 뚠 농사만큼양 수확이 아이 뒈고, 또 저거 여름철에는 그 흔 칠월광 팔월 새이에는 저거 수확헙주게. 게믄 그때 팔월달이라도 일일이 여까 가지고 헹은에 비 아이 맞추고 허는데, 메종 놧당 일일이 싱것수다. 삼십 센치 간격으로 흑나썩 허연.(그런데 그 계속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것이 딴 농사만큼 수확이 아니 되고, 또 저거 여름철에는 그 한 칠월과 파월 사이에는 저거 수확하지요. 그러면 그때 팔월이라도 일일이 엮어 가지고 해서 비

아니 맞추고 하는데, 모종 놨다가 일일이 심었습니다. 삼십 센티미터 간격으로 하나씩 해서.)

103068 @ 아, 그 씨는 삽십 센치 간격으로 뿌립니까? 혼 씨를.(아, 그 씨는 삼십 센티미터 간격으로 뿌립니까? 한 씨를.)

103068 #1 예, ᄒᆞ나썩 메종이.(예, 하나씩 모종이.)

103068 @ 아, 메종을? 메종을 싱글 때에.(아, 모종을? 모종을 심을 때에.)

103068 #1 예, 메종이 칠팔 센치 크믄.(예, 모종이 칠팔 센티미터 크면.)

103068 @ 메종을, 메종은 언제 갈아마씨?(모종을, 모종을 언제 갈아요?)

103068 #1 메종은 그때 저거.(모종은 그때 저거.)

103068 @ 파종을 헌 게?(파종을 하는 게?)

103068 #1 메종은 파종헐 때 저거 야튼 사월 하순쯤에 파종헙니다.(모종은 파종할 때 저거 아무튼 사월 하순쯤에 파종합니다.)

103068 @ 음, 게믄 그거를 싱그는 거는?(음, 그러면 그거를 심는 거는?)

103068 #1 싱그는 건 그 저 뚜로 유월달 낭 싱경.(심는 건 그 저 또 유월 나서 심어서.)

103068 @ 음, 팔월에 수확을 허는구나예. 그 담배로 헹 뭐 담배 만들기도 헤낫수가?(음, 팔월에 수확을 하는구나. 그 담배로 해서 뭐 담배 만들기도 했었습니까?)

103068 #1 담배, 담배는 헨 그 저 우리 나 그땐 이장헐 때난 바빠 놓으니까 독고대[113]에 살아난 ○○엔 헌 사름이 살아나신디 우리 밧디 거 싱거신디 나머지 것도 허영 돈 나건 갈르자 허연 겐 벵작 줘불엇수다.(담배, 담배는 해서 그 저 우리 나 그땐 이장할 때니까 바빠 놓으니까 '독고대'에 살았던 ○○라고 한 사람이 살았었는데 우리 밭에 거 심었는데 나머지 것도 해서 돈 나건 가르자 해서 그래서 병작 줘버렸습니다.)

103068 @ 음, 하여간 이거는 전매청에서 왕 받아가는 거구나예?(음, 하여간 이거는 전매청에서 와서 받아가는 거구나?)

103068 #1 예, 예. 게도 그것이 등급 차이가 심헙주게.(예, 예. 그래도 그것이 등급 차이가 심하지요.)

103068 @ 등급 차이가예. 아이고 수고헷수다. 농사일에 대헤서 하영 들어져신게마씨.(등급 차이가, 아이고 수고햇습니다. 농사일에 대해서 많이 들어 졌네요.)

103068 #1 게도 농사를 많이 지어낫수다.(그래도 농사를 많이 지었었습니다.)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지난번에 밧일 들어봣고, 오늘은 들일, 들에서 허는 일, 들에서 허는

113) '독고대'는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일 보니까 여기는 소 기르기, 말 기르기, 소 먹이, 땔감, 사냥도 헤낫수가? 뭐 꿩 잡으레도 다녀나실 거 아니우꽈예?(지난번에 밭일 들어봤고, 오늘은 들일, 들에서 하는 일, 들에서 하는 일 보니까 여기는 소 기르기, 말 기르기, 소 먹이, 땔감, 사냥도 했엇습니까? 뭐 꿩 잡으러도 다녔을 거 아닙니까요?)

104001 #1 건 뭐 우리 어렷을 때, 꿩코도 놓고.(건 뭐 우리 어렸을 때, 꿩 올가미도 놓고.)

104001 @ 음, 노루 사냥이나, 지다리 사냥 ᄀᆞ튼 건 안 헤보고예?(음, 노루 사냥이나, 오소리 사냥 같은 거 안 해보고요?)

104001 #1 예.(예.)

104001 @ 소 기르기부떠 물어보쿠다. 쉐는 어떵 기릅니까?(소 기르기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소는 어떻게 기릅니까?)

104001 #1 소는 집에서 보통, 그 본리에서는 거의 다 밧갈쉐로만 부립니다, 부릉이, 부릉이만 부리고 그 웨에 암쉐덜은 삼분의 일정도쯤 뒙니다. 그러는데 그걸 저 집이서 손수 송아지를 낳아 가지고 키왕 밧 가는 사름도 싯고, 또 송아지 낳는 그냥 풀아 두고 밧갈쉐로 다 자란 소를 사당 길루는 사름도 싯고, 이렇게 헤낫수다, 뭐.(소는 집에서 보통, 그 본리에서는 거의 다 밭을 가는데 부리는 소로만 부립니다, 부룩소. 부룩소만 부리고 그 외에 암소들은 삼분의 일정도쯤 됩니다. 그런데 그걸 저 집에서 손수 송아지를 낳아 가지고 키워서 밭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송아지 낳는대로 팔아 두고 밭을 가는데 부리는 소로만 다 자란 소를 사다가 기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104001 @ 부릉이는 숫송아지, 숫쉐?(부룩소는 수송아지, 수소?)

104001 #1 예. 숫송아지인디 보통 아주 송아지가 윤진 거는 세 살 적이부떠 밧을 갑니다. 거 밧을 가는데 어떻게 헤서 ᄀᆞ르치냐 허면은 쉐 멍에에다가 저 곰돌[114]이라고 허는 돌을 끗어 가지고 질레 빙빙 돌아 뎅이멍 이껑 뎅이멍 쉐 훈련을 시깁니다.(예. 수송아지인데 보통 아주 윤진 거는 세 살 적에부터 밭을 갑니다. 거 밭을 가는데 어떻게 해서 가르치느냐 하면은 소 멍에에다가 저 '곰돌'이라고 하는 돌을 끌어 가지고 길에 빙빙 돌아다니면서 이끌어 다니면서 소 훈련을 시킵니다.)

104001 @ 곰돌이엔 헌 건 어디다가, 돌은 어떵 이만헌 돌이우꽈?('곰돌'이라고 한 건 어디에다가, 돌은 어떻게 이만한 돌입니까?)

104001 #1 아니우다. 큰, 넙작헌 ᄀᆞ렛짝 닮은 돌인디 그걸.(아닙니다. 큰, 넓적한 맷돌짝 같은 돌인데 그걸.)

104001 @ 아, 무껑은에.(아, 묶어서.)

104001 #1 그 쉐 멍에에 둘앙은에 그냥 이껑 뎅여나믄 ᄯᅳ시 쉐가 조끔 멍들어 가지고, 게 아니믄 또 웃드리[115] 가 가지고 소낭이나 나무를 끊어 가지고 쉐에 ᄯᅳ로 체왕 끗엉 내려왕 그걸 ᄯᅳ로 지들커로도 쓰고, 나무를. 이렇게도 허고 헤낫수

114) '곰돌'은 소에게 밭갈이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쟁기 대신에 묶어서 사용하는 돌덩이다.
115) '웃드리'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다.(그 소 멍에에 달아서 그냥 이끌어서 다니면 다시 소가 조금 멍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또 '웃드리' 가 가지고 소나무나 나무를 끊어 가지고 소에 또 채워서 끌어서 내려와서 그걸 또 땔감으로 쓰고, 나무를. 이렇게도 하고 했었습니다.)

104001 @ 쉐를 체운덴 헌 건 쉐에 뭐, 짐을? 쉐를 체운다.(소를 채운다고 한 건 소에 뭐, 짐을? 소를 채운다.)

104001 #1 쉐를 그 멍에에다가 나무를 딱 무껑, 무꺼 가지고 쉐 이꺼 와 가믄, 질레 질질 끗엄시민 올 거 아이우꽈게?(소를 그 멍에에다가 나무를 딱 묶어서, 묶어 가지고 소 이끌어 와 가면, 길에 질질 끌고 있으면 올 거 아닙니까?)

104001 @ 아, 예.(아, 예.)

104001 #1 예, 그런 식으로 헤 가지고 헹 옵니다.(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서 옵니다.)

104001 @ 것도 훈련시키는 거구나예?(그것도 훈련시키는 거구나?)

104001 #1 예, 예. 경 허는 겁주.(예, 예. 그렇게 하는 거지.)

104001 @ 아, 훈련시기고. 게난 어디 강 쉐를 끌고 가곡 헙니까?(아,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소를 끌고 가고 합니까?)

104001 #1 보통은 집이서 메던 소를 세 술 나 가지고 조금 자라면 그걸 소를 ᄀᆞ르치기 위헤 가지고 집집마다 소 밧 가는 멍에가 십주게. 멍에 톡 지곡 쉐 이껑 갓다가 웃드리 강 낭을 끊어 가지고 그 멍에 씌왕 멍에 톡 그 섬비질 끗데 돌아메믄 질질 끗엉 집ᄁᆡ지 들어옵주기, 들어왕.(보통은 집에서 매던 소를 세 살 나 가지고 조금 자라면 그걸 소를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집집마다 소 밭가는 멍에가 있습지요. 멍에 톡 지고 소 이끌어서 갔다가 '웃드리' 가서 나무를 끊어 가지고 그 멍에 씌워서 멍에 톡 그 끙게질 끝에 달아매면 질질 끌어서 집까지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104001 @ 낭은 어디 강 낭을 끄칩니까?(나무는 어디 가서 나무를 끊습니까?)

104001 #1 낭은 여기서 흔 ᄉᆞ백 고지 상대[116] 지경에 올라강.(나무는 여기서 한 사백 고지 상대 지경에 올라가서.)

104001 @ 상대 위에?(상대리 위에?)

104001 #1 예, 거기 강 끗엉 오믄.(예, 거기 가서 끌어서 오면.)

104001 @ 천아오름 신디?('천아오름' 있는데?)

104001 #1 천아오름[117] 좀 넘어간 디도 싯고. 자기 각자 그자 자기 밧테 나무를 끈엇수다. 경 헹 ᄂᆞ려옵니다, 뭐. 그래서 그건 소를 훈련시겨 놔 가지고 거 밧을 가는데 질 처음은 경헤도 소가 말을 아이 들면은 그 앞에 여자라든지, ᄯᅳ로 뚠 사름이 끌곡 갈곡 헤사 흔 멧 시간은 훈련시겨마씨. 멧 시간 끗데, ᄯᅳ로 어진 소는 경 허지 안 헤도 ᄒᆞ끔 갈아지는디 경 안 헌 건 메칠 공력을 들여야 뒈어마씨.('천아오름' 좀 넘어간 데도 있고, 자기 각자 그저 자기 밭에 나무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해

116) '상대'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이다.
117) '천아오름'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마을 남동쪽에 있는 낮은 오름이다.

서 내려옵니다, 뭐. 그래서 그건 소를 훈련시켜 놔 가지고 거 밭을 가는데 젤 처음은 그래도 소가 말을 안 들면은 그 앞에 여자라든지, 또 딴 사람이 끌고 갈고 해야 한 몇 시간은 훈련시켜요. 몇 시간 끝에 또 어진 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금 갈아지는데 그렇게 안 한 건 며칠 공력을 들여야 돼요.)

104001 @ 음.(음.)

104001 #1 말을 아이 들어 가지고 바로 가도 아니허고, 거 실러 가지고 쉐 밋트로 탁 드러눠 일 아니 허젠 경 허영 드러눕는 소덜토 잇곡, 경 밧 ᄀᆞ르치젠, 그런 과정이난.(말을 아니 들어 가지고 바로 가지도 않고, 거 실어 가지고 소 밑으로 탁 드러누워서 일 않으려고 그렇게 해서 드러눕는 소들도 있고, 그렇게 밭 가르치려고, 그런 과정이니까.)

104001 @ 음.(음.)

104001 #1 게난 밧 ᄀᆞ르치는 사름, 것도 장남 ᄀᆞᆯ려사 허여마씨. 메 사름 다 ᄀᆞ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헌다 허는 사름은 그 소도 버침도 허고, 또 그 저 뒤처리를 잠데 지펑 헐 거고.(그러니까 밭 가르치는 사람, 것도 건강한 일꾼을 가려야 해요. 매 사람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한다 하는 사람은 그 소도 부치기도 하고, 또 그 저 뒤처리를 쟁기 짚어서 할 거고.)

104001 @ 잠데, 잠데로, 잠데를 어떻게 허는 거라마씨?(쟁기, 쟁기로, 쟁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104001 #1 잠데를, 쉐는 그자 멍에 메와 가지고 그다음은 멍에에 그 오리목[118]에 잠데를 딱 무끄면은 뒤에 잠데허고 양주머리 지프곡, ᄯᅳ로 양손 밋티 그 가린석[119] 저 지프곡 서툰 쉔, ᄯᅳ로 여자라든지 뚠 사름이 서툰 쉐 이끄곡, 게 가지고 ᄒᆞᆫ 멧 시간 훈련시기면은 그 저 쉐가 좀 얌전헌 쉐는 그대로 ᄒᆞ끔 좀 사름이 못젼뎌도 갈곡, 게 아니헌 쉐는 메칠 그걸 아무도 못 끌곡, 또 곰돌 헤 가지고 동네도 돌곡 메칠 연습헤야 그거 익숙 뒈는 소가 싯고 헙니다.(쟁기로, 소는 그저 멍에 메워 가지고 그다음은 멍에에 그 '오리목'에 쟁길르 딱 묶으면은 뒤에 쟁기하고 양지머리 짚고 또 양손 밑에 그 '가린석' 저 짚고 서툰 소는, 또 여자라든지 딴 사람이 서툰 소 이끌고, 그래 가지고 한 몇 시간 훈련시키면은 그 저 소가 좀 얌전한 소는 그대로 조금 좀 사람이 못 견디어도 갈고, 그렇게 안 한 소는 며칠 그걸 아무도 못 끌고, 또 '곰돌' 해 가지고 동네도 돌고 며칠 연습해야 그거 익숙하게 되는 소가 있고 합니다.)

104001 @ 아, 게 암쉐는 것도 뭐 ᄀᆞ리치는 건 엇고마씨?(아, 그래 암소는 그것도 뭐 가르치는 건 없고요?)

104001 #1 암소, 암소도 거 그냥 쉐가 부릉이가 없는 집이는 해 암소도 ᄀᆞ르쳥은에 부립니다. 암소 ᄀᆞ르치는 것도 보통은 부릉이 ᄀᆞ르칠 때 ᄀᆞ찌 허여마씨. 겐디 씬 밧은 암소로는 버치고 그자 그 부릉이, 밧갈쉐라 헤 가지고, 부릉이로덜. 숫소

118)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어 매는 줄이다.
119) '가린석'은 밭을 갈 적에 왼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이다.

세 살로 네 살 그 새이로 가르쳐 가지고 일 시경 그게 다ᄉᆞ 여슷 나도록 계속 부리다가, 또 여슷 일곱 술 나면은 ᄯᅳ로 비육시겨 가지고 팔아뒁 ᄯᅳ로 송아지 사당 밧 가는 거 ᄀᆞ르치고 그렇게 헤낫수다, 뭐.(암소, 암소도 거 그냥 소가 부룩소가 없는 집에는 거의 암소도 가르쳐서 부립니다. 암소 가르치는 것도 보통은 부룩소 가르칠 때 같이 해요. 그런데 센 밭은 암소로는 부치고 그저 그 부룩소, 밭을 가는 소라 해 가지고, 부룩소들. 수소 세 살로 네 살 그 사이로 가르쳐 가지고 일 시켜서 그게 다섯 여섯 나도록 계속 부리다가, 또 여섯 일곱 살 나면은 또 비육시켜서 팔아뒤서 또 송아지 사다가 밭 가는 거 가르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104001 @ 아, 경 길럿구나예.(아, 그렇게 길렀구나.)

104001 #1 예.(예.)

104001 @ 여섯 살쯤 뒈믄 풀아불어 뒁.(여섯 살쯤 되면 팔아버려 둬서.)

104001 #1 예. 다ᄉᆞ 여슷 살 뒈면은 소가 자랄 대로 막 자랍주기, 더 크지 안헙니다.(예. 다섯 여섯 살 되면은 소가 자랄 대로 마구 자라지요, 더 크지 않습니다.)

104001 @ 저 올레에 이신 게 쉐막이라낫수가?(저 올레에 있는 게 외양간이었습니까?)

104001 #1 예, 거기 쉐 ᄒᆞᆫ 대여슷ᄁᆞ지 메어낫수다.(예, 거기 소 한 대여섯까지 매었었습니다.)

104001 @ 아, 대여섯 마리 질롸낫구나양.(아, 대여섯 마리 길렀었구나.)

104001 #1 예.(예.)

104001 @ 게민 쉐막에 놩 질루당 그다음 물 멕이레도 가곡?(그러면 외양간에 놔서 기르다가 그다음 물 먹이러 가고?)

104001 #1 예, 낮에는 저 쉐를 석만 베끼믄, 물에 강 물 먹읍주게. 물 먹으민 사름 ᄯᅳ로 몰아당 쉐막에 가두앙 또 촐도 주고 경 헙니다, 뭐.(예, 낮에는 저 소를 고삐만 벗기면, 물에 가서 물 먹습지요. 물 먹으면 사람 또 몰아다가 외양간에 가둬서 또 꼴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뭐.)

104001 @ 음.(음.)

104001 #1 겐디 그 기한 보면은 그 가을 추수가 다 끗난 후 그땐 쉐덜 집이 왕 메곡, 또 봄에는 저 입하 ᄉᆞ월절 뒈면은 쉐를 저 목장에 보내곡, ᄯᅳ로 목장에도 보내고, ᄯᅳ로 그렇지 안 허믄 동네 그 번헌 밧덜 그런 디 강은에 멕임도 허곡, 요렇게 헤낫수다.(그 기한 보면 그 가을 추수가 다 끝난 후 그땐 소들 집에 와서 매고, 또 봄에는 저 입하 사월절 되면은 소를 저 목장에 보내고, 또 목장에도 보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동네 그 애벌갈이를 한 밭들 그런 데 가서 먹임도 하고, 요렇게 했엇습니다.)

104001 @ 음, 목장에 올릴 땐 누게 지키레 가곡?(음, 목장에 올릴 땐 누구 지키러 가고?)

104001 #1 예, 목장에는 우리 대림은 그 저 목장이 널러 놓으니까 그 이 개월간

을, 칠월 흔 십일 경으로부떠 딱 허여 가지고 흔 구월 하순끄지 목장에 보냅니다. 게믄 그걸 뜨로 번 본다고 허여 가지고 동리별로 흔 사름, 일 개 조가 두 명 내지 세 사름을 짜 가지고 그걸 순번적으로 돌아갑주.(예, 목장에는 우리 대림리는 그 저 목장이 넓어 놓으니까 그 이 개월간을, 칠월 한 십일 경으로부터 딱 하여 가지고 한 구월 하순까지 목장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걸 또 번 본다고 하여 가지고 동리별로 한 사람, 일 개 조가 두 명 내지 세 사람을 짜 가지고 그걸 순번으로 돌아가지요.)

104001 @ 아, 예.(아, 예.)

104001 #1 경 헹은에 그 사름은 ᄒᆞ를 처냑 ᄒᆞ를 올라가면은 그 목장에서 ᄒᆞ를 밤을 자멍 봥은에 둣녁날 아침 뜨로 그 뚠 사름이 올라가민 교대적으로 ᄂᆞ려오곡, 올라가곡 이렇게 헤서.(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하루 저녁 하루 올라가면 그 목장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봐서 뒷날 아침 또 그 딴 사람이 올라가면 교대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104001 @ 목장에는 그디서 거처헐 만헌 디는 잇어낫수가?(목장에는 거기서 거처할 데는 있었습니까?)

104001 #1 아, 거처헐 디, 옛날은, 질 처음은 거 막 짓어 가지고 허는디, 막은 그 저 목장 시설허니까 그 장막 영 놔뒷다가 올라갈 때, 쉐 올릴 때는 올라가당은에 흔 두어 발 짜리 낭덜 끈엉 흔 놈이 흔 사름썩 뚜러메엉 그디 강 그날 집을 짓읍니다. 엉막[120] 메어 가지고 그디 집을 짓이믄 뜨로 집도 짓곡, 번 보는 사름은 솟도 거졍 강 그레 셔둠서 ᄒᆞ루밤 자기 위헤 가지고 그디 집 짓엉 자곡, 뒷날은 뜨로 교대허고.(아, 거처할 데, 예날은, 젤 처음은 거 막 지어 가지고 하는데, 막은 그 저 목장 시설하니까 그 장막 이렇게 놔뒀다가 올라갈 때, 소 올릴 때는 올라가다가 한 두어 발 짜리 나무들 끊어서 한 놈이 한 사람씩 둘러매어서 거기 가서 그날 집을 짓습니다. '엉막' 매어 가지고 거기 집을 지으면 또 집도 짓고, 번 보는 사람은 솥도 가져가서 그리 있으면서 하룻밤 자기 위해 가지고 거기 집 지어서 자고, 뒷날은 또 교대하고.)

104001 @ 거기서 밥도 헤 먹고 다 허는구나?(거기서 밥도 해 먹고 다 하는구나?)

104001 #1 예, 예. 게 또 그중에는 자기냥으로 번을 못 보는 사름은 뜨로 삭군[121]을 멧게붑니다. 그디 강 쉐 볼 사름을 자기가 저 우리 쉐 강 봐 주믄 저 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준다든지 허겟다 허영. 대게 그 저 쉐 봐 주는 사름덜이 그 그때는 돈도 어려왓주만은 돈으로 받는 것이 아이라 그 보리, 보리로 그 삭을 받아낫수다.(예, 예. 그래 또 그중에는 자기대로 번을 못 보는 사람은 또 '삭군'을 맡겨버립니다. 거기 가서 소 볼 사람은 자기가 저 우리 소 가서 봐 주면 저 돈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리를 준다든지 하겠다 해서. 대개 그 저 소 봐 주

120) '엉막'은 목장에 간이 주거 시설을 짓는 데 쓰인 물건이다.
121) '삭군'은 품삯을 주기로 하고 빌려 쓰는 일꾼이다.

는 사람들이 그 그때는 돈도 어려웠지만 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보리, 보리로 그 삯을 받았었습니다.)

104001 @ 음, 보리로예.(음, 보리로요.)

104001 #1 예.(예.)

104001 @ 게믄 여기 보믄 쉐 물 멕이는 디는 어디 어디?(그러면 여기 보면 소 물 먹이는 데는 어디 어디?)

104001 #1 아, 쉐 물은 우리 여기서는 제일 멉니다. 건 웨 뭐냐 허면은 우리 대림은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헷습니다만, 저 베 형국이라서 베는 가운디 물터를 판다든지 터지면은 베가 안 뒈니까 변두리로 그 봉천수를 다 빠십주, 저 동네 베낏디서.(아, 소 물은 우리 여기서는 제일 멉니다. 건 왜 뭐냐 하면은 우리 대림리는 제일 처음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배 형국이라서 배는 가운데 물터를 판다든지 터지면은 배가 안 되니까 변두리로 그 봉천수를 다 뺐습지요, 저 동네 바깥에서.)

104001 @ 음.(음.)

104001 #1 그래서 그디 강 보통은 저 아침, 즈냑으로 쉐 물 멕이는 사름도 잇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번 혼 오후 혼 두 시쯤에 거 그디 강 물 멕임도 허는디 이 쉐덜이 숙달뒈면은 어떡 허냐 허면 쉐마다 겨울철이라든지 뚜로 반대로 집이 강 잘 멕여나니까 석 벳겨 가지고 뒤에서 몰면은 그 저 물 먹으레 스스로 자기대로 갑니다. 가믄 주인 쫓아 가 가지고 다 먹어 놓으면 뚜로 조름에 몰아왕 집이 왕 쉐막에 경 헨 석을 메곡, 경 헤낫수다.(그래서 거기 가서 보통은 저 아침, 저녁으로 소 물 먹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번 한 오후 두 시쯤에 거 거기 가서 물 먹이기도 하는데 이 소들이 숙달되면은 어떻게 하냐 하면 소마다 겨울철이라든지 또 반대로 집에 가서 잘 먹였었으니까 고삐 벗겨 가지고 뒤에서 몰면은 그 저 물 먹으러 스스로 자기대로 갑니다. 가면 주인 쫓아 가 가지고 다 먹어 놓으면 또 뒤에 몰아와서 집에 와서 외양간에 그렇게 해서 고삐를 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4001 @ 아, 예.(아, 예.)

104001 #1 겐디 또 이 쉐덜이라는 게 영리헤서 혼 번 물 먹어나고 잘 멕여나민 그레만 가기 마련이우다게.(그런데 또 이 소들이라는 게 영리해서 한 번 물 먹었었고 잘 먹여나면 그리만 가기 마련입니다.)

104001 @ 음. 석이렌 헌 건 어떤 거?(음. 고삐라고 한 건 어떤 거?)

104001 #1 석은 그 쉐를 메는 밧줄이라든지 줄을 말허는 겁주.(고삐는 그 소를 매는 밧줄이라든지 줄을 말하는 거지.)

104001 @ 부리에?(부리에?)

104001 #1 예.(예.)

104001 @ 부리에 메는 거. 게난 그걸 떼어불어사 물을 먹을로구나.(부리에 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떼어버려야 물을 먹겠구나.)

104001 #1 아니, 이디 부리에 걸린 석을 영 홀싸지게 멘드는 겁주. 홀싸지게 멘들앗당 영 늘리면 것을 벳경 놔둬 쉐 몰앙 가곡, 또 오믄 쉐막에 드밀앙 나오지 못

허게 그 석을 부리에 걸치고, 경 헤 가지고.(아니, 여기 부리에 걸린 고삐를 이렇게 홅을 수 있게 만들었다가 이렇게 늘리면 그것을 벗겨서 놔둬서 소 몰아서 가고, 또 오면 외양간에 들어 밀어서 나오지 못하게 그 고삐를 부리에 걸치고, 그렇게 해 가지고.)

104001 @ 건 무사 석을 경 허는 거우꽈?(건 왜 고삐를 그렇게 한 것입니까?)

104001 #1 석은 베겻디 나오지 못허게, 쉐막 내에서만 살게시리 허는 겁주.(고삐는 바깥에 나오지 못하게, 외양간 내에서만 살게끔 하는 거지.)

104001 @ 음, 그렇구나.(음, 그렇구나.)

104001 #1 게고 또 암소는, 어떵 관리허냐 허면은 암소도 역시 흔 네 살 내지 다섯 살 난 것은 조금 암소는 좀 실헤야 뒈어마씨, 좀 건강헌 소라야. 이것덜토 역시 그 밤이 갑니다. 밤이 가는데 그렇게 가는 쉐는 못 젼뎌나니까 송아지가 좀 약허여마씨. 약허니까 그 약허드레도 그 부릉이 없는 집에는 암소로라도 갈곡 헙니다.(그리고 또 암소는,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은 암소도 역시 한 네 살 내지 다섯 살 난 것은 조금 암소는 좀 실해야 되어요, 좀 건강한 소라야. 이것들도 역시 그 밤에 갑니다. 밤에 가는데 그렇게 가는 소는 못 견뎌나니까 송아지가 좀 약해요. 약하니까 그 약하더라도 그 부룩소 없는 집에는 암소라도 갈고 합니다.)

104001 @ 암쉐 허연에 새끼도 내우고 헤납디가?(암소 해서 새끼도 나오게 하고 했었습디까?)

104001 #1 예, 암쉐 새끼 내웁주게. 암쉐 새끼 내우는디 그거 암쉐도 잰 쉐는 보통은 세 살 때부떠 새낄 벱니다. 새낄 베어 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십 개월간 이건 십 개월간 베어마씨. 베면 십 개월 후에 그것이 나게 뒈면 이제는 그쳇수다만 암쉐 멕일 땐 아, 오널 만약 그 쉐를 저 숫소라시믄 날짜를 정헤 가지고 아, 메칠 경이민 해산헐로구나, 이거 셍각헤 가지고, 그 지경 뒈 가믄 멩심헙주게. 게믄 뚜시 그 날짜 오 일 간격이믄 메칠 틀리지 안 헙니다, 뭐.(예, 암소 새끼 나오게 하지요. 암소 새끼 나오게 하는데 그거 암소도 빠른 소는 보통은 세 살 때부터 새끼를 뱁니다. 새낄 배어 가지고 임신을 하면은 십 개월간 배요. 배면 십 개월 후에 그것이 낳게 되면 이제는 그쳤습니다만 암소 먹일 땐 아, 오늘 만약 그 소를 수소였으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아, 며칠 경이면 해산하겠구나, 이거 생각해 가지고, 그 지경 돼 가면 명심하지요. 그러면 다시 그 날짜 오 일 간격이면 며칠 다르지 않습니다, 뭐.)

104001 @ 음.(음.)

104001 #1 경 형 새낄 나면은 새끼 날 때는 뚜로 역시 쉐를 자유롭게 부리기 위헤서 석을 벳겨 불어마씨. 벳겨 불어야 쉐가 새끼를 낳곡, 또 걸 다 일일이 할트고 또 소는 새끼 나난 봇을 뚜로 그 저 에미소가 다 먹읍니다.(그렇게 해서 새낄 나면은 날 때는 또 역시 소를 자유롭게 부리기 위해서 줄을 벗겨 버려요. 벗겨 버려야 소가 새끼를 낳고, 또 걸 다 일일이 핥고 또 소는 새끼 나니까 태를 또 그 저 어미소가 다 먹습니다.)

104001 @ 봇을?(태를?)

104001 #1 예. 먹는디 그 저 그걸 먹여야 소도 자기냥으로 먹곡, 만약 그거 아이 먹은 소덜은 소가 재게 새끼도 아이 베곡 좀 지쳐마씨.(예. 먹는데 그 저 그걸 먹여야 소도 자기대로 먹고, 만약 그거 아니 먹은 소들은 재우 새끼도 아니 배고 좀 지쳐요.)

104001 @ 음.(음.)

104001 #1 그 새낏보를 먹는 것도 큰 영양제가 뒈니까. 게믄 그자 경 허영 질루 뒈 암소도 역시 그 곱새끼[122] 난다고 헤 가지고 일 년에 하나썩 나는 쉐가 잇고, 또 건 뚜로 이 년에 하나 나는 것도 잇수다. 게난 거 보통은 일 년에 하나썩 새끼 나는 거마씨, 쉐가.(그 새끼 태를 먹는 것도 큰 영양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저 그렇게 해서 기르되 암소도 역시 그 '곱새끼' 난다고 해 가지고 일 년에 하나씩 낳는 소가 있고, 또 건 또 이 년에 하나 낳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보통은 일 년에 하나씩 새끼 낳는 거요, 소가.)

104001 @ 곱새끼는 무사 곱새끼렌?(곱 새끼는 왜 '곱새끼'라고?)

104001 #1 그자 해마다 난다는 것입주.(그저 해마다 난다는 것이지요.)

104001 @ 아.(아.)

104001 #1 예. 해 걸렁 나는 쉐는 그것 춤 빨리 암쉐로 새낄 낳아야 번식도 허곡, 뚜로 돈 받앙 풀앙 돈도 받곡 헐 겁주기.(예. 해 걸러서 낳는 소는 그것 참 빨리 암소로 새낄 낳아야 번식도 하고, 또 돈 받아서 팔아서 돈도 받고 할 거지요.)

104001 @ 그 저 쉐 새끼 낭은에 그 새끼 기르젠 허믄 그다음 이제 그 새끼를 영 허는 과정은 어떵 헙니까?(그 저 소 새끼 낳아서 그 새끼 기르려고 하면 그다음 이제 그 새끼를 이렇게 하는 과정은 어떻게 합니까?)

104001 #1 새끼는 낳으믄 그거 그날 낳으민 뒷녁날은 조끔 걸읍니다, 송아지.(새끼는 낳으면 그거 그날 낳으면 뒷날은 조금 걷습니다, 송아지.)

104001 @ 걸어예?(걸어요?)

104001 #1 예, 송아지, 송아지는 뒷날 걷고, 망아지는 그날 난 날 저 십 리는 간다 헙니다게, 나멍서라도, 뭉셍이. 게 헤 가지고 오늘 새끼 나면은 그날ᄁᆞ지는 쉐를 집에서, 오늘 아침에 새끼 나면은 송아기 새끼 돌아가지 못허면 에미가 새끼 때문에 와릴 거니까 집에서 물도 주곡 잇다가 이삼일만 뒈면은 뚜로 송아지도 ᄀᆞ찌 부쩡 물 멕영 왕 메곡, 이런 과정입주, 뭐.(예, 송아지, 송아지는 뒷날 걷고, 망아지는 그날 난 날 저 십 리는 간다 합니다, 나면서라도, 망아지.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새끼 나면은 그날까지는 소를 집에서, 오늘 아침에 새끼 나면은 송아지 새끼 데려가지 못하면 어미가 새끼 때문에 서두를 거니까 집에서 물도 주고 있다가 이삼일만 되면은 또 송아지도 같이 붙여서 물 먹여서 와서 매고, 이런 과정이지, 뭐.)

104001 @ 아, 게난 이삼일 지나믄 송아지를 데령 나갈 수가 잇구나예?(아, 그러니까 이삼일 지나면 송아지를 데려서 나갈 수가 있구나?)

104001 #1 예, ᄀᆞ찌 좇아갑니다.(예, 같이 좇아갑니다.)

122) '곱새끼'는 소가 해마다 하나씩 새끼를 낳는 것을 말한다.

104001 @ 좇아가?(좇아가?)

104001 #1 뭉아진 당일 나가마씨, 뭉셍인.(망아지는 당일 나가요, 망아지는.)

104001 @ 금방 나도 털이 보입니까?(금방 나도 털이 보입니까?)

104001 #1 예게. 그 털이 그냥 잇는데 아직은 벨로 곱지 못허니까 허긴 좀 비뜩비뜩 협니만은, 뭉아진 당일 벵뒤[123] 간덴 협주게.(예. 그 털이 그냥 있는데 아직은 별로 곱지 못하니까 하긴 좀 비뜩비뜩 합니다만, 망아지는 당일 '벵뒤' 간다고 하지요.)

104001 @ 말도 길러낫수가?(말도 길렀었습니까?)

104001 #1 몰은 아이 길러낫수다. 게서 그 쉐도 또 역시 젓물 좋은 쉐쯤은 해마다 상당이 저 심이 좋읍주게. 해마다 하나썩 나믄 풀곡.(말은 아니 길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도 또 역시 젖물 좋은 소쯤은 해마다 상당히 저 힘이 좋습지요. 해마다 하나씩 나면 팔고.)

104001 @ 젓물 좋은 쉐?(젖물 좋은 소?)

104001 #1 예, 저, 이 젓이 아주 부각허게 나는 쉐 잇고.(예, 저, 이 젖이 아주 부각하게 나는 소 있고.)

104001 @ 아.(아.)

104001 #1 또 그렇지 못헌 쉐덜은 안 허곡 협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쉐덜은 질루왕 새끼 하나둘 내와 놩 저 새끼도 잘 낳곡, 또 얌전, 잘 먹곡 허는 쉐는 오래 길루곡, 경 아이헹은에 영 길롸보멍 촐도 잘 아이 먹곡 그 입메줄른 쉐는 재게 풀아불곡.(또 그렇지 못한 소들은 안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암소들은 길러서 새끼 하나둘 낳게 해 놔서 저 새끼도 잘 낳고, 또 얌전, 잘 먹고 하는 소는 오래 기르고,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길러보면서 꼴도 잘 아니 먹고 그 먹성이 까다로운 소는 빨리 팔아 버리고.)

104002 @ 쉐에도 종류가 잇지 안 허우꽈? 무신.(소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04002 #1 예, 전이, 전이 옛날에는 우리 어린 때는 그자 다 이디 소라 헤 가지고 그디 저 황쉐허고 숙쉐[124], 검은쉐 이렇게 서너니 종류.(예, 전에, 전에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그저 다 여기 소야 해 가지고 거기 저 황소하고 '숙쉐', 검은소 이렇게 서너 종류.)

104002 @ 황쉐?(황소?)

104002 #1 예.(예.)

104002 @ 숙쉐?('숙쉐'?)

104002 #1 예, 숙쉐는 호랑이 모냥으로 줄 긋어져 가지고 노랑쉐에 검은 줄이 얼룩얼룩 잇인 거.(예, '숙쉐'는 호랑이 모양으로 줄 그어져 가지고 노란소에 검은 줄이 얼룩얼룩 있는 거.)

104002 @ 아, 숙쉐.(아, '숙쉐'.)

---

123) '벵뒤'는 널따란 벌판을 말한다.

124) '숙쉐'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럭덜럭한 소이다.

104002 #1 ᄉᆞᆨ쉐허고 검은쉐.(‘ᄉᆞᆨ쉐’하고 검은소.)

104002 @ 아, 이건 털 색깔이네.(아, 이건 털 색깔이네.)

104002 #1 예, 예. 거 세 가지.(예, 예. 거 세 가지.)

104002 @ 뿔, 뿔 모양으로 뭐엔?(뿔, 뿔 모양으로 뭐라고?)

104002 #1 뿔은 그 저 첫째 뿔몽그렝이쉐 잇고, 그건 그렇게 좋읍니다, 막, 그 저 뿔이 엇이 난 쉐. 그런 쉐도 간혹 나마씨. ᄄᆞ로 다음 그 젖작뿔[125]이라 헤 가지고 뿔이 영 비틀어졍 자쳐진 것 싯수다.(뿔은 그 저 첫째 뿔모지랑이소 있고, 그건 그렇게 좋습니다, 아주, 그 저 뿔이 없이 난 소. 그렁 소도 가끔 낳아요. 또 다음 그 ‘젖작뿔’이라 해 가지고 뿔이 이렇게 비틀어져서 젖혀진 것 있습니다.)

104002 @ 아, 젖작뿔.(아, ‘젖작뿔’.)

104002 #1 젖작뿔이엔 허고 바른베기[126]라 헤 가지고 앞으로 영 숙여진 뿔도 잇고, ᄄᆞ로 우터레 구짝 돋은 뿔, 천상뿔[127]이라고 헤 가지고 우트레 돋은 뿔도 싯고.(‘젖작뿔’이라고 하고 ‘바른베기’라 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숙인 뿔도 있고, 또 위로 곧게 돋은 뿔, ‘천상뿔’이라고 해 가지고 위로 돋은 뿔도 있고.)

104002 @ 음.(음.)

104002 #1 그 에미라든지 숫소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송아지가 ᄄᆞ납니다. 게니까 그 송아지를 주로 베게 허기 위헤서는 암소가 그 임신허게 뒈면 동네에서 ᄒᆞ끔 좋은 쉐로 빌어당은에 그 교미를 부쪄마씨, 게민 그 부룽이 닮아 가지고 실헌 거 납니다.(그 어미라든지 수소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송아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송아지를 주로 배게 하기 위해서는 암소가 그 임신하게 되면 동네에서 조금 좋은 소로 빌어다가 교미를 붙여요, 그러면 그 부룩소 같아 가지고 실한 거 납니다.)

104002 @ 게난 모양은 숫쉐 모양이 그 송아지 닮아 가는구나예?(그러니가 모양은 수소 모양이 그 송아지 같아 가는구나?)

104002 #1 예, 많이 닮읍니다. 많이 닮뒈 그 에미도 닮을 수가 이십니다.(예, 많이 같습니다. 많이 같되 그 어미도 같을 수가 있습니다.)

104002 @ 반반 닮기도 허고. 게난 그 저 털 색깔로 세 가지 쉐가 잇고.(반반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저 털 색깔로 세 가지 소가 있고.)

104002 #1 예.(예.)

104002 @ 그다음에는.(그다음에는.)

104002 #1 또 그 쉐가 ᄄᆞ로 그 아주 칠십 년도 이후에는 그 브라마 잡종이라 허여 가지고 저 웨국서 온 소덜이 등치도 좋고, 크고, ᄄᆞ로 뿔도 막 질고, 또 희곡, 흰 소도 싯곡, 이렇게 헤 가지고 그게 브라마 잡종이라고 헤 가지고 그런 소덜 들어와 가지고 말께에는 토종 소덜이 얼마 없어 가지고 거줌 다 잡종 뒈지 안 헷수가?(도 그 소가 또 그 아주 칠십 년도 이후에는 그 브라마 잡종이라 하여 가지고 저 외국서 온 소들이 등치도 좋고, 크고, 뿔도 아주 길고, 희고, 흰 소도 있고, 이렇

125) ‘저짝뿔’은 비틀어져서 젖혀진 모양의 소의 뿔이다.
126) ‘바른베기’는 앞으로 숙인 모양의 소의 뿔이다.
127) ‘천상뿔’은 위로 곧게 돋은 소의 뿔이다.

게 해 가지고 그게 브라마 잡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소들 들어와 가지고 말째에는 토종 소들이 얼마 없어 가지고 거의 다 잡종 되지 않았습니까?)

104002 @ 그 브라마 잡종은 어디서 들어온 거우꽈?(그 브라마 잡종은 어디서 들어온 것입니까?)

104002 #1 그거 웨국산으로 웨국에서 들어온 거마씨.(그거 외국산으로 외국에서 들어온 거요.)

104002 @ 웨국은게 어느 나라마씨, 호주우꽈?(외국은요 어느 나라요, 호주입니까?)

104002 #1 예, 호주.(예, 호주.)

104002 @ 호주에서 들어온 거예?(호주에서 들어온 거요?)

104002 #1 예, 예.(예, 예.)

104002 @ 게 이시돌목장에서 질루기도 허고 헤나신가마씨?(그래 이시돌목장에서 기르기도 하고 했었는가요?

104002 #1 예, 게난 그것이 흔뻔에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경도 허곡, 뚜로 브라마 잡종 들어와가니까 뚜로 역시 그 각 읍면에 수의사덜이 하나씩 대게 잇엇십주, 겐디 수의사덜이 뚜로 인공수정도 헤 가지고.(예,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에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도 하고, 또 브라마 잡종 들어와 가니까 또 역시 그 각 읍면에 수의사들이 하나씩 대개 있었습지요, 그런데 수의사들이 또 인공수정도 해 가지고.)

104002 @ 게난 뿔 모양은, 뿔 모양도 세 가지네?(그러니까 뿔 모양은, 뿔 모양도 세 가지네?)

104002 #1 예.(예.)

104002 @ 위로 솟는 거, 뒤로 영 뭰 거.(위로 솟는 거, 뒤로 이렇게 된 거.)

104002 #1 저짝뿔.('저짝뿔'.)

104002 @ 앞으로 영 뭰 거?(앞으로 이렇게 된 거?)

104002 #1 예. 뚜로 천상뿔이엔 헤 가지고 우트레 오르는 거.(예. '천상뿔'이라고 해 가지고 위로 오르는 거.)

104002 @ 게 어떤 쉐가 제일 힘이 셉니까?(그래 어떤 소가 제일 힘이 셉니까?)

104002 #1 힘 쎄는 건 마찬가지우다.(힘 세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104002 @ 마찬가지.(마찬가지.)

104002 #1 겐디 그 저 찔레[128], 싸움헐 때도 역시 자기 가남 셍각 안 헤서, 또 영 작작 뿌리니까 케우려집니까게? 경헤도 저짝뿔이가 셍각 안 헹 싸운다고, 찔레 허는 딘 그렇게 이야기허는 디도 싯고 잘 싸와마씨.(그런데 그 저 '찔레', 싸움할 때도 역시 자기 가늠 생각 안 해서, 또 이렇게 작작 뿌리니까 헤집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저짝뿔'이가 생각 안 해서 싸운다고, '찔레' 하는 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도 있고 잘 싸워요.)

128) '찔레'는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이다.

104002 @ 게난 소도 쭉쭉 싸우고 허는 싸움 소도, 싸움을 허는 것도 봐낫수가?(그러니까 소도 쭉쭉 싸우고 하는 싸움 소도, 싸움을 하는 것도 봤었습니까?)

104002 #1 예, 그 저 심심허믄 겨울에 집이서 잇당 그 저 물 멕이레 가믄 조끔 번데기가 이십니다. 번데기도 싯고 이제는 그 저 노는 밧덜도 싯주만은, 땅을 그 휴경진 밧 잇으믄 그 밧디 들렁 쉐덜 놀렁 헙니다게.(예, 그 저 심심하면 겨울에 지에서 있다가 그 저 물 먹이러 가면 조금 번데기가 있습니다. 번데기도 있고 이제는 그 저 노는 밭들도 있지만, 휴경진 밭 있으면 그 밭에 들러서 소들 놀려서 합니다.)

104002 @ 음.(음.)

104002 #1 게믄 그디서 오히려 싸움도 부쩡은에 구경도 허곡.(그러면 거기서 오히려 싸움도 붙여서 구경도 하고.)

104002 @ 싸움 부쪄 가지고 구경허고.(싸움 붙여 가지고 구경하고.)

104002 #1 예.(예.)

104003 @ 아, 경 싸움덜 부쳐낫구나예. 그러면 이제 쉐들을 아까 밧 가는 것이 제일 중요허지만 그 밧 가는 거부떠 쉐을 이용하는 게, 뭐에 쉐를 이용허는 거우꽈?(아, 그렇게 붙였었구나. 그러면 이제 소들을 아까 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밭 가는 것부터 소를 이용하는 게, 뭐에 소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104003 #1 쉐, 밧 가는 것이 첫째고, 밧 가는 거고, 둘째는 그 저 뭔가 방에 짓는 거.(소, 밭 가는 것이 첫째고, 밭 가는 거고, 둘째는 그 저 방아 찧는 거.)

104003 @ 방에 짓는 거예.(방아 찧는 거요.)

104003 #1 방에 짓는 거 허는디.(방아 찧는 거 하는데.)

104003 @ 뭘방에?(연자매?)

104003 #1 예, 뭘방에에 가 가지고 그거 이디 지으멍 헤낫는데 나중에 해방 이후에 뒈 가니까 정미소가 생기난 그런 것덜은 다 엇어지고.(예, 연자매에 가 가지고 그거 여기 지으면서 했었는데 나중에 해방 이후에 돼 가니까 정미소가 생기니까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104003 @ 그 웨에 뭐 짐 실으고?(그 외에 뭐 짐 실르고?)

104003 #1 아, 예. 짐도 그 일제시대라든지 뚜로 저 해방 후에 흔 오 년간은 쉐 등에 짐 실르는 것도 큰일이라십주. 그땐 마차가 없어노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저 해방 후에 오 년 말하자면 육이오 전쟁이 끗난, 끗나가니까 그때부떠는 해 집집마다는 엇어도 흔 다섯 집이 네 집 정도는 마차덜 잇어십주게. 건 어떻게 마차가 잇인고 허면은.(아, 예. 짐도 일제 강점기라든지 또 저 해방 이후 한 오 년간은 소 등에 짐 싣는 것도 큰일이었지요. 그땐 마차가 없어 놓으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저 해방 후에 오 년 말하자면 육이오 전쟁이 끝난, 끝나가니까 그때부터는 거의 집집마다는 없어도 한 다섯 집이 네 집 정도는 마차들 있었습지요. 건 어떻게 마차가 있는가 하면은.)

104003 @ 그 쉐 구르마?(그 소 마차?)

104003 #1 예, 일제시대는 그 저 여기서 과학이 발달허지 안 허니까 구루마가

엇어십주기. 구루마가 엇엇는디 일본놈이 망허연 가면서 그 구루마덜 많이 버려뒁 가십주게. 그걸로 헤 가지고 이디 사름덜 그걸 사서 걸로 짐 시꺼나십주. 게난 그걸 짐 시끔 시작을 헤 가니까 츠츠 등에 졍 뎅이는 것을 얼마 아니 헤십주게.(예, 일제강점기는 그 저 여기서 과학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마차가 없었습지요. 마차가 없었는데 일본놈이 망해서 가면서 그 마차들 많이 버려둬서 갔습지요. 그걸로 해 가지고 여기 사람들 그걸 사서 걸로 짐 실었었습지요. 그러니까 그걸 짐 싣기 시작을 해 가니까 차차 등에 져서 다니는 것을 얼마 안 했습지요.)

104003 @ 음.(음.)

104003 #1 그 마차에는 보통은 그자 가면은 쉐로 흔 일고 으덥 바리 그 쉐에 시끄는 걸로 볼 때에 열 바리 이 정도는 마차에 아멩헤도 시꺼옵주게.(그 마차에는 보통은 그저 가면은 소로 일고 여덟 바리 그 소에 싣는 걸로 볼 때에 열 바리 이 정도는 마차에 아무래도 실어오지요.)

104003 @ 아, 게난 소 한 마리에 시끌 수 잇는 것이 흔 바리면 그 열 바리를 마차에 시끈다.(아,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것이 한 바리면 그 열 바리를 마차에 싣는다.)

104003 #1 예.(예.)

104003 @ 그렇게 마차를 활용헷구나.(그렇게 마차를 활용했구나.)

104003 #1 그래서 그 마차덜을 잘 활용허다가 뚜로 그 흔 팔십 년도, 칠십오 년도, 칠십오 넌 유월, 아, 칠십오 년도부떠는 차차 경운기가.(그래서 그 마차들을 잘 활용하다가 또 그 한 팔십 년도, 칠십오 년도, 칠십오 년 유월, 아, 칠십오 년부터는 차차 경운기가.)

104003 @ 경운기가 나완.(경운기가 나와서.)

104003 #1 뚜로 이젠 마차는 아니 허고, 경운기로만 시꺼 뎅기고, 뚜로 경 뒈어 가니까 뚜로 역시 자기 집에 경운기 없다 허드레도 딸딸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그걸 시꺼다 주믄 뚜로 삭을 주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더 발달헤 가니까 차가 나와 가지고 차로 시끄곡, 경 헤 가니까 마차덜 집이서 다 풀아불젠 허연.(또 이젠 마차는 않고, 경운기로만 실어 다니고, 또 그렇게 돼가니까 또 역시 자기 집에 경운기 없다 하더라도 딸딸이라든지 경운기라든지 그걸 실어다 주면 또 삯을 주고, 또 그러다가 보니까 차가 나와 가지고 차로 싣고, 그렇게 해 가니까 마차들 집에서 다 팔아 버리려고 했어.)

104003 @ 게난 쉐 구루마는 언제까지 써낫수가?(그러니까 소 마차는 언제까지 썼었습니까?)

104003 #1 쉐 구루마는 아마도 저 한 칠십, 칠십오 년도부떠 일개 부락에 하나 둘썩 경운기가 나왓수다게.(소 마차는 아마도 저 한 칠십, 칠십오 년도부터 일개 부락에 하나 둘씩 경운기가 나왔습니다.)

104003 @ 아, 칠십오 년도부터.(아, 칠십오 년도부터.)

104003 #1 겐 그 경운기덜로써 그 사름덜이 자기네 집 밧만 가는 것이 아니라

촐 헐 때라든지 짐 운반허는 도구로덜 많이 써십주기.(그래서 그 경운기들로써 그 사람들이 자기네 집 밭만 가는 것이 아니라 꼴 할 때라든지 짐 운반하는 도구로들 많이 썼습지요.)

104003 @ 게고 수확허믄 그 수확헌 거 실러와야 뒈고.(그리고 수확하면 그 수확한 거 실어 와야 되고.)

104003 #1 예, 집에도 실러 오고, 그래서 헌디 차차차차 흔 해 두 해 일 년에 멧 개씩 일개 부락에도 경운기가 많이 불어나고 허니까, 그걸로 밧덜토 갈고, 또 짐도 시꺼나르고, 또 읏인 사름 홀어멍네라든지 나이 많은 사름덜은 그 경운기 잇는 사름덜안티라든지 딸딸이 잇는 사름덜안티라든지 쿰을 줭은에 그걸 실러나르고, 촐도 시꺼 나르고, 뚜로 짐도 시꺼나르고, 경 헤십주게.(예, 집에도 실어 오고, 한데 차차차차 한 해 두 해 일 년에 몇 개씩 일개 부락에도 경운기가 많이 불어나고 하니까, 그걸로 밭들도 갈고, 또 짐도 실어 나르고, 또 없는 사람 홀어머니네라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 경운기 있는 사람들한테라던지 딸딸이 있는 사람들한테라던지 품을 줘서 그걸 실어 나르고, 꼴도 실어 나르고, 또 짐도 실어 나르고, 그렇게 했습지요.)

104004 @ 쉐로 밧 가는 거는 쉐가 중요헌 헐 일인디, 그 밧 갈젠 허믄 그걸 훈련시키는 과정이 어떵 헙니까?(소로 밭 가는 거는 소가 중요한 할 일인데, 그 밭 갈려고 하면 그걸 훈련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합니까?)

104004 #1 훈련시기는 과정은 첫째로 그 저 보통은 처음엔 걸 못허고 허니까 새 쉐 ᄀᆞ르친다 새 쉐 ᄀᆞ르친다 말을 그렇게 허는디 쉐를 저 익숙허게 단련시킨다 허는 것이 ᄀᆞ르친다고 여기 사투리론 이야기헙주게.(훈련시키는 과정은 첫째로 그 저 보통은 처음엔 걸 못하고 하니까 새 소 가르친다 새 소 가르친다 말을 그렇게 하는데 소를 저 익숙하게 단련시킨다 하는 것이 가르친다고 여기 사투리론 이야기하지요.)

104004 @ 새 쉐?(새 소?)

104004 #1 새 쉐, 새로운 쉐.(새 소, 새로운 소.)

104004 @ 아, 새 소를, 새 소를 가르친다.(아, 새 소를, 새 소를 가르친다.)

104004 #1 새 쉐를 ᄀᆞ르치는 거예, 농사를 아이 져 놩 새로운 쉐를 밧 가는 쉐로 허면은 집에서 곰돌 체와 가지고 동네 흔 멧 바퀴 영 돌아왕 경헤도 아이 뭠직허민 뚜로 역시 우에 가 가지고 낭 끈엉 체왕 집이 끄성오고, 이게 그 멧 번 반복헤 놧당 빈 밧디 가 가지고, 뚜로 그거 자기 밧 갈레 가기 전에 남의 밧디 가 가지고 걸 뚜로 흔 사름은 이끄곡 뒤에 사름은 갈곡, 이레서 그걸 그 쉐를, 쉐를 ᄀᆞ르쳐 십주. ᄀᆞ르친다는 게 그 훈련시킨다는 말입주.(새 소를 가르치는 거요, 농사를 아니 져 놔서 새로운 소를 밭 가는 소로 하면은 집에서 '곰돌' 채워 가지고 동네 한 몇 바퀴 이렇게 돌아와서 그래도 될 것 같으면 또 역시 위에 가 가지고 나무 끊어서 채워서 집에 끌어오고, 이게 그 몇 번 반복해 놨다가 빈 밭에 가 가지고, 또 그거 자기 밭 갈러 가기 전에 남의 밭에 가 가지고 걸 또 한 사람은 이끌고 뒤에 사람은

갈고, 이래서 그걸 그 소를, 소를 가르쳤습지요. 가르친다는 게 그 훈련시킨다는 말이지.)

104004 @ 경 헤야 밧디 강 쉐를, 밧을 제대로 갈 수가 있구나. 경 안 헤 놓으민 제대로 밧을 갈지 못헤불어.(그렇게 해야 밭에 가서 소를,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있구나. 그렇게 안 해 놓으면 제대로 밭을 갈지 못해 버려.)

104004 #1 예.(예.)

104004 @ 게난 밧을 가는 거는 주로 쉐 말앙은 다른 걸로는 안 갈아낫수가?(그러니까 밭을 가는 거는 주로 소 말고는 다른 걸로는 안 갈았었습니까?)

104004 #1 쉐 말앙은 저 그 기계 나기 전이는 저 물로도 갈앗수다. 겐디 물은 우리 대림 지경 ᄀᆞ뜬 디서는 물로 안 가는 원인이 작지왓이라 노니까 물로 좀 버치고 질왓[129] ᄀᆞ튼 디라든지 이런 그 몰레왓 ᄀᆞ뜬 디서는 물로도 해 갈앗수다. 겐디 이 대림서는 쉐로만 갈안 물로 갈아보진 안 헷수다.(소 말고는 저 그 기계 나기 전에는 저 말로도 갈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우리 대림리 지경 같은 데서는 말로 안 가는 원인이 자갈밭이라 놓으니까 말로 좀 부치고 '질왓' 같은 데라든지 이런 그 모래밭 같은 데서는 말로도 거의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림리서는 소로만 갈아서 말로 갈아보진 안 했습니다.)

104004 @ 게난 밧 갈고 짐 운반허고 그다음에 뭐 쉐로 허는 일이?(그러니까 밭 갈고 짐 운반하고 그다음에 뭐 소로 하는 일이?)

104004 #1 아, 밧 갈고 짐 운반허는 이것이 주동입주. 그 웨는 쉐로 허는 것이 엇어마씨. 겐디 단 저 밧 갈고 짐을 부리면서 시꺼오다가 그것이 일이 년 자라면은 쉐가 막 제대로 다 자라면 그다음부떠는 ᄯᅳ로 역시 비육시겨 가지고 저 소 장사꾼 안티 풀아불면은 ᄯᅳ로 그 해엔 자기냥으로 ᄯᅳ로 그런 익숙헌 소를 사당 허는 사름도 싯고, 또 송아지를 키와 가지고 걸로 밧 가는 사름도 싯고.(아, 밭 갈고 짐 운반하는 이것이 주동이지. 그 외는 소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단 저 밭 갈고 짐을 부리면서 실어오다가 그것이 일이 년 자라면은 소가 막 제대로 다 자라면 그다음부터는 또 역시 비육시켜 가지고 저 소 장사꾼한테 팔아버리면 또 그 해엔 자기대로 또 그런 익숙한 소를 사다가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송아지를 키워 가지고 걸로 밭 가는 사람도 있고.)

104004 @ 음.(음.)

104004 #1 이런 디 대충은 그 송아지 키와 가지고 밧 가는 사름은 일개 부락에 그자 ᄒᆞᆫ 열 사름쯤 뒙니다. 나머지는 그 뜬 사름이 다 ᄀᆞ르쳥 부려난 거 그걸 사당 밧을 갈앗수다.(이런 데 대충은 그 송아지 키워 가지고 밭 가는 사람은 일개 부락에 그저 한 열 사람쯤 됩니다. 나머지는 그 딴 사람이 다 가르쳐서 부렸던 거 그걸 사다가 밭을 갈았습니다.)

104004 @ 아, 게난 쉐를 그렇게 제대로 ᄀᆞ르치는 사름은 한 열 사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ᄀᆞ르쳐진 거 ᄀᆞ정은에 일을 시켯구나예.(아, 그러니까 소를 그렇게 제

129)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이다.

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한 열 사람, 그 외에 나머지는 다 가르쳐진 거 가져서 일을 시켰구나.)

104004 #1 예, 사당.(예, 사다가.)

104004 @ 사당 밧 갈고.(사다가 밭 갈고.)

104004 #1 예. 게믄 저 일수가 아주 좋은 쉐는 어떤 집에는 흔 이 년 삼 년 부리는 사름도 싯고, 그렇지 않은 사름덜은 보통은 사다가 일 년 부리면서 밧테도 좋곡 헤도 잘 비육 뒈면은 풀앙 두곡, 새 송아기 사당 해야 그 돈이 많이 셍긴다 헨 헙주게. 큰 쉔 비육시경 풀아불민, 게믄 송아지는 이제 키우고, 일로 허영 벌고 몸으로도 벌어나가지고 벌고 이렇게 뒈는 겁주.(예. 그러면 저 일수가 아주 좋은 소는 어떤 집에는 한 이 년 삼 년 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은 사다가 일 년 부리면서 밭에도 좋고 해도 잘 비육이 되면 팔아 두고, 새 송아지 사다가 해야 돈이 많이 생긴다고 하지요. 큰 소는 비육시켜서 팔아버리면, 그러면 송아지는 이제 키우고, 이렇게 해서 벌고 몸으로도 벌어가지고서 벌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104005 @ 그 소 아까 보니까 나이가 잇인디, 나이를 흔 살, 두 살 허는 게 아니고 소 나이가 잇지 안 허우꽈?(그 소 아까 보니까 나이가 있는데, 한 살, 두 살 하는 게 아니고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104005 #1 예, 소 나이는 제일 처음은 다간 때라든지 그 사릅 날 때에 이빨 들렁 본덴 헙니다. 쉐는 아랫니 엇입니다. 우잇니 흔 반디만 셩. 경 행은에 허믄 그 이빨 들렁 보면은 젓 먹어난 니빨은 삭삭 밀리고 앞에 질 처음 다간, 사릅 뒈면은 두 갤 곱니다, 너븐 니로.(예, 소 나이는 제일 처음은 두습 때라든지 그 사릅 날 때에 이빨 들러서 본다고 합니다. 소는 아랫니 없습니다. 윗니 한 곳에만 있어서.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이빨 들어서 보면 젓 먹었던 이빨은 삭삭 밀리고 앞에 제일 처음 두습, 사릅 되면은 두 갤 갑니다, 넓은 이로.)

104005 @ 음.(음.)

104005 #1 경 허곡.(그렇게 하고.)

104005 @ 아래, 아랫니가?(아래, 아랫니?)

104005 #1 예, 예. 골곡, 뚜로 뒷핸 뒈면은 역시 양쪽 두 자리 네 개가 너븐 니가 나와마씨. 경 헤 가지고 그걸로 흔 저 다섯 술꺼지는 그 니빨 들러 봐 가지고 나이를 파악헌덴 허고, 또 뿔 신 쉐는 그 저 니빨 들렁 보는 거는 확실헌 거라마씨. 겐디 쉐가 다습이 넘어가면은 다 날만큼 니빨이 나불면 더 나질 안 헤마씨. 겐 금을 못헐 때는 대게 뿔로, 뿔로 영, 뿔이 영 나올 때라도 굽어 나오민 영 영 그 나무가 일 년 자라면서 연도ᄀᆞ뜬 거 허는 식으로 뿔도 영 표가 납니다. 그걸로 헤 가지고 대게 짐작허고 헙니다.(예, 예. 갈고, 또 이듬해 되면은 역시 양쪽 두 자리 네 개가 넓은 이가 나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한 저 다섯 살까지는 그 이빨 들러 봐 가지고 나이를 파악한다고 하고, 또 뿔 있는 소는 그 저 이빨 들어서 보는 거는 확실한 거지요. 그런데 소가 다습이 넘어가면은 다 날만큼 이빨이 나버리면 더 나

질 않아요. 그래서 금을 못할 때는 대개 뿔로, 뿔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나올 때라도 굽어 나오면 이렇게 이렇게 그 나무가 일 년 자라면서 연도 같은 거 하는 식으로 뿔도 이렇게 표가 납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대개 짐작하고 합니다.)

104005 @ 음, 거난 처음에 태어나 가지고 혼 살을 다간?(음,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 가지고 한 살을 두습?)

104005 #1 아이, 다간이엔 헌 건 두 술짜리, 그거 금싱.(아니, 두습이라고 한 건 두 살짜리, 그거 하릅.)

104005 @ 혼 술은?(한 살은?)

104005 #1 혼 술은 금싱.(한 살은 하릅.)

104005 @ 금싱.(금승.)

104005 #1 두 술은 다간.(두 살은 두습.)

104005 @ 다간.(두습.)

104005 #1 세 살은 사릅.(세 살은 사릅.)

104005 @ 사릅.(사릅.)

104005 #1 네 살은 나릅.(네 살은 나릅.)

104005 @ 나릅. 다섯은?(나릅. 다섯은?)

104005 #1 다섯은 다습. 그 웨엔 멧 술, 멧 술 영 허고.(다섯은 다습. 그 외엔 몇 살, 몇 살 이렇게 하고.)

104005 @ 그 웨엔 여섯 술, 일곱 술 허고예.(그외엔 여섯 살, 일곱 살 하고요.)

104005 #1 겐디 그자 보통은 일곱 술 전에 일고 으덥 술 전에 그 도살장에 가게 마련입주.(그런데 그저 보통은 일곱 살 전에 일고 여덟 살 전에 그 도살장에 가게 마련이지.)

104005 @ 아, 일곱 살쯤 뒈어가면 비육시켱은에 도축장으로.(아, 일곱 살쯤 되어가면 비육시켜서 도축장으로.)

104005 #1 예.(예.)

104005 @ 음, 게난 그거는 암쉐나 숫쉐나 다 나이는 다 같이 얘기허는 거지예.(음, 그러니까 그거는 암소나 수소나 다 나이는 다 같이 얘기하는 거지요.)

104005 #1 겐디 암소들은 거 아무리 비육시경 헤도 그 저 경 불어나도 안 헙주게. 사름 여자가 약허영은에 허듯이 소도 역시 그 좀 약허여마씨. 약허영 헤도 그걸로 어떵 어떵 허영 읏인 사름덜은 암쉐도 ᄀᆞ르쳥 부리곡, 뚜로 이 저 아주 부지런헌 사름덜쯤은 그 암쉔 그걸로 송아지 내왕 키왕 벌고, 숫쉔 뚜로 역시 밧 갈당 비육시기고 영 허는 거, 좀 부지런헌 사름은 그자 둘 셋을 쉘 멕입주기.(그런데 암소들은 아무리 비육시켜서 해도 그 저 그렇게 불어나지도 안 하지요. 사람 여자가 약해서 하듯이 소도 역시 그 좀 약해요. 약해서 해도 그걸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없는 사람들은 암소도 가르쳐서 부리고, 또 이 저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쯤은 그 암소는 그걸로 송아지 나오게 해서 키워서 벌고, 수소는 또 역시 밭 갈다가 비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 좀 부지런한 사람은 그저 둘 셋을 소를 먹이지요.)

104005 @ 음.(음.)

104005 #1 멕이곡 뚜로 경 아니허믄 암쉐 멕이는 사름은 둘 셋을 메고, 뚜로 부릉이 메는 사름도 여름, 여름 한 철은 하나만 헤 가지고 목장 올렷다가 그 추수가 끗나면은 어디 돈 잇는 사름은 또 송아지를 사레 뎅깁니다. 사당 또 집이서 잘 키왕 큰 쉐는 풀앙 돈 받곡 족은 송아긴 쪼금 힘이 들어도 밧갈쉐로 부리고 영 허면은 그건 좀 주인이 부지런헌 사름덜은 그렇게 헤낫수다.(먹이고 또 그렇게 안 하면 암소 먹이는 사람은 둘 셋을 매고, 또 부룩소 매는 사람도 여름, 여름 한 철은 하나만 해 가지고 목장 올렸다가 그 추수가 끝나면은 어디 돈 있는 사람은 또 송아지를 사러 다닙니다. 사다가 또 집에서 잘 키워서 큰 소는 팔아서 돈 받고 작은 송아지는 조금 힘이 들어도 밭 가는 소로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좀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104006 @ 예, 소, 게난 밧 갈젠 허믄 쟁기에 각각 쟁기 부분 하나하나 명칭들은 기억남수가?(예, 소, 그러니까 밭 갈려고 하면 쟁기에 각각 쟁기 부분 하나하나 명칭들은 기억나고 있습니까?)

104006 #1 예, 예.(예, 예.)

104006 @ 그거 한번 굴아줍서.(그거 한번 말해주십시오.)

104006 #1 잠데, 잠데는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성에, 무클, 또 벳바드렝이[130], 돌벵이뿔, 양주머리 대게 이렇게 구분뒈어 가지고 허는디, 이것은 나무로 멘드는디 그냥 양주머리는 소나무가, 소나무로 제격으로 만들고, 또 그 쉐 멍에는 질 가벼운 머구낭으로 멘듭니다.(쟁기, 쟁기는 그 제일 처음에는 그 성에, 쟁깃술, '벳바드랭이', 까막머리, 양지머리 대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나무로 만드는데 그냥 양지머리는 소나무가, 소나무로 제격으로 만들고, 또 그 소 멍에는 젤 가벼운 머귀나무로 만듭니다.)

104006 @ 머구낭예?(머귀나무요?)

104006 #1 예, 머구낭이 아주 게벼웁주게. 게난 그 머구낭으로 멍에를 멘들고, 뚜로 성에나 무클은 소리낭이나 게 아니믄 가시낭으로 허는 건 아이뒙니다. 건 든든헤사 뒐 거니까, 꺼꺼질 거난. 게난 그런 든든헌 걸로 멘들고 헙니다, 뭐.(예, 머귀나무가 아주 가벼우지요. 그러니까 그 머귀나무로 멍에를 만들고, 또 성에나 쟁깃술은 소리나무나 게 아니면 가시나무로 하는 건 안 됩니다. 건 단단해야 될 거니까, 꺾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단단한 걸로 만들고 합니다, 뭐.)

104006 @ 무클은 뭐, 쉐에 뭘 할려고 무클, 쟁기에, 어떤 역할을 허는 거우꽈?(쟁깃술은 뭐, 소에 뭐 하려고 쟁깃술, 쟁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104006 #1 쟁기에 그 성에란 것이 좀 보섭도 메우곡 헤지는 것이 쪼금 소롬헌 거 잇수다게, 이것이 잇는데 그것에 연결시겨 가지고 그 쉐 뭐냐 저 멍에에.(쟁기에 그 성에란 것인 좀 보습도 메우고 해지는 것이 조금 갸름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 있는데 그것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 소 뭐냐 저 멍에에.)

130) '벳바드랭이'는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다.

104006 @ 예, 멍에에.(예, 멍에에.)

104006 #1 쉐 멍에에, 멍에에 강 메우게끔.(소 멍에에, 멍에에 가서 메우게끔.)

104006 @ 연결시키고,(연결시키고.)

104006 #1 멍에, 멍에도 춤 두 가지가 싯수다. 멍에는 쉐머리에서 고개 위에서 뒤 발까지 오는디 양쪽에 섬비줄이 잇고.(멍에, 멍에도 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멍에는 소머리에서 고개 위에서 오는데 양쪽에 봇줄이 있고.)

104006 @ 섬비, 섬비줄?(봇, 봇줄?)

104006 #1 섬비줄이란 게 잇고. 밧줄 ᄀᆞ뜬 거 허영은에, 섬비줄 잇고, 또 그 뒤에 그 오리목[131]ᄀᆞ찌 진 낭에, 낭이 잇고, 것에 ᄯᅳ로 아, 저 오리목, 오리목이엔 헌 것이 영 뒤에 잠데레 무꺼지는 것이, 그것이 잇곡 헌디 성에는 잠데 무꺼진 디 톡 ᄃᆞᆯ면은 그 저 무클에 강 연결시키면, 무클은 그건 ᄯᅳ로 벳하고 보섭이 들어가니까 그걸 들어가면 ᄯᅳ로 그 저 ****가 멘들아지니까 허곡 ᄯᅳ로 양주머리가 시니까 양주머리만 지펌시면은 성에 무클은 연결뒈어 놓으니까 그냥 쉐레 당기믄 들어가게 허영.(봇줄이란 게 있고. 밧줄 같은 거 해서, 봇줄 있고, 또 그 뒤에 그 '오리목'같이 긴 나무에, 나무가 있고, 것에 또 아, 저 '오리목', '오리목'이라고 한 것이 이렇게 뒤에 쟁기로 묶어지는 것이, 그것이 있고 한데 성에는 쟁기 묶어진 데 톡 달면은 그 저 쟁깃술에 가서 연결시키면, 쟁깃술은 그건 또 볏하고 보습이 들어가니까 그걸 들어가면 또 그 저 ****가 만들어지니까 하고 또 양지머리가 있으니까 양지머리만 짚고 있으면 성에 쟁깃술은 연결되어 놓으니까 그냥 소로 당기면 들어가게 해서.)

104006 @ 게난 벳은 보섭하고 어떤 차이가 잇수가?(그러니까 볏은 보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04006 #1 벳은 그 밧 갈 적에 ᄒᆞᆫ 짝더레만 쏠리게 허여 가지고 그 우에 보섭 우에 동그스름허게 헤 가지고 ᄒᆞᆫ 편으로.(볏은 그 밭 갈 적에 한 짝으로만 쓸리게 하여 가지고 그 위에 보습 위에 둥그렇게 해 가지고 한 편으로.)

104006 @ 아, 예, 예.(아, 예, 예.)

104006 #1 저 반달ᄀᆞ찌 헤 가지고 헌 것이 벳이고, 보섭은 그 저 땅속에 들어가는 쒭주게.(저 반달같이 해 가지고 한 것이 볏이고, 보습은 그 저 땅속에 들어가는 쇠지요.)

104006 @ 보섭은예?(보습은요?)

104006 #1 예, 보섭 눌러지게 허영 그 벳이 그걸 좌우허여마씨.(예, 보습 눌러지게 해서 그 볏이 그걸 좌우해요.)

104006 @ 게난 그 혹시 뭐 다른 명칭들 생각나는 거 잇수가?(그러니까 그 혹시 뭐 다른 명칭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4006 #1 잠데마씨?(쟁기요?)

104006 @ 잠데도 그렇고.(쟁기도 그렇고.)

---

131) '오리목'은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어 매는 줄이다.

104006 #1 잠데에는 그게 다입주, 뭐.(쟁기에는 그게 다이지, 뭐.)

104006 @ 음.(음.)

104006 #1 그 손 영 잡아 가지고 운전허는 것은, 운전허는 것은 저 양주머리, 또 땅더레 간 건 저 무클, 뚜로 우에 영 구짝헌 것은 성에, 뚜로 그 앞이 저 오리목 돌아멘 것은, 쉐 멍에에 연결시겨 주는 것은 저 돌벵이뿔, 돌벵이뿔은 흔 십오 전쯤 질게 허영, 것도 츰낭으로 허영 든든허게 헤사, 걸 꺼꺼지지 안 허게 헤낫수다.(그 손 이렇게 잡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운전하는 것은 저 양지머리, 또 땅으로 간 건 저 쟁깃술, 또 위에 이렇게 곧은 것은 성에, 또 그 앞에 저 '오리목' 달아맨 것은, 소 멍에에 연결시켜 주는 것은 저 까막머리, 까막머리는 한 십오 전쯤 길게 해서, 그것도 참나무로 해서 단단하게 해야, 걸 꺾어지지 않게 했었습니다.)

104006 @ 게믄 줄은 어떤 줄들이 잇수가?(그러면 줄은 어떤 줄들이 있습니까?)

104006 #1 줄은 보통은 밧 갈 때 허는 섬비줄이엔 헌 것은 이게 버짝헤사 뭡니다게. 경 안 허믄 밧 갈다가 흘랑흘랑헌 것은 쉐가 발도 베꼇디 내 놓곡 땅에도 끄스곡 허믄 쉐도 괴롭곡 허니까 바짝헌 낭을 어디 강 허느냐 허면 저 화전 가 가지고 소리낭, 소리낭 그거를 얍게 산 나무에서 그거 헤당 일일이 쨉니다, 째어.(줄은 보통은 밭 갈 때 하는 끙겟줄이라고 한 것은 이게 뻣뻣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밭 갈다가 헐렁헐렁한 것은 소가 발도 바깥에 내 놓고 땅에도 끌고 하면 소도 괴롭고 하니까 뻣뻣한 나무를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저 화전 가 가지고 소리나무, 소리나무 그거를 얇게 산 나무에서 그거 해다가 일일이 쨉니다, 째어.)

104006 @ 소리낭은 어떵?(소리나무는 어떻게?)

104006 #1 소리낭은 그 뭐라고 표현허믄 좋을고, 그건 사철나문 아닌디 그 나무가 원체 든든헌 겁주기. 꺼꺼지질 안 허영.(소리나무는 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그건 사철나무는 아닌데 그 나무가 원체 단단한 거지요. 꺾어지질 않아서.)

104006 @ 아.(아.)

104006 #1 그것을 겁죽 영 허영 벳경 영 낭을 뚜로 역시 찢어마씨, 찢어. 그다음 그걸로 꼬아 놩 뚜로 역시 세 가달로 꼬아 놩 뚜로 세 줄로 허면은 여섯 가달이 뒈게끔 허영은에 그걸 그냥 꼬지 못허니까 들입니다, 들영. 들여 가지고 허면은 들인다고 헙주게, 경 허믄 그게 바짝헤집주게.(그것을 껍데기 이렇게 해서 벗겨서 이렇게 나무를 또 역시 찢어요, 찢어. 그다음 그걸로 꼬아 놔서 또 역시 세 가닥으로 꼬아 놔서 또 세 줄로 하면은 여섯 가닥이 되게끔 해서 그걸 그냥 꼬지 못하니까 들입니다, 들여서. 들여 가지고 하면은 들인다고 하지요, 그렇게 하면 그게 뻣뻣해지지요.)

104006 @ 아, 뭘로 헤서 돌려 가지고?(아, 뭘로 해서 돌려 가지고?)

104006 #1 아니, 건 돌리는, 돌리는 것은 배가 돌리는, 일반 배를 돌리는 것이고 소리낭은 돌릴 정도로 허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짝허게끔 만드는 것이니까 그 소리낭으로 써십주.(아니, 건 돌리는, 돌리는 것은 참바가 돌리는, 일반 배를 돌리는 것이고 소리나무는 돌릴 정도로 하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곧게끔 만드는 것이니

까 그 소리나무로 썼지요.)

104006 @ 음.(음.)

104006 #1 게난 그것이 소리낭 읏어 가니까 이제 그 이젠 바다에서 나는 그물, 나이롱 그물 나니까 그걸로 헤당 그것 들영 만들아낫수다. 그건 그추룩 허믄 멍에에 메왕 그 허면 첨 말제 헌 나이롱 그물은 현재도 써십주게, 든든헌 거.(그러니까 그것이 소리나무 없어 가니까 이제 그 이젠 바다에서 나는 그물, 나일론 그물 나니까 그걸로 해다가 그것 들여서 만들었었습니다. 그건 그처럼 하면 멍에에 메워서 그 하면 참 말째 한 나일론 그물은 현재도 썼습지요, 단단한 거.)

104006 @ 게난 쟁기 보섭은 종류가 하나우꽈?(그러니까 쟁기 보습은 종류가 하나닙니까?)

104006 #1 보섭은 종류가 하납주게.(보습은 종류가 하나지요.)

104006 @ 하나.(하나.)

104006 #1 하나고 또로 그 저 벳은.(하나고 또 그 저 볏은.)

104006 @ 벳은?(볏은?)

104006 #1 종류가 두 가지 잇수다.(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104006 @ 두 가지 잇고.(두 가지 있고.)

104006 #1 건 웨 두 가지냐 허면은 전에는 거 안 헤낫는데 보리도 골 갈곡, 고구마도 골 갈곡 허면은 양쪽더레 흑을 자쳐지게 헤서 그 골 가는 벳이 영 허연 셔낫수다.(건 왜 두 가지냐 하면은 전에는 안 했었는데 보리도 골 갈고, 고구마도 골 갈고 하면은 양쪽으로 흙을 젖혀지게 해서 그 골 가는 볏이 이렇게 해서 있었었습니다.)

104006 @ 아, 양쪽으로 갈라지는 벳이 잇고, 한쪽으로만 갈라지는 벳이 잇고?(아, 양쪽으로 갈라지는 볏이 있고, 한쪽으로만 갈라지는 볏이 있고?)

104006 #1 예, 겐디.(아, 그런데.)

104006 @ 그 이름은 뭐옌 헙니가?(그 이름은 뭐라고 합니까?)

104006 #1 게난 거 양쪽으로 갈라지는 보섭ᄀᆞ라 골벳[132], 그냥 벳은 그냥 벳.(그러니까 거 양쪽으로 갈라지는 보습더러 '골벳', 그냥 볏은 그냥 볏.)

104006 @ 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벳이 골벳이구나예?(아, 그러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는 볏이 '골벳'이구나?)

104006 #1 예, 골벳은 골로 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갈라집주게.(예, '골벳'은 골로 가는 거니까 양쪽으로 갈라지지요.)

104006 @ 골벳예. 골벳이구나, 그건 골벳이고, 그냥 한쪽으로만 영 허는 건 그냥 벳이고.('골벳'요. '골벳'이구나, 그건 '골벳'이고, 그냥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건 그냥 볏이고.)

104006 #1 예.(예.)

104006 @ 그 웨에 쟁기, 잠데 그 뭐 다른 거?(그 외에 쟁기, 쟁기 그 뭐 다른

132) '골벳'은 논밭을 가는 쟁기의 끼우는 도구로 골을 내는 데 쓰이는 볏이다.

거?)

104006 #1 다른 것은 쉐엔 명에, 아까도 멍에 이야기헷수다만은 멍에는 가장 가벼운 거라야 뒈니까 머구낭이 제일 좋읍주, 머구낭이 하고, 또 머구낭은 해녀덜이 그 호미, 낫에 즈록, 즈록, 속이 막 가벼우니까 그걸로 헙니다, 뭐.(다른 것은 소엔 멍에, 아까도 멍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멍에는 가장 가벼운 거라야 되니까 머귀나무가 제일 좋습지요, 머귀나무가 많고, 또 머귀나무는 해녀들이 그 낫, 낫에 자루, 자루, 속이 아주 가벼우니까 그걸로 합니다, 뭐.)

104007 @ 질메도?(길마도?)

104007 #1 예, 건 짐 날라올 때, 질메는 그 앞가지는 보통 집이서라든지 영 짜 가지고 에이자 형으로 만든 게 그 낭이고, 건 만들 수 잇는디 뒷 질메는 나무 자체가 타원형 영 형 뒈게끔 헌 나무를 어디 강 구헤당 그 솔진 건 꼭 질메 헤십주기.(예, 건 짐 날라올 때, 길마는 그 앞가지는 보통 집에서라든지 이렇게 짜 가지고 에이자 형으로 만든 게 그 나무고, 건 만들 수 있는데 뒤에 길마는 나무 자체가 타원형 이렇게 형 되게끔 한 나무를 어디 가서 구해다가 그 살찐 건 꼭 길마 했습지요.)

104007 @ 음.(음.)

104007 #1 게 가지고 건 질메 멘드는디 질메는 그 저 고들개가 잇고, 고들개엔 허는 것은 질메에 돌아멘 낭 요만이 헌 건데, 한 이십 전, 아, 저 흔 오십 전 기러긴디, 그건 뚜로 질메에 짐을 시끄믄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헤서 쉐 뒤에.(그래 가지고 건 길마 만드는데 길마는 그 저 껑거리막대가 있고, 껑거리막대라고 하는 것은 길마에 달아맨 나무 요만큼 한 건데, 한 이십 전, 아, 저 한 오십 전 길이인데, 그건 또 길마에 짐을 실으면 앞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해서 소 뒤에.)

104007 @ 그건 나무로 만듭니까?(그건 나무로 만듭니까?)

104007 #1 예,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예,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104007 @ 그것도 목수가 헤줍니까?(그것도 목수가 해줍니까?)

104007 #1 아니, 그건 손수 다 뭽니다.(아니, 그건 손수 다 됩니다.)

104007 @ 손수?(손수?)

104007 #1 예, 그냥 나무가 요만이 진 거니까 질메에 대엇던 고들개 끈에 그걸 무끄면은 앞더레 짐들이 넘어나지 안 헙주게.(예, 그냥 나무가 요만큼 긴 거니까 길마에 대었던 껑거리막대 끈에 그걸 묶으면은 앞으로 짐들이 넘어나지 않지요.)

104007 @ 아, 예.(아, 예.)

104007 #1 그걸 안 허믄 쉐가 앞더레 짐이 넘어나불 거니까. 게고 질메도 앞가지, 뒷가지가 잇고 헌디 뒷가지는 그 저 소나무로도 뒈고 허는디 것은 나무가, 그 생김새가 동그스름허게 헤 가지고 뭰 거라야 뒈십주. 경 헨에 거기는 뚜로 역시 저이 소용이라 헤 가지고 질메광 질메, 앞가지영 뒷가지를 연결시겨주는 것이 잇는데 그걸로 헙주게. 소용은 질메광 앞가지허고 뒷가지를 연결시경.(그걸 안 하면 소가 앞으로 짐이 넘어나 버릴 거니까. 그리고 길마도 앞가지, 뒷가지가 있고 한데 뒷가

지는 그 저 소나무로도 되고 하는데 것은 나무가, 그 생김새가 동그스름하게 해 가지고 된 거라야 됐습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는 또 역시 저 이 쐐기라 해 가지고 길마와 길마, 앞가지랑 뒷가지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하지요. 쐐기는 길마와 앞가지하고 뒷가지를 연결시켜서.)

104007 @ 연결시켜 주는 거.(연결시켜 주는 거.)

104007 #1 움직이지 못허게 허는 것을.(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을.)

104007 @ 소용.(궁글막대.)

104007 #1 소용 두 개가 들읍주게.(궁글막대 두 개가 들지요.)

104007 @ 그 웨에 또 질메 명칭이, 부분 명칭?(그 외에 또 길마, 명칭이, 부분 명칭?)

104007 #1 질메 그거허고 도곰[133].(길마 그거하고 떰치.)

104007 @ 도곰?(떰치?)

104007 #1 도곰이란 것은 뭬냐 허면 그 저 쉐 등이 아프니까 그 멕주보리낭이라든지 찝으로 등에 대겟끔 거 저 영 소랑허게 요만이 이십 전 내지 육십 전 간격으로 혜 가지고 걸 쌍 더껑 쌍은에 그 저 보리낭으로 만들어 가지고, 것도 두 개라야 등더레 영 놓는 그 소용, 질메 도곰을 만듭주게.(떰치란 것은 뭐냐 하면 그 저 소 등이 아프니까 그 맥주보릿짚이라든지 짚으로 등에 대게끔 거 저 이렇게 길쭉하게 요만큼 이십 전 내지 육십 전 간격으로 해 가지고 걸 싸서 덮어서 싸서 그 저 보릿짚으로 만들어 가지고, 두 개라야 등으로 이렇게 놓는 그 쐐기, 길마 떰치를 만들지요.)

104007 @ 질메 도금?(길마 떰치?)

104007 #1 예, 도곰.(예, 떰치.)

104007 @ 도금?(떰치?)

104007 #1 예.(예.)

104007 @ 또 뭐 다른 명칭?(또 뭐 다른 명칭?)

104007 #1 질메에는 도금, 도금은 질 처음 아, 저, 등테.(길마에는 떰치, 떰치는 은 젤 처음 아, 저, 겉언치.)

104007 @ 등테?(겉언치?)

104007 #1 등테엔 헌 건 도금 안네 헌 옷이라든지 뭣 헹은에 쉐 등에 부트지 아니허게 톡 더꺼 놩 그 질메 지와마씨. 겐디 등테 잇고 등테 우인 도금이 잇는디 도금은 질메 딱 부뜨게 연결시겨놧수다, 뭐. 게난 거 하나 뒈게 혜 가지고 도금 우에 톡 놓으면은 그때야 쉐 질메가 다 뒈는 걸로, 거기 뚜로 오량끄지 잇수다, 오량. 오량은 어떤 거냐 허면은 그 베로 영 딱 무꺼 가지고 질메가 요동치지 못허게 허는 것이 오량.(겉언치라고 한 건 도금 안에 헌 옷이라든지 뭣 해서 소 등에 붙지 않게 톡 덮어서 놔서 그 길마 지워요. 그런데 겉언치 있고 겉언치 위에는 떰치가 있는데

133) '도곰'은 안장을 씌울 때 말 등이 상하지 않도록 등에 덮어주는 물건이다. '안장도금', '도금'이라고도 한다.

떰치는 길마 딱 붙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뭐. 그러니까 거 하나 되게 해 가지고 도금 위에 탁 놓으면 그때야 소 길마가 다 되는 걸로, 거기 따로 뱃대끈까지 있습니다, 뱃대끈. 뱃대끈은 어떤 거냐 하면 그 참바로 이렇게 딱 묶어 가지고 길마가 요동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뱃대끈.)

104007 @ 아, 그 밋트로.(아, 그 밑으로.)

104007 #1 예.(예.)

104007 @ 아, 그 배로예, 배로.(아, 그 참바로요, 참바로.)

104007 #1 예.(예.)

104007 @ 배로, 오량.(참바로, 뱃대끈.)

104007 #1 오량입주, 겐디 그 질메도 보통 열에 아홉 쉐는 어질어 가지고 짐 시끔이 쉬와마씸. 게 허연 그자 아이 ᄀᆞ르쳐도 밧 ᄀᆞ르치는 것 ᄀᆞ찌 어렵지 아니 허는디 간혹 부량혼 소덜은 등이 ᄀᆞ려운다든지 허믄 막 들러퀴는 쉐가 잇수다.(뱃대끈이지, 그런데 그 길마도 보통 열에 아홉 소는 어질어 가지고 짐 싣기가 쉬워요. 그렇게 해서 그저 아니 가르쳐도 밭 가르치는 것 같이 어렵지 않데, 간혹 불량한 소들은 등이 가렵다든지 하면 날뛰는 소가 있습니다.)

104007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4007 #1 게믄 이것도 역시 밧 가는 쉐 ᄀᆞ르치듯이 우이 가서 진 새나 어욱이나, 어욱이나 솔섶이나 허영 두 번 양쪽으로 허영은에 들러퀴어도 넘어지지 않곡 좀 못 젼뎌도 일어나믄 것이.(그런데 이것도 역시 밭 가는 소 가르치듯이 위에 가서 긴 띠나 억새나, 억새나 솔잎이나 해서 두 번 양쪽으로 해서 날뛰어도 넘어지지 않고 좀 못 견뎌도 일어나면 그것이.)

104007 @ 게난 구루마 헐 때도 질메 헙니까?(그러니까 마차 할 때도 길마 합니까?)

104007 #1 구루마 헐 때는 저 질메, 질메가 아니고 그 저 구라.(마차 할 때는 저 길마, 길마가 아니고 그 저 안장.)

104007 @ 구라?(안장?)

104007 #1 예, 구루마 헐 땐 짐 시끌 때에 질메 모냥으로 뭰 건디 구라엔 헌 겁주. 무슨 쒜로 영 허영 앞 구르마 차경, 차경을 움직거리지 아니허게 몸에 부뜨게 허영 허는 걸 구랍주게.(예, 마차 할 땐 짐 실을 때에 길마 모양으로 된 건데 안장이라고 한 거지. 무슨 쇠로 이렇게 해서 앞 마차 채, 채를 움직거리지 않게 몸에 붙게 해서 하는 걸 안장이지요.)

104007 @ 거기도 무슨 명칭들이 잇수가?(거기도 무슨 명칭들이 있습니까?)

104007 #1 아이, 구라엔 명칭이 엇어낫수다.(아니, 안장이라고 명칭이 있었었습니다.)

104007 @ 게난 그것은 누게가 만듭니까?(그러니까 그것은 누구가 만듭니까?)

104007 #1 구라는 그 일본놈덜 망헤 갈 때도 만들고 그자 그 동네 목수덜도 만듭니다.(안장은 그 일본놈들 망해 갈 때도 만들고 그저 그 동네 목수들도 만듭니

다.)

104007 @ 구라는 목수덜이 만들어 주고예? 음, 구라.(안장은 목수들이 만들어 주고요? 음, 안장.)

104007 #1 구라는 그자.(안장은 그저.)

104007 @ 구루마허고 연결시켜 줭은에 갈 수 잇게예?(마차하고 연결시켜 줘서 갈 수 있게요?)

104007 #1 예.(예.)

104007 @ 경 헌 거 아니라예?(그렇게 한 거 아니야?)

104007 #1 예.(예.)

104008 @ 음, 그렇구나예. 그다음에 이제 멍에, 멍에에 부분 명칭은?(음,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멍에, 멍에에 부분 명칭은?)

104008 #1 예, 그 멍에는 아까 쉐 멍에라 헌 것은 두 가지로 나눕주게. 밧 갈 때 멍에가 잇고, 뚜로 저 방에 질 때 멍에에 그 저 쉐 멍에가 이십니다, 방에 질 때에.(예, 그 멍에는 아까 소 멍에라 한 것은 두 가지로 나누지요. 밭 갈 때 멍에가 있고, 또 저 방아 질 때 멍에에 그 저 소 멍에가 있습니다, 방아 짛을 때에.)

104008 @ 음, 방에 질 때, 방엣돌 둥그릴 때에.(음, 방아 짛을 때에, 방앗돌 굴릴 때에.)

104008 #1 예, 둥그릴 때 멍에가 잇는디 그 밧 갈 때 멍에는 그 저 땀을 흘리지 말게 허영 고개에 놩 저 섬비, 섬비줄 무꺼 가지고 허는 것이 그때는 그 멍에가 잇고, 이십주기.(예, 굴릴 때 멍에가 있는데 그 밭 갈 때 멍에는 그 저 땀을 흘리지 말게 해서 고개에 놔서 저 봇, 봇줄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때는 그 멍에가 있고, 있습지요.)

104008 @ 게난, 그.(그러니까, 그.)

104008 #1 경허고 그 저 방에 가 가지고 헐 때는 그걸 안 헤 가지고 그 그것도 메우주만은, 몸에만 허영 방에 저 잣에만 메어지게끔 허영은에 돌리곡 경 헤낫수다. 쉬운 것은 방에에 메운 것은 집집마다 거의 다 잇고, 또 그 밧 가는 멍에도 집집마다 다 잇어마씨. 다 잇고 허는디 암쉐 멍에는 족으니까 좀 더 ᄀᆞ늘게 헹 족은 걸로 헙니다. 겐디 그 저 암쉐 멍에는 그렇게 헤 놧다가 암소로 밧 갈 때 그걸로 쓰곡 헤나십주게.(그리고 그 저 방아 가 가지고 할 때는 그걸 않아 가지고 그 그것도 메우지만, 몸에만 해서 방아 저 성에만 매어지게끔 해서 돌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쉬운 것은 방아에 메운 것은 집집마다 거의 다 있고, 또 그 밭 가는 멍에도 집집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하는데 암소 멍에는 작으니까 좀 더 가늘게 해서 작은 걸로 합니다. 그런데 그 저 암소 멍에는 그렇게 해 놨다가 암소로 밭 갈 때 그걸로 쓰고 했습지요.)

104008 @ 게믄 멍에는 각각 이름들 명칭들이 뭐?(그러면 멍에는 각각 이름들 명칭들이 뭐?)

104008 #1 게난 멍에는 그 섬비줄, 섬비줄이 양짝이 셔야 헙니다. 섬비줄 두 개

허고, 뚜로 오리목, 오리목이라 헌 것은 섬비줄을 연결시겨 가지고 잠데에 무꺼주는 오리목, 또 멍에, 멍에 헐 낭은 그 저 머구낭으로 멘든덴 허는 거, 가벼운 거.(그러니까 멍에는 그 봇줄, 봇줄이 양짝에 있어야 합니다. 봇줄 두 개하고, 또 '오리목', '오리목'이라 한 것은 봇줄을 연결시켜 가지고 쟁기에 묶어주는 '오리목', 또 멍에, 멍에 할 나무는 그 저 머귀나무로 만든다고 하는 거, 가벼운 거.)

104008 @ 가벼운 거예.(가벼운 거요.)

104008 #1 그것이 주입주.(그것이 주이지요.)

104008 @ 그거는 명칭이 복잡허진 안 허구나예.(그거는 명칭이 복잡하진 않군요.)

104008 #1 예.(예.)

104009 @ 그렇구나예. 그다음에 여기 목장 얘기헤나신디 여기 대림 목장은 옛날은 어떻게 관리를 옛날엔 헤낫수가?(그렇구나. 그다음에 여기 목장 얘기했었는데 여기 대림리 목장은 옛날은 어떻게 관리를 옛날엔 했었습니까?)

104009 #1 예, 대림 목장은 저 그거 저 소화 구년도에 그 우리 대림서가 소화 구년도면은 천구백삽십이 년도에 그 대림 목장을 저거 우리 대림서 매입을 헤십주. 매입을 헌 끗데는.(예, 대림리 목장은 저 그거 저 소화 구 년도에 그 우리 대림리에서 소화 구년 도면은 천구백삼십이 년도에 그 대림리 목장을 저거 우리 대림리에서 매입을 했지요. 매입을 한 끝에는.)

104009 @ 언제마씨?(언제요?)

104009 #1 소화 구년, 천구백삽십이 년도에.(소화 구년, 천구백삼십이년도에.)

104009 @ 천구백삽십이 년도예, 어디, 어디 관에서 매입을 헌 거라마씨?(천구백삽십이 년도요, 어느, 어느 관에서 매입을 한 거지요?)

104009 #1 예, 관에서 그때는 그 저 농촌에 축산 장려를 시킨덴 헤 가지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허면서 각 부락에서 목장을 허라고 허니까.(예, 관에서 그때는 그 저 농촌에 축산 장려를 시킨다고 해 가지고 행정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하면서 각 부락에서 목장을 하라고 하니까.)

104009 @ 축산장려운동 허면서?(축산장려운동 하면서?)

104009 #1 예, 그래서 그 부락마다 목장을 시설허는디 우리 대림은 저 거막[134] 산 이십이 번지로 헤 가지고 저 이십칠 번까지 허고, 이 번으로 헤 가지고 오 번끄지 이것이 우리 대림 목장인데, 십오 정이랏수다, 뭐. 게고 뚜로 암소 놓는 데도 암소 목장 잇엇는데 암소 목장에는 흔 육 정이라낫는데 거기는 좁고 허니까, 제일 처음 전기가 시설허젠 허니까 그때는 자가 부담덜 많이 헤십주.(예, 그래서 그 부락마다 목을 시설하는데 우리 대림리는 저 금악리 산 이십이 번지로 해 가지고 저 이십칠 번까지 하고, 이 번으로 해 가지고 오 번까지 이것이 우리 대림리 목장인데, 십오 정보였습니다, 뭐. 그리고 또 암소 놓는 데도 암소 목장 있었는데 암소 목장에는 한 육 정보였었는데 거긴 좁고 하니까, 제일 처음 전기가 시설하려고 하니까 그때

134) '거막'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이다.

는 자가 부담들 많이 했습지요.)

104009 @ 음.(음.)

104009 #1 게난 그걸 허기 위헤서 우리 대림서 그땐 너나 할 것 없이 소 질루니까, 거난 그걸 풀아 가지고 전기 시설허는디 ᄀᆞ찌 보태언 써낫수다.(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대림리서 그땐 너나 할 것 없이 소 기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팔아 가지고 전기 시설하는데 같이 보태어서 썼었습니다.)

104009 @ 목장 팔아 뒁?(목장 팔아 둬서?)

104009 #1 예, 족은 건. 게고 큰 것은 흔 멧 년 전이사 그걸 풀아불고예.(예, 작은 건. 그리고 큰 것은 한 몇 년 전에야 그걸 팔아버리고요.)

104009 @ 풀안, 풀믄 어떵 그걸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썻수가?(팔아서, 팔면 어떻게 그걸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썼습니까?)

104009 #1 아, 그 저 그 암소 목장은 너르질 아니허고 허니까 그때 지금 ᄀᆞ뜨믄 그냥 그 저 쉐 아이 메는 사름덜안티는 그 혜택을 주지 말아야 헐 건디 그때도 목장 조합원이 잇수다. 조합원이 잇엇는데 조합원덜이라도 그 암소 목장은 풀아 가지고 부락에서 쓰겟다 허니까 거 저 조합원덜이 다 동의를 혜줘서마씨.(아, 그 저 그 암소 목장은 넓질 않고 하니까 그때 지금 같으면 그냥 그 저 소 안 매는 사람들한테는 그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때도 목장 조합원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있었는데 조합원들이라도 그 암소 목장은 팔아 가지고 부락에서 쓰겠다 하니까 거 저 조합원들이 다 동의를 해줬어요.)

104009 @ 음.(음.)

104009 #1 동의를 헤 주니까 풀고, 큰 목장은 그거 이젠 막 싯가도 올라불고, 가치가 땅깝 올라부니까 그걸 흔 삼사 년 전이 풀아가지고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 분배헷수다.(동의를 해 주니까 팔고, 큰 목장은 그거 이젠 아주 시가도 올라버리고, 가치가 땅값 올라버리니까 그걸 한 삼사 년 팔아서 조합원 전원에게 공동 분배했습니다.)

104009 @ 음.(음.)

104009 #1 게난 조합에 아이 든 사름은 거 풀앙 못 받고, 조합에 든 사름은 흔 육천만 원 정도 받앗수다. 다 받아십주.(그러니까 조합에 아니 든 사람은 거 팔아서 못 받고, 조합에 든 사람은 한 육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104009 @ 음, 조합원이 멧 명쯤이나 뒈낫수가?(음, 조합원이 몇 명쯤이나 됐었습니까?)

104009 #1 제일 처음 흔 약 백여 명 정도벳기 아이 뒈어낫는데 그만 해방이 뒈고 사삼사건이 끗날 때 그 우이 웃드리[135] 상대[136]라든지 저 공초왓[137] 이런 디 사름덜이 소게를 와서마씸.(제일 처음 한 약 백여 명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그만 해방이 되고 사삼사건이 끝날 때 그 위에 웃드리 상대리라든지 저 '공초왓' 이런 데

135)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136) '상대'는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이다.
137) '공초왓'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경에 있는 화전마을이다.

사람들이 소개를 왔어요.)

104009 @ 공초왓, 공초왓예?('공초왓', '공초왓'요?)

104009 #1 저 애월읍 지경인디 그 저 화전민이라고도, 화전 사름덜이 그 사삼사건 때에.(저 애월읍 지경인데 그 저 화전민이라고도, 화전 사람들이 그 사삼사건 때에.)

104009 @ 솔도?('솔도'?)

104009 #1 예, 솔도[138] 근처라든지 이런 디 사름덜이 이 고향으로 ᄂᆞ려와 불엇는디 그 사름덜토 이디 와 가지고 소를 질롸 놓으니까 반다시 시설헤 놓은 것에 대헤서 돈을 내영 들어야 헐 건디 그것을 비례헤 가지고, 헤얄 건디 그자 목초 깝, 촐멕이는 깝 정도로만 헌 걸 사름덜이 다 그 구제허는 디서가 목장 돈덜 다 흡수허여 부럽십주. 게난 우리 대림서는 건 이백 명이 뒈어불엇어마씨.(예, '솔도' 근처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이 이 고향으로 내려와 버렸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 와 가지고 소를 길러 놓으니까 반드시 시설해 놓은 것에 대해서 돈을 내어서 들어야 할 건데 그것을 비례해 가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저 목초 값, 꼴 먹이는 값 정도로만 한 걸 사람들이 다 그 구제하는 데서가 목장 돈들 다 흡수하여 버렸지요. 그러니까 우리 대림리서는 거의 이백 명이 돼버렸어요.)

104009 @ 아, 그 사름덜이 내려와 부니까?(아, 그 사람들이 내려와 버리니까?)

104009 #1 예, 내려완 다 들어가니까 이백 명이 뒈 노니까 그걸 풀앗자 흔 육천만 원벳기 못 받고, 뚠 디덜은 그 한림[139]이라든지 뚠 디덜은 그걸 그냥 놔두니까, 그런 사름덜 가입시기지 아니허니까 거막 ᄀᆞ뜬 딘 멧 억을 받아불고, 일인당.(예, 내려와서 다 들어가니까 이백 명이 돼 놓으니까 그걸 팔았자 한 육천만 원밖에 못 받고, 딴 데들은 그걸 그냥 놔두니까, 그런 사람들 가입시키지 않으니까 금악리 같은 덴 몇 억을 받아버리고, 일인당.)

104009 @ 음.(음.)

104009 #1 경 헷주만은 우리 대림은 큰 손해를 봐십주게.(그렇게 했지만 우리 대림리는 큰 손해를 봤습지요.)

104009 @ 아, 그렇게 헷구나예.(아, 그렇게 했구나.)

104009 #1 게난 그 옛 인심덜이 경 좋아 가지고 암쉐 목장 푼 것도 갈를 때도 목장에 가입 안 헤도 걸 풀아 가지고, 전체.(그러니까 그 옛 인심들이 그렇게 좋아 가지고 암소 목장 판 것도 가를 때도 가입 않아도 걸 팔아 가지고, 전체.)

104009 @ 마을 전체 쓰고.(마을 전체 쓰고.)

104009 #1 그 저 전기 사업에 써 불고.(그 저 전기 사업에 써 버리고.)

104009 @ 전기 사업에 써 불고.(전기 사업에 써 버리고.)

104009 #1 뚜로 이제 큰 목장은 저.(또 이제 큰 목장은 저.)

104009 @ 위에서 내려온 사름은 많이 이신디, 음.(위에서 내려온 사람은 많이

138) '솔도'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경에 있는 화전마을이다.
139)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이다.

있는데, 음.)

104009 #1 예, 그 사름덜 다 ᄀᆞ찌 목장 조합원으로.(그 사람들 다 같이 목장 조합원으로.)

104009 @ 원래 대림 사름덜이 아닌디예.(원래 대림리 사람들이 아닌데요.)

104009 #1 예, 예, 그게 딴 부락덜토 다 잇수다게. 이 귀덕[140] 목장 ᄀᆞ뜬 디도 그때 전기 시설 허젠 허니까 펭당 혼 십 원도 아이 받아 가지고 그걸 풀안, 것도 조합원만 갈라야 헐 건디, 이 전기 시설허는 디 보태야 헐 건디 전 리민덜이 다 허여십주.(예, 예, 그게 딴 부락들도 다 있습니다. 이 귀덕리 목장 같은 데도 그때 전기 시설 하려고 하니까 평당 한 십 원도 아니 받아 가지고 그걸 팔았어, 그것도 조합원만 팔아야 할 건데, 이 전기 시설하는 데 보태야 할 건데 전 이민들이 다 하였습지요.)

104009 @ 문딱.(모두)

104009 #1 게난 그만큼 옛날은 인심이 좋앗다는 겁주기.(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은 인심이 좋았다는 거지요.)

104009 @ 게믄 그 옛날 삽십이 년도에 그 목장을 사 가지고 그때부떠 시작헹은에 그 목장에서, 그때부떠 조합이 형성뒛수가?(그러면 그 옛날 삼십이 년도에 그 목장을 사 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목장에서, 그때부터 조합이 형성됐습니까?)

104009 #1 예.(예.)

104009 @ 게믄 그 조합에서는 무슨 일들 헤낫수가? 관리를 헌다든가.(그러면 그 조합에서는 무슨 일들 했었습니까? 관리를 한다든가.)

104009 #1 아, 조합원덜이 그때 목장 구입헌 비용하고 혼 메칠간 강 축장을 헤십주기. 그 목장 안네 소를 놔도 도망치지 안 허게 뭐로 헤 가지고 담을 쌓앙(아, 조합원들이 그때 목장 구입한 비용하고. 한 며칠간 가서 축장을 했습지요. 그 목장 안에 소를 놔도 도망치지 않게 뭐로 해 가지고 담을 쌓아서.)

104009 @ 축담, 축담허고?(축담, 축담하고?)

104009 #1 예, 축장헤십주기.(예, 축장했습지요.)

104009 @ 축장?(축장?)

104009 #1 예.(예.)

104009 @ 그 담을 쌓는 걸 축장이렌 헙니까?(그 담을 쌓는 걸 축장이라고 합니까?)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 음, 축장허고. 게니까 그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구나예.(음, 축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구나.)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 그 담으로, 음. 게믄 그거를 전부다 돌렷수가? 전체 다(그 담으로, 음. 그러면 그거를 전부다 돌렸습니까? 전체 다.)

---

140)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다.

104009 #1 아이, 전체. 그건 목장 조합에 가입헌 사름덜, 가입헌 사름도 그때덜 소를 길룬 사름덜은 경 들고, 여기 살면서라도 소를 기를만한 능력이 엇인 사름덜은 아니 허고.(아니, 전체. 그건 목장 조합에 가입한 사람들, 가입한 사람도 그때들 소를 기른 사람들은 그렇게 들고, 여기 살면서라도 소를 기를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안 하고.)

104009 @ 아니 허고?(아니 하고?)

104009 #1 예. 겐디 지금은 소 하나 풀민은 춤 그 학비나 나왓주만은, 그 옛날은 소가 가장 중요헤나십주기. 좋은 소 한 마리 풀믄 이제 밧 흔 판이 사실 겁주.(예. 그런데 지금은 소 하나 팔면은 참 그 학비나 나왔지만, 그 옛날은 소가 가장 중요했었습지요. 좋은 소 한 마리 팔면 이제 반 한 판이 샀을 거지.)

104009 @ 그러십주게.(그러습지요.)

104009 #1 그렇게 헐 적에는 그자 그 경 허게 뒈니까 소 질루고 싶어도 홀어멍이라든지, 뚜로 능력 엇인 사름덜은 농촌에 살아도 쉐가 엇인 사름덜이 하영 셔십주게.(그렇게 할 적에는 그저 그 그렇게 하게 되니까 소 기르고 싶어도 홀어머니라든지, 또 능력 없는 사람들은 농촌에 살아도 소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지요.)

104009 @ 게난 쭉 이거 목장은 조합원 관리를 쭉 회의도 허곡 다 허영은에 운영은, 게믄 일 년에 운영허는 건?(그러니까 쭉 이거 목장은 조합원 관리를 쭉 회의도 하고 다 해서 운영은, 그러면 일 년에 운영하는 건?)

104009 #1 아, 운영은 일 년에 흔 번 꼭 목장 조합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려 가지고 총회에서는 뭣덜을 가결허느냐 허면은 올리 쉐가 올라갈 게 멧 ᄆᆞ리다, 또 그런데 자기냥으로 직접 가서 소를 번 치면서 볼 사름은 멧 명이다, 걸 못 봐서 뚠 사름안티 허여 가지고 허는 사름은 삭을 얼마 내엉 메낀다.(아, 운영은 일 년에 한 번 꼭 목장 조합 총회를 엽니다. 총회를 열려 가지고 총회에서는 뭣들을 가결하느냐 하면은 올해 소가 올라갈 게 몇 마리다, 또 그런데 자기대로 직접 가서 소를 번 치면서 볼 사람은 몇 명이다. 걸 못 봐서 딴 사람한테 하여 가지고 하는 사람은 품삯을 얼마 내어서 맡긴다.)

104009 @ 음.(음.)

104009 #1 요런 것을 가결허고, 뚜로 금년에 목적세를 말하자면 일 인당 오만 원이면 오만 원, 삼만 원이면 삼만 원을 목적세로 내 놓으라. 것을 내면 웨 내 놓으라 허는 줄 알암시냐 허면은 목장 조합 시설헐 때 조합원 쉐가 함께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뚜로 저 일부만 올라가니까 그 아니 올리는, 쉐 없는 사름을 셍각헤 가지고 목장에 기금을 헤야 뒌다.(요런 것을 가결하고, 또 금년에 목적세를 일 인당 오만 원이면 오만 원, 삼만 원이면 삼만 원을 목적세로 내 놓아라. 것을 내면 왜 내 놓아라 하는 줄 알고 있느냐 하면은 목장 시설할 때 조합원 소가 함께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저 일부만 올라가니까 그 아니 올리는, 소 없는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목장에 기금을 해야 된다.)

104009 @ 음.(음.)

104009 #1 그 기금 셔야 세금도 내곡, 또 그 목장 내에 어떤 비용 들만헌 것, 그 봉천수 물을 판다든지 경 헐 때라도 이것은 써야 뒌다. 이렇게 헤 가지고 가격을 결정허는 겁주기, 총 액수라든지.(그 기금 있어야 세금도 내고, 또 목장 내에 어떤 비용을 들만한 것, 그 봉천수 물을 판다든지 그렇게 할 때라도 이것은 써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거지요, 총 액수라든지.)

104009 @ 게난 그것이 그때그때 정헤지는구나. 게고 또 뭐 규약이 딱 이실 거고예.(그러니까 그것이 그때그때 정해지는구나. 그리고 또 뭐 규약이 딱 있을 거고요.)

104009 #1 예, 목장 조합에는 그 저 모든 단체가 그러듯이 규약이 잇게 마련인디, 그 규약이 다 부락마다 잇어십주. 겐디 그 저 총회를 헤도 규약에 따라 가지고 그 저 총회를 열리고예.(예, 목장 조합에는 그 저 모든 단체가 그러듯이 규약이 있게 마련인데, 그 규약이 다 부락마다 있었습지요. 그런데 그 저 총회를 해도 규약에 따라 가지고 그 저 총회를 열리고요.)

104009 @ 그 규약 중엔 중요한 내용이 뭐 어떤 것이 들어가낫수가?(그 규약 중엔 중요한 내용이 뭐 어떤 것이 들어갔었습니까?)

104009 #1 규약은 첫째는 저 본리 웨에는 목장 조합원이, 본리에 거주허는 사름만 뒌다.(규약은 첫째는 저 본리 외에는 목장 조합원이, 본리에 거주하는 사람만 된다.)

104009 @ 음, 그렇게 허고.(음, 그렇게 하고.)

104009 #1 또 소가 없는 사름을 구제허기 위해서도 반다시 단 얼마라도 목적세를 결정헌다. 목적세를 내 놓는다. 이런 등등덜이 이십주게. 또 세금은 현재 소를 방목허는 사름이 책임진다. 또 거기 소 물, 물 멕이는 거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 쉐 멕이는 사름으로 결정헌다든지, 이런 등등을 딱 총회 때 결정을 헙니다.(소가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단 얼마라도 목적세를 결정한다. 목적세를 내 놓는다. 이런 등등들이 있습지요. 또 세금은 현재 소를 방목하는 사람이 책임진다. 또 거기 소를 물, 물 먹이는 거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 소 먹이는 사람으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딱 총회 때 결정을 합니다.)

104009 @ 게믄 이제 목장에 가서 하는 일은?(그러면 이제 목장에 가서 하는 일은?)

104009 #1 하는 일은 쉐 번 보레 가는 것은 그 저 나가 오늘 가민 보통 쉐 한 ᄆᆞ리 가진 사름은 ᄒᆞ루밤 장 내려오곡, 두 개 부찐 사름은 이틀 밤을 자사 헙주기. 그추룩 허곡 ᄯᅳ로 없는 사름은.(하는 일은 소 번 보러 가는 것은 그 저 내가 오늘 가면 보통 소 한 마리 가진 사람은 하룻밤 자서 내려오고, 두 개 붙인 사람은 이틀 밤을 자야 핮요. 그처럼 하고 또 없는 사람은.)

104009 @ 번을, 번을 이틀 밤을 번을 사?(번을, 번을 이틀 밤을 번을 서?)

104009 #1 예, 예, 자기가 소가 두 ᄆᆞ리이니까.(예, 예, 자기가 소가 두 마리이니까.)

104009 @ 두 마리이니까.(두 마리이니까.)

104009 #1 그 흔여름, 여름 내낭 볼 적에 흔 사름이 보통 흔 서너니 번 번 보레 갑니다.(그 한여름, 여름 내내 볼 적에 한 사람이 보통 한 서너 번 번 보러 갑니다.)

104009 @ 음. 게 그런 것 말고, 쉐 관리허는 거 말고는 특별히 관리허는 건 엇어낫수가?(음. 그래 그런 것 말고, 소 관리하는 거 말고는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었습니까?)

104009 #1 예, 특별이 관리헌 건 엇엇수다.(예, 특별히 관리하는 건 없었습니다.)

104009 @ 무슨 뭐 쉐촐을 뭐 어떵 헌다거나, 뭐?(무슨 뭐 쇠먹이로 쓰이는 꼴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뭐?)

104009 #1 예, 쉐촐하는 것은 거 목장에선 쉐만 놈뿐이엇지, 거기 강 촐을 비어 오진 못헤십주. 건 먹다 남은 거 촐왓이 없는 사름덜 쉐 먹당 둘라진 디, 쉐 먹엿당 남은 디 걸 비어 가나 허는디 그런 것들 쪼금 허긴 헙니다. 새도 비곡 영은 헤도 대다수의 소 잇는 사름덜은 그 저.(예, 쇠먹이로 쓰는 꼴을 하는 것은 거 목장에선 소만 놓기뿐이었지, 거기 가서 꼴을 베어오진 못했습지요. 건 먹다 남은 거 꼴밭이 없는 사람들 소 먹다가 도려진 데, 소 먹였다가 남은 데 걸 베어 가나 하는데 그런 것들 조금 하긴 합니다. 띠도 베고 이렇게는 해도 대다수의 소 있는 사람들은 그 저.)

104009 @ 게 자연 그대로 놔둬은에 그냥 쉐가 풀 뜯어 먹게?(그렇게 자연 그대로 놔둬서 그냥 소가 풀 뜯어 먹게?)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 그냥 그냥 놔두는 거구나.(그냥 그냥 놔두는 거구나.)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 특별히 관리허는 게 아니고예?(특별히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104009 #1 예, 예.(예, 예.)

104009 @ 목장에 말아 삼춘네 뚜로 촐왓은 엇어낫수가?(목장에 말고 삼촌네 따로 꼴밭은 없었습니까?)

104009 #1 건 잇어십주, 소 길룬 사름은 거의 다 촐왓 십니다.(건 있었습지요, 소 기르는 사람은 거의 다 꼴밭 있습니다.)

104009 @ 아, 얼마썩?(아, 얼마씩?)

104009 #1 보통 우리도 삼천 평 잇엇수다.(보통 우리도 삼천 평 있었습니다.)

104009 @ 아, 잇엇수가?(아, 있었습니까?)

104009 #1 허고 뚜로 읏인 사름은 뚜로 천 평쯤, 이신 사름은 뚜로 쉐 엇은 사름 촐왓, 촐을 사고, 상 비곡 경 헤십주게.(하고 또 없는 사람은 또 천 평쯤, 있는 사람은 또 소 없는 사람 꼴밭, 꼴을 사고, 사서 베고 그렇게 했습지요.)

104009 @ 음, 게난 그 촐은, 촐도 갑니까?(음, 그러니까 그 꼴은, 꼴도 갑니까?)

104009 #1 아니, 촐은 거 보통은 그 저 그 가는 것도 이십니다. 제일 처음 가는 것은 새밧을 이겨 가지고 ᄆᆞ멀 농사 짓곡, 산디 농사, 그 뒷헤는 산디 농사허곡, 산

디 농사 다음에는 콩을 갈아 가지고 삼 년 벌민 검질이 다 나 갑주, 검질 날 적에는 이때는 그 저 그 그르에 검질 나곡 허니까 그 자골씨라고 헤 가지고 그 목초 종륜데 그 저 뭣이엔 표현헐지 모르겟는디 야튼 자골씨라고 헤 가지고 그걸 갑니다.(아니, 꼴은 거 보통은 그 저 그 가는 것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 가는 것은 띠밭을 이겨 가지고 메밀 농사 짓고, 밭벼 농사, 그 뒷해는 밭벼 농사하고, 밭벼 농사 다음에는 콩을 갈아 가지고 삼 년 벌면 김이 다 나 가지, 김 날 적에는 이때는 그 저 그 그루에 김 나고 하니까 그 자귀풀의 씨앗이라고 해 가지고 그 목초 종류인데 그 저 뭣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귀풀의 씨앗이라고 해 가지고 그걸 갑니다.)

104009 @ 자골씨?(자귀풀 씨앗?)

104009 #1 예, 자골씨. 겐디 그 씨 가는 것은 보리씨보단도 ᄒᆞ끔 더 컹 동글동글허게 녹디씨ᄀᆞ찌 뒌 건디 것을 먹으믄 쉐도 막 솔지곡 헙니다만.(예, 자귀풀 씨앗. 그런데 그 씨 가는 것은 보리 씨앗보다도 조금 더 커서 동글동글하게 녹두 씨앗같이 된 것인데 그것을 먹으면 소도 아주 살찌고 합니다만.)

104009 @ 음.(음.)

104009 #1 게난 그 검질 날 때 자골씨영, ᄯᅳ로 저 제안지풀이영 서꺼진 거 비어오면은 그 쉐들은 아주 반깁주게.(그러니까 그 김 날 때 자귀풀 씨앗이랑, 또 저 바랭이풀이랑 섞어진 거 베어오면은 그 소들은 아주 반기지요.)

104009 @ 좋아허여예.(좋아해요.)

104009 #1 그걸, 그것도 ᄯᅳ로 일이 년이 넘어가면은 자골촐덜토 개간헤난 데가 더 크지 안 헤 가믄 ᄯᅳ로 새가 뒈엉, 새도 비엇당 ᄒᆞᆫ 멧 해, 삼ᄉᆞ 년간 비당, ᄯᅳ로 역시 좋은 밧데는 ᄯᅳ로 이겨 가지고 ᄆᆞ멀, 산디도 갈곡, 게난 그 돈 잇는 사름덜은 보통은 그 웃드르[141]에 두 개, 세 개 촐왓덜은 다 ᄀᆞ져낫수다.(그걸, 그것도 또 일이 년이 넘어가면은 자귀풀꼴들도 개간했던 데가 더 크지 안 해 가면 또 띠가 되어서, 띠도 베었다가 한 몇 해, 삼사 년간 베다가, 또 역시 좋은 밭에는 또 이겨 가지고 메밀, 밭벼도 갈고, 그러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보통은 '웃드르'에 두 개, 세 개 꼴밭들은 다 가졌었습니다.)

104009 @ 예, 쉐 질루멍예, 기억에 남는 거, 뚜렷허게 남는 어떤 일 잇으믄 ᄀᆞᆯ아줍서.(예, 소 기르면서, 기억에 남는 거, 뚜렷하게 남는 어떤 일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04009 #1 쉐, 쉐 질루멍 특별헌 것은 그 저, 쉐는 ᄯᅳ로 그냥 봄이 놩 내불엇다가 저 때로는 목장에 올라간 쉐도 잇고, 그 쉐들이 순헤 가지고 그 놩 내불면 웃드리서 먹다가 자기 집에덜 다 가붑주게.(소, 소 기르면서 특별한 것은 그 저, 소는 또 그냥 봄에 놔서 내버렸다가 저 때로는 목장에 올라간 소도 있고, 그 소들이 순해 가지고 그 놔서 내버리면 '웃드리'서 먹다가 자기 집에들 다 가버리지요.)

104009 @ 아, 본인이 알앙 기어 들어와예.(아, 본인이 알아서 들어와요.)

14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나 마을이다.

104009 #1 예.(예.)

104009 @ 음.(음.)

104009 #1 그런 쉐도 잇곡 허는디, 쉐 연령은 쉐 뭣으로 구분허는고 허면은 저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 낙인은 대림은 큰 대자 찍고, 그 부락마다 ᄃᆞ나 가지고 아, 이거 엉덩이 뵈려지는 디 낙인찍어 놩 아, 요거 대림 소로구나 허영 알 수 잇고, 후제 그 나중이라 가니까 쉐의 지문은, 사름은 지문이 손이 잇고, 소는 코, 코에서 지문이 셧수다, 뭐.(그런 소도 있고 하는데, 소 연령은 소 뭣으로 구분하는고 하면은 저 낙인을 찍습니다, 낙인. 낙인은 대림리는 큰 대자 찌고, 그 부락마다 달라 가지고 아, 이거 엉덩이 보이는 데 낙인찍어 놔서 아, 요거 대림리 소로구나 해서 알 수 있고, 후에 그 나중이라 가니까 소의 지문은, 사람은 지문이 손에 있고, 소는 코, 코에서 지문이 있습니다, 뭐.)

104009 @ 아, 코로 구별을 헤마씨?(아, 코로 구별을 해요?)

104009 #1 예, 예. 게곡 ᄃᆞ로 그 특별헌 것은 ᄃᆞ로 상감, 상감이라 헤 가지고 상감이 멘 중이냐, 상이냐, 하냐, 이것도 ᄀᆞ뜬 색깔이라도 다 ᄃᆞ납주게.(예, 예. 그리고 또 그 특별한 것은 또 가마, 가마라 해 가지고 가마가 맨 중이냐, 상이냐, 하냐, 이것도 같은 색깔이라도 다 다르지요.)

104009 @ 상감이란 건?(가마란 건?)

104009 #1 예, 우리 사름도 그 저 여기.(예, 우리 사람도 그 저 여기.)

104009 @ 예, 그 상감예.(예, 그 가마요.)

104009 #1 이거 뭐렌 표현헙니까? 하하.(웃음) 쉐도 머리엔 상감이 셔마씨. 상감 시믄 그걸로 헤 가지고 상당이 그 저 똑 닮은 쉐라도 상감에 따라 ᄃᆞ나니까 우리 송아지는 멘 상이라, 멘 중이라, 멘 하, 이렇게 헤 가지고 특별이 걸 잘.(이거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하.(웃음) 소도 머리엔 가마가 있어요. 가마 있으면 그걸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 저 똑 같은 소라도 가마에 따라 다르니까 우리 송아지는 맨 상이야, 맨 중이야, 맨 하, 이렇게 해 가지고 특별히 걸 잘.)

104009 @ 게난 쉐도 상감이 두 개 잇인 상감도 이십니까?(그러니까 소도 가마가 두 개 있는 가마도 있습니까?)

104009 #1 간혹 잇엇수다. 잇지만은 건즘 다 하납니다, 하나.(간혹 있었습니다. 있지만 거의 다 하나입니다, 하나.)

104009 @ 그렇게 헤서 구분은 허는구나예. 그 웨 뭐 쉐 오래 질루어시난예, 쉐를 멧 년 동안?(그렇게 해서 구분은 하는구나. 그 외 뭐 소 오래 길렀었으니까, 소를 몇 년 동안?)

104009 #1 막 오래 질룬 사름은 혼 십 년 질루는 사름도 셔낫수다. 건 쉐가 원체 순하고 밧데도 좋곡 헌 쉐는 경 오래 질롯주만은 그 농가 소득으로 봐서는 그게 그 춤 자기만 펜안험뿐이지 소득은 엇어십주게.(아주 오래 기른 사람은 한 십 년 기르는 사람도 있었었습습니다. 건 소가 원체 순하고 밭에도 좋고 한 소는 그렇게 오래 기르지만 그 농가 소득으로 봐서는 그게 그 참 자기만 편안함뿐이지 소득은 없

었습지요.)

104009 @ 음.(음.)

104009 #1 그 저 요즘은 은행에서 돈도 꿔와주곡 허니까 허지만 과거에는 돈 날 곳이 상당이 어려왓수다. 어려우니까 그자 질 돈 나기 쉬운 것은 소 풀곡 뒈지 풀곡 이것이 질 쉬와십주.(그 저 요즘은 돈 꿔주고 하니까 하지만 과거에는 돈 날 곳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우니까 그저 젤 돈 나기 쉬운 것은 소 팔고 돼지 팔고 이것이 젤 쉬웠습지요.)

104009 @ 저 소 풀레 가믄 쉐 막 울고 허지 안 헙니까? 경 헤 가믄 막 그 표정이 좀 뭐 허는디.(저 소 팔러 가면 소 막 울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면 그 표정이 좀 뭐 하는데.)

104009 #1 아, 그건 그 이디서 소 풀레 가는 것은, 보통은 그 도수장에는 일제 시대 그 일본놈덜이 그 저 공출이라 헤 가지고 억지로 그 부락에 멧 ᄆᆞ리, 군인 저 식용으로 헐 거니까 내 놓으라 헤 가지고 헤낫는데.(아, 그건 그 여기서 소 팔러 가는 것은, 보통은 그 도수장에는 일제 강점기 그 일본놈들이 그 저 공출이라 해 가지고 억지로 그 부락에 몇 마리, 군인 저 식용으로 할 거니까 내 놓아라 해 가지고 했었는데.)

104009 @ 그건 공출이고예.(그건 공출이고요.)

104009 #1 건 공출이엔 허고, 그 웨엔 사다가 간스메 공장이 강 허여 가지고 올 거니까 사당 도수장에 가 가지고 잡는디, 그 중에 어떤 소덜은 냄새로 훤이 알아마씨, 소덜이. 경 헹 허믄 그 저.(건 공출이라고 하고, 그 외엔 사다가 통조림 공장에 가서 하여 가지고 올 거니까 사다가 도수장에 가 가지고 잡는데, 그 중에 어떤 소들은 냄새로 훤히 알아요, 소들이. 그렇게 해서 하면 그 저.)

104009 @ 자기가 죽으레 가는 걸?(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104009 #1 예, 그디서 뿌리쳥 도망쳐 가지고, 옹포[142]서 도망쳐 가지고 저 판포[143]ᄁᆞ지 도망가난 소도 잇담니다.(예, 거기서 뿌리쳐서 도망쳐 가지고,(예, 거기서 뿌리쳐서 도망쳐 가지고, 옹포리서 도망쳐 가지고 저 판포리까지 도망갔던 소도 있다고 합니다.)

104009 @ 게난 어르신네 소도 경 헤낫수가?(그러니까 어르신네 소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104009 #1 아이, 우리 쉐덜은 경 안 헷수다. 우리 소들은 그런 디는 얼마 아이 풀고 그 저 일 년 질루와 가지고 그 저 살지면, 비육시겨 가지고 뒷헤 봄은 그자 해마다 비육시긴 소 ᄒᆞᆫ ᄆᆞ리썩은 풀고, 또 가을걷이가 끗나면 송아지 사다 놔뒷다 그것이 봄풀 먹엉 크면은 그것도 ᄀᆞ르쳥 ᄯᅳ로 그걸로 밧 갈곡, 경 헤낫수다, 뭐.(아니, 우리 소들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 소들은 그런 데는 얼마 안 팔고 그 저 일 년 길러 가지고 그 저 살찌면, 비육시켜 가지고 뒷해 봄은 그저 해마다 비육시

142) '옹포'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이다.
143) '판포'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이다.

킨 소 한 마리씩은 팔고, 또 가을걷이가 끝나면 송아지 사다 놔뒀다가 그것이 봄풀 먹어서 크면은 그것도 가르쳐서 또 그걸로 밭 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104009 @ 음.(음.)

104009 #1 겐 난 또 그 저 쉐를 많이 ᄀᆞ르쳣수다. 그것이 ᄯᅳ로 역시 농가 수입으로서는 제일입주, 뭐.(그래서 난 또 그 저 소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또 역시 농가 수입으로서 제일이지, 뭐.)

104009 @ 음, 쉐 ᄀᆞ르치는 거예?(음, 소 가르치는 거요?)

104009 #1 예, 쉐 ᄀᆞ르쳥.(예, 소 가르쳐서.)

104009 @ 놈의 쉐들도 ᄀᆞ르치는구나예?(남의 소들도 가르치는구나?)

104009 #1 놈의 쉐들은 건즘 난 안 ᄀᆞ르쳣수다, 바빠 가지고 허는디, 놉 빌엉 ᄀᆞ르치는 사름도 십니다.(남의 소들은 거의 난 안 가르쳤습니다. 바빠 가지고 하는데, 놉 빌려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4009 @ 그랫구나예, 쉐 장시덜은 마을마다 쉐 장시덜 잇어낫수가?(그랬구나, 소 장시들은 마을마다 소 장시들 있었습니까?)

104009 #1 쉐 장시는 거의 다 그 흔 부락에 두세 사름썩은 꼭 셧수다. 웨 그런고 허면은 그 ᄀᆞ뜬 쉐 닮아도 요 쉐가 잘 멕이면, 그 예를 들면 요건 쉐가 잘 먹엄직허다 헌 것을 영 보면은 보통 손으로 ᄆᆞᆼ직아 보면 갈비꽝 새가 좀 이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게끔 영 헤지곡 허면은, 허곡 갈비꽝이 영 들러진다 허면 요건 잘 먹엄직허다, 이건 봄에나 ᄯᅳ로 생김새가 촐을 덜 먹엄직허다, 이것으로 판단헙주게.(소 장시는 거의 다 그 한 부락에 두세 사람씩은 꼭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같은 소 같아도 요 소가 잘 먹이면, 그 예를 들면 요건 소가 잘 먹을 것 같다 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손으로 만져 보면 갈비뼈 사이가 좀 이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지고 하면은, 하고 갈비뼈가 이렇게 들러진다 하면은 요건 잘 먹을 것 같다, 이건 봄에나 또 생김새가 꼴을 덜 먹을 것 같다, 이것으로 판단하지요.)

104009 @ 음.(음.)

104009 #1 경허믄 느나 헐 것 없이 쉔 잘 먹어야 뒌다, 이런 뜻에서 입메줄른 건 불렁 얼마 아니허영 죽곡, 경 아니헌 것은 멧 년 질루곡, 경 헤십주, 뭐.(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소는 잘 먹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먹성이 까다로운 건 불러서 얼마 안 해서 죽고, 그렇게 안 한 것은 몇 년 기르고, 그렇게 했습지요, 뭐.)

말 기르기

104011 @ 이번은 ᄆᆞᆯ 기르긴데 ᄆᆞᆯ은 안 길러 봣덴 헷지예, 혹시 ᄆᆞᆯ 기르기에 대허영 뭐 아는 거 잇수가?(이번은 말 기르기인데 말은 안 길러 봤다고 했지요, 혹시 말 기르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습니까?)

104011 #1 예, ᄆᆞᆯ을 그 저 쉐보다 성질이 좀 사납수다. 게고 ᄯᅳ로 그 말일 난 거라도 열두 ᄃᆞᆯ 베어 가지고 메년 나오도 안 헙니다게.(예, 말을 그 저 소보다 성질

이 좀 사납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일 난 거라도 열두 달 배어 가지고 매년 나오지도 않습니다.)

104011 @ 아, 소는 열 달, 믈은 열두 달?(아, 소는 열 달, 말은 열두 달?)

104011 #1 예, 게고 저것은 겨울을 소만큼 아이 타마씨. 조금 추운 겨울에 내불어도 그냥 살아나마씨, 야산에 내불어도.(예, 그리고 저것은 겨울을 소만큼 아니 타요. 조금 추운 겨울에 내버려도 그냥 살아나요, 야산에 내버려도.)

104011 @ 음, 이런 특징이 잇고, 또 이 저 모든 운반용으로도 믈은 허는디 것도 질, 질메 지와 가지고 소ᄀᆞ찌 것이 촐도 시꺼오곡 지들커도 시꺼오고, 믈도 소의 역할을 마찬가지고 허는디, 건 더 사납곡 뿔라버려마씨. 게고 또 뭐냐 마차도 역시 ᄀᆞ르치면은 그 저 소와 다름없이 마차도 구루마도 이끄곡 방에도 짓곡 헙니다.(음, 이런 특징이 있고, 또 이 저 운반용으로도 말은 하는데 것도 젤, 길마 지워 가지고 소 같이 것이 꼴도 실어오고 땔감도 실어오고, 말도 소의 역할을 마찬가지고 하는데, 건 더 사납고 빨라 버려요. 그리고 또 뭐냐 마차도 역시 가르치면은 그 저 소와 다름없이 마차도 달구지도 이끌고 방아도 찧고 합니다.)

104011 @ 음, 쉐막도 잇고, 믈막도 어디 이십니까?(음, 외양간도 있고, 마구간도 어디 있습니까?)

104011 #1 예, 믈막은, 쉐막은 ᄒᆞ끔 ᄃᆞ시게 헤줘사 뒈고, ᄯᅳ로 그 저 믈막은 우만 조끔 더꺼주면 젼뎌납니다.(예, 마구간은, 외양간은 조금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또 그 저 마구간은 우만 조금 덮어주면 견뎌냅니다.)

104011 @ 아, 게난 기르는 데는 크게 뭐 손이 가지 안 허는구나예?(아, 그러니까 기르는 데는 크게 뭐 손이 가지 안 하는구나?)

104011 #1 예, 믈은 손이 얼마 덜 가고 그 촐덜로 뒈니까마씨, 소는 보리 갈아 난 끗텐 집이서 막 메어 가지고 입하 ᄉᆞ월절ᄁᆞ진 집이서 간수를 헤야 뒈고, 믈은 십이월 낭 그냥 내불민, 보리헐 때라든지 그때 뒈어사 왕 가두어 두는 겁주기.(예, 말은 손이 얼마 덜 가고 그 꼴들로 되니까요, 소는 보리 갈아 난 끝에는 집에서 마구 매어 가지고 입하 사월절까지는 집에서 간수를 해야 되고, 말은 십이월 나서 그냥 내버리면, 보리할 때라든지 그때 되어야 와서 가두어 두는 거지요.)

104011 @ 게난 믈은 밖에 방목허는 시기가 언제라마씨?(그러니까 말은 밖에 방목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104011 #1 방목허는 시기가 믈은 한이 엇어마씨.(방복하는 시기가 말은 한이 없어요.)

104011 @ 한이 엇어?(한이 없어?)

104011 #1 예, 게고 또 그 대신 믈은 소만큼 관리가 덜 뒙니다, 믈이.(예, 그리고 또 그 대신 말은 소만큼 관리가 덜 됩니다, 말이.)

104011 @ 음, 기를 때예.(음, 기를 때.)

104011 #1 예, 허고 ᄯᅳ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산딜 가나 조를 가나 허믄 반다시 믈로 불려십주게. 경 불리는 것은 믈이 재곡 허니까 거 밧 불림이 좋은 거라

마씨.(예, 하고 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은 밭벼를 가나 조를 가나 하면 반드시 말로 밟았지요. 그렇게 밟는 것은 말이 재고 하니까 거 밭 밟기가 좋은 거지요.)

104012 @ 말 종류에 대헤서 알아지는 거 잇수가? 말 종류.(말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있습니까?)

104012 #1 말 종류도, 물 종륜, 물은 금싱메, 흔 술고란 금싱메, 두 술은 이수, 세 술은 삼수, 니 술은 사수, 이렇게 연령을 셋수다, 세곡 뚜로 백메, 적갈, 적대물.(말 종류도, 말 종류는, 말은 금승마, 한 살더러 금승마, 두 살은 이수, 세 살은 삼수, 네 살은 사수, 이렇게 연령을 세었습니다, 세고 또 백마, 적다마.)

104012 @ 벡메는 어떤 물?(백마는 어떤 말?)

104012 #1 백메는 흰 물고라 백메.(백마는 흰 말더러 백마.)

104012 @ 흰 말, 백메.(흰 말, 백마.)

104012 #1 적대물.(적다마.)

104012 @ 적대물.(적다마.)

104012 #1 가레, 가레물.(가라, 가라말.)

104012 @ 가레물예, 가레물.(가라말요, 가라말.)

104012 #1 예. 검은물.(예, 검은말.)

104012 @ 검은물.(검은말.)

104012 #1 뚜로 이렇게 첨 구분이 뚜납니다, 뭐.(또 이렇게 참 구분이 다릅니다, 뭐.)

104012 @ 음, 일단 색깔로 구분허믄 어떵 뒐 거우꽈?(음, 일단 색깔로 구분하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104012 #1 색깔은 백메엔 헌 것은 흰 물이고.(색깔은 백마라고 한 것은 흰 말이고.)

104012 @ 흰 물이고.(흰 말이고.)

104012 #1 뚜로 가레물이엔 헌 것은 갈색, 갈색 물이고.(또 가라말이라고 한 것은 갈색, 갈색 말이고.)

104012 @ 갈색 물이고.(갈색 말이고.)

104012 #1 또 적대물이엔 헌 것은 붉은 물이고.(또 적다마라고 한 것은 붉은 말이고.)

104012 @ 붉은 물이고.(붉은 말이고.)

104012 #1 또 저 이 코간제미[144], 앞에 이 흰.(또 저 이 '코간제미', 앞에 이 흰.)

104012 @ 아, 희양헌 털 이신 거?(아, 하얀 털 있는 거?)

104012 #1 예.(예.)

104012 @ 코간제미?(코간자말.)

104012 #1 예, 코간제미.(예, 코간자말.)

144) '코간제미'는 이마에서 코에 이르면서 흰 줄이 있는 간자말이다.

104012 @ 코간제미, 코간제미?(코간제미, 코간제미?)

104012 #1 뚜로 저 가레물, 적대물, 백메, 또 그추룩 나가곡, 뚜로 암컷고란 즈매엔 허곡, 저 숫놈고란 웅매.(또 저 가라말, 적다마, 백말, 또 그처럼 나가고, 또 암컷더러 암말이라고 하고, 저 수놈더러 수말.)

104012 @ 즈매?(암말?)

104012 #1 즈매, 즈매.(암말, 암말.)

104012 @ 즈매, 즈매. 그다음에 숫물은?(암말, 암말. 그다음에 수말은?)

104012 #1 웅매.(수말.)

104012 @ 웅매, 웅매, 그 암수 구별헐 때, 그 모양에 따라서는 구별허는 게 엇수가?(수말, 수말. 그 암수 구별할 때, 그 모양에 따라서는 구별하는 게 없습니다.)

104012 #1 모양에 따라서는 얼마 구분을 아이헤마씨.(모양에 따라서는 얼마 구분을 안 해요.)

104012 @ 음, 아까 그 옆이 영 나온 거?(음, 아까 그 옆에 이렇게 나온 거?)

104012 #1 예, 건 저 코간제미 물이라든지, 뚜로 얼룩베기, 얼룩물.(예, 건 저 코간자말 말이라든지 또 얼러기, 얼럭말.)

104012 @ 얼룩물도 잇고?(얼룩말도 있고?)

104012 #1 예.(예.)

104012 @ 얼룩물은 색깔이 어떵 헙니까?(얼럭말은 색깔이 어떻게 합니까?)

104012 #1 얼룩물은 그 적대물에 희양헌 점벡이덜 몸에 영 그려집주게.(얼럭말은 그 적다마에 하얀 점박이들 몸에 이렇게 그려지지요.)

104012 @ 음, 적색에, 붉은 색에 희양헌 점들이 이신 거, 얼룩물.(음, 적색에, 붉은 색에 하얀 점들이 있는 거, 얼럭말.)

104012 #1 예.(예.)

104013 @ 그러면 이제 말은 소나 비슷헌 건 닮수다만 어떤 쪽으로 이용헙니까?(그러면 이제 말은 소나 비슷한 건 같습니다만 어떤 쪽으로 이용합니까?)

104013 #1 대게는 번식용으로도 허고, 여기 농번기에는 그 밧을 볼리는 역할을.(대개는 번식용으로도 하고, 여기 농번기에는 그 밭을 밟는 역할을.)

104013 @ 밧 볼리는데 허고.(밭 밟는데 하고.)

104013 #1 예, 뚜로 그 저 짐 운반허는 거.(예, 또 그 저 짐 운반하는 거.)

104013 @ 짐 운반, 구루마 ᄀᆞ튼 거예.(짐 운반, 마차 같은 거요.)

104013 #1 예.(예.)

104013 @ 직접 말에도 시끄고예?(직접 말에도 싣고요?)

104013 #1 예.(예.)

104013 @ 구루마로도 끌고예?(마차로도 끌고요?)

104013 #1 예, 예.(예, 예.)

104013 @ 또?(또?)

104013 #1 그 가정용으로서는 그 저 뚜로 역시 물방에라든지 방에질 때라든지.

(그 가정용으로서는 그 저 또 역시 연자매라든지 방아 찧을 때라든지.)

104013 @ 것도 허고예?(것도 하고요?)

104013 #1 예.(예.)

104013 @ 게 쉐 허는 일이영 비슷허네예.(그래 소 하는 일이랑 비슷하네요.)

104013 #1 예. 거즘 ᄀᆞ틉니다뭐, 게고 저 보리 타작헐 때쯤은 마당 안네 다 홀타논 거 그 ᄆᆞᆯ 테덜로만 ᄇᆞᆯ리믄 장만도 뒈고.(예.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저 보리 타작할 때쯤은 마당 안에 다 홅어놓은 거 그 말 떼들로만 밟으면 장만도 되고.)

104013 @ 아, 그 보리 장만헐 때.(아, 그 보리 장만할 때.)

104013 #1 예, 예.(예, 예.)

104013 @ 그거 ᄇᆞᆯ리면 보리 알, 알.(그거 밟으면 보리 알, 알.)

104013 #1 거 ᄆᆞᆫ딱 보리 알멩이광 그 ᄀᆞ시락도 구분이 뒈나십주.(거 모두 보리 알맹이와 그 까끄라기도 구분이 됐었지요.)

104013 @ 예, 불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예, 드려 가지고, 나중에 이제.)

104013 #1 예.(예.)

104013 @ 거 ᄇᆞᆯ른 다음에 나중에 불리는 거고예?(거 밟은 다음에 나중에 드리는 거고요?)

104013 #1 예, 예.(예, 예.)

104013 2 예, 그렇게 헐 때 ᄆᆞᆯ을 이용허는구나예.(예, 그렇게 할 때 말을 이용하는구나.)

104013 #1 예.(예.)

104013 @ 그 사람이 타진 안 헤낫수가?(그 사람이 타진 안 했었습니까?)

104013 #1 아, 타기도 헤십주게. 타는디 보통은 이건 ᄆᆞᆯ도 쉐 밧 가는, 밧 ᄀᆞ르치듯 것도 ᄀᆞ르쳐야 헙주. 것도 ᄀᆞ르치젠 헤도 메 사름 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날렌 사름덜, 이런 사름을 헤야지, 허고 걸 ᄀᆞ르쳐 놔사 탑주게.(아, 타기도 했습지요. 타는데 보통은 이건 말도 소 밭 가는, 밭 가르치듯 그것도 가르쳐야 하지. 것도 가르치려고 해도 매 사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날쌘 사람들, 이런 사람을 해야지, 하고 걸 가르쳐 놔야 타지요.)

104013 @ 음, 그니까.(음, 그러니까.)

104013 #1 많이 탕 뎅겻수다.(많이 타서 다녔습니다.)

104013 @ 말을 일단은 말을 ᄀᆞ르쳐야 말을 타지 경 안 허믄 들러퀴어부니까 못 탈거예.(말을 일단은 말을 가르쳐야 말을 타지 그렇게 안 하면 날뛰어버리니까 못 탈 거.)

104013 #1 예.(예.)

104013 @ 아, 못 타니까, 아, 말도 그렇게 헤서 ᄀᆞ르쳐 가지고 탄다.(아, 못 타니까, 아, 말도 그렇게 해서 가르쳐 가지고 탄다.)

104013 #1 예.(예.)

104013 @ 게믄 탕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잇고마씨?(그러면 타서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104013 #1 지금은 엇어도 옛날은 사름 많아십주게, 예.(지금은 없어도 옛날은 사람 많았습지요, 예.)

104013 @ 음.(음.)

104013 #1 또 그 목장에 뎅기젠 헤도 교통 수단으로도 쓰고.(또 그 목장에 다니려고 해도 교통 수단으로도 쓰고.)

104013 @ 음, 교통 수단으로예.(음, 교통 수단으로요.)

104013 #1 그 어떤 ᄆᆞᆯ들은 십 년, 이십 년 어질엉 타기도 허고 그레낫수다, 뭐.(그 어떤 말들은 십 년, 이십 년 어질어서 타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뭐.)

104014 @ 말 아까 나이 ᄀᆞᆯ안게만은, 말 나이.(말 아까 나이 말하더니만, 말 나이.)

104014 #1 저 쉔 금싱이엔 헷지만 ᄆᆞᆯ, ᄆᆞᆯ은 이수, 금싱, 아이 저.(저 소는 하릅이라고 했지만 말, 말은 이수, 하릅, 아니 저.)

104014 @ 한 살은?(한 살은?)

104014 #1 한 살은 ᄀᆞ만시라, 금방 잊어불언, 두 술부떠는 그 이수, 삼수, ᄉᆞ수매.(한 살은 가만있어라, 금방 잊어버려서, 두 살부터는 그 이수, 삼수, 사수마.)

104014 @ ᄉᆞ수매.(사수마.)

104014 #1 오수 그 이상은 그자 ᄋᆞ섯, 일곱 영 세고.(오수 그 이상은 그저 여섯, 일곱 이렇게 세고.)

104014 @ 흔 살짜리가?(한 살짜리가?)

104014 #1 금승?(금승?)

104014 @ 게 소하곤 이름이 다르구나예, 한 살은?(그래 소하고는 이름이 다르구나, 한 살은?)

104014 #1 예.(예.)

104014 @ 음, 나중에 셍각나걸랑 ᄀᆞᆯ아줍서.(음, 나중에 생각나걸랑 말해주십시오.)

104014 #1 예, ᄀᆞᆺ세 이야길헷는디. 허허허.(웃음)(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허허허.(웃음))

104014 @ 이야기헤시난 뒛수다. 웨냐면 정리가 뒌 거 잇으면 뒛고예. 또 안 ᄀᆞᆯ아도 뒈쿠다, 정리가 뒌 거. 말에 대헤서 특별이 기억이 나는 게 잇수가?(이야기했으니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된 거 있으면 됐고요. 또 안 말해도 되겠습니다, 정리가 된 거. 말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까?)

104015 #1 말에 대헤서 좋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엇고, 거 소도 거 영리헌 소엔 말 헤낫는디 우리 동네 그 저 ○○이, ○○네 쉐는 ᄉᆞᆨ쉐[145]라낫는디 거세헤나십주게.(말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 거 소도 거 영리한 소라고 말했었는데 우리 동 네 그 저 ○○이, ○○네 소는 ‘ᄉᆞᆨ쉐’였었는데 거세했었지요.)

145) ‘ᄉᆞᆨ쉐’는 털빛이 흑황색으로 얼럭덜럭한 소이다.

104015@예.(예.)

104015 #1 오래 부려나십주게. 겐 고산[146] 가서 나룩 구루마에 탁 시껀 그디 간 그디서 막 대접 좋으니까 막 술 먹언 그디서 오단 자부니까 그 소가 집이꺼지 들어와낫수다.(오래 부렸었습지요. 그래서 고산리 가서 벼 마차에 탁 실어서 거기 가서 거기서 아주 대접 좋으니까 마구 술 먹어서 거기서 오다가 자버리니까 그 소가 집에까지 들어왔었습니다.)

104015 @ 지 혼자만?(자기 혼자만?)

104015 #1 예, 고산서 이꼬지.(예, 고산리서 이까지.)

104015 @ 하하.(웃음) 고산서.(하하.(웃음) 고산리서.)

104015 #1 예, 것도 춤 유명헤나십주게.(예, 것도 참 유명했었습지요.)

104015 @ 게믄 거, 게난 어르신이 겪은 일이우꽈?(그러면 그거, 그러니까 어르신이 겪은 일입니까?)

104015 #1 예?(예?)

104015 @ 어르신이 경험헌 일?(어르신이 경험한 일?)

104015 #1 아, 나가 경헌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ᄀᆞ튼 우알녁에 삽주게.(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고 동네에서, 같은 위아래에 살지요.)

104015 @ 게난 쉐들은 경 멀리 가도 다 집을 촛아 오는구나예?(그러니까 소들은 그렇게 멀리 가도 다 집을 찾아서 오는구나?)

104015 #1 예, 예.(예, 예.)

먹이

104016 @ 이제는예, 쉐나 ᄆᆞᆯ 먹이, 먹는 거, 쉐나 ᄆᆞᆯ 먹이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이제는요, 소나 말 먹이, 먹는 거, 소나 말 먹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4016 #1 ᄆᆞᆯ 먹는 것은 우선.(말 먹는 것은 우선.)

104016 @ 쉐부떠.(소부터.)

104016 #1 쉐 먹는 건 ᄆᆞᆯ 다 먹읍니다. 겐디 질 좋은 촐이엔 헌 것은 아까 자골촐을 허여 가지고 그 웃드리 갈앙.(소 먹는 건 말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젤 좋은 꼴이라고 한 것은 아까 자귀풀을 해 가지고 그 웃드리 갈아서.)

104016 @ 자골촐예?(자귀풀요?)

104016 #1 예, 자골 간 것을 그걸 멕이면 소가 무끈 술지고, 자골촐 잇고, 그거에 소새촐.(예, 자귀풀 간 것을 그걸 먹이면 소가 무큰 살찌고, 자귀풀 있고, 그거에 솔새.)

104016 @ 그건 씨 뿌리는 거지예?(그건 씨 뿌리는 거지요?)

104016 #1 예, 또 소새라는 것은 씨 뿌리지 안 헤도 자연적으로 낭 큰 것덜이 이십니다게. 새도 서꺼지고 헹은에 그거 허곡.(예, 또 솔새라는 것은 씨 뿌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나서 큰 것들이 있습니다. 띠도 섞어지고 해서 그거 하고.)

146)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이다.

104016 @ 소새는 뭐?(솔새는 뭐?)

104016 #1 아, 예, 거난 ᄯᅳ로 새, 새옌 헌 것은 집 이는 샙주게.(아, 예, 그러니까 또 띠, 띠라고 한 것은 집 이는 띠지요.)

104016 @ 예, 맞수다.(예, 맞습니다.)

104016 #1 그거 서꺼진 거. 그걸 비와 놩 오늘 빈 것을 아주 일기가 좋으면은 ᄒᆞ를 넘겨 가지고 넬 무끕주게, 무꺼 가지고 ᄯᅳ로 농산물 부산물로서는 조집 ᄀᆞ튼 거라든지, 콩고질 ᄀᆞ튼 거, 이런 걸 대게 멕여십주게.(그거 섞어진 거. 그걸 베어 놔서 오늘 벤 것을 아주 일기가 좋으면은 하루를 넘겨 가지고 내일 묶습지요, 묶어 가지고 또 농삼물 부산물로서는 조짚 같은 거라든지, 콩깍지 같은 거, 이런 걸 대개 먹였습지요.)

104016 @ 조찝, 콩고질, 그 웨에도 농산물 중에 뭐 멕이는 것이?(조짚, 콩깍지, 그 외에도 농산물 중에 뭐 먹이는 것이?)

104016 #1 그 웨엔 저.(그 외엔 저.)

104016 @ 감제줄.(고구마 덩굴.)

104016 #1 감제줄, 감제줄도 아주 쉐에 곤밥입주.(고구마 덩굴, 고구마 덩굴도 아주 소에 흰밥이지.)

104016 @ 콩꼬질이 제일.(콩깍지가 제일.)

104016 #1 예, 콩꼬질도 허고. 겐디 저 ᄆᆞᆯ덜은 더 잘 먹어 가지고 쉐데취[147] 먹당 남은 거 멕여낫수다, ᄆᆞᆯ.(예, 콩깍지도 하고. 그런데 저 말들은 더 잘 먹어 가지고 '쉐데취' 먹다가 남은 거 먹였습니다.)

104016 @ ᄆᆞᆯ은?(말은?)

104016 #1 쉐데취라고 허여 가지고 먹다 남은 거, 찌끄레기. 이것을 ᄆᆞᆯ들에게 줘나십주.('쉐데취'라고 하여 가지고 먹다 남은 거, 찌꺼기. 이것을 말들에게 줬었습지요.)

104016 @ 음, 쉐 먹당 남은 거.(음, 소 먹다가 남은 거.)

104016 #1 예.(예.)

104016 @ 그다음에 쉐 이렇게 헤 가지고 썰엉 멕이는 거나 아니면?(그다음에 소 이렇게 해 가지고 썰어서 먹이는 거나 아니면?)

104016 #1 아, 썰엉 멕이는 건 전이는 썰엉 멕이는 거 농촌에서 바쁘고 허니까 썰엉 멕이는 사름덜이 엇엇수다. 겐디 그게 ᄒᆞᆫ 팔십년도 뒈어 가니까 그 쉐를 비육시기젠 허니까 허곡, 또 촐을 절약허기 위헤서 걸 썰고 거기 저 누까 ᄀᆞ를이라든지 이런 걸 서껑 멕이믄 쉐가 더 살지곡, 경 헤나십주기.(아, 썰어서 먹이는 건 전에는 ㅜ썰어서 먹이는 거 농촌에서 바쁘고 하니까 설어서 먹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게 한 팔십년도 되어 가니까 그 소를 비육시키려고 하니까 하고, 또 꼴을 절약하기 위해서 걸 썰고 거기 저 등겨 가루라든지 이런 걸 섞어서 먹이면 소가 더 살찌고, 그렇게 했었습지요.)

147) '쉐데취'는 소가 먹다가 남은 꼴의 지꺼기이다.

104016 @ 누까 ᄀᆞ루예?(등겨 가루요?)

104016 #1 누까 ᄀᆞ를은 보리 다 갈안 헌 거. 그거라든지 ᄯᅳ로 사료, 말제에는 사료도 나왓는데 그거 멕이멍 쉐가 빨리 술지젠 허믄, 그걸 비육시기멍 헤나십주게.(등겨 가루는 보리 다 갈아서 한 거. 그거라든지 또 사료, 말째에는 사료도 나왔는데 그거 먹이면서 소가 빨리 살찌우려고 하면, 그걸 비육시키면서 했었습지요.)

104016 @ 죽도 헹 멕여나지 안 헷수가?(죽도 해서 먹였었지 않습니까?)

104016 #1 예, 것도 역시.(예, 것도 역시.)

104016 @ 뭘로 죽 끌렷수가?(뭘로 죽 끓였습니까?)

104016 #1 콩깍, 콩 ᄀᆞ뜬 거 저 깍은 사름 먹지 못헙주게. 그런 것들 놩 쒕 멕이고, ᄯᅳ로 저 콩깍, 보리깍 이런 것덜 놩 쉐 죽 쒕 멕여낫수다.(콩깍지, 콩 같은 거 저 깍지는 사람 먹지 못하지요. 그런 것들 놔서 쒀서 먹이고, 또 저 콩깍지, 보리깍지 이런 것들 놔서 소 죽 쒀서 먹였었습니다.)

104016 @ 그걸 죽으로예? 막 솖아 가지고, 죽으로도.(그걸 죽으로요? 마구 삶아 가지고, 죽으로도.)

104016 #1 경 헹 밧이나 갈젠 허여 가면은 꼭 솖앙, 저 보리깍 ᄀᆞ뜬 거라도 놩 은에 솖앙 잘 멕여사 강 밧 갈 거니까 허젠 허믄 ᄯᅳ로 솖앙 멕이고.(그렇게 해서 밭이나 갈려고 해 가면은 꼭 삶아서, 저 보리깍지 같은 거라도 놔서 삶아서 잘 먹여야 가서 밭 갈 거니까 하려고 하면 또 삶아서 먹이고.)

104016 @ 아, 거난 저기 쉐 죽은 보리나 콩, 이런 것이 아니고 깍으로 솖앙 멕엿구나예?(아, 그러니까 저기 소 죽은 보리나 콩, 이런 것이 아니고 깍지로 삶아서 먹였군요?)

104016 #1 예, 그런 걸로 많이 헤십주기.(예, 그런 걸로 많이 했습지요.)

104016 @ 깍, 깍으로?(깍지, 깍지로?)

104016 #1 예.(예.)

104016 @ 그다음에 쉐 먹이 다른 거?(그다음에 소 먹이 다른 거?)

104016 #1 쉐 먹이란 것은 그런 정도라십주, 뭐.(소 먹이란 것은 그런 정도였지, 뭐.)

104016 @ 쉐 먹이는, 특별히 뭐 아까 애기가 나면 봇을 먹넨 헷는디 그건 특별헌 거예? 봇.(소 먹이는, 특별히 뭐 아까 애기가 나면 태를 먹는다고 했는데 그건 특별한 거요? 태.)

104016 #1 아, 예, 봇은 건 뭐 그 수의사덜 말에 의하면 그게 것을 먹어불어야 그 짐승덜안티 자기 새끼를 보호헌덴 허여마씨, 게곡 ᄯᅳ로 쉐가 술지고.(아, 예, 태는 건 뭐 그 수의사들 말에 의하면 그게 그것을 머어버려야 그 짐승들한테 자기 새끼를 보호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소가 살찌고.)

104016 @ 음.(음.)

104016 #1 거 먹으믄, 건 웨 그런고 허면 새낏보 냄새 헤 가지고 그 전이 호랑이라든지 뭐 나오면 그 저 새길 헤칩주게. 그걸 방지허기 위헤서 걸 먹는다고 수의

사덜은 이야기헙니다만은 보통은 다 새낏보를 먹어마씨, 쉐가, 판찍허게.(거 먹으면, 건 왜 그런고 하면 새끼 태 냄새 해 가지고 그 전에 호랑이라든지 뭐 나오면 그 저 새낄 해치지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걸 먹는다고 수의사들은 이야기합니다만 보통은 다 새끼 태를 먹어요, 소가, 깨끗하게.)

104017 @ 이 촐은 어떻게 마련을 헤낫수가?(이 꼴은 어떻게 마련을 했었습니까?)

104017 #1 촐은 저게 그 보통은 저 뭐냐 백로 팔월절 들면은 촐왓디 가낫수다. 게난 촐은 보통 흔 집에서 흔 일 개월 헙니다.(꼴은 저게 그 보통은 저 뭐냐 백로 팔월절 들면은 꼴밭에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꼴은 보통 한 집에서 한 일 개월 합니다.)

104018 @ 촐 비는 거를?(꼴 베는 거를?)

104018 #1 예, 비엉 시꺼들이곡 허는 것이 흔 일 개월.(예, 베어서 실어 들이고 하는 것이 한 일 개월.)

104019 @ 게난 그거는 촐 비엉.(그러니까 그거는 꼴 베어서.)

104019 #1 비엉 그디서 물리왕 무껑, 흔 단썩 무꺼 가지고 헌 것을 보통 쉐 실르는 쉐는 마흔 뭇, 흔 짝에 스무 뭇씩 헤서 마흔 뭇 시끄곡, 뚜로 송아지 ᄀᆞ뜬 거에는 흔 스무 뭇도 시끄곡, 경 헨 질메에 시끄는 것은 경 시꺼나고.(베어서 거기서 말려서 묶어서, 한 단씩 묶어 가지고 한 것을 보통 소 싣는 소는 마흔 뭇, 한 짝에 스무 뭇씩 해서 마흔 뭇 싣고, 또 송아지 같은 거에는 한 스무 뭇도 싣고, 그렇게 해서 길마에 싣는 것은 그렇게 실었었고.)

104019 @ 음, 질메에예?(음, 길마에요?)

104019 #1 구루마 난 땐 구루마로 경 허고.(마차 난 땐 마차로 그렇게 하고.)

104019 @ 음.(음.)

104019 #1 구루마 나곡 헤 가니까 쉐덜이 질메엔 얼마 안 시꺼십주.(마차 나고 해 가니까 소들이 길마엔 얼마 안 실었지.)

104019 @ 마흔 뭇이 막 한 거 닮은디예? 흔 요 정도 헌?(마흔 뭇이 아주 많은 거 같은데요? 한 요 정도 한?)

104019 #1 아니, 것보단 족읍니다. 요만썩 요만썩 헙니다.(아니, 것보다는 작습니다. 요만큼씩 요만큼씩 합니다.)

104019 @ 족아, 족아예, 뭘로 무꺼마씨? 그거를.(작아, 작아요, 무엇으로 묶어요? 그거를.)

104019 #1 걸 그 촐 무셍이라고 허여 가지고.(걸 그 꼴 매끼라고 하여 가지고.)

104019 @ 촐 무셍이로.(꼴 매끼로.)

104019 #1 뚜로 집 이는 새 ᄀᆞ뜬 거, ᄒᆞ끔 질어 뵌 디는 그걸로 무껏수다.(또 집 이는 띠 같은 거, 조금 길어 보인 데는 그걸로 묶었습니다.)

104019 @ 게난 경 크질 안 허구나예?(그러니까 그렇게 크질 않군요?)

104019 #1 예, 예.(예, 예.)

104019 @ 게난 마흔 뭇씩 실르는구나.(그러니까 마흔 뭇씩 싣는구나.)

104019 #1 예.(예.)

104019 @ 게난 촐을 빌 때는 아까?(그러니까 꼴을 벨 때는 아까?)

104019 #1 흔 일 개월간 비어낫수다.(한 일 개월간 베었었습니다.)

104019 @ 촐 비는 건예, 그리고 촐 비엉 무끄기도 허는데, 그러면.(꼴 베는 건요, 그리고 꼴 베어서 묶기도 하는데, 그러면.)

104019 #1 집이 강 눌어두면은 그걸로 겨울내.(집에 가서 가려두면은 그걸로 겨우내.)

104019 @ 음력 팔월에마씀?(음력 팔월에요?)

104019 #1 음력 팔월 야튼 저 그 음력 팔월에 익는 것은.(음력 팔월 아무튼 저 음력 팔월에 익는 것은?)

104019 @ 멩절 전부떠?(명절 전부터?)

104019 #1 예, 멩질 전에부떠 허곡, 뚜로 그 저 보통은 자골촐[148] ᄀᆞ뜬 것은 미릇 비기 시작혜 가지고 백로 팔월절 구월 팔일산디 일 거우다.(예, 명절 전에부터 하고, 또 그 저 보통은 자귀풀꼴 같은 것은 미리 베기 시작해 가지고 백로 팔월절 구월 팔일인지 일 것입니다.

104019 @ 예.(예.)

104019 #1 겐 그때 뒈민 다 촐 시작덜 헙니다.(그래서 그때 되면 다 꼴 시작들 합니다.

104019 @ 음, 게 촐 비어 오믄 어떵 보관을 혜낫수가?(음, 그래 꼴 베어 오면 어떻게 보관을 했었습니까?)

104019 #1 게믄 눌굽[149]에 눌어십주기. 게서 눌굽이란 것이 농촌에서 눌을 누니까 눌굽입주게.(그러면 '눌굽'에 가렸습지요. 그래서 '눌굽'이란 것이 농촌에서 가리를 가리니까 '눌굽'이지요.)

104019 @ 음.(음.)

104019 #1 우리도 이제 요디 보리, 콩 싱근 디 눌굽이랏수다만은, 거기 허믄 썩으믄 아이 뭴 거니까 그 솔썹 ᄀᆞ뜬 거 놔 놩 거 보리낭 꼴앙, 보리낭 ᄀᆞ뜬 거 꼴아 놩 그 우터레 눕니다.(우리도 이제 요기 보리, 콩 심은 데 '눌굽'이었습니다만, 거기 하면 썩으면 아니 될 거니까 그 솔잎 같은 거 놔 놔서 거 보릿짚 깔아서, 보릿짚 같은 거 깔아서 놔서 그 위로 가립니다.)

104019 @ 아, 예.(아, 예.)

104019 #1 눌 때는, 경 허영 ᄂᆞ람지[150] 둘렁 질 끗날 때에는 그 주지라고 헤 가지고 꼭대기에 그 저, 사름 ᄀᆞ뜨면 상투 ᄀᆞ튼 것인디 그 주지 올려십주.(가릴 때는, 그렇게 해서 이엉 둘러서 젤 끝날 때는 그 주저리라고 해 가지고 꼭대기에 그 저, 사람 같으면 상투 같은 것인데 그 주저리 올렸습지요.)

104019 @ 게난 그 눌 하나 허믄 멧 뭇이나 들어갑니까?(그러니까 그 가리 하나 하면 몇 뭇이나 들어갑니까?)

---

148) '자골촐'은 자귀풀이 열매가 맺기 전에 소먹이용으로 베는 풀이다.
149)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150)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4019 #1 아, 건 혼이 엇입주게, 크게 눌젠 허믄 막 크게 허민 크게 헐 거, 족게 허민 조그만이 헐 거. 허허.(웃음)(아, 건 한이 없습지요, 크게 가리려고 하면 아주 크게 하면 크게 할 거, 작게 하면 조그마니 할 거. 허허.(웃음))

104019 @ 여긴 촐눌 멧 개나 헤납디가?(여긴 꼴가리 몇 개나 했었습니까?)

104019 #1 우린 보통 촐눌 커낫수다. 촐눌도 눌곡, 조집은 조집대로 눌고.(우린 보통 꼴가리 컸었습니다. 꼴가리도 가리고, 조짚은 조짚대로 가리고.)

104019 @ 아, 따로 크게 눌엉은에.(아, 따로 크게 가려서.)

104019 #1 뚜로 고질을, 고질도 눌어나십주기, 예.(또 깍지를, 깍지도 가렸었습지요, 예.)

104019 @ 음.(음.)

104019 #1 또 감젯줄 허믄 감제줄 눌 허고예.(또 고구마 덩굴 하면 고구마 덩굴 하고요.)

104019 @ 콩고질도 눌고예?(콩깍지도 가리고요?)

104019 #1 예.(예.)

104020 @ 음, 그러면 쉐 여물 만들 때는 바로 그냥 쉐촐 갖다 줘 부는 거우꽈?(음, 그러면 소 여물 만들 때는 바로 그냥 소꼴 갖다 줘 버리는 것입니까?)

104020 #1 예, 쉐 먹이 줄 때는 그냥 그 입건 쉐덜은 그냥 촐 줭 내불민 그냥 먹곡, 입메줄른 쉐덜은 하울락하울락[151] 덜 먹읍주게. 게난 그 보통은 그자 첫째 쉐 골릴 때는 요거 입걸엄직허다 헌 것을 골립주게, 잘 먹을 거니까.(예, 소 먹이 줄 때는 그냥 그 먹성이 좋은 소들은 그냥 꼴 줘서 내버리면 그냥 먹고, 먹성이 까다로운 소들은 '하울락하울락' 덜 먹습지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그저 첫째 소 고를 때는 요거 먹성이 좋을 것 같다 한 것을 고르지요, 잘 먹을 거니까.)

104020 @ 게믄 촐 ᄒᆞ루에 혼 뭇 줍니까?(그러면 꼴 하루에 한 뭇 줍니까?)

104020 #1 아이, ᄒᆞ루 혼 열 뭇은 줘사 헙주기. 밤이 눌 때 뚜로 강 좀 자젠 허믄 주고, 곧 일어낭은에 촐 주고.(아니, 하루 한 열 뭇은 줘야 하지요. 밤에 누울 때 또 가서 잠 자려고 하면 주고, 곧 일어나서 꼴 주고.)

104020 @ 아.(아.)

104020 #1 경 계속헤야 헙니다.(그렇게 계속해야 합니다.)

104020 @ 멧 끼? 두 끼. ᄒᆞ루에 멧 번 줍니까?(몇 끼? 두 끼. 하루에 몇 번 줍니까?)

104020 #1 ᄒᆞ루에 거 혼이 엇어마씨. 아멩 아이 줘도 대여섯 뭇, 예실곱 뭇은 줘야 헙주.(하루에 거 한이 없어요. 아무리 아니 줘도 대여섯 뭇, 예닐곱 뭇은 줘야 하지.)

104020 @ 게 촐 말앙 다른 건 뭐 줫수가?(그래 꼴 말고 다른 건 뭐 줬습니까?)

104020 #1 촐 말앙 쉐 술지게 허기 위헤선 것 쒕 주고.(꼴 말고 소 살찌게 하기 위해서는 가축의 먹이 쒀서 주고.)

---

151) '하울락하울락'은 소가 먹성이 까다로워서 덜 먹는 모양이다.

104020 @ 뭣마씨?(뭣요?)
104020 #1 것.(가축의 먹이.)
104020 @ 죽, 죽 쒕.(죽, 죽 쒀서.)
104020 #1 그거엔 뭐 비육시길 소나 벳긴 죽 쒕 쉐 멕일 때가 그땐 곡석이 엇으난 것 못헤십주, 뭐.(그거엔 뭐 비육시킬 소나 밖에 죽 쒀서 소 먹일 때가 그땐 곡식이 없으니까 가축의 먹이 못했습지요, 뭐.)
104020 @ 요즘에 와서 비육시키젠 허니까.(요즘에 와서 비육시키려고 하니까.)
104020 #1 예, 예.(예, 예.)
104020 @ 게서 죽도 쒕 멕엿지, 옛날에는 촐로만.(그래서 죽도 쒀서 먹였지, 옛날에는 꼴로만.)
104020 #1 촐로만 멕엿수다.(꼴로만 먹였습니다.)
104020 @ 아, 촐로만.(아, 꼴로만.)
104020 #1 사름 먹을 것도 읏어나십주, 옛날에는. 허허.(웃음)(사람 먹을 것도 없었었지, 옛날에는. 허허.(웃음))
104021 @ 하하하,(웃음) 진짜 그렇네예. 그 촐 비레 강은에 그 뭐 헐 때 재미난 일들이나 이런 건 뭐 엇수가?(하하하, (웃음) 진짜 그렇네요. 그 꼴 베러 가서 그 뭐 할 때 재미난 일들이나 이런 건 뭐 없습니까?)
104021 #1 촐 비레 강은에 재수 좋은 날은 버섯, 버섯이나 주워지민 그것이 큰 반찬거리고 재수 좋아십주기. 겐디 것이 얼마 줍기가 어려와마씨.(꼴 베러 가서 재수 좋은 날은 버섯, 버섯이나 주워지면 그것이 큰 반찬거리고 재수 좋았습지요. 그런데 것이 얼마 줍기가 어려워요.)
104021 @ 촐은 주로예, 벌초 헌 다음에 촐 비잖아예?(꼴은 주로요, 벌초 한 다음에 꼴 베잖아요?)
104021 #1 예.(예.)
104021 @ 그러면 그게 한 양력으로 치면 시월달?(그러면 그게 한 양력으로 치면 시월?)
104021 #1 저 구월 칠일인가 팔일이 그 백로일 거우다, 팔월절마씨, 그때 허믄.(구월 칠일인가 팔일이 그 백로일 것입니다, 팔월절요, 그때 하면.)
104021 @ 그때 촐 비고예?(그때 꼴 베고요?)
104021 #1 예, 예.(예, 예.)
104021 @ 음, 촐 비엉 흔 메칠 물리고예?(음, 꼴 베어서 한 며칠 말리고요?)
104021 #1 예, 일기가 좋으면 오늘 빈 거 내일 무끕니다.(예, 일기가 좋으면 오늘 벤 거 내일 묶습니다.)

땔감

104022 @ 내일 무끄고, 음, 그다음에 이제는예 땔감, 땔감에 대헤서 들어보쿠다. 옛날 집이서 쓰는 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골아줍서.(내일 묶고, 음, 그다음에 이제는

요 땔감, 땔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집에서 쓰는 땔감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4022 #1 땔감은 보통은 보릿대.(땔감은 보통은 보릿짚.)

104022 @ 보릿대.(보릿짚.)

104022 #1 예, 보릿대가 그 저 땔감으로 밥헤 먹어나십주.(예, 보릿짚이 그 저 땔감으로 밥해 먹었습지요.)

104022 @ 보릿대, 그다음?(보릿짚, 그다음?)

104022 #1 보릿대 그거 그 웨에는 저 솔입이라고 헤 가지고 소나무 낙엽, 그것도 땔감 허고.(보릿짚 그거 그 외에는 저 솔잎이라고 해 가지고 소나무 낙엽, 그것도 땔감 하고.)

104022 @ 보릿대렌 헙니까? 보리낭이렌 헙니까?('보릿대'라고 합니까? '보리낭'이라고 합니까?)

104022 #1 보리낭이렌 헙주.('보리낭'이라고 하지.)

104022 @ 보리낭이렌 헷지예, 옛날에. 대가 아니라 보리낭.(보릿짚이라고 했지요, 옛날에. 대가 아니라 보릿짚.)

104022 #1 예, 보리낭.(예, 보릿짚.)

104022 @ 그다음에 솔입.(그다음에 솔잎.)

104022 #1 게곡 뚜로 저 쉐가 잇는 집엔 쉐 먹단 그 쉐데취로도 그 불 솜앗지만 쉐데취로 불 솜으믄 거름이 족다고 헤 가지고 대게는 그 저.(그리고 또 저 소가 있는 집에는 소 먹다가 '쉐데취'로도 그 불 때었지만 '쉐데취'로 불 때면 거름이 적다고 해 가지고 대개는 그 저.)

104022 @ 쉐데취는 촐 먹어난 거.('쉐데취'는 꼴 먹었던 거.)

104022 #1 뭐 먹단 쓰레기.(뭐 먹다가 쓰레기.)

104022 @ 쓰레기, 촐 먹단 쓰레기.(쓰레기, 꼴 먹다가 쓰레기.)

104022 #1 그걸로도 솜곡, 그 웨엔 이 즈꼿디라든지 나는 개낭이라든지, 나도 밧디 강 헤 오고, 웃드리[152] 가 가지고 솔썹도 긁어 오고.(그걸로도 불을 때고, 그 외엔 이 옆에라든지 나는 누리장나무라든지, 나도 밭에 가서 해 오고, '웃드리' 가 가지고 솔잎도 긁어 오고.)

104022 @ 솔똥도?(솔방울도?)

104022 #1 예, 솔똥도 주워 오고 헤낫수다, 그렇게 헤 가지고 그것 땔감으로 써십주. 그래서 큰일이나 허게 뒈믄 그 떡도 허곡, 잔치허젠 허믄 전도 지지곡 허게 뒈면은 미릇 저 강 소낭 ᄀᆞ뜬 거라도 솔썹 허여당 놔 뒷당 그거 큰일 헐 때는 땔감 허고 헷주마씨.(예, 솔방울도 주워 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 땔감으로 썼습지요. 그래서 큰일이나 하게 되면 그 떡도 하고, 잔치하려고 하면 전도 지지고 하게 되면은 미리 저 가서 소나무 같은 거라도 솔잎 해다가 놔뒀다가 그거 큰일 할 때는 땔감하고 했지요.)

152)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다.

104023 @ 아이, 낭도 그치고, 낭도. 오래 굴묵[153] 짇젠 허믄 또 뭘로 헙니까?(아니, 나무도 끊고, 나무도. 오래 '굴묵' 때려고 하면 도 무엇으로 합니까?)

104023 #1 굴묵은 거의 다 ᄀᆞ시락허고, ᄯᅳ로 저 쉐똥이나 ᄆᆞᆯ똥 이런 걸로 헷수다.('굴묵'은 거의 다 까끄라기하고, 또 저 소똥이나 말똥 이런 걸로 했습니다.)

104023 @ 쉐똥, ᄆᆞᆯ똥허고, ᄀᆞ시락.(소똥, 말똥하고, 까끄라기.)

104023 #1 예.(예.)

104023 @ 낭도 그차당 땔감 헷지예?(나무도 끊어다가 땔감 했지요?)

104023 #1 낭은 저 전이 저 굴묵으로는 땔감을 아니 헷수다. 건 ᄀᆞ시락허고 쉐똥, ᄯᅳ로 ᄆᆞᆯ똥으로만 굴묵 짇고 밥허여 먹는 용으로는 그 저 땔감 나무로 헌 것이 그 ᄒᆞ끔 사름이 살아가니까 온돌방을 시작헤십주게. 온돌, 구들에서 밥허여 먹어 나믄 방이 ᄃᆞ상.(나무는 저 전에 저 '굴묵'으로는 땔감을 아니 했습니다. 건 까끄라기하고 소똥, 또 말똥으로만 '굴묵' 때고 밥해 먹는 용으로는 그 저 땔감 나무로 한 것이 그 조금 사람이 살아가니까 온돌방을 시작했습지요. 온돌, 방에서 밥해 먹어 나면 방이 따뜻해서.)

104023 @ 예, 예.(예, 예.)

104023 #1 그때는 나무덜을 많이 헷수다.(그때는 나무들을 많이 했습니다.)

104025 @ 게난 그땐 어떤 낭을 헤와낫수가?(그러니까 그땐 어떤 나무를 해왔었습니까?)

104025 #1 보통은 이 여기 소낭덜.(보통은 이 여기 소나무들.)

104025 @ 소나무덜 헤왓수가?(소나무들 해왔습니까?)

104025 #1 예, 소나무, 솔입, 그 가지영.(예, 소나무, 솔잎, 그 가지랑.)

104025 @ 음, 게난 소나무 가지 ᄀᆞ튼 거 그차 오고예.(음, 그러니까 소나무 가지 같은 거 끊어 오고요.)

104025 #1 게난 그 저 일 년에 ᄒᆞᆫ번 산림청에서 소나무 막 싱근 사름덜안티 저 가지 치기 허라 헤 가지고 저 허가를 줍니다, 뭐. 게믄 그 허가 난 때덜 많이 허여 오고, 그렇지 않으면 ᄯᅳ로 저 허가 읏이 가도 자기 낭덜이니까 술짝술짝 법을 속여 가지고 끈어당 큰일 허젠 허믄 깨엉 놔두고, 놔뒷당 전도 지지고, 궤기도 숢곡, 밥도 헤낫수다.(그러니까 그 저 일 년에 한번 산림청에서 소나무 마구 심은 사람들한테 저 가지치기 하라 해 가지고 저 허가를 줍니다, 뭐. 그러면 그 허가 난 때들 많이 하여 오고, 그렇지 않으면 또 저 허가 없이 가도 자기 나무들이니까 살짝살짝 법을 속여 가지고 끊어다가 큰일 하려고 하면 깨어서 놔두고, 놔뒀다가 전도 지지고, 고기도 삶고, 밥도 했었습니다.)

104025 @ 게난 주로 가장 많이 썻던 땔감은?(그러니까 주로 가장 많이 썼던 땔감은?)

104025 #1 땔감은 거의 다 솔입허고 보리낭이라십주.(땔감은 거의 다 솔잎하고 보릿짚이었습지요.)

153)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104025 @ 솔입, 보리낭, 솔입?(솔잎, 보릿짚, 솔잎?)

104025 #1 예, 예.(예, 예.)

104025 @ 금방 부터불 건디예? 금방 부터불 건디 그거는?(금방 붙어버릴 건데요? 금방 붙어버릴 건데 그거는?)

104025 #1 게곡 뜨로 첨 중간에 유채가 그.(그리고 또 참 중간에 유채가 그.)

104025 @ 유채낭?(유채나무?)

104025 #1 예, 유채낭을 흔긋드로 많이 대용을 헤십주.(예, 유채나무를 구분 없이 많이 대용을 했습지요.)

104025 @ 뭐 꽷낭 ᄀᆞ튼 것은 아닐 거고예?(뭐 참깨나무 같은 것은 아닐 거고요?)

104025 #1 꽷낭도.(참깨나무도.)

104025 @ 꽷낭도 허고.(참깨나무도 하고.)

104025 #1 예, 꽷낭이 아주 좋은 겁주, 뭐, 그 저 불 솜기엔.(예, 참깨나무가 아주 좋은 거지, 뭐, 그 저 불 때기에는.)

104025 @ 불 솜기에예?(불 때기에요?)

104025 #1 예, 제일 궂인 게 보리낭이라마씨. 보리낭 날씨가 흐린 날은, 보리낭 추지믄 부트지 안 헹 내만 팡팡 나고. 허허.(웃음)(예, 제일 궂은 게 보릿짚이지요. 보릿짚 날씨가 흐린 날은, 보릿짚 추지면 붙지 않아서 내만 팡팡 나고. 허허.(웃음))

104025 @ 게난 조찝은 쉐 멕이고.(그러니까 조짚은 소 먹이고.)

104025 #1 쉐 멕이당 둥치는 그 저 땔감으로도 써십주만은 거의 다 언주와불민 거름 족나 헤 가지고 안 헤십주. 그 거름이 비료가 나니까 그걸 막 중히 여기지 아니 헤십주만은, 그 전에는 걸름이 상당이 귀헤나십주게.(소 먹이다가 둥치는 그 저 땔감으로 썼습지만 거의 다 그러모아 버리면 거름 적나 해 가지고 안 했습지요. 그 거름이 비료가 나니까 그걸 아주 중히 여기지 않았습지만, 그 전에는 거름이 상당히 귀했었습지요.)

104025 @ 음, 걸름으로 비료 엇이민 걸름으로.(음, 거름으로 비료 없으면 거름으로.)

104025 #1 예, 예, 또 이 그 저 비료 대신 우리가 싸는 오좀도 집집마다 오좀 큰 항아리를 놩 만들앙 놔둬마씨.(예, 예, 또 이 그 저 비료 대신 우리가 싸는 오줌도 집집마다 오줌 큰 항아리를 놔서 만들어서 놔둬요.)

104025 @ 음.(음.)

104025 #1 그레 오좀 항더레 오좀을 저장헤 뒷다가 메종에 씌왕 주곡 배추 ᄂᆞ물 ᄀᆞ튼 것도 주곡 헹은에 그 비료 아니 난 때는 그추룩 헤 가지고 써십주.(그리 오줌 독으로 오줌을 저장해 뒀다가 모종에 씌워서 주고 배추 나물 같은 것도 주고 해서 그 비료 아니 난 때는 그처럼 해 가지고 썼습지요.)

104023 @ 게난 쉐똥 말똥은 어떵덜 구헨 썻수가?(그러니까 소똥 말똥은 어떻게들 구해서 썼습니까?)

104023 #1 건 그 부지런헌 사름은 아침에 일어낭 쉐를 물 멕이레 뎅입니다. 게믄 그꼬지 물 멕이레 가는 디 질레 가당 그거 봐 지믄 그거 주웡 헤당은에 집이 왕 뚜로 저 올레 ᄀᆞ뜬 디 비왕 ᄆᆞᆯ리왕은에.(건 그 부지런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소를 물 먹이러 다닙니다. 그러면 그까지 물 먹이러 가는 데 길에 가다가 그거 봐 지면 그거 주워서 집에 와서 또 저 올레 같은 데 부어서 말려서.)

104023 @ ᄆᆞᆯ리왕.(말려서.)

104023 #1 ᄆᆞᆯ라가믄 굴묵에 들여 뒷당 짇곡 헤십주.(말라가면 '굴묵'에 들여 뒀다가 때고 했습지요.)

104023 @ 게난 이 저 쉐막이나 이런 디 거는 걸름허고, 밖에서 쉐똥 보이는 거 가져왕은에 걸 이제.(그러니까 이 저 외양간이나 이런 데 거는 거름하고, 밖에서 소똥 보이는 거 가져와서 걸 이제.)

104023 #1 질레 ᄀᆞ뜬 디게 다니멍 싸불 거난.(길 같은 데 다니면서 싸버릴 거니까.)

104023 @ 그 쉐똥 ᄆᆞᆯ똥은 다 똑같이 불 땟수가?(그 소똥 말똥은 다 똑같이 불 땠습니까?)

104023 #1 거의 다 그 저 이 불 때십주. 그 온돌방에 굴묵 때고. 그거허곡 뚜로 여자덜 일 년에 혼두 번썩은 저 뭐냐 미녕 멘들아 가지고 옷 헐 때 논다고 헤 가지고.(거의 다 그 저 이 뿔 땠습지요. 그 온돌방에 '굴묵' 때고. 그거하고 또 여자들 일 년에 한두 번씩은 저 뭐냐 무명 만들어 가지고 옷 할 때 놓는다고 해 가지고.)

104023 @ 거 무사 그 쉐똥, ᄆᆞᆯ똥을 거기다가?(거 왜 그 소똥, 말똥을 거기다가?)

104023 #1 아레 그 미녕실을 풀에 막 주물렁 풀에 묻은 것을 다 ᄆᆞᆯ리와야 헐 겁주게.(아래 그 무명실을 풀에 마구 주물러서 풀에 묻은 것을 다 말려야 할 거지요.)

104023 @ 아, 그 불에.(아, 그 불에.)

104023 #1 예, 예, 경 헹은에 잘 ᄆᆞᆯ리곡 저 뭐냐 이제 ᄀᆞ뜨면 저 얼레기 닮은 거 그 저 것고라 뭐, ᄇᆞ디라든지 이런 걸로 올렷닥 내렷닥 허멍 헤야.(예, 예, 그렇게 해서 잘 말리고 저 뭐냐 이제 같으면 저 얼레빗 같은 거 그 저 것더러 뭐, 바디라든지 이런 걸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해야.)

104023 @ 아, 거, 베틀인데예.(아, 거, 베틀인데요.)

104023 #1 예, 베틀.(예, 베틀.)

104023 @ 표준어로 베틀인데 여기선 뭐렌 헷수가?(표준어로 베틀인데 여기선 뭐라고 했습니까?)

104023 #1 게메 저 튼나지 안 헴수다. 허허허.(웃음)(글쎄 저 생각나지 않습니다. 허허허.(웃음))

104023 @ ᄇᆞ디, ᄇᆞ디.(바디, 바디.)

104023 #1 ᄇᆞ디, ᄇᆞ디는 그 저 ᄇᆞ딧살 요만헌 것이 그 저 ᄇᆞ디라고 헷는데 거

고망으로 하나썩만 드밀아 가지고 쭉 올렷당 내렷당 허멍 싹히 그 내리우믄 꼭 ᄀᆞ튼 너벅지로 헤 가지고 그 멧 메다 경 헙주기. 아칙이 시작허영 허믄 ᄌᆞ물 때ᄁᆞ지 그걸 헤영 ᄆᆞᆫ 짜곡.(바디, 바디는 그 저 바디살 요만한 것이 그 저 바디라고 했는데 거 구멍으로 하나씩만 드밀어 가지고 쭉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싹 그 내려오면 꼭 같은 넓이로 해 가지고 그 몇 미터 그렇게 하지요. 아침에 시작해서 하면 저물 때까지 그걸 해서 모두 짜고.)

104023 @ 나중에 물어 보커메 생각나걸랑 ᄀᆞᆯ아줍서. 하하하.(웃음)(나중에 물어 보겠으니 생각나걸랑 말해주십시오.하하하.(웃음))

104023 #1 ᄇᆞ디.(바디.)

104023 @ ᄇᆞ디예.(바디요.)

104023 #1 ᄇᆞ디집, 표현이 왓다 갓다 헤 지는 거라. 그 ᄇᆞ디집이엔 허고, 헤십주.(바디집, 표현이 왔다 갔다 해 지는 거야. 그 바디집이라고 하고, 했습지요.)

104023 @ 예, 이 솔입, 솔똥이나 솔입예, 이거는 허레 가봅디가?(예, 이 솔잎, 솔방울이나 솔잎요, 이거는 하러 가봤습니까?)

104023 #1 아, 예, 그건 큰일 잔치허게 뒈면 이젠 경 허진 안 헤도양, 우리 큰아덜 풀 때꺼지도 이디 통지에 도새기 질롼 장게갓수다게.(아, 예, 그건 큰일 잔치하게 되면 이젠 그렇게 하진 안 해도요, 우리 큰아들 팔 때까지도 여기 돼지우리에 돼지 길러서 장가갔습니다.)

104023 @ 예, 통지에 도새기.(예, 돼지우리에 돼지.)

104023 #1 게믄 저 그 낭 ᄀᆞ뜬 거 헤당 미릇 깨영 비 아이 맞게 다 들영 놔둬사 잔치헐 때 궤기도 숢곡 전도 지지곡, 밥도 허고, 걸로 헷수다.(그러면 저 그 나무 같은 거 해다가 미리 깨어서 비 아니 맞게 다 들여서 놔둬야 잔치할 때 고기도 삶고 전도 지지고, 밥도 하고, 걸로 했습니다.)

104023 @ 게난 솔입을 헤올 땐 어떤 식으로 그냥 등에 졍 왓수가?(그러니까 솔잎을 해올 땐 어떤 식으로 그냥 등에 져서 왔습니까?)

104023 #1 그 우린 저 질 처음은 졍, 보통 여자덜은 그냥은 안 옵니다. 닐 아침 조반헐 것을 지들껭이 ᄒᆞ끔 지어 졍 끗어 오곡, 우린 그추룩 먼디 거 젼 와 보진 안 헷수다.(그 우린 저 젤 처음은 져서, 보통 여자들은 그냥은 안 옵니다. 내일 아침 아침밥 할 것을 땔감 조금 지어 져서 끌어서 오고, 우린 그처럼 먼데 거 져서 와 보진 않았습니다.)

104023 @ 젼 와 보진 안 허고, 그냥 뭐, 뭘로 게민?(져서 와 보진 않고, 그냥 뭐, 무엇으로 그러면?)

104023 #1 쉐에 시껑 오지, 쉐에 많이 시껑 왓수다.(소에 실어서 오지, 소에 많이 실어서 왔습니다.)

104023 @ 쉐에 시껑 오고.(소에 실어서 오고.)

104023 #1 쉐 구루마 남자덜신디 시난게, 그 저 얼마 남자덜은 저 지들켕이 졍 와 보지 안 헷수다게.(소 마차 남자들에게 있으니까요, 그 저 얼마 남자들은 저 땔

감 져서 와 보지 않았습니다.)

104024 @ 솔입도 풀레 다니고 헷지예?(솔잎도 팔러 다니고 했지요?)

104024 #1 예, 솔입 풀레 저 한림[154] 매일장에 헐 때쯤은 협재[155] 공원 잇는디 강 솔입 끈어당은에.(예, 솔잎 팔러 저 한림 매일장에 할 때쯤은 '협재' 공원 있는 데 가서 솔잎 끊어다가.)

104024 @ 예, 그디 소낭밧이 쭉 잇이난.(예, 거기 소나무밭이 쭉 있으니까.)

104024 #1 풀아십주, 그 소나무덜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싱근 거우다, 문딱.(팔았습지요, 그 소나무들 우리 어릴 때 우리가 심은 것입니다.)

104024 @ 아, 그때 싱근 거우꽈? 그거.(아, 그때 심은 것입니까?)

104024 #1 예, 그땐 뭐 반으로 불러 가지고 낭 싱그당 보믄 뭐 춤 그때 백성덜은 순진헤십주기. 허믄 조집 두어 무끔, 무끈 거 요만씩 무끈 것덜 두어 개 곶곡 강 가위 ᄀᆞ져강 싱근 거 조집으로 방풍을 헤 준덴 문딱 꼴아나십주.(예, 그땐 뭐 반으로 불러 가지고 나무 심다가 보면 뭐 참 그때 백성들은 순진했습지요. 하면 조짚 두어 묶음, 묶은 거 요만큼씩 묶은 것들 두어 개 가지고 가서 가위 가져가서 심은 거 조짚으로 방풍을 해 준다고 모두 깔았었습지요.)

104024 @ 조찝, 조찝?(조짚, 조짚?)

104024 #1 예.(예.)

104024 @ 그거를 어떵 그걸 가져가마씨?(그거를 어떻게 그걸 가져가요?)

104024 #1 예, 그걸 흔 두어 단썩 허영 두어 단 ᄀᆞ졍 협재 낭 싱그레 오렌 허믄 우리 두 핸가 간 낭 싱거낫수다.(예, 그걸 한 두어 단씩 해서 두어 단 가져서 '협재' 나무 심으러 오라고 하면 우리 두 해인가 가서 나무 심었었습니다.)

104024 @ 낭 싱글 때 뭐에 쓰는 거우꽈? 조찝은.(나무 심을 때 뭐에 쓰는 것입니까? 조짚은.)

104024 #1 그땐 그 협재 나무가 없어 가지고 문딱 모레밧이라나십주게.(그땐 그 '협재' 나무가 없어 가지고 모두 모래밭이었습지요.)

104024 @ 예, 예.(예, 예.)

104024 #1 게난 그걸 모레에 강 소나무를 싱그면서 ᄇᆞ름에 불려불민 안 뒐 거니까 조찝 놔 가지고 족을 때 방풍으로 조찝을 썻수다.(그러니까 그걸 모래에 가서 소나무를 심으면서 바람에 불려 버리면 안 될 거니가 조짚 놔 가지고 작을 때 방풍으로 조짚을 썼습니다.)

104024 @ 아, 족을 때, 요만헐 때, 요만헌 거난 ᄇᆞ름에.(아, 작을 때, 요만할 때, 요만한 거니까 바람에.)

104024 #1 예, 방풍으로 그.(예, 방풍으로 그.)

104024 @ 시더져불 거난 걸 방풍으로, 아, 그렇게 그 조찝을 가져가낫구나.(쓰러져버릴 거니까 걸 방풍으로, 아, 그렇게 그 조짚을 가져갔었구나.)

---

154) '한림'은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이다.

155) '협재'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이다.

104024 #1 예. 겐디 허단 보난 나중에 그게 군유지 뒈어 가지고 뚜로 걸 김○○안테 풀아불어십주.(예,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게 군유지 되어 가지고 또 걸 김○○한테 팔아 버렸습지요.)

104024 @ 아, 풀앗구나. 다 풀아불언.(아, 팔았구나. 다 팔아버렸어.)

104024 #1 그 대신 이제도 금능[156], 협재더렌 전이 그 저 노인회 일 년에 천만 원 내 놓으렌 허영 부락에 다 내놓아십주게.(그 대신 이제도 '금능', '협재'로는 전에 그 저 노인회 일 년에 천만 원 내놓으라고 해서 부락에 다 내놓았습지요.)

104024 @ 게난 나무도 허레 다녀낫지예? 나무는 어떤 식으로 강 헤 왓수가?(그러니까 나무도 하러 다녔었지요? 나무는 어떤 식으로 가서 해 왔습니까?)

104024 #1 나무는 우리 밧데 신 거난 자기냥으로, 놈이 것도 해 것도 웃드리 신 거니까, 거 몰레도 꺼꺼 가는 사름 십니다게. 자기 지들커 허젠. 경 헌 사름 셔도 우리는 촐왓이영 널러 노니까 우리 밧디 거만 헤도 나옵주기. 그 저 촐왓디 것이 촐 허면서 솔섭부떠 거시립니다, 더러.(나무는 우리 밭에 있는 거니까 자기대로, 남의 것도 거의 그것도 '웃드리' 있는 거니까, 그거 모르게도 꺾어 가는 사람 있습니다. 자기 땔감 하려고. 그렇게 한 사람 있어도 우리는 꼴밭이랑 넓어 놓으니까 우리 밭에 거만 해도 나오지요. 그 저 꼴밭에 것이 꼴 하면서 솔잎부터 가지 쳐 줍니다, 더러.)

104024 @ 솔섭부터, 솔 가지예?(솔잎부터, 솔 가지요?)

104024 #1 예, 가지 치기.(예, 가지치기.)

104024 @ 솔 가지 치기 헹.(솔 가지치기해서.)

104024 #1 경 헹은에 건즘 다 ᄆᆞᆯ르면은 저 촐 시꺼 간 끗데 강 시꺼 옵니다.(그렇게 해서 거의 다 마르면 저 꼴 실어 간 끝에 가서 실어 옵니다.)

104024 @ 음, 촐 시꺼 온 다음에 그 저 가지 쳐 둔 거 그걸 가져오고예?(음, 꼴 실어 온 다음에 그 저 가지 쳐 둔 거 그걸 가져오고요?)

104024 #1 예.(예.)

104024 @ 게난 그것이 다 땔감이구나.(그러니까 그것이 다 땔감이구나.)

104024 #1 예.(예.)

104026 @ 혹시 숫은 궈 봣수가?(혹시 숯은 구워 봤습니까?)

104026 #1 아, 숫은 아이 궈 봣수다만은 그 놈의 말만 들어십주.(아, 숯은 아니 구워 봤습니다만 그 남의 말만 들었습지요.)

104026 @ 어떤 식으로 숫을, 이 동네에서는 어떤 식으로?(어떤 식으로 숯을, 이 동네에서는 어떤 식으로?)

104026 #1 우리 동네에서는 숫을 아이 굽곡, 숫을 뭣 허는 디가 엇엇수다.(우리 동네에서는 숯을 아니 굽고, 숯을 뭣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104026 @ 음.(음.)

104026 #1 겐디 그저 저 솔도[157]라든지 광평[158] 여기서는 숫을 하영 궈나십주

156) '금능'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이다.

게. 게난 나무를 허영 굴 놔두믄 들은 말인디 굴 팡 그레 문딱.(그런데 그저 저 '솔도'라든지 '광평' 여기서는 숯을 많이 구웠었지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서 굴 놔두면 들은 말인데 굴 파서 그리 모두.)

104026 @ 세와 놩.(세워 놔서.)

104026 #1 세왕 양쪽으로만 막 흑을 더퍼마씨. 더프곡, 저쪽으로 허곡 이쪽으로 허곡 양방향으로만 구멍 뚤라근에 절로 막 불이 부텅 건즘 네가 픠리롱흔 네가, 연기가 나 가믄 아, 이거 다 탓구나 헹은에 그걸 흔뻔에양 고망을 탁 막으믄 공기가 없으니까 그것이 문딱 숫이.(세워서 양쪽으로 마구 흙을 덮어요. 덮고, 저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양방향으로만 구멍 뚫어서 절로 마구 불이 붙어서 거의 내가 파르스름한 내가, 연기가 나가면 아, 이거 다 탔구나 해서 그걸 한번에요 구멍을 탁 막으면 공기가 없으니까 그것이 모두 숯이.)

104026 @ 숫이 뒈는 거.(숯이 되는 거.)

104026 #1 숫이 뒈는 겁주게. 겨곡.(숯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104026 @ 나무는 어떤 나무를 써신고예?(나무는 어떤 나무를 썼는지요?)

104026 #1 보통 건 산에 가 가지고 잡나무덜 많이 써십주.(보통 건 산에 가 가지고 잡나무들 많이 썼습지요.)

104026 @ 음, 잡나무들.(음, 잡나무들.)

104026 #1 예, 보통 집에서도 그저 다 그 화리에 겨울에 화로라고 헤 가지고 불도 살르곡 허젠 허믄 그 집이서 숫덜을 만드는데 건 어떠냐 허면.(예, 보통 집에서도 그저 다 그 화로에 겨울에 화로라고 해 가지고 불도 사르고 하려고 하면 그 집에서 숯들을 만드는데 건 어떠냐 하면.)

104026 @ 아, 집이서 만들엇수가?(아, 집에서 만들었습니까?)

104026 #1 예, 낭 불 솜당 그 잉경, 솜아난 잉경 그거 영 걷엉 놔뒷당 물 줭 놔두믄 숫이 뒈십주게.(예, 나무 불 때다가 그 잉걸불, 때었던 잉걸불 그거 이렇게 걷어서 놔뒀다가 물 줘서 놔두면 숯이 됐습지요.)

104026 @ 아, 거의 다 탄 거를?(아, 거의 다 탄 거를?)

104026 #1 예.(예.)

104026 @ 물 비와불면 숫이 뒈는구나.(물 부어버리면 숯이 되는구나.)

104026 #1 예, 집이서 그 저 정지에서, 부엌에서 그추룩 헤십주.(예, 집에서 그저 부엌에서, 부엌에서 그처럼 했습지요.)

104026 @ 물 비운 다음에 그걸 몰리완?(물 부은 다음에 그걸 말려서?)

104026 #1 예.(예.)

104026 @ 걸 몰리왕, 것도 임시 숫이구나.(걸 말려서, 것도 임시 숯이구나.)

104026 #1 예.(예.)

104026 @ 그거는 이제 화리에 넣는 숫이구나예.(그거는 이제 화로에 넣는 숯이

157) '솔도'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경에 있는 화전마을이다.
158) '광평'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이다.

구나.)

104026 #1 예.(예.)

104026 @ 겨울에 그 저 화리로 방 좀 뜻시게예.(겨울에 그 저 화로로 방 좀 따뜻하게요.)

104026 #1 예, 예.(예, 예.)

104026 @ 음, 그렇게 헹도 숫을 만들엇구나예. 게난 건 간단허게 만드는 숫이엇네예.(음, 그렇게 해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건 간단하게 만드는 숯이었네요.)

104026 #1 예, 예.(예, 예.)

104026 @ 그러면 이렇게 옛날엔 여러 가지 것들을 땔감으로, 이젠 뭐 땔감이 필요엇수다만은 그 당시만 헤도 이 땔감 허젠 허면 주로 이제 가는 시기가?(그러면 이렇게 옛날엔 여러 가지 그것들을 땔감으로, 이젠 뭐 땔감이 필요없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땔감 하려고 하면 주로 이제 가는 시기가?)

104026 #1 땔감 허레 가는 시기는 그자 여름, 봄은 아니고 겨울, 보통 겨울 허고 봄 나가면은 거 꼭 웃드리 쉐, 물 엇인 사름덜, 홀어멍덜이나 이런 사름덜은 어디 가냐 허면 이 밧디, 밧마다 개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게. 츰낭이라든지 개낭이라든지.(땔감 하러 가는 시기는 그저 여름, 봄은 아니고 겨울, 보통 겨울 하고 봄 나가면은 거 꼭 '웃드리' 소, 말 없는 사람들, 홀어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냐 하면 이 밭에, 밭마다 누리장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참나무라든지 누리장나무라든지.)

104026 @ 개낭예?(누리장나무요?)

104026 #1 예, 이런 것덜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 강 헤당 물리왕은에 그 헙니다, 뭐.(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 가서 해다가 말려서 그 합니다, 뭐.)

104026 @ 땔감을예?(땔감을요?)

104026 #1 예.(예.)

104026 @ 그거는 주로 겨울이엇네예? 겨울.(그거는 주로 겨울이었네요? 겨울.)

104026 #1 예, 겨울 허영 봄꺼지 갑주게.(예, 겨울 해서 봄까지 가지요.)

104027 @ 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뭐 땔감 허레 강 생각나는 일들이 잇수가?(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때 뭐 땔감 하러 가서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104027 #1 땔감 허당은에 그 봄 때쯤 강 보면, 겨울에 뎅기당 꿩코 놩 놔둔 것에 꿩덜 심을 때도 싯고.(땔감 하다가 그 봄 때쯤 가서 보면, 겨울에 다니다가 꿩 올가미놔서 놔둔 것에 꿩들 잡을 때도 있고.)

104027 @ 아, 꿩도 헹 잡아 낫수가? 그 꿩코를 어떤 식으로 헷수가? 그 가멍 꿩코를 놔?(아, 꿩도 해서 잡았었습니까? 그 꿩 올가미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그 가면서 꿩 올가미를 놔?)

104027 #1 꿩코는 그 꿩 다녀난 길을 압니다. 그런 디 풀도 많이 짓곡 헌 디 강은에 흔 철사 그 철사를 불부쪄나믄 ᄀᆞ는 철사가 요라 개 잇는디, 그걸 헹 요만이 질게 허영 코 멘들앙 영 놔두믄 요 코로, 여기 영 놔두믄 일로 영 넘어가당.(꿩 올

가미는 그 꿩 다녔던 길을 압니다. 그런 데 풀도 많이 깃고 한 데 가서 한 철사 그 철사를 불붙여나면 가는 철사가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해서 요만큼 길게 해서 올가미 만들어서 이렇게 놔두면 요 올가미로, 여기 이렇게 놔두면 이리로 이렇게 넘어가다가.)

104027 @ 넘어가당 톡 걸리는 거?(넘어가다가 톡 걸리는 거?)

104027 #1 넘어가당 톡 걸리는 거.(넘어가다가 톡 걸리는 거.)

104027 @ 예, 나도 생각남수다. 하하하.(웃음) 그걸 옛날에도 헤낫구나. 아, 게난 그런 때 강 허멍 꿩코도 놩 꿩 잡기도 허고. 아이고, 그때는 참 다 들에 나강 헐 일들이라낫네예. 이젠 사냥, 사냥은 특별히 총 쏘는 사냥이 아니라. (예, 나도 생각납니다. 하하하.(웃음) 그걸 옛날에도 했었구나. 아, 그러니까 그런 때 가서 하면서 꿩 올가미도 놔서 꿩 잡기도 하고. 아이고, 그때는 참 다 들에 나가서 할 일들이었네요. 이젠 사냥, 사냥은 특별히 총 쏘는 사냥이 아니야.)

104027 #1 예, 사냥은.(예, 사냥은.)

사냥

104028 @ 음, 사냥에 대헤서 말씀헤주십서.(음, 사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4028 #1 사냥은 이 저 본리에서는 사냥꾼이라든지 그 저 포수가 엇엇수다.(사냥은 이 저 본리에서는 사냥꾼이라든지 그 저 포수가 없었습니다.)

104028 @ 포수가 엇고.(포수가 없고.)

104028 #1 예.(예.)

104028 @ 그러면 지다리 잡는다거나 뭐 오소리라든지.(그러면 오소리 잡는다거나 뭐 오소리라든지.)

104028 #1 그런 것은 좀 간혹 잇는디 일부러 건 사냥꾼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지다리 ᄀᆞ뜬 것도 아까 ᄀᆞᆫ듯이 코 놩, 코 놩 지다리 잡는 사름덜토 잇엇수다.(그런 것은 좀 간혹 있는데 일부러 건 사냥꾼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오소리 같은 것도 아까 말하듯이 올가미 놔서, 올가미 놔서 오소리 잡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4028 @ 그거는 이제 코 놔 가지고 허는 거지 사냥으로 허는 일은 엇고?(그거는 이제 올가미 놔 가지고 하는 거지 사냥으로 하는 일은 없고?)

104028 #1 예.(예.)

104029 @ 그럼 꿩 사냥은 어떵 헷수가?(그럼 꿩 사냥은 어떻게 했습니까?)

104029 #1 꿩도 마찬가지로 코 놩 잡음벳긴 저 그 포수가 그걸 쏘는 것은 없엇고, 그 중간에 수렵 허가 마탕 개인적으로 총 상 걸 쏩는 사람도 잇어낫수다게.(꿩도 마찬가지로 올가미 놔서 잡음밖에는 저 포수가 그걸 쏘는 것은 없었고, 그 중간에 수렵 허가 맡아서 개인적으로 총 사서 걸 쏘는 사람도 있었었습니다.)

104029 @ 음, 거난 꿩코 놓는 것이 주로구나?(음, 그러니까 꿩 올가미 놓는 것이 주로구나?)

104029 #1 예.(예.)

104029 @ 그 웨에 다른 식으로 꿩을 잡는 일은 엇엇고마씨?(그 외에 다른 식으로 꿩을 잡는 일은 없었고요?)

104029 #1 예.(예.)

104030 @ 노루도 잡아낫수가?(노루도 잡았었습니까?)

104030 #1 노루는 그 여기꺼지 그 저 산에 살단 것덜이 막 큰 눈이나 오게 뒈민 간혹 내려올 때도 잇엇수다만 일부러 여기서 잡으레 뎅긴다던지 영은 안 헷수다.(노루는 그 여기까지 그 저 산에 살던 것들이 아주 큰 눈이나 오게 되면 간혹 내려올 때도 있었습니다만 일부러 여기서 잡으러 다닌다든지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104030 @ 안 헷고, 게 내려온 건 어떤 식으로 걸?(안 했고, 그래 내려온 건 어떤 식으로 걸?)

104030 #1 내려온 것덜은 그 저 산에 짐승이 집이 들어오면 해롭나 헙니다. 경헤도 그 저 보통은 집에서 잡는다든지 허면 집이 헤로우니까 아니허고.(내려온 것들은 그 저 산에 짐승이 집에 들어오면 해롭나 합니다. 그래도 그 저 보통은 집에서 잡는다든지 하면 집에 해로우니까 아니하고.)

104030 @ 집에서 잡은면예?(집에서 잡으면요?)

104030 #1 예, 집이서 걸 저 집에 들어오면은.(예, 집에서 걸 저 집에 들어오면은.)

104030 @ 그냥 내쳐불지 잡지 않는다는 말이우꽈?(그냥 내쳐버리지 잡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104030 #1 또 잡지 못헙니다. 게난 거 사냥꾼이라든지 허면 개 둘앙 강 잡는데 여기선 그렇게 전문적으로 허는 사름이 엇어나고마씨. 다행히 메년에 혼 마리 노루 ᄀᆞ튼 거 걸령은에 잡는 수도 싯수다만 그런 건 극히 드물엇수다.(또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냥꾼이라든지 하면 게 데려서 가서 잡는데 여기선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었고요. 다행히 매년에 한 마리 노루 같은 거 걸려서 잡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극히 드물었습니다.)

104030 @ 잡으믄 그것도 잡아먹고 허는 거 아니라예?(잡으면 그것도 잡아먹고 하는 거 아니야?)

104030 #1 예.(예.)

104031 @ 지다리도 잡아낫수가?(오소리도 잡았었습니까?)

104031 #1 지다리도 그추룩 코 놩 잡아낫는디 난 그런 거 안 헤봣수다.(오소리도 그처럼 올가미 놔서 잡았었는데 난 거 안 해봤습니다.)

104031 @ 그런 건 안 헤보고. 지다리도 보믄 잡앙 뭐 약에도 쓴다, 뭐에 쓴다 헙니께예?(그런 건 안 해보고. 오소리도 보면 잡아서 뭐 약에도 슨다, 뭐에 쓴다 하지요?)

104031 #1 예, 노루허고 지다리 ᄀᆞ뜬 것덜 그 약으로 쓰젠 몸이 약헌 사름덜 그 지다리 ᄀᆞ튼 건 멘 비겝주게.(예, 노루하고 오소리 같은 것들 그 약으로 쓰려고 몸이 약한 사람들 그 오소리 같은 건 맨 비계지요.)

104031 @ 게니까마씨.(그러니까요.)

104031 #1 그걸 잡앙 보통은 그 자기냥으로 잡질 아니 헤 가지고 웃드리 사름안티, 화전 사름덜안티 부탁헤 뒷다가 그걸 잡으면은 그걸 잡앗고렌 연락허민 강 걸 사당 그 지다리 ᄀᆞ뜬 건 그 저 궤기허고 지름허고 딸린 걸 구분허영 미릇 먹어불고, 지름은 영 단지에 담앙 놔뒷다가 끼니때라든지 거 흔 수까락 거렁 먹으멍, 그냥 맛이 춤 좋아나서마씨.(그걸 잡아서 보통은 그 자기대로 잡질 아니 해가지고 '웃드리' 사람한테, 화전 사람들한테 부탁해 뒀다가 그걸 잡으면은 그걸 잡았다고 연락하면 가서 걸 사다가 그 오소리 같은 건 그 저 고기하고 기름하고 딸린 걸 구분해서 미리 먹어버리고, 기름은 이렇게 단지에 담아서 놔뒀다가 끼니때라든지 거 한 숟가락 떠서 먹으면서, 그냥 맛이 참 좋았었어요.)

104031 @ 거 엿 헐 때도 쓰지 안 헙니까예?(거 엿 할 때도 쓰지 않습니까?)

104031 #1 예, 그추룩이나 헙주. 우리 대림서는 그 지다리나 노루나 사냥 거리 꿩을 헌다든지 제라헌 사냥꾼덜은 엇엇수다.(예, 그처럼이나 하지. 우리 대림리서는 그 오소리나 노루나 사냥 거리 꿩을 한다든지 온전한 사냥꾼들은 없었습니다.)

104032 @ 음, 겐 코 놔 본 거는 꿩 말고도 잇수가?(음, 그래서 올가미 놔 본 거는 꿩 말고도 있습니까?)

104032 #1 코 놔 본 것은 꿩 말고는 엇고마씨.(올가미 놔 본 것은 꿩 말고는 없고요.)

104032 @ 꿩코나 놧지, 특별허게 사냥허는 일은 엇엇구나예. 여기는 또 숲이 막 바로 잇는 것도 아니고 허난예.(꿩 올가미나 놨지, 특별하게 사냥하는 일은 없고요. 여기는 또 숲이 막 바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요.)

104032 #1 예.(예.)

104032 @ 다 밧들이난.(다 밭들이니까.)

104032 #1 예.(예.)

104032 @ 밧디 들어오는 거, 무슨 새들이나 아니믄 밧디 들어오는 것들은?(밭에 들어오는 거, 무슨 새들이나 아니면 밭에 들어오는 것들은?)

104032 #1 밧디 들어오는 건 그 저 유채나 보리나 빌 때에 다행이 비어 가당 보민 꿩ᄃᆞᆨ새길 낭 갑주게.(밭에 들어오는 건 그 저 유채나 보리 벨 때에 다행히 베어 가다가 보면 꿩알 낳아서 가지요.)

104032 @ 하하,(웃음) 꿩ᄃᆞᆨ새기예.(하하,(웃음) 꿩알요.)

104032 #1 그걸 줏인 날은 행운이고마씨. 행운이고 ᄯᅳ로 꿩도 새끼 아껴 가지고 사름 이디 와도 놀지 아니허영 이실 때 경 허영 꿩도 막 잡을 때도 십니다. 그추룩 헹 잡읍니다, 뭐.(그걸 주운 날은 행운이고요. 행운이고 또 꿩도 새끼 아껴 가지고 사람 여기 와도 날지 않아서 있을 때 그렇게 해서 꿩도 마구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해서 잡습니다, 뭐.)

104032 @ 밧디 강 막 어지럽히는 것들은 엇고예?(밭에 가서 마구 어지럽히는 것들은 없고요?)

104032 #1 예.(예.)

104032 @ 밧디 그냥 왕 파 불고 뭐?(밭에 그냥 와서 파 버리고 뭐?)

104032 #1 건 또 많이 이십주, 그건 무슨 말이냐 허면은 지금은 저 비료도 나고 가까운 디 감젯 메종이나 많이 놓고 헤도 그 고구마를 많이 심게 뒈면 저 스월 혼 십이 일경이 뒈면 그 저 감젓 메종을 놉니다게. 메종을 놩 놔두민 그놈 꿩들 왕 다 파 먹어가민 허수아비.(건 또 많이 있습지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은 저 비료도 나고 가까운 데 고구마 모종이나 많이 놓고 해도 그 고구마를 많이 심게 되면 저 사월 한 십이 일경이 되면 그 저 고구마 모종을 놓습니다. 모종을 놔서 놔두면 그놈 꿩들 와서 다 파 먹어가면 허수아비.)

104032 @ 파먹는 건 누게가 파먹읍니까?(파먹는 건 누구가 파먹습니까?)

104032 #1 꿩이.(꿩이.)

104032 @ 꿩이, 꿩이 파먹어 불어.(꿩이, 꿩이 파먹어 버려.)

104032 #1 그디 허수아비도 곶당 세우고.(거기 허수아비도 갖다가 세우고.)

104032 @ 허수아비도 세우고, 하하하.(웃음)(허수아비도 세우고, 하하하.(웃음))

104032 #1 다들 허수아비 많이 세와십주.(다들 허수아비도 많이 세웠습지요.)

104032 @ 아, 꿩도 그걸 파먹는구나예.(아, 꿩도 그걸 파먹는구나.)

104032 #1 고구마밧디도 다 허수아비 세웁니다게.(고구마밭에도 다 허수아비 세웁니다.)

104032 @ 게니까마씨.(그러니까요.)

104032 #1 예.(예.)

104033 @ 그러면 이제는 들일에 대헤서는 혹시 다른 일들이, 들에서 허는 일들이 뭐 셍각나는 거 잇수가?(그러면 이제는 들일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일들이, 들에서 하는 일들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104033 #1 드르에서 딴 일 뭐 허는 것이 별로 엇입주. 겨울철에도 그자 소 거념이나 허고, 특별이 그 겨울철 뒈면은 농촌에서는 그 집 ᄀᆞ뜬 거 지을 때양, 이럴 때 초집을 만약 스레뜨를 더끈다던지 헐 때에 놉을 안 빌엉 동네 사름덜신디 강 이야기허믄 그냥 무료 봉사로, 그날 강 잘 얻어먹고, 그자 담배나 혼 갑 사 주고, 장갑이나 주믄 강 하루 종일 그 집이 강 일헤 줭, 이런 상부상조허는 것이 잇어십주.(들에서 딴 일 뭐 하는 것이 별로 없지요. 겨울철에도 그저 소 돌보기나 하고, 특별히 그 겨울철 되면은 농촌에서는 그 집 같은 거 지을 때요, 이럴 때 초가를 만약 슬레이트 덮는다든지 할 때에 놉을 안 빌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냥 무료 봉사로, 그날 가서 잘 얻어먹고, 그저 담배나 한 갑 사 주고, 장갑이나 주면 가서 하루 종일 그 집에 가서 일해 줘서, 이런 상부상조하는 것이 있었습지요.)

104033 @ 음. 들에 강 무신거 뭐 철마다 나는 삼동도 타먹고, 뭐?(음, 들에 가서 무엇 뭐 철마다 나는 상동도 따먹고, 뭐?)

104033 #1 아, 예, 그건 헙니다. 건 보리 익으면 유월 초승 뒈면은 그 삼동이라고 허는 것이 잇어양, 그거 타먹으레 뎅여십주.(아, 예, 그건 합니다. 건 보리 익으

면 유월 초승 되면은 그 상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따먹으러 다녔습지요.)

104033 @ 삼동허고 뭐, 주로 들에 강은에?(상동하고 뭐, 주로 들에 가서?)

104033 #1 그것이 끗나면은 또 탈이라고 허여 가지고예, 탈 타 먹으레 다니고예.(그것이 끝나면은 또 딸기라고 하여 가지고요, 딸기 따 먹으러 다니고요.)

104033 @ 탈 타 먹으레 다니고 헤나고?(딸기 따 먹으러 다니고 했었고?)

104033 #1 예.(예.)

104033 @ 그다음엔 또 뭐?(그다음엔 뭐?)

104033 #1 것덜은 허민 그 저 그냥 그 사발 ᄀᆞ뜬 거 헤당 들렁 뎅이멍 타는, 탕 먹을 수도 싯고, 그냥 탕 그디서 다 먹음도 허곡, 또 준셈 이신 사름은 이녁 동셍이라도 주젠 허영 그걸 삼동이나 탈 ᄀᆞ뜬 거 탕 집이 엇엉왕 아기덜도 주곡 헤낫수다.(것들은 하면 그 저 그냥 그 사발 같은 거 해다가 들러서 다니면서 따는, 따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따서 거기서 다 먹기도 하고, 자잘한 정 있는 사람은 이녁 동생이라도 주려고 해서 그걸 상동이나 딸기 같은 거 따서 집에 가져와서 아기들도 주고 했었습니다.)

104033 @ 거 옛날에도 들에 강 두릅이나 고사리나 뭐 허레 가낫수가?(거 옛날에도 들에 가서 두릅이나 고사리나 뭐 하러 갔었습니까?)

104033 #1 고사리는 지금은 안 헤 봣수다만 대다수가 집집마다 제사덜 지내곡 허니까 그 저 웃드리 가 가지고 고사리 꺼끄레 가낫수게.(고사리는 지금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집집마다 제사들 하니까 그 저 '웃드리' 가 가지고 고사리 꺾으러 갔었습니다.)

104033 @ 고사리예?(고사리요?)

104033 #1 예, 거 사월 중순으로 하순ᄀᆞ지 걸 다닙니다, 뭐.(예, 거 사월 중순으로 하순까지 걸 다닙니다, 뭐.)

104033 @ 두릅 같은 건 안 헤 보고예?(두릅 같은 건 안 해 보고요?)

104033 #1 두릅 ᄀᆞ튼 건 여기서 거의 헌 사름이 엇어마씨.(두릅 같은 건 여기서 거의 한 사람이 없어요.)

104033 @ 양에 같은 거는?(양하 같은 거는?)

104033 #1 아, 양에는 저 우리 이디도 잇수다만은 그거 봄에는 순 꺼꺼 가지고 국 끌릴 때라도 ᄀᆞ찌 허고, ᄯᅳ로 가을이면 양에 불리 나믄 그것 헤 가지고 제삿상에 그거 탕쉬[159]로도 올리고 헷수다.(아, 양하는 저 우리 여기도 있습니다만 그거 봄에는 순 꺾어 가지고 국 끓일 때라도 같이 하고, 또 가을이면 양하 뿌리 나면 해 가지고 제사상에 그거 '탕쉬'로도 올리고 했습니다.)

104033 @ 맞수다, 제삿상에 탕쉬로 올리고, 맞아. 그 웨 들에 강은에 먹을 것들 춧앙 헌 것들은?(맞습니다, 제사상에 '탕쉬'로 올리고, 맞아. 그 외 들에 가서 먹을 것들 찾아서 한 것들은?)

104033 #1 그 웃드리 그 왕이메[160]라든지 이 목장에 양에들이 그냥 잇엇수다.

159) '탕쉬'는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에 쓰는 나물이다.

임자 엇는 것들이 이십주기. 게믄 그디ᄁᆞ지 강 꺼끄레 오는 사름도 셔마씨.(그 '웃드리' 그 '왕이메'라든지 이 목장에 양하들이 그냥 있었습니다. 임자 없는 것들이 있습지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서 꺾으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5. 바다일

105001 @ 이번에는 옛날 바당일에 대허영 물어보쿠다. 그 바당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잇어낫수가?(이번에는 옛날 바다일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바다에서 하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5001 #1 바당에서 일반 해녀가 아니더레도 과거엔 비료가 모자르니까 그저 일반 사름이라도 ᄇᆞ름 불어난다든지 영 헐 때는 가서 그디 해초류라든지 올라온 거 ᄆᆞᆷ ᄀᆞ뜬 거 요즘 ᄀᆞ뜨믄 저 뭣고 해안가에서 피는 거 무슨 메셍이?(바다에서 일 반 해녀가 아니더라도 과거엔 비료가 모자라니까 그저 일반 사람이라도 바람 불었었든지 이렇게 할 때는 가서 거기 해초류라든지 올라온 거 모자반 같은 거 요즘 같으면 저 뭣이고 해안가에서 피는 거 무슨 매생이?)

105001 @ 그 모자반.(그 모자반.)

105001 #1 예, 모자반 이런 거라도 가서 부지런이 강 봉강 져왕 밧디 놔야 헐 거니까 그런 것이 깨가 엇이 허여 와낫수다.(예, 모자반 이런 거라도 가서 부지런히 가서 주워서 져와서 밭에 놔야 할 거니까 그런 것이 어지간히 없이 해 왔었습니다.)

105001 @ 게난 ᄆᆞᆷ은 먹는 ᄆᆞᆷ이 잇고, 그냥 걸름 허는 ᄆᆞᆷ이 잇어낫수가?(그러니까 모자반은 먹는 모자반이 있고, 그냥 거름 하는 모자반이 있었었습니까?)

105001 #1 예, 먹는 ᄆᆞᆷ허고 거름허는 ᄆᆞᆷ이 잇어낫수다.(예, 먹는 모자반하고 거름 하는 모자반이 있었었습니다.)

105001 @ 음, 거름 허는 ᄆᆞᆷ은?(음, 거름 하는 모자반은?)

105001 #1 요새 메셍이 ᄀᆞ뜬 거라든지, ᄯᅳ로 ᄑᆞ레 이런 것덜 걸름입주, 뭐.(요새 매생이 같은 거라든지, 또 파래 이런 것들 거름이지, 뭐.)

105001 @ ᄑᆞ레도예, ᄑᆞ레도 것도 걸름?(파래도요, 파래도 것도 거름?)

105001 #1 ᄑᆞ레도 먹는 ᄑᆞ레가 싯고, 먹지 아니허는 ᄑᆞ레가 십니다.(파래도 먹는 파래가 있고, 먹지 아니하는 파래가 있습니다.)

105001 @ 요새 막 바다에 밀려오는 모자반은 어디서 오는 건고예?(요새 마구 바다에 밀려오는 모자반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105001 건 요즘 확실이는 모르겟수다만은 그런 것덜이 과거에도 올라와낫수다. 올라나도 그자 그때는 서로가 걸 올라와 가믄 저 겆당은에 밧디 ᄀᆞᆯ아불고 헤 가니까 첫째 몰레밧디 올라오기 전에 다 제거뒈나십주. 근래는 비료가 많이 발달 뒈니

160) '왕이메'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 북서쪽, 호명목장 서쪽에 있는 둥글넓적한 오름이다.

까 그런 곶인 일을 안 허젠 허연 내버렴수다, 뭐.(건 요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럿 것들이 과거에도 올라왔었습니다. 올랐어도 그저 그때는 서로가 걸 올라와 가면 저 갔다가 밭에 깔아버리고 해 가니까 첫째 모래밭에 올라오기 전에 다 제거 됐었지요. 근래는 비료가 많이 발달 되니까 그런 궂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내버리고 있습니다, 뭐.)

105001 @ 게난 옛날에 그걸 올리면 그냥 ᄀᆞ져오지는 못헐 거 아니우꽈? 어떵헹.(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올리면 그냥 가져오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105001 #1 아이, 거 젖어도 그냥 져와마씨.(아니, 그거 젖어도 그냥 져와요.)

105001 @ 젖어도?(젖어도?)

105001 #1 예.(예.)

105001 @ 거 물 닥닥허는 거.(거 물 닥닥하는 거.)

105001 #1 해벤에서는 그거 ᄌᆞ꼿디 올렁 물 빠주아 놩은에 걸 밧디덜 놓고마씨.(해변에서는 그거 옆에 올려서 물 빼줘 놔서 걸 밭에들 놓고요.)

105001 @ 거 뭐에 담아 오는고마씨?(거 뭐에 담아 오는가요?)

105001 #1 그냥 져 와불어.(그냥 져 와버려.)

105001 @ 그냥 져 옵니다. 아, 그냥 끗엉 오듯이?(그냥 져 옵니다. 아, 그냥 끌어서 오듯이?)

105001 #1 예, 예. 경 헹 하믄 해벤 사름이라든지 그거 영 농사짓곡 허젠 허믄, 대게 해벤 사름덜은 농토가 족아낫수다. 게믄 것덜 쌓아뒷다가 그거 많이 줭 멘네 ᄀᆞ뜬 거라도 갈젠 허민 한 마지기쯤 갈젠 허민 그거 주면은 저 멘네 갈 때도 끈어 주곡, 경 헤나십주. 게믄 그걸 거름 놔 놓으믄 ᄒᆞᆫ 이 년 동안은 밧이 상당이 걸어마씨.(예, 예. 그렇게 해서 해변 사람이라든지 그거 이렇게 농사짓고 하려고 하면, 대개 해변 사람들은 농토가 작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 쌓아뒀다가 그거 많이 줘서 면화 같은 거라도 갈려고 하면 한 마지기쯤 갈려고 하면 그거 주면은 저 면화 갈 때도 끊어 주고, 그렇게 했었습지요. 그러면 그걸 거름 놔 놓으면 한 이 년 동안은 밭이 상당히 걸어요.)

105001 @ 아, 예.(아, 예.)

105001 #1 메셍이 ᄀᆞ뜬 거라든지 지금은 썩어 가니까 악취 냄새난다 허여도 그렇게 악취 나게끔은 ᄀᆞ만이 버려두질 아니헙니다.(매생이 같은 거라든지 지금은 썩어 가니까 악취 냄새난다 해도 그렇게 악취 나게끔은 가만히 버려두질 않습니다.)

105001 @ 게믄 걸 밧디 영 뿌리면 거를 또 바로 밧을 갑니까?(그러면 걸 밭에 이렇게 뿌리면 거를 또 바로 밭을 갑니까?)

105001 #1 밧디 강 놩, 노믄 바로 갈 때도 싯곡, 그것 뚜로 고량에 영 놔두엇다가 다음 갈 때도 싯곡 헙니다, 뭐.(밭에 가서 놔서, 놓으면 바로 갈 때도 있고, 그것 또 고랑에 이렇게 놔두었다가 다음 갈 때도 있고 합니다, 뭐.)

105002 @ 듬북이나 감태 잇지 안허꽈예? 이거는 어떵 채취를 헤낫수가?(듬북이

나 감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채취를 했었습니까?)

105002 #1 아, 감태 채취는 거 감태가 지금은 헤도 일제 말엽이라든지 해방뒈면서는 거 감태가 요오드 원료라낫수다. 게믄 저 그때는 공출이라고 저 일본놈덜 헤 가지고 정부에 내라고, 내놓으라고 헤 가지고 막 따물어 놓으믄 여기 사름들은 그자 ᄇᆞ름 불 적마다 강 그걸 헤당 ᄆᆞᆯ림도 허곡 헹은에 그걸 불 부쩌 놩 감태를 불 부쪄 놩 그것에 물 좀 끼얹으믄 그 재가 요오드의 원료라십주게.(아, 감태 채취는 거 감태가 지금은 해도 일제 말엽이라든지 해방되면서는 감태가 요오드 원료였습니다. 그러면 저 공출이라고 저 일본놈들 해 가지고 정부에 내라고,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마구 재촉해 놓으면 여기 사람들은 그저 바람 불 적마다 가서 그걸 해다가 말리기도 하고 해서 그걸 불 붙여 놔서 그것에 물 좀 끼얹으면 그 재가 요오드의 원료였습지요.)

105002 @ 아, 요오드, 요오드, 요오드 만드는 원료?(아, 요오드, 요오드, 요오드 만드는 원료?)

105002 #1 예, 그것이 그 저 한림 이디서 내노라 허면 저, 이젠 그 감저 공장이라고 헤 가지고 그 옛날 한 뭣이가 그거 헤낫수다. 그레 부락덜 왕 내믄 그걸 제조허여 가지고 군납덜 헤나십주. 꼭 이 저 감테 ᄀᆞ튼 건.(예, 그것이 그 저 한림 여기서 내놓으라 하면 저, 이젠 그 고구마 공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옛날 한 뭣이가 그거 했었습니다. 그리 부락들 와서 내면 그걸 제조하여 가지고 군납들 했었습지요. 꼭 이 저 감태 같은 건.)

105002 @ 감탠 그것 말고 다른 용도는 뭐 잇어낫수가?(감태는 그것 말고 다른 용도는 뭐 있었었습니까?)

105002 #1 감태 그거 말고는 저 이제는 거 츰 거 뭣고 이제는 전복 양식덜 많이 허니까 그디서 이 저 전복 사료로 쓴다 헤 가지고, 그때는 주로 그추룩 헤낫수다.(감태 그거 말고는 저 이제는 거 참 뭣이고 이제는 전복 양식들 많이 하니까 거기서 이 저 전복 사료로 쓴다 해 가지고, 그때는 주로 그처럼 했었습니다.)

105002 @ 아, 요오드의 원료?(아, 요오드의 원료?)

105002 #1 예.(예.)

105002 @ 야간 불 부쳥 태왕?(아무튼 불 붙여서 태워서.)

105002 #1 예.(예.)

105002 @ 그거를 ᄆᆞᆯ리왕. 듬북은마씨?(그거를 말려서. 듬북은요?)

105002 #1 듬북은 건 순전 밧디 거름으로만 헷수다.(듬북은 건 순전히 밭에 거름으로만 했습니다.)

105002 @ 게난 듬북하고 몸은 셍긴 게 많이 틀립니까?(그러니까 듬북하고 모자반은 생긴 게 많이 다릅니까?)

105002 #1 예, 쪼금 ᄐᆞ납니다.(예, 조금 다릅니다.)

105002 @ 게난 듬북도 거름으로 쓰고, 몸도 거름으로 쓰고?(그러니까 듬북도 거름으로 쓰고, 모자반도 거름으로 쓰고?)

105002 #1 예, 몸도 촘몸허고, 촘몸은 그냥 먹고.(예, 모자반도 참모자반하고, 참모자반은 그냥 먹고.)

105002 @ 먹고.(먹고.)

105002 #1 또 그 그런 몸은 거름허고.(또 그 그런 모자반은 거름하고.)

105002 @ 게난 몸을 어느 때 몸을, 채취허는 시기가, 몸은 언제 헙니까?(그러니까 모자반을 어느 때 모자반을, 채취하는 시기가, 모자반은 언제 합니까?)

105002 #1 채취허는 것은 봄 나가민 채취헙니다.(채취하는 것은 봄 나가면 채취합니다.)

105002 @ 봄에?(봄에?)

105002 #1 예. 봄 낭 채취허고, 뚜로 미역도 역시 자연산덜인데 봄 나가지고 삼ᄉᆞ월에 그거 헙니다. 게난 그걸 그때는 해경[161]이라고 헤 가지고 다 아무 때나 케질 못헙주기. 거기 사름이나 이디 사름이나 가도 자기 바당이라 허드레도 그 해경이란 말은 푼다고 허는 말인디.(예. 봄 나서 채취하고, 또 미역도 역시 자연산들인데 봄 나서 삼사월에 그거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때는 '해경'이라 해 가지고 다 아무 때나 캐질 못하지요. 거기 사람이나 여기 사람이나 가도 자기 바다라 하더라도 그 '해경'이란 말은 푼다고 하는 말인데.)

105002 @ 해경?('해경'?)

105002 #1 그걸 언제 헷냐 허면은.(그걸 언제 했냐 하면은.)

105002 @ 그 말은 밧을 푼다는 말인데?(그 말은 밭을 푼다는 말인데?)

105002 #1 예, 그 저 걸 관리허단 것을 풀어준다 이겁주게. 해경허는 날덜은 가서 미역 ᄀᆞ뜬 것도 헷수다만은 그 전에는 그 해경 전에는 거 얼마 못허곡 헙니다. 또 뚠 사람도 아니허고, 게서 그게 한 오월달ᄁᆞ지, 삼사월로 오월달ᄁᆞ지 그걸 좀 키왓다가 오월에 그 메역 해경을 헤나십주.(예, 그 저 걸 관리하다가 그것을 풀어준다 이거지요. '해경'하는 날들은 미역 같은 것도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 '해경' 전에는 그거 얼마 못하고 합니다. 또 딴 사람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게 한 오월까지, 삼사월로 오월까지 그걸 좀 키웠다가 오월에 그 미역 '해경'을 했었습지요.)

105002 @ 게난 금채기가.(그러니까 금채기가.)

105002 #1 건 그 저 자치단체 내에서 단체가 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덜이 어부덜이라든지 허는 사름덜이 거 날짜를 정헤 가지고.(건 그 저 자치단체 내에서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서민들이 어부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거 날짜를 정해 가지고.)

105002 @ 어촌계나 아니면 이런 디서 결정을 헙니까?(어촌계나 아니면 이런 데서 결정을 합니까?)

105002 #1 예, 예. 그 전에 어촌계 엇일 때는 그 부락에서 통제를 헤낫수다게.(예, 예. 그 전에 어촌계 없을 때는 그 부락에서 통제를 했었습니다.)

161) '해경'은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이다.

105002 @ 아, 바당을 금채헐 때 잇고 해경허영 채취헐 때가 잇고?(아, 바다를 금채할 때 있고 '해경'해서 채취할 때가 있고?)

105002 #1 예, 예.(예, 예.)

105002 @ 게난 그것이 채취를, 오월이 뒈면 채취 시작허고?(그러니까 그것이 채취를, 오월이 되면 채취 시작하고?)

105002 #1 오월 전이, 오월 전이 헙니다.(오월 전에, 오월 전에 합니다.)

105002 @ 오월 전이?(오월 전에?)

105002 #1 예, 사월 하순 뒈어가면은 걸 채취허게끔.(예, 사월 하군 돼가면은 걸 채취하게끔.)

105002 @ 언제까지 그걸 헙니까?(언제까지 그걸 합니까?)

105002 #1 게믄 보통 오월 중, 하순이 뒈면 다 끗납주게.(그러면 보통 오월 중, 하순이 되면 다 끝나지요.)

105002 @ 아, 거의 흔 달 정도 채취허믄 끗난다.(아, 거의 한 달 정도 채취하면 끝난다.)

105002 #1 예. 흔 둘ᄁᆞ지도 안 갑니다. 저 정 양식 안 헤 가지고 자연산덜은예.(예. 한 달까지도 안 갑니다. 저 저렇게 양식 않아 가지고 자연산들은요.)

105002 @ 아.(아.)

105002 #1 게곡 ᄯᅳ로 그걸 훍은 낭쯤은 헤도 ᄌᆞ른 것덜은 허도 못허고 허믄 그자 그대로 바당에 뒷당은에 물때 뒈면 가서 일반 농부들이라도, ᄯᅳ로 해녀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거 타당 허고, 먹고, 경 헤낫수다.(그리고 또 그걸 굵은 나무쯤은 해도 짧은 것들은 하도 못하고 하면 그저 그대로 바다에 뒀다가 물때 되면 가서 일반 농부들이라도, 또 해녀가 아닌 사람이라도 그거 따다가 하고, 먹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5003 @ 음, 이 보말이나 깅이 ᄀᆞ튼 건 잡아낫수가?(음, 이 고둥이나 게 같은 건 잡았었습니까?)

105003 #1 아, 예, 보말은 그 저 그 해안가에 가믄 해경 없이.(아, 예, 고둥은 그 저 그 해안가에 가면 '해경' 없이.)

105003 @ 음.(음.)

105003 #1 아무라도 가믄 그 저 잡아나십주기. 겐디 요즘은 그거를 통제를 헙니다, 뭐.(아무라도 가면 그 저 잡았었습지요. 그런데 요즘은 그거를 통제를 합니다, 뭐.)

105003 @ 음.(음.)

105003 #1 허다가 그 저 보통은 그뭄 여섯, 보름 여섯이라 허여 가지고 그땐 물 잘 쌉주게.(하다가 그 저 보통은 그믐 여섯, 보름 여섯이라 하여 가지고 그땐 물 잘 써지요.)

105003 @ 음.(음.)

105003 #1 싸, 쌀 때는 그 ᄀᆞ리는 그자 그믐날 경계라든지 보름날 경계 경에는

일반 서민덜 놀아지믄 그 저 물천[162] 잡아당 그 보멀이라든지 소라 ᄀᆞ튼 것ᄀᆞ라 그냥 잡아 오는 것을 물천이엔 헙니다, 물천.(써, 썰 때는 그 고비는 그저 그믐날 경계라든지 보름날 경계 경에는 일반 서민들 놀아지면 그 저 '물천' 잡아다가 그 고둥이라든지 소라 같은 것더러 그냥 잡아 오는 것을 '물천'이라고 합니다, '물천'.)

105003 @ 물천?('물천'?)

105003 #1 예.(예.)

105003 @ 물천?('물천'?)

105003 #1 물천마씨. 거 헤당 집집마다 솟디 숢앙도 먹고, 또 옴은 거 올아놩게 반찬으로도 그거 허영 먹고.('물천'요. 거 해다가 집집마다 솥에 삶아도 먹고, 또 여문 거 열어놔서 반찬으로도 그거 해서 먹고.)

105003 @ 보말도 구젱기도 다 올앙 허는 거 아니라예?(고둥도 소라도 다 열어서 하는 거 아니야?)

105003 #1 예, 예.(예, 예.)

105003 @ 반찬도 헹 먹고, 죽도 쒕 먹고?(반찬도 해서 먹고, 죽도 쒀서 먹고?)

105003 #1 예, 예.(예, 예.)

105003 @ 구젱기는 뭐 숢앙 먹는 거고예?(소라는 뭐 삶아서 머는 거고요?)

105003 #1 예.(예.)

105003 @ 조개도 잡아낫수가?(조개도 잡았었습니까?)

105003 #1 조개는 이 부근에 엇엇수다.(조개는 이 부근에 없었습니다.)

105003 @ 엇언?(없었어?)

105003 #1 예.(예.)

105003 @ 엇언, 조개 잡는 디가 엇구나. 게난 주로 여기는 어느 바당에 강 그걸 잡아낫수가?(없었어, 조개 잡는 데가 없구나.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어느 바다에 가서 그걸 잡았었습니까?)

105003 #1 우리는 그 저 귀덕이리ᄒᆞ고 그 저 수원 용운동[163].(우리는 그 저 귀덕이리하고 그 저 수원 '용운동'.)

105003 @ 용운동?('용운동'?)

105003 #1 예, 그 아래 강 헙니다.(예, 그 아래 가서 합니다.)

105003 @ 귀덕이리 허고예, 용운동하고 귀덕이리는 부터잇는 거 아니라예?(귀덕이리 하고요, '용운동'하고 귀덕이리는 붙어 있는 거 아니야?)

105003 #1 예, 예.(예, 예.)

105003 @ 부터 잇고, 게믄 요 어디 대림 저 튼대섬[164] 쪽으론 안 가낫수가?(붙어 있고, 그러면 대림리 저 '튼대섬' 쪽으로는 안 갔었습니까?)

105003 #1 아, 우리 상동 쪽은 튼대섬 쪽으론 덜 가낫수다. 건 웨 그런고 허믄 대림사동 사름덜이 그 지역적으로 안배를 헤서 그디선 헤도, 그 오히려 이디 쪽이

162) '물천'은 성게. 고둥, 소라 등 갯가에 나는 해산물을 말한다.
163) '용운동'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164) '튼대섬'은 한림읍 한수리에 포함된 한림항 북쪽 방파제와 이어진 큰 여를 말한다.

가깝고, 또 물천 잡기가 더 쉬와마씨.(아, 우리 상동 쪽은 '튼대섬' 쪽으론 덜 갔엇습니다. 건 왜 그런고 하면 대림사동 사람들이 그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거기선 해도, 그 오히려 여기 쪽이 가깝고, 또 '물천' 잡기가 더 쉬워요.)

105003 @ 아.(아.)

105003 #1 튼대섬 쪽으로 수원[165], 한수리[166] 그 우티는 모레땅이고, 또 영 뒈니까 물천[167] 잡기가 좋질 아니 헙주기.('튼대섬' 쪽으로 수원, 한수리 그 위에는 모래땅이고, 또 이렇게 되니까 '물천' 잡기가 좋지를 않지요.)

105003 @ 아, 게난 거긴 대림사리?(아, 그러니까 거긴 대림사리?)

105003 #1 예.(예.)

105003 @ 대림사리 사름덜은 밑에 사는 사람들?(대림사리 사람들은 밑에 사는 사람들?)

105003 #1 예, 예.(예, 예.)

105003 @ 아, 그 사람덜이 거길 관리허고 해산물도 잡앗구나예?(아, 그 사람들이 거길 관리하고 해산물도 잡았군요?)

105003 #1 예.(예.)

105004 @ 음, 이 저 고둥, 이 보말은 종류 알아지쿠가?(음, 이 저 고둥, 이 고둥은 종류 알아 지겠습니까?

105004 #1 보말, 보말은 먹보말.(고둥, 고둥은 먹고둥.)

105004 @ 먹보말.(밤고둥.)

105004 #1 또로 곰셍이.(또 남방울타리고둥.)

105004 @ 곰셍이?(남방울타리고둥.)

105004 #1 눈곰셍이라고 허여 가지고.(남방울타리고둥이라고 하여 가지고.)

105004 @ 눈곰셍이.(남방울타리고둥.)

105004 #1 그거 알아 지는 거, 또로 수두리.(그거 알아 지는 거, 또 팽이고둥.)

105004 @ 수두리보말?(팽이고둥?)

105004 #1 예. 이렇게 혼 시 가지로 나눕니다, 보말 종류는.(예. 이렇게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고둥 종류는.)

105004 @ 음. 게난 그건 주로 잡아당은에 솖앙은에 깡 먹읍니까? 죽 헹 먹읍니까?(음. 그러니까 그건 주로 잡아다가 삶아서 까서 먹습니까?)

105004 #1 거 대게는 그자 많이 잡아진 때는 깡은에 장에 둥가둠서도 먹곡, 또로 게 아니믄 죽도 쒕 먹곡 허는디, 거의 다 장에 놩 먹을 때가 많아.(거 대개는 그저 많이 잡은 때는 까서 장에 담겨두면서도 먹고, 또 그렇게 아니면 죽도 쒀서 먹고 하는데, 거의 다 장에 놔서 먹을 때가 많아.)

105005 @ 장에 놩. 깅이는 잡아낫수가?(장에 놔서. 게는 잡았었습니까?)

105005 #1 예, 깅이는, 깅이 잡으레는 대게 이 아레서도 구름들[168]이라고 헤 가

165) '수원'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이다.
166) '한수리'는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이다.
167) '물천'은 성게, 고둥, 소라 등 해산물을 말한다.

지고 저 용운동 서쪽에 거기 가서 많이 잡고, 또 그 웨에는 하나썩 잡는 거는 그자 가서 들리믄 잡아오고 허는데, 또 많이 잡젠 허믄 지금 귀덕[169]하고 금성[170] 새이에 그 아레 가믄 존 자갈덜이 많읍주.(예, 게는, 게 잡으러는 대개 이 아래서도 '구름들'이라고 해 가지고 저 '용운동' 서쪽에 거기 가서 많이 잡고, 또 그 외에는 하나씩 잡는 거는 그저 가서 들리면 잡아 오고 하는데, 또 많이 잡으려고 하면 지금 '귀덕리'하고 '금성리' 사이에 그 아래 가면 잔 자갈들이 많지요.)

105005 @ 예.(예.)

105005 #1 그 ᄉᆞ방이서 그 저 많이 잡을 땐 거기 강도 잡아 오곡.(그 사방에서 그 저 많이 잡을 땐 거기 가서도 잡아 오고.)

105005 @ 음. 게난 거기는 지역 그쪽 사름덜이 뭐렌 안 헙니까?(음. 그러니까 거기는 지역 그쪽 사람들이 뭐라고 않습니까?)

105005 #1 그 보멀이라든지 깅이 잡아 오는 건 얼마 뭣이엔 안 헤마씨.(그 고둥이라든지 게 잡아 오는 건 얼마 뭣이라고 않아요.)

105005 @ 게난 그거는 누구난 개방헌 거네예?(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니까 개방한 거네요?)

105005 #1 예, 예.(예, 예.)

105005 @ 그때가 딱 뒈면. 그 깅이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그때가 딱 되면. 그게 종류는 어떤 거 있습니까?)

105005 #1 깅이 종류는 그 저 그 돌킹이[171].(게 종류는 그 저 그 '돌킹이'.)

105005 @ 돌킹이.('돌킹이'.)

105005 #1 돌킹이허고 이 저 존깅이.('돌킹이'하고 이 저 잔게.)

105005 @ 존깅이?(잔게?)

105005 #1 존깅이, 그게 막 존존헌 거난. 그런 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잔게, 그게 아주 자잘한 거니까. 그런 거 두 가지로 나눕니다.)

105005 @ 두 가지로 나누고.(두 가지로 나누고.)

105005 #1 돌킹이엔 헌 것은 막 쎄어마씀. 이빨 엇인 사름은 먹기 잘도 궂입니다. 그러곡 뚜로 그 저 성담 ᄀᆞ뜬 디 강 남자들은 덤부지[172] ᄀᆞ튼 거 겁죽 벳경 영 철사 허영 놩 그거 그 고망더레 영 들이쳥 허믄 거기 깅이덜이 막 들려드는 거 알아져마씨.('돌킹이'라고 한 것은 아주 세요. 이빨 없는 사람은 먹기 잘도 궂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저 돌로 쌓은 성 같은 데 가서 남자들은 '덤부지' 같은 거 껍데기 벗겨서 이렇게 철사 해서 놔서 그거 그 구멍으로 이렇게 들이쳐서 하면 거기 게들이 마구 달려드는 거 알지요.)

105005 @ 음.(음.)

---

168) '구름들'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169)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이다.
170) '금성'은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이다.
171) '돌킹이'는 등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이다.
172) '덤부지'는 손가락 정도 크기의 베도라치 새끼를 말한다.

105005 #1 게믄 거 영 올렁 깅이 잡앙 통더레 놓곡, 통더레 놓고.(그러면 거 이렇게 올려서 게 잡아서 통으로 넣고, 통으로 넣고.)

105005 @ 게난 그 니껍을 뭘로 써마씨?(그러니까 그 미끼를 무엇으로 써요?)

105005 #1 뭐, 멜 ᄀᆞ튼 거라든지 ᄯᅳ로 게 아니믄 코셍이도 뒈고, 덤부지라고 이건 잘 먹젱 아니 헙니다.(뭐, 멸치 같은 거라든지 또 게 아니면 용치놀래기도 되고, 덤부지라고 이건 잘 먹으려고 아니 합니다.)

105005 @ 덤부지?(별망둑?)

105005 #1 예, 덤부지 그걸로도 허긴 헷수다, 깅이 잡고 경 헤나십주.(예, 별망둑 그걸로는 하긴 했습니다, 게 잡고 그렇게 했었습지요.)

105006 @ 예, 그게 그러면 밤에 횃불 들렁강 뭐 잡아낫수가?(예, 그게 그러면 밤에 횃불 들러가서 뭐 잡았었습니까?)

105006 #1 횃불 들러 강 그 난 내려가 보지 안 헷수다만, 저 그 물때 뒈믄 그런 사름덜이 셔낫수다, 젊은 사름덜.(횃불 들고 가서 그 난 내려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저 그 물 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105006 @ 게믄 그땐 그디선 뭘 잡아나신고예?(그러면 그땐 거기선 뭘 잡았었는지요?)

105006 #1 횃불 들렁 가민 그 저 구젱기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그 저 뭣고 밤에만 나왕 활동허니까 구젱기도 잡곡, ᄯᅳ로 어떤 땐 뭐냐, 전복도 잡고, 영덜 헤낫수다.(횃불 들러서 가면 그 저 소라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그 저 뭣고 밤에만 나와서 활동하니까 소라도 잡고, 또 어떤 땐 뭐냐, 전복도 잡고, 이렇게들 했었습니다.)

105006 @ 낙지 같은 건 엇고?(낙지 같은 건 없고?)

105006 #1 아, 낙지 ᄀᆞ튼 건 저 간혹 셧수다. 셧는디 그것도 역시 잡아낫수다. 것도 역시 횃불 들르믄 저 밤이 숨엇당이라도 영 나와마씨, 이것덜이.(아, 낙지 같은 건 저 간혹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잡았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횃불 들르면 저 밤에 숨었다가도 이렇게 나와요, 이것들이.)

105006 @ 밤에 불 잇이면 불에 튀어나오는구나예?(밤에 불 있으면 불에 튀어나오는군요?)

105006 #1 예, 불은 그자 영 석유통 요만헌 거에 기름 담아 가지고 흔펜 귀야지 막 솜으로 막앙 허믄 것이 횃불 뒈영은에 잡아낫수다.(예, 불은 그저 이렇게 석유통 요만한 거에 기름 담아 가지고 한편 귀퉁이 마구 솜으로 막아서 하면 그것이 횃불 되어서 잡았엇습니다.)

105007 @ 이 대림리 바당에 그쪽에 원은 잇어낫수가?(이 대림리 바다에 그쪽에 원은 있었었습니까?)

105007 #1 예, 원[173]도 하나 잇엇수다. 대림 바당에도, 원덜은 잇어도 그 원 임제가 이십니다. ᄯᅳ로 동네에서 허고. 다와 두면은 원에는 그 물 들어올 때는 고기

173) '원'은 해변 조간대에 만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돔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이다.

들어왓다가 싹 나가지 못헹은에 것이 걸어지믄 잡곡, 뚜로 멜 ᄀᆞ뜬 것도 원에 들고, 경 헤낫수다.(예, '원'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림리 바다에도 '원'들은 있어도 그 '원' 임자가 있습니다. 또 동네에서 하고. 다와 두면은 '원'에는 그 물 들어올 때는 고기 들어왔다가 싹 나가지 못해서 그것이 걸어지면 잡고, 또 멸치 같은 것도 '원'에 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5007 @ 아, 게난 들어온 고기는, 멜은 거리는 식으로 잡고, 다른 궤기들은?(아, 그러니까 들어온 고기는, 멸치는 뜨는 식으로 잡고, 다른 고기들은?)

105007 #1 것도 그냥 잡습니다, 뭐.(것도 그냥 잡습니다, 뭐.)

105007 @ 손으로?(손으로?)

105007 #1 손으로도 잡곡, 뚜로 저 뭣고 그물로 망 헤 가지고 동그락헌 거 헹은에 거려지는 것들로도 잡고.(손으로도 잡고, 또 저 뭣고 그물로 망 해 가지고 둥근 거 해서 뜨는 것들로도 잡고.)

105007 @ 거리는 걸로 잡고.(뜨는 걸로 잡고.)

105007 #1 심지어 멜 ᄀᆞ뜬 것은 그 저 들어올 때는 ᄀᆞᆯ체로도 심곡 헙니다.(심지어 멸치 같은 것은 그 저 들어올 때는 삼태기로도 잡고 합니다.)

105007 @ 멜은예, ᄀᆞᆯ체로예? 게 주로 어떤 궤기덜이 이십니까?(멸치는요, 삼태기로요?)

105007 #1 거기는 보통 잘 드는 것이 우럭이라든지 볼락, 뚜로 게 아니믄 큰 고기, ᄀᆞᆺ바위에 어떤 때는 갈치 ᄀᆞ뜬 것도 들어옵니다.(거기는 보통 잘 드는 것이 우럭이라든지 볼락, 또 게 아니면 큰 고기, 갓바위에 어떤 때는 갈치 같은 것도 들어옵니다.)

105007 @ 갈치도 들어오고. 그 웨에 뭐 다른 볼락, 우럭.(갈치도 들어오고. 그 외에 뭐 다른 볼락, 우럭.)

105007 #1 예, 갈치 ᄀᆞ튼 거라든지. 고등에 ᄀᆞ뜬 건 메일 들어옵니다만은.(예, 갈치 같은 거라든지. 고등어 같은 건 매일 들어옵니다만.)

105008 @ 아, 그러면 이 원은 바당물 왓다 갓다 허당 보믄 ᄆᆞᆯ아져불 거 아니라예?(아, 그러면 이 '원'은 바닷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무너져 버릴 거 아니야?)

105008 #1 ᄆᆞᆯ아져도 저 많이 저 ᄆᆞᆯ아져도 저 웨돌이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만이 넙게 잣ᄀᆞ찌 답주게.(무너져도 저 많이 저 무너져도 저 외돌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넓게 성같이 쌓지요.)

105008 #1 경 헤노니까 덜 나갑니다, 뭐.(그렇게 해놓으니까 덜 나갑니다, 뭐.)

105008 @ 그 사람이 그 위로 걸어다닐 수 잇게 헹은에 영.(그 사람이 그 위로 걸어다닐 수 있게 해서 이렇게?)

105008 #1 ᄉᆞᄆᆞᆺ 걸어가게 헐 정도는 아니라도 저 그 울퉁불퉁은 헤도 그렇게 맞추아서 다읍니다.(사뭇 걸어가게 할 정도는 아니라도 저 그 울퉁불퉁은 해도 그렇게 맞추어서 쌓습니다.)

105008 @ 맞추아서예? 그러면 그거는 주인이 강 보수도 허고? 허는구나예?(맞

추어서요? 그러면 그거는 주인이 가서 보수도 하고? 하는군요?)

105008 #1 겐디 거 주인덜이 헐 수는 잇어도 대다수는 공동 자산 헙니다.(그런데 거 주인들이 할 수는 있어도 대다수는 공동 자산 합니다.)

105008 @ 공동 자산으로, 음, 거는 개인 거라고 볼 수가 없다.(공동 자산으로, 음, 거는 개인 거라고 볼 수가 없다.)

105008 #1 예.(예.)

105008 @ 개인 소유는 아니다.(개인 소유는 아니다.)

105008 #1 예.(예.)

105008 @ 개인이 관리는 허는데.(개인이 관리는 하는데.)

105008 #1 예.(예.)

105008 @ 그 관리허는 사름은 그 원 관리허는 사람은 따로 뭐 헙니까?(그 관리하는 사람은 그 '원'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 뭐 합니까?)

105008 #1 따로 그건 뭐 이제 ᄀᆞ뜨면 해녀 반장이라든지 어촌계랑 ᄀᆞ찌 허여 가지고.(따로 그건 뭐 이제 같으면 해녀 반장이라든지 어촌계랑 같이 하여 가지고.)

105008 @ 아, 바당 관리허는 사람이.(아, 바다 관리하는 사람이.)

105008 #1 예.(예.)

105008 @ 주로 그걸 허는구나예?(주로 그걸 하는군요?)

105008 #1 예, 게난 그 부지런헌 사름쯤은 큰 ᄇᆞ름, 비바람 불어나면은 궤기 올라와시카부덴 세벡이 그 바닷가를 다 돕니다. 나무 ᄀᆞ뜬 것도 올라오고 거기 그 저 고기도 올라오고, ᄄᆞ로 뜬 것덜토 올라오고 허니까. 강 이제 바당을 돌아봥 허당 ᄄᆞ로 강 재수가 좋은 때는 멜 올랏젠 허믄 자기 허여지믄 멜 들엇젠 웨믄 동네 사름덜 그 소리 들엉 강 멜덜토 건져오고.(예, 그러니까 그 부지런한 사람쯤은 큰 바람, 비바람 불어나면은 고기 올라왔을까 싶어서 새벽에 그 바닷가를 다 돕니다. 나무 같은 것도 올라오고 거기 그 저 고기도 올라오고, 또 딴 것들도 올라오고 하니까. 가서 이제 바다를 돌아봐서 하다가 또 가서 재수가 좋을 때는 멸치 올랐다고 하면 자기 할 수 있으면 멸치 들었다고 외면 동네 사람들 그 소리 들어서 가서 멸치들도 떠오고.)

105009 @ 게난 멜은 어떵 잡읍니까?(그러니까 멸치는 어떻게 잡습니까?)

105009 #1 멜을 게 그 저 바다에서 잇다가 원 안네라든지 멜 들어올 땐 그 원 안에도 들어오고 바닷가 ᄀᆞ뜬 디 지칠 때가 많읍니다. 게믄 거 헷젠 허믄 ᄀᆞᆯ체로도 잡곡, 차롱착으로도 잡고.(멸치를 그래 그 저 바다에서 있다가 '원' 안에라든지 멸치 들어올 땐 그 '원' 안에도 들어오고 바닷가 같은 데 끼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거 했다고 하면 삼태기로도 잡고, 채롱짝으로도 잡고.)

105009 @ 게난 바당에 반짠반짝 멜이 튀는 게 보이지예?(그러니까 바다에 반짝반짝 멸치 튀는 게 보이지요?

105009 #1 예.(예.)

105009 @ 게난 그거를 그자 ᄀᆞᆯ체나 차롱착으로도 잡고.(그러니까 그거를 그저

삼태기나 채롱짝으로도 잡고.)

105009 #1 예.(예.)

105009 @ 그건 각자 잡는 거잖아예?(그건 각자 잡는 거잖아요?)

105009 #1 예, 예.(예, 예.)

105009 @ 게난 걸 뭘로 잡앙 운반헷수가?(그러니까 걸 무엇으로 잡아서 운반했습니까?)

105009 #1 겐 그 구덕이라든지 뭣을 ᄀᆞ졍 갓당 잡앙 왕 젓도 담고, 또 ᄆᆞᆯ륌도 허고, ᄆᆞᆯ리왕 먹음도 허고.(그래서 그 바구니라든지 뭣을 가져서 갔다가 잡아서 와서 젓도 담고, 또 말리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105009 @ 멜첫도 담고, ᄆᆞᆯ리왕, ᄆᆞᆯ리우민 이제 그게 메리치가 뒈는 거라마씨?(멸치젓도 담고, 말려서, 말리면 이제 그게 멸치가 되는 거지요?)

105009 #1 예.(예.)

105009 @ 게난 그건 언제쯤 주로 멜 잡읍니까?(그러니까 그건 언제쯤 주로 멸치 잡습니까?)

105009 #1 대게 그 봄이가 많이 납니다.(대개 그 봄에 많이 납니다.)

105009 @ 봄에?(봄에?)

105009 #1 예.(예.)

105009 @ 지금 시기에마씨?(지금 시기에요?)

105009 #1 예. 지금 시기도 허고, 가을 때ᄁᆞ지도 헙니다.(예. 지금 시기도 하고, 가을 때까지도 합니다.)

105009 @ 아, 여름에예. 게난 물때가 이십니까?(아, 여름에요. 그러니까 물때가 잇습니까?)

105009 #1 예, 물때는 그믐 ᄋᆞ섯, ᄯᆞ로 보름 ᄋᆞ섯 영 셍각헙니다. 또 어떤 날은 보면 여섯 물날 그 그믐 뒈어가면은 막 물 쌉주게. 물 싸고 ᄯᆞ로 보름 뒈어가도 막 물 싸곡 허믄 그것을 ᄋᆞ섯 물로 뒙니다, 뭐. 여섯 물때, 일곱 물 물때가 물이 쌉주게.(예, 물때는 그믐 여섯, 또 보름 여섯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날은 보면 여섯 물 그 그믐 되어가면은 아주 물 써지요. 물 써고 또 보름 되어가도 아주 물 썰고 하면 그것을 여섯 물로 됩니다, 뭐. 여섯 물 때, 일곱 물 물때가 물이 썰지요.)

105009 @ 음.(음.)

105009 #1 게믄 그때는 바닷물이 싹 나가불면은 거기 가 가지고 구젱기도 잡곡 보멀도 잡곡 심지어 구드리[174], 해초 엇언 구드리 ᄀᆞ뜬 것도 허고, 또 메역 ᄀᆞ뜬 것도 거기서 케곡.(그러면 그때는 바닷물이 싹 나가버리면 거기 가 가지고 소라도 잡고 고둥도 잡고 심지어 '구드리' 해초 없어서 '구드리' 같은 것도 하고, 또 미역 같은 것도 거기서 캐고.)

105009 @ 구드리는 뭘 구드리엔 헙니까?('구드리'는 뭘 '구드리'라고 합니까?)

105009 #1 구드리엔 헌 건 뭐냐, 저 여기서 봄이라든지 허면 풀을 쑵니다게.('구

174) '구드리'는 풀을 쑤는데 쓰는 해초류이다.

드리’라고 한 건 뭐냐, 저 여기서 봄이라든지 하면 풀을 쑵니다.)

105009 @ 풀 쑤는 거?(풀 쑤는 거?)

105009 #1 예, 그 용으로 허는 거우다.(예, 그 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105009 @ 풀 쑨다, 거 우무는 아니고?(풀 쑨다, 거 우뭇가사리는 아니고?)

105009 #1 예, 예. 우무옌 헌 건 뚜로 저 가시리라고 헌 것이 싯수다.(예, 예. 우뭇가사리라고 한 건 또 저 풀가사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105009 @ 음.(음.)

105009 #1 가시리 ᄀᆞ튼 걸로 허영은에 거 우뭇가사리 헙니다, 뭐.(풀가사리 같은 걸로 해서 거 우뭇가사리 합니다, 뭐.)

105009 @ 구드리예? 그건 군벗허고도 다른 거 아니우꽈예?(‘구드리’요? 그건 군부하고도 다른 거 아닙니까?)

105009 #1 예, 군벗은 가장 쉬운 건디 너무 지피도 아이 들곡 물 싸면 나오믄 그건 딱 부뜨난 ᄀᆞᆯ겡이만 ᄀᆞ졍 강 저, 이 호미만 ᄀᆞ졍 가민 그냥 떼어지는 겁주.(예, 군부는 가장 쉬운 건데 너무 깊이도 아니 들고 물 써면 나오면 그건 딱 붙으니까 호미만 가져서 가서 저, 이 호미만 가져서 가면 그냥 떼어지는 거지.)

105009 @ 구드리는 해초류꽈?(‘구드리’는 해초류입니까?)

105009 #1 예.(예.)

105009 @ 구드리는 해초류?(‘구드리’는 해초류?)

105009 #1 예, 해초류.(예, 해초류.)

105009 @ 아, 그거 어패류가 아니고예?(아, 그거 어패류가 아니고요?)

105009 #1 예.(예.)

105009 @ 해초류? 군벗은 뭐, 허믄 먹어낫수가?(해초류? 군부는 뭐, 하면 먹었었습니까?)

105009 #1 예, 군벗은 그거 저 허영 그건 많이 잡진 안 헙니다. 군벗 헤 가지고 펜펜헌 디 놩 막 작작 밀어불면 겁죽이 벗읍주게. 거 훼로도 먹고, 그냥 그추룩 아니 헹은에 솖으믄 딱딱헤도 먹기도 헤낫수다.(예, 군부는 그거 저 해서 그건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군부 해 가지고 편편한 데 놔서 마구 작작 밀어버리면 껍데기가 벗습지요. 거 회로도 먹고, 그냥 그처럼 안 해서 삶으면 딱딱해도 먹기도 했었습니다.)

105009 @ 그 구살허고 솜허고는 구분이 뒙니까?(그 성게하고 말똥성게하고는 구분이 됩니까?)

105009 #1 예, 구살허고 솜허고는 그거 가시로도 구분이 뒈는 거고. 그 군벗은 돌에 하나썩 딱 부트는 거고.(예, 성게하고 말똥성게하고는 그거 가시로도 구분이 되는 거고. 그 군부는 돌에 하나씩 딱 붙는 거고.)

105009 @ 구살허고 솜, 솜?(성게하고 말똥성게, 말똥성게?)

105009 #1 솜도 역시 구살 나는 디 ᄀᆞ찌 납니다.(말똥성게도 역시 성게 나는 데 같이 납니다.)

105009 @ 솜허고 구살은 요즘은 둘 다 성게렌 허지 안 헙니까?(말똥성게하고 성게는 요즘은 둘 다 성게라고 하지 않습니까?)

105009 #1 예.(예.)

105009 @ 성게렌 허는디 그것이 모양이 다릅니까?(성게라고 하는데 그것이 모양이 다릅니까?)

105009 #1 예, 구살은, 구살은 성게고라 구살이엔 허고, 솜은 그 저 구살ᄀᆞ찌 셍기긴 헤도 가시가 아주 줄읍주기, 가시가.(예, 성게는, 성게는 성게더러 성게라고 하고, 말똥성게는 그 저 성게같이 생기긴 해도 가시가 아주 짧습지요, 가시가.)

105009 @ 아.(아.)

105009 #1 게믄 그 솜이나 구살이나 내용은 속은 그 먹을 수 잇는 것은 비슷헙니다, 뭐.(그러면 그 말똥성게나 성게나 내용은 속은 그 먹을 수 있는 것은 비슷합니다, 뭐.)

105009 @ 아, 솜도 먹을 수는 잇고, 속은?(아, 말똥성게도 먹을 수는 있고, 속은?)

105009 #1 예, 예.(예, 예.)

105009 @ 속에 그 알을?(속에 그 알을?)

105009 #1 예, 예.(예, 예.)

105009 @ 속에 그거를.(속에 그거를.)

105009 #1 밥 먹을 때도 이 저 칼로 싹 짤라 가지고 소곱에 거를 손가락으로 파먹고, 또 구살도 역시 칼로 잘라 가지고 걸 저 손가락으로 내어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저 뭐냐 수까락 ᄀᆞ튼 걸로도 경 헤낫수다.(밥 먹을 때도 이 저 칼로 싹 잘라 가지고 속에 거를 손가락으로 파먹고, 또 성게도 역시 칼로 잘라 가지고 걸 저 손가락으로 내어놓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저 뭐냐 숟가락 같은 거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105009 @ 게 맛이 좀 다르지 안 헙니까?(그래 맛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105009 #1 건즘 같읍니다.(거의 같습니다.)

105009 @ 같아. 아, 게난 모양새만 다르고 속에 그 내용물 그 알은 거의 다 같은 것이로구나예?(같아. 아, 그러니까 모양새만 다르고 속에 그 내용물 그 알은 다 같은 것이군요?)

105009 #1 예.(예.)

105010 @ 여기는 그 바당에 고기는 저 베 탕 나강 잡지는 안 헤낫수가?(여기는 그 바다에 고기는 저 배 타서 나가서 잡지는 안 했었습니까?)

105010 #1 아, 이 우리 대림리에서는 이 저 사동에 잇는 사름덜을 제웨허고는 베 탕 나강 잡은 사름이 엇엇수다. 한두 사름 잇어십주. 혼두 사름 잇어도 건 베에, 저 진질[175]이라든지 진질은 저 귀덕이리, 이리나 ᄯᅳ로 수원리 가좌동[176]에 그 베가

175) '진질'은 제주시 한립읍 귀덕2리의 옛 명칭이다.
176) '수원리 가좌동'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자연마을이다.

고깃베 ᄒᆞ나에 ᄒᆞᆫ 사름만 허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걸 삽주게. 사면은 그것이 ᄀᆞ튼 직이 뒈어 가지고 베 봉 잡으레 다니고.(아, 이 우리 대림리에서는 이 저 대림사동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배 타서 나가서 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두 사람 있었습지요. 한두 사람 있어도 건 배에, '진질' 이라든지 '진질'은 귀덕이리, 구덕이리나 또 수원리 가자동에 그 배가 고깃배 하나에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끼리 돈을 내어 가지고 걸 사지요. 사면은 그것이 같은 직이 되어 가지고 배 놔서 잡으러 다니고.)

105010 @ 아.(아.)

105010 #1 게 아니믄 경 헹은에 인원이 미달 뒈면은 거 ᄂᆞᆷ의 베에 부떠 가지고 활동허면은 그 댓가로 궤기 받아도 오곡 헤십주.(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인원이 미달 되면은 거 남의 배에 붙어 가지고 활동하면은 그 대가로 고기 받아도 오고 했습지요.)

105010 @ 음, 본인이 직접 운영은 안 하고?(음, 본인이 직접 운영은 않고?)

105010 #1 본인도 많이 헙니다, 거의 다.(본인도 많이 합니다, 거의 다.)

105010 @ 하고, 베예?(하고, 배요?)

105010 #1 예, 예.(예, 예.)

105010 @ 그거는 저 한수리 포구에 베를 댑니까?(그거는 저 한수리 포구에 배를 댑니까?)

105010 #1 예, 예, 그런 베덜 십주게. 겐 그 전인 이 자리돔 ᄀᆞ뜬 거는 이런 베가 아니고 테, 테 탕 강.(예, 예, 그런 배들 있습지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자리 같은 거는 이런 배가 아니고 떼, 떼 타서 가서.)

105010 @ 테우?(떼?)

105010 #1 예, 테우엔도 허고.(예, '테우'라고도 하고.)

105010 @ 테우, 예.(떼, 예.)

105010 #1 이제는 그거 테우가 없어지니까 베로 다 헙니만은 그 전이 자리 테라고 헤 가지고 테우를.(이제는 그거 떼가 없어지니까 배로 다 합니다만 그 전에 자리돔 떼라고 해 가지고 떼를.)

105010 @ 아, 자리는 테우 탕 나강 잡아 오는구나예?(아, 자리돔은 떼 타서 나가서 잡아 오는군요?)

105010 #1 예, 예.(예, 예.)

105010 @ 음, 테우는 테웃베는 언제까지 셔낫수가?(음, 떼는 떼배는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105010 #1 테우는 그 해방헌 후에 저 육이오사변 끗날 때ᄁᆞ지 테우 셧수다.(떼는 그 해방한 후에 저 육이오사변 끝날 때까지 떼 있었습니다.)

105010 @ 육이오사변 때까지.(육이오사변 때까지.)

105010 #1 게난 이디서 자리 거려 두고 테우 와 가니까 요 벵디왓[177] 동산에서

177) '벵디왓'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에 위치한 지경 이름이다.

비양도[178] 앞끠지 강 테우는예 영 자리 거리는 동그란 것이 셔마씨. 그걸로 영 봐리민 아, 이거 저 잘 떳구나 허영 사레 갑주기.(그러니까 여기서 자리돔 떠 두고 떼 와 가니까 요 '벵디왓' 동산에서 '비양도' 앞까지 가서 떼는요 이렇게 지리돔 뜨는 동그란 것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보면 아, 이거 저 잘 떴구나 해서 사러 가지요.)

105010 @ 돗, 돗도 이서나신가마씨, 테우에? 돗도 이십니까?(돛, 돛도 있었었는가요, 떼에? 돛도 있습니까?)

105010 #1 예, 돗 엇입니다, 거 테우엔 돗은 읏어마씨.(예, 돛 없습니다, 떼엔 돛은 없어요.)

105010 @ 돗이 엇고? 게믄 저 노, 노로만 저어?(돛이 없고? 그러면 저 노, 노로만 저어?)

105010 #1 예, 예. 목선에 돗도 잇고.(예, 예. 목선에 돛도 있고.)

105010 @ 돗대 잇고. 이 테우는 노로만 저어예?(돛대 있고. 이 떼는 노로만 저어요?)

105010 #1 예, 예.(예, 예.)

105010 @ 음, 노로만 저엇구나.(음, 노로만 저었구나.)

105010 #1 허고 먼 거리 아니난, 가까운 디난.(하고 먼 거리 아니니까, 가까운 데니까.)

105010 @ 가까운 디난. 그 갯바위에서 고기 나끄고 헤낫수가?(가까운 데니까. 그 갯바위에서 고기 낚고 했었습니까?)

105010 #1 예, 갯바우에서 나끄는 궤기는 그 저 ᄇᆞ들레기라든지 코셍이, ᄯᅳ로우럭, 준 우럭이라든지 코셍이, 이런 것덜 대게 그 저 해수욕 가멍 아침부떠 그, 요즘은 학교덜 가단 보난 영 허니까 헤도 그 전엔 노는 날 뒈믄 촘대 들렁 궤기 나끄레 다녀낫수다.(예, 갯바위에서 낚는 고기는 그 저 베도라치라든지 용치놀레기, 또 우럭, 잔 우럭이라든지 '용치놀레기', 이런 것들 대개 그 저 해수욕 가면서 아침부터 그, 요즘은 학교에들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해도 그 전에는 노는 날 되면 낚싯대 들러서 고기 낚으러 다녔었습니다.)

105010 @ 음. 개ᄀᆞ디 강은에예. 예, 거 뭐 니껍은 뭘로 헤낫수가?(음. 갯가에 가서요. 예, 거 뭐 미끼는 무엇으로 했었습니까?)

105010 #1 니껍은 저 게시리라고 허여 가지고 이디 ᄀᆞ뜨면 밧디 가믄 게우리 ᄀᆞ튼 것이 싯수다게.(미끼는 저 갯지렁이라고 하여 가지고 여기 같으면 밭에 가면 지렁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105010 @ 지렁이?(지렁이?)

105010 #1 예, 예. 지렁이 닮은 거.(예, 예. 지렁이 같은 거.)

105010 @ 게난 겟지렁이예?(그러니까 갯지렁이요?)

105010 #1 예, 예. 그런 걸로 허영 소금 ᄒᆞ끔 ᄀᆞ정 강 깡통에 놧당 그레 담아 놓

178) '비양도'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앞에 있는 섬이다.

믄, 경 헹 그걸로 많이 헷수다, 이껍을.(예, 예. 그런 것으로 해서 소금 조금 가져서 가서 깡통에 놨다가 그리 담아 넣으면, 그렇게 해서 그걸로 많이 했습니다, 미끼를.)

105010 @ 음. 큰 궤기는 잡아본 적이 엇고?(음. 큰 고기는 잡아본 적이 없고?)

105010 #1 큰 궤기옌 헤도 이 아레 그냥 나끄는 것은 저 우럭, 재수 좋은 날은 북바리.(큰 고기라고 해도 이 아래 그냥 낚는 것은 저 우럭, 재수 좋은 날은 별우럭.)

105010 @ 아이고, 북바리.(아이고, 별우럭.)

105010 #1 예, 이런 것도 나까나고 헷수다.(예, 이런 것도 낚았었고 했습니다.)

105010 @ 북바린 어디에 납니까? 그냥.(별우럭은 어디에 납니까? 그냥.)

105010 #1 것도 역시 저 바닷가에서, 곳바당에서 납니다.(그것도 역시 저 바닷가에서, 바닷가에서 납니다.)

105010 @ ᄇᆞ들레긴 돌 트망에서 나고예?(베도라치는 돌 틈에서 나고요?)

105010 #1 예, 제일 쉬운 건 ᄇᆞ들레기 나끔이 제일 쉬웁주기. 건 고망마다 미쭉미쭉 나오는 거니까.(예, 제일 쉬운 건 베도라치 낚기가 제일 쉽지요. 건 구멍마다 미죽미죽 나오는 삐쭉삐쭉 나오는 거니까.)

105010 @ 아.(아.)

105010 #1 그 보멀 잡을 때도 ᄇᆞ들레기덜 많이 이십주게. 경 헤 가지고 ᄒᆞ끔 지픈 디 강, 쉬운 것이 저 ᄇᆞ들레기 나끔이라마씨.(그 고둥 잡을 때도 베도라치들 많이 있습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깊은 데 가서, 쉬운 것이 저 베도라치 낚기야.)

105010 @ 뭐, 술멩이?(뭐, 용치놀레기.)

105010 #1 예, 술멩이, 술멩이도 허곡 껙주리 좀 나믄 허고.(예, 용치놀레기도 하고 쥐치 좀 나면 하고.)

105010 @ 껙주리, 따치도 올라옵니까?(쥐치, 독가시치도 올라옵니까?)

105010 #1 따치도 간혹 올라옵니다.(독가시치도 간혹 올라옵니다.)

105010 @ 게믄 그건 잡아당은에 다 그자 국 헤 먹고, 훼로도 먹어낫수가?(그러면 그건 잡아다가 다 그저 국 해 먹고, 회로도 먹었었습니까?)

105010 #1 예.(예.)

105010 @ 어떤 건 훼로 먹읍니까?(어떤 건 회로 먹습니까?)

105010 #1 훼 그 저 술멩이라든지, ᄄᆞ로 껙주리 이런 건 훼 좋읍니다. ᄄᆞ로 저 이 ᄇᆞ들레기 ᄀᆞ뜬 것도 훼로 먹습니다, 뭐.(회 그 저 용치놀레기라든지, 또 쥐치 이런 건 회 좋습니다. 또 저 이 베도라치 같은 것도 회로 먹습니다, 뭐.)

105011 @ 게난 낚시질 대는 어떵 만들안 써낫수가?(그러니까 낚시질 대는 어떻게 만들어서 썼었습니까?)

105011 #1 낚시질마씨?(낚시질요?)

105011 @ 낚시, 낚시대랑 낚시줄 뭐 이런 거를 어떤 걸 가지고 써낫수가?(낚시, 낚싯대랑 낚싯줄 뭐 이런 거를 어떤 걸 가지고 썼었습니까?)

105011 #1 줄, 그건 저 점방에 강 삽니다.(줄, 그건 저 점방에 가서 삽니다.)
105011 @ 철물점 같은 디?(철물점 같은 데?)
105011 #1 예, 예.(예, 예.)
105011 @ 낚시는?(낚시는?)
105011 #1 낚시도 그 철물점 ᄀᆞ뜬 디 강 사고.(낚시도 그 철물점 같은 데 가서 사고.)
105011 @ 사고? 게믄 낚시대는?(사고? 그러면 낚싯대는?)
105011 #1 낚시대는 이디 집이 잇는 대나무로 헙주게. 든든허고 집이 거 헹.(낚싯대는 여기 집에 있는 대나무로 하지요. 단단하고 집에 거 해서.)
105011 @ 게난 그거 저 뽕돌은 거기서 사고?(그러니까 그거 저 봉돌은 거기서 사고?)
105011 #1 예, 뽕돌도 삿수다. 뽕돌도 사는디 전인 그게 사는 돈도 어렵고 허니까 그 놋수까락 바로 꺼껴진 거 ᄀᆞ튼 걸로.(예, 봉돌도 샀습니다. 봉돌도 사는데 전에는 그게 사는 돈도 어렵고 하니가 그 놋숟가락 바로 꺾어진 거 같은 것으로.)
105011 @ 숟가락?(숟가락?)
105011 #1 예, 이런 거 무껑도 뽕돌 헤낫수다만은.(예, 이런 거 묶어서도 봉돌 했었습니다만.)
105011 @ 숟가락이 영 긴 거?(숟가락이 이렇게 긴 거?)
105011 #1 ᄌᆞ룩 꺼꺼진 거는.(자루 꺾어진 거는.)
105011 @ 아, 아, ᄌᆞ룩 꺼꺼진 거예?(아, 아, 자루 꺾어진 거요?)
105011 #1 예, 그걸로도 헤십주기.(예, 그걸로도 했습지요.)
105011 @ 뽕돌을?(봉돌을?)
105011 #1 그 옛날사 뽕돌 살 돈도 엇어근에. 허허.(웃음)(그 옛날이야 봉돌 살 돈도 없어서. 허허.(웃음))
105012 @ 혹시 바당속에 들어강 작살로 궤기도 쏘아낫수가?(혹시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살로 고기도 쏘았었습니까?)
105012 #1 난 그건 안 헷수다만은 이디 그런 사름덜 합니다.(난 그건 않았습니다만 여기 그런 사람들 합니다.)
105012 @ 여기도예?(여기도요?)
105012 #1 예.(예.)
105012 @ 게난 건 작살로 물안경 썽 들어강은에 잡아 오는구나예?(그러니까 건 작살로 물안경 써서 들어가서 잡아 오는군요?)
105012 #1 예.(예.)
105013 @ 고깃베는 아까 저 테우도 잇고, 그다음 다른 베, 어떤 베들이 잇엇수가?(고깃배는 아까 저 떼도 있고, 그다음 다른 배, 어떤 배들이 있었습니까?)
105013 #1 그 전이는 풍선, 그 먼 바다꺼지도 지금 저 발동기덜토 나오고 기계덜도 나오난 헴주, 풍선 타고 헤 가지고 이건 순전이 돗대를 달아 가지고 ᄇᆞ름에

따라 이용헤 가지고 나가는 건디.(그 전에는 돛단배, 그 먼 바다까지도 지금 저 발동기들도 나오고 기계들도 나오니까 하고 있지, 돛단배 타고 해 가지고 이건 순전히 돛대를 달아 가지고 바람에 따라 이용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105013 @ 그걸 풍선이렌 헷수가?(그걸 돛단배라고 했습니까?)

105013 #1 예, 풍선.(예, 돛단배.)

105013 @ 음, 또?(음, 또?)

105013 #1 풍선허고 뚜로 저 테우, 테우허고, 또 그것이 ᄒᆞ끔 더 발달헤 가고 허니까 저 이 고깃베, 것들이 나오라십주.(돛단배하고 또 저 떼, 떼하고, 또 그것이 조금 더 발달해 가고 하니까 저 이 고깃배, 그것들이 나왔습지요.)

105013 @ 통통베, 통통베는 건 엔진 메달앙 허는 거고.(통통배, 통통배는 건 엔진 매달아서 하는 거고.)

105013 #1 예, 예.(예, 예.)

105014 @ 그 해녀들예, 줌녜는 뭐렌 헷수가?(그 해녀들요, '줌녜'는 뭐라고 했습니까?)

105014 #1 줌녜마씀.('줌녜'요.)

105014 @ 줌녜렌 헷지예?('줌녜'라고 했지요?)

105014 #1 예, 예.(예, 예.)

105014 @ 이 줌녜를, 여기도 줌녜가 잇어낫수가?(이 해녀를, 여기도 해녀가 있었습니까?)

105014 #1 예.(예.)

105014 @ 게믄 이 줌녜들은 이 동네에선 뭘 채취헤낫수가?(그러면 이 해녀들은 이 동네에선 뭘 채취했었습니까?)

105014 #1 거의 다 미역 채취를 많이 헙니다.(거의 다 미역 채취를 많이 합니다.)

105014 @ 미역?(미역?)

105014 #1 미역 채취허고, 뚜로 그 가을 들면 가근에 이른 봄 뒈면은 해녀덜이 육지 물질 가 가지고 돈 벌어오고.(미역 채취하고, 또 그 가을 들면 가서 이른 봄 되면은 해녀들이 육지 물질 가 가지고 돈 벌어오고.)

105014 @ 여긴 뭐 전복이나 소라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잡지 못헷구나예?(여긴 뭐 전복이나 소라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잡지 못했군요?)

105014 #1 아니, 그런 것도 바당에 강 재수가 좋은 날은 전복 ᄀᆞ뜬 것도 잡을 수 잇고, 뚜로 문어 ᄀᆞ뜬 것도 잡고. 그 문어 ᄀᆞ뜬 것도 잡으면은 그 이녁 먹을 것도 아까와 가지고 그 어부덜안티 니껍으로, 니껍으로 그 저 이 문어 ᄀᆞ뜬 건 풀고, 문어 ᄀᆞ뜬 건 풀고 나머지는 그 저 그 푼 돈으로 고기도 사당 먹고. 또 바꿈도 허고. 물꾸럭 심엉 당신네 미끼로 줄 테니까 요거 하나면 크니까 저 고기를 멧 개를 달라 허영.(아니, 그런 것도 바다에 가서 재수가 좋은 날은 전복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고, 또 문어 같은 것도 잡고. 그 문어 같은 것도 잡으면은 그 이녁 먹을 것도 아

까워 가지고 그 어부들한테 미끼로, 미끼로 그 저 이 문어 같은 건 팔고, 문어 같은 건 팔고 나머지는 그 저 그 판 돈으로 고기도 사다가 먹고. 또 바꾸기도 하고. 문어 잡아서 당신네 미끼로 줄 터이니까 요거 하나면 크니까 저 고기를 몇 개를 달라 해서.)

105014 @ 바꿔치기를 허는 거예?(바꾸기를 하는 거요?)

105014 #1 예, 예.(예, 예.)

105014 @ 물물교환?(물물교환?)

105014 #1 예.(예.)

105014 @ 그 좀네, 그 해녀덜은 지금도 잇수가?(그 해녀, 그 해녀들은 지금도 있습니까?)

105014 #1 지금은 뭐 읏수다.(지금은 뭐 없습니다.)

105014 @ 언제까지 잇어낫수가?(언제까지 있엇습니까?)

105014 #1 아마도 그 그게 흔 팔십 년 초반꺼진 잇어낫수다.(아마도 그 그게 한 팔십 년 초반까지 있었습니다.)

105014 @ 팔십 년대? 그때까지는 육지도 올라강 물질 헹 오고.(팔십 년대? 그때까지는 육지도 올라가서 물질 해서 오고.)

105014 #1 예.(예.)

105014 @ 어디 외국, 일본도 가나신가마씨?(어디 외국, 일본도 갔었나요?)

105014 #1 일본은 아이 가고 대게 포항이라든지 그 저 경상도로 많이 가낫수다.(일본은 아니 가고 대개 포항이라든지 그 저 경상도를 많이 갔었습니다.)

105014 @ 전라도 쪽은 안 가고?(전라도 쪽은 안 가고?)

105014 #1 예.(예.)

105014 @ 포항, 영덕 뭐 이쪽이구나?(포항, 영덕 뭐 이쪽이구나?)

105014 #1 예.(예.)

105014 @ 그디 가믄 돈덜 하영 벌엉 왓덴 헙니까?(거기 가면 돈들 많이 벌어서 왔다고 합니까?)

105014 #1 예, 강덜. 허허허.(웃음) 벌엉 오는 사름도 싯고, 돈 벌레 가난게 ᄒᆞ끔 벌어십주게.(예, 가서들. 허허허.(웃음) 벌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돈 벌러 가니까요 조금 벌었습지요.)

105014 @ 그땐 뭐 아기덜도 데령 갑니까?(그땐 뭐 아기들도 데려서 갑니까?)

105014 #1 아니.(아니.)

105014 @ 아이덜 안 데령간예? 자기만예?(아이들 안 데려갔어요? 자기만요?)

105014 #1 예.(예.)

105015 @ 그 좀녀들은 물질헐 때 어떤 것들,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잇어낫수가?(그 해녀들은 물질할 때 어떤 것들,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5015 #1 도구라고 치고 뭐 테왁[179]허고, ᄯᅳ로 그 저 빗창[180]이엔 헤 가지고

179) '테왁'은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이다.

전복 ᄀᆞ뜬 것 떼는 거 잇고.(도구라고 치고 뭐 '테왁'하고, 또 그 저 '빗창'이라고 해 가지고 전복 같은 것 떼는 거 있고.)

105015 @ 거 뭐 떼엉 해산물 담는 거는 뭐렌?(거 뭐 떼어서 해산물 담는 거는 뭐라고?)

105015 #1 게메, 것ᄀᆞ라 테왁.(글쎄, 것더러 '테왁'.)

105015 @ 테왁, 테왁이엔 허고예.('테왁', '테왁'이라고 하고요.)

105015 #1 게난 그 전이는 미[181]를 빠다가 막 ᄀᆞ늘게 헤 가지고 거 테왁 헤낫는디, 그물덜로 행은에 그걸.(그러니까 그 전에는 '미'를 빼다가 아주 가늘게 해 가지고 거 '테왁' 했었는데, 그물들로 해서 그걸.)

105015 @ 음, 그물로. 테왁은 뭘로 만들엇수가?(음, 그물로. '테왁'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5015 #1 테왁은 이제는 뭐 저 스티로폴 ᄀᆞ뜬 거 나와 가지고 허는디 지금 그 저 ᄏᆞᆯ락박세기[182]라 헤 가지고 테왁 만드는 거 싯고, 호박ᄀᆞ찌 뒌 건디. 그걸 집집마다 잘 뒈는디 이염에 싱것수다.('테왁'은 이제는 뭐 저 스티로폼 같은 거 나와 가지고 하는데 지금 그 저 'ᄏᆞᆯ락박세기'라 해 가지고 '테왁' 만드는 거 있고, 호박같이 된 건데. 그걸 집집마다 잘 되는데 옆에 심었습니다.)

105015 @ 박을?(박을?)

105015 #1 예, 박을 싱그면은 그걸 가지고 이것을 ᄃᆞᆫ든허게 허기 위헤서는 그 저 ᄀᆞ실 때 익어가면은 그레 감주도 뿌리곡예.(예, 박을 심으면은 그걸 가지고 이것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저 가을 때 익어가면은 그리 감주도 뿌리고.)

105015 @ 감주?(감주?)

105015 #1 예.(예.)

105015 @ 건 무사마씨?(건 왜요?)

105015 @ 경 허믄 그거 박이 더 단단헤진다 헤 가지고.(그렇게 하면 그거 박이 더 단단해진다 해 가지고.)

105015 @ 감주, 술?(감주, 술?)

105015 #1 아니, 술 아니고 거 감주엔 헌 건 골 놔 가지고 그 저.(아니, 술 아니고 거 감주라고 한 건 엿기름 놔 가지고 그 저.)

105015 @ 아, 예, 예. 골 놔 가지고 먹는 거?(아, 예, 예. 엿기름 놔 가지고 먹는 거?)

105015 #1 예, 예.(예, 예.)

105015 @ 요즘 그 저 음료, 음료수로 나오는 거. 골로 만든 감주?(요즘 그 저 음료, 음료수로 나오는 거.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

105015 #1 예, 예.(예, 예.)

105015 @ 그걸 뿌렷다고예?(그걸 뿌렸다고요?)

---

180) '빗창'은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이다.
181)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182) 'ᄏᆞᆯ락박세기'는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이다.

105015 #1 그런 걸 뿌리면은 것이 크든지 막 익도록 놔뒀당 그것이 든든허면 그걸 허여마씨.(그런 걸 뿌리면은 것이 크든지 막 익도록 놔뒀다가 그것이 단단하면 그걸 해요.)

105015 @ 음, 그 외 뭐 해녀덜 옷은 어떤, 뭣을 입언?(음, 그 외 뭐 해녀들 옷은 어떤, 뭣을 입었어?)

105015 #1 옷은 그 나중에 해녀복이 나왓주만은 그 전이는 저 뭣고 속옷.(옷은 그 나중에 해녀보이 나왔지만 그 전에는 저 뭣이지 속옷.)

105015 @ 소중의?(속옷?)

105015 #1 예, 소중기옌도 허고 속옷이엔 허여.(예, '소중기'라고도 하고 '속옷'이라고도 해.)

105015 @ 속옷, 속옷이엔 허고.(속옷, 속옷이라고 하고.)

105015 #1 그거 허영 그 저 일반 속옷 ᄀᆞ뜬 거 ᄀᆞ치 고무 놩 헌 것이 아니라, 거 끈으로 든든이 메어지고 그디 옆으로는 돌마기라 허여 가지고 집이서 만들앙 단추덜이영, 단추 돌앙 영 옆갈리에 맞읍주기.(그거 해서 그 저 일반 속옷 같은 거 같이 고무 놔서 한 것이 아니라, 거 끈으로 단단히 매어지고 거기 옆으로는 매듭단추라 해 가지고 집에서 만들어서 단추들이랑, 단추 달아서 이렇게 옆구리에 맞읍지요.)

105015 @ 아, 단추 메영은에?(아, 단추 매어서?)

105015 #1 예, 예.(예, 예.)

105015 @ 딱 부트게예.(딱 붙게요.)

105015 #1 바당에 강 불턱[183]이라고 허여 가지고.(바다에 가서 '불턱'이라고 해 가지고.)

105015 @ 불턱?('불턱'?)

105015 #1 예. 그 동리마다 가멍은 니 철 나도 바다에 들어가믄 추울 거니까 지들커 ᄀᆞ뜬 거 ᄀᆞ찌 졍 갑니다.(예. 그 동리마다 가면서는 네 철 나도 바다에 들어가면 추울 거니까 땔감 같은 거 같이 져서 갑니다.)

105015 @ 아.(아.)

105015 #1 졍 가 놩 물에 들어갓당 나오민 ᄯᅳ로 불덜 쪼일 겁주게.(져서 가 놔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또 불들 쬘 거지요.)

105015 @ 불 쪼인 다음에 또 들어가고예?(불 쬔 다음에 또 들어가고요?)

105015 #1 예.(예.)

105015 @ 불 쬐영 들어가고. 그 물안경은 따로 뭐렌 헷수가?(불 쬐어서 들어가고. 그 물아경은 따로 뭐라고 했습니까?)

105015 #1 물안경은 따로 별다른 이름이 엇엇수다.(물안경은 따로 별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183) '불턱'은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해 간 땔감으로 불을 지펴서 쬐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이다.

105015 @ 것도 옛날부떠 만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헤신고예?(것도 옛날부터 만드는 과정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5015 #1 건 이디서는 직접 만들 수가 엇입주기. 그 저 어디 점빵이라든지 강 사십주기.(건 여기서는 직접 만들 수가 없습지요. 그 저 어디 점방이라든지 가서 샀습지요.)

105015 @ 음.(음.)

105015 #1 건 농촌에 사름덜쯤은 물안경은 만들지 못헙니다, 뭐. 눈에 딱 부떠 사 헐 것이고. 고무줄 ᄀᆞ뜬 건 그때, 그때 사 가지고.(건 농촌에 사람들쯤은 물안경은 만들지 못합니다, 뭐. 눈에 딱 붙어야 할 것이고. 고무줄 같은 건 그때, 그때 사 가지고.)

105015 @ 해녀 입는 옷은 위에 거, 아래 거?(해녀 입는 옷은 위에 거, 아래 거?)

105015 #1 소중기.(속옷.)

105015 @ 소중기?(속옷?)

105015 #1 소중기 허믄 위엔 샤쓰 입곡 아렌 소중기로 헹 가심ᄁᆞ지도 잘헹 우로 입읍니다.(속옷 하면 위엔 셔츠 입고 아래는 속옷으로 해서 가슴까지도 잘해서 위로 입습니다.)

105016 @ 게난 요새에는 해녀덜이 아까 예기헷지만 테왁이 아니라 그 스치로폴 닮은 거, 걸로 헤서 만든 거예, 동그랑허게 만든 거예?(그러니까 요새에는 해녀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테왁'이 아니라 그 스티로폼 같은 거, 걸로 해서 만든 거요, 둥글게 만든 거요?)

105016 #1 예.(예.)

105016 @ 걸로 허는데 과거에는 테왁을 그 박을 가지고 헷는데, 그걸 만들엇다 허는 거네예?(걸로 하는데 과거에는 '테왁'을 그 박을 가지고 했는데, 그걸 만들었다 하는 거네요?)

105016 @ 예, 요새는 게난 여기는 해녀가 바당에서 허는 일은 못 보겟네예?(예, 요새는 그러니까 여기는 해녀가 바다에서 하는 일은 못 보겠네요?)

105016 #1 예.(예.)

105016 @ 요새는예.(요새는요.)

105016 #1 게난 이건 헤변 가사덜 잘 압주게.(그러니까 이건 해변 가야 잘 알지요.)

105017 @ 하하하,(웃음) 게니까마씨. 그 아까 해녀들이 입는 물옷이 언제부떠 바뀌어졋수가?(하하하,(웃음) 그러니까요. 그 아까 해녀들이 입는 물옷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105017 #1 언제, 꼭 언제부떠 바뀌엇다고는 그건 단정할 순 엇어마씨. 겐디 저것이 야튼 군사혁명 나기 전ᄁᆞ지는 다 그 해녀 속옷, 소중기.(언제, 꼭 언제부터 바뀌었다고는 그건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것이 아무튼 군사혁명 나기 전까지

는 다 그 해녀 속옷, 속옷.)

105017 @ 소중기를 입고.(속옷을 입고.)

105017 #1 예, 걸로 입어십주.(예, 걸로 입었습지요.)

105017 @ 그다음 이제 고무옷 나온 거는?(그다음 이제 고무옷 나온 거는?)

105017 #1 야튼 군사혁명 이후라낫수다.(아무튼 군사혁명 이후였습니다.)

105017 @ 고무옷이예?(고무옷이요?)

105017 #1 예.(예.)

105017 @ 아메도 고무옷이 보온은 잘 뒐 거 아니라예?(아무래도 고무옷이 보온은 잘 될 거 아니야?)

105017 #1 게고 뚜로 어디 다치지도 아니 허고.(그리고 또 어디 다치지도 않고.)

105018 @ 냄새는 나도예? 그 톳은 여기 채취헤낫수가? 톳은.(냄새는 나도요? 그 톳은 여기 채취했었습니까? 톳은.)

105018 #1 예, 톳은 그때는 그 저 일본 수출도 많이 허고 헤십주만은 그렇게 그 저 아레서가 귀중이 여기질 안 헤낫수다. 나중엔 저것이 아주 화학 원료로도 쓰고 허니까 톳을 귀중이 여겻주만은, 전이는 미역을 대중 중히 여겻수다.(예, 톳은 그때는 그 저 일본 수출도 많이 하고 했습지만 그렇게 그 저 아래서가 귀중히 여기질 않았습니다. 나중엔 저것이 아주 화학 원료로도 쓰고 하니까 톳을 귀중히 여겼지만, 전에는 미역을 대중 중히 여겼습니다.)

105018 @ 아, 아, 톳은 별로 먹을 거로 셍각을 안 헤난마씨?(아, 아, 톳은 별로 먹을 거로 생각을 안 했어요?)

105018 #1 예, 먹긴, 허여당 먹으면서도 건 그렇게 많이 허질 안 헤십주기.(예, 먹긴, 해다가 먹으면서도 건 그렇게 그렇게 많이 안 했습지요.)

105018 @ 음.(음.)

105018 #1 겐디 아까 저것이 저 그 화학 원료로 쓰게 뒈니까 톳도 해경헤나십주. 딱 일정한 시기에 언제부떠랑 허라, 그레 가지고 걸 기흔을 두어서마씨.(그런데 아까 저것이 저 그 화학 원료로 쓰게 되니까 톳도 '해경'하였습지요. 딱 일정한 시기에 언제부터랑 하라, 그래 가지고 걸 기한을 뒀어요.)

105018 @ 톳은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신고예? 뭘, 화학 원료가 뭐라나신고마씨?(톳은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지요? 뭘, 화학 원료가 뭐였지요?)

105018 #1 화학 원료는 그 저 풀아부니까 뭣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그 저 약 원료로 들어가고 영 헙니다만은, 겐 톳은 그레도 들어가고 집에서는 허여다가 저 여름철에 냉장고 국이라든지 반찬으로 대게 냉국덜을 많이 헨 먹어십주.(화학 원료는 그 저 팔아버리니까 뭣을 만드는지는 몰라도 그 저 원료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톳은 그래도 들어가고 집에서는 해다가 저 여름철에 냉장고 국이라든지 반찬으로 대개 냉국들을 많이 해서 먹었습지요.)

105018 @ 게난 톳이나 뭐, 모든 게 다 해경허믄 들어강 잡는디.(그러니까 톳이나 뭐, 모든 게 다 '해경'하면 들어가서 잡는데.)

105018 #1 예, 예.(예, 예.)

105018 @ 그걸 공동으로 잡는 건 아니고, 각자가?(그걸 공동으로 잡는 건 아니고, 각자가?)

105018 #1 예, 각자가 잡는 거.(예, 각자가 잡는 거.)

105018 @ 각자가 알앙 잡는 거예, 자기만씩예?(각자가 알아서 잡는 거요, 자기만씩요?)

105018 #1 예.(예.)

105019 @ 그 우미 잇지 안 허우꽈? 우미도 여기서 채취를 헤낫수가?(그 우뭇가사리 있지 않습니까? 우뭇가사리도 여기서 채취를 했었습니까?)

105019 #1 예, 우미 채취헙니다. 우미는 으름 나민 우미 우렁 뚜로 저 시원이 저.(예, 우뭇가사리 채취합니다. 우무는 여름 나면 우뭇가사리 우려서 또 저 시원히 저.)

105019 @ 냉국.(냉국.)

105019 #1 냉국도 헹 먹곡 헙니다.(냉국도 해서 먹고 합니다.)

105019 @ 아, 거난 그거 우미 만들어가지고예?(아, 그러니까 그거 우무 만들어서요?)

105019 #1 예, 예.(예, 예.)

105019 @ 것도 채취허는 거는 뭐?(것도 채취하는 거는 뭐?)

105019 #1 것도 역시 저 지금은 우미도 흔뻔에 채취헙니다만은 그 전엔 그런 걸 소소헌 것은 저 그 자유로 채취헤나십주게.(것도 역시 저 지금은 우뭇가사리도 한번에 채취합니다만 그 전에는 그런 걸 사소한 것은 저 자유로 채취했었습지요.)

105019 @ 음, 게난 저기 해경 시기가 없이 아무 때나?(음, 그러니까 '해경' 시기가 없이 아무 때나?)

105019 #1 예, 예.(예, 예.)

105019 @ 거난 아무 때나 올라옵니까? 그거는.(그러니까 아무 때나 올라옵니까? 그거는.)

105019 #1 아니우다, 봄 나믄, 겨울 키왕 봄 나민 거 톳 ᄀᆞ뜬 것도 막 자랍니다게, 막 자라면 걸 그냥 비어다가 뚜로 ᄆᆞᆯ리와두면 그걸 뚜로 그 냉국 ᄀᆞ슴으로도 먹고 또 허는디.(아닙니다. 봄 나면, 겨울 키워서 봄 나면 톳 같은 것도 마구 자랍니다, 마구 자라면 걸 그냥 베어다가 또 말려두면 그걸 또 그 냉국 감으로도 먹고 또 하는데.)

105019 @ 좌우지간 봄이 나사 그거를 채취허는구나예?(좌우지간 봄이 나야 그거를 채취하는군요?)

105019 #1 예, 겨울철이도 막 븐 날은?(예, 겨울철에도 아주 날씨 좋은 날은?)

105019 @ 븐 날이엔 헌 거는?(날씨 좋은 날이라고 한 거는?)

105019 #1 일기가 영 ᄇᆞ름 아이 불고, 물결이 잔잔헌 날은.(일기가 이렇게 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잔잔한 날은.)

105019 @ 본 날.(날씨가 좋은 날.)

105019 #1 그때덜은 저기 저 바다에덜 갑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마늘 작업 겨울엔 허여도 그 옛날은 농한기 때에는 일헐 일이 엇입주기. 허허.(웃음) 게믄 그때.(그때들은 저기 저 바다에들 갑니다. 요즘은 이것저것 마늘 작업 겨울엔 하여도 그 옛날은 농한기 때에는 일할 일이 없었지요. 허허.(웃음) 그러면 그때.)

105019 @ 게난 바다에 가는구나.(그러니까 바다에 가는구나.)

105019 #1 바다에 가서 먹을 것도 어렵고 허니까게, 바다에 가서.(바다에 가서 먹을 것도 어렵고 하니까요, 바다에 가서.)

105019 @ 바당 쎄지 안 헌 날예?(바다 세지 않은 날요?

105019 #1 예.(예.)

105020 @ 전복이나 소라 같은 거는 그 양식을 허나 허진 안앗지예?(전복이나 소라 같은 거는 그 양식을 하나 하진 않았지요?)

105020 #1 예, 양식 읏엇수다.(예, 양식 없었습니다.)

105020 @ 그러면?(그러면?)

105020 #1 양식은 근래입주게, 양식헌다는 게.(양식은 근래이지요, 양식한다는 게.)

105020 @ 거난 그 당시에는 전복, 소라는 하영 잡질 못헷지예?(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전복, 소라는 많이 잡지를 못했지요?)

105020 #1 예, 그 저 요즘은 양식허니까 많이 헤도, 그추룩 하영 잡지 못헤십주기.(예, 그 저 요즘은 양식하니까 많이 해도, 그처럼 많이 잡지 못했습지요.)

105020 @ 게믄 그 전복은 잡으믄 뭘 어떵, 풀앗수가? 그냥.(그러면 그 전복은 잡으면 뭘 어떻게, 팔았습니까? 그냥.)

105020 #1 전복은 잡으믄 그걸 귀이 여겨 가지고 아이덜, 어린아이덜이라든지 이렇게 허면은 그 저 죽 쒕 먹곡양, 아이덜.(전복은 잡으면 그걸 귀히 여겨 가지고 아이들, 어린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저 죽 쒀서 먹고요, 아이들.)

105020 @ 전복죽 쒀 주고?(전복죽 쒀 주고?)

105020 #1 예, 예. 춤지름 ᄒᆞ끔 놓고 헹은에게 헹 줫수게, 뭐. 그 나머지는 저 대게는 집이 겆당 먹습니다, 뭐.(예, 예. 참기름 조금 넣고 해서요 해서 줬습니다, 뭐. 그 나머지는 집에 갖다가 먹습니다, 뭐.)

105020 @ 집이 겆당 먹고, 풀지 안 허고예?(집에 갖다가 먹고, 팔지 않고요?)

105020 #1 예.(예.)

105020 @ 구젱기도예?(소라도요?)

105020 #1 예.(예.)

105020 @ 게난 솖앙 먹거나, 죽 쒕 먹거나 영 허는구나예?(그러니까 삶아서 먹거나, 죽 쒀서 먹거나 이렇게 하는군요?)

105020 #1 예.(예.)

105020 @ 그 전복 이게 전복 암수가 잇수가?(그 전복 이게 전복 암수가 있습니

까?)

105020 #1 우린 잘 몰릅니다만은 그 저 전복이나 구젱기, 소라나 다 암컷, 수컷덜 다 압니다.(우린 잘 모릅니다만 그 저 전복이나 소라, 소라나 다 암컷, 수컷들 다 압니다.)

105020 @구별허는 사름덜 잇구나예?(구별하는 사람들 있군요?)

105020 #1 예, 예.(예, 예.)

105020 @ 잘 구별은 안 뒈고예?(잘 구별은 안 되고요?)

105020 #1 나는 구별을 못허여도.(나는 구별을 못해도.)

105020 @ 아, 구별은 안 뒈.(아, 구별은 안 되.)

105020 #1 그 웨에 사름덜은 그 저 비양도 ᄀᆞ뜬 디 잇는 사름덜은 다 구별을 허여마씨. 이 저 새벨오름[184] 들불축제 때 막 강 구젱기 궈 놓으믄, 이건 수커여, 암커여.(그외에 사람들은 그 저 비양도 같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구별을 해요. 이 저 '새벨오름' 들불축제 때 마구 가서 소라 구워 놓으면, 이건 수컷이야, 암컷이야.)

105020 @ 수커, 암커를 알아마씨?(수컷, 암컷을 알아요?)

105020 #1 예, 압니다.(예, 압니다.)

105020 @ 게 전복하고 오분제기는 구별을 어떵 허는고마씨?(그래 전복하고 오분자기는 구별을 어떻게 하는가요?)

105020 #1 대충 그 저 간단히 말허믄 전복은 ᄒᆞ끔 거무시름허고 많이 크곡, 그 저 오분제기옌 헌 건 동글동글헌 게 족곡 색깔이 ᄉᆞ뭇 검질 아이헙니다.(대충 그 저 간단히 말하면 전복은 조금 거무스름하고 많이 크고, 그 저 오분자기라고 한 건 동글동글한 게 작고 색깔이 사뭇 검질 않습니다.)

105020 @ 그 숨구멍 숫자가 다르지 안 헙니까?(그 숨구멍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105020 #1 예.(예.)

105020 @ 전복 숨구멍은?(전복 숨구멍은?)

105020 #1 예, 그런 것도 잇어도 난 그걸 못 봐봇수다게. 허허허.(웃음)(예, 그런 것도 있어도 난 그걸 못 봐봤습니다. 허허허.(웃음))

105021 @ 아까 그 테우예, 테우에 대헤서 좀더 아는 거 잇수가?(아까 그 떼요, 떼에 대해서 좀더 아는 거 있습니까?)

105021 #1 테우는 거 예로부떠 나무를 열 개 허여 가지고 하나로 탁 뭉쳥은에 그 우에 그냥 잡아나십주게.(떼는 거 예로부터 나무를 열 개 하여 가지고 하나로 탁 뭉쳐서 그 위에 그냥 잡았었습지요.)

105021 @ 게난 어떤 나무 썻수가?(그러니까 어떤 나무 썼습니까?)

105021 #1 대게 그 백양목이란 나무가 잇엇수다.(대개 그 백양목이란 나무가 있었습니다.)

105021 @ 백양목?(백양목?)

184) '새벨오름'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의 시온목장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다.

105021 #1 예, 곱게 올르고 빨리 자라고. 뚜로 거 그대로 가질 꺼꺼서 심어도 살고. 이런 나문디 그게 바당에 놓면은 멧 십 년이라도 가고.(예, 곱게 오르고 빨리 자라고. 또 거 그대로 가질 꺾어서 심어도 살고 이런 나문데 그게 바다에 놓으면 몇 십 년이라도 가고.)

105021 @ 아.(아.)

105021 #1 게난 그 저 그런 걸로 테우를.(그러니까 그 저 그런 걸로 떼를.)

105021 @ 열 개를 무꺼예?(열 개를 묶어요?)

105021 #1 열 개를 무껑.(열 개를 묶어서.)

105021 @ 뭘로, 밧줄은 뭘로 무끕니까?(무엇으로, 밧줄은 무엇으로 묶습니까?)

105021 #1 밧줄로도 무끄뒈 가운딜로 고망 뚤란에 낭을 다 까끕니다.(밧줄로 묶되 가운데로 구멍 뚫어서 나무를 다 깎습니다.)

105021 @ 아, 나무 가운디 고망 뚤랑.(아, 나무 가운데 구멍 뚫어서.)

105021 #1 예. 경 헤근에 양 끗드로 멧 반디 영 박으민 거 움직거리질 안 헙주게.(예. 그렇게 해서 양 끝으로 몇 곳에 이렇게 박으면 거 움직거리질 않지요.)

105021 @ 그러면 그렇게 열 개하고 그거 테두리 뭘로 영?(그러면 그렇게 열 개하고 그거 테두리를 무엇으로 이렇게?)

105021 #1 예. 그것도 역시 그 우터레 고기 잡아논다던지 영 헐 거니까 알 테두리 니기반득허게 헹 만들아 놓읍니다.(예. 그것도 역시 그 위로 고기 잡아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거니까 아래 테두리 네 귀 반듯하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105021 @ 알러레?(아래로?)

105021 #1 목수덜이.(목수들이.)

105021 @ 그거허고 노를 또 만들어야 헐 거 아니라예?(그거하고 노를 또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105021 #1 예, 노는 또 역시 목수덜이 만들아 가지고.(예, 노는 또 역시 목수들이 만들어 가지고.)

105021 @ 아, 건 목수덜이?(아, 건 목수들이?)

105021 #1 예.(예.)

105021 @ 노를 쓰는 나무는 또 다른 나무우꽈?(노를 쓰는 나무는 또 다른 나무입니까?)

105021 #1 예, 건 무신 나문진 난 잘 모르쿠다만은 뚠 나무로 헷수다.(예, 건 무슨 나무인지 난 잘 모르겠다만은 딴 나무로 했습니다.)

105021 @ 뚠 나무로. 아까 저기 풍선 건 돗베 아니꽈예?(딴 나무로. 아까 저기 돛단배 건 돛배 아닙니까?)

105021 #1 예.(예.)

105022 @ 이 돗베에 대헤서는 더 아는 거 잇수가?(이 돛배에 대해서는 더 아는 거 있습니까?)

105022 #1 풍선은 전연 거의 다 그 원양어업을 아니 헐 때는 그 풍선을 많이

헤십주게. 그거로 해상사고도 많이 발생뒈고 헤서, 그거 사고도 많고 헤서. 그렛는디 근래에는 풍선이란 것이 엇어져십주게.(돛단배는 전연 거의 다 그 원양어업을 아니 할 때는 그 돛단배를 많이 했습지요. 그거로 해상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해서, 그거 사고도 많고 해서. 그랬는데 근래에는 돛단배란 것이 없어졌습지요.)

105022 @ 엇어져십주. 그 당시에만 잇엇고예?(없어졌습지요. 그 당시에만 있었고요?)

105022 #1 예, 전이 그자 거의 다 풍선, 일제시대서 해방 흔 십 년꺼지도 다 풍선 잇어십주.(예, 전에 그저 거의 다 돛단배, 일제 강점기서 해방 한 십 년까지도 다 돛단배 있었습지요.)

105022 @ 해방 십 년까지?(해방 십 년까지?)

105022 #1 예.(예.)

105022 @ 그러면 해방 후 십 년.(그러면 해방 후 십 년.)

105022 #1 예.(예.)

105022 @ 음, 육이오 지난 후에까지도?(음, 육이오 지난 후에까지도?)

105022 #1 예, 예.(예, 예.)

105022 @ 그때까지 잇엇고. 그러면 육십년대 들어사 이 발동선?(그때까지 있었고. 그러면 육십년대 들어서 이 발동선?)

105022 #1 예, 예.(예, 예.)

105022 @ 통통배가 나오기 시작혯구나예?(통통배가 나오기 시작했군요?)

105022 #1 예.(예.)

105023 @ 예, 예. 이 돗베는 부분 명칭은 알아지쿠가?(예, 예. 이 돛배는 부분 명칭은 알겠습니까?)

105023 #1 건 잘 모르쿠다. 허허허.(웃음)(건 잘 모르겟습니다. 허허허.(웃음))

105023 @ 돗베는 그 바람 막는 그 천을 뭘로 헤나신고예? 그냥 광목으로 헷수가?(돛배는 그 바람 막는 그 천을 무엇으로 했었는가요? 그냥 광목으로 했습니까?)

105023 #1 광목으로가 아니고 그때 무지옌 헷수다. 그 저 가빠 허는 무지.(광목으로가 아니고 그때 무지라고 했습니다. 그 저 그 저 가빠 하는 무지.)

105023 @ 가빠 허는 거? 뭘로 걸 천을 만들아신고예?(가빠 하는 거? 무엇으로 걸 천을 만들었는가요?)

105023 #1 천 뭐 그때는 제일 즈꼿데는 그냥 미녕 짱 놩 감 멕여 가지고 든든허게 허연 허다가 츠츠츠츠 발달뒈어 가니까 그 가빠를 헨.(천 뭐 그대는 제일 곁에는 그냥 무명 짜서 놔서 감 먹여 가지고 단단하게 해서 하다가 차차차차 발달되어 가니까 그 가빠를 해서.)

105023 @ 바당일에 대헤서 특별이 셍각나는 거 잇이믄 골아줍서.(바닷일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105023 #1 바당에 특별이 뭐 셍각나는 게 뭐 셔마씨? 여기 그디서 즈주 보고 듣곡 헴서사 헐 건디 경허난 못허는 겁주.(바다에 특별히 뭐 생각나는 게 뭐 있어

요? 여기 거기서 자주 보고 듣고 하고 있어야 할 건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105023 @ 저기 궤기 나끄레 다니고 그자 헤경허면 그때 해산물들 채취허레 다니고.(저기 고기 낚으러 다니고 그저 '해경'하면 그때 해산물을 채취하러 다니고.)

105023 #1 예.(예.)

105023 @ 그럼 바당에 강 베 탕 나가 본 적은 엇구나예?(그럼 바다에 가서 배 타서 나가 본 적은 없군요?)

105023 #1 예.(예.)

6. 의생활

옷감

106001 @ 이젠 여자 삼춘님안테 옷에 관련뒌 거 물어보쿠다예. 옛날 옷감 종류에 대헤서 말씀헤줍서.(이젠 여자 삼촌님한테 옷에 관련된 거 물어보겠습니다. 옛날 옷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106001 #2 옛날에는게 옷감 헷자 무시거게, 우리 처녀 때는 양단 저고리, 호박단 저고리, 비로드 치마, 그것이 최고라난디 그건 경 아무나 입어져낫수가게? 이 촌에선양, 그런 거 저런 거 아무나 못 입어나서마씨. 옛날은 그자.(옛날에는요 옷감 했자 무엇요, 우리 처녀 때는 양단 저고리, 호박단 저고리, 비로드 치마, 그것이 최고였는데 그거 그렇게 아무나 입어졌었습니까? 이 촌에서는요, 이런 거 저런 거 못 입었었어요. 옛날은 그저.)

106001 #1 촌에서 제일 처음은 그게 그 방직공장덜이 발달뒈니까 광목도 허곡 헤 갓주마는 여기서 그 오랜 옛날 일제 강점기라든지.(촌에서 제일 처음은 그게 그 방직공장들이 발달되니까 광목도 하고 해 갔지만 여기서 그 오랜 옛날 일제 강점기라든지.)

106001 #2 미녕, 미녕.(무병, 무명.)

106001 #1 다 미녕으로 헤십주기.(다 무명으로 했습지요.)

106001 #2 옛날은 미녕.(옛날은 무명.)

106001 @ 아, 미녕.(아, 무명.)

106001 #2 겐디 우리가 결혼헌 다음에는 미녕 안 헨 광목.(그런데 우리가 결혼한 다음에는 무명 안 해서 광목.)

106001 @ 미녕허고 아, 미녕하고 광목이 차이가 뭐꽈?(무명하고 아, 무명하고 광목이 차이가 뭐입니까?)

106001 #2 미녕은예, 우리 여기서 멘네 갈앙 그걸 이제 강 태와당 실허영예, 막영 무시거 허여근에 베틀에 놩 짱 허는 것이 미녕마씨. 옛날에 그 미녕은, 광목은 육지에서 방직에서 짜근에 왓주, 이 제주도에서는예, 광목이 나오질 안 헤낫수게.(무명은요, 우리 여기서 면화 갈아서 그걸 이제 가서 타다가 실해서요, 마구 이렇게

무엇 해서 베틀에 놔서 짜서 하는 것이 무명요. 옛날에 그 무명은, 광목은 육지에서 방직에서 짜서 왔지, 이 제주도에서는요, 광목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106001 #1 건 방직공장이 엇어십주, 제주도에는.(건 방직공장이 없었습지요.)

106001 #2 방직공장이서 광목은 나오고, 여기 이 제주도에서는 미녕.(방직공장에서 광목은 나오고, 여기 이 제주도에서는 무명.)

106001 @ 겐디 그 광목도 하여간 멘네로 허영 만든 거 아나우꽈예? 실 뺑, 아닌가?(그런데 그 광목도 하여간 면화로 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요? 실 빼서, 아닌가?)

106001 #2 몰르쿠다. 광목은 무시걸로사 멘들아신디 그거는 방직 생활혜영 우리 그 실 영 감아도 그런 거는 멘네로 헹 헤신지 뭣으로 헹 헤신지 몰르커라마씨. 우린 실 감는 것만 영 허고.(모르겠습니다. 광목은 무엇으로야 만들었는지 그거는 방직 생활해서 우리 실 이렇게 감아도 그런 거는 면화로 해서 했는지 뭣으로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실 감는 것만 이렇게 하고.)

106001 #1 게난 것도 역시 멘네로서 수출품으로 허영 방직공장이서 광목 짜나 헤도 저 멘네 종류로서 실을 빠는 걸텝주.(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면화로써 수출품으로 해서 방직공장에서 광목 짜나 해도 저 면화 종류로서 실을 짜는 걸테지.)

명주

106002 @ 거 명주 잇지 아니허꽈예? 명주실, 명주실 만드는 과정은 알아지쿠가?(거 명주 있지 않습니까? 명주실, 명주실 만드는 과정은 알겠습니까?)

106002 #1 예.(아.)

106002 #2 아, 명주실 헌 사람덜토 잇어마씨, 집이서 누에 허영예.(아, 명주실 한 사람들도 있어요, 집에서 누에 해서요.)

106002 @ 그러니까.(그러니까.)

106002 #2 누에 허영은에 뽕나무 잎 타당 멕이멍양 허여근에 그것도 허영, 하이고 나 어린 때라부난 잘 모르쿠다.(누에 해서 뽕나무 잎 따다가 먹이면서요 해서 그것도 해서, 아이고 나 어릴 때라 버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106002 @ 하하하.(웃음) 게난 그 구경헌 거허고 봐난 거예?(하하하.(웃음) 그러니까 그 구경한 거하고 봤던 거요?)

106002 #1 명주실, 명주실은.(명주실, 명주실은.)

106002 #2 누에를 허영예, 명주실을 그것에서 뽑으믄예, 그 누에에 베렝이 헌 거양 막 먹고 헤낫수다, 우리 어린 때.(누에를 해서요, 명주실을 그것에서 빼면요, 그 누에에 벌레 한 거요 마구 먹고 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106002 #1 멩주를 빠젠 허믄.(명주를 짜려고 하면.)

106002 @ 고치, 누에고치?(고치, 누에고치?)

106002 #1 예, 누에고치를 헤낫는데, 그 고치가 따뜻헤지면은 고치 내에서 혼 일주일 넘어가면은 나방이 셍겨 가지고 나비가 뒙니다.(예, 누에고치를 했었는데,

그 고치가 따뜻해지면은 고치 내에서 한 일주일 넘어가면은 나방이 생겨 가지고 나비가 됩니다.)

106002 @ 고치예.(고치요.)

106002 #1 나비가 뒈면은 그 나비가 뚜로 알을 싸면은 그것이 뚜로 누에가 뒈는 겁주기. 그렇게 뒈는 건데 그 누에가 그게 제일 처음 일주일썩 발아가, 아, 발아옌 헤쩜쩌, 저 그 알을 싸면은 그 당시는 이 저 방 ᄀᆞ뜬 디 쥐가 아이 뎅이는 디 헤얍주게, 그 누에 길를라면, 그러기 위헤서는 허영 그릇이란 것은 좀자리, 누에 키우는 것고라, 여튼 이디 ᄀᆞ뜨면 얼멩이ᄀᆞ찌 둘러싸가지고 키웁주기. 키우는디.(나비가 되면은 그 나비가 또 알을 싸면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누에가 그게 제일 처음 일주일씩 발아가, 아, 발아라고 해지고 있어, 저 그 알을 싸면은 그 당시는 이 저 방 같은 데 쥐가 안 다니는 데 해야지요, 그 누에 기르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해서 그릇이란 것은 잠자리, 누에 키우는 것더러, 하여튼 여기 같으면 어레미같이 둘러싸서 키우지요. 키우는데.)

106002 @ 거 뭐, 무슨거 영 깔아근에?(거 뭐, 무엇 이렇게 깔아서.)

106002 #1 예, 예.(예, 예.)

106002 @ 거기다가 그 누에, 누에 뽕도 헤 주고 헤서 그거 갈가 먹으멍 크고, 경 헤가면 그걸 헤 가지고 실을 어떵 헹 빤 거라마씨?(거기다가 그 누에, 누에 뽕도 해 주고 해서 그거 갉아 먹으면서 크고, 그렇게 해 가면 그걸 해 가지고 실을 어떻게 해서 뺀 거지요?)

106002 #1 어린 때 그걸, 야튼 흔 십오 일내지 이십 일 나가면은 누에가 막 자라양, 자라불면 뚜로 것이 집 짓나 허여 가지고 그때는 고치를 만들게 뭔 겁주게. 게난 그때 뒈면은 그 저 제짓낭이라든지 이런 낭에 구들더레 튼튼 놔두면 그것더레 올라 가지고 춤 드랑드랑[185]허게 둘렁, 저 누에가 죽으멍 그 고치를 만들어 뒁 죽는 겁주기, 누에는.(어릴 때 그걸, 아무튼 한 십오 일내지 이십 일 나가면은 누에가 마구 자라요, 자라버리면 또 것이 집 짓나 하여 가지고 그때는 고치를 만들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그 저 제지나무라든지 이런 나무에 방으로 튼튼 놔두면 그것으로 올라 가지고 참 '드랑드랑'하게 달려서, 저 누에가 죽으면서 그 고치를 만들어 둬서 죽는 거지요, 누에는.)

106002 @ 제짓낭이엔 허믄 그건 어떤 거?(제지나무라고 하면 그건 어떤 거?)

106002 #1 제짓낭이엔 헌 것은 베추라든지 무우 ᄀᆞ뜬 디서 다 털어난 끗데 씨를 털어분 끗데, 그 저 대만 놓는 겁주게.(제지나무라고 한 것은 배추라든지 무 같은 데서 다 떨었던 끝에 씨를 떨어버린 끝에, 그 저 대만 놓는 거지요.)

106002 @ 아, 대만 잇인 거?(아, 대만 있는 거?)

106002 #1 예, 것을 놔 주면은 것은 게벱곡 영 벌어지니까 그것이 누에가 올라강은에 아까도 ᄀᆞᆯ앗수다만은 그 저 고치를 짓읍주게.(예, 그것을 놔주면은 그것은 가볍고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것이 누에가 올라가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그 저 고

185) '드랑드랑'은 굵직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이다.

치를 짓습지요.)

106002 @ 음.(음.)

106002 #1 겐디 그 기한을 보면은 우리 집이서도 으라 해 해나고 키와도 나고 헷수다만은 건 확실이 잘 몰라마씨. 웨 그런고 허면은.(그런데 그 기한을 보면은 우리 집에서도 여러 해 했었고 키워도 나고 했습니다만 건 확실히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은.)

106002 @ 기한이엔 헌 건 뭐우꽈?(기한이라고 한 건 뭐입니까?)

106002 #1 그 알에서 성충이 뒈어 가지고 나비 뒐 때끄지 그 고치 나오는 기간.(그 알에서 성충이 되어 가지고 나비 될 때까지 그 고치 나오는 기간.)

106002 @ 기간예.(기간요.)

106002 #1 예, 그것은 삼 단계로 나눠낫수다만은.(예, 그것은 삼 단계로 나눴습니다만.)

106002 @ 삼 단계로예.(삼 단계로요.)

106002 #1 우리 집이서도. 게서 혼 이 주만 뒈면은 거 막 속성허영양, 이 주만 뒈면 속성헤 가지고 삼스주쯤 뒈면은 그 누에가 그 저 자기가 죽게 뒈면은 그 고치를 내와 가지고 죽는 거니까 그때 뒈어가면 색깔이 막 어랑어랑[186]헙니다. 게믄 그걸 아, 요게 이젠 지치게 뒛구나 헤 가지고 그 저 홁은 뽕낭 이파리도 덜어 주곡, 또 나머진 그 저 제짓낭으로 구들에 부떵 놩 내불민 그레 올라강은에 새끼를 칩주게, 아이 저 고치를 헙주게.(우리 집에서도. 그래서 한 이 주만 되면은 거 아주 속성해서, 이 주만 되면 속성해 가지고 삼사 주쯤 되면은 그 누에가 그 저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 고치를 나오게 해 가지고 죽는 거니까 그때 되어가면 색깔이 '어랑어랑'합니다. 그러면 그걸 아, 요게 이젠 지치게 되었구나 해 가지고 그 저 흙은 뽕나무 잎사귀도 덜어 주고, 또 나머진 그 저 제지나무로 방에 붙어서 내버리면 그리 올라가서 새끼를 치지요, 아니 저 고치를 하지요.)

106002 @ 아.(아.)

106002 #1 고치를 허면은 그게 그 저 고치 다 허면은 그다음에는 그 일일이 뚜로 제짓낭 꺼내 놩 고치를, 그 고치가 직경 혼 삼 센티 정도 뒙니다, 뭐. 그 저 누에고치가, 게믄 그걸 저 그 솟디 놩 숣으멍 영 영 저어가면은 그게 그 손에 감아지멍 실이 나옵니다.(고치를 하면은 그게 그 저 고치 다 하면은 그다음에는 그 일일이 또 제지나무 꺼내 놔서 고치를, 그 고치가 지름 한 삼 센티미터 정도 됩니다, 뭐. 그 저 누에고치가, 그러면 그걸 저 그 솥에 놔서 삶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가면은 그게 그 손에 감아지면서 실이 나옵니다.)

106002 @ 음.(음.)

106002 #1 여러 개 감앙 옆으로 저으멍, 게 가지고 혜영 숣앙 허믄 그 저 실 나온 것은 그 저 물에, 아니 저 뭣이엔 헌다마는.(여러 개 감아서 옆으로 저으면서, 그래 가지고 해서 삶아서 하면 그 저 실 나온 것은 그 저 물에, 아니 저 뭣이라고

186) '어랑어랑'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이다.

한다마는.)

106002 @ 그 도구가 뭐우꽈? 감는 거.(그 도구가 뭐입니까? 감는 거.)

106002 #1 도구, 물레.(도구, 물레.)

106002 @ 물레가 아니고예?(물레가 아니고요?)

106002 #1 저 영 우리 짜는 것고라.(저 이렇게 우리 짜는 것더러.)

106002 #2 저, 저.(저, 저.)

106002 #1 영 두르멍.(이렇게 두르면서.)

106002 #2 아이, 것고라 뭐옌 헤서라마는.(아니, 것더러 뭐라고 했더라만.)

106002 #1 아, 우리 집도 어디 둥글긴 헴서라마는.(아, 우리 집도 뒹굴긴 하고 있더니만.)

106002 #2 잊어불언 난양. 어린 때라부난 몰르컨게.(잊어버려서 난요. 어릴 때라 버리니까 모르겠어.)

106002 @ 실 감는 거예? 실 빼멍 감아 주는 거.(실 감는 거요? 실 빼면서 감아 주는 거.)

106002 #1 예, 예.(예, 예.)

106002 #2 무르에옌 헤나지 안 헷수가?(물레라고 햇었지 않습니까?)

106002 #1 예, 것이 무르에.(예, 것이 물레.)

106002 #2 예, 무르에. 영 영 허믄 실 감아졍예.(예, 물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실 감아져서.)

106002 #1 영 불르는 것도 무르에옌 헤신디.(이렇게 바르는 것도 물레라고 했는데.)

106002 @ 무르에예?(물레요?)

106002 #2 게난 우리 귀덕[187]도예, 딱 흔 집이 누에 키우는 사름이 이신디 그거 허는 날은 우리 막 어린 때난 강양, 그 누에 베렝이덜 먹으멍, 호호호,(웃음) 허여낫수다게. 그거 무르에, 무르에.(그러니까 우리 '귀덕'도요, 딱 한 집에 누에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하는 날은 우리 아주 어릴 때니까 가서요, 그 누에 벌레들 먹으면서, 호호호,(웃음) 하였었습니다. 그거 물레, 물레.)

106002 #1 우리 집이선 흔 멧 대 우리 어린 때에.(우리 집에서는 한 몇 대 우리 어릴 때에.)

106002 #2 아주버니넨 허여낫구나예.(아주버니네는 하였었군요.)

106002 #1 길롸낫수다.(길렀었습니다.)

106002 @ 그 저 명주 종류에 대허영, 명주 종류?(그 저 명주 종류에 대해서, 명주 종류?)

106002 #1 명주는.(명주는.)

106002 #2 그것이, 누에로 허민, 헌 실로 허영 미녕 짜듯이 짱.(그것이, 누에로 하면, 한 실로 해서 무명 짜듯이 짜서.)

187)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이다.

106003 @ 게난 그 명주는 천이 여러 가지가 잇지 안 허우꽈?(그러니까 그 명주는 천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06003 #2 얇아마씨, 미녕보단.(얇아요, 무명보다는.)

106003 #1 거 토목 멩주허곡 뚜로 저 그냥 멩주가 신디, 그 토목멩주는 뭐냐면은 그 실이 다 뒈어갈 때는 나중에는 ᄀᆞ늘게 나오질 안 헤 가지고, 빨 때 ᄒᆞ끔 홁게 나옵니다. 이 홁게 나온 것고라 멘든 것을 그 토목멩지옌 헤 가지고 허고, 또 ᄀᆞ늘게 나온 것은 그냥 멩주실옌 허고.(거 토목명주하고 또 저 그냥 명주가 있는데, 그 토목명주는 뭐냐면은 그 실이 다 되어갈 때는 나중에는 가늘게 나오질 안 해 가지고, 뺄 때 조금 굵게 나옵니다. 이 굵게 나온 것더러 만든 것을 그 토목명주라고 해 가지고 하고, 또 가늘게 나온 것은 그냥 명주실이라고 하고.)

106003 @ 아, 거난 토목명주허고 다른 그냥 명주. 토목명주, 그냥 명주. 굵게 나온 건 토목명주, ᄀᆞ늘게 나온 실은예?(아, 그러니까 토목면주하고 다른 그냥 명주. 토목명주, 그냥 명주. 굵게 나온 건 토목명주, 가늘게 나온 실은요?)

106003 #1 아니우다.(아닙니다.)

106003 @ 굵게 나온 것이.(굵게 나온 것이.)

106003 #1 홁게 나온 게 토목멩지.(굵게 나온 게 토목명주.)

106003 @ 셍멩주, 그런 말이 잇수가?(생명주, 그런 말 있습니까?)

106003 #1 예.(예.)

106003 @ 셍멩주렌 헙니까?(생명주라고 합니까?)

106003 #1 예, 예.(예, 예.)

106003 @ 수아주렌 말은 들어봅디가?(수아주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106003 #1 수아주?(수아주?)

106003 @ 수아주?(수아주?)

106003 #1 수아주옌 헌 말은 못 들어봣수다.(수아주라고 한 말은 못 들어봤습니다.)

106003 #2 들어보지 안 헷수다.(들어보지 않았습니다.)

106003 @ 표준말인 거 닮다예. 겐디 솟디 솖앙 그다음은 건져 내멍.(표준말인 거 같군요. 그런데 솥에 삶아서 그다음은 건져 내면서.)

106003 #1 아니, 솟디서 그냥.(아니, 솥에서 그냥.)

106003 @ 솟디서?(솥에서?)

106003 #1 솟디서 계속 솖으멍 영 영 그 저.(솥에서 계속 삶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 저.)

106003 @ 벵벵.(빙빙.)

106003 #1 예, 실을 낭께기로 젓어가믄 실이 십자가 뒈게 헤 가지고 ᄒᆞᆫ 그 저 젓는 나무를 허여 가지고 젓어가면은 질 처음 그 저 실 나옴 시작허믄 계속 그 저 고치실에서 점점점 열리면서.(예, 실을 나뭇개비로 저어가면 실이 십자가 되게 해 가지고 한 그 저 젓는 나무를 하여 가지고 저어가면은 제 처음 그 저 실 나오기 시

작하면 계속 그 저 고치실에서 점점점 열리면서.)

106003 @ 실에 감아져마씨?(실에 감아져요?)

106003 #1 감아졍 나와마씨, 예, 예. 경 허영 나오면 그걸, 저 그 털 짓엉 게믄 그걸 저 무르에에 영, 무르에서 빼엉.(감아져서 나와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걸, 저 그 털 지어서 그러면 그걸 저 물레에 이렇게, 물레에서 빼어서.)

106003 @ 음, 그레 헤영 감곡. 그 베렝인 무시거옌 골아마씨?(음, 그리 해서 감고. 그 벌레는 무엇이라고 말해요?)

106003 #1 아, 버렝이는 번데긴디.(아, 벌레는 번데기인데.)

106003 @ 번데기?(번데기?)

106003 #1 예. 번데긴 그 저 요즘도 과학적으론 그것도 먹어도 좋덴 헤난산디 그 어린 땐 그거 실 빨 때, 어릴 때덜 강 지켜 앚앗다근에.(예. 번데기는 그 저 요즘도 과학적으로 그것도 먹어도 좋다고 했었는데 그 어릴 때는 그거 실 뺄 때, 어릴 때들 가서 지켜 앉았다가.)

106003 @ 먹어낫수가?(먹었었습니까?)

106003 #2 그 실 이거 헐 때는양 동네 아이덜.(그 실 이거 할 때는요 동네 아이들.)

106003 @ 다 모여들엉.(다 모여들어서.)

106003 #2 다 둥사들엉 그디 강 그것덜예 저 주믄 먹엉, 그건 함부로 그냥 다 먹으렝도 아니허곡 임제가 그거 실 다 빠 나믄 멧 개씩 주믄 그거 먹엉, 우리 동넨.(다 곁에 지키어 서서 거기 가서 그것들요 저 주면 먹어서, 그건 함부로 그냥 다 먹으라고도 않고 임자가 그거 다 실 빼 나면 몇 개식 주면 그거 먹어서, 우리 동네는.)

106003 @ 이 동네선 어느 집이서 헤난 거우꽈?(이 동네선 어느 집에서 했던 것입니까?)

106003 #1 이거 그때 헐 때는 이 집이서 살 때 아니고 저 앞집이서 키웟수다, 뭐.(이거 그때 할 때는 이 집에서 살 때 아니고 저 앞집에서 키웠습니다, 뭐.)

106003 @ 아, 앞집이.(아, 앞집에.)

106003 #1 게난 거 실 빨 때는 누에 키우당 올릴 때끄지 고치 날 때끄지는 이런 안방에서 허고, 뚜로 저 고치가 앚아 놩 끗데는 쉐막에덜 그 저 큰 돌화로라는 것이 잇수다. 돌화루에다 불 때고, 고치 놩은에 때어 가면은 그것에 십자가 지게 헌 걸로 젓어가면은 그레 실 감는 거 부뜸 시작허면은 졸졸 나옵니다, 뭐.(그러니까 거 실 뺄 때는 누에 키우다가 올릴 때까지 고치 날 때까지는 이런 안방에서 하고, 또 저 고치가 앉아 놔서 끝에는 외양간에들 그 저 큰 돌화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돌화로에다 불 때고, 고치 놔서 때어 가면은 그것에 십자가 지게 한 걸로 저어가면은 그리 실 감는 거 붙기 시작하면은 졸졸 나옵니다, 뭐.)

106003 @ 아, 아. 젓어가믄.(아, 아. 저어가면.)

106003 #1 예.(예.)

106003 @ 뽑아지게 올라와예.(빼지게 올라와요.)
106003 #1 예, 예.(예, 예.)
106004 @ 이 명주로는 어떤 옷을 멘들어낫수가?(이 명주로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6004 #1 멩주는 지금도 이야기협주만은 저 보통은 저 아주 귀협주게, 명주란 것은.(명주는 지금도 이야기하지만 저 보통은 저 아주 귀하지요, 명주란 것은.)
106004 #2 그때사 부제 사름덜이나벳기 더 입어낫수가게?(그때야 부자 사람들이나밖에 더 입었었습니까?)
106004 #1 귀헌 거니까.(귀한 거니까.)
106004 #2 돌아가신 때에 그 저.(돌아가신 때에 그 저.)
106004 #1 그.(그.)
106004 #2 그 무신 옷으로 허영예.(그 무슨 옷으로 해서요.)
106004 #1 예.(예.)
106004 #2 그런 거 입히곡.(그런 거 입히고.)
106004 #1 겐 그런 걸로.(그래서 그런 것으로.)
106004 @ 아,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은 그.(아, 돌아가실 때 입는 옷은 그.)
106004 #1 수의.(수의.)
106004 @ 수의, 수의 헹 입히고.(수의, 수의 해서 입히고.)
106004 #2 명주로 헙니께.(명주로 합니다.)
106004 @ 명주로. 또 뭐 다른 거 만드는 옷 잇수가?(명주로. 또 뭐 다른 거 만드는 옷 있습니까?)
106004 #1 수의, 수의도 만들고 자기가 입엉 뎅이는 옷도 만들고.(수의, 수의도 만들고 자기가 입어서 다니는 옷도 만들고.)
106004 @ 어떤 옷마씨?(어떤 옷요?)
106004 #1 옷은 뭐 저고리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또 저 좋은 거니까 결혼헐 때 특히 저 멩주 바지저고리 입엉 남자덜토.(옷은 뭐 저고리도 만들고 바지도 만들고, 또 저 좋은 거니까 결혼할 때 특히 저 명주 바지저고리 입어서 남자들도.)
106004 @ 한복예?(한복요?)
106004 #1 예, 거곡 두루마기도 멩주로 두루마기 허고.(예, 그리고 두루마기도 명주로 두루마기 하고.)
106004 @ 두루마기도 허고.(두루마기도 하고.)
106004 #1 이걸 허다가 나중에 뒈어 가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뒈여 가니까 그 저 광목이라든지, 또 아까 이 아주머님도 골읍디다만 막 옷ᄀᆞ심덜이 많이 나올 때는 그걸로 헤십주.(이걸 하다가 나중에 되어 가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 가니까 그 저 광목이라든지, 또 아까 이 아주머님도 말씀합디다만 마구 옷감들이 많이 나올 때는 그걸로 했습지요.)
106004 @ 음.(음.)

106004 #1 게난 그 저 지금도 어떤 딘 우리나라에서 멩주 허는 디가 셔마씸,(그러니까 그 저 지금도 어떤 데는 우리나라에서 명주 하는 데가 있어요.)

106006 @ 뽕낭은 어디 키와낫수가? 여기선.(뽕나무는 어디 키웠었습니까? 여기선.)

106006 #1 아, 뽕낭은, 뽕낭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누에 질룰 때는. 웨 두 가지로 나누냐 허면은 그 들뽕낭이라 헤 가지고, 그것은 ᄀᆞ뜬 뽕낭은 뽕낭인디 이파리가 아릿아릿허면서 이파리가 족아예. 족은 것인 들뽕낭이 잇고, ᄯᅳ로 이파리 너불너물허면서 큰 뽕낭이 잇는데, 너불너불헌 뽕낭보담도 곧 누에가 어릴 때에는, 금방 저 알에서 유충이 뒈어 가지고 나올 때는, 그때는 들뽕낭 입으로 걸 겆당 ᄇᆞ짝 썰엉 주곡, ᄯᅳ로 누에가 많이 자란 끗데는 썰도 아니허영 그냥 이파리째로 그냥 먹어낫수다, 뭐.(아, 뽕나무는, 뽕나무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왜 두 가지로 나누냐 하면은 그 들뽕나무라 해 가지고, 그것은 같은 뽕나무는 뽕나무인데 잎사귀가 아릿아릿하면서 잎사귀가 작아요. 작은 것인 들뽕나무가 있고, 또 잎사귀 너불너불하면서 큰 뽕나무가 있는데, 너불너불한 뽕나무보다도 곧 누에가 어릴 때는, 금방 저 알에서 유충이 되어 가지고 나올 때는, 그때는 들뽕나무 잎으로 걸 가져다가 바짝 썰어서 주고, 또 누에가 많이 자란 끝에는 썰도 안 해서 그냥 잎사귀째로 그냥 먹었었습니다, 뭐.)

106006 @ 게난 밧디서 재베를 허는구나예.(그러니까 밭에서 재배를 하는군요.)

106006 #1 아, 예, 저 그때는 그 저기 헐 때는 밧데 우영팟 ᄀᆞ뜬 디는 누에 질쌈허는 집에는 뽕낭이 두세 개썩 꼭 잇엇수다. 그것도 우영팟 ᄀᆞ으로 잇어나고.(아, 예, 저 그때는 그 저기 할 때는 밭에 터앝 같은 데는 누에 길쌈하는 집에는 뽕나무가 두세 개씩 꼭 있었습니다. 그것도 터앝 가로 있었었고.)

106006 @ 뽕나무 열매도 먹어낫수가?(뽕나무 열매도 먹었었습니까?)

106006 #1 예, 뽕이라 헤 가지고 지금도 먹곡 헴수다만 그때 우리 많이 먹어십주기. 낭에 올랑 타도 먹고.(예, 오디라 해 가지고 지금도 먹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우리 많이 먹었습지요. 나무에 올라서 따도 먹고.)

106004 @ 게난 그 아까 얘기헷주만은, 결혼식 헐 때 한복, 두루마기, 그다음 돌아가실 때 수의.(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식 할 때 한복, 두루마기, 그다음 돌아가실 때 수의.)

106004 #1 또 부잣집 ᄀᆞ뜬 디는 그 저 멩지 그냥 결혼식 안 헐 때라도 평상시 입는 옷도 저 어디 나갈 때는.(또 부잣집 같은 데는 그 저 명주 그냥 결혼식 안 할 때라도 평상시 입는 옷도 저 어디 나갈 때는.)

106004 @ 음, 명주옷을 입엉.(음, 명주옷을 입어서.)

106004 #1 멩주옷을 입엉 나갑주게. 저 어디 결혼 칩일 간다든지 그땐 헐 때는, 경 멩주옷을, 가장 중히, 시에 뎅길 때라든지 입고, ᄯᅳ로 두 번째는 뭣고, 멘네, 그냥 미녕옷 입고, 이거 두 가지벳기 엇어낫는디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 뒈어가난 옷이 막 하영 나오란.(명주옷을 입어서 나가지요. 저 어디 결혼 집엘 간다든지 그땐

할 때는, 그렇게 명주옷을, 가장 중히, 시에 다닐 때라든지 입고, 또 두 번째는 뭣이고, 면화, 그냥 무명옷 입고, 이거 두 가지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점점 과학이 발달되어가니까 옷이 아주 많이 나왔어.)

106004 #2 옛날사 부제, 부제 하르방 할망벳긴 멩주옷을 못 입어봣수다.(옛날이야 부자,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밖에는 명주옷을 못 입어봤습니다.)

106005 #1 예게. 그게 멩주옷 짜는 과정은 보통 멘네로 실 빵 미녕 짜듯 과정이 멩주도 비슷헙니다.(예. 그게 명주옷 짜는 과정은 보통 면화로 실 빼서 무명 짜듯 과정이 명주도 비슷합니다.)

106005 @ 비슷헙니까? 아, 그 저 게난 그 옷감 만드는 과정은 ᄀᆞ트구나?(비슷합니까? 아, 그 저 그러니까 그 옷감 만드는 과정은 같구나?)

106005 #1 예, 예. 옷 만드는 과정이 ᄀᆞ트우다. 과정이 아까ᄀᆞ찌 실 빠놓면은 그걸 ᄯᅳ로 저 다음은 여자덜이 앚아 가지고 일일이 또 감읍니다. 다 감곡, 그 저 도레기로도 감곡, 꼬리로도 감곡 두 가지, 두 가지로 협주게. 무슨 말이냐 허면은 실을 동그락허게 멘드는, 공ᄀᆞ찌예, 경 헹 감는 것도 잇곡, ᄯᅳ로 꼬리옌 헌 건, 그 멩주를 짤 때에, 짤 때에 감는 것이 저 꼬리옌 헙니다.(예, 예. 옷 만드는 과정이 같습니다. 과정이 아까같이 실 빼놓으면은 그걸 또 저 다음은 여자들이 앉아 가지고 일일이 또 감습니다. 다 감고, 그 저 실패로도 감고, 실톳으로도 감고 두 가지, 두 가지로 하지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실을 둥글게 만드는, 공같이요, 그렇게 해서 감는 것도 있고, 또 실톳이라고 한 건, 그 명주를 짤 때에, 짤 때에 감는 것이 실톳이라고 합니다.)

106005 @ 음.(음.)

106005 #1 꼬리옌 헹 그걸로 감곡 헤낫수다.(실톳이라고 해서 그걸로 감고 했었습니다.)

106005 @ 그 저 옷감 짜는 기곈 뭐렌 헙니까?(그 저 옷감 짜는 기계는 뭐라고 합니까?)

106005 #1 옷감 짜는 거는 질 처음 그 저 미녕이영 마찬가지주만은 제일 처음 허는 것은 미녕은 멘네에서 씨를 빼엉 실만 ᄀᆞᆯ려내기 위혜 가지고 허는 거를, 걸 무르에라고 협니다.(옷감 짜는 거는 젤 처음 그 저 무명이랑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 하는 것은 무명은 면화에서 씨를 빼어서 실만 가려내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거를, 걸 물레라고 합니다.)

106005 @ 무르에?(물레?)

106005 #1 예, 무르에라고 혜 가지고 거 이렇게 둘러 가지고 ᄒᆞ끔썩 멕여 가믄, 이레 트망더레, 씨는 빠지면서 멘네 실만 그레 들어갑주게.(예, 물레라고 해 가지고 거 이렇게 둘러 가지고 조금씩 먹여 가면, 이리 틈으로, 씨는 빼지면서 면화 실만 그리 들어가지요.)

106005 @ 아까 얘기헷던 거예, 무르에.(아까 얘기했던 거요, 물레.)

106005 #1 예.(예.)

106005 @ 그다음에 그 옷감을 이렇게 헹 뭐?(그다음에 그 옷감을 이렇게 해서 뭐?)

106005 #1 예, 게믄 그것부터 빠놩, 다음은 그 실로 그 저 다 빠논 것을 딱 혼 열 멧 개에 감읍니다. 남자덜 앚아 놩. 아무 때라도 영 감앙 놔뒀당. 걸 어떵 허냐 허믄 미녕을 논다 협주게. 누는 것은 어떤 말이냐 허면은 그 실로 헌 것을 가지니까 그게 그 싸젠 허믄, 베틀에 들어가젠 허면은 놀아 놔사 헙주게.(예, 그러면 그것부터 빼놔서, 다음은 그 실로 그 저 다 빼놓은 것을 딱 한 열 몇 개에 감습니다. 남자들 앉아 놔서. 아무 때라도 이렇게 감아서 놔뒀다가, 걸 어떻게 하냐 하면 무명을 난다 하지요. 나는 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은 그 실로 한 것을 가지니까 그게 그 싸려고 하면, 베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날아 놔야 하지요.)

106005 @ 음.(음.)

106005 #1 논다는 것은 실덜은 꼭 ᄀᆞ튼 길이로서 죽 이 멘네가 말하자면 혼 오십 메다라든지, 오십 메다까지 가는 것도 셔나십주. 한 삼사십 메다믄 저 그걸 허영 ᄆᆞᆯ아 놩 다음은 뚜로 논 것을 풀 쒀 가지고 풀을, 풀에 놩 그것을, 실을 ᄆᆞᆯ아논 것을 일절 다 저 범벅뒈게 헙니다. 허면은 그것이 더 든든헙니다. 경 헹 놩 뚜로 그걸 다음은 ᄇᆞ름 잔 날 올레 ᄀᆞ뜬 디라든지 혼 오 메다 간격이라든지 일 메다 간격으로 헤 가지고 저 ᄀᆞ시락 불이라든지 살라서 거기서 놀아 논 거를 맨다고 협주게. 매는 것은 그 도꼬마리라고 헤 가지고 걸 감아지는 것을 도꼬마리옌 헙니다.(난다는 것은 실들은 꼭 같은 길이로서 죽 이 면화가 말하자면 한 오십 미터라든지, 오십 미터까지 가는 것도 있었습지요. 한 삼사십 미터면 저 그걸 해서 말아 놔서 다음은 난 것을 풀 쒀 가지고 풀을, 풀에 놔서 그것을, 실을 말아놓은 것을 일절 다 저 범벅되게 합니다. 하면은 그것이 더 단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놔서 또 그걸 다음은 바람 잔 날 올레 같은 데라든지 한 오 미터 간격이라든지 일 미터 간격으로 해 가지고 저 까끄라기 불이라든지 살라서 거기서 날아 놓은 거를 맨다고 하지요. 매는 것은 그 도투마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감아지는 것을 도투마리라고 합니다.)

106005 @ 음.(음.)

106005 #1 겐 그것더레 혜영 걸 문딱 매어 놩 헙주게. 매어 노민 그 도꼬마리에 감아진 것은 뚜로 역시 부인네덜이 뭣고 저, 거 뭣이엔. 도꼬마리 우에 그 저 아, 거 잊어불언. 저 틀 줍져 가지고 영 짜지는 겁주게. 짜지는 것인데 여자덜이 그 저 꼬리옌 헌 것고라 영 이레 밀렁 험직허믄 하나썩 웨골로 영 탁 밀렁 둥경 부트믄 이게 딱 밀렁 허믄.(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걸 모두 매어 놔서 하지요. 매어 놓으면 그 도투마리에 감아진 것은 또 역시 부인네들이 뭣이고 저, 거 뭣이라고. 도투마리 위에 그 저 아, 잊어버렸어. 저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짜지는 거지요. 짜지는 것인데 여자들이 그 저 실톳이라고 한 것더러 이렇게 이리 밀려서 할 것 같으면 하나씩 외곬으로 이렇게 탁 밀려서 당겨서 붙으면 이게 딱 밀려서 하면.)

106005 @ 그 방직 틀 닮은 거 아니우꽈? 그건 물레, 물레옌 안 허는가마씨?(그 방직 틀 같은 거 아닙니까? 그건 물레, 물레라고 안 하는가요?)

106005 #1 건 무르에는 그.(건 물레는 그.)

106005 @ 무르에 말고, 물레로 이렇게 짤 때 그 물레가 아닌가? 무르에는 씨를 빼 내는 거고.(물레 말고, 물레로 이렇게 짤 때 그 물레가 아닌가? 물레는 씨를 빼 내는 거고.)

106005 #1 실을 빠는 과정꺼지.(실을 빼는 과정까지.)

106005 @ 저 가로, 세로 영 헹 짜 가지고.(저 가로, 세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6005 #1 건 차는 겁주게, 차는 거, 찬다.(건 짜는 거지요, 짜는 거, 짠다.)

106005 @ 찬다?(짠다?)

106005 #1 차는 것은.(짜는 것은.)

106005 @ 틀이 이실 거 아니라예, 틀. 베 ᄀᆞ튼 건 베틀.(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 베 같은 건 베틀.)

106005 #1 예, 예, 베틀. 베틀 게난 찹주게. 베틀 ᄀᆞ튼 겁주게.(예, 예, 베틀. 베틀 그러니까 짜지요. 베틀 같은 거지요.)

106005 @ 베틀허고 같은 거예?(베틀하고 같은 거요?)

106005 #1 예, 예.(예, 예.)

106005 @ 베틀이겟네, 베틀. 게니까 틀, 무슨 틀.(베틀이겠네, 베틀. 그러니까 틀, 무슨 틀.)

106005 #2 겐디 그것 영 허영은에 실을 이레 넹기믄 발로 영 ᄃᆞᆼ기고, 또 일로 허믄 이 발로 영 ᄃᆞᆼ기곡, 우리 어린 때 보난 경 헹게.(그런데 그것 이렇게 실을 이리 넘기면 발로 이렇게 당기고, 또 이리로 하면 이 발로 이렇게 당기고, 우리 어릴 때 보니까 그렇게 했어.)

106005 @ 베 짜는 건 베틀이엔 허고, 이건.(베 짜는 건 베틀이라고 하고, 이건.)

106005 #2 게난양, 이 발로 그 아레서 무신것산디 영 ᄃᆞᆼ경 영 뎃경 영 ᄃᆞᆼ경.(그러니까요, 이 발로 그 아래서 무엇인지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당겨서.)

106005 #1 그게 어떠냐면은, 그 이 아주머니는 틀을 아이 봣구나게, 틀은.(그게 어떠냐면은, 그 이 아주머니는 틀을 안 봤군요, 틀은.)

106005 #2 아, 난 그런 거 봐 보질 안 헷수다게.(아, 난 그런 거 봐 보질 않았습니다.)

106005 #1 우리 할망 시집올 때ᄁᆞ지 차낫수다만은, 그건 어떻게 차느냐 허면은 ᄀᆞᆺ세 말허듯이 도꼬마리옌 허는 실 다 감아진 것이, 베틀에 앚앙 짤 때는 것 꼬리옌 헌 것이 이레 넹기믄 ᄒᆞᆫ 술에 ᄒᆞᆫ 번 이레 가곡, 저레 가면은 ᄯᅳ로 ᄒᆞᆫ 번 가곡 허믄게 매번 헐 때마다 욜로 뎅입주. 경 헤 놓는 과정인데.(우리 할머니 시집올 때까지 짰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짜느냐 하면은 아까 말하듯이 도투마리라고 하는 실 다 감아진 것이, 베틀에 앉아서 짤 때는 것 실톳이라고 한 것이 이리 넘기면 한 술에 한 번 이리 가고, 저리 가면은 또 한 번 가고 하면요 매번 할 때마다 여기로 당기지. 그렇게 해 놓느 과정인데.)

106005 @ 아, 예.(아, 예.)

106005 #1 그것을 어떻게 영 그것을 이만이 널븐 디서 넘어가게 허냐 허면은 아까 이 아주머님 이야기 헷수다만은 그 베틀 자체가 절로 영 두 가달이 나와 가지고 혼쪽 가달에는 영 내리왕 거기에 저 줄을 맵니다. 줄을 매어 가지고 그땐 짚신 헤 가지고 헌 짚신 헹은에 앞에 영 둘아매믄 발 영 딩이면은 그게 들러집주게. 혼 번 들러지곡 혼 번 늘어나곡, 올라갓다 내려갓다 영 헤 가지고 발로 딩영.(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그것을 이만큼 넓은 데서 넘어가게 하냐 하면은 아까 이 아주머님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베틀 자체가 저리로 이렇게 두 가닥이 나와 가지고 한쪽 가닥에는 이렇게 내려서 거기에 저 줄을 맵니다. 줄을 매어 갖고 그땐 짚신 해 가지고 헌 짚신 해서 앞에 이렇게 달아매면 발 이렇게 당기면은 그게 들떠요. 한 번 들뜨고 한 번 늘어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발로 당겨서.)

106005 #2 발로 영 딩기믄 요것이 영 들러지믄 그 저 실 감아진 거 영 헹 허곡, 영 허고.(발로 이렇게 당기면 요것이 이렇게 들뜨면 그 저 실 감아진 거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106005 @ 게난 옷감을 짠단 말 아니우꽈예?(그러니까 옷감을 짠다는 말 아닙니까?)

106005 #1 예.(예.)

106005 #2 나 우리 어린 때 혼 번 봐난.(나 우리 어릴 때 한 번 봤었어.)

106005 #1 우린 그건 저 어머님도 잘 헤나고 우리 할망[188]도 어멍 본 봐 가지고 곧 결혼헌 때도 잘 헤낫수다. 허허.(웃음)(우린 그건 저 어머님도 잘했었고 우리 '할망'도 어머니 본 봐 가지고 곧 결혼한 때도 잘 했었습니다. 허허.(웃음))

106005 #2 우린 몰라마씨. 놈의 집이 강 허는 것만 봐난.(우린 몰라요. 남의 집에 가서 한 것만 봤어.)

무명

106007 @ 하하하.(웃음) 이제는예, 그 무명 아까 골아신디, 무명의 종류가 막 여러 가지 아니우꽈예?(하하하.(웃음) 이제는요, 그 무명 아까 말했는데, 무명의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아닙니까?)

106007 #1 아, 무명의 종류는 요라 가지렌 헤도 거 원, 원료는 마찬가지 하나우다.(아, 무명의 종류는 여러 가지라고 해도 거 원, 원료는 마찬가지 하나입니다.)

106007 @ 멘네.(면화.)

106007 #1 멘네 혼 가진디.(면화 한 가지인데.)

106007 #2 무명은예, 그건 제주도서벳기 아니헤실 거우다. 우리 제주도벳기 아니헤서.(무명은요, 그건 제주도서밖에 안 했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도밖에 안 했어.)

106007 #1 멘네옌 헌 것은 그 저.(면화라고 한 것은 그 저.)

106007 #2 멘네, 목화, 멘네옌 허영은에 그거 헌 건 우리 제주도벳기.(면화, 목

188) '할망'은 할머니인데, 여기서는 제보자의 아내를 말한다.

화, 면화라고 해서 그거 한 건 우리 제주도밖에.)

106007 #1 목화렌 헌 것이 일반 밧보다도 아주 그 비옥토에서야 뭽니다, 목화는. 비옥토에선 뭬는 건디 건 밧디서만 뭬는디 그걸 허면은 흰 멘네는 흰 걸로 나오곡, 뚜로 노랑 멘네는, 노랑 멘네가 셔마씨. 색깔이 노리롱헌 건디. 이렇게 헌 것은 노랑 실로 나오고, 게난 여기서 보통은 두 가지 실을 빼어낫수다. 두 가지 허여 가지고 두 가지 놓곡.(목화라고 한 것이 일반 밭보다 아주 그 비옥토에서야 됩니다, 목화는. 비옥토에서만 되는 것인데 건 밭에서만 되는데 그걸 하면은 흰 면화는 흰 것으로 나오고, 또 노랑 면화는, 노랑 면화가 있어요. 색깔이 노르무레한 건데. 이렇게 한 것은 노랑 실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은 두 가지 실을 빼었었습니다. 두 가지 하여 가지고 두 가지 놓고.)

106007 #2 멘네도 아무 디나.(면화도 아무 데나.)

106007 @ 토목이여, 셍목이여, 광목이여 이렇게 구분 안 헤낫수가?(토목이여, 생목이여, 광목이여 구분 안 했었습니까?)

106007 #1 아, 건 토목 멩주옌 헌 건 토목이엔 헌 건 그 저 아까 골앗수다만, ᄀᆞ시롱헌 거 문딱 나난 실 뺀 것은 건 그냥 일반 멩주로 들어가고 ᄒᆞ끔 거칠곡.(아, 건 토목 명주라고 한 건 토목이라고 한 건 그 저 아까 말했습니다만, 가느다란 거 모두 나니까 실 뺀 것은 건 그냥 일반 명주로 들어가고 조금 거칠고.)

106007 @ 아, 게난 이것이 멩주가 아니고 무명도 그러수가?(아, 그러니까 이것이 명주가 아니고 무명도 그렇습니까?)

106007 #1 무명은 그 토목 멩주.(무명은 그 토목 명주.)

106007 @ 토목 무명?(토목 무명?)

106007 #1 일름은 경 허여마씀. 토목 미녕, 토목 거.(이름은 그렇게 해요. 토목 무명, 토목 거.)

106007 @ 토목 미녕예.(토목 무명요.)

106007 #1 그 당시는 옛날은 보면은 우리 어린 때 들으면은 그 한림읍 일대 우리 대림[189]이라든지 수원[190] 일대에 여기덜은 미녕이 뭬고, 뚠 딘 남군[191]더레라든지는 아이 뭬어, 목화가 아이 뭬어마씨. 아이 뭬니까 그 저 남군에서라든지 저 이제 ᄀᆞ뜨믄 귤을 ᄀᆞ졍 온다든지 감을 ᄀᆞ졍 온다든지, 떡을 만들아 온다든지 헹은에 멘네 쪼끔 바뀌엉 가곡 그 사름덜은 멘네를 받앙 강은에 자기네 집이서 뚜로 이제 미녕을 만들고 허는디, 보통 그 저 자라는 과정은 아주 건 밧디예, 건 밧디서만 저 목화가 자랍주, 늦인 밧딘 잘 아이 뭬어마씨.(그 당시에는 옛날은 보면은 우리 어릴 때 들음은 그 한림읍 일대 우리 대림리라든지 수원리 일대 여기들은 무명이 되고, 딴 데는 남군으로라든지는 안 되어, 목화가 안 되어요. 아니 되니까 그 저 남군에서라든지 저 이제 같으면 귤을 가져서 온다든지 감을 가져서 온다든지, 떡을 만들어 온다든지 해서 면화 조금 바꿔 가고 그 사람들은 면화를 받아서 가서 자기네 집에

189) '대림'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를 말한다.
190) '수원'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를 말한다.
191) '남군'은 제주도에서 한라산 남쪽 지방을 일컫는다.

서 또 이제 무명을 만들고 하는데, 보통 그 저 자라는 과정은 아주 건 밭에요, 건 밭에서만 저 목화가 자라지. 낮은 밭에는 잘 안 돼요.)

106007 @ 게난 이 토목 미녕, 셍목, 광목.(그러니까 이 토목 무명, 생목, 광목.)

106007 #1 예, 걸 가리지 아니 허영 그거 토목 미녕이엔 헌 건 곧 짜 놓은 거, 그 베틀에서 쭉 짜만 놓은 것이 그 토목 미녕이엔 헤 가지고 허는디 걸 다 짜 논 것은 그 옷기지가 나오젠 허믄 그대로도 저 해 입주만은 걸 바렌다고 헤 가지고 바다깃디 강 저 불리면서 그냥 물리왓당, 불리면서 물리왓당 허멍 헤양케 걸 바렙니다. 경 헤야 옷기지가 완전 상품이 뒈는 겁주.(예, 걸 가리지 않아서 그거 토목 무명이라고 한 건 곧 짜 놓은 거, 그 베틀에서 쭉 짜만 놓은 것이 그 토목 무명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걸 다 짜 놓은 것은 그 옷감이 나오려고 하면 그대로도 저 해 입지만은 걸 바랜다고 해 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바르면서 그냥 말렸다가, 바르면서 말렸다가 하면서 하얗게 걸 바랩니다. 그렇게 해야 옷감이 완전 상품이 되는 거지.)

106007 @ 게믄 그것이 광목이 뒈는 거라마씨.(그러면 그것이 광목이 되는 거지요.)

106007 #1 아니우다, 그것이, 그것이 미녕이 뒈는 겁주. 미녕이 뒈는데 광목이엔 허는 건 여기서 생산뒈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방직공장에서 생산뒈는 것고라 광목이라고 헙니다.(아닙니다, 그것이. 그것이 무명이 되는 거지. 무명이 되는데 광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방직공장에서 생산되는 것 더러 광목이라고 합니다.)

106007 @ 여기선 광목을 공장에서 생산허는 걸로 얘기허는구나예. 혹시 뭐 닷새무명이렌 허는 말 들어봅디가?(여기선 광목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얘기하는군요. 혹시 뭐 닷새무명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106007 #1 아, 닷새미녕, 읏새미녕, 건 어떤 말인고 허면 그 생산헌, 멘네를 생산헤 가지고 미녕을 빠는 과정꺼지도 거 사름 솜씨에 따라 가지고 뜩낫는데 거 뭣 허면은 그 닷새미녕 ᄀᆞ튼 것은 미녕이 홁읍니다. 훌꼭, 거 좀질게 헌 것에서는 읏새, 일곱새ᄁᆞ지도 막 나가는 게.(아, 닷새무명, 엿새무명, 건 어떤 말인고 하면 그 생산한, 면화를 생산해 가지고 무명을 빼는 과정까지도 거 사람 솜씨에 따라 가지고 달랐는데 그거 뭣 하면은 그 닷새무명 같은 것은 무명이 굵습니다. 굵고, 거 가늘게 한 것에는 엿새, 일곱새까지도 마구 나가는 게.)

106007 @ 여덜새까지예?(여덟새까지요?)

106007 #1 예, 예. 겐 것은 아주 좀질게 빠진 거. 겐 옷기지라든지 옷 멘드는 것은 좀질게 짜진 것이 좋읍주게. 그추룩 헤근에.(예, 예. 그래서 것은 아주 가늘게 빼진 거. 그래서 옷감이라든지 옷 만드는 것은 잘고 가늘게 짜진 것이 좋습지요. 그처럼 해서.)

106007 @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좀질게 짜진 거, 여덜새미녕 허면은 확실허게 좀진 거.(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가늘게 짜진 거, 여덟새무명 하면은 확실하게 가는 거.)

106007 #1 질 거친 것이 닷새미녕.(젤 거친 것이 닷새무명.)
106007 @ 닷새미녕.(닷새무명.)
106007 #1 닷새미녕이엔 헤낫수다.(닷새무명이라고 했었습니다.)
106007 @ 거친 미녕이 닷새.(거친 무명이 닷새.)
106007 #1 예, 예.(예, 예.)
106007 @ 그다음에 좀질게 뭰 게 여덜새, 아홉새.(그다음에 가늘게 된 게 여덟새, 아홉새.)
106007 #1 아, 아홉새꺼진 엇고 그자 여섯, 일곱새꺼진 나가낫수다.(아, 아홉새까진 없고 그저 여섯, 일곱새까진 나갔었습니다.)
106007 @ 여섯, 일곱까지예.(여섯, 일곱까지요.)
106007 #1 혼 시 종류꺼지.(한 세 종류까지.)
106007 @ 음, 그게 이 촘촘허게 뒈느냐 안 뒈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허는 거네예.(음, 그게 이 촘촘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걸 가지고 구분하는 거네요.)
106007 #1 예.(예.)
106008 @ 음, 게 이 미녕으론 어떤 옷을 만들어낫수가?(음, 그래 이 무명으로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6008 #1 미녕으론 모든 걸 다 헷수다. 바지저고리도 만들곡 내의도 다 만들곡, 뚜로 저 뭐냐 두루마기도 미녕 두루마기도 저 물들영 헤 입곡. 겐디 그 저 광목이라든지 뚠 건 아주 부잣집 가정에 강 광목보단 더 좋은 것덜 입엇수다만은 부잣집덜은 경 허고, 일반 서민덜은 다 미녕으로만 입어십주게.(무명으론 모든 걸 다 했습니다. 바지저고리도 만들고 내의도 다 만들고, 또 저 뭐냐 두루마기도 무명 두루마기도 저 물들여서 해 입고. 그런데 그 저 광목이라든지 딴 건 아주 부잣집 가정에 가서 광목보다는 더 좋은 것들 입었습니다만 부잣집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 서민들은 다 무명으로만 입었습지요.)
106008 @ 뭐 상복도 걸로 헹 입엇수가?(뭐 상복도 걸로 해서 입었습니까?)
106008 #1 상복도.(상복도.)
106008 @ 여자분덜 입는 상복은 미녕, 광목인가?(여자분들 입는 상복은 무명, 광목인가?)
106008 #1 아, 건 다 광목이랏수다.(아, 건 다 광목이었습니다.)
106008 @ 광목예. 광목하고 미녕하고 그 차이는 미녕은 여기서 순수하게 만든 거고.(광목요. 광목하고 무명하고 그 차이는 무명은 여기서 순수하게 만든 거고.)
106008 #1 예, 예.(예, 예.)
106008 @ 광목은 육지서 공장에서 만들엉 온 거고, 음, 그렇구나예. 그니까 미녕으론 모든 농사일 때 입는 옷이든 아니믄 뭐 속옷이든 이런 거 다 미녕으로예, 모든 옷감이, 옷 만드는 거에 기본은 다 미녕이로구나예.(광목은 육지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온 거고, 음,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명으론 모든 농사일 때 입는 옷이든 아니면 뭐 속옷이든 이런 거 다 무명으로요, 모든 옷감이, 옷 만드는 거에 기본은

다 무명이군요.)

106008 #1 예.(예.)

106009 @ 음, 토목 미녕으론 뭘 만들아낫수가?(음, 토목 무명으로는 뭘 만들었습니까?)

106009 #1 토목 미녕으론 바지, 저고리.(토목 무명으로 바지, 저고리.)

106009 @ 바지저고리, 건 무사 토목 미녕으로 만들앗수가?(바지저고리, 건 왜 토목 무명으로 만들었습니까?)

106009 #1 겐 거 ᄒᆞ끔 좀질고 멋진 것덜은, 광목이라든지 이것은 해방 이후에사 입어십주, 광목이엔 헌 게 일제시댄 읏엇수다. 일본 갓다 온 사름덜 그 일제시대는 우리 어멍네 말에 의하면 일본 가 가지고 방직공장에 셔 노니까 광목 셧지, 제주도에라든지 우리나라엔 광목덜이 얼마 엇어십주게. 저게 그 연도가 잇지 아니허꽈? 그 저 멘네 들어온 연도가 문익점이가 그 저 두 개 거졍왕.(그래서 거 조금 가늘고 멋진 것들은, 광목이라든지 이것은 해방 이후에야 입었습지요, 광목이라고 한 게 일제 강점기는 없었습니다. 일본 갔다온 사람들 그 일제 강점기는 우리 어머니네 말에 의하면 일본 가 가지고 방직공장에 있었으니까 광목 있었지, 제주도에라든지 우리나라엔 광목들이 얼마 없었습지요. 저게 그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저 면화 들어온 연도가 문익점이가 그 저 두 개 가져와서.)

106009 @ 고려 말에.(고려 말에.)

106009 #1 예, 그 저 인천허고 군산 심어 가지고 헷다고 허는디 그것도 겐 번식헨 셔 낫주만은 그 전엔 엇어십주게.(예, 그 저 인천하고 군산 심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래서 번식해서 있었었지만 그 전에는 없었습지요.)

106009 @ 게난 토목으로 만드는 옷하고, 토목 미녕으로 만드는 옷하고, 그 육지서 내려온 광목으로 만든 옷은 좀 달라낫수가?(그러니까 토목으로 만드는 옷하고, 토목 무명으로 만드는 옷하고, 그 육지서 내려온 광목으로 만든 옷은 좀 달랐었습니까?)

106010 #1 예, 광목은 아주 좀질고 보기가 좁주게.(예, 광목은 아주 가늘고 보기가 좋지요.)

106010 @ 그것도 게난 어떤 옷을 만들엇수가?(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옷을 만들었습니까?)

106010 #1 건 이 저 입는 옷덜 다 바지고 저고리고 학셍덜 양복이고 다.(건 이 저 입는 옷들 다 바지고 저고리고 학생들 양복이고 다.)

106010 @ 양복, 교복?(양복, 교복?)

106010 #1 예, 교복 입는데, 쪼금 더 돈 잇곡 영 헌 사름덜은 광목으로, 나중에는 광목 입어십주게. 처음에 일제시대에는 광목을 입어보지 못헤십주기. 다 저 토종 미녕옷만.(예, 교복 입는데, 조금 더 돈 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광목으로, 나중에는 광목 입엇습지요. 처음에 일제 강점기에는 광목을 입어보지 못했습지요. 다 저 토종 무명옷만.)

106010 @ 미녕옷만.(무명옷만.)

106010 #1 예.(예.)

106011 @ 홍세미녕[192]에 대해서 알아지쿠가?('홍세미녕'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106011 #1 예, 홍세미녕이엔 헌 건 미녕을 그 저 결혼헐 때에 예물로 보낼 때에 홍세 미녕 놔 놔마씨. 겐디 그걸 뭐냐 허면 함을 놀 때 보통 양 끗 흔펜더레 가게끔 헤져사 살림 잘 산다 헤 가지고 그걸 개영 놀 때도 놓곡, 뚜로 저 거리는 흔 비리썩 두 비리를 받앗수다, 뭐. 두 비릴 놩 함에 놩 그거 놓곡 뚜로 예장 썽 놓곡 경 헤나십주게.(예, '홍세미녕'이라고 한 건 무명을 그 저 결혼할 때에 예물로 보낼 때에 '홍세미녕' 놔 놔요. 그런데 그걸 뭐냐 하면 함을 놓을 때도 보통 양 끝 한편으로 가게끔 해야 살림 잘 산다 해 가지고 그걸 개어서 넣을 때도 넣고, 도 저 거리는 한 필씩 두 필을 받았습니다, 뭐. 두 필을 놔서 함에 놔서 그거 넣고 예장 써서 넣고 그렇게 했었습지요.)

106011 @ 음.(음.)

106011 #1 예장이엔 허믄 이제 ᄀᆞ뜨믄 저 뭐냐 저 혼인신고서 닮은 겁주게. 이만저만 헤 가지고 당신의 귀흔 딸을 주셧으니 저 우리 아덜이 잘 허니까 베필을 하겟습니다. 모든 예의를 갖추니 반겨줍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것이 그 저.(예장이라고 하면 이제 같으면 저 뭐냐 저 혼인신고서 같은 거지요. 이만저만 해 가지고 당신의 귀한 딸을 주셨으니 저 우리 아들이 잘 하니까 배필을 하겠습니다.)

106011 @ 예장 쓰곡 거기다가 홍세미녕 놓고.(예장 쓰고 거기다가 '홍세미녕' 넣고.)

106011 #1 예, 예.(예, 예.)

106011 @ 함에예?(함에요?)

106011 #1 예.(예.)

106012 @ 그 멘네 농사를 헤 봅디가?(그 면화 농사를 해 봤습니까?)

106012 #1 예.(예.)

106012 @ 게난 어떵 허는 거우꽈? 멘네 농사는.(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면화 농사는.)

106012 #1 멘네 농사는 것도 저 요즘 ᄒᆞ끔 늦엄수다, 뭐. 그 저 요즘 전인 입하, 그 저 ᄉᆞ월절 들면은 멘네를, 아까도 ᄀᆞᆯ앗는디 저 비옥헌 땅이라야 뒈니까양 그때 뒈민 걸름 놓곡 헹은에 그 밧을, 번헌 것을 갑니다게, 농사 아이 지엇던 거, 일 년 내낭 거 놀려왓주게. 겨울 내낭 땅을 쉬와근에 땅에 걸음을 놔야 그 멘네가 뒈지, 그땐 비료 없을 때니까. 겡 아니허믄 아이 뒙주게. 그 저 멘네 갈면은 그 저 커는 끗데 골을 갈아야 헙니다. 요만이 골을 갈아 가지고 나무가 자라게끔 허기 위헤서 골 갈곡, 또 그게 한 오십 전 육십 전 크면 다 우를 막아야 뒈어마씨.(면화 농사는 것도 저 요즘 조금 늦고 있습니다, 뭐. 그 저 요즘 전에는 입하, 그 저 사월절 들면은 면화를, 아까도 말했는데 저 비옥한 땅이라야 되니까 그때 되면 거름 놓고 해서

192) '홍세미녕'은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이다.

그 밭을, 애벌갈이한 것을 갑니다, 농사 아니 지었던 거, 일 년 내내 거 놀려 왔지요. 겨우 내내 땅을 쉬게 해서 땅에 거름을 놔야 그 면화가 되지, 그땐 비료 없을 때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요. 그 저 면화 갈면은 그 저 크는 끝에 골을 갈아야 합니다. 요만큼 골을 갈아 가지고 나무가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골 갈고, 또 그게 한 오십 전 육십 전 그면 다 우를 막아야 되어요.)

106012 @ 아, 예.(아, 예.)

106012 #1 우를 막아야 가지가 거려 가지고 더 많이 옵주게. 게 아니믄 우 아이 막으믄 웨줄 뒈엉 나무가 자랑.(위를 막아야 가지가 갈라져 가지고 더 많이 열지요. 그래 아니면 위 안 막으면 외줄 되어서 나무가 자라서.)

106012 @ 아, 올라가불어 가지고예.(아, 올라가 버려 가지고요.)

106012 #1 예.(예.)

106012 @ 막는 건 뭘로 막읍니까?(막는 건 무엇으로 막습니까?)

106012 #1 우막는 건 손으로마씨, 손으로 영 뎅이멍 그자.('우막는' 건 손으로요, 손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그저.)

106012 @ 아, 영 흔 줄 요만이 크민 요디 꼭지를 따부는 게 우막는덴 허는 말이로구나예?(아, 이렇게 한 줄기 요만큼 크면 요기 꼭지를 따버리는 게 '우막는다고' 하는 말이군요?)

106012 #1 예, 예.(예, 예.)

106012 @ 우막는다고예?('우막는다'고요?)

106012 #1 예.(예.)

106012 #2 경 헤사 경 가지 거릴 거난예.(그렇게 해야 그렇게 가지 갈라질 거니까요.)

106012 #1 우리 한단밧[193]이 좋아난양. 한단밧디 해마다 갈앗수다.(우리 '한단밧'에 좋았었어요. '한단밧'에 해마다 갈았습니다.)

106012 @ 꼭지를 따 버려야 허는 거. 그 멘네 타는 건 언제 탑니까?(꼭지를 따버려야 하는 거. 그 면화 따는 건 언제 땁니까?)

106012 #1 타는 것은 가을 들어가믄, 가을 들믄 탑니다. 가을 보통 그 저 그 양력으로 허면은 보통 저 촐왓디 가기 전에 것을 땁주게. 땅 허는디 여자덜 춤 부지런헌 사름덜은 촐왓디 가기 전이 아침 세벡이 그걸 각지 체 타오면은, 타다 뒁 어멍 아방 촐왓디 가불믄 우린 이거 저 무뚱[194]에 저 푸대에 담앗당 탁 뿌려놩 우리 어머님네 경 헤나서마씸게. 혹교 가오 건 이거 까라. 경 허믄 우린 학교 강 왕 그걸 일일이 그 저 깐다는 것은 저 그 목화가 영 갑을 벌려진 것을 목화, 뚜로 그 안네 잇는 껍데기, 뚜로 이걸 분리시켜서 헌덴 허는 겁주.(따는 것은 가을 들어가면, 가을 들면 땁니다. 가을 보통 그 저 그 양력으로 하면은 보통 저 꼴밭에 가기 전에 것을 따지요. 따서 하는데 여자들 참 부지런한 사람들은 꼴밭에 가기 전에 아침 새

193) '한단밧'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194) '무뚱'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벽에 그걸 깍지 채 따오면은, 따다 둬서 어머니 아버지 꼴밭에 가버리면 우린 이거 저 '무뚱'에 저 포대에 담았다가 탁 뿌려놔서 우리 어머님네 그렇게 했었어요. 학교 가오 건 이거 까라. 그렇게 하면 우린 학교 가서 와서 그걸 일일이 그 저 깐다는 것은 저 그 목화가 이렇게 갑이 벌려진 것을 목화, 그 안에 있는 껍데기, 또 이걸 분리시켜서 한다고 하는 거지.)

106012 @ 음.(음.)

106012 #1 예, 경 헤나십주.(예, 그렇게 했었습지요.)

106012 @ 게믄 팔월 멩질 지낭이우꽈?(그러면 팔월 명절 지나서입니까?)

106012 #1 그 끗데꺼지도 헷수다. 게서 그 팔월 멩질은 보통 그 저 일찍 뒐 수도 잇곡, ᄒᆞ끔 늦이 뒐 수도 잇곡 허는디, 그전에 그게 약 백로 팔월절 들면은 다 땁니다, 뭐. 땀 시작헙니다.(그 끝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팔월 명절은 보통 그 저 일찍 될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전에 그게 약 백로 팔월절 들면은 다 땁니다, 뭐. 따기 시작합니다.)

106012 @ 음, 백로에. 그 미녕은 어떵 실을 빳수가?(음, 백로에. 그 무명은 어떻게 실을 뺐습니까?)

106012 @ 미녕 빠는 것은 그 멘네를 다 따오면은 그 저 비 맞추지 아니 헤 가지고 그 아주 일기가 화창헌 날에 대헤서는 그 저 가을에 다 받앙 놔두면은 건즘 농한기가 뒈얍주게, 건 웨 그러냐 허면 가을걷이를 다 걷어들이고 보리 갈아 뒁 그 때부떤 농한기엔 헹 부인네덜이 그걸 저 부인네도 허곡, 불라준다고 헹 남자덜이 헙주게. 불라가면 씨 따로 그 저 솜 뚜로 나오게 허는 것고라 ᄇᆞ르는 무르에라고 헙주게. 무르에 놩 걸 둘러가면은 그 저 씨 뚜로 그 저 솜 뚜로 나오는 거난.(무명 빼는 것은 그 면화를 다 따오면은 그 저 비 맞히지 않아 가지고 그 아주 일기가 화창한 날에 대해서는 그 저 가을에 다 받아서 놔두면은 거의 농한기가 되어야지요, 건 왜 그러냐 하면 가을걷이를 다 거둬들이고 ㅂ리 갈아 둬서 그때부터는 농한기라고 해서 부인네들이 그걸 저 부인네도 하고, 발라준다고 해서 남자들이 하지여. 발라가면 씨 따로 그 저 솜 따로 나오게 하는 것더러 바르는 물레라고 하지요. 물레 놔서 걸 둘러가면은 그 저 씨 따로 그 저 솜 따로 나오는 거니까.)

106012 #2 영 흔쪽 손으론 영 이거 기계 둘르곡, 흔쪽 손은 멘네 멕이고.(이렇게 한쪽 손으론 이렇게 이거 기계 두르고, 한쪽 손은 면화 먹이고.)

106012 #1 멘네 그레 영 멕이고.(면화 그리 이렇게 먹이고.)

106012 #2 경 허믄 씨 뚜로 떨어지곡 뒤터렌 그냥 멘네 솜만 나가.(그렇게 하면 씨 따로 떨어지고 뒤로는 그냥 면화 솜만 나가.)

106012 #1 멘네 솜만 나가고, 뒤엔 솜만 나가곡, 앞더렌 저 멘네씨 털어지고. 이것고라 그 저 ᄇᆞ르는 무르에라고 헤 가지고 이 뒤칩잇 하르방이 그걸 아주 손재주가 좋아 가지고 하근걸 만들앙양, 그걸 나무로, 나무로 만든 것이 그추룩 그 줄을 영 멘들앙 나가게 만들아낫수다. 뒤칩잇 하르방 잘 허니까, 이 부근 대림, 수원, 한림, 귀덕 근처에는 다 이 집잇 하르방안티 왕 그걸 멘들어 가낫수다.(면화 솜만 나

가고, 뒤엔 솜만 나가고, 앞으로는 저 면화씨 떨어지고. 이것보고 그 저 바르는 물레라고 해 가지고 이 뒷집에 할아버지가 그걸 아주 손재주가 좋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걸 나무로, 나무로 만든 것이 그처럼 그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게 만들었었습니다. 뒷집에 할아버지 잘 하니까, 이 부근 대림, 수원, 한림, 귀덕 근처에는 다 이 집에 할아버지한테 와서 그걸 만들어 갔었습니다.)

106012 @ 게 솜 나오믄 게 실도 어떵 멘들아사.(그래 솜 나오면 그래 실도 어떻게 만들어야.)

106012 #1 솜 나오믄 걸 저 태운다고 헤 가지고.(솜 나오면 걸 저 태운다고 해 가지고.)

106012 @ 아, 태워.(아, 태워.)

106012 #1 태운다는 것은 그 저 공장에 가 가지고 그걸 북삭허게 기계로 헤 가지고 걸 부순다고 허영 걸 헤집니다. 걸 헤지민 그 빙떡[195]ᄀᆞ찌 뭣고 그 가레기엔 헌 건가?(태운다는 것은 그 저 공장에 가 가지고 그걸 푹신하게 기계로 해 가지고 그걸 부순다고 해서 그걸 해집니다. 그걸 해지면 그 '빙떡'같이 뭣이고 그 가락이라고 한 건가?)

106012 @ 가레기?(가락?)

106012 #1 거 뭣이엔 헌다만은. 그 야튼 솜 멘들기 위헤서 그걸 그디 강 만들앙 오면 걸 저 요만썩 질게끔 그걸 뚜로 감앙 저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허면은 그 틀에 강 따온 것을 놩 저 그 멘들락헌 저런 널짝 우이 놔 가지고 그 저 것도 문지락헌 억새, 억새 속에 잇는 것이 그걸로 영 거려놩 영 짱 물곡 허믄 요 지러기에 헤근에 요만이 굵게 멘들어사 헙주게.(그거 뭣이라고 한다만은. 그 아무튼 솜 만들기 위해서 그걸 거기 가서 만들어서 오면 걸 저 요만큼씩 길게끔 그걸 또 감아서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그 틀에 가서 따온 것을 놔서 저 그 매끈한 저런 널쪽 위에 놔 가지고 그 저 그것도 반드러운 억새, 억새 속에 있는 것이 그걸로 이렇게 떠놔서 이렇게 짜서 말고 하면 요 길이에 해서 요만큼 굵게 만들어야 하지요.)

106012 @ 음.(음.)

106012 #1 겐 걸 다 만들어마씨. 만들어 놔뒀다가 걸 일일이 뚜로 여인네덜은 그 농한기에는 아침부떠 밤늦게꺼지라도 그걸 그자 계속 이엉 둘러가면은 것에서 실이 나오멍 감아집니다. 감아졍 허믄 꼬리옌 헌 것이 잇어마씨.(그래서 걸 다 만들어요. 만들어 놔뒀다가 걸 일일이 또 여인네들은 그 농한기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라도 그걸 그저 계속 이어서 둘러가면은 것에서 실이 나오면서 감아집니다. 감아져서 하면 실톳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106012 #2 이쪽으로 영 ᄃᆞᆼ겨가멍 이걸로 둘르믄 실ᄀᆞ찌 ᄀᆞ늘게 나왕은에.(이쪽으로 이렇게 당겨가면서 이걸로 두르면 실같이 가늘게 나와서.)

---

195) '빙떡'은 메밀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이다.

106012 @ 돌돌돌돌 나오는구나.(돌돌돌돌 나오는구나.)

106012 #1 예.(예.)

106012 @ 겐 실을, 실을 빠는 게 그거구나예.(그래서 실을, 실을 빼는 게 그거군요.)

106012 #1 예, 예.(예, 예.)

106012 #2 경 헹 실을 빼어근에 경 헤낫수게. 우린 놈 허는 것만 봔 안 헤낫수다.(그렇게 해서 실을 빼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남 하는 것만 보고 안 했었습니다.)

106012 @ 게난 그거 실 빼믄 이제.(그러니까 그 실 빼면 이제.)

106012 #1 아, 이제 그거 다시 실 나오면은 그걸 아까ᄀᆞ찌 일일이 뚜로 그 저 남자덜을 앚앙 도레기 뒈게 실 감읍니다, 그걸 뚜로.(아, 이제 그 다시 실이 나오면 그것을 아까같이 일일이 따로 그 저 남자들이 가져서 바퀴 되게 실을 감습니다. 그것을 따로.)

106012 @ 도레기에예.(바퀴에요.)

106012 #1 예, 그 무르에에 실 나오민 영 감앙 놔뒷당 걸 뚜로 는다고 혜 가지고 걸 열두 줄을 허영은에 줄이 열두 개 줄 놔근에 아까 곧다시피 흔 멧 메다 간격 셍기게 쫙 널평, 거 저 놀아난 놀, 걸 멥주기. 멘들앙 뚜로 그 저 풀에 구들에 막 서꺼놩 ᄆᆞᆯ리운 것을 그것에 뚜로 적정 아렌 불 영 때어가면서 ᄆᆞᆯ리우멍 영영영 일일이 줄 딱 허영 짜기 좋게끔 만드는 겁주게.(예, 그 물레에 실 나오면 이렇게 감아서 놔두었다가 그것을 따로 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열두 줄을 해서 줄 열두 개 줄 놓아서 아까 말했다시피 한 몇 미터 간격이 생기게 쭉 넓혀서, 그거 저 날아난 노를, 그것을 메우지. 만들어서 따로 그 저 풀에 구들에 마구 섞어놓고 말린 것을 그것에 따로 적셔서 아래에는 불 이렇게 때가면서 말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줄 딱 해서 짜기 좋게끔 만드는 것이지요.)

106012 @ 그거는 저 무명허고 비슷허다예? 명주가, 아니 명주허고예?(그것은 저 무명하고 비슷하네요? 명주가, 아니 명주하고요?)

106012 #1 예. 명주헐 때난 그거나 마찬가지우다.(예. 명주할 때니까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06012 @ 마찬가지.(마찬가지)

106012 #1 실 빼는 과정도 다 거 지혜라는 게 마찬가집주게.(실 빼는 과정도 다 거 지혜라는 게 마찬가집지요.)

106012 @ 게난 거 멘네 어디 강은에 탁탁탁 헤오는 건 어디 공장 잇어낫수가?(그러니까 거 면화 어디 가서 탁탁탁 해오는 것은 어디 공장 있었습니까?)

106012 #1 아, 거기 저.(아, 거기 저.)

106012 #2 이제도 싯수다게.(이제도 있습니다.)

106012 #1 이제도 저 옹포[196] 하나 셔낫수다.(이제도 저 옹포 하나 있었습니다.)

196) '옹포'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를 말한다.

106012 #2 저 옹포 어디.(저 옹포리 어디.)

106012 @ 솜 테우는 디.(솜 태우는 데.)

106012 #1 예, 솜틀입주게.(예, 솜틀입니다.)

106012 #2 옛날은 미녕만 아니고 뚤덜 시집 보네젱 허민 멘네 갈아근에 헤당 이불허영 시집보내곡 헤낫수게.(옛날에는 무명만 아니고 딸들 시집 보내려고 하면 면화 갈아서 해서 이불을 해서 시집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106012 @ 맞수다게. 솜예, 솜이불 헤가지고, 그거 다 공장에 강은에 저 솜을 테왕 오는구나. (맞습니다. 솜, 솜이불 해서, 그거 다 공장에 가서 저 솜을 태워 오는구나.)

106012 #1 예.(예.)

106012 #2 이 아주버닌 어떵 허연 영 잘 아는 아주방 알안 와집데가?(이 아주버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아는 아주버니 알아서 왔습니까?)

106012 @ 하하하.(하하하.)

106012 #2 이 아주버닌 어머니가 헤나난 잘 알안.(이 아주버니는 어머니가 했었으니까 잘 알아.)

106012 #1 예.(예.)

106012 #2 예게, 난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아니허고, 어린 때 육지 나간 열일곱에 나간 스물세 살 뒈도록 육지 살아부난양, 그런 거 저런 거 몰라마씨.(예, 나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거 안 하고, 어린 때 육지 나가서 열일곱에 나가서 스물세 살 되도록 육지 살아서, 그런 거 저런 거 몰라요.)

모시

106013 @ 이젠 모시에 대허영 물어보쿠다. 모시 실 멘드는 과정 알아지쿠가?(이젠 모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시 실 만드는 과정 알겠습니까?)

106013 #1 아, 모시는 그 저 여기선 모시를 많이 안 갈앗수다. 웨냐면은 모싯대가 셔낫수다. 그 어떠냐면은 삼시, 모시 헤가지고 그 밧데 좀 갈아서 그거 저 모시 나무가 자라면은 한 가을 들어가믄 그걸 비엉 놀ᄀᆞ치 독독독 두드리면은 겁죽 짝 벳겨집니다. 그걸로 헤 가지고 모시를 만들아십주게.(아, 모시는 그 저 여기서는 모시를 많이 안 갈았습니다. 왜나하면 모싯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떠냐면 삼시, 모시 해서 그 밭에 좀 갈아서 그거 저 모시 나무가 자라면 한 가을 들어가면 그것을 베어서 날같이 똑똑똑 두드리면 거죽 쫙 벗겨집니다. 그것으로 해서 모시를 만들었습지요.)

106013 @ 모시는예.(모시는요.)

106013 #2 우리 제주도에서도 모시 멘들아낫수가?(우리 제주도에서도 모시 만들었습니까?)

103001 #1 만들어보진 안 헷수다, 만들어 보진 안 헤도.(만들어보지는 안 했습니다. 만들어 보지는 안 해도.)

103001 #2 우리 제주도에선 모시 안 멘들앗수다게.(우리 제주도에서는 모시 안 만들었습니다.)

106013 #1 모시를 만든 건 아니고 그 여기서는 그 모시 만드는 겁죽을예, 신발을 삼앗수다, 베도 멘들고.(모시를 만든 것은 아니고 그 여기서는 그 모시 만드는 거죽을, 신발을 삼았어요. 베도 만들고.)

106015 @ 모시 재배는 헤낫수가?(모시 재배는 했었습니까?)

106015 #1 모시, 거의 재배를 안 헷수다.(모시, 거의 재배를 안 했습니다.)

106015 @ 재배를 헤나긴 허고마씨?(재배를 했었긴 하고요?)

106015 #1 일반적인 재배를 안 헤도 그냥 도 난 걸로 경 헤근에, 거 겁죽을 헤 십주.(일반적인 재배를 안 해도 그냥 새싹 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거 거죽을 했습지요.)

106015 @ 아.(아.)

106015 #1 모시낭이엔 잣동네 밧디 강 보민 십니께, 겐 그것고라 모시낭이엔, 방송에 보난예, 육지선 그 모시낭 이만이 허믄 그걸로 허영 겁죽 영 벳경 방송에 보난 나옵디다.(모시나무라고 잣동네 밭에 가서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더러 모시나무라고, 방송에 보니까, 육지에서는 그 모시나무 이만큼 하면 그것으로 해서 거죽 이렇게 벗겨서 방송에 보니까 나옵니다.)

106015 @ 음. (음.)

106015 #2 우리 제주도선 모시 안 헤낫수다.(우리 제주도에서는 모시 안 했었습니다.)

106015 #1 게난 그 종류가 뚜나우다,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거, 여기 이 아주머니 곧는 것은 소도 헤당 멕이고양, 그 잣 구석에 ᄀᆞ튼 나는 거.(그러니까 그 종류가 다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나는 거, 여기 이 아주머니 말하는 것은 소도 해다가 먹이고, 그 잣 구석에 같은 나는 거.)

1060151 #2 쉐촐 헤당 비어당 멕이고.(쇠꼴 해서 베어서 먹이고.)

106015 #1 거 소도 잘 먹읍니다뭐. 것고라 모시렌 허고 또 우리 그렇지 않은 건 나 아까 곧듯이 베도 짜곡 베도 꼬으곡 허는 건 거 이파리가 까릿까릿 허여 가지고 우리 키만큼 자랍니다. 자랑 그 겁죽 벳경 허는 겁주.(그것 소도 잘 먹습니다. 그것 보고 뭐라고 하고 또 우리 그렇지 않은 건 제가 아까 말하듯이 베도 짜고 베도 꼬고 하는 것은 이파리가 '까릿까릿' 해 가지고 우리 키만큼 자랍니다. 자라서 그 거죽 벗겨서 하는 거죠.)

106015 @ 게난 모시실을 빼 보긴 헙니가?(그러니까 모시실을 빼 보기는 합니까?)

106015 #1 안 헷수다, 건.(안 했습니다, 그건.)

106015 @ 안 헤보고. 모시실은.(안 해보고. 모시실은.)

106015 #2 제주도선 모시 실을 안 헷수다.(제주도에서는 모시 실을 안 했습니다.)

106015 #1 모시는 제주도에서는 아이 빠 나고 아까 곧듯이 겁죽 벳겨가지고 베도 꼬우곡 신도 삼곡.(모시는 제주도에서는 아니 빼 나고 아까 말하듯이 거죽 벗겨가지고 베도 꼬고 신도 삼고.)

106015 @ 아, 건 실 빼는 게 아니고예.(아, 그것은 실 빼는 게 아니고요.)

106015 #1 예, 예, 이 제주도에서는.(예, 예, 이 제주도에서는.)

106015 @ 거 저 굵게 헤서 신도 삼아낫구나예.(거 저 굵게 해서 신도 삼았었군요.)

106015 #1 예, 그 겁죽.(예, 그 거죽.)

106015 @ 겁죽으로.(거죽으로.)

106015 #1 겁죽 벳기믄 질게 작작 벳겨집니다뭐.(거죽 벗기면 길게 쭉쭉 벗겨집니다뭐.)

106015 @ 그건 무신 신이엔 헷수가?(그것은 무슨 신발이라고 했습니까?)

106015 #1 그거 찝신이난 그냥 찝신이라고.(그거 짚신이니까 그냥 짚신이라고)

삼

106016 @ 거믄 이제 삼, 삼 알지예, 삼, 삼으로도 이제 만들어낫수가? 재배헤서.(그러면 이제 삼, 삼 알지요, 삼, 삼으로도 이제 만들었습니까? 재배해서.)

106016 #1 아니, 삼 ᄀᆞ뜬 건 재배를 안 헷수다.(아니, 삼 같은 거는 재배를 안 했습니다.)

106016 #2 삼ᄀᆞ뜬 거는 재배 안 헷수다.(삼 같은 것은 재배 안 했습니다.)

106016 @ 혹시 뭐 그런 거에 대헤서 아는 건 엇고예?(혹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건 없고요?)

106016 #1 예.(예.)

106017 @ 음, 삼에 대헤서는, 게난 이 삼은 뭘 만드는 건지 알잖아예?(음, 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삼은 뭘 만드는 건지 알잖아요?)

106017 #1 삼도 아까ᄀᆞ치 모시 마찬가지로 여기선 그 저 재배도 안 허곡 헤도 베도 꼬으곡 신도 삼곡.(삼도 아까같이 모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그 저 재배도 안 하고 해도 베도 꼬고 신도 삼고.)

106017 @ 예, 게난 삼베렌 허지 안 헙니까예, 삼베.(예, 그러니가 삼베라고 하지 안 합니까, 삼베.)

106017 #1 예, 예.(예, 예.)

106017 @ 우리 저 영장 나믄 삼베 옷 입듯이 그 옷예. 그 삼베, 그 베는, 하여간 그와 관련뭔 거는 잘 모르고예.(우리 저 영장 나면 삼베 옷 입듯이 그 옷요. 그 삼베, 그 베는 하여간 그와 관련된 것은 잘 모르고요.)

106017 #1 예.(예.)

도구

106019 @ 우리 그 저 씨앗, 멘네 씨앗은 건 어떵 헙니까?(우리 그 저 씨앗, 면화 씨앗은 그건 어떻게 합니까?)

106019 #1 아, 멘네씨는 거 저 쉐 사료로도 멕이곡, 그걸 뚜로 저 지름을 빱니다. 이젠 석유 지름 ᄀᆞ뜬 거 많이 나와도 그 시대ᄁᆞ지도 석유 지름 아이 나 가지고 그걸, 석유를 배급헤나십주게. 해방 ᄒᆞᆫ 이삼 년ᄁᆞ지도 배급헷수다뭐. 배급헤낫는디 그 석유가 아니 날 적에는 멘네씨 지름으로 불 싸낫수다.(아, 면화씨는 거 저 소 사료로도 먹이고, 그걸 또 저 기름을 뽑습니다. 이젠 석유 기름 같은 거 많이 나와도 그 시대까지도 석유 기름 아니 나 가지고 그걸, 석유를 배급했었습지요. 해방 한 이삼 년까지도 배급했습니다뭐. 배급했었는데 그 석유가 안 날 적에는 면화씨 기름으로 불 켰었습니다.)

106019 @ 아, 씨 지름으로 불 싸난예, 각짓불을.(아, 씨 기름으로 불 켰었어요, 등잔불을.)

106019 #1 게고 뚜로 허리병에 먹으믄 좋나 헤가지고 그거 먹기도 허고.(그리고 또 허리병에 먹으면 좋다고 해가지고 그거 먹기도 하고.)

106019 @ 허리병에?(허리병에?)

106019 #1 예.(예.)

106019 @ 아, 허리병, 허리병 날 때 먹어도 좋고.(아, 허리병, 허리병 날 때 먹어도 좋고.)

106019 #1 예, 예, 것에 곤밥 헤 놩은에 멘네씨 지름 ᄒᆞᆫ 두어 수까락 놩은에 먹엉 똠 내우믄 좋나 헤낫수다.(예, 예, 그것에 흰밥 해 놔서 면화씨 기름 한 두어 숟가락 놔서 먹어서 땀내면 좋다고 했었습니다.)

106019 @ 그 씨앗으로 씨도 뿌리고예?(그 씨앗으로 씨도 뿌리고요?)

106019 #1 예.(예.)

106020 @ 게난 밧디 뿌리기도 허고예, 뿌리기도 허고, 아까, 아까, 물레, 물레에 대헤서 아는 데로 ᄀᆞᆯ아줍서.(그러니까 밭에 뿌리기도 하고요, 뿌리기도 하고, 아까, 아까, 물레, 물레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해주세요.)

106020 #1 물레는 그거 저 ᄇᆞᆯ르는 물레허고 싸는 물레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게. 건 ᄇᆞᆯ르는 물레엔 헌 건 어떤 거냐 허면 그 멘네 자체의 솜허고 씨를 구분시키는 것이 ᄇᆞᆯ르는 물레고, 또 싸는 물레는 그 다 실을 만들기 위헤 가지고 실 빨 때, 실 빨 때 굴리는 것고라는 저 싸는 물레라 허고.(물레는 그거 저 바르는 물레하고 잣는 물레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바르는 물레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그 면화 자체의 솜하고 씨를 구분시키는 것이 바르는 물레고, 또 잣는 물레는 그 다 실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실 뺄 때, 실 뺄 때 굴리는 것더러는 저 잣는 물레라 하고.)

106020 @ 음. ᄇᆞᆯ르는 물레, 싸는 물레.(음. 바르는 물레, 잣는 물레.)

106020 #1 예. 게, 그 물레에는 그 싸는 물레에는 그 가락이란 것이 이십주기. 가락에엔 헌 것이 뭣이냐 허면 그 ᄒᆞᆫ 사십오 센치쯤 뭔 강헌 강철로 만든 것인데 그 어욱 미주클에 톡 메어 놩 실 ᄒᆞ끔 쌍 부뜸 시작허면은, 그 춤 여인네덜 기술입

주게, 그 저 빙떡 ᄀᆞ찌 뭰 거, 그거 일름 잊어불어신디, 그 저 영 만든 것ᄀᆞ라. 그거 요지허게 헤가지고 다 헤논 것을 영 좁앙 영 둘러가면 ᄎᆞ츰ᄎᆞ츰 그 저 계속 실이 나옵니다.(예. 그 물레에는 그 잣는 물레에는 그 가락이라는 것이 있습지요. 가락이라고 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 한 사십오 센티미터쯤 된 강한 강철로 만든 것인데 그 억새 '미주클'에 톡 매어 놔서 실 조금 자서 붙음 시작하면, 그 참 여인네들 기술입지요. 그 저 '빙떡' 같이 된 거, 그거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저 이렇게 만든 것더러. 그거 유지하게 해가지고 다 해놓은 것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둘러가면 차츰차츰 그 저 계속 실이 나옵니다.)

106020 @ 게는 그건 솜을 영 헤논 다음에, 보관헤 뒀당, 아니믄 바로?(게는 그건 솜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보관해 뒀다가, 아니면 바로?)

106020 #1 예, 차롱에, 그 저 정미소, 정미소가 아니고 솜틀 공장에 가가지고 멘네를 테울 때에 그 아, 정[197] 만들앙, 정, 정. 그 정이엔 헌 것이 ᄒᆞᆫ ᄉᆞ십 센찌쯤 뭰 것인디, 그 저 ᄉᆞ십 센치 정도에서 직경 ᄒᆞᆫ 이 센치쯤 동골락허게 뒈엉 ᄆᆞᆯ게 뭰 겁주게. 게난 그걸 차롱 ᄀᆞ득 담아놩 허고.(예, 채롱에, 그 저 정미소, 정미소가 아니고 솜틀 공장에 가서 면화를 태울 때에 그 아, '정', '정'. 그 '정'이라고 한 것이 한 사십 센티미터쯤 된 것인데, 그 저 사십 센티미터 정도에서 직경 한 이 센티미터쯤 동그랗게 되어서 말게 된 겁죠. 그래서 그걸 채롱 가득 담아놔서 하고.)

106020 @ 음.(음.)

106020 #1 ᄄᆞ로 그런 걸 데며놔뒀다가 그걸로 여인네덜이 ᄒᆞ끔 실을 부뜸 시작허믄 저 물레에 둘러가믄양.(따로 그런 걸 쌓아놔뒀다가 그걸로 여인네들이 조금 실을 붙음 시작하면 저 물레에 둘러가면요?)

106020 @ 쌀 때양?(잘 때요?)

106020 #1 그 저 그디서 실이 줄줄줄 나옵니다. 게난 그걸 계속 그걸 한두 개가 아닙주기. 게난 멘네 허젠 상당이 공들곡, 물레 일 허젠 허믄 굉장이 힘이 드는 겁주기.(그 저 거기서 실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그걸 한두 개가 아닙지요. 그러니까 면화하려고 상당히 공들고, 물레 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드는 겁죠.)

106021 @ 게, 그다음에는 베틀, 베틀에 대헤서 말해줍서.(그렇게, 그 다음에는 베틀, 베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106021 #1 베틀은 싸는 실 빼어 논 걸, 이걸 또 일일이 아까도 이야기헷수다만은 저 ᄒᆞᆫ 사십 센치 뒈게 저 넙적헌 걸 싸기 좋게끔 풀 멕여 가지고 ᄆᆞᆯ리우멍 판찍 다듬읍주게. 다듬으멍 허영 만들아서 그 광목이라든가, 아 광목이 아니고 그 미녕을 만드는 재료를 다 헐 때ᄁᆞ지 그걸 헙주기.(베틀은 잣는 실 빼어 놓은 걸, 이걸 또 일일이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한 사십 센티미터 되게 저 넓적한 걸 잣기 좋게끔 풀 먹여 가지고 말리면서 깨끗이 다듬습지요. 다듬으며 해서 만들어야 그 광목이라든가, 아 광목이 아니고 그 무명을 만드는 재료를 다 할 때까지 그걸 합지

197) '정'은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낸 물건이다.

요.)

106021 @ 게난 그.(그러니까 그.)

106021 #1 베틀이엔 허는 것은 미녕을 짜는 것고라 베틀이엔 허고.(베틀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을 짜는 것더러 베틀이라고 하고.)

106021 @ 게난 베틀에는 실 나오는 틀을 하나 겁니까?, 멧 게 겁니까?(그러니까 베틀에는 실 나오는 틀을 하나 겁니까?, 몇 개 겁니까?)

106021 #1 아, 베틀에는 그 저 베틀 잇고, 거기에 뭣고, 싸는 가레기 잇고, 가레기엔 헌 건 실 감아진 거양. 그거 잇고 뚜로 저 ᄇᆞ디, ᄇᆞ디라고 헤 가지고 그 저 아주 가늘게 허여 가지고 ᄀᆞ뜩 일렬로 헤 가지고 이만이 너븐디서 헤서 이만이 질게 헤 가지고 그거에 실 꿰영 허믄 일직선으로 각 영 짜지게 허영, 짜지게 헌 것을 그 ᄇᆞ디 저 트망마다 실 웨가달로 다 들어갑주게.(아, 베틀에는 그 저 베틀 있고, 거기에 뭐냐, 잣는 가락 있고, 가락이라고 한 건 실 감아진 거요. 그거 있고 또 저 바디, 바디라고 해 가지고 그 저 아주 가늘게 해 가지고 가뜩 일렬로 해 가지고 이만큼 넓은 데서 해서 이만큼 길게 해 가지고 그것에 실 꿰어서 하면 일직선으로 각 이렇게 짜지게 해서, 짜지게 한 것을 그 바디 저 틈마다 실 외다리로 다 들어갑니다.)

106021 @ 아, 예.(아, 예.)

106021 #1 들어가믄 영 영 ᄃᆞᆼ이멍 계속 쓸어사 이거 쑥히 골라집주게. 겐 그걸 싸는 게 ᄇᆞ디.(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서 계속 쓸어야 이것이 숙히 골라집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싸는 게 바디.)

106021 @ 음, 게난 그 명칭이예. 명칭이, 발로 영 허는 페달허영 줍아뎅기고 하는 거는?(음, 그래서 그 명칭이요. 명칭이, 발로 이렇게 하는 페달해서 잡아당기고 하는 것은?)

106021 #1 그것이 베틀인디.(그것이 베틀인데.)

106021 @ 게니까.(그러니까.)

106021 #1 베틀에 대헤서 발로 영 눌리믄 거 ᄇᆞ디로 갓다왓다 허멍 저 들럿다 놧다 헤지멍 그 간격이 바뀌어집주게. 바뀌어지믄 글로 영 실 하나허믄 하나허고, 둘 허믄 둘 허멍 계속 왓다갓다 허멍 걸 짜지는 겁주게.(베틀에 대해서 발로 이렇게 누르면 그거 바디로 갔다왔다 하면서 저 들었다놨다하면서 그 간격이 바뀌지지요. 바뀌지면 거기로 이렇게 실 하나하면 하나하고, 둘하면 둘하면서 계속 왔다갔다 하면서 그것을 짜지는 거지요.)

바느질

106022 @ 저 여자삼춘님, 바느질 도구에 대헤서 알아지쿠가?(저 여자삼촌님, 바느질 도구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106022 #2 바느질 도구가 뭣 셔마씨게?(바느질 도구가 뭐 있나요?)

106022 @ 게난.(그러니까.)

106022 #1 그냥 바농에 실 꿰엉덜 헷주기.(그냥 바늘에 실 꿰어서 했지요.)

106022 @ 아, 게, 이런 디 뭐 영 손에 영.(아, 그래, 이런 데 뭐 이렇게 손에 이렇게.)

106022 #1 아, 골메, 골메.(아, 골무, 골무.)

106022 @ 골메.(골무.)

106022 #1 손에 영 끼우는 거 잇지 안 허우꽈?(손에 이렇게 끼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106022 #1 몰르쿠다, 난 그런 건 안 헤보난.(모르겠습니다, 난 그런 건 안 해보니까.)

106022 @ 그런 거 안 헤봣수다. 하하하.(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하하하.)

106022 #1 골메, 그.(골무, 그.)

106022 #2 아니, 이 바느질을 하영 헤사 골메 지주. 그런 건 안 헤보난 몰라마씨.(아니, 이 바느질을 많이 해야 골무 끼지. 그런 건 안 해보니까 몰라요.)

106022 #1 그 골메엔 헌 건, 손가락에 끼는 금반지ᄀᆞ찌 끼는 건디 것보다 ᄒᆞ끔 넘어마씨. 넘은 것을 그 바농에 손 찔르카부덴 방지용으로 골메를 껴십주.(그 골무라고 한 것은, 손가락에 끼는 금반지같이 끼는 것인데 그것보다 조금 넘어요. 넘은 것을 그 바늘에 손 찌를까 싶어서 방지용으로 골무를 꼈지요.)

106022 @ 게고 또 뭐 바농 차롱, 바농착이, 바농착?(그리고 또 뭐 바늘 채롱, 반짇고리, 반짇고리?)

106022 #1 아, 저 바농, 바농 쌈지엔 헌 거 잇지 안 허꽈.(아, 저 바늘, 반짇고리라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106022 @ 쌈지.(반짇고리.)

106022 #1 그 실도 놓곡 바농도 그디 놩 놔두곡, 험벅덜토 ᄒᆞ끔 놩 놔뒀당, 저 허게 뒈믄 거 꺼내어근에 뚜로 씌곡 씌곡 허는 거.(그 실도 놓고 바늘도 거기 놓아 놔두고, 헝겊들도 조금 놓아 놔뒀다가, 저 하게 되면 그것 꺼내어서 또 쓰고 쓰고 하는 거.)

106022 #2 게, 그때 옛날사.(그래, 그때 옛날이야.)

106022 #1 바농, 바농집이지 다른 일름 셔나서마씨?(바늘, 바늘집이지 다른 이름 있었어요?)

106022 @ 바농착이엔 안 헷수가?(반짇고리라고 안 했습니까?)

106022 #1 짝, 바농짝. 바농짝이엔 헌 거 닮수다.(짝, 반짇고리. 반짇고리라고 한 것 같습니다.)

106022 #2 그 저 무신거 차롱착 닮은 거 아니우꽈.(그 저 뭐 채롱짝 같은 거 아닙니까?)

106022 #1 예.(예.)

106023 @ 맞수다게, 차롱착 닮은 거. 그 바느질 허는 방법은 어떵 헙니까?(맞습니다, 채롱짝 같은 거. 그 바느질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106023 #2 바농질 허는 방법이사 어떵 헙니까?, 똑 ᄀᆞ틉주, 무슨. 바농질 허는

방법이 틀려마씨?(바느질 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합니까, 똑같지, 무슨, 바느질 하는 방법이 달라요?)

106023 @ 아니, 게난 옷을 홀 때 보면 감치기도 뭐 영 어떵 영, 난 못헤봐신디, 어머니네 허는 거 보믄 허는 방법들이 쪼금 영 감는 방법도 잇고.(아니, 그러니까 옷을 할 때 보면 감치기도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난 못해 봤는데, 어머니네 하는 거 보면 하는 방법들이 조금 이렇게 감는 방법도 있고.)

106023 #1 건 감추는 거, 감추는 것은.(그건 감추는 거, 감추는 것은.)

106023 #2 영 허여근에 영 영 감추는 거 싯고. 경 허는 것도 싯곡, 그냥 영영 줍는 것도 싯곡, 여러 가집니다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감추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깁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106023 @ 그것이 여러 가지를 구분을 헤 줘 봅서. 어떵 허는 건지.(그것이 여러 가지를 구분을 해 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인지.)

106023 #2 구분헐 거 무신거, 영영 허는 거는 감추는 거고, 그냥 영 허는 거는 그냥 바느질 허는 거난. 난양 그런 거 잘 몰라마씨게. 진짜 아니 헤보난. 우린 저 감 들영 입젠 허민 광목으로, 미싱에서 옛날은 미싱 엇인 때나 손으로 허고, 우리, 우리 헐 때는 미싱에서 허난예 그걸 몰라마씨, 잘 몰릅니다게, 그런 거.(구분할 거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바느질 하는 거니까. 난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진짜 안 해보니까. 우린 저 감 들여서 입으려고 하면 광목으로, 재봉틀에서 옛날은 재봉틀 없을 때나 손으로 하고, 우리, 우리 할 때는 미싱에서 하니까요, 그걸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런 거.)

106023 @ 바농질, 맞수다게, 미싱덜이 잇어나시난예, 맞수다. 게도 일반적인 거 ᄒᆞ끔 뭐 헌 거는 다 바농질로 허긴 헷지예?(바느질, 맞습니다. 재봉틀들이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인 것 조금 뭐 한 것은 다 바느질로 하긴 했지요?)

106023 #1 예, 예.(예, 예.)

106023 #2 옛날엔 다 바느질 헤십주게.(옛날엔 다 바느질 했습니다.)

106023 #1 그 일제시대, 해방 직후 ᄒᆞᆫ 십여 년ᄁᆞ지도 혼인하는 데 가장 귀물은, 부잣칩이서 헤 주는 것은 미싱, 예.(그 일제 강점기, 해방 직후 한 십여 년까지도 혼인하는 데 가장 귀물은, 부잣집에서 해주는 것은 재봉틀, 예.)

106023 @ 미싱. (재봉틀.)

106023 #1 새각시 헤 가는 거, 그거라십주게.(새색시 해 가는 거는, 그거였습지요.)

106023 #2 옛날 우리 시집 올 때도 미싱, 나도 미싱 허연 왓수다게.(옛날 우리 시집 올 때도 재봉틀, 나도 재봉틀 해서 왔어요.)

106023 @ 아이고, 부젯칩이서 왓구나예. 하하하.(웃음)(아이고, 부잣집에서 왔군요. 하하하.)(웃음)

106023 #2 미싱 허연 오난에 그거 무시것고 안양[198]에서, 안양에 방직에 잇이난

198) '안양'은 경기도 안양시를 말한다.

거기서 산 가젠 오란에 저 허여신디 혼 삼 년 전이꼬지 나 쓰단 눈 어둡고 난 안 헤지난 쌍둥이 어멍 ᄀᆞ젼 간 쓰단 우리 손지 영 가져가신디, 너무 오래난 못 쓰쿠다 헨 뎃겨불엇고렌 헙니다. 호호호.(웃음)(재봉틀 해서 오니까 그거 무엇인가 안양에서, 안양에 방직이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가려고 와서 저 했는데 한 삼 년 전까지 나 쓰다가 눈 어둡고 난 안 하니까 쌍둥이 어머니 가져가서 쓰다가 우리 손자 이렇게 가져갔는데, 너무 오래니까 못 쓰겠어요 해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호호호.(웃음))

106023 @ 그거 지름 좀 치믄 거자 써 지는디.(그거 기름 좀 치면 그저 쓸 수 있는데.)

106023 #2 경 허연 그거 가져가 불엇수덴 허멍, 어떵허연 내불엇수덴 허멍 경 ᄀᆞᆯ안게. 게난 옛날은예, 우리는 여기 안 사난예, 어린 때 육지 나산 뎅겨부난 옛날에 거 허는 거를 자세헌 거를 잘 몰라마씨게. 게난 이거.(그렇게 해서 그거 가져가 버렸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내버렸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옛날은, 우리는 여기 안 사니까, 어릴 때 육지 나서서 다녀버리니까 옛날에 그거 하는 것을 자세한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106023 #1 난 미녕 ᄀᆞ튼 거 아는 원인은 우리 어린 때부떠 할머니나 우리 어머님이나 질쌈덜을 헤십주게. 질쌈을 헷수다게.(난 무명 같은 거 아는 원인은 우리 어릴 때부터 할머니나 우리 어머님이나 길쌈들을 했습니다. 길쌈을 했어요.)

106023 @ 집에서예.(집에서요.)

106023 #2 허여나난 잘 알암수다게.(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106023 @ 허여난 잘 알아부니까예, 음.(했었으니까 잘 알아 버리니까요, 음.)

106023 #2 우린 그런 걸 안 헤부난 몰라.(우린 그런 걸 안 하니까 몰라.)

옷 종류

106024 @ 게민 옷 종류에 대헤서 남자덜 옷 종류에 대헤서 알아지쿠가? 남자덜 옷, 옛날에 입어난.(그러면 옷 종류에 대해서 남자들 옷 종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남자들 옷, 옛날에 입었던.)

106024 #1 남자덜 옷사 질 안네 내의허고, 그다음에 바지저고리, ᄯᅳ로 쪽께.(남자들 옷이야 제일 안에 내의하고, 그다음에 바지저고리, 따로 조끼.)

106024 #2 두루마기.(두루마기.)

106024 #1 두루마기, 그거주게.(두루마기, 그거지요.)

106024 #2 그겁주게.(그거지요.)

106024 @ 주로예, 게난 농사, 일허렌 갈 땐 어떤 옷을 입엇수가?(주로요, 그러니까 농사, 일하러 갈 때에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106024 #1 게난 일허렌 갈 때는 갈중이라 헤가지고는, 그 미녕옷에다가 그 저 가을 들어가지고 감물을 들이면은 이게 뻣뻣헤지곡 풀 아니헤도 입어지곡, 또 질겨마씨, 막. 그냥 감물 아이 들인 거 둘씩 입는디, 감물 들이민 하나믄 뒈주마씨. 게난

그 감물을 꼭 헤십주게.(그러니까 일하러 갈 때는 갈중이라 해 가지고는, 그 무명옷에다가 그 저 가을 들어가지고 감물을 들이면은 이게 뻣뻣해지고 풀 안 해도 입어지고, 또 질겨요, 마구. 그냥 감물 안 들인 거 둘씩 입는데, 감물 들이면 하나면 되죠. 그러니까 그 감물을 꼭 했습지요.)

106024 #2 이제도 감물 들영 입습니다, 뭐.(이제도 감물 들여서 입습니다, 뭐.)

106024 @ 집에서 입는 옷은?(집에서 입는 옷은?)

106024 #1 집이서 뭐 감 아이 들여가지고 그냥 헌 것은 그 저 홑바지허곡 줍바지허곡, 소게바지허고 시 가지가 셧수다.(집에서 뭐 감 안 들여가지고 그냥 한 것은 그 저 홑바지하고 접바지하고, 솜바지하고 세 가지가 있었어요.)

106024 @ 홑바지허고, 줍바지, 속바지예?(홑바지하고, 접바지, 솜바지요?)

106024 #1 예, 뚜로 저 그 곳세 곧당 잊어불언.(예, 또 저 그 아까 말하다가 잊어버렸어.)

106024 @ 아, 게, 골아봅서.(아, 그래, 말해보세요.)

106024 #1 허허허.(웃음)(허허허.)(웃음)

106024 @ 게난 그 세 가지? 집에서예.(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집에서요.)

106024 #1 예.(예.)

106024 @ 밖에 나갈 땐 어떤 옷 입엇수가?(밖에 나갈 땐 어떤 옷 입었습니까?)

106024 #1 밖에는게 예절을 갖추젠 허믄 남자는 두루마기.(밖에는 예절을 갖추려고 하면 남자는 두루마기.)

106024 @ 두루마기.(두루마기.)

106024 #1 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어사 허고, 여자는 치메를 입어나십주게.(남자는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고, 여자는 치마를 입었습지요.)

106025 @ 게믄 저 여자옷은 어떤 것덜이 잇엇수가?(그러면 저 여자옷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106025 #1 여자옷은, 허허허.(웃음)(여자옷은, 허허허.(웃음))

106025 #2 여자옷이야 뭐 몸뻬허고 우에 저 무시것고 저고리 닮은 거 입어근에 뎅기난에 허고게. 웨출헐 때는 치메허곡 저고리허곡 입엉 나가고, 경 헷수다.(여자옷이야 뭐 일바지하고 위에 무엇이냐 저고리 같은 거 입어서 다니니까 하고. 외출할 때는 치마하고 저고리하고 입어서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106025 @ 일헐 때는 몸뻬 입고예?(일할 때는 일바지 입고요?)

106025 #2 예, 일헐 때는 몸뻬 입고.(예, 일할 때는 일바지 입고.)

106025 @ 집이서는 뭐 입고마씨?(집에서는 뭐 입고요?)

106025 #2 아이고, 집이서도 마찬가지마씨. 밧디 뎅기는 옷 그냥 입어마씨. 이제난 하주 옛날에사 무신거 셔낫수가게?.(아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밭에 다니는 옷 그냥 입어요. 지금이야 많지 옛날에야 뭐 있었습니까?)

106025 @ 거고 뭐 소중이, 적삼?(그리고 뭐 속옷, 적삼?)

106025 #1 예, 소중기.(예, 속옷.)

106025 #2 옛날은양 소중기 허여근에 입어근에, 요새ᄀᆞ찌 팬티가 셔 낫수강게, 엇이난. 경 헨 입어낫수게.(옛날은 속옷 해서 입어서, 요새같이 팬티가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었습니다.)

106025 @ 게난 그것덜은 다 미녕으로나 광목으로?(그러니까 그것들은 다 무명으로나 광목으로?)

106025 #1 예, 광목은 그 아주 발달뒈어 가지고 해방 쪽 이후에 광목을 입엇고, 나머진 다 미녕으로.(예, 광목은 그 아주 발달되어 가지고 해방 쪽 이후에 광목을 입었고, 나머지는 다 무명으로.)

106025 #2 옛날은 광목 엇어나서마씨, 이 제주도는.(옛날은 광목 없었어요, 이 제주도는.)

106025 #1 우리도 일제시대꺼지는 다 미녕옷 헨 입어십주, 광목옷을 헨 입어보지 못 헷수다게. 해방뒌 끗데는 저 교복 입는 것은 광목으로 헨 입어십주게. 그 일제시대꺼지는 그냥 교복도 다 미녕옷으로 헨 입어십주게.(우리도 일제 강점기까지는 다 무명옷 해서 입었습니다. 광목옷을 해서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해방된 끝에는 저 교복 입는 것은 광목으로 해서 입었습지요. 그 일제 강점기까지는 그냥 교복도 다 무명옷으로 해서 입었습지요.)

106026 @ 게믄 아이덜 옷은 어떤 옷덜 입혓수가?(그러면 아이들 옷은 어떤 옷들 입혔습니까?)

106026 #1 아이덜토게 그냥 어른이나 마찬가집주게.(아이들도 그냥 어른이나 마찬가지였습지요.)

106026 @ 게난 아이덜도.(그러니까 아이들도.)

106026 #1 예, 그 저 감만 들영 안 입음뿐입주, 그냥 저 바지 저고리 어린 땐 입곡, 뚜로 그 아, 아이덜 강알 터진.(예, 그 저 감만 들여서 안 입음 뿐이지, 그냥 저 바지 저고리 어릴 때에는 입고, 또 그 아, 아이들 사타구니 터진.)

106026 @ 알 터진 거, 강알 터진 바지예. (아래 터진 것, 사타구니 터진 바지요.)

106026 #2 예, 어린 때는예. (예, 어릴 때는요.)

106026 #1 그것ᄀᆞ라 무슨 바지엔 헙니까?(그것더러 무슨 바지라고 합니까?)

106026 @ 허허허.(웃음)(허허허.)(웃음)

106026 #2 몰르쿠다게, 나도.(모르겠습니다, 나도.)

106026 #1 허허허,(웃음) 그 바지 아이덜 입는 것은, 그때는 물도 어렵고양 두세 술꺼지는 그대로 빤슬 안 입지고 허니까 뭘 헐 때라도 오줌 싸민 거 더러웁주게.(허허허,(웃음) 그 바지 아이들 입는 것은, 그때는 물도 어렵고 두세 살까지는 그대로 팬티를 안 입히고 하니까 뭘 할 때라도 오줌 싸면 그거 더럽지요.)

106026 @ 빨래도 못허고 허니까.(빨래도 못하고 하니까.)

106026 #1 예, 그냥 저 그 영 강알 터진 옷 허영 입을 땐 그자 앚앙 그냥 오줌 싸불곡 헤십주게.(예, 그냥 저 그 이렇게 사타구니 터진 옷 해서 입을 땐 그저 앉아

서 그냥 오줌 싸버리고 했습지요.)

106026 @ 그냥 오줌 싸불고예, 게난 위에는 뭐 입혀나신고예? 아이덜, 위에 그냥.(그냥 오줌 싸버리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무엇을 입혔었나요? 아이들, 위에 그냥.)

106026 #1 위에도게 저고리 입져십주게, 어린 땐. 것이 차차 발달뒈어가난 광목이라든지 이 좋은 옷덜 허곡, 이 시장이서들 옷을 풀안 입어십주. 걸 풀아낫수가게?(위에도 저고리 입혔습지요. 어릴 땐. 그것이 차차 발달되어가니까 광목이라든지 이 좋은 옷들 하고, 이 시장에서들 옷을 팔아서 입었습지요. 그걸 팔았습니까?)

106026 @ 아이 옷덜은 만들어보진 안 허고예?(아이 옷들은 만들어보지는 안 하고요?)

106026 #1 전이 우리 할망은 잘 만들앗수다만은.(전에 우리 할머니는 잘 만들었습니다만.)

106027 @ 그 거난 마름질헌덴 허는 말은 알지예?, 마름질, 영 그.(그 그러니까 마름질한다고 하는 말은 알지요? 마름질, 이렇게 그.)

106027 #1 바농질?(바느질?)

106027 @ 아, 마름질, 마름질예.(아, 마름질, 마름질요.)

106027 #2 마름질이 뭐우꽈?(마름질이 뭐입니까?)

106027 @ 마름질은 저 옷을 만들 때, 영 재봉질 허는 거예.(마름질은 저 옷을 만들 때, 이렇게 재봉질 하는 거요.)

106027 #1 예.(예.)

106027 @ 그런 걸 마름질이엔 허는 건디, 그게 옷은 안 만들아난예, 만들아나지 안헨예, 옷은. 그 옷 만드는 거 봐본 적은 엇수가? 어른들이 옷 만드는 거는.(그런 걸 마름질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옷은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보지 않았어요, 옷은. 그 옷 만드는 거 봐본 적은 없습니까? 어른들이 옷 만드는 것은.)

106027 #2 하이고, 옷 만드는 디 강 구경을 안 헤봣수다게.(아이고, 옷 만드는 데 구경을 안 해봤습니다.)

106027 #1 나는 우리 할망 옷 만들 때 많이 봐십주.(나는 우리 할머니 옷 만들 때 많이 봤습지요.)

106027 #2 아주버니는 자꾸 그런 걸 보난 허고, 난 그런 거 허는 걸 안 봐보난. 게고예, 제주도도 그디 저디 말이 다 틀려마씨.(아주버니는 자꾸 그런 걸 보니까 하고, 난 그런 거 하는 걸 안 봐보니까. 그리고, 제주도도 거기 저기 말이 다 달라요.)

106027 @ 음, 게니까마씨.(음, 그러니까요.)

106027 #2 말이 다 틀려, 영 뎅겨보믄.(말이 다 달라, 이렇게 다녀보면.)

106027 @ 말이 틀리난 우리가 이렇게 흔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헴수다게.(말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합니다.)

106027 #2 예, 다 틀령.(예, 다 달라서.)

106028 @ 그 바지랑, 저고리, 치메, 아, 보선도 만들아낫지예? 보선?(그 바지랑, 치마, 아, 버선도 만들었지요? 버선?)

106028 #2 예, 옛날 보선덜토 만들언 신엇수게게. 그것도 광목으로 만들언 신어십주.(예, 옛날 버선들도 만들어서 신었습니다. 그것도 광목으로 만들어서 신었습지요.)

106028 @ 광목으로.(광목으로.)

106028 #1 전인 미녕으로 허단.(전에는 무명으로 하다가.)

106028 #2 옛날엔 미녕으로 허단 우리 시집온 후젠 다 광목으로 만들안 신엇수게.(옛날에는 무명으로 하다가 우리 시집온 후에는 다 광목으로 만들어서 신었습니다.)

106028 @ 아, 보선은 미녕으로, 처음엔 미녕으로 만들안 신엇구나예.(아, 버선은 무명으로, 처음엔 무명으로 만들어서 신었군요.)

106028 #2 아이, 미녕으로는 막 우리 어린 때고, 나중에는 우리 ᄒᆞ끔 ᄋᆞᆨ으난에 광목으로 멘들안에.(아니, 무명으로는 아주 우리 어릴 때고, 나중에는 우리 조금 자라니까 광목으로 만들어서.)

106028 @ 바지나 저고리나 뭐 이런 부분 부분 명칭, 그 무슨 이름덜이 잇지 안헙니까, 바지?(바지나 저고리나 뭐 이런 부분 부분 명칭, 그 무슨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지?)

106028 #1 이름덜 싯주게.(이름들 있지요.)

106028 #2 바지영, 무신 우와게, 우와게 이 부라우스 ᄀᆞ튼 건 우와게.(바지랑, 무슨 윗도리, 윗도리 이 블라우스 같은 것은 윗도리.)

106028 @ 우와겐디 아니 게난 저고리 허믄 저고리에 뭐 이 여기 이 앞에 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헤서 뭐 그런 것들이.(윗도리인데 아니 그러니까 저고리 하면 저고리에 뭐 이 여기 이 앞에 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것들이.)

106028 #1 아, 저고리허믄 앞이영 우에는 저 동전.(아, 저고리하면 앞이랑 위에는 저 동전.)

106028 #2 동전 ᄃᆞᆯ앙.(동전 달아서.)

106028 @ 동전.(동전.)

106028 #1 예, 이 목허고 거 뭣이엔 헌다, ᄯᅳ로 저 후다ᄁᆡ지 고와야 헐 거니까 동전이라고 헌 것은 희양헌 고운 걸로.(예, 이 목하고 거 뭐라고 한다, 또 저 뒷모습까지 고와야 할 거니까 동전이라고 한 것은 하얀 고운 걸로.)

106028 #1 버믈믄 ᄯᅳ시 영 뜯어뒁 새로 동전 ᄃᆞᆯ곡.(더러워지면 다시 이렇게 뜯어둬서 새로 동전 달고.)

106028 @ 그다음 뭐?(그다음 뭐?)

106028 #1 동전허고 ᄯᅳ로 그 곰, 곰이라고 헤가지고 그 단추 대신허는 거 잇수다. (동전하고 또 그 고름, 고름이라고 해서 그 단추 대신하는 거 있어요.)

106028 #2 단추 아니허여근에, 저고리에 이만큼 질게 허여근에 곰 ᄃᆞᆯ앙 그걸로

메어근에, 이제도 그건 저고리에 경 메난.(단추 안 해서, 저고리에 이만큼 길게 해서 고름 달아서 그걸로 매어서, 이제도 그건 저고리에 그렇게 매니까.)

106028 #1 즛곰허곡 베꼇곰이 두 가지가 셔.(안고름하고 바깥고름 두 가지가 있어.)

106028 @ 단추 고망이 엇이니까.(단추 구멍이 없으니까.)

106028 #1 즛곰이엔 헌 건 안으로.(안고름이라고 한 건 안으로.)

106028 #2 안으로 영 메곡, 우에론 뚜시 영 허여근에 저고리 곰 메곡, 이제도 저고린 경 헴수다.(안으로 이렇게 매고, 위로는 다시 이렇게 해서 저고리 고름 매고, 지금도 저고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6028 @ 음.(음.)

106028 #1 예, 경 헴실 거우다.(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106028 @ 아.(아.)

106028 #2 이제도 경 허멘, 저고린.(이제도 그렇게 해요, 저고리는.)

106028 @ 곰하고 그다음에 뭣?(고름하고 그다음에 무엇?)

106028 #1 또 이 짓.(또 이 깃.)

106028 @ 짓은 또?(깃은 또?)

106028 #1 짓이엔 헌 건, 앞이 영 그.(깃이라고 한 건, 앞에 이렇게 그.)

106028 @ 깃?(깃?)

106028 #1 깃 바우를 부 불로 에워쌍 그 감춰논 우터레 짓 희양헌 걸로 뚠 줄 허여근에 단추도 돌곡, 곰도 돌아가지고 그걸로 더 부뜨는 것고라 짓이엔 허여.(가 가장자리를 두 벌로 에워싸서 그 감춰 놓은 위로 깃 하얀 것으로 딴 줄 해서 단추도 달고, 고름도 달아가지고 그걸로 더 더 붙는 것더러 깃이라고 해.)

106028 @ 아, 덧부치는 거.(아, 덧붙이는 거.)

106028 #2 호호호.(웃음)(호호호.)(웃음)

106028 #1 짓, 짓, 헤낫수다, 뭐.(깃, 깃, 했었습니다, 뭐.)

106028 @ 그 저고리엔 그렇고 치마에는 어떤 명칭덜이 잇수가?(그 저고리에는 그렇고 치마에는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까?)

106028 #2 치마에는예 허리 영 영 허영 주름 좁아근에예 허리 멘들아근에 이 허리에 뭐 허게끔 멘들아근에 저 입엇수게게.(치마에는 허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름 잡아서 허리 만들어서 이 허리에 뭐 하게끔 만들어서 저 입었습니다.)

106028 @ 게난 그걸 뭐렌 헤낫수가? 그 그렇게 하는 걸, 부분?(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그 그렇게 하는 걸, 부분?)

106028 #2 그 부분은 무신거 허리치마, 허리엔 헤십주.(그 부분은 뭐라고 허리치마, 허리라고 했습지요.)

106028 @ 치메, 치메허리?(치마, 치마허리?)

106028 #2 예.(예.)

106028 @ 치메허리?(치마허리?)

106028 #2 경 헹근에 영 주름잡아근에 이제 영 허여봐근에 일로 영 둘렁 요 정도는 크게 헤사 치메 입으믄 영 겹쳐질 거난. 경 헨에 헤낫수게게. 주름잡아근에 것더레 허리에 맞게끔 주름잡아근에 헨 헤낫수다.(그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잡아서 이제 이렇게 해봐서 여기로 이렇게 둘러 요 정도는 크게 해야 치마 입으면 이렇게 겹쳐질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주름잡아서 그것으로 허리에 맞게끔 주름잡아서 해서 했었습니다.)

106028 @ 치메깍은 어딜 치메깍이렌 헤낫수가?(치맛자락은 어디를 치맛자락이라고 했었습니까?)

106028 #2 치메깍은게 치메가 영 벌어지난 영 입으믄 영 허여근에 앞더레 영 허여근에 무껑 뎅겻수게. 그냥 영 허지 아니허영.(치맛자락은 치마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입으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묶어서 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하지 안 하고.)

106028 @ 그것이 치메깍? (그것이 치맛자락?)

106028 #2 예.(예.)

106028 #1 그 위는 허리가 치메고 알레 끗데 퍼닥퍼닥 그 깍이 십주기.(그 위는 허리가 치마고 아래 끝에 퍼덕퍼덕 그 자락이 있습지요.)

106028 @ 음, 게난.(음, 그러니까.)

106028 #2 게난 그걸 영 허영 영 앞더레 허여근에 무시걸로 무꺼근에 허영.(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해서 무엇으로 묶어서 해서.)

106028 @ 치메를 무끄는 걸 또 뭐렌 헙니까?(치마를 묶는 것을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06028 #1 건 허리치메고.(그것은 허리치마고.)

106028 #2 허리치메.(허리치마.)

106028 @ 허리치메?(허리치마?)

106028 #1 어께치메엔 헌 건 둑지에 영 걸쳐지게 헌 거고, 허리치메엔 헌 건게 일로 끈 메엉, 아, 저 곰 메엉 허는 게 허리치메고.(어깨치마라고 한 건 죽지에 이렇게 걸쳐지게 한 것이고, 허리치마라고 한 건 이리로 끈 매어서, 아, 저 고름 매어서 하는 게 허리치마고.)

106028 @ 그거는 끈이 아니고 뭐 넵작헌.(그건 끈이 아니고 뭐 넓적한.)

106028 #1 치메, 저 곰.(치마, 저 고름.)

106028 #2 곰. 곰이엔 헙니다게.(고름. 고름이라고 합니다.)

106028 @ 것도 곰?(그것도 고름?)

106028 #2 예.(예.)

106028 #1 깃세 곧지 안 헙디가?, 곰에 대헤서, 두 가지가 이십주기. 저 베꼇디 메는 것은 그냥 곰, 안터레 메는 것은 줏곰, 안에레만 감아지는 건.(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름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지요. 저 바깥에 매는 것은 그냥 고름, 안으로 매는 것은 안고름, 안으로만 감아지는 건.)

106028 @ 아, 속 안으로.(아, 속 안으로.)

106028 #1 예.(예.)

106028 @ 메는 거는 즛곰, 밖으로 이렇게 그냥 둘러 메는 거는 그냥 곰, 음.(매는 것은 안고름, 밖으로 이렇게 그냥 둘러 매는 것은 그냥 고름, 음.)

106028 #1 그거 두루마기에도 그런 거 십니다.(그거 두루마기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106028 #2 이제도 그거 신디뭐, 호호호.(웃음)(지금도 그거 있는데뭐, 호호호.)(웃음)

106028 #1 예, 이제도 십니다, 뭐.(예, 지금도 있습니다, 뭐.)

106028 @ 바지는 뭘로 졸라메낫수가?(바지는 무엇으로 졸라매었습니까?)

106028 #1 바지도 허리띠로마씨.(바지는 허리띠로요.)

106028 #2 바지는 허리띠로.(바지는 허리띠로.)

106028 @ 허리띠로?(허리띠로?)

106028 #2 허리띠는 요새ᄀᆞ찌 허리띠 아이 나오고.(허리띠는 요새처럼 허리띠 안 나오고.)

106028 #1 그게 아이고 그 저 미녕이라든지 광목이라든지.(그게 아니고 그 저 무명이라든지 광목이라든지.)

106028 #2 미녕을 영 허영 멘들안.(무명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106028 #1 ᄀᆞ늘게 길쭉헌 거, 진 거 나오민 그것허영 그 멘들앙 졸라메어나십주게.(가늘게 길쭉한 거, 긴 거 나오면 그것해서 그 만들어서 졸라매었습지요.)

106028 @ 졸라메고예, 그래서 그 메엉은에, 그.(졸라매고요, 그래서 그 매어서, 그.)

106028 #1 졸라메는 것고라 허리띠엔 허연마씨.(졸라매는 것더러 허리띠라고 했어요.)

106028 @ 허리띠 허고예, 허리띠. 보선은 명칭이 어떤 게 잇엇수가?, 보선?(허리띠 하고요, 허리띠. 버선은 명칭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버선?)

106028 #2 보선은게 영 허영 신으믄 요만큼 옵니다게, 보선이. 게난 이추룩 갈아신는 거나 마찬가지로게 허여근에 영 보선 이만큼.(버선은 이렇게 해서 신으면 요만큼 옵니다, 버선이. 그러니까 이처럼 갈아신는 거나 마찬가지로 해서 이렇게 버선 이만큼.)

106028 @ 게난 것도 이름이 잇지 안 허우꽈?(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106028 #2 보선이엔 허주게.(버선이라고 하지.)

106028 @ 아, 게, 보선 양말인디, 보선에 앞 뭐, 쪼짝헌 부분은 뭐렌 허여?(아, 그래, 버선 양말인데, 버선에 앞 뭐, 뾰족한 부분은 뭐라고 해?)

106028 #1 건 코.(그건 코.)

106028 #2 코엔 허주.(코라고 하지.)

106028 @ 보선코렌 허고. 그다음에 다른 이 뒤에는?(버선코라고 하고. 그다음에 다른 뒤에는?)

106028 #2 뒤에 뭣이엔 허여, 뒤치기벳기.(뒤에 뭐라고 해, 뒤치기밖에.)

106028 #1 뒤치기 잇고, 뚜로 거 보선은 웬짝, 느단짝이 이십니다.(뒤치기 있고, 또 거 버선은 왼쪽, 오른쪽이 있습니다.)

106028 @ 아, 거니까.(아, 그러니까.)

106028 #1 거 영 주름, 보선 제작헐 적에 가운디 선을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이추룩헤근에 허는 거에 따라 가지고 그 발이 ᄒᆞ끔 차이가 이십주게, 그 저 걸 웬짝으로 신는 보선은 웬짝으로 신곡.(거 이렇게 주름, 버선 제작할 적에 가운데 선을 좌로 가느냐 우로 가느냐, 이처럼해서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그 발이 조금 차이가 있습지요, 그 저 그걸 왼쪽으로 신는 버선은 왼쪽으로 신고.)

106028 #2 게난 실밥이 이추룩 허영 영 겹쳐졍 이쪽더레 가믄 오른짝, 또 영 웬쪽더레 가믄 웬짝.(그러니까 실밥이 이처럼 해서 이렇게 겹쳐져서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 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왼쪽.)

106028 @ 아 그걸로 헹 구별허는구나예. 보선목은 뭐렌 헙니까?(아 그걸로 해서 구별하는군요. 버선목은 뭐라고 합니까?)

106028 #1 게난 건 보선목.(그러니까 그것은 버선목.)

106028 #2 보선목이엔 헙주.(버선목이라고 하지요.)

106028 @ 그것이 보선목?(그것이 버선목?)

106028 #2 예.(예.)

106028 @ 그걸로 구분허는구나예.(그것으로 구분하는군요.)

106028 #1 이 저 발에 들어간 디가 아니고 발목에 허는 거난.(이 저 발에 들어간 데가 아니고 발목에 하는 거니까.)

106028 @ 발목에예.(발목에요.)

106028 #1 예, 보선목.(예, 버선목.)

106028 @ 뒤치기, 뒤치기에 요디 ᄒᆞ끔 영 나온 딘 뭐엔 ᄀᆞᆫ지 안 헙니까?, 요디.(뒤치기, 뒤치기에 요기 조금 이렇게 나온 데는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기.)

106028 #2 그 뒤꿈치.(그 뒤꿈치.)

106028 @ 뒤꿈치?(뒤꿈치?)

106028 #1 예.(예.)

106029 @ 그 단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잇지 안 헙니까?(그 단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06029 #1 예, 단추사게 여러 가지 종류가 셔 노니까 장목 단추도 싯곡, 질 큰 것고란 오바 단추엔 헤 가지고 그건 질 큰 단추. 뚜로 주위에 잇는 건 옷에 따랑 허고, 옷 위치에 뚜라가지고, 예, 그 단추는, 크고 족은 거.(예, 단추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노니까 팔목 단추도 있고, 제일 큰것보고는 외투 단추라고 해 가지고 그건 제일 큰 단추. 따로 주위에 있는 것은 옷에 따라서 하고, 옷 위치에 따라가지고,

예, 그 단추는, 크고 작은 거.)

106029 @ 위치에 따라서. 게난 뭐 조그만헌 단추서부떠 큰 왕단추까지.(위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자그마한 단추에서부터 큰 왕단추까지.)

106029 #1 게난 그 큰 것고란 오바단추, 왕단추 헤십주게.(그러니까 그 큰 것더러 외투 단추, 왕단추 했습니다.)

106029 #2 옛날이사 단추 셔 낫수가?(옛날이야 단추 있었습니까?)

106029 @ 오바 단추, 아니 호박단추?(외투 단추, 아니 호박단추?)

106029 #1 오바, 오바.(외투, 외투.)

106029 @ 오바 단추.(외투 단추.)

106029 #1 오바엔 헌 건 웨투.(오바라고 한 건 외투.)

재단과 염색

106031 @ 아, 오바, 오바 단추예. 거난 이 옷감에 대헤서 염색허는 건 알아지쿠가? 옷감 염색? 뭐 미녕이든, 미녕이 주로.(아, 외투, 외투 단추요. 그러니까 이 옷감에 대해서 염색하는 건 알겠습니까?, 옷감 염색? 뭐 무명이든, 무명이 주로.)

106031 #1 예, 염색이야 마찬가집주게, 그 저 물감을 사당 뚜로 솟디 놔 가지고 솖앙 와상와상 꿰어가믄 물감 놩, 겡 뚜로 꿰어가면은 미녕이라든지 멩지라든지 옷이라든지 디밀려서 놩은에 영영 젓이멍.(예, 염색이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저 물감을 사다가 따로 솥에 놔 가지고 삶아서 와삭와삭 끓어가면 물감 놔서 그래서 또 끓어가면은 무명이라든지 명주라든지 옷이라든지 들이밀어 놔서 이렇게 이렇게 저으면서.)

106031 #2 막 오래 솖아사 물이 안 빠져마씨.(아주 오래 삶아야 물이 안 빠져요.)

106031 @ 그렇지 그걸 놔 가지고예. 갈옷도 마찬가지, 갈옷은 그 천이 그 옷감이 어떤 것이 갈옷 옷감이우꽈?(그렇지 그걸 놔 가지고요. 갈옷도 마찬가지, 갈옷은 그 천이 그 옷감이 어떤 것이 갈옷 옷감입니까?)

106031 #1 갈옷은 미녕.(갈옷은 무명.)

106031 #2 갈옷은 미녕허고 광목, 미녕허고 광목인디 요샌 미녕이 엇이난 광목으로 허영예, 저 무시것고 요샌, 그전에는 그냥 감만 들여신디, 요새엔예 우리 동네에도 감만 들이진 안 헙니다. 염색 사당 염색 들여놔근에 집이서 우리도 감낭 셔도 감 타지 실펑 감 안탕, 감낭 높아부난, 경허믄양 무시것고 오일시장 가믄 감물 골아근에 삼다수병에 담앙 풉니다게.(갈옷은 무명하고 광목, 무명하고 광목인데 요새는 무명이 없으니까 광목으로 해서요. 저 무엇이지 요새는, 그전에는 그냥 감만 들였는데, 요새는 우리 동네에도 감만 들이진 안 합니다. 염색 사다가 염색 들여놔서 집에서 우리도 감나무 있어도 감 따기 귀찮아서 감 안 따고, 감나무 높아서, 그러면 뭐지 오일시장 가면 감물 갈아서 삼다수병에 담아서 팝니다.)

106031 @ 음.(음.)

106031 #2 게믄 그거 흔 펭만 사오믄 몸뻬 두 개 들여마씨.(그러면 그거 한 평만 사오면 일바지 두 개 들여요.)

106031 @ 몸뻬 두 개.(일바지 두 개.)

106031 #2 경 헤근에 입엄수게게. 옛날이사 도고리에서 뻐사근에.(그렇게 해서 입고 있습니다. 옛날이야 함지박에서 빻아서)

106031 @ 옛날은 경 허고.(옛날은 그렇게 하고.)

106031 #2 옛날엔예, 염색도 안 허고 그냥 광목이나 미녕이나 몸뻬 멘들믄 감타근에 도고리에서 옛날은, 요샌 다라이엔 헤도 옛날은 도고리, 낭으로 멘든 거.(옛날에는, 염색도 안 하고 그냥 광목이나 무명이나 일바지 만들면 감 따서 함지박에서 옛날은, 요새는 대야라고 해도 옛날은 함지박, 나무로 만든 거.)

106031 @ 예, 예.(예, 예.)

106031 #2 것에서 마께로 막 뻐사놔근에 이제 그 몸뻬에 감 들영.(그것에서 방망이로 마구 빻아놔서 이제 그 일바지에 감 들여서.)

106031 #1 감이난 막 물 듭주게.(감이라서 마구 물 듭지요.)

106031 @ 막 영 무르 쥐영예, 탁탁 털어둰은에 마당에 널엉, 우린 잔디난 잔디마당에 널엉, 감, 경 헤사 골고루 물이 잘 들어마씨.(마구 이렇게 무르 쥐어서, 탁탁 털어둬서 마당에 널어서, 우린 잔디니까 잔디마당에 널어서, 감, 그렇게 해야 골고루 물이 잘 들어요.)

106031 @ 음.(음.)

106031 #2 감물이.(감물이.)

106031 #1 겐 건 메칠간, 흐루에 영.(그래서 그건 며칠간, 하루에 이렇게.)

106031 #2 게난 영 물르믄 물 적정 뚜시 영 널곡, 또 물르믄 흐를양 두 번 정도는 물 적정 널엉, 메칠을 흔 삼사 일은 경 헤사.(그러니까 이렇게 마르면 물 적셔서 다시 이렇게 널고, 또 마르면 하루 두 번 정도는 물 적셔서 널어서, 며칠을 한 삼사 일은 그렇게 해야.)

106031 #1 경 헤야 갈색깔이 아주 곱주마씨.(그렇게 해야 갈색깔이 아주 곱지요.)

106031 #2 경 허영 곱게 물 허영 경 입언 헷수게.(그렇게 해서 곱게 물 해서 그렇게 입어서 했습니다.)

106031 @ 과정이 좀 어려왓구나예?(과정이 좀 어려웠군요?)

106031 #2 예.(예.)

106031 @ 게난 그 다른 염색들은 안 헤낫수가?, 뭐.(그러니까 그 다른 염색들은 안 했었습니까? 뭐.)

106031 #2 딴 것은 염색 안 허고.(딴 것은 염색 안 하고.)

106031 @ 안 헤나고, 그냥 미녕이나 광목 염색하고, 미녕, 광목 염색할 땐 어떤 색깔을 염색을 헷수가?(안 했었고, 그냥 무명이나 광목 염색하고, 무명, 광목 염색할 땐 어떤 색깔을 염색을 했습니까?)

106031 #1 아, 그건예 옛날은 어떵 헤실런지 모르쿠다만은 요새에는 밧디 입는 거난예, 밧디 입어도 뭐 허지 안 허게 갈색, 감 들인 옷처럼 헌 것도 잇고, 또 저 뭣고 파란색 잇인 것도 잇고, 염색이 막 여러 가지난양, 가근에 자기 허고 싶은 걸 염색물을 ᄃᆞ렌 허믄 풀아줍니다게. 경 헤근에.(아, 그건요 옛날은 어떻게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요새에는 밭에 입는 거니까, 밭에 입어도 뭐 하지 않게 갈색, 감 들인 옷처럼 한 것도 있고, 또 저 뭐냐 파란색 있는 것도 있고, 염색이 아주 여러 가지니까요,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염색물을 달라고 하면 팔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106031 #1 시장이서 염색을 풉주기.(시장에서 염색을 팔지요.)

106031 #2 시장이서 ᄑᆞ난.(시장에서 파니까.)

106031 @ 게난 그 감장물 ᄀᆞ튼 건 들이지 안 헤낫수가? 검정, 까망물.(그러니까 그 검정물 같은 건 들이지 안 했습니까? 검정, 까만물.)

106031 #2 아, 옛날엔 꺼멍물도 들여나신디 이제는예 꺼멍물은 잘 안 들입니다.(아, 옛날엔 까만물도 들였었는데 이제는 까만물은 잘 안 들입니다.)

106031 @ 옛날에 까망물 들연 뭐 만들엇수가?(옛날에 까만물 들여서 뭐 만들었습니까?)

106031 #2 그냥 입어십주, 우리 어릴 때는.(그냥 입었습지요. 우리 어릴 때는)

106031 #1 저 옷 멘들앙 교복 ᄀᆞ뜬 것도 검은물 들영.(저 옷 만들어서 교복 같은 것도 검은물 들여서.)

106031 #2 경 헷수다.(그렇게 했습니다.)

106031 #1 미녕에 검은물 들영 헤십주.(무명에 검은물 들여서 했습지요.)

106031 @ 그걸 행 교복을 만들엇구나예?(그걸 해서 교복을 만들었군요?)

106031 #1 예.(예.)

106031 @ 음, 그 입당 보믄 앞이 막 튀어나오고예.(음, 그 입다가 보면 앞이 마구 튀어나오고요.)

106031 #1 예, 허허.(웃음)(예, 허허.(웃음))

106031 @ 그 검은물을 무시걸로 들엿수가?(그 검은물을 무엇으로 들였습니까?)

106031 #2 검은물을 사당 들엿수게.(검은물을 사다가 들였습니다.)

106031 @ 사당?(사다가?)

106031 #1 예, 화학재료로 허믄.(예, 화학재료로 하면.)

106031 @ 화학재료 나기 전이 무시거?(화학재료 나기 전에 뭐?)

106031 #1 화학재료 나기 전엔.(화학재료 나기 전에는.)

106031 #2 제주돈 안 헤봇수다.(제주도는 안 해봤습니다.)

106031 @ 안 헷수가?(안 했습니까?)

106031 #2 예게.(예.)

106031 @ 다른 물 들여나진 안 헷수가?(다른 물 들이지는 안 했습니까?)

106031 #1 예.(예.)

106031 #2 물들일 게 셔사 들이주기.(물들일 게 있어야 들이지.)

106031 @ 게도 저 명주나 이런 거는 ᄒᆞ끔 영 ᄑᆞ리롱헌 거로 영 허거나 물 들이진 안 헤낫수가?(그래도 저 명주나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파르스름한 것으로 이렇게 하거나 물 들이지는 안 했습니다?)

106031 #1 명쥐 ᄀᆞ뜬 것엔 물 들이지 안 헤낫수다, 원체 비싼 거니까, 좋은 거난.(명주 같은 것에는 물 들이지 안 했었습니다, 원체 비싼 거니까, 좋은 거니까.)

106031 #2 그냥, 그냥 입엇주양, 명주에는 경 염색 안 헤봣수다.(그냥, 그냥 입었지요, 명주에는 그렇게 염색 안 해봤습니다.)

106031 @ 그냥 하양케, 하양케 그냥.(그냥 하얗게, 하얗게 그냥.)

106031 #2 예.(예.)

신발

106032 @ 신 잇지 안 허우꽈예, 옛날 신들은 어떤 신들을 신어낫수가?(신 있지 않았어요, 옛날 신들은 어떤 신들을 신었었습니까?)

106032 #1 초신입주, 뭐.(짚신이지요, 뭐.)

106032 @ 아니 초신 말앙도 뭐?(아니 짚신 말고도 뭐?)

106032 #2 조리.(조리.)

106032 @ 조리가 뭐우꽈?(조리가 무엇입니까?)

106032 #1 조리엔 헌 건 저 그.(조리라고 한 건 저 그.)

106032 @ 아, 일본 신발, 고무로 끈 영 허영.(아, 일본 신발, 고무로 끈 이렇게 해서.)

106032 #2 옛날은 반나신[199] 신어낫수게게.(옛날은 '반나신' 신었었습니다.)

106032 @ 반나신?('반나신'?)

106032 #2 반나. 그냥예 이디 카바ᄀᆞ찌 뭰 건디, 영 뭰 거 그런 거 신어나지 안 헙디가? 고무신.('반나'. 그냥 여기 커버같이 된 건데, 이렇게 된 거 그런 거 신었지 않습니까? 고무신.)

106032 @ 고무신.(고무신.)

106032 #2 예.(예.)

106032 @ 고무신도 잇고.(고무신도 있고.)

106032 #2 반나신엔 허연.('반나신'이라고 했어.)

106032 #1 그런 것도 신어낫수다게.(그런 것도 신었습니다.)

106032 @ 반나신? 걸 반나?('반나신'? 그걸 '반나'?)

106032 #2 게고 여자덜은예 코고무신.(그리고 여자들은 코고무신.)

106032 @ 코고무신.(코고무신.)

106032 #2 남자덜은 반나신.(남자들은 '반나'신.)

106032 @ 반화? 반나?('반화'? '반나'?)

106032 #2 여자, 여자덜 신는 신은 코고무신이엔 허영양 보선 비슷허게 뭰 거.

199) '반나신'은 남자들이 신는 덧신처럼 생긴 신인 것 같다.

(여자, 여자들 신는 신은 코고무신이라고 해서 버선 비슷하게 된 거.)
106032 @ 예, 예.(예, 예.)
106032 #2 신고.(신고.)
106032 @ 거 뭐 최근에도 뭐.(거 뭐 최근에도 뭐.)
106032 #1 장화.(장화.)
106032 @ 장화도 잇고, 또.(장화도 잇고, 또.)
106032 #1 그 시 가지집주.(그 세 가지지.)
106032 @ 찝신은 찝으로만 만들엇수가?(짚신은 짚으로만 만들었습니까?)
106032 #1 예. 찝으로도 만들고 그 헌옷 입어난 거라든지 다시 수리도 못허곡 헐 거예, 그런 거라도 영 ᄇᆞ려 가지고 ᄀᆞ느시롱허게 헹 찍에 놩 허믄 질깁니다, 뭐, 찝으로 헌 것 보단도. 겐 그런 걸로 놩 신도 삼곡 ᄄᆞ로 찝 웨에 신사란이라든지 ᄄᆞ로 삼 ᄀᆞ뜬 걸로 헤 가지고 놀이엔 헤 가지고 놀곡 헤십주.(예. 짚으로도 만들고 그 헌옷 입었던 거라든지 다시 수리도 못하고 할 거요. 그런 거라도 이렇게 찢어 가지고 가느스름하게 해서 짚에 놔서 하면 질깁니다, 뭐, 짚으로 한 것 보다도. 그래서 그런 걸로 놔서 신도 삼고 또 짚 외에 뉴질랜드 삼이라든지 또 삼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날이라고 해 가지고 날고 했습지요.)
106032 @ 그 가죽신이나 나막신은 안 신어봣수가?(그 가죽신이나 나막신은 안 신어봤습니까?)
106032 #1 가죽신, 나막신덜.(가죽신, 나막신들.)
106032 #2 어디 셔낫수가게.(어디 있었습니까.)
106032 #1 전이, 해방 전이덜 간혹 하나썩 셔나십주만은 그전인 엇엇수다.(전에, 해방 전에들 간혹 하나씩 있었습니다만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106033 @ 가죽신은 뭘로 멘들어나신고마씨?(가죽신은 뭘로 만들었는지요?)
106033 #1 소가죽으로.(소가죽으로.)
106033 @ 소가죽으로 만들언예. 걸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잇어낫겟네예.(소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었겠네요.)
106033 #1 예.(예.)
106034 @ 나막신도 안 신어나고예?(나막신도 안 신었었고요?)
106034 #1 예, 아니 나막신은 신엇수다. 나막신은 그 저 목수들이, 목수라도 특이헌 목수덜에 파는 건데, 나무에 코도 부찌고 헹은에 아까 반나신 모냥으로, 그추룩 팡, 소곱을 나무 뚤르멍 소곱을 팝주기. 파 놩 거 발에 맞추앙 신곡 헤낫수다.(예, 아니 나막신은 신었습니다. 나막신은 그 저 목수들이, 목수라도 특이한 목수들이 파는 건데, 나무에 코도 붙이고 해서 아까 '반나신' 모양으로, 그처럼 파서, 속을 나무 뚫으면서 속을 파지요. 파 놓고 그 발에 맞춰서 신고 했었습니다.)
106034 #2 그땐 장화도 엇고 헌 때난 그런 거 신어십주.(그땐 장화도 없고 한 때니까 그런 거 신었습지요.)
106034 #1 일제시대에는 집집마다 그런 나무로 영 그 저 그런 신덜 다 잇엇수

다, 뭐. 우리도 해 신엇어마씨. 뚜로 비온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 할으바님이라든지도 신곡.(일제시대에는 집집마다 그런 나무로 이렇게 그 저 그런 신발들 다 있었습니다, 뭐. 우리도 거의 신었어요. 또 비온 날이라든지 이런 때는 우리 할아버님이라든지도 신고.)

106034 @ 게 나막신은 어떵 만들앗수가?(그래 나막신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34 #1 나막신은 나무를 헤다가 발에 맞추아 가지고, 건 집이서 만들진 아니허고, 그 저 목수들안티, 목수라도 특수한 목수안티 강 걸 만들어당은에 신어낫수다, 뭐.(나막신은 나무를 해다가 발에 맞춰 가지고, 그건 집에서 만들진 않고, 그 저 목수들한테, 목수라도 특수한 목수한테 가서 그걸 만들어다가 신었습니다, 뭐.)

106034 @ 그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끈 같은 거는 뭘로 헙니까?(그건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뭔가 끈 같은 것은 뭘로 합니까?)

106034 #1 아, 그 나막신은 끈이 엇엇수다.(아, 그 나막신은 끈이 없었습니다.)

106034 #2 끈이 엇은 거마씨.(끈이 없는 거지요.)

106034 @ 끈이 엇어예.(끈이 없어요.)

106034 #1 끈이 엇고.(끈이 없고.)

106034 @ 나막신은 끈이 엇읍니다.(나막신은 끈이 없습니다.)

106034 #1 신 들어가는 디 허곡 발이 양끗드로 발이라 헤 가지고 뚜로 나막신 바닥쪽에 ᄒᆞ끔 요만이 크게 허영 그것이 바닥에 ᄃᆞᆯ리게 만듭니다. 겐 만들면 것이 발 이은 것이 문딱 달앙 나막신이 터지도록 신을 겁주게.(신발 들어가는 데 하고 발이 양끝으로 발이라 해 가지고 따로 나막신 바닥쪽에 조금 요만큼 크게 해서 그것이 바닥에 달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면 그것이 발 이은 것이 모두 달아서 나막신이 터지도록 신을 거지요.)

106034 @ 겐디 그 우에 사람이 나막신을 신을 적에 발 이렇게 놓으면 걸려야 뭴 거 아니우꽈?(그런데 그 위에 사람이 나막신을 신을 적에 발 이렇게 놓으면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6034 #1 게난 그 걸리는 것이 이디 저 반나신ᄀᆞ찌 저 그 목수가 제작헙주게. 안네 발 들어가게.(그러니까 그 걸리는 것이 여기 저 '반나신'같이 저 목수가 제작하지요. 안에 발 들어가게.)

106034 @ 아아, 그거까지 속을 파불어마씨?(아아, 그것까지 속을 파버려요?)

106034 #1 예. 발 들어가게끔 파근에.(예. 발 들어가게끔 파서.)

106034 #2 이디 신, 우리도 경 헤서, 다, 파부난.(여기 신발,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다, 파버리니까.)

106034 @ 다 파불엉, 아, 뭔가 이 끈으로 허는 게 아니고?(다 파버려서, 아, 뭔가 이 끈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6034 #1 아니우다.(아닙니다.)

106034 @ 그렇게 허영 만들앗구나예.(그렇게 해서 만들었군요.)

106034 #1 겐디 그 저 이 ᄉᆞ방이서는 한담리[200]에 가믄 그 저 보현이 할으버지

엔 허는 하르방이 만들아신디 그디 강은에 사당, 그디 가믄 난 멧 술난 멧이라 허믄 걸 다 만들앙 제작허영 풉주게. 원체 기술이 좋은 하르방이라노난. 경 헹은에 허믄 아이덜 발에 맞게 그거 팡 주믄 어린 때부떠 신엉 허믄 또 그 비온 날만 신엉 그걸 아껑 뚜로 겨울이라든지 이른 봄, 늦인 가을 이런 때 뒈어야 걸 신읍주게.(그런데 그 저 이 사방에서는 한담리에 가면 그 저 보현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사다가, 그곳에 가면 난 몇 살난 몇이라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팔지요. 원체 기술이 좋은 할아버지라 놓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아이들 발에 맞게 그것을 파서 주면 어릴 때부터 신어서 하면 또 그 비온 날만 신어서 그걸 아껴서 따로 겨울이라든지 이른 봄, 늦은 가을 이럴 때 되어야 그걸 신습지요.)

106034 @ 아.(아.)

106034 #1 게 아니믄 여름에는 비올 땐 멘발로 뎅기곡, 젖어도 뒈고 허난. 거 신엉 바닥으로 거 터지도록 신곡. 발이 다일 때는 ᄒᆞ끔 바닥이 멘들락헤가믄 그때 아이덜은 나막신 타근에 이디 눈썰메 탑주게.(그래 아니면 여름에는 비올 때는 맨발로 다니고, 젖어도 되고 하니까. 그거 신어서 바닥으로 그거 터지도록 신고. 발이 다일 때는 조금 바닥이 매끈해지면 그때 아이들은 나막신 타고서 여기 눈썰매 탔습니다.)

106034 @ 음, 눈썰메예. 눈 하영 오믄.(음, 눈썰매요. 눈 많이 오면.)

106034 #1 예.(예.)

106035 @ 그 찝신은 어떤 만들엇수가?(그 짚신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6035 #1 찝신은 놀이 니 갭니다, 뭐. 자기 키에 맞젠 허믄 자기 발로 ᄒᆞᆫ 발하곡 ᄒᆞᆫ 치를 그 저 뭣고 그것고라 가운디, 잊어불언. 줄, 놀.(짚신은 날이 네 개입니다, 뭐. 자기 키에 맞으려고 하면 자기 발로 한 발하고 한 치를 그 저 무엇이냐 그것보고 가운데, 잊어버렸어. 줄, 날.)

106035 @ 놀.(날)

106035 #1 놀 그 저 보통은 그 사름 연령에 헤 가지고, 아 키에 따라 헤 가지고, ᄒᆞᆫ 발허고 ᄒᆞᆫ 치씩 쓰믄 것이 자기 발에 맞읍니다.(날 그 저 보통은 그 사람 연령에 해 가지고, 아 키에 따라 해 가지고, 한 발하고 한 치씩 쓰면 그것이 자기 발에 맞습니다.)

106035 @ ᄒᆞᆫ 발?(한 발?)

106035 #1 예, 게 놀이 네 개로 들어갑주게. 네 개로 들어강 그걸 짜기 전에 하나로 허면은 하나가 ᄒᆞᆫ 발허고 ᄒᆞᆫ 치쯤만 들어가게끔 허면은.(예, 그래 날이 네 개로 들어가지요. 네 개로 들어가서 그걸 짜기 전에 하나로 하면은 하나가 한 발하고 한 치쯤만 들어가게끔 하면은.)

106035 @ 그런 게 네 개?(그런 게 네 개?)

106035 #1 예. 게근에 허믄 자기 발에 맞아마씨, 이론적으로. 그땐 집집마다 메

200) '한담리'는 제주시 애월읍 한담리를 말한다.

날 비만 오믄 그 저 신을 삼읍주게.(예, 그래서 하면 자기 발아 맞아요, 이론적으로. 그땐 집집마다 맨날 비만 오면 그 저 신을 삼습지요.)

106035 @ 음.(음.)

106035 #1 게 그걸 네 개 허믄 그거 삼아가멍 욮이 거나 저 뭣고, 삼아 놔뒷당 은에 맑은 날은 거 내 놩 신곡, 비온 날이라도 젖이민 놀 썩넨 허여근에 잘 젖질 아니혭주게. 아졍 공들임시작 헌 거난. 경 헤근에 허곡, 거 신고.(그래 그걸 네 개 하면 그거 삼아가면서 옆에 그것이나 저 무엇인가, 삼아 놔뒀다가 맑은 날은 그것 내놔서 신고, 비온 날이라도 젖으면 날 썩는다고 해서 잘 젖지 않지요. 아껴서 공들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거 신고.)

106035 @ 아, 게난 흔 발 흔 치짜리 네 개의 줄로 삼아가는 거라예.(아, 그러니까 한 발 한 치짜리 네 개의 줄로 삼아가는 거지요.)

106035 #1 예, 예. 삼을 때, 이디 질 처음 깍, 깍이라 헤 가지고, 손에 영 더퍼지는예.(예, 예. 삼을 때, 여기 제일 처음 총, 총이라 해 가지고, 손에 이렇게 덮어지는.)

106035 @ 음.(음.)

106035 #1 그것도 깍허고 표시뒈는, 깍허고 돌레[201]허고 뒤치기허고 세 가지 나눕니다.(그것도 총하고 표시되는, 총하고 '돌레'하고 뒤축하고 세 가지 나눕니다.)

106035 @ 돌레는 뭐?('돌레'는 뭐?)

106035 #1 돌레는 이디 깍허고 뒤치기 것을 영 헤놩 무꺼지는 겁주기. 신 아이 벗어지게.('돌레'는 여기 총하고 뒤축 것을 이렇게 해놔서 묶어지는 거지요. 신이 안 벗어지게.)

106035 @ 아, 예.(아, 예.)

106035 #1 경 헤근에 삼으면은 손 빠른 사름은 ᄒᆞ를 흔 두어 베 삼곡, 경 안 허믄 ᄒᆞ를 흔 베, 저 신 흔 베 삼읍니다.(그렇게 해서 삼으면은 손 빠른 사람은 하루 한 두어 켤레 삼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한 켤레, 저 신발 한 켤레 삼습니다.)

106035 @ 흔 베, 흔 켤레예, 흔 켤레.(한 켤레, 한 컬레요, 한 켤레.)

106035 #1 흔 켤레.(한 켤레.)

106035 @ 음.(음.)

106035 #1 아주 ᄲᅮ른 사름은 서너 베 삼읍니다.(아주 빠른 사람은 서너 켤레 삼습니다.)

106035 @ 것도 찝신 만들앙 풀기도 허고예?(그것도 짚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106035 #1 예, 예, 경 그 저 홀어멍덜은 그 저 하르방 대신에 찝신 사레 갑주게. 보통 하르방네 헤논 것은 큰일 헐 때 어디 안 가믄 찍 만들엉 허는 거난. 집이서 그걸 헙주게. 게난 여기선 허는 재료로서는 나룩찍허고 산디찍 두 가지만 헙주게. 산디찍도 그거 허곡, ᄯᅳ로 놀 ᄁᆡ는 것은 신서란이라든지 미[202] 빠당 걸 헙니다, 뭐.

201) '돌레'는 멍석ㆍ멱 따위의 가로 건너 짜는 실을 말한다. 표준어로 '씨실, 씨, 위'라고도 한다.

그거 아주 질깁주게, 둥여도 끊어지지 아니허게.(예, 예, 그렇게 그 저 홀어머니들은 그 저 할아버지 대신에 짚신 사러 가지요. 보통 할아버지네 해 놓은 것은 큰일 할 때 어디 안 가면 짚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집에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는 재료로서는 볏짚하고 밭볏짚 두 가지만 하지요. 밭볏짚도 그거하고, 또 날 까는 것은 뉴질랜드삼이라든지 '미' 빼다가 그걸 합니다, 뭐. 그거 아주 질기지요. 당겨도 끊어지지 않게.)

106035 @ 밋테, 바닥에?(밑에, 바닥에?)

106035 #1 아니, 그 저 신을 삼을 때에.(아니, 그 저 신발을 삼을 때에.)

106035 @ 삼을 때, 그 줄 두껍게 영 뭐렌 헙니까, 그 테두리, 테두리는 신서란으로?(삼을 때, 그 줄 두껍게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그 테두리, 테두리는 뉴질랜드삼으로?)

106035 #1 예, 예. 그런 걸로 삼읍니다. 그 신서란도, 것도 그 나중에 나십주. 그 옛날은 신서란 엇엇수다. 게믄 그자 산에 가가지고 미 빠당 허고, 억새, 억새 소곱으로 난 줄기에는 그것을 요만이 진 건데 깨엉 노 꼬앙 걸 만들어십주. 겐디 질깁니다, 뭐. 것고라 미.(예, 예. 그런 걸로 삼습니다. 그 뉴질랜드삼도, 그것도 그 나중에 났지요. 그 옛날은 뉴질랜드삼 없었어요. 그러면 그저 산에 가가지고 '미' 빼다가 하고, 억새, 억새 속으로 난 줄기에는 그것을 요만큼 긴 건데 깨어서 노 꼬아서 그것을 만들었습지요. 그런데 질깁니다, 뭐. 그것보고 '미'.)

106035 #2 초신 삼아봅데가?(짚신 삼아봤습니까?)

106035 #1 예, 나도 초신 삼아보고 조린 나 하영 삼앗수다.(예, 나도 짚신 삼아보고 조리는 나 많이 삼았습니다.)

106035 #2 기우꽈, 난 초신 흔 번도 안 신어봣수다.(그렇습니까, 난 짚신 한 번도 안 신어습니다.)

106035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6035 #1 게믄 저 우리 어린 때는 저 하르방덜은, 신 삼앙 프는 하르방덜 셔십주, 건 아까 골앗주만은 밧디 가서 일 못허는 하르방덜 그자 방에 앚앙 신이나 삼곡양. 저 젊은 사람덜은 바땅은에 신 못 삼곡.(그러면 저 우리 어릴 때는 저 할아버지들은, 신 삼아서 파는 할아버지들 있었습지요, 건 아까 말했지만 밭에 가서 일 못하는 할아버지들 그저 방에 앉아서 신이나 삼고요, 저 젊은 사람들은 봤다가 신 못 삼고.)

모자 등

106037 @ 예, 이젠 모자에 대헤서 물어보쿠다. 모자의 종류가 어떤 종류덜이 잇어낫수가?(예, 이젠 모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모자의 종류가 어떤 종류들이 있었습니까?)

106037 #1 모자야, 그 전이는 모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놈덜 망혜갈 때

202) '미'는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이다.

부떠, 일본말입주. 웨 그런고 허민 지금도 저런 모자고란 저건 나까오리.(모자야, 그 전에는 모자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이 일본놈들 망해갈 때부터, 일본말이지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도 저런 모자보고는 저것은 중절모.)

106037 @ 나까오리.(중절모.)

106037 #1 이디 영 좁앙 쓰는 것고란 도리우찌[203], 거 다 일본말입주게.(여기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것더러는 '도리우찌', 그거 다 일본말입니다.)

106037 @ 아. 체양 잇는 거?(아, 챙 있는 거?)

106037 #1 예, 건 그냥 그자 인동모자. 이렇게 나누는디. 그 모자 발달뒈기 전에는 휘양이엔 헌 것이 잇어, 휘양, 가죽으로라든지 허영 데겡이에 영 써지는 거. 가죽으로 뒌 거.(예, 그건 그저 인동덩굴 모자. 이렇게 나누는데. 그 모자 발달되기 전에는 휘양이라고 한 것이 있어, 휘양, 가죽으로라든지 해서 머리에 이렇게 써지는 거. 가죽으로 된 거.)

106037 @ 가죽으로 뒌 모자, 휘양? 건 언제 쓰는 거라마씨?(가죽으로 된 모자, 휘양? 그건 언제 쓰는 거예요?)

106037 #1 건 추운 겨울에 썻수다.(그건 추운 겨울에 썼습니다.)

106037 @ 겨울에 쓰고예. 또 뭐 무슨 갓이나 이런 것들은 안 써봣수가?(겨울에 쓰고요. 또 뭐 무슨 갓이나 이런 것들은 안 써봤습니까?)

106037 #1 갓?(갓?)

106037 @ 아, 이 저 갓마씨.(아, 이 저 갓이요.)

106037 #2 갓, 갓.(갓, 갓.)

106037 #1 갓, 갓은 아니 쎠봣수다. 여기선 것도 우리 대림[204]선 얼마 멘들어보도 아니허고마씨. 우리 큰집이 저, 나가 이제 팔십 아홉이우다만 그때꺼지는 갓 만든 일이 엇엇수다. 그 전엔 만들아낫수다.(갓, 갓은 안 써봤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것도 우리 대림에서는 얼마 만들어 보지도 안 하고요. 우리 큰집에 저, 내가 이제 팔십 아홉입니다만 그때까지는 갓 만든 일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만들었었습니다.)

106038 @ 겐디 벌립, 정동 벌립이렌 헹.(그런데 벙거지, 정동 벙거지라고 해서.)

106038 #1 아, 정동 벌립은 페랑이ᄀᆞ찌 뒌 건데 가다가, 모양이 저런 모잔데, 것이.(아, 정동 벙거지는 패랭이같이 된 건데 모양이, 모양이 저런 모자인데, 그것이.)

106038 @ 아.(아.)

106038 #1 저 그 꺽, 정동으로 허여놩 그 꺽, 정동도 솖앙, 솖아놩 몰리왕 그걸 모제 만듭니다. 이제도 귀덕[205] 가면은 우리 대림서는 얼마 안 헤도 귀덕서는 많이 만들아가지고 집들이에도 헤 주고 헤낫는디. 홍○○네허고 ○○이네 잘 헤낫수다.(저 그 칡, 정동으로 해놔서 그 칡, 정동도 삶아서, 삶아놔서 말려서 그걸 모자 만듭니다. 지금도 귀덕 가면은 우리 대림에서는 얼마 안 해도 귀덕에서는 많이 만들어가지고 집들이에도 해 주고 했었는데. 홍○○네하고 ○○이네 잘 했었습니다.)

---

203) '도리우찌'는 앞에 챙이 있는 모자를 뜻하는 일본 외래어이다.
204) '대림'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를 말한다.
205) '귀덕'은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를 말한다.

103001 @ 음. 게난 그 모자는 여름에 썻수가?(음, 그러니까 그 모자는 여름에 썼습니까?)

103001 #1 예, 여름에 썻수다, 여름에.(예, 여름에 썼습니다, 여름에.)

106039 @ 여름에 쓰고예, 아까 겨울에는 아까 그?(여름에 쓰고요, 아까 겨울에는 아까 그?)

106039 #1 휘양.(휘양.)

106039 @ 휘양.(휘양.)

106039 #1 예, 휘양 쓰믄 귀꺼지 막아진덴 써십주게.(예, 휘양 쓰면 귀까지 막아진다고 썼습지요.)

106039 @ 음, 거는 가죽은 어떤 가죽, 소가죽?(음, 그것은 가죽은 어떤 가죽, 소가죽?)

106039 #1 가죽은 저 쉐가죽은 얼마 아이 쓰고 그 전에는 개 ᄀᆞ튼 걸로 헤 가지고, 많이 촌에서 잡앙 추렴을 헤십주게. 이젠 뭐 동물학대니 뭐니 헤도.(가죽은 저 소가죽은 얼마 안 쓰고 그 전에는 개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촌에서 잡아서 추렴을 했습지요. 이젠 뭐 동물학대니 뭐니 해도.)

106039 @ 뭐 족제비 같은 걸론 안 허고마씨?(뭐 족제비 같은 것으로는 않고요?)

106039 #1 족제비는 가죽이 거 겁죽이 상당이 비싸마씨. 비싸 가지고 전인 큰 족제비 하나 잡으믄 ᄆᆞᆯ ᄒᆞᆫ 마리 깝이엔 헤낫수다. 그 정도 금지라마씨. 겐 그건, 족제빈 꼬리털로 허여 가지고 붓도 만들곡.(족제비는 가죽이 그 거죽이 상당히 비싸요. 비싸 가지고 전에는 큰 족제비 하나 잡으면 말 한 마리 값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 금지예요. 그래서 그건, 족제비는 꼬리털로 해 가지고 붓도 만들고.)

106039 @ 예, 예, 맞아마씨.(예, 예, 맞아요.)

106039 #1 뭐 화학상[206]에사 들어가신디 막 비싸낫수다. 게난 덧 놔 가지고 전인 다 족제비 잡젠 집집마단 아니라도 덧을 해마다 놧수다. 게난 어디 집구석이라든지 우영팟 ᄀᆞ뜬 디 덧 놩 놔두믄 족제비도 잡을 수 잇고, 어떤 땐 중이도 들어불곡.(뭐 화학상에 들어갔는데 아주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덧 놔 가지고 전에는 다 족제비 잡으려고 집집마다는 아니라도 덧을 해마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집구석이라든지 터앝 같은 데 덧 놓아 놔두면 족제비도 잡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쥐도 들어버리고.)

106040 @ 그 양테는 뭣을, 모자 만들 때?(그 양태는 무엇을, 모자 만들 때?)

106040 #1 테양?(차양?)

106040 @ 양태, 양태.(양태, 양태.)

106040 #1 테양.(차양.)

106040 @ 아, 테양은 이거고예, 양태?(아, 차양은 이것이고요, 양태?)

106040 #1 양테?(양태?)

206) '과학상'은 족제비 가죽이나 털 등을 화학적이나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공장을 말하는 것 같다.

106040 @ 양테는 표준언가?(양태는 표준어인가?)

106040 #2 양테가 뭣이우꽈?(양태가 무엇입니까?)

106040 #1 게메 모르컨게.(글쎄 모르겠네.)

106042 @ 그 탕건이나 망건은?(그 탕건이나 망건은?)

106042 #1 예, 만드는 재료는 물총으로 헙니다만은, 물총으로 허는디 그 재료만 들어가는 줄 알지 만들어보도 안 허고, 만들어 가지고 시장화뒌 거라든지 그런 거 구경만 헤십주기.(예, 만드는 재료는 말총으로 합니다만, 말총으로 하는데 그 재료만 들어가는 줄 알지 만들어보지도 안 하고, 만들어 가지고 시장화된 거라든지 그런 거 구경만 했습지요.)

106042 @ 구경만 허고예. 게난 이 동네에선 그걸 만들앙 쓰진 안 헤낫구나예?(구경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는 그걸 만들어서 쓰진 않았었군요?)

106042 #1 예.(예.)

106042 @ 게믄 모자는 좀 단순허긴 허다예, 겨울에 쓰는 모자, 여름에 쓰는 모자.(그러면 모자는 좀 단순하기는 하네요. 겨울에 쓰는 모자, 여름에 쓰는 모자.)

106042 #1 예, 예, 그 여름에 페랭이.(예, 예, 그 여름에 패랭이.)

106042 @ 패랭이.(패랭이.)

106042 #1 겨울엔 좀 뜨신 거.(겨울에는 좀 따뜻한 거.)

106042 @ 패렝이는 뭘로 만들엇수가? (패랭이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6042 #1 패렝이는 그 저 그 보릿대로, 보릿대, 그 저 밀낭, 소밀.(패랭이는 그 저 보릿대로, 보릿대, 그 저 밀짚, 소밀.)

106042 @ 소밀.(소밀.)

106042 #1 소밀대로 허영 짱, 아주머닌 멘들아보지 안 헙디가? 패렝이.(소밀대로 해서 짜서, 아주머니는 만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패랭이.)

106042 #2 아이 그런 거 헤낫수다, 우리도. 거 헤당은에.(아니 그런 거 했었습니다, 우리도. 그거 해다가.)

106042 @ 게난 그게 일곱 개로 시작헤근에 영영 물아가당, 물멍, 물멍 허믄.(그러니까 그게 일곱 개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아가다가, 말면서, 말면서 하면.)

106042 #2 경 허연 헤낫수다.(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106042 #1 혼 멧 방 들게만 멘들믄, 패렝이 만들아마씨.(한 몇 방 들게만 만들면, 패랭이 만들어요.)

106042 #2 그건 혼 번산디 허여봔에 그때부떤 뜨시 시장에 가민 풀레 나오난, 난 그걸 사단 썻주.(그건 한 번인지 해봐서 그때부터 다시 시장에 가면 팔러 나오니까, 난 그걸 사다가 썼지.)

106044 @ 음. 도롱이는 안 써봅디가? 도롱이, 비올 때 도롱이.(음. 도롱이는 안 써봤습니까?, 비올 때 도롱이.)

106044 #1 아, 츠궹이.(아, 도롱이.)

106044 @ 츠렝이렌 헙니까?(도롱이라고 합니까?)

106044 #1 예, ᄎᆞ궹이라고 헌 것은 거 저.(예, 도롱이라고 한 것은 거 저.)

106044 @ ᄎᆞ궹이?(도롱이?)

106044 #2 영 ᄂᆞ람지[207]ᄀᆞ찌 허영.(이렇게 'ᄂᆞ람지'같이 해서.)

106044 #1 ᄂᆞ람지ᄀᆞ찌 허여 가지고 부인덜이라든지 허면은 그거 그 물 잘잘 흘치지 아니허게 허는 것을, 일정 몸이 젖을 거니까 걸 방지시키기 위헤 가지고 ᄎᆞ궹이엔 헌 걸 져 놩 구덕 ᄀᆞ뜬 거 집주게, 걸 ᄎᆞ궹이엔 허는디 게난 그건 언제냐 허면은 어디 바다 ᄀᆞ뜬 디라도 가면 물 흘치는 거, 걸 질메 지레 갈 때는 ᄎᆞ궹이가 필요헤나십주게.(이엉 같이 해 가지고 부인들이라든지 하면은 그거 그 물 줄줄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을, 일정 몸이 젖을 거니까 그걸 방지시키기 위해 가지고 도롱이라고 한 것을 져 놔서 바구니 같은 거지요, 그걸 도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건 언제냐 하면은 어디 바다 같은 데라도 가면 물 흘리는 거, 그걸 길마 지러 갈 때는 도롱이가 필요했었습지요.)

106044 @ 예.(예.)

106044 #1 겐 그걸로 져 오곡, 또 그 펭상시에는 아까 곧듯이 그 저 큰 비 올 때 우비, 우비 대신으로 그 ᄎᆞ궹이를 둑지에 영 쓰민 물 아이들어마씨. 옷 아이 젖읍주게.(그래서 그걸로 져 오고, 또 그 평상시에는 아까 말했듯이 그 저 큰 비 올 때 우비, 우비 대신으로 그 도롱이를 죽지에 이렇게 쓰면 물 안 들어요. 옷 안 젖습지요.)

106044 @ 음.(음.)

106044 #1 ᄎᆞ궹이.(도롱이.)

106044 @ ᄎᆞ렝이?(도롱이.)

106044 #1 ᄎᆞ궹이.(도롱이.)

106044 @ ᄎᆞ궹이?(도롱이.)

106044 #1 예, ᄎᆞ궹이.(예, 도롱이.)

106044 @ 도롱이렌 말은 안 들어봅디가?(도롱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106044 #1 예.(예.)

106044 @ 도롱이렌 말은 안 들어보고예.(도롱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고요.)

106044 #1 예.(예.)

106044 #2 여러 가지, 마을마다 말이 틀리난에.(여러 가지, 마을마다 말이 다르니까.)

106044 #1 예, 예.(예, 예.)

106044 @ 아니, 비옷을 뭐렌 헷수가? 비옷을.(아니, 비옷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옷을.)

106044 #1 비옷은 뭐 거 우비, 우빕주.(비옷은 뭐 거 우비, 우비지요.)

106044 @ 아, 게난 새로 헤 가지고예, 영.(아, 그러니까 띠로 해 가지고요, 이렇게.)

---

207)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106044 #2 게메 그게 ᄎᆞ궹이라마씨.(글쎄 그게 도롱이라고요.)

106044 #1 그게 ᄎᆞ궹이.(그게 도롱이.)

106044 @ 그것은 뭐 큰 거 족은 거 잇어나진 안 헤나고마씨?(그것은 뭐 큰 거 작은 거 있었었지 않나요?)

106044 #1 아이, 건 보통 그저 크덴 허나 족덴 허나, 길엇자 이만허고.(아니, 그건 보통 그저 크다고 하나 작다고 하나, 길어봤자 이만하고.)

106044 @ 긴 건?(긴 건?)

106044 #1 예, 예, 요 정도 헙주. 긴 거 족은 거 안 헙니다.(예, 예, 요 정도 하지요. 긴 거 작은 거 안 합니다.)

106044 @ 아, 긴 거, ᄌᆞ른 거 안 허고?(아, 긴 거, 짧은 거 안 하고?)

106044 #1 게난 자기네 집에서 알맞게끔.(그러니까 자기네 집에서 알맞게끔.)

106044 @ 게난 우산 대용으로 허는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우산 대용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6044 #1 예, 예.(예, 예.)

106044 @ 비올 때예, 그 웨 모자에 대헤서는 여름에 쓰는 패렝이, 겨울엔 아까.(비올 때요. 그 외 모자에 대해서는 여름에 쓰는 패랭이, 겨울엔 아까.)

106044 #1 겨울엔 옛날 휘양이엔 헌 것 썻고, 가죽으로 멘든 거, 개가죽 ᄀᆞ뜬 걸로 멘들안 썬.(겨울엔 옛날 휘양이라고 한 것 썼고, 가죽으로 만든 거, 개가죽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썼어.)

106044 @ 겐 정동 벌립도 만들아나고마씨?(그래서 정동 벙거지도 만들었고요?)

106044 #1 정동 벌립은 셔십주게, 건 ᄆᆞᆯ 터럭이라든지 이런 걸로 멘들앗는디 거 여기선 셍산 안 허고. 전이 옛 어른덜 사당 쓰는 건 봐나십주.(정동 벙거지는 있었습지요, 그건 말 터럭이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었는데 거 여기에서는 생산 안 하고. 전에 옛 어른들 사다가 쓰는 건 봤었습지요.)

106044 @ 음.(음.)

106044 #1 이디선 만들도 안 허고, 이용도 안 허고, 그거 저, 그건 ᄯᅮ로 물도 아이 들곡 저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ᄒᆞ끔 비올 때라든지, 쉐, 쉐 ᄇᆞ레 뎅길 때도 써낫수다.(여기서는 만들지도 않고, 이용도 않고, 그거 저, 그건 또 물도 안 들고 저 여름철이라든지 가을철이라든지, 조금 비올 때라든지, 소, 소 보러 다닐 때도 썼었습니다.)

106044 @ 혹시 그건 뭐 칡넝쿨로 만들진 안 헤수가?(혹시 그건 뭐 칡넝쿨로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106044 #1 칡넝쿨로 만드는 건 읏고.(칡넝쿨로 만드는 건 없고.)

106044 @ 아니, 칡넝쿨 닮은 건디 나도 잘 모르는디 칡넝쿨은 아인 거 닮고, 그 가는 덩굴 헤 가지고.(아니, 칡넝쿨 같은 건데 나도 잘 모르는데 칡넝쿨은 아닌 것 같고, 그 가는 덩굴 해 가지고.)

106044 #1 그것이 저 정동 벌립입주, 정동 벌립.(그것이 저 '정동벌립'이지, '정

동벌립'.)
106044 @ 게난 그것이?(그러니까 그것이?)
106044 #1 그게 정동입주게.(그게 댕댕이덩굴이지요.)
106044 @ 그것이 정동이지예. (그것이 댕댕이덩굴이지요.)
106044 #1게난 그것이, 벌립.(그러니까 그것이, 벙거지.)
106044 @ 앞에는 그것이 뭐, 그 모자를?(앞에는 그것이 뭐, 그 모자를?)
106044 #1 패렝이?(패랭이?)
106044 @ 아니, 아까 어르신 말씀허실 때는 정동이 아니고 다른 거렌 ᄀᆞᆯ안게마씨.(아니, 아까 어르신 말씀하실 때에는 정동이 아니고 다른 거라고 말하셨는데요.)
106044 #1 정동 벌립허고, 휘양?('정동벌립'하고, 휘양?)
106044 @ 휘양 말고.(휘양 말고.)
106044 #1 정동 벌립인디 그것이 난 그렇게 이해를 헷는데 그거를 털 잇는 거로 말헷는데, 그것은 휘양이구나예. 그건 휘양.('정동벌립'인데 그것이 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것을 털 있는 것으로 말했는데, 그것은 휘양이군요. 그것은 휘양.)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오늘은예, 식생활 먹는 거에 대허영 물어보쿠다. 아는 대로 ᄀᆞᆯ아줍서. 두 분이서 같이 필요허믄 도와주시고, 처음 시작헐 게 밥허고 국에 대헤선디예, 밥에 종류에 대헤서 ᄀᆞᆯ아줍서.(오늘은요, 식생활 먹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는 대로 말해주십시오. 두 분이서 같이 필요하면 도와주시고, 처음 시작할 게 밥하고 국에 대해서인데요, 밥의 종류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7001 #2 밥이사 보리밥벳기 더 이십니까?(밥이야 보리밥밖에 더 있습니까?)
107001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7001 #1 옛날엔 보리밥벳기 엇엇수다게.(옛날에는 보리밥밖에 없었습니다.)
107001 #2 보리밥, 쌀밥, 반지기밥[208], 콩밥, 콩논밥, ᄯᅳ로 그 저 범벅.(보리밥, 쌀밥, '반지기밥', 콩밥, 콩 넣은 밥, 또 그 저 범벅.)
107001 @ 범벅.(범벅.)
107001 #1 또 범벅도 ᄆᆞ멀ᄏᆞ루 범벅.(또 범벅도 메밀가루 범벅.)
107001 #2 는젱이 범벅.(나깨 범벅.)
107001 #1 는젱이ᄀᆞ를 범벅. 보리ᄀᆞ를 범벅 이렇게 구분허고.(나깨가루 범벅. 보리가루 범벅 이렇게 구분하고.)
107001 @ 는젱이ᄀᆞ를 범벅은 어떤 거우꽈?(나깨가루 범벅은 어떤 겁니까?)

208) '반지기밥'은 쌀과 보리를 반씩 섞어 지은 밥을 말한다.

107001 #1 는젱이ᄀᆞ를이엔 헌 건 메밀 ᄀᆞᆯ다가 그것이 그 희양헌 ᄀᆞ를 나오믄 쪼끔 비급뒌 ᄀᆞ를입주.(나깨가루라고 한 건 메밀 갈다가 그것이 그 하얀 가루 나오면 조금 좋지 않은 가루이지요.)

107001 #2 ᄆᆞ멀ᄀᆞ를예, ᄆᆞ멀ᄀᆞ를 기계에 강 ᄀᆞᆯ믄 체로 치믄 ᄀᆞ를은 아레 나오곡 우에 저 무시것고 잘 ᄀᆞᆯ아지지 아니헌 거예, 고운 거 말고.(메밀가루요, 메밀가루를 기계에 가서 갈면 체로 치면 가루는 아래 나오고 위에 저 뭐냐 잘 갈아지지 않은 거요, 고운 거 말고.)

107001 @ 음.(음.)

107001 #1 체 우에.(체 위에.)

107001 #2 체 우에 거마씨. 그거 는젱이.(체 위에 그거요. 그거 나깨.)

107001 @ 방엣간에서?(방앗간에서?)

107001 #2 예, 예. 방엣간이서 ᄀᆞᆯ당양, 그것이 우엣 것이 는젱입주게.(예, 예. 방앗간에서 갈다가, 그것이 위의 것이 나깨이지요.)

107001 @ 게난 그걸로도 밥을 헤마씨?(그러니까 그걸로도 밥을 해요?)

107001 #2 범벅.(범벅.)

107001 @ 아.(아.)

107001 #1 겐디 그 범벅허는 디는 ᄄᆞ로 대게 감저나 ᄄᆞ로 어떤 때는, 어려운 때쯤은 무우 ᄀᆞ뜬 거 썰엉 놓고.(그런데 그 범벅하는 데는 또 대개 감자나 또 어떤 때는, 어려운 때쯤은 무 같은 것 썰어서 넣고.)

107001 @ 무수도, 놈삐도 놔 가지고예.(무도, 무도 넣어 가지고요.)

107001 #1 어려운 땐 경 헷수다.(어려울 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107001 @ 게믄 놈삐에 뭐를 놓은 거우꽈?(그러면 무에 무엇을 넣은 것입니까?)

107001 #1 놈삐에 물 꿰어가믄 ᄀᆞ를 놓곡, ᄄᆞ로 아 반대로 ᄀᆞᆯ아졈쩌. 놈삐 놔가지고 물 꿰어가믄 ᄀᆞ를 놩 거기에 서끄믄 뒈는 겁주.(무에 물 끓어가면 가루를 넣고, 또 아 반대로 말해지네. 무 넣어 가지고 물 끓어가면 가루 놓아서 거기에 섞으면 되는 거지요.)

107001 @ 게믄 건 뭐렌 허는 거우꽈?(그러면 그것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107001 #1 것고라 놈삐 범벅.(그것더러 무 범벅.)

107001 @ 놈삐 범벅. 놈삐 범벅이구나. 조팝, 조팝은 어떤 식으로 헙니까?(무 범벅. 무 범벅이구나. 조밥, 조밥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7001 #1 조팝은 조도, 조에는 흐린조, 강넹이, 또는 개발시리[209], 또 하난.(조밥도 조도, 조에는 차조, 강냉이, 또는 '개발시리', 또 하나는.)

107001 #2 모인조도 싯고.(메조도 있고.)

107001 #1 모인조, 이렇게 네 가지 조로 구분뒈는데, 이.(메조, 이렇게 네 가지 조로 구분되는데, 이.)

209) '개발시리'는 이삭의 끝이 개의 발 같이 세 가닥으로 되고 쌀알이 거무스름한 차진 조의 한 가지이다.

107001 @ 강돌와리[210]가 강넹이우꽈, 강돌와리?(‘강돌와리’가 강냉이입니까, ‘강돌와리’?)

107001 #1 아니우다, 강돌와리엔 헌 건, 것도 모인축에 부뜬 거우다.(아닙니다, ‘강돌와리’라고 한 건, 그것도 메조 축에 붙은 겁니다.)

107001 @ 모인조고.(메조고.)

107001 #1 예. 그중에 제일 흐린조는 개발시리.(예. 그중에 제일 차조는 ‘개발시리’.)

107001 @ 개발시리. 겐디 그 개발시리가 제일 차지곡 그 저 기름기가 많곡 헌 것고란 개발시리, 겐디 그 개발시리엔 헌 것은 땅이 비옥헌 땅이 아니믄 잘 뒈질 아니허여마씨.(‘개발시리’. 그런데 그 ‘개발시리’가 제일 찰지고 그 저 기름기가 많고 한 것 보고 ‘개발시리’, 그런데 그 ‘개발시리’라고 한 것은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면 잘 되지를 않아요.)

107001 @ 음.(음.)

107001 #1 웃드리[211] 땅이라든지 또는 식은 땅이나 이런 데는 개발시리는 아이 뭽니다, 일반 조는 헤도. 그런 특징이 이십주게.(‘웃드리’ 땅이라든지 또는 헤식은 땅이나 이런 데는 ‘개발시리’는 안 됩니다. 일반 조는 해도. 그런 특징이 있습지요.)

107001 @ 음. 이 동네에는 주로 어떤 조를 갈앗수가?(음. 이 동네에는 주로 어떤 조를 갈았습니까?)

107001 #1 게난 이 동네는 건즘 비옥허니까 거의 다 그 개발시리를 많이 헷수다.(그러니까 이 동네는 거의 비옥하니까 거의 다 그 ‘개발시리’를 많이 했습니다.)

107001 @ 음.(음.)

107001 #1 예, 그러고 또 웃드리 가가지고 농사 지엉 시꺼오면은 대게 모인조고. 이 저.(예, 그리고 또 ‘웃드리’ 가가지고 농사 지어서 실어 오면은 대게 메조고. 이 저.)

107001 @ 노란조.(노란조.)

107001 #1 예. 그걸로 헹 오고.(예. 그걸로 해서 오고.)

107001 @ 노란조는 모인조고, 거므시렁헌 거는?(노란조는 메조고, 거무스름한 것은?)

107001 #1 그건 개발시리고.(그건 개발시리고.)

107001 @ 개발실이, 흐린조고, 음. 게난 노란조는 여기선 잘 안 했구나?(개발시리, 메조고, 음. 그러니까 노란조는 여기에서는 잘 안 했구나?)

107001 #1 예.(예.)

107001 #2 아니, 허긴 헷수다게, 하영을 안 헷주. 게난 그거는양 죽 쒕 먹는 걸로.(아니, 하긴 했습니다, 많이를 안 했지. 그러니까 그것은요 죽 쒀서 먹는 걸로.)

107001 @ 아, 죽 쒕, 쌀 놓고 헤 가지고.(아, 죽 쑤어서, 쌀 넣고 해 가지고.)

---

210) ‘강돌와리’는 쌀알이 노랗고 메진 조의 한 가지이다.

211)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을 말한다.

107001 #2 옛날은예, 그거 저 콩ᄀᆞ를 놔근에 겨울에 죽 쒕 먹어낫수다게.(옛날은, 그거 저 콩가루 놔서 겨울에 죽 쒀서 먹었었습니다.)

107001 @ 아, 콩ᄏᆞ를에 그거 놩.(아, 콩가루에 그것을 놔서.)

107001 #2 밥은 허믄 막 모여마씨.(밥은 하면 마구 메져요.)

107001 @ 밥은 게살게살 흩어져불고.(밥은 게실게실 흩어져 버리고.)

107001 #2 예, 경허난.(예, 그러니까.)

107001 @ 아, 모인조는 흩어져불고 허난 죽을 쒕 먹엇구나.(아, 메조는 흩어져 버리고 하니까 죽을 쑤어서 먹었구나.)

107001 #1 예.(예.)

107001 #2 죽 쒕.(죽 쑤어서.)

107001 @ 게난.(그러니까.)

107001 #1 그 모인조 좁쏠 놔 가지고 조죽도 잇곡, 또 저 쌀죽도 잇고.(그 메조 좁쌀 놔 가지고 조죽도 있고, 또 저 쌀죽도 있고.)

107001 @ 음.(음.)

107001 #1 또 뭐냐 서꺼서 좁쏠허고 쌀허고 서꺼서 허는 죽이 잇고, 또 그 저 하난 뭣고, 아, 그 저 국죽이렌 허영.(또 뭐냐 섞어서 좁쌀하고 쌀하고 섞어서 하는 죽이 있고, 또 그 저 하나는 뭐냐, 아, 그 저 갱죽이라고 해서.)

107001 @ 국죽?(갱죽?)

107001 #1 국죽이라고 헤 가지고 쑤다가 베추도 놓고, 무우도 썰어 놀 때 싯고, 뚜로 이런 야채 썰어 놔 가지고 쓰는 죽은 국죽.(갱죽이라고 해 가지고 쑤다가 배추도 넣고, 무도 썰어 넣을 때 있고, 따로 이런 야채 썰어 넣어 가지고 쑤는 죽은 갱죽.)

107001 @ 그건, 또 거기에는 무슨 쏠이 들어갑니까?(그건, 또 거기에는 무슨 쌀이 들어갑니까?)

107001 #1 국죽이라고 거기에는 보통 그저 식은 밥 ᄀᆞ뜬 거라든지 보리쌀.(갱죽이라고 거기에는 보통 그저 식은 밥 같은 거라든지 보리쌀.)

107001 @ 아, 먹엇던 거.(아, 먹었던 거.)

107001 #2 밥 먹당 남으민예, 그걸로.(밥 먹다가 남으면요, 그걸로.)

107002 @ 밥은 게난 범벅ᄁᆞ지 포함헤서 밥이 다 뒈는 거고예, 밥 허는 쏠은 어떤 것들 가젼 밥을 헤신고마씨?(밥은 그러니까 범벅까지 포함해서 밥이 다 되는 거고요, 밥 하는 쌀은 어떤 것들 가져서 밥을 했나요?)

107002 #2 아이고, 옛날이사 무신 쏠, 쏠 엇고, 옛날엔양 쏠 어선에 허는디 보리밥만 허단 나중에는예, 그 저 무시것고 쏠이 나와신디 저 안락미 쏠이 나완, 이제 ᄀᆞ찌 쏠 나오는 거ᄀᆞ찌 맛이 엇인 거마씨.(아이고, 옛날이야 무슨 쌀, 쌀 없고, 옛날에는 쌀 없어서 하는데 보리밥만 하다가 나중에는요, 그 저 무엇이냐 쌀이 나왔는데 저 안락미 쌀이 나왔어, 이제 같이 쌀 나오는 거같이 맛이 없는 거요.)

107002 @ 음.(음.)

107002 #2 게믄 아이덜 학교 가젠 허믄, 소풍 가젠 허믄양 도시락 싸 주젠 허믄 그 안락미 쏠 강은에 흔 뒈 아니믄 두 뒈 받아다근에양 싯엉 보리밥 가운더레 영 허영 놔근에 허영, 그거 허영 밥 쌍 주고 허여낫수게, 옛날 경 쏠 셔낫수가게.(그러면 아이들 학교 가려고 하면, 소풍 가려고 하면 도시락 싸 주려고 하면 그 안락미 쌀 가서 한 되 아니면 두 되 받아다가 씻어서 보리밥 가운데에 이렇게 해서 넣어서 해서, 그거 해서 밥 싸서 주고 했었습니다, 옛날 그렇게 쌀 있었습니까.)

107003 @ 음, 보리밥은 주로 그냥 보리밥만 허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보리밥들을 헙니까?(음, 보리밥은 주로 그냥 보리밥만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보리밥들을 합니까?)

107003 #1 그 보리밥에도 일반 보리밥 잇고, 통보리밥도 싯곡 헙니다.(그 보리밥에도 일반 보리밥 있고, 통보리밥도 있고 합니다.)

107003 @ 통보리밥?(통보리밥?)

107003 #1 통보리밥은 웨 그런거냐 허면 일반 보리밥은 쏠을 거 좀 ᄀᆞ레에 놔 가지고 ᄀᆞᆸ주기, ᄀᆞᆯ아 가지고 허면 그거를 보리쏠이라 허고, 그 통보리쏠은 그대로 보리를 정미소에서 지은 것은 또 부 불 틔워 가지고 껍데기 판찍 벳겨가지고 통체로 나온 보리를 통보리밥이라 헙니다.(통보리밥은 왜 그런거냐 하면 일반 보리밥은 쌀을 거 좀 맷돌에 넣어 가지고 갈지, 갈아 가지고 하면 그것을 보리쌀이라 하고, 그 통보리쌀은 그대로 보리를 정미소에서 지은 것은 또 두 벌 틔워 가지고 껍데기 아무 것도 없이 벗겨 가지고 통째로 나온 보리를 통보리밥이라 합니다.)

107003 @ 아.(아.)

107003 #1 게난 거를 통보리밥 ᄀᆞ뜬 거는 잔치 때에 ᄑᆞᆺ ᄀᆞ뜬 거 놔 가지고 미릇 쌀이 족으니까 보리밥으로 흔 때 아침 멕엿당 ᄯᅳ로 그 저 신랑 신부라든지 잔치를 허게 뒈면 ᄯᅳ로 곤밥허고.(그러니까 그것을 통보리밥 같은 것은 잔치 때에 팥 같은 것 넣어 가지고 미리 쌀이 적으니까 보리밥으로 한 끼니 아침 먹였다가 또 그 저 신랑 신부라든지 잔치를 하게 되면 또 흰밥하고.)

107003 @ 그냥 보리밥허고 통보리밥의 차이는?(그냥 보리밥하고 통보리밥의 차이는?)

107003 #1 차이는 조끔 덜 거칠어마씨, 통보리밥이.(차이는 조금 덜 거칠어요, 통보리밥이.)

107003 @ 아, 한 번 더 까끈 거구나?(아, 한 번 더 깎은 거구나?)

107003 #1 예, 예, 판찍 까끈 거우다. ᄆᆞᆯ방에에 가더라도 일반 보리쏠 닮지 아니허게 더 까끈 겁주게.(예, 예, 아무 것도 없이 깎은 겁니다. 연자매에 가더라도 일반 보리쌀 같지 않게 더 깎은 거지요.)

107003 @ 음, 더 까끈 거예.(음, 더 깎은 거요.)

107003 #1 예.(예.)

107003 @ 그것이 통보리밥?(그것이 통보리밥?)

107003 #1 예.(예.)

107003 @ 다른 뭐, 보리쏠 종류가 잇지 안 허꽈예.(다른 뭐, 보리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107003 #1 보리쏠 종류는 통보리쏠, 보리쏠, 뚜로 스레기 이 시 가지로 나눕주, 뭐.(보리쌀 종류는 통보리쌀, 보리쌀, 따로 싸라기 이 세 가지로 나누지요, 뭐.)

107003 @ 납작보리[212]는 건 아니고마씨('납작보리'는 그건 아니고요?)

107003 #1 납작보리는 거 월남밉주게. 거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해방 이후에 그 서영에서 여기 저 구호미로 나와 가지고 헌 것들이 월남미, 납작보리, 납작보리 헷는디 보리 같은 거라도 기계에 압축시겨 가지고.('납작보리'는 거 월남미지요. 거 우리나라에서가 아니고 해방 이후에 그 서양에서 여기 저 구호미로 나와 가지고 한 것들이 월남미, '납작보리', '납작보리' 했는데 보리 같은 거라도 기계에 압축시켜 가지고.)

107003 @ 그니까, 멜라 가지고예. 그것이 그건 차이가 뭐우꽈?(그러니까, 눌러 가지고요. 그것이 그건 차이가 뭐입니까?)

107003 #1 그건 그게 그 먹어보면 보리밥보다도 납작보리밥이 어린 아이덜라든지 위가 나쁜 사람덜은 것도 좋지만은, 빨리 배고파.(그건 그게 그 먹어보면 보리밥보다도 '납작보리'밥이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위가 나쁜 사람들은 그것도 좋지마는, 빨리 배고파.)

107003 @ 음, 빨리 배고프는구나예? 빨리 배가 꺼져불어예?(음, 빨리 배고파지는군요. 빨리 배가 꺼져버려요.)

107003 #1 예. 예.(예. 예.)

107003 @ 음, 납작보리쌀은예, 그러면 보리밥은 그런 종류우다예, 납작보리쌀만도 보리밥을 헌 거지예?(음, '납작보리'쌀은요, 그러면 보리밥은 그런 종류입니다. '납작보리'쌀만으로도 보리밥을 한 거지요?)

107003 #1 예.(예.)

107003 @ 건 언제부떠 헌 거우꽈?(그건 언제부터 한 거입니까?)

107003 #1 납작보리쌀은 여기서 생산은 아니허고 또 그 저 안락미라든지 월남미라든지 이렇게 헤 가지고 명칭은 납작보리라 헤도 월남밉주게. 것은 보통 시장에 가서 사다가 그 저 같이 서껑 먹곡 경 헤십주.('납작보리'쌀은 여기서 생산은 안 하고 또 그 저 안남미라든지 월남미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은 '납작보리'라 해도 월남미입니다. 그것은 보통 시장에 가서 사다가 그 저 같이 섞어서 먹고 그렇게 했습지요.)

107003 @ 음.(음.)

107003 #1 여기서 그, 국가에서 생산뒌 보리가 아니고.(여기서 그, 국가에서 생산된 보리가 아니고.)

107003 @ 음.(음.)

107003 #1 납작보리는.('납작보리'는.)

---

212) '납작보리'는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을 말한다.

107004 @ 그건 반지기로 헨 헷수가?(그건 ‘반지기’로 해서 했습니까?)

107004 #1 예, 반지기는 쌀에 보리쏠 서끈 것고라 반지기밥이엔 헤십주.(예, 반지기는 쌀에 보리쌀 섞은 것더러 ‘반지기’밥이라고 했습지요.)

107004 #2 반지기밥은 콩도 놓고.(‘반지기’밥은 콩도 넣고.)

107004 #1 이것저것 놩.(이것저것 넣아서.)

107004 @ 그 반지기밥은 일단 보리쏠 먼저 놓고.(그 ‘반지기’밥은 일단 보리쌀 먼저 넣고.)

107004 #1 예, 보리쏠 솖당.(예, 보리쌀 삶다가.)

107004 @ 솖당은에.(삶아서.)

107004 #1 쏠 놩.(쌀 넣어서.)

107004 @ 쏠을 놓는 거. 그 웨에 다른 반지기는?(쌀을 넣는 거. 그 외에 다른 ‘반지기’는?)

107004 #1 그것ᄀᆞ라 반지기란 이것저것 서꺼진 것ᄀᆞ라 반지기라마씀.(그것보고 ‘반지기’라고 이것저것 섞인 것더러 ‘반지기’예요.)

107004 @ 게난 보리쏠에 쏠 놩 헌 것도 반지기, 게난 다른 것도 반지기렌 헙니까?(그러니까 보리쌀에 쌀 넣어서 한 것도 ‘반지기’, 그러니까 다른 것도 ‘반지기’라고 합니까?)

107004 #1 예, 거 국죽이라고 헤 가지고 그것에도 역시 보리쏠 놓고 즘진, 보리 즘진 쏠, 보리헐 때 그 저.(예, 거 국죽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에도 역시 보리쌀 넣고 자잘한, 보리 자잘한 쌀, 보리할 때 그 저.)

107004 @ 즘쏠[213]?(‘즘쏠’?)

107004 #1 쏠 우에 즘진 것고라 ᄉᆞ레기, ᄉᆞ레기.(쌀 위에 가는 것더러 싸라기, 싸라기.)

107004 @ ᄉᆞ레기, 즘쏠이 아니고?(싸라기, ‘즘쏠’이 아니고?)

107004 #1 예, 예, 즘쏠이고 ᄉᆞ레기쏠 ᄀᆞ뜬 거 놔 가지고 죽을 많이 쒓수다.(예, 예, ‘즘쏠’이고 싸라기쌀 같은 것 넣어 가지고 죽을 많이 쒔습니다.)

107004 @ 음, 쏠인데 막 부서진 거.(음 쌀인데 마구 부서진 거.)

107004 #1 예.(예.)

107004 @ 것이 ᄉᆞ레기쏠?(그것이 싸라기쌀?)

107004 #1 예.(예.)

107004 @ ᄉᆞ레기쏠로도 헌다 이거구나.(싸라기쌀로도 한다 이거구나.)

107004 #1 밥헐 때도 그거 들고, 죽 쑬 때도 들고. 또 ᄉᆞ레기쏠은 순다리[214] ᄀᆞ튼 거라든지 만들 때도 들고.(밥할 때도 그거 들어가고, 죽 쑬 때도 들어가고. 또 싸라기쌀은 ‘순다리’ 같은 거라든지 만들 때도 들어가고.)

107004 @ 순다리는 밥, 쉰 밥 가졍 허지 안 헙니까?(‘순다리’는 밥, 쉰 밥 가지

213) ‘즘쏠’은 잘게 부서진 보리쌀 따위를 말한다.
214) ‘순다리’는 밥과 누룩으로 담가 감주보다 덜 달고 새금진 맛이 있게 한 여름철의 음료를 말한다.

고 하지 않습니까?)

107004 #1 예, 쉰 밥으로.(예, 쉰 밥으로.)

107004 @ 쉰 밥으로 허는데, 거기도 ᄉᆞ레기쏠로?(쉰 밥으로 하는데, 거기도 싸라기쌀로?)

107004 #1 ᄉᆞ레기쏠 ᄒᆞ끔 들어.(싸라기쌀 조금 들어가.)

107004 @ 아, ᄉᆞ레기쏠도 들어갑니까? 그거는 또 쏠만 가지고?(아, 싸라기쌀도 들어갑니까? 그것은 또 쌀만 가지고?)

107004 #1 예.(예.)

107004 @ 아, 그거는 쏠만 따로 놓는 거.(아, 그거는 쌀만 따로 넣는 거.)

107004 #1 예,(예,)

107005 @ 서꺼질 거니까, 맞아. 그 아까 반지기밥은 말씀을 허셧고. 게난 이제 곤밥, 흰밥?(섞일 거니까, 맞아. 그 아까 '반지기'밥은 말씀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흰밥, 흰밥?)

107005 #1 흰밥은 쌀만 놔 가지고 헌 것이 흰밥, 곤밥입주.(흰밥은 쌀만 넣어 가지고 한 것이 흰밥, 흰밥이지요.)

107005 @ 그거는 여기서 쏠을 재배헷수가?(그것은 여기서 쌀을 재배했습니까?)

107005 #1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저 명월[215] 논이라든지 웅포[216]에 논도 잇고, ᄯᅳ로 부자 사름덜은 고산[217]이라던지, 저 강정[218]꺼지 가가지고 그 땅 잇어 가지고 논 사 두엇다가 소작 줘은에 갈라오는 사람덜토 이 동네는 ᄒᆞᆫ 두어 사람 잇엇수다.(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저 명월 논이라든지 웅포에 논도 있고, 따로 부자 사람들은 고산이라든지, 저 강정까지 가가지고 그 땅 있어 가지고 논 사 두었다가 소작 줘서 갈라오는 사람들도 이 동네는 한 두어 사람 있었습니다.)

107005 @ 아.(아.)

107005 #1 잇엇지만 그 웨에는 자기 집에서 어떤 제사 때라던지 쓰기 위헤 가지고 웃드리 목장이라든지, 올리는 ᄆᆞ멀 갈앗다가 내년에는 ᄆᆞ멀 그르에는 산디를 갈아십주게.(있었지만 그 외에는 자기 집에서 어떤 제사 때라든지 쓰기 위해 가지고 '웃드리' 목장이라든지, 올해는 메밀 갈았다가 내년에는 메밀 그루에는 밭벼를 갈았습지요.)

107005 @ 산디를.(밭벼를.)

107005 #1 걸 헤다가 것도 거 나는 집이라도 걸 아껴가지고 집에 장만헤 뒷다가 어떤 땐 잔치 때라든지 쓸려고 잔치 때나 ᄯᅳ로 소상을 만난 때에, 대, 소상 때라든지 제사 때라든지.(그걸 해다가 그것도 그거 나는 집이라도 그걸 아껴가지고 집에 장만해뒀다가 어떤 땐 잔치 때라든지 쓰려고 잔치 때나 또 소상을 만난 때에, 대, 소상 때라든지 제사 때라든지.)

---

215) '명월'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를 말한다.
216) '옹포'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를 말한다.
217) '고산'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를 말한다.
218) '강정'은 서귀포시 강정동을 말한다.

107005 #2 제사 때나 멧밥 헨 먹엇주, 딴 때사 곤밥 헨 먹엇수가게.(제사 때나 메 해서 먹었지, 다른 때야 흰쌀밥 해서 먹었습니까.)

107005 #1 삭일 ᄀᆞ뜬 거 전인 거 소상 지내젠 허믄, 삼년상 헤십주게.(삭일 같은 거 전에는 거 소상 지내려고 하면, 삼년상 했습지요.)

107005 @ 음.(음.)

107005 #1 저 초ᄒᆞ를날이든지 또는 보름에.(저 초하루날이든지 또는 보름에.)

107005 @ 게난 그 저기 산디쏠허고, 또 어디 강 헤 오는 건 나룩으로 허고.(그러니까 그 저기 밭벼쌀하고, 또 어디 가서 해 오는 건 나 벼로 하고.)

107005 #1 예, 나룩은 일반적인 사름은 다 시장이 가서 나룩쏠을 사다가 특별헌 때 허고.(예, 벼는 일반적인 사람은 다 시장에 가서 볍쌀을 사다가 특별한 때 하고.)

107005 #2 우리도 나룩 헌 사름 멧 셔낫수가?(우리도 벼 한 사람 몇 있었습니까?)

107005 #1 아주머니네 조상덜, 허허허.(웃음)(아주머니네 조상들, 허허허.(웃음))

107005 #2 우리 시할아버지넨 고산 강양 논 잇이난에 허여단에.(우리 시할아버지네는 고산 가서 논 있으니까 해다가)

107005 @ 아, 고산에.(아, 고산에.)

107005 #2 경 허여근에 허여나신디.(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107005 #1 우리 동네도 서너 집 그자, 고산 논 잇는 사름이.(우리 동네도 서너 집 그저, 고산 논 있는 사람이.)

107005 #2 경헌디 우리 시할아버진예 그거 저 나룩 허여도 우리 시어머닌 아덜 뭐헌 때 요 밥 ᄒᆞ끔 헤주젠도 안 헤신디, 우리 시할아버진양 쏠 두 뒈 ᄀᆞ젼 완 이거 아기 저 생일날라근에 밥 헹 주렌양 갖다 주멍 헤낫수다게.(그런데 우리 시할아버지는 그거 저 벼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아들 뭐한 때 요 밥 조금 해주려고도 안 했는데, 우리 시할아버지는 쌀 두 되 가져 와서 이거 아기 저 생일날에 밥 해서 주라고 갖다 주면서 했습니다.)

107005 #1 허허허.(허허허.)

107005 #2 경헌디예, 돌아가션 보난예, 그 나룩쏠 벵작 줭 갈라오믄 항아리에 ᄆᆞ딱 담안 놔두난예, 돌아가신 때 그걸로 허연에 장사지냇수게.(그런데 돌아가셔 보니까, 그 볍쌀 병작 줘서 갈라오면 항아리에 모두 담아서 놔두니까, 돌아가신 때 그것으로 해서 장사지냈습니다.)

107005 @ 음. 거 나룩쏠허고 산디쏠로 밥을 허믄 밥이 어떵 다릅니까?(음. 거 볍쌀하고 밭벼쌀로 밥을 하면 밥이 어떻게 다릅니까?)

107005 #1 저 나룩쏠이 더 기름기가 잇고, 좀 부드럽고, ᄎᆞ지고, 또 산디쏠은 모이고, 밥이 좀 게살게살헙니다.(저 볍쌀이 더 기름기가 있고, 좀 부드럽고, 차지고, 또 밭벼쌀은 메지고 밥이 좀 게실게실합니다.)

107005 #1 겐 그건 밧디서 나온 거고게. 나룩쏠은 논밧디 물에서 나온 거난, 건 차이가 맛이 차이가 잇어마씨.(그래서 그건 밭에서 나온 거고요. 볍쌀은 논밭 물에

서 나온 거니까, 그건 차이가 맛이 차이가 있어요.)

107005 @ 게 나룩쏠은 좀 비쌋겟다예.(그래 볍쌀은 좀 비싸겠군요.)

107005 #1 예.(예.)

107005 #2 제사 때, 제사 때나벳기 사 완 먹어졋수가게.(제사 때, 제사 때나밖에 사 와서 먹어졌습니까.)

107005 #1 제사 때나, 또 어린 아이 생일 때라든지, 또 몸이 아플 때에 미음이나 쒕 먹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헤십주. 일반에서는 경 못허고예.(제사 때나, 또 어린 아이 생일 때라든지, 또 몸이 아플 때에 미음이나 쒀서 먹는다든지, 이런 정도로 했습지요. 일반에서는 그렇게 못하고요.)

107005 #2 옛날에는 쉽게 사당 먹곡 하근거 허영 살앗수가.(옛날에는 쉽게 사다가 먹고 여러 가지 해서 살았습니까.)

107005 #1 산디쏠도 강 생산허여 온 집이 셔도 웃드리 가서 산디를 갈앙 허여 와도 그걸 아껴가지고 매번 먹질 안 헙주게, 트망에 특별헌 때나 아니믄, 또 소상 때나.(밭벼쌀도 가서 생산해서 온 집이 있어도 '웃드리' 가서 밭벼를 갈아서 해서 와도 그걸 아껴 가지고 매 번 먹지를 않았습지요, 틈에 특별한 때나 아니면, 또 소상 때나.)

107005 #2 제사 때.(제사 때.)

107005 #1 제사 때.(제사 때.)

107005 @ 제사 때나, 대부분게 제사 때.(제사 때나, 대부분 제사 때.)

107005 #1 겐디 웃드리 가근에양, 산딘 꼭 웃드리만 강 갑디다게.(그런데 '웃드리' 가서, 밭벼는 꼭 '웃드리'만 가서 갑디다.)

107005 @ 아.(아.)

107005 #1 우리 시아버지네도 해년마다 산디 갈앙은에양.(우리 시아버지네도 해마다 밭벼 갈아서요.)

107005 @ 게난 건 ᄆᆞ멀 갈아난 디.(그러니까 그건 메밀 갈았던 데.)

107005 #1 예, 그 뒤에 헤사 잘 뭽주, 또 검질도 덜 허고.(예, 그 뒤에 해야 잘 되지요, 또 김도 덜 하고.)

107005 @ 음.(음.)

107005 #1 겐 새밧디서는 ᄆᆞ멀 갈아난 끗데 산디 갈고, 산디 갈아난 끗데 콩 갈아난 다음부떠는 검질 제와가니까 ᄯᅳ로 그레 나는 촐로 허당, ᄯᅳ로 멧 년 뒤쯤에는 것도 개간헤 가지고 ᄯᅳ로 허고.(그래서 띠밭에서는 메밀 갈았던 끝에 밭벼 갈고, 밭벼 갈았던 끝에 콩 갈아난 다음부터는 김 겨워가니까 또 그리 나는 꼴로 하다가, 또 몇 년 뒤쯤에는 그것도 개간해 가지고 또 하고.)

107006 @ 조만 가지고도 밥을 헷수가?(조만 가지고도 밥을 했습니까?)

107006 #1 예.(예.)

107006 @ 조팝은 조만 가지고 헌 거우꽈?(조밥은 조만 가지고 한 겁니까?)

107006 #1 예, 예.(예, 예.)

107006 #2 감제 놓고.(고구마 넣고.)

107006 @ 감자 놓고, 그 조팝 말앙 그 조에 서껑 먹는 밥은?(고구마 넣고, 그 조밥 말고 그 조에 섞어서 먹는 밥은?)

107006 #1 서껑 먹는 밥은 그대로 그 보리밥에도 보리가 좀 문작이 풀기가 엇입주기, 게믄 좁쏠을 놔야 밥이 풀풀헤져마씨.(섞어서 먹는 밥은 그대로 그 보리밥에도 보리가 좀 반드럽게 풀기가 없습지요. 그러면 좁쌀을 놓아야 밥이 풀풀해져요.)

107006 @ 음, 게니까 조금 솖앙, 보리쏠 솖앙은에 것도 좁쏠은 나중에 놓는구나.(음, 그러니까 조금 삶아서, 보리쌀 삶아서 그것도 좁쌀은 나중에 넣는구나.)

107006 #1 예, 질 나중에 좁쏠을 놉주게. 경 헤근에 거 다 뒈면 걸 젓엉 또 골로루 젓어야 밥이 골라집주게.(예, 젤 나중에 좁쌀을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되면 그것을 저어서 또 골고루 저어야 밥이 고르지요.)

107007 @ 풋으로 풋밥도 헤 먹엇수가?(팥으로 팥밥도 해 먹었습니까?)

107007 #1 풋밥만은 안 허고 풋은 대게 밥에 놩도 먹곡, 떡 허는 디 징이라고 헤 가지고 떡 빗광 빗 세이에 놔 가지고 허고, 소곱에 뚜로 새미떡[219]이라든지 상웨떡[220]헐 적에도 놓곡, 이런 용으로나 써십주, 풋만 놔 가지고 밥은 안 헷수다.(팥밥만은 안 하고 팥은 대개 밥에 넣어서도 먹고, 떡 하는 데 켜라고 해 가지고 떡 '빗'과 '빗' 사이에 놓아 가지고 하고, 속에 따로 '새미떡'이라든지 '상웨떡' 할 적에도 넣고, 이런 용으로나 썼습지요, 팥만 넣어 가지고 밥은 안 했습니다.)

107007 @ 아.(아.)

107007 #1 죽은 쑬 땐, 풋죽이라 헤 가지고, 것도 거기도 반다시 쒀 가다근에 잇는 집이라든지 뭣 헌 디는 곤쏠 놩 쑤민 맛 좋고, 또 게 아니헌 디는 좁쌀, 모인 좁쌀 놔 가지고 헷고예.(죽은 쑬 때는, 팥죽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거기도 반드시 쑤어 가다가 있는 집이라든지 뭐 한 데는 흰쌀 넣어서 쑤면 맛 좋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좁쌀, 메좁쌀 넣어 가지고 했고요.)

107007 @ 음.(음.)

107007 #1 콩죽도 마찬집주기, 콩죽도 쑬 때에 콩만 쑤는 것이 아닙주, 것만으로 죽이 아이 뒈어마씨. 게난 저 좁쏠을 논다든지 뚜로 그렇지 않으면 쌀, 산디쌀을 놓면 아주 맛이 좋고, 좁쏠 놓면 ᄒᆞ끔 덜 허고.(콩죽도 마찬가지지요, 콩죽도 쑬 때에 콩만 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만으로 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좁쌀을 넣는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쌀, 밭벼쌀을 넣으면 아주 맛이 좋고, 좁쌀 넣으면 조금 덜 하고.)

107007 @ 음. 게난 풋으로만 밥은 안 허고, 풋은 이제 그 일반 다른 거에 서꺼 가지고, 서끌 때는 쏠도 서끄고 보리쏠도 서끄고, 조, 조도, 조팝에도?(음. 그러니까 팥으로만 밥은 안 하고, 팥은 이제 그 일반 다른 것에 섞어 가지고, 섞을 때에는 쌀

219) '새미떡'은 밀가루 따위로 송편보다 약간 크고 기름하게 만든 떡을 말한다.
220) '상웨떡'은 밀가루 따위에 더운 물과 막걸리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을 말한다.

도 섞고 보리쌀도 섞고, 조, 조도, 조밥에도?)

107007 #1 예.(예.)

107007 @ 풋 놉니까?(팥 넣습니까?)

107007 #1 예, 예. 게믄 맛이 좁주게.(예, 예. 그러면 맛이 좋지요.)

107007 @ 음.(음.)

107007 #2 겐 흔허게 풋만 헨 먹어보진 안 헷수다게. 그자 떡 헐 때양, 집이서 떡 헐 때, 떡 허난 침떡헐 때도 영 거려근에 징마다 풋으로 허영.(그래서 흔하게 팥만 해서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떡 할 때, 집에서 떡 할 때, 떡 하니까 시루떡할 때에도 이렇게 떠서 켜마다 팥으로 해서.)

107007 @ 징마다예?(켜마다요?)

107007 #2 예, 경 헤근에 풋 놓믄 침떡도 흔 징썩 갈라지난.(예, 그렇게 해서 팥 넣으면 시루떡도 한 켜씩 갈라지니까.)

107007 @ 거니까, 그게 층이 뒈니까예.(그러니까, 그게 층이 되니까요.)

107007 #2 경헤도양 풋은 경 흔허게 먹질 안 헷수다,(그래도 팥은 그렇게 흔하게 먹지를 않았습니다.)

107007 #1 게고 또 풋이 일반 생산헤 보면은 그 식량으로 쓰는데 보리, 조와 같이 경 많이 생산이 아이 뒙니다.(그리고 또 팥이 일반 생산해 보면 그 식량으로 쓰는데 보리, 조와 같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안 됩니다.)

107008 @ 많이, 많이 생산할 수가 없구나예. 피밥도 먹어낫수가? 피.(많이, 많이 생산할 수가 없군요. 피밥도 먹었습니까? 피.)

107008 #1 피밥은 여기선 ᄒᆞ끔 덜 헷수다, 나는 거 피밥도 먹긴 먹엇수다게. 거 피밥도 역시 피를 갈아 가지고, 거두엉, 걸 ᄀᆞᆯ앙 체를 거두웡 나머지 쌀 놔 가지고, 걸 ᄀᆞᆯ아가면은 건즘 다 부서집주게. 게 가믄 그걸 놔근에 허는데 것도 피밥에는 반다시 무신 좁쏠을 논다든지 헤야 뒙주, 게 아니허믄.(피밥은 여기에서는 조금 덜 했습니다, 나는 거 피밥도 먹긴 먹었습니다. 거 피밥도 역시 피를 갈아 가지고, 거둬서, 그것을 갈아서 체를 거두어서 나머지 쌀 넣어 가지고, 그것을 갈아 가면은 거의 다 부서지지요. 그렇게 해가면 그것을 넣어서 하는데 그것도 피밥에는 반드시 무슨 좁쌀을 넣는다든지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107008 @ 피밥, 그 피는 알이 좀 거므스름허지 안 헙니까?(피밥, 그 피는 알이 좀 거무스름하지 않습니까?)

107008 #1 거므스름허고 좁쌀 같이 좀 ᄌᆞᆯ고.(거무스름하고 좁쌀 같이 좀 잘고.)

107008 @ 좀 잘고예. 좁쌀보다는 크지만은 보리쏠보다는 작지 안 헙니까예?(좀 잘고요. 좁쌀보다는 크지마는 보리쌀보다는 작지 않습니까?)

107008 #1 예, 예. 게난 이디 땅에는 잘 아이 뒈고, 저 화전 땅이라든지 웃드리 땅에는 좀 뭐헷수다만은 대대적으로 피를 많이 갈진 안 헤낫수다.(예, 예. 그러니까 여기 땅에는 잘 안 되고, 저 화전 땅이라든지 '웃드리' 땅에는 좀 뭐했습니다마는 대대적으로 피를 많이 갈지는 않았었습니다.)

107008 @ 음, 게난 이것도 밥은 헤먹고예?(음, 그러니까 이것도 밥은 해먹고요?)

107008 #1 예, 헤 먹긴 허뒈 그 저 땅을 뚠 식량, 양식덜 나오는 곡식덜 헤서 수확이 잘 나니까 그걸로 허고, 맛도 역시 보리라든지 산디라든지 조만이 수확도 아이 나고, 피는.(예, 해 먹기는 하되 그 저 땅을 딴 식량, 양식들 나오는 곡식들 해서 수확이 잘 나니까 그것으로 하고, 맛도 역시 보리라든지 밭벼라든지 조만큼 수확도 안 나고, 피는.)

107008 @ 음.(음.)

107008 #1 또 장만 과정도 궂고.(또 장만 과정도 궂고.)

107009 @ 그 아까 또 얘기헷던 부분인디 감저밥, 감저밥, 고구마 놩은에 허는 감저밥,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언 먹은 거우꽈?(그 아까 또 얘기했던 부분인데 고구마밥, 고구마밥, 고구마 넣어서 하는 고구마밥, 그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먹은 겁니까?)

107009 #1 감자는 이, 감자만은 그 별로 먹을 게 엇입주게. 게난 그걸 보리밥 헐 때라든지 이럴 때에 그 감자를 썰엉 노믄, 놉주. 그건 보리쏠 귀허영 그때에 복작 썰어 노믄 그자 수제로 떠 먹기 좋게끔만 썰엉 밥에 놩 보리 서끄믄 감자밥이 뒈는 겁주.(고구마는 이, 고구마만은 그 별로 먹을 게 없었습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리밥 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그 고구마를 썰어서 넣으면, 넣죠. 그건 보리쌀 귀해서 그때에 가느다랗게 썰어 놓으면 그저 수저로 떠 먹기 좋게끔만 썰어서 밥에 넣어서 보리 섞으면 고구마밥이 되는 겁니다.)

107009 @ 아, 예, 보리쏠이 ᄒᆞ끔 익은 다음에 놉니까?(아, 예, 보리쌀이 조금 익은 다음에 넣습니까?)

107009 #1 건즘 익어 가사 놔마씨.(거의 익어 가야 넣어요.)

107009 @ 게난 보리쏠이 먼저 놓고.(그러니까 보리쌀이 먼저 넣고.)

107009 #1 예.(예.)

107009 @ 감자는 나중에 익어가믄, 보리쏠 익어가면 놓고.(고구마는 나중에 익어가면, 보리쌀 익어가면 넣고.)

107009 #1 예, 밥 궤여논 끗데. 게난 그 밥 허는 중에 제일 오래 삶아야 하는 밥은 보리밥이우다.(예, 밥 끓여 놓은 끝에. 그러니까 그 밥 하는 중에 제일 오래 삶아야 하는 밥은 보리밥입니다.)

107009 @ 조팝에도 감저를 놧지예?(조밥에도 고구마를 넣었죠?)

107009 #1 예. 조팝은 조영 ᄀᆞ찌 놉니다, 감저는예.(예. 조밥은 조랑 같이 넣습니다, 고구마는요.)

107009 @ 아, 조하고 같이.(아, 조하고 같이.)

107009 #1 예.(예.)

107009 @ 건 익는 게 비슷허구나예.(그것은 익는 게 비슷하군요.)

107009 #1 속도가 같으니까예.(속도가 같으니까요.)

107009 @ 음, 보리만 먼지 익히는구나.(음, 보리만 먼저 익히는구나.)

107009 #1 예.(예.)

107009 @ 보린 오래 걸리니까.(보리는 오래 걸리니까.)

107009 #1 예, 예.(예, 예.)

107010 @ 무우밥은 아까 말헷주만은 무우밥은 어떤 식으로 만들아 먹읍니까?(무밥은 아까 말했지만 무밥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먹습니까?)

107010 #1 무우밥은 거 정상적으로 늘 먹는 것이 아니라 숭년 때라든지 쌀이 없는 집에, 이런 때에 식량을 불리기 위헤 가지고 무우밥을 헤 먹읍주기.(무밥은 거 정상적으로 늘 먹는 것이 아니라 흉년 때라든지 쌀이 없는 집에, 이런 때에 식량을 불리기 위해 가지고 무밥을 해 먹습지요.)

107010 @ 음, 게난 그거는 헤 먹는 방법이 어떵 헤 먹읍니까?(음, 그러니까 그것은 해 먹는 방법이 어떻게 해 먹습니까?)

107010 #1 헤 먹는 방법은 감저밥과 마찬가지우다.(해 먹는 방법은 고구마밥과 마찬가지입니다.)

107010 @ 감저밥처럼 일단은 보리쏠 좀 솖아 놓고, 그다음에 무우를 썰어 놓는구나예.(고구마밥처럼 일단은 보리쌀 조 삶아 넣고, 그다음에 무를 썰어 넣는군요.)

107010 #1 예. 썰와놔근에 뚜로 그다음에 좁쏠 놩 물 뿔르믄 밥이 뒈는 겁주.(예. 썰어 넣어서 또 그다음에 좁쌀 넣어서 물 잦히면 밥이 되는 거지요.)

107010 @ 음, 무우렌 허믄 그 놈삐를 말 허는 거지예?(음, 무라고 하면 그 무를 말 하는 거지요?)

107010 #1 예, 놈삐마씨.(예, 무요.)

107010 #2 감저 엇인 때나 무우밥 헷주, 감저 잇인 때는 감저로 헙니다게.(고구마 없을 때나 무밥 했지, 고구마 있을 때에는 고구마로 합니다.)

107010 @ 감저 놓고예.(고구마 넣고요.)

107010 #2 예, 겐디 무우는 영 체 썰엉 놔사, 감저는 요만씩 짤랑 놓곡 경 헷수게.(예, 그런데 무는 이렇게 채 썰어서 넣어야, 고구마는 요만큼씩 잘라서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10 @ 아, 무우는 체로?(아, 무는 채로?)

107010 #2 예.(예.)

107010 @ 체 썰어가지고 가늘게?(채 썰어가지고 가늘게?)

107010 #2 예.(예.)

107010 @ 무우는 가늘게 체 썰어가지고.(무는 가늘게 채 썰어가지고.)

107010 #2 감저는 요만씩, ᄒᆞ끔 크게 썰고마씨.(고구마는 요만큼씩, 조금 크게 썰고요.)

107011 @ 크게 썰고. 음, 감저밥, 혹시 여기서 톳밥도 헤 먹엇수가?(크게 썰고. 음, 고구마밥, 혹시 여기서 톳밥도 해 먹었습니까?)

107011 #1 예, 톳밥은 정상적인 데서는 아니 헷수다. 아니 허는디 것도 숭년 때

라든지 어려운 때는 거 식량 불리기 위헤 가지고 걸 헨 먹어십주.(예, 톳밥은 정상적인 데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하는데 그것도 흉년 때라든지 어려운 때에는 거 식량 불리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해서 먹었습지요.)

107011 @ 게난 따로 특별이 톳밥을 먹어본 거는 아니고, 바당이서 톳, 여기서는 톳 구허기가 어렵지 안 헙니까?(그러니까 따로 특별히 톳밥을 먹어본 것은 아니고, 바다에서 톳, 여기에서는 톳 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07011 #1 예, 바당이 저.(예, 바다에 저.)

107011 #2 아니, 바당이 가믄양, 바당에 강 져 와낫수게.(아니, 바다에 가면, 바다에 가서 져 왔었습니다.)

107011 #1 톳, 저.(톳, 저.)

107011 #2 비어당은에 솖앙 널엇당 여름엔 넹국헹 먹고.(베어다가 삶아서 널었다가 여름에는 냉국해서 먹고.)

107011 @ 넹국 헹 먹고, 물리왕도 먹고예?(냉국 해서 먹고, 말려서도 먹고요?)

107011 #2 예, 물리왕은에 영 뭰장에 무쳥도 먹곡, 게난 이 바당에 강은에 비엉 경 오라근에 솖망 물리왕 경 먹어낫수다.(예, 말려서 이렇게 된장에 무쳐서도 먹고, 그러니까 이 바다에 가서 베어서 져와서 삶아서 말려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107011 @ 톳밥 헐 때는 물리운 걸 놉니까, 아니면 그냥 놉니까?(톳밥 할 때에는 말린 것을 넣습니까, 아니면 그냥 넣습니까?)

107011 #2 물리운 거, 물리운 건 놀 거 엇인 때엔 물리운 거 물 달루아근에, 물 불리와근에 허고.(말린 거, 말린 건 날 거 없을 때에는 말린 거 물 이겨서, 물 불려서 하고.)

107011 @ 물 불리왕 허고?(물 불려서 하고?)

107011 #2 예. 경 헹 놔근에.(예. 그렇게 해서 놓아서.)

107012 @ 패밥[221]도 먹어낫수가? 패밥.(패밥도 먹었습니까? 패밥.)

107012 #1 패밥 ᄀᆞ뜬 건 여기선 안 먹어낫수다.(패밥 같은 것은 여기에서는 안 먹었습니다.)

107012 #2 패, 패엔 헌 건 뭣이우꽈, 패엔 헌 말 들어보지 안 허연.(패, 패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패라고 한 말 들어보지 안 했어.)

107012 @ 이것도 무슨 바당에서 나는 건디예, 패는예.(이것도 무슨 바다에서 나는 건데요. 패는요.)

107012 #2 패밥, 들어보질 안 헤신디.(패밥, 들어보지 안 했는데.)

107012 @ 이 동네에선 패밥을 안 먹어난 거 닮수다.(이 동네에서는 패밥을 안 먹었던 거 같습니다.)

107012 #1 예, 바당도 엇고 허난.(예, 바다도 없고 하니까.)

107012 @ 밥 종류는 뭐 다른 밥 뭐 생각나는 거 잇수가?(밥 종류는 뭐 다른 밥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

221) '패밥'은 해조류 패를 넣어서 지은 밥을 말한다.

107012 #1 그 웨에는 엇수다.(그 외에는 없습니다.)

107012 #2 딴 밥은.(딴 밥은.)

107013 @ 엇고? 그러면 이제는 국으로 넘어가쿠다예, 국에 종류를 알아지는 대로 ᄀᆞᆯ아줍서.(없고? 그러면 이제는 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의 종류를 아는 대로 말해주십시오.)

107013 #1 국이야 그 ᄀᆞ찌 서끄는 것에 뚜납주, 뭐. 놈삐국 싯고, 뚜로 베추국 싯고, 뒌장국 잇고, 뚜로 고기국 잇고, 미역국 잇고, 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덜 다 품목별로.(국이야 그 같이 섞는 것에 다릅지요, 뭐. 뭇국 있고, 또 배춧국 있고, 된장국 있고, 또 고깃국 있고, 미역국 있고, 또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들 다 품목별로.)

107013 @ 몸국.[222](‘몸국’.)

107013 #1 몸국도 잇고.(‘몸국’도 있고.)

107013 #2 몸국은 게 쉐뼈나 딸려다 놓곡 허영 먹고.(‘몸국’은 소뼈나 달여다 넣고 해서 먹고.)

107013 @ 음, 콩나물국도 잇고.(음, 콩나물국도 있고.)

107013 #1 예. 콩나물국.(예. 콩나물국.)

107013 #2 콩, 콩국도 싯고.(콩, 콩국도 있고.)

107013 @ 음.(음.)

107013 #2 콩국도 무수 썰어놩 ᄀᆞ루 놩 끌영 먹고.(콩국도 무 썰어놔서 가루 넣어서 끓여서 먹고.)

107014 @ 그러면 여러 가지 국이 잇일 건디, ᄂᆞ멀국, ᄂᆞ멀국은 어떤 식으로 헹 먹읍니까?(그러면 여러 가지 국이 있을 건데, 나물국, 나물국은 어떤 식으로 해서 먹습니까?)

107014 #1 것이 질 쉬운 겁주.(그것이 제일 쉬운 거지요.)

107014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7014 #2 뒌장 놩 끌입니께게.(된장 넣고 끓입니다.)

107014 @ 제일 쉬운 거, 뒌장만 놩 풀어불믄 뒈는 거.(제일 쉬운 거, 된장만 넣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

107014 #1 예, 게다가 쪼금 이루꾸 놩 끌린다는 것도, 일제시대에는 이루꾸 놩 얼마 끌려보지 못헷수다.(예, 게다가 조금 멸치 놓고 끓인다는 것도, 일제 강점기에는 멸치 넣고 얼마 끓여보지 못했습니다.)

107014 #2 옛날사 이루꾸가 어디 셧수가, 멜치가 옛날엔 엇어나난게. 그냥 그자 뒌장만 놩 끌령.(옛날이야 멸치가 어디 있었습니까, 멸치가 옛날에는 없었으니까. 그냥 그저 된장만 넣고 끓여서.)

107014 @ ᄂᆞ멀은 언제 주로 헹 먹읍니까?(나물은 언제 주로 해서 먹습니까?)

107014 #1 김장허기 전이, 보통 입추가 뒈면 그 ᄂᆞ멀이 나와마씨. 가을 ᄂᆞ멀 허젠 허믄. 입추가 뒈믄 놈삐를 가는 것이고, 봄 놈삐도 역시, 봄 베추 ᄀᆞ튼 것도 잇

222) ‘몸국’은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을 말한다.

어도 정상적으로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추 팔월절이 들 때에 걸 많이 갑니다.(김장하기 전에, 보통 입추가 되면 그 나물이 나와요. 가을 나물 하려고 하면. 입추가 되면 무를 가는 것이고, 봄 무도 역시, 봄 배추 같은 것도 있어도 정상적으로 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입추 팔월절이 들 때에 그것을 많이 갑니다.)

107014 @ 음, 갈아 가지고?(음, 갈아 가지고?)

107014 #1 갈아 가지고.(갈아 가지고.)

107014 @ 재배는, 언제 수확을 헙니까? 헤 먹는 건 죽 헤 먹잖아예?(재배는, 언제 수확을 합니까? 해 먹는 건 죽 해서 먹잖아요?)

107014 #1 예, 예.(예, 예.)

107014 @ 겨울 들면서 계속.(겨울 들면서 계속.)

107014 #1 일 년 사시절 그 무우나 베추는 헤 먹읍니다.(일 년 사계절 그 무나 배추는 해 먹습니다.)

107014 @ 게난 죽예?(그러니까 죽요?)

107014 #1 예.(예.)

107014 @ 나는 대로 그자 나오믄 헤 먹고 나오믄 헤 먹고.(나는 대로 그저 나오면 해 먹고 나오면 해 먹고.)

107014 #1 예.(예.)

107014 @ 게난 그것이 봄까지.(그러니까 그것이 봄까지.)

107014 #1 봄까지 헤 먹고 봄 나믄 봄베추라든지, 베추가 비록 속을 아이 들어도 베추 그저 그냥 생산헤 가지고.(봄까지 해 먹고 봄 나면 봄배추라든지, 배추가 비록 속을 안 들어도 베추 그저 그냥 생산해 가지고.)

107014 @ 아, 베추 ᄂᆞ멀 헤 가지고, 베추 ᄂᆞ멀로도 헹 먹고.(아, 배추 나물 해 가지고, 배추 나물로도 해서 먹고.)

107014 #1 예, 베추 ᄂᆞ멀국 헹 먹고.(예, 배추 나물국 해서 먹고.)

107014 #2 옛날은 냉장고가 엇이난 여름ᄁᆞ진 못 놔두난 여름 나믄 베추 ᄃᆞ시 베추씨를 삐엉은에, 옛날은 씨도 집이서 다 허영 삐엇수게게.(옛날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여름까지 못 놔두니까 여름 나면 배추 다시 배추씨를 뿌려서, 옛날은 씨도 집에서 다 해서 뿌렸습니다.)

107014 @ 아, 아.(아, 아.)

107014 #2 경 허영 심엇당은에 뽑앙 먹고 헷주마씨. 옛날사 무신 그런 거 허영 놔둬낫수가?(그렇게 해서 심었다가 뽑아 먹고 했지요. 옛날에야 무슨 그런 거 해서 놔뒀었습니까?)

107014 @ 보관을 못허니까예, 나오는 대로 밧데서 나오는 대로 헹 먹어시난 계속 나와야 뒐 거 아니예?(보관을 못하니까요, 나오는 대로 밭에서 나오는 대로 해서 먹었으니까 계속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7014 #1 예, 경허난양 씨, 집이서 씨 받앙은에, 옛날은 무수도 집이서 싱근 거, 동지[223] 올라왕 씨 받앙은에 싱경 먹곡, 베추도 경 허곡 헤낫수다게.(예, 그러니

까요 씨, 집에서 씨 받아서, 옛날은 무도 집에서 심은 거, '동지' 올라와서 시 받아서 심어 먹고, 배추도 그렇게 하고 했었습니다.)

107014 @ 무수는 게도 겨울에벳긴 안 나지 안 헙니까?(무는 그래도 겨울에밖에는 안 나지 않습니까?)

107014 #2 예, 겨울에.(예, 겨울에.)

107014 @ 겨울에벳기 나지 안 허여예.(겨울에밖에 나지 않아요.)

107014 #2 겨울에만마씨.(겨울에만요.)

107015 @ 겨울에만예, 콩나물국은 어떵 헨 먹엇수가?(겨울에만요, 콩나물국은 어떻게 해서 먹었습니까?)

107015 #1 콩나물국은 글자 그대로 콩나물국입주게. 그건 어떠냐 허믄 보통은 이젠 그 저 시장에 가 가지고 사옵니다만은 집에서 콩주름이라 헤 가지고 시리 같은 것에 놓읍니다. 놔 가지고 그레 물 뿌령 발아시경.(콩나물국은 글자 그대로 콩나물국이지요. 그건 어떠냐 하면 보통은 이젠 그 저 시장에 가 가지고 사옵니다마는 집에서 콩나물이라 해 가지고 시루 같은 것에 놓습니다. 놔 가지고 그리로 물 뿌려서 발아시켜서.)

107015 @ 콩기름엔 헙니까, 콩기름?(콩기름이라고 합니까, 콩기름?)

107015 #1 예.(예.)

107015 #2 콩주름.(콩나물.)

107015 #1 콩주름, 그레 가지고 걸 길루왕, 집이서는 그때그때 길뢍 먹곡, 것이 그자 보편적으로 그렇게 먹어난 거우다.(콩나물, 그래 가지고 그것을 길러서, 집에서는 그때그대 길러서 먹고, 그것이 그저 보편적으로 그렇게 먹었던 것입니다.)

107015 @ 콩주름 저 기르는 항아리, 저 거 뭐렌 헙니까?(콩나물 저 기르는 항아리, 저 것은 뭐라고 합니까?)

107015 #1 시리.(시루.)

107015 #2 그건 시리, 시리, 옛날 떡 쳐난 시리.(그건 시루, 시루, 옛날 떡 쪘던 시루.)

107015 @ 그걸로 헙니까?(그것으로 합니까?)

107015 #2 예. 거기 허여근에 놔근에 물 담앙양 알러레 영 놩 허믄 그것이 싹 낭 영 헤가믄 ᄒᆞ를 두어 번씩 물 줘근에.(예. 거기 해서 놔서 물 담아서 아래로 이렇게 놔서 하면 그것이 싹 나서 이렇게 해가면 하루 두어 번씩 물 줘서.)

107015 @ 아, 밋테만 물 쪼금 잇이믄 뒈니까.(아, 밑에만 물 조금 있으면 되니까.)

107015 #2 예, 예.(예, 예.)

107015 @ 시리가 원래 옆에는 고망이 잇지 안 허우꽈예?(시루가 원래 옆에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107015 #1 예.(예.)

---

223) '동지'는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아주 연한 장다리를 말한다.

107015 #2 아, 밋테만 싯수게. 구멍이 밋테, 경허난 그 구멍으로 알러레 물이 빠정은에 허믄 우이로 영 ᄒᆞ를 두 번은 줘야마씨.(아, 밑에만 있습니다. 구멍이 밑에,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아래로 물이 빼져서 하면 위로 이렇게 하루 두 번은 줘야지요.)

107015 @ 아, 거믄 뭘 받암구나, 고망 밋트로 뭘.(아, 그러면 무엇을 받고 있구나, 구멍 밑으로 무엇을.)

107015 #2 예, 영 밋테 저.(예, 이렇게 밑에 저.)

107015 @ 물받이.(물받이.)

107015 #2 험벅 ᄀᆞ뜬 거 저 광목 ᄀᆞ뜬 거 놩 영 꼴아근에양 경 헤사 알로 물이 빠주아 갈 거난.(헝겊 같은 거 저 광목 같은 거 놓아서 이렇게 깔아서 그렇게 해야 아래로 물이 빼져 갈 거니까.)

107015 @ 빠주아 가지고.(빼져 가지고.)

107015 #1 게곡 ᄒᆞ루 반다시 두 번썩, 싯냐고 헤 가지고 더 꺼내어 가지고 물에 시쳥 담아줘야 것이 그 물을 흘릴 겁주, 경 못허믄 아침 저녁으로 뜨로 우로 물을 줘야 허여.(그리고 하루 반드시 두 번씩, 씻냐고 해 가지고 더 꺼내어 가지고 물에 씻어서 담아줘야 그것이 그 물을 흘릴 거지요. 그렇게 못하면 아침 저녁으로 또 위로 물을 줘야 해.)

107015 @ 게난 거 얼마나 담으믄 먹을만 헙니까?(그러니까 거 얼마나 담으면 먹을만 합니까?)

107015 #2 거 알아지커라.(그거 알겠어요.)

107015 @ 하하하.(웃음)(하하하.)(웃음)

107015 #1 대략 허는 거 보믄 그자 제사가 뒈면 보름 전에 걸 키운덴 헙니다, 뭐.(대략 하는 거 보면 그저 제사가 되면 보름 전에 그것을 키운다고 합니다, 뭐.)

107015 @ 아, 보름 전에.(아, 보름 전에.)

107015 #2 제사 돌아와 가믄, 이젠 시장에 강 콩ᄂᆞ물 사당 먹어도 그때는 집이서 놔서 헹 먹읍니다.(제사 돌아와 가면, 이젠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다 먹어도 그때는 집에서 놔서 해서 먹습니다.)

107015 @ 게난 그거는 콩을 어떤 식으로 놓는 거우꽈? 좌우지간 시리에다가 콩만 콩만 깔앙 넣어.(그러니까 그것은 콩을 어떤 식으로 넣는 겁니까? 좌우지간 시루에다가 콩만 콩만 깔아서 넣어.)

107015 #1 예.(예.)

107015 #2 물 당갓당예, 물 그 시리 아레 무시거 물 빠질 거 꼴아근에 그 우이 놔근에 물 주민 그게 싹이 나믄양 영 우터레 올라옵니께.(물 담갔다가요, 물 그 시루 아래에 무엇 물 빼질 거 깔아서 그 위에 놔서 물 주면 그게 싹이 나면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107015 @ 그러면 보통 한 이 정도 자라는가마씨?(그러면 보통 한 이 정도 자라는 가요?)

107015 #1 아이, 그 막 자라게 뒈민 일 미터까지 자라기도 헙니다.(아니, 그 아주 자라게 되면 일 미터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107015 #2 더양 크게 자라난.(더 크게 자라니까.)

107015 #1 겐디 그.(그런데 그.)

107015 #2 그걸 오래 키움은 허곡, 뚜시 빨리 놓지 아니허영 제사나 헹 먹젠 허믄 크기 전이 뚜시 허영 먹어불곡. 경 아니허영 미리 노믄 ᄒᆞ끔 더 길곡.(그걸 오래 키우기는 하고, 다시 빨리 넣지 않아서 제사나 해서 먹으려고 하면 크기 전에 다시 해서 먹어버리고. 그렇지 않고 미리 넣으면 조금 더 길고.)

107015 #1 막 너미 길믄 세어 가지고 맛이 엇입주기.(마구 너무 길면 쇠어 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107015 #1 게난 질경, 질겨.(그러니까 질겨서, 질겨.)

107015 @ 음.(음.)

107015 #1 십 센치, 십오 센치 헤서 먹어야 좋아마씨.(십 센티미터, 십오 센티미터 해서 먹어야 좋아요.)

107016 @ 그 무우국도 헹 먹엇수게예?(그 뭇국도 해서 먹었습니까?)

107016 #1 예, 무우국이 가장 수월헌 겁주기,(예, 뭇국이 가장 수월한 거지요.)

107016 @ 무우국은 무우만 놩 헙니까?(뭇국은 무만 놔서 합니까?)

107016 #1 무우국은 무우 그 저 물 와상와상[224] 꿰어가믄 ᄂᆞᆷ삐 그 저.(뭇국은 무 그 저 물 '와상와상' 끓어가면 무 그 저.)

107016 #2 체 썰엉.(채 썰어서.)

107016 #1 체 썰엉 물 꿰는 데 톡 놔놩 뚜로 영 익어가믄 ᄒᆞ끔만 솜으멍 허믄 체가 익으니까 거기 뒌장만 풀어 노믄 그것이 뒌장국이 뒈는 겁주.(채 썰어서 물 끓는 데 톡 놔놔서 또 이렇게 익어가면 조금만 불을 때면서 하면 채가 익으니까 거기 된장만 풀어 넣으면 그것이 된장국이 되는 거지요.)

107016 @ 음. 뒌장무우국, 뒌장무우국.(음. 된장뭇국, 된장뭇국.)

107016 #1 예, 그디 뚜로 고기나 놓으믄, 생선 노믄 생선국 뒈고, 갈치 노믄 갈치국 뒈고, 겐디 갈치국은 대게 저 호박 놔서 끌여사 맛이 좋넨 헙니다.(예, 거기 따로 고기나 넣으면, 생선 넣으면 생선국 되고, 갈치 넣으면 갈칫국 되고, 그런데 갈칫국은 대개 저 호박 놔서 끓여야 맛이 좋다고 합니다.)

107017 @ 예, 그니까 맞수다. 콩국은 어떵 헙니까? 콩.(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콩국은 어떻게 합니까? 콩.)

107017 #1 콩국은 무우 썰어 놓다든지 게 아니믄 베추를 썰어 놔 가지고 그 우터레 콩가루 영 더끕니다.(콩국은 무 썰어 놓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추를 썰어 놔 가지고 그 위로 콩가루 이렇게 덮습니다.)

107017 @ 콩ᄀᆞ를로 더끕니까?(콩가루를 덮습니까?)

107017 #1 예.(예.)

---

224) '와상와상'은 뭇국을 끓일 때 물이 끓는 모양이다.

107017 @ 게믄 이렇게 반죽허영 영 허는 게 아니고?(그러면 이렇게 반죽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107017 #1 반죽 헹도 허고.(반죽 해서도 하고.)

107017 #2 ᄀᆞ를로 허는 사름도 잇곡, 물 영 캉 노는 사람도 잇곡, ᄀᆞ를로 그냥 우터레 영 놩예, 게믄 두껑을 더끄지 못 허여마씨, 콩국은 항상 그자 영 저 무시것고 국자로 영 영, 영 올라오는 땜에.(가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물 이렇게 타 넣는 사람도 있고, 가루를 그냥 위로 이렇게 놔서요, 그러면 뚜껑을 덮지 못해요, 콩국은 항상 그저 이렇게 저 무엇인가 국자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때문에.)

107017 @ 영, 영 영 눌러주고.(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107017 #1 예.(예.)

107017 @ 눌러주고 헤야 뒈는 거.(눌러주고 해야 되는 거.)

107017 #2 예. 경 허믄 무수 놩도, 무수도 놩 끌리곡, 베추도 놩 끌이곡 경 헙니께.(예. 그렇게 하면 무 놔도, 무도 놔서 끓이고, 배추도 놔서 끓이고 그렇게 합니다.)

107017 #1 불도 궨지 후젠 상당이 조절시겨야 헙주게. 베롱허게.(불도 끓은 후엔 상당히 조절시켜야 합니다. 희미하게.)

107017 #2 불 세게 헷당은양 팍 부꺼불엉, 콩국 끌리긴예 ᄐᆞ다사사 헙주.(불 세게 했다가는 팍 끓어 넘쳐서, 콩국 끓이기는요 지켜 서야 하지요.)

107017 @ 하하하.(웃음) 영 반죽 헹 허기도 허고, ᄀᆞ를로 헹 허기도 허고.(하하하.(웃음) 이렇게 반죽 해서 하기도 하고, 가루를 해서 하기도 하고.)

107017 #2 예.(예.)

107017 #1 반죽 놩 헌 게 두부, 뭐냐 순두부라든지 물두부ᄀᆞ찌 토랑토랑헙주게.(반죽 놔서 한 게 두부, 뭐냐 순두부라든지 물두부같이 토랑토랑하지요.)

107017 @ 아, 좀 영 부터가지고예?(아, 좀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107017 #1 예.(예.)

107017 @ 아, 부터가지고.(아, 붙어가지고.)

107017 #1 예, 좀 먹기 부드러웁주게.(예, 조금 먹기 부드럽지요.)

107017 #2 게난 반죽헹 헤사 좁니다게. 난 이제도 콩국 끌리젠 허믄 반죽헹 헙니다.(그러니까 반죽해서 해야 좋습니다. 난 지금도 콩국 끓이려고 하면 반죽해서 합니다.)

107017 @ 아, ᄀᆞ를로 헌 건 흐트져불고.(아, 가루로 한 건 흩어져버리고.)

107017 #1 예.(예.)

107017 @ 아, 반죽헌 건 ᄒᆞ끔 영 모여 잇으니까.(아, 반죽한 것은 조금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107017 #1 예.(예.)

107018 @ 호박입국은 또 어떤 식으로 헙니까?(호박잎국은 또 어떤 식으로 합니까?)

107018 #1 아, 그건 가을 들어 가지고 허는디 그것도 역시 가을 든 끗데라도 허는 건디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호박입국 끌이믄 맛이 엇입니다.(아, 그건 가을 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가을 든 끝에라도 하는 것인데 봄이라든지 여름이라든지 호박잎국 끓이면 맛이 없습니다.)

107018 @ 음, 봄에는.(음, 봄에는.)

107018 #1 예, 가을 들면 그때 백로 팔월절이 넘어야 그 호박입국을 끌려마씨.(예, 가을 들면 그때 백로 팔월절이 넘어야 그 호박잎국을 끓여요.)

107018 @ 호박은게 싱그는 게 봄에 싱그는 거 아니우꽈예?(호박은 심는 게 봄에 심는 거 아닙니까?)

107018 #1 예, 아니, 봄이, 봄이 싱급니다. 그 이파리는 봄이라도 허뒈 그것이 웬일인지 그거 저 봄이 호박입국 끌리믄 맛이 엇어마씸.(예, 아니, 봄에, 봄에 심습니다. 그 이파리는 봄이라도 하되 그것이 웬일인지 그거 저 봄에 호박잎국 끓이면 맛이 없어요.)

107018 @ 음.(음.)

107018 #1 게난 그 저 백로 팔월절 든 후에라야 호박입국이.(그러니까 그 저 백로 팔월절 든 후에라야 호박잎국이.)

107018 @ 여름 지나가사?(여름 지나가야?)

107018 #1 예.(예.)

107018 #2 가을에사 호박입국은 맛 좋읍니다게.(가을에야 호박잎국은 맛 좋습니다.)

107018 #1 그때 뒈어사 맛 잇어마씨.(그때 되어야 맛있어요.)

107018 @ 호박입만 놩 허는 건 아니지예?(호박잎만 놔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107018 #2 호박입, 호박입만 놩 끌리당 가루 ᄒᆞ끔 영 타근에양 영 서꺼줘사 ᄒᆞ끔 풀풀허여.(호박잎, 호박잎만 놔서 끓이다가 가루 조금 이렇게 타서 이렇게 섞어줘야 조금 풀풀해.)

107018 @ 그건 뭘 서끕니까?(그건 무엇을 섞습니까?)

107018 #2 가루, 가루.(가루, 가루.)

107018 @ 어떤 가루, 밀가루?(어떤 가루, 밀가루?)

107018 #1 밀가루나 보리가루.(밀가루나 보릿가루.)

107018 #2 이젠 밀가루 셔도 그때는예 보리가루마씨.(이젠 밀가루 있어도 그때는 보릿가루요.)

107018 @ 보리가루로?(보릿가루로?)

107018 #2 예.(예.)

107018 @ 보리가루 놔근에.(보릿가루 놔서.)

107018 #2 보리가루나 저 무시거 메밀가루나.(보릿가루나 저 뭐 메밀가루나.)

107018 @ 음, 경헤야 ᄒᆞ끔 풀풀 허니까예.(음, 그렇게해야 조금 풀풀 하니까요.)

107018 #2 예, 예, 게난 ᄆᆞ멀, 옛날은 메밀가루를 많이 사용헤낫수다.(예, 예, 그

러니까 메밀, 옛날은 메밀가루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107018 @ 아.(아.)

107018 #2 밀가루보단은예 ᄆᆞ멀가루를 많이 헤난마씨.(밀가루보다는 메밀가루를 많이 했었어요.)

107018 @ 밀가루보단은 ᄆᆞ멀가루가 밧디서 나오는 거니까 허는구나예.(밀가루보다는 메밀가루가 밭에서 나오는 거니까 하는군요.)

107018 #1 예.(예.)

107018 @ 밀가루는 재배헐 수가 없는 거 아니라예.(밀가루는 재배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107018 #1 밀가루도 여기서 재배헷수다.(밀가루도 여기서 재배했습니다.)

107018 #2 밀가루도 여기서, 제주도서 제베허긴 헷수다.(밀가루도 여기서, 제주도에서 재배하기는 했습니다.)

107018 #1 제베허는디 미리 보리 헐 때 같이 허곡, 보리 파종헐 때 같이 허면은 것이 그 수확량이 보리라든지 이런 것보단 뒈질 안 허영 그 저 경제성이 약헙주기. 겐 얼마 싱그질 안 헙주게.(재배하는데 미리 보리 할 때 같이 하고, 보리 파종할 때 같이 하면 그것이 그 수확량이 보리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되지를 않아서 그 저 경제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얼마 심지를 않지요.)

107018 @ 음.(음.)

107018 #1 또 특별이 어떻게 좀 제사라든지 닥친다 또 부모 소상 만나 가지고 소, 대상이 온다든지 영 허게 뒈믄 떡을 허게 뒈믄 특별이 저 밀을 재배헙니다, 그 때 먹젠. 게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식량으로 밀을 재밴 안 헙주, 그 생산량이 떨어지니까.(또 특별히 어떻게 좀 제사라든지 닥친다 또 부모 소상 만나 가지고 소, 대상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떡을 하게 되면 특별히 저 밀을 재배합니다, 그 때 먹으려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식량으로 밀을 재배는 않지요. 그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107018 @ 아, 게난 그거는 얼마 생산이 안 뒈어부니까 이 수지가 안 맞는구나.(아,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 생산이 안 되어 버리니까 이 수지가 안 맞는구나.)

107018 #1 예.(예.)

107018 @ 그 게난 밀가루는 여기서 ᄒᆞ끔씩은 헤 먹엇단 얘기네예.(그 그러니까 밀가루는 여기서 조금씩은 해 먹었다는 얘기네요.)

107018 #1 예, 예.(예, 예.)

107018 @ 그 밀가루는 게믄 것도 그 밀도 보리쏠이랑 비슷헙니까?(그 밀가루는 그러니까 그것도 그 밀도 보리쌀이랑 비슷합니까?)

107018 #1 밀은예, 보리허고 같은데. 밀팝 ᄀᆞ뜬 건 아니허고, 밀팝도 싯주만은 그 대게 그 떡허는 용으로 들어낫주마씨.(밀은요, 보리하고 같은데. 밀밥 같은 것은 안 하고, 밀밥도 있지만 그 대개 그 떡하는 용으로 들었었지요.)

107018 @ 떡 만드는 걸로, ᄀᆞ루로 갈아근에예. 방앗간에 강 ᄀᆞ루로 만들아 가지

고 허고.(떡 만드는 걸로, 가루로 갈아서요. 방앗간에 가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하고.)

107018 #1 예, 방엣간에 그 아니믄 과거엔 남방에 ᄀᆞ뜬 디라든지, ᄄᆞ로 경 안 허믄 우마로 돌리는 디라든지, 연자방아 ᄀᆞ뜬 디서.(예, 방앗간에 그 아니면 과거에는 남방아 같은 데라든지, 또 그렇게 안 하면 우마로 돌리는 데라든지, 연자방아 같은 데서.)

107018 @ 아, 그 시절도 밀은 헤 먹엇수가?(아, 그 시절도 밀을 해 먹었습니까?)

107018 #1 예, 예.(예, 예.)

107018 @ 아, 밀을 헤 먹언.(아, 밀을 해 먹었어.)

107018 #1 예, 밀도 헨 먹엇수다. 게난 그것이.(예, 밀도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07018 @ 그건 하여간 밥은 거의 안 헷잖아예?(그건 하여간 밥은 거의 안 했잖아요?)

107018 #1 예, 예.(예, 예.)

107018 @ 밥은 안 허고 ᄀᆞ를로 헨 떡 만들고.(밥은 안 하고 가루로 해서 떡 만들고.)

107018 #1 예, 떡 허여 가지고.(예, 떡 해 가지고.)

107018 @ 떡, 떡 허거나 뭐 옛날에 무신 뭐 빵, 거 뭐꽈?(떡, 떡 하거나 뭐 옛날에 무슨 뭐 빵, 그거 뭡니까?)

107018 #1 예, 삼베떡?(예, 상화떡?)

107018 @ 상웨떡예, 맞아, 그 저 발효시킨 거예.(상화떡요, 맞아, 그 저 발효시킨 거요.)

107018 #1 예, 예.(예, 예.)

107019 @ 그 몸국도 헤 먹어낫지예?(그 '몸국'도 해 먹었었지요?)

107019 #1 몸국도 아까 아주머니 이야기 헙디만은 정상적으로 그냥 몸국도 많이 헤 먹읍니다, 많이. 먹긴 허는디 그 웨에는 대, 소상 때라든지 저 뻬 딸려난 국물에 놩 허곡.('몸국'도 아까 아주머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그냥 '몸국'도 많이 해 먹습니다, 많이. 먹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대, 소상 때라든지 저 뼈 달였던 국물에 놓아서 하고.)

107019 @ 뻬 딸려난 국물에 이제 몸 놔 가지고예. 그건 큰일 헐 때.(뼈 달였던 국물에 이제 모자반 놓아 가지고요. 그건 큰일 할 때.)

107019 #1 예, 몸은 저 뒈지고기가 좋읍니다, 기름기 잇는 거.(예, 모자반은 저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107019 @ 게난 그거는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잘 안 헤 먹고.(그러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잘 안 해 먹고.)

107019 #1 예, 예.(예, 예.)

107019 @ 큰일 잇인 때에 뻬 딸린 물이나 뒈지고기 딸린 물 가졍은에.(큰일 있을 때에 뼈 달인 물이나 돼지고지 달인 물 가져서.)

107019 #1 예, 그런 때에.(예, 그런 때에.)

107019 @ 그걸로 헹 먹는다.(그걸로 해서 먹는다.)

107019 #1 반찬 같은 거는 저 몸차반이라 헤 가지고, 뽈앙 그레 장물 풀어 놔 가지고 몸차반 헹 반찬으로 먹고마씨.(반찬 같은 것은 저 모자반 자반이라 해 가지고, 빨아서 거기에 간장 풀어 놓아 가지고 모자반 자반 해서 반찬으로 먹고요.)

107019 @ 그거 허믄 몸국은 게믄 딸린 물에 그냥 몸만 노믄 뒈는 건가마씨(그것 하면 '몸국'은 그러면 달인 물에 그냥 모자반만 놓으면 되는 건가요?)

107019 #1 예. 싱거우믄 소금 ᄒᆞ끔 놓고.(예. 싱거우면 소금 조금 놓고.)

107019 @ 그것이, 그것이 그냥, ᄒᆞ끔 뭐 밀가루 같은 것도 안 놉니까?(그것이, 그것이 그냥, 조금 뭐 밀가루 같은 것도 안 놓습니까?)

107019 #2 안 놉니다게.(안 놓습니다.)

107019 @ 안 놓고예.(안 놓고요.)

107019 #1 이제도 저 뼈 딸릴 땐 몸 사당덜 그 딸령 먹읍니께게. 겐디 몸이 너무 비싸, 이젠. 진짜로양 너무 비쌉디다게. 요만이 만 원어치 요만이벳기 안 허여.(이제도 저 뼈 달일 때에는 모자반 사다가들 그 달여서 먹습니다. 그런데 모자반이 너무 비싸, 이젠. 진짜로 너무 비쌉니다. 요만큼 만 원어치 요만큼밖에 안 해.)

107019 @ 몸이?(모자반이?)

107019 #2 몸 막 비쌋수다.(모자반 아주 비쌌습니다.)

107019 @ 요즘 뭐 어디 바당에 별로 나질 안 허니까.(요즘 뭐 어디 바다에 별로 나지를 않으니까.)

107019 #2 바당에 엇덴마씨. 그전인 경 하나신디. 그전에 바당 ᄇᆞ름 불어낭예, 바당이 가민양, 춤몸이 막, 춤몸이엔 헙니께.(바다에 없대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았는데. 그전에 바다 바람 불어서요, 바다에 가면, 참모자반이 마구, 참모자반이라고 합니다.)

107019 @ 예, 춤몸.(예, 참모자반.)

107019 #2 춤몸이 막 올라와근에양 강 줏어오곡예, 우리 어린 때는예, 우린 귀덕, 귀덕초등학교, 귀덕국민학교 신 동네난 바닷가난예 바당에 강은에 물에 들엉도 그거 허고, 우리 어린 때에는 ᄌᆞ물아강 막 헤신디 이제는 엇덴마씨, 몸이.(참모자반이 마구 올라와서 가서 주워오고, 우리 어린 때에는, 우린 귀덕, 귀덕초등학교, 귀덕국민학교 있는 동네니까 바닷가가니까 바다에 가서 물어 들어서도 그거 하고, 우리 어린 때네는 저물어서 마구 했는데 이제는 없대요, 모자반이.)

107019 @ 음.(음.)

107019 #2 헤녀들이 경 ᄀᆞᆯ읍니다. 몸이 엇덴, 나질 안 헴덴예,(해녀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모자반이 없다고, 나지를 않는다고요.)

107019 @ 게난 요샌 어디 이상헌 디서 몰려든 모자반, 몸 잇덴 허지 안헙니까

예, 그건 먹지도 못허곡 허는 모자반.(그러니까 요새는 어디 이상한 데서 몰려든 모자반, 모자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먹지도 못하고 하는 모자반.)

107019 #1 예, 예.(예, 예.)

107019 #2 겐디 바당도 오염뒈노난양 나질 안 헴젠마씨게.(그런데 바다도 오염되니까 나지를 않는다고요.)

107019 @ 음.(음.)

107019 #1 몸에도 춤몸이 잇곡, 그 저 거름용이 잇입주.(모자반에도 참모자반이 있고, 그 저 거름용이 있었습니다.)

107019 @ 거름용예, 맞아. 거름용도 잇엇고, 춤몸은 먹는 거.(거름용이요, 맞아. 거름용도 있었고, 참모자반은 먹는 거.)

107019 #1 예, 예.(예, 예.)

107019 @ 거름용은 그자 밧디 거름 놓는 거예.(거름용은 그저 밭에 거름 놓는 거요.)

107019 #2 밧디 거름 허는 거.(밭에 거름 하는 거.)

107019 @ 그 구분은 어떻게 구분허는고예?(그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는가요?)

107019 #2 구분뒙니다, 딱 보믄 알아져마씨.(구분됩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107019 @ 알아집니까?(알 수 있습니까?)

107019 #2 예.(예.)

107019 @ 색깔이 틀려?(색깔이 달라?)

107019 #2 색깔이 틀린 게 아니고 모양이 틀려마씨.(색깔이 다른 게 아니고 모양이 달라요.)

107019 @ 아, 모양이.(아, 모양이.)

107019 #2 예, 춤몸허고 밧디 몸허고 모양이 틀려.(예, 참모자반하고 밭에 모자반하고 모양이 달라.)

107019 @ 색깔은 아니고 모양이.(색깔은 아니고 모양이.)

107019 #2 예.(예.)

107020 @ 이 생선국예, 바닷고기로 헹 국 만드는 거, 바당궤기로 국 만드는 거는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언 먹엇수가?(이 생선국요, 바닷고기로 해서 국 만드는 거, 바닷고기로 국 만드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을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20 #2 생선, 생선 ᄀᆞ뜬 거 무시것고, 이 생선 거의 무수 놩 끌리는디 저기 무슨 고기엔 허느니, 저 겨울에는 무수가 잇어도 여름에는 무수가 엇입니께, 게믄 미역 놩 끌리고.(생선, 생선 같은 거 뭐냐, 이 생선 거의 무 놓고 끓이는데 저기 무슨 고기라고 하지, 저 겨울에는 무가 있어도 여름에는 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역 놓아서 끓이고.)

107020 @ 미역 놔 가지고.(미역 놓아 가지고.)

107020 #2 예, 예.(예, 예.)

107020 @ 게난 이게 생선은.(그러니까 이게 생선은.)

107020 #2 게고 그 갈치는 그 호박, 호박 놩 끌려사 맛 좋아마씨. 갈치국은, 딴 생선국은 무수 놔사 맛좋곡.(그리고 그 갈치는 그 호박, 호박 놓고 끓여야 맛 좋아요. 갈칫국은, 다른 생선국은 무 놓아야 맛좋고.)

107020 @ 게니까 옥돔은 호박이 아니라 저 미역 놓고.(그러니까 옥돔은 호박이 아니라 저 미역 놓고.)

107020 #2 미역이나 무수도 놔, 무수 신 땐 무수가 좋아마씨, 칼칼허영.(미역이나 무도 놓아, 무 있을 때는 무가 좋아요, 칼칼해서.)

107020 @ 칼칼허고. 것도 다른 거 안 놓고?(칼칼하고. 그것도 다른 거 안 놓고?)

107020 #1 예.(예.)

107020 @ 뭐 간장에다가 무우 놓고, 생선 그거 놓고?(뭐 간장에다가 무 놓고, 생선 그거 놓고?)

107020 #1 예, 옛날은 소금으로 간 허지 안 허연 간장으로, 간장 집이서 담으난.(예, 옛날은 소금으로 간 하지 않아서 간장으로, 간장 집에서 담으니까.)

107020 @ 간장.(간장.)

107020 #2 간장으로 헤낫수게게. 경헌디 갈치는 호박 놔사 맛 좋앙 호박 놓고. 겨고 무수 엇엉 헌 때는양 제사 때도 미역 놩 끌립니께, 저 생선국도.(간장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갈치는 호박 놓아야 맛 좋아서 호박 놓고, 그리고 무 없어서 한 때는 제사 때도 미역 놓아서 끓입니다, 저 생선국도.)

107020 @ 또 호박에는 갈치가 맞는 거구나. 그다음에 옥돔은 무우, 미역, 메역, 메역예, 메역허고 무우, 게난 겨울에는 무우, 놈비로 허고(또 호박에는 갈치가 맞는 거구나. 그다음에 옥돔은 무, 미역, 미역, 미역요, 미역하고 무, 그러니까 겨울에는 무, 무로 하고.)

107020 #2 예.(예.)

107021 @ 여름에는 메역, 메역국 허고. 게난 것도 큰일 헐 땐 제사 땐 다 올려야 뒈는 거 아니라예?(여름에는 미역, 미역국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큰일 할 때에는 제사 때에는 다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7021 #1 예.(예.)

107021 @ 제사 때 올리는 거.(제사 때 올리는 것.)

107021 #2 제사 때에 옛날은양 생선 사당은에 끌렁 올려낫수게.(제사 때에 옛날은 생선 사다가 끓여서 올렸습니다.)

107021 @ 게난.(그러니까.)

107021 #2 경헌디 요새에덜은예 그자 소고기국. 호호.(그런데 요새들은요 그저 소고깃국. 호호.)

107021 @ 허허허.(허허허.)

107021 #2 아니 젊은 아이덜이예 생선국을 안 먹어마씨.(아니 젊은 아이들이 생선국을 안 먹어요.)

107021 @ 음.(음.)

107021 #2 생선국을 안 먹엉 소고기국만 좋아허영.(생선국을 안 먹어서 소고기국만 좋아해.)

107021 @ 음, 편헌가마씨, 만드는 게 편헌가마씨? 하하하.(음, 편한가요, 만드는 게 편한가요? 하하하.)

107021 #2 게난 우린예 나 헐 때는 생선국 끌여나신디예 우리 아덜네신디 멧기 난양, 우리 메누리예, 저 무시것고 소고기국만 끌영, 생선국은 안 끌련.(그러니까 우리는 나 할 때는 생선국 끓였었는데 우리 아들네한테 맡기니까 우리 며느리, 저 뭐냐 소고깃국만 끓여서, 생선국은 안 끓였어.)

107021 @ 아, 우리집도 경 허는 거라마씨. 우리도 제사 때 보믄 소고기로 허영 소고기국 끌립니다. 그게 편헌 모양이라마씨.(아, 우리집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사 때 보면 소고기로 해서 소고깃국 끓입니다. 그게 편한 모양이에요.)

107021 #2 육지는 옛날부터도 소고기국을 끌렷수다게, 육진, 우리 처녀 때에 저기 대구도 간 흔 이 년 살고, 또 안양도 간 흔 삼사 년 살아신디 그디는양 옛날부떠 소고기국, 미역 놩 소고기국,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사 때 허는디 우리 제주도는 그거 아니고, 제사 때엔 생선허고 우리 이디선 옥돔이엔 허고예.(육지는 옛날부터도 소고깃국을 끓였습니다, 육지는, 우리 처녀 때에 저기 대구도 가서 이 년 살고, 또 안양도 가서 한 삼사 년 살았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소고깃국, 미역 놓아서 소고깃국, 여름이든 겨울이든 제사 때 하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것이 아니고, 제사 때에는 생선하고 우리 여기에서는 옥돔이라고 하고요.)

107021 @ 옥돔.(옥돔.)

107021 #2 경허근에 꼭 그걸로 끌리는디 이제 젊은 사름덜은양 다 소고기국 끌려마씨.(그렇게 해서 꼭 그걸로 끓이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다 소고깃국 끓여요.)

107021 @ 예, 맞수다게, 진짜, 이 저 생선은 우리는 이 옥돔을 생선이렌 허잖아예, 이쪽은? 뭐 오토미니 솔라니렌 안 허지예?(예, 맞습니다, 진짜, 이 저 생선은 우리는 이 옥돔을 생선이라고 하잖아요, 이쪽은? 뭐 '오토미'니 '솔라니'라고 안 하지요?)

107021 #2 그대로 뭐 저 비늘 없는 거, 이것은 보통 제사 땐 비늘이 잇는 고기로 씁니다, 쓰고 뚜로 비늘 없는 갈치라든지 치 자 든 것은 상에도 안 올리고.(그대로 뭐 저 비늘 없는 거, 이것은 보통 제사 때에는 비늘이 있는 고기로 씁니다. 쓰고, 따로 비늘 없는 갈치라든지 치 자 든 것은 상에도 안 올리고.)

107023 @ 안 올리고예. 음, 맞아 건 안 올리고. 그 넹국은 어떤 식으로 멘들앗수가, 넹국?(안 올리고요. 음, 맞아 그것은 안 올리고. 그 냉국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냉국?)

107023 #2 넹국은 뭐, 요샌 오이, 오이 헤도 옛날엔 오이가 엇어노난 물웨 썰어근에 뒌장 허영 넹국 허영 먹곡, 톳 허영 넹국 허영 먹곡 경 헤십주게.(냉국은 뭐, 요새는 오이, 오이 해도 옛날에는 오이가 없어서 물외 썰어서 된장 해서 냉국 해서

먹고, 톳 해서 냉국 해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107023 @ 물웨넹국, 톳넹국, 또?(물외냉국, 톳냉국, 또?)

107023 #2 그거 말앙 무시거 싯수가?(그거 말고 무엇 있었습니까?)

107023 #1 그 웨엔 뭐 그 놀 게 톳허고 물웨 그것이 주종입주게.(그 외에는 뭐 그 놓을 게 톳하고 물외 그것이 주종입니다.)

107023 #2 딴 건 무시거 냉국 헹 먹을 게 엇수다게.(다른 것은 뭐 냉국 해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107023 #1 그냥 냉국이사 그냥.(그냥 냉국이야 그냥.)

107023 #2 요새는 오이, 오이 허난 오이냉국도. 옛날 우리 젊은 땐 오이가 엇어낫수다게.(요새는 오이, 오이 하니까 오이냉국도. 옛날 우리 젊은 때에는 오이가 없었습니다.)

107023 #1 그자 물웨.(그저 물외.)

107023 @ 음, 게 여기 보면 성게국도 만들안 먹어봣수가?(음, 그럼 여기 보면 성게국도 만들어서 먹어봤습니까?)

107023 #2 예, 성게국도 먹어낫수다.(예, 성게국도 먹었었습니다.)

107023 @ 건, 그것도 만드는 법이 어떵 헙니까?(그것은, 그것도 만드는 법이 어떻게 합니까?)

107023 #2 성게국도게 그냥 물 끌리믄 놩 끌리다근에 미역 놔근에 끌리민 뭽주게.(성게국도 그냥 물 끓이면 놓아서 끓이다가 미역 놓아서 끓이면 됩니다.)

107023 @ 미역 놓고 마지막엔 성게 놓고?(미역 놓고 마지막에는 성게 놓고?)

107023 #2 아니 아니 미역 놓기 전이 성게 놩 끌리다근에 성게 놩 끌으믄 미역 놩 마씨.(아니 아니 미역 놓기 전에 성게 놓아서 끓이다가 성게 놓아서 끓이면 미역 놓아요.)

107023 @ 아, 미역이 제일 나중에(아, 미역이 제일 나중에.)

107023 #2 예, 예, 경 헹 끌립니다. 겐디 이젠양 성게도 너무 비싸부난 못 먹엄실 거우다. 성게 키로에 십만 원이엔 헤냐, 이젠.(예, 예. 그렇게 해서 끓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게도 너무 비싸서 못 먹고 있을 겁니다. 성게 킬로그램에 십만 원이라고 했나, 이젠.)

107023 #1 몰라.(몰라.)

107023 #2 성게가 엇덴마씨.(성게가 없대요.)

107023 @ 성게가 엇어.(성게가 없어.)

107023 #2 예.(예.)

107023 @ 아 겐디 해녀덜 요새 작업 허는 거 닮은디.(아 그런데 해녀들 요새 작업 하는 것 같은데.)

107023 #2 허긴 허는디 성게가 경 읏덴마씨, 옛날보다.(하기는 하는데 성게가 그렇게 없대요, 옛날보다.)

107023 #1 저 보멀도 잡아당 보멀국 헹 먹곡.(저 고둥도 잡아다가 고둥국도 해

서 먹고.)

107023 @ 보말국? 맞아, 그건 보말은 어떤 보말로 헨 보말국을 헨 먹엇수가?(고둥국? 맞아, 그건 고둥은 어떤 고둥으로 해서 고둥국을 해서 먹었습니까?)

107023 #2 그냥 아무 보말이나 다 잡아당 솖아근에 내영양 딱지 다 떼어두곡 허여근에 국 끌령, 미역 ᄀᆞ치 뿔아 놩 끌이민 맛 좋아마씨.(그냥 아무 고둥이나 다 잡아다가 삶아서 내장과 딱지 다 떼어두고 해서 국 끓여서, 미역 같이 빨아 놓아서 끓이면 맛 좋아요.)

107023 @ 음, 게난에 보말국도 맛 좋앗수다게.(음, 그러니까 고둥국도 맛 좋았습니다.)

107023 #2 맛 좋아마씨.(맛 좋아요.)

107023 @ 게난 그것이 보말도 수두리보말도 잇고, 먹보말도 잇고.(그러니까 그것이 고둥도 팽이고둥도 있고, 먹고둥도 있고.)

107023 #2 먹보말, 수두리보말 문닥허여도 제일 끌령 맛 좋은 거는예, 먹보말허고 수두리보말. (먹고둥, 팽이고둥 문덕해도 제일 끓여서 맛 좋은 거는요, 먹고둥하고 팽이고둥.)

107023 @ 음, 거 두 개.(음, 그것 두 개.)

107023 #2 예.(예.)

107023 @ ᄒᆞ끔 영 알도 크잖아예?(조금 이렇게 알도 크잖아요?)

107023 #1 예, 알도 크고, 알도 크고 보멀이 영 크우께게, 수두리허고 먹보멀은.(예, 알도 크고, 알도 크고 고둥이 이렇게 큽니다, 팽이고둥하고 먹고둥은.)

107023 @ 음, 옛날부떠 물훼도 뭐 헤 먹엇수가, 물훼?(음, 옛날부터 물회도 뭐 해 먹었습니까?)

107023 #1 자리물훼.(자리물회.)

107023 @ 물훼, 자리물훼는 언제부떠 자리물훼를 헷수가?(물회, 자리물회는 언제부터 자리물회를 했습니까?)

107023 #2 옛날부떠 자리물훼 헨 먹어십주.(옛날부터 자리물회 해서 먹었습니다.)

107023 #1 아주 옛날 우리가 ᄋᆞᆨ안 보니까 자리물훼 거의 다 먹언마씨.(아주 옛날 우리가 커서 보니까 자리물회 거의 다 먹었어요.)

107023 #2 옛날부떠.(옛날부터.)

107023 #1 그리고 근래에는 갈치 같은 것도 성헌 거는예, 맛 좋읍니다, 뭐. 물훼헤도, 갈치로 헤도. 그 훼는 성헌 고기로만은 다 뒈어마씨.(그리고 근래에는 갈치 같은 것도 성한 것은요, 맛 좋습니다, 뭐. 물회 해도 갈치로 해도. 그 회는 성한 고기로만은 다 돼요.)

107023 @ 음, 성헌 고기로.(음, 성한 고기로.)

107023 #1 예, 그 쪼끔 벤질뒌 고기라든지 변헌 건 안 뒈고. 아주 성헌 고리로는 아무 거라도, 물훼라도, 물훼 허믄 다 맛 잇어마씨. 심지어 그 육훼덜토게 물훼

헤근에.(예, 그 조금 변질된 고기라든지 변한 건 안 되고. 아주 성한 고기로는 아무거라도, 물회라도, 물회하면 다 맛 있어요. 심지어 그 육회들도 물회 해서.)

107023 @ 음, 맞수다. 이젠 거 뭐 금방 나온 거믄예. 진짜 상허지만 안 허면. 진짜 육훼로도 먹엇수다게. ᄑᆞ레, 파레 같은 걸로도 뭐 헨 먹엇수가?(음, 맞습니다. 이젠 거 뭐 금방 나온 것이면요. 진짜 상하지만 않으면. 진짜 육회로도 먹었습니다. 파래, 파래 같은 것으로도 뭐 해서 먹었습니까?)

107023 #1 예.(예.)

107023 #2 ᄑᆞ렌예, 허여당 그것도 국 끌령 먹엇수다게.(파래는요, 해다가 그것도 국 끓여서 먹었습니다.)

107023 @ 국 끌령 먹언? ᄑᆞ레만?(국 끓여서 먹어? 파래만?)

107023 #2 예, 예.(예, 예.)

107023 @ 음, ᄑᆞ레만 놘.(음, 파래만 놓아서.)

107023 #1 ᄑᆞ레에 ᄒᆞ끔 콩ᄀᆞ루 ᄀᆞ튼 거나 서껑 식량으로 보태십주.(파래에 조금 콩가루 같은 거나 섞어서 식량으로 보탰습니다.)

107023 #2 난 콩ᄀᆞ를 놘은 안 끌여 먹어보난 몰라.(난 콩가루를 놓아서 안 끓여 먹어보니까 몰라.)

107023 @ ᄑᆞ레로만.(파래로만.)

107023 #2 예.(예.)

107023 @ 그다음에 거 국 헹 먹은 게 뭐가 잇지?(그다음에 거 국 해서 먹은 게 뭐가 있지?)

107023 #2 국 헹 먹은 게 뭐 엇어마씨.(국 해서 먹은 게 뭐 없어요.)

107023 @ 음, 하여간 뒈지고기 헤난 거는 몸국, 예전에도 소고기로도 국은 헷수가?(음, 하여간 돼지고기 했던 것은 '몸국', 예전에도 소고기로도 국은 했습니까?)

107023 #2 예.(예.)

107023 #1 예.(예.)

107023 @ 옛날 소고기국? 그때도 소고기국을 허고?(옛날 소고깃국? 그때도 소고깃국을 하고?)

107023 #2 겐디 우리 어린, 젊은 때는양 소고기국을 별로 제사 때는 안 헷수다. 그냥 먹젱덜 헷주. 경헌디 이제는 젊은 사름덜이 제사들 마트난 다 소고기국 끌려도 옛날은예.(그런데 우리 어린, 젊은 때는 소고깃국을 별로 제사 때는 안 했습니다. 그냥 먹으려고들 했지. 그런데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제사들 맡으니까 다 소고깃국 끓여도 옛날은요.)

107023 #1 소고기가 어려왓수다.(소고기가 어려웠습니다.)

107023 #2 게고 소고기 비싸고 어디 강 사오젠 헤도 이제ᄀᆞ찌 고기 파는 판장도 엇곡, 아년 경허난양 헌디 옛날은 생선국 안 끌리민 할망덜신디 욕들어마씨, 시부모덜안티.(그리고 소고기 비싸고 어디 가서 사오려고 해도 이제같이 고기 파는 판장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옛날은 생선국 안 끓이면 할머니들한테 욕들었어

요. 시부모들한테.)

107023 @ 하하하.(하하하.)

107023 #2 꼭 우리 제주도서 나는 생선예.(꼭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생선요.)

107023 @ 특히 이 한림 쪽에서 생선이 많이 낫지예?(특히 이 한림 쪽에서 생선이 많이 났지요?)

107023 #1 예, 많이 낫수다.(예, 많이 났습니다.)

107023 #2 경헌디 맛도양, 우리 제주도서 나는 생선이 맛 좋아마씨.(그런데 맛도, 우리 제주도에서 나는 생선이 맛 좋아요.)

107023 @ 그니까 육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거는 좀 싱겁고.(그러니까 육지, 어디 외국에서 들어온 것은 좀 싱겁고.)

107023 #1 예.(예.)

107023 @ 우리 께 맛 좋아.(우리 것이 맛 좋아.)

107023 #2 경헌디 제사 때 사당, 물른 거 사당 구워도예, 그게 제주도서 난 거허고, 저 중국에서 들어온 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허고예, 벌써 틀려마씨.(그런데 제사 때 사다가, 마른 거 사다가 구워도, 그게 제주도에서 난 거하고, 저 중국에서 들어온 거, 외국에서 들어온 거하고, 벌써 달라요.)

107023 @ 색깔도 뭐 이런 거 틀린가? 뭐가 틀리는고마씨?(색깔도 뭐 이런 것이 다른가? 뭐가 다른가요?)

107023 #1 예, 그디 꼬리 잇수게예?(예, 거기 꼬리 있잖아요?)

107023 @ 예, 꼬리.(예, 꼬리.)

107023 #2 꼬리 잇는 것이 우리 제주도서 난 건양 노란 그뭇이 영 이신디, 외국에서 온 건 그게 엇어마씨.(꼬리 있는 것이 우리 제주도에서 난 것은 노란 금이 이렇게 있는데, 외국에서 온 건 그게 없어요.)

107023 @ 꼬리에?(꼬리에?)

107023 #2 예, 경허난양 그게 맛이 엇어, 궈도.(예, 그러니까 그게 맛이 없어, 구워도.)

107023 @ 궈도, 맞수다게. 잘 말리는 게 문제인지, 고기가 달라서인지.(구워도, 맞습니다. 잘 말리는 게 문제인지, 고기가 달라서인지.)

107023 #2 고기가 달라마씨.(고기가 달라서요.)

107023 @ 달라.(달라.)

107023 #2 예, 고기가 달라부난, 물리우는 건 꼭ᄀᆞ찌 물리왐주만은 고기가 달라부난 경 헌 셍이라마씨. 경허난 사오는 디도 중국 거는 싸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 예, 저 외국에서 들어온 옥돔은 싸고, 우리 제주도 건 비싸고.(예, 고기가 달라서, 말리는 건 똑같이 말리지만 고기가 달라서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니깐 사오는 데도 중국 거는 싸고, 외국에서 들어온 건요, 저 외국에서 들어온 옥돔은 싸고, 우리 제주도 건 비싸고.)

107023 @ 아니, 궝 먹으믄 심심허여마씨. 외국서 들어온 건 막 심심허여.(아니,

구워서 먹으면 심심해요. 외국에서 들어온 건 아주 심심해요.)

107023 #2 예.(예.)

107023 @ 좀 뭔가 맛이 다르다 느껴지는 게 잇어.(좀 뭔가 맛이 다르다 느껴지는 게 있어.)

107023 #2 경헌디 사레 강 보믄예, 우리 알아져마씨, 그걸. 외국 거허고 우리 제주도 거허고.(그런데 사러 가서 보면, 우리 알아요, 그걸. 외국 거하고 우리 제주도 거하고.)

107023 @ 아까 뭐 그 노란 줄이 잇이믄 제주도 거[꺼]고.(아까 뭐 그 노란 줄이 있으면 제주도 거고.)

107023 #1 예, 예, 경 알아지는디 ᄃᆞ시 사레 강 비싸믄 아 이거 우리 제주도 거[꺼]로구나, 경 허영.(예, 예,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다시 사러 가서 비싸면 아 이거 우리 제주도 거로구나, 그렇게 해서.)

107023 @ 아, 비싸믄.(아, 비싸면.)

107023 #2 수입 껀 아멩헤도 쌉니다.(수입 것은 아무래도 쌉니다.)

죽류

107024 @ 저 이젠 죽에 대해서 알아보쿠다예, 죽, 죽 종류 ᄀᆞᆯ아줍서.(저 이젠 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죽, 죽 종류 말해주십시오.)

107024 #2 죽 종류사 막 여러 가지주.(죽 종류야 아주 여러 가지지.)

107024 @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107024 #1 흰죽.(흰죽.)

107024 @ 흰죽이고, 그다음에 뭐?(흰죽이고, 그다음에 뭐?)

107024 #1 조축, 보리죽.(조죽, 보리죽.)

107024 @ 조축, 보리죽, 또?(조죽, 보리죽, 또?)

107024 #1 풋죽.(팥죽.)

107024 @ 음, 풋죽, 또 콩죽.(음, 팥죽, 또 콩죽.)

107024 #1 예.(예.)

107024 @ 메밀도 죽을 헷수가?(메밀도 죽을 했습니까?)

107024 #1 예, 메밀은, 메밀죽도 허고.(예, 메밀은, 메밀죽도 하고.)

107024 @ ᄆᆞ멀죽.(메밀죽.)

107024 #1 예, ᄆᆞ멀죽.(예, 메밀죽.)

107024 #2 ᄆᆞ멀죽 헷자 저 ᄆᆞ멀ᄌᆞ베기나 헨 먹엇주 ᄆᆞ멀 놩 경 죽은 경 쒕 안 먹어봣수다게.(메밀죽 해봤자 저 메밀수제비나 해서 먹었지 메밀 놓아서 그렇게 죽은 그렇게 쒀서 안 먹어 봤습니다.)

107024 @ 음, ᄆᆞ멀죽은 거의 안 헷구나예. 녹디도?(음, 메밀죽은 거의 안 했구나. 녹두도?)

107024 #1 녹디도 죽 쑵니다.(녹두도 쭉 쑵니다.)

107024 #2 녹디죽은 쒕 먹읍니다.(녹두죽은 쒀서 먹습니다.)

107024 #1 녹디만은 안 허고 그 저 녹디죽도 쒀 나가다가 좁쏠이나 쏠을 놔근에, 서꺼야 먹읍주게.(녹두만은 안 하고 그 저 녹두죽도 쒀 나가다가 좁쌀이나 쌀을 놓아서, 섞어야 먹습니다.)

107024 @ 음, 게난 녹디만 가졍은 안 뒈잖아예?(음, 그러니까 녹두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107024 #1 예, 풋도 마찬가지, 녹디도 마찬가지고.(예, 팥도 마찬가지, 녹두도 마찬가지고.)

107028 @ 콩죽은 콩만 가졍 헙니까?(콩죽은 콩만 가지고 합니까?)

107028 #1 아니우다. 것도 역시 쏠을 놓나.(아니에요. 그것도 역시 쌀을 놓아.)

107028 #2 쏠을 놩, 좁쏠, 좁쏠이나, 옛날은 곤쏠 엇이난 좁쏠만 놘 쒄 먹엇낫수게.(쌀을 놓아, 좁쌀, 좁쌀이나, 옛날은 흰쌀 없으니까 좁쌀만 놓아서 쒀서 먹었습니다.)

107028 #1 곤쏠 놓민 더 맛은 좁주만은, 쏠이 엇으니까.(흰쌀 놓으면 더 맛은 좋지만, 쌀이 없으니까.)

107028 @ 음.(음.)

107028 #1 좁쏠 놓는 겁주.(좁쌀 놓는 겁니다.)

107028 @ 둑죽도 헤 먹고예?(닭죽도 해 먹고요?)

107028 #1 예, 둑죽은 그 저 특별요리로 헤 가지고, 건 둑 잡아 가지고 쒕 먹는 건데, 늘 쑤는 것이 아니고 특별헌 일 잇일 때.(예, 닭죽은 그 저 특별요리로 해 가지고, 그것은 닭 잡아 가지고 쑤어서 먹는 건데, 늘 쑤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 있을 때.)

107028 @ 콩죽은 어떵 쒕 먹엇수가?(콩죽은 어떻게 쒀서 먹었습니까?)

107028 #1 콩죽은 그 저 물 꿰어가믄 ᄀᆞ를 놔 가지고, 꿰어 가믄 뚜로 역시 놈삐나 배추라든지 썰어놩 먹곡덜, 그렇지 안 허면은 배추를 미릇 놩, 아까 곧듯이 ᄀᆞ를 서끄는 것도 잇고, 이 아주머니 ᄀᆞ치 뚜로뚜로 뭣 헌 디는 그 ᄒᆞ끔 게영, 게여근에 물 꿰어 가믄.(콩죽은 그 저 물 끓어가면 가루를 놓아 가지고, 끓어 가면 따로 역시 무나 배추라든지 썰어놓아서 먹고들, 그렇지 않으면 배추를 미리 놓아서, 아까 말했듯이 가루 섞는 것도 있고, 이 아주머니 같이 따로따로 뭐 한 데는 그 조금 개어서, 개어서 물 끓어 가면.)

107028 #2 콩죽도예, 영 ᄒᆞ끔 반죽허영 물 꿰어가근에 놔근에양, 또 좁쏠 놓곡, 옛날에 좁쏠벳기 무신거 딴 거는 넣어봣수가게?(콩죽도, 이렇게 조금 반죽해서 물 끓어가서 놓아서, 또 좁쌀 놓고, 옛날에 좁쌀밖에 뭐 다른 것은 넣어봤습니까?)

107028 @ 게믄 국 헐 때허고 죽 헐 때 다른데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그러면 국 할 때하고 죽 할 때 다른데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107028 #2 아니게, 죽 헐 때는 경허영 쏠 놓곡, 국 헐 때는 그냥 무시것고게 저 송키만 놩, 배추나 무수나 그것만 놩 헷수게.(아니, 죽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쌀 놓

고, 국 할 때는 그냥 뭐냐 저 푸성귀만 놓아서, 배추나 무나 그것만 놓아서 했어요.)

107028 #1 죽은 그러고 쏠 놩 헌 것은 그냥 죽이고.(죽은 그렇고 쌀 놓아서 한 것은 그냥 죽이고.)

107028 @ ᄀᆞ를 놩 헌 것은?(가루를 놓아서 한 것은?)

107028 #1 콩ᄀᆞ를 놩 헌 것은 콩죽이고.(콩가루를 놓아서 한 것은 콩죽이고.)

107028 #2 콩ᄀᆞ를 놔도 죽은 쏠을 놉니께. 좁쏠, 옛날은 곤쏠이 엇이나, 쌀이 엇이난 모인 좁쏠 놔근에 쒀낫수다게,(콩가루를 놓아도 죽은 쌀을 놓습니다. 좁쌀, 옛날은 흰쌀이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메조 놓아서 쑤었습니다.)

107028 @ 게믄 콩ᄀᆞ를에다가 모인 좁쏠 놔 가지고도 콩죽을 쑤고.(그러면 콩가루에다가 메조 놓아 가지고도 콩죽을 쑤고.)

107028 #2 예, 경허믄 무시거 ᄒᆞ끔 무수나 ᄂᆞ멀이나 ᄒᆞ끔 썰어놓곡 헹, 경.(예, 그러면 뭐 조금 무나 나물이나 조금 썰어놓고 해서, 그렇게.)

107028 @ 음, 무수나 ᄂᆞ멀 썰어 가지고. 그것도 콩죽?(음, 무나 나물 썰어 가지고. 그것도 콩죽?)

107028 #2 예.(예.)

107028 @ 그다음 그 웨에 콩으로만 허게 뒈면 그냥 콩가룰로예?(그다음 그 외에 콩으로만 하게 되면 그냥 콩가루로요?)

107028 #1 예.(예.)

107028 @ 콩가루로 허는 거지예, 그건?(콩가루로 하는 거지요, 그건?)

107028 #1 예.(예.)

107028 @ 음, 콩가를로예. 다 콩가루로 허는데 아까 저기 좁쏠 놩 허는 것도 잇고, 그냥 콩ᄀᆞ를만 가졍 허는 것도 잇고.(음, 콩가루로요. 다 콩가루로 하는데 아까 저기 좁쌀 놓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냥 콩가루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107028 #2 콩ᄀᆞ를만은 안 헙니다게, 죽은.(콩가루만은 안 합니다, 죽은.)

107028 @ 아, 기꽈?(아, 그렇습니까?)

107028 #2 국은 콩ᄀᆞ를만 놔근에 무수나 배추나 놩 허곡, 죽은 좁쏠을 놔사마씨, 게난 옛날은.(국은 콩가루만 놓아서 무나 배추나 놓아서 하고, 죽은 좁쌀을 놓아야 해요, 그러니까 옛날은.)

107028 #1 좁쏠을 놓나 곤쏠을 놓나 헤삽주.(좁쌀을 놓으나 흰쌀을 놓으나 해야 합니다.)

107028 #2 곤쏠, 곤쏠 놓는 사름은 드물엇수다. 곤쏠이 셧수가게.(흰쌀, 흰쌀 놓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흰쌀이 있었습니까.)

107028 @ 음.(음.)

107028 #2 그때는 곤쏠이 엇어부난게.(그때는 흰쌀이 없어 버리니까.)

107029 @ 그 게난 ᄆᆞ멀죽은 거의 안 헤 먹엇다?(그 그러니까 메밀죽은 거의 안 해 먹었다?)

107029 #2 ᄆᆞ멀ᄌᆞ베기만.(메밀수제비만.)
107029 @ ᄌᆞ베기로.(수제비로.)
107029 #1 예, ᄌᆞ베기주, ᄌᆞ베기.(예, 수제비지, 수제비.)
107029 @ ᄆᆞ멀ᄌᆞ베기로.(메밀수제비로.)
107029 #2 예, 예.(예, 예.)
107029 @ 그거는 ᄆᆞ멀ᄌᆞ베기는 어떵 만들언 먹엇수가?(그건 메밀수제비는 어떻게 만들어서 먹었습니까?)
107029 #2 수제비마씨게, 수제비.(수제비요, 수제비.)
107029 @ 게난 그건 손으로 잡안 헌 거우꽈?(그러니까 그건 손으로 잡아서 한 겁니까?)
107029 #2 수까락으로 영 헹 떼어 놧수다.(숟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떼어 놓았습니다.)
107029 @ 수까락으로, 게난 수제비난 수까락으로 헌 거네예. ᄌᆞ베기는 손으로 좁앙 놓는 것고라.(숟가락으로, 그러니까 수제비난 숟가락으로 한 거네요. 수제비는 손으로 잡아서 놓은 것보고.)
107029 #2 호호호.(호호호.)
107029 @ 하하하.(하하하.)
107029 #1 잘 ᄀᆞᆯ암수다, 좁앙 놓니까 ᄌᆞ베기고, 허허허.(잘 말했습니다, 잡아서 놓으니까 수제비고, 허허허.)
107029 @ 수제비는 수까락으로 떼어 놓니까 수제비고? 아 그건 ᄆᆞ멀ᄌᆞ베기고, ᄆᆞ멀죽은 거의 안 먹엇다예. 음, 녹디죽은 어떤 식으로 멘들안 먹엇수가?(수제비는 숟가락으로 떼어 놓으니까 수제비고? 아 그건 메밀수제비고, 메밀죽은 거의 안 먹었네요. 음, 녹두죽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29 #2 녹디죽도 녹디 솖아놔근에양 쏠 놔근에, 좁쏠 놔근에, 곤쏠 신 사름은 곤쏠 놓곡, 어신 사름은 좁쏠 놓곡 허여근에 영 젓엉 쑤믄, 픗죽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우다.(녹두죽도 녹두 삶아 놓아서 쌀 놓아서, 좁쌀 놓아서, 흰쌀 있는 사람은 흰쌀 놓고, 없는 사람은 좁쌀 놓고 해서 이렇게 저어서 쑤면, 팥죽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107029 @ 아 게난 쏠 엇이믄 대신에 좁ᄊᆞ을 논다?(아 그러니까 쌀 없으면 대신에 좁쌀을 놓는다?)
107029 #2 예, 모인 좁쏠, 흐린 좁쏠 놩은 안 뒈어마씨, 모인 좁쏠.(예, 메조, 차조 놓으면 안 돼요, 메조.)
107029 @ 아, 모인 거.(아, 메진 거.)
107029 #2 모인 좁쏠, 노랑헌 건 모인 좁쏠이고.(메조, 노란 건 메조고.)
107029 @ 그니까.(그러니까.)
107029 #2 거멍헌 건 흐린 좁쏠이고.(까만 건 차조고.)
107029 @ 흐린 좁쏠.(차조.)

107029 #2 예.(예.)

107029 @ 아 죽에 허는 건 모인 걸로.(아 죽에 하는 것은 메진 것으로.)

107029 #2 예, 예.(예, 예.)

107029 @ 음, 술 당그는 거, 술 만드는 거는 흐린 좁쏠로 허고. 그 저 오메기술 만드는 거는 흐린 거 아니우꽈예?(음, 술 담그는 거, 술 만드는 것은 차조로 하고. 그 저 오메기술 만드는 것은 차조 아닙니까?)

107029 #1 예.(예.)

107029 @ 흐린 거, 검은 좁쏠.(차조, 검은 좁쌀.)

107029 #2 예.(예.)

107030 @ 녹디는 그렇게 헤서 먹고, 닭죽은 어떤 식으로 쒀 먹엇수가, 독죽?(녹두는 그렇게 해서 먹고, 닭죽은 어떤 식으로 쒀 먹었습니까, 닭죽?)

107030 #1 독은 독 잡으근에 솟디 놩 막 솖앙 건즘 익어가면은 그 쌀을 놔십주기. 쌀을 놔 가지고 쏠이 익으면은 그것이 독죽이 뒈는 겁주게.(닭은 닭 잡아서 솥에 놓아서 마구 삶아서 거의 익어가면 그 쌀을 놓았습니다. 쌀을 놓아 가지고 쌀이 익으면 그것이 닭죽이 되는 겁니다.)

107030 @ 음, 게난 닭은 건졍 먹고 그 국물로 쏠 놔가지고 닭죽을 헹 먹엇구나.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허다예.(음, 그러니까 닭은 건져서 먹고 그 국물로 쌀 놓아 가지고 닭죽을 해서 먹었구나.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네요.)

107030 #1 예, 예.(예, 예.)

107030 #2 독죽 헹 먹음은 경 쉬왓수가, 옛날이사.(닭죽 해서 먹는 것은 그렇게 쉬웠습니까, 옛날에야.)

107030 @ 하하하.(하하하.)

107030 #1 일 년에 혼두 번 그자, 유월 스무날.(일 년에 한두 번 그저, 유월 스무날.)

107030 @ 거난 건 독 잡아 먹는 날?(그러니까 그것은 닭 잡아 먹는 날?)

107030 #1 예, 유월 스무날 그자, 허허허.(예, 유월 스무날 그저, 허허허.)

107030 @ 독 잡아 먹는 날은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에 잡안 먹엇구나예?(닭 잡아 먹는 날은 여름이나 아니면 겨울에 잡아서 먹었군요?)

107030 #1 예, 여름에.(예, 여름에.)

107032 @ 음. 그 웨에 뭐 깅이 ᄀᆞ튼 거, 깅이죽도 헤 먹고 헷수가?(음. 그 외에 뭐 게 같은 거, 게죽도 해 먹고 했습니까?)

107032 #1 예.(예.)

107032 #2 예, 깅이죽도 맛 좋읍니다.(예, 게죽도 맛 좋습니다.)

107032 #1 깅이는 깅이 잡아다가 놀체로 막 삐져마씨.(게는 게 잡아다가 날 것으로 마구 빚어요.)

107032 @ 아, 막 뻣아, 뻣아.(아, 마구 빻아, 빻아.)

107032 #1 예.(예.)

107032 #2 뻣아근에 영 걸렁, 물 ᄒᆞ끔 놩양, 물 놔근에 영영 젓어근에 영 건져근에, 마께로 막 뻣앙, 그거 저 무시것에, 옛날은양 방에톡 셔나십주게, 요만헌 방에톡 시믄 걸로 헹 뻣아근에 물 놩 영 젓엉, 건진 건져뒁은에 그걸로 죽 쒀낫수게.(빻아서 이렇게 걸러서, 물 조금 놓아서, 물 놓아서 이렇게 이렇게 저어서 이렇게 건져서, 방망이로 마구 빻아서, 그거 저 뭐에다가, 옛날은 방아확 있었습니다, 요만한 방아확 있으면 그걸로 해서 빻아서 물 놓아서 이렇게 저어서, 건더기는 건져두고 그걸로 죽 쑤었습니다.)

107032 @ 음.(음.)

107032 #2 경허고 요추룩 준준헌 건 사다근에 지 담앙 먹곡. 짱아지, 옛날은 지엔 헤신디 이젠 짱아지엔 헙니께.(그렇게 하고 이처럼 자잘한 것은 사다가 지 담아서 먹고. 장아찌, 옛날은 지라고 했는데 이젠 장아찌라고 합니다.)

107032 @ 깅이지?(게장?)

107032 #1 깅이지.(게장.)

107032 #2 예, 예, 그거 허연 먹고. 거 막 맛 좋아낫수다.(예, 예, 그거 해서 먹고. 그거 아주 맛 좋았습니다.)

107032 @ 아.(아.)

107032 #1 깨끗허고.(깨끗하고.)

107032 #2 겐디 이제는예, 바당이 강 깅이 잡아다근에 못 먹넨마씨. 강 영 모래 파믄 모래가 오염뒈난 시커멍 헤불엉.(그런데 이제는, 바다에 가서 게 잡아서 못 먹는대요. 가서 이렇게 모래 파면 모래가 오염되니까 시꺼메져서.)

107032 @ 음.(음.)

107032 #2 경 헤부난 이젠 깅이죽 못 헹 먹넨, 오염뒈부난.(그렇게 해버리니까 이젠 게죽 못 해서 먹는다고, 오염돼 버리니까.)

107033 @ 꿩도 잡아근에 죽 헹 먹엇수가?(꿩도 잡아서 죽 해서 먹었습니까?)

107033 #1 꿩은 잡앙 거의 다 죽은 안 허고, 국을 끌렷수다.(꿩은 잡아서 거의 다 죽은 안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107033 @ 꿩으로.(꿩으로.)

107033 #1 예, 꿩은 작아비어도 국을 끌리믄 족게 끌려도 비지근허고[225], 혼 말썩 끌려도 비지근허곡 헙니다.(예, 꿩은 작아보여도 국을 끓이면 적게 끓여도 '비지근'하고, 한 말씩 끓여도 '비지근'하고 합니다.)

107033 @ 물을 하영 놔근에 끌렷구나예.(물을 많이 놓아서 끓였군요.)

107033 #1 예, 그걸, 게고.(예, 그걸, 그리고.)

107033 @ 꿩고기는.(꿩고기는.)

107033 #2 옛날엔 식구덜 하 노난게, 옛날사 오죽 식구 핫수가?(옛날에는 식구들 많아 노니까, 옛날에야 오죽 식구 많았습니까?)

107033 #1 국물 늘리와야 여러 사름 먹을 겁주. 하하하.(국물 늘려야 여러 사람

225) '비지근하다'는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

먹을 거지. 하하하.)

107033 @ 하하하.(하하하.)

107033 #1 고기만은 멧 점 아이뭴 거난. 하하하.(고기만은 몇 점 안 될 거니까. 하하하.)

107033 @ 게난 국물만, 국물 먹는 맛으로.(그러니까 국물만, 국물 먹는 맛으로.)

107033 #1 예, 예.(예, 예.)

107033 @ 게니까 그것이 그렇네. 그다음에 다른 거 뭐 죽 헤 먹어난 것들은 엇수가? 죽 아까 골앗던 거 말고.(그러니까 그것이 그렇네. 그다음에 다른 거 뭐 죽 해 먹었던 것들은 없습니까? 죽 아까 말했던 거 말고.)

107033 #1 그 웨에.(그 외에.)

107033 #2 무신 죽을 헤 먹어나신고?(무슨 죽을 해 먹었었지?)

107033 #1 그 웨엔 별로 엇수다.(그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107033 @ 하여간 이 죽은 쏠 아니믄 좁쏠 뭐 이런 것들 놩, 대부분 그거네예.(하여간 이 죽은 쌀 아니면 좁쌀 뭐 이런 것들 놓아서, 대부분 그거네요.)

107033 #1 네.(네.)

107033 @ 게난 좁쏠만으로는 죽을 안 헷고예. 좁쏠에다가 쏠 놔 가지고.(그러니까 좁쌀만으로는 죽을 안 했고요. 좁쌀에다가 쌀 놓아 가지고.)

107033 #1 엇일 때는 좁쏠만으로도 죽을 헙니다.(없을 때는 좁쌀만으로도 죽을 합니다.)

107033 @ 좁쏠로만도?(좁쌀로만도?)

107033 #1 예, 예.(예, 예.)

107033 #2 옛날은 쏠 엇인 때난 좁쏠만 놩 죽 쒀십주게.(옛날은 쌀 없을 때니까 좁쌀만 놓아서 죽 쑤었습니다.)

107033 #1 쏠이 귀헤 가지고 좁쏠만 놩.(쌀이 귀해 가지고 좁쌀만 놓아서.)

107033 @ 좁쏠죽도 헨 먹언?(좁쌀죽도 해서 먹었어?)

107033 #1 예.(예.)

107033 @ 좁쌀만 가지고예, 음, 그거는 엇인 때.(좁쌀만 가지고요, 음, 그건 없을 때.)

107033 #1 예, 쏠이 어려울 때.(예, 쌀이 어려울 때.)

범벅과 수제비

107034 @ 범벅은 아까 어떤 범벅들이 잇덴 헷수가, 범벅은?(범벅은 아까 어떤 범벅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범벅은?)

107034 #2 범벅은 무신거 감저 썰아놔근에 감저 솖다근에.(범벅은 뭐 고구마 썰어 놓아서 고구마 삶아다가.)

107034 @ 감저범벅.(고구마범벅.)

107034 #2 예, 감저 솖다근에 이제 감저 다 익으믄 ᄀᆞ를 놔근에 막 젓이믄 범벅

이 뒈는 거주.(예, 고구마 삶아다가 이제 고구마 다 익으면 가루 놓아서 마구 저으면 범벅이 되는 거지.)

107034 @ 게니까 그건 맞는디 감저로만 범먹헌 것도 다른 거 범벅도 뭐 헤 먹는 거 엇수가? 무우는 범벅이 안 뒈?(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고구마로만 범벅한 것도 다른 거 범벅도 뭐 해 먹는 거 없습니까? 무는 범벅이 안 돼?)

107034 #1 무우도, 무우범벅도 좀 헙니다만은, 건 극히 드뭅주게.(무도, 무범벅도 좀 합니다마는, 그건 극히 드뭅니다.)

107034 #2 무우 놩은 난 안 헤봣수다.(무 놓아서는 난 안 해봤습니다.)

107034 #1 맛이 별로 엇입주게.(맛이 별로 없습니다.)

107034 @ 예, 게난 범벅이 감저만 가지고, 감저에, 그니까 감저를 주로 헤서 보리쌀에도 서껑은에 범벅이 뒈지예?(예, 그러니까 범벅이 고구마만 가지고, 고구마에, 그러니까 고구마를 주로 해서 보리쌀에도 섞어서 범벅이 되죠?)

107034 #1 아니, 보리쏠에 서끄는 것이 아니라.(아니, 보리쌀에 섞는 것이 아니라.)

107034 @ 보리쏠 서끄는 것이 아니라, 그.(보리쌀 섞는 것이 아니라, 그.)

107034 #1 감저 놩, 감저밥이 뒈는 겁주게.(고구마 놓아서, 고구마밥이 되는 겁니다.)

107034 @ 게난 조, 조로도 범먹이 뒙니까?(그러니까 조, 조로도 범벅이 됩니까?)

107034 #1 예.(예.)

107034 @ 조 헤 가지고 감저 놓고 범벅이 뒙니까?(조 해 가지고 고구마 놓고 범벅이 됩니까?)

107034 #1 예, 예, 조ᄀᆞ를게.(예, 예, 조가루요.)

107034 @ 조ᄀᆞ를, 그다음에 쏠, 보리쏠 뭐 줌쏠[226], 그 보리쏠에 그 뭐.(조가루, 그다음에 쌀, 보리쌀 뭐 '줌쏠', 그 보리쌀에 그 뭐.)

107034 #1 예, 좀쏠 놩, 줌쏠이엔 헌 건 쏠이 알멩이 줌진 것고라 줌쏠이라고.(예, '줌쏠' 놓아서, '줌쏠'이라고 한 건 쌀이 알맹이 가늘 것보고 '줌쏠'이라고.)

107034 @ ᄉᆞ레기.(싸라기.)

107034 #1 예, 보리쏠 줌진 것고라 줌쏠, 줌쏠 헤십주기.(예, 보리쌀 가는 것보고 '줌쏠', '줌쏠' 했습니다.)

107034 @ 아, 게난 그거 놩도 범벅을 헙니까?(아, 그러니까 그거 놓아서도 범벅을 합니까?)

107034 #1 그거 놩도 범벅은.(그거 놓아서도 범벅은.)

107034 #2 아니 ᄀᆞ를로벳기 범벅은 안 헙니다게. 줌쏠 ᄀᆞ뜬 건, 밥 헐 때양 보리쏠 거제 익어가믄 그거 우터레 ᄀᆞ찌 놔근에 허영 헤도 줌쏠은 그 무시것고 범벅은 안 헙니다.(아니 가루로밖에 범벅은 안 합니다. '줌쏠' 같은 건, 밥 할 때 보리쌀

226) '줌쏠'은 보리쌀 잘게 부서진 것을 말한다.

거의 익어가면 그것 위에 같이 놓아서 해서 해도 ‘즘쏠’은 그 뭐냐 범벅은 안 합니다.)

107034 @ 범벅은 안 허고?(범벅은 안 하고.)

107034 #2 예.(예.)

107034 @ 게난.(그러니까.)

107034 #1 밥에 놩 허여마씨.(밥에 놓아서 해요.)

107034 @ 게난 범벅은 ᄀᆞ를로.(그러니까 범벅은 가루로.)

107034 #2 예, ᄀᆞ를로.(예, 가루로.)

107034 @ 보리ᄀᆞ를로 허든가, 아까 보리ᄀᆞ를 말아 아까 뭐?(보릿가루로 하든가, 아까 보릿가루 말고 아까 뭐?)

107034 #2 ᄆᆞ멀ᄀᆞ루.(메밀가루.)

107034 @ ᄆᆞ멀ᄀᆞ루도 잇고, 또 범벅 허는 게 또? 그 체, 무슨 체? 저보리쏠.(메밀가루도 있고, 또 범벅 하는 게 또? 그 채, 무슨 채? 저 보리쌀.)

107034 #2 는젱이, ᄆᆞ멀ᄀᆞ를 우에 주시, 는젱이범벅.(나깨, 메밀가루 위에 찌꺼기, 나깨범벅.)

107034 @ 는젱이, ᄆᆞ멀 주시, 는젱이범벅. 그걸로도 허고, 보리쏠에도 그 주시가 잇지 안 허우꽈?(나깨, 메밀 찌꺼기, 나깨범벅. 그걸로도 하고, 보리쌀에도 그 찌꺼기가 있지 않습니까?)

107034 #2 보리쏠에 주신 ᄉᆞ레기마씨.(보리쌀의 찌꺼기는 싸라기요.)

107034 @ ᄉᆞ레기, 건 ᄉᆞ레기고.(싸라기, 그건 싸라기고.)

107034 #2 경허곱 보리ᄀᆞ를도 ᄀᆞᆯ아당 헹 먹읍니다.(그리고 보릿가루도 갈아다가 해서 먹습니다.)

107034 @ 음.(음.)

107034 #2 옛날은 경 헤낫수게게.(옛날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34 @ 그걸로 헤서 감저를 놓으면, 아 고구마예, 감저 그것을 서끄면 그것이 감저범벅이 뒈는 거.(그걸로 해서 고구마를 놓으면, 아 고구마요. 고구마 그것을 섞으면 그것이 고구마범벅이 되는 거.)

107034 #2 예, 예.(예, 예.)

107035 @ 수제비는 아까 ᄆᆞ멀로만 헷수가?(수제비는 아까 메밀로만 했습니까?)

107035 #1 ᄆᆞ멀허고 그 저 뭣고 밀ᄀᆞ를.(메밀하고 그 저 뭐냐 밀가루.)

107035 @ 밀ᄀᆞ를도 허고.(밀가루도 하고.)

107035 #2 밀ᄀᆞ름, 밀 갈아근에게, ᄀᆞᆯ아다근에 허곡, 이젠 밀ᄀᆞ루도 흔허여근에 밀ᄀᆞ를 헷주, 옛날은 밀 갈아근에 밀 ᄀᆞᆯ아와사만이 밀가루가 셔낫수게게.(밀가루, 밀 갈아서, 갈아서 하고, 이젠 밀가루도 흔해서 밀가루 했지, 옛날은 밀 갈아서 밀 갈아와야만 밀가루가 있었어요.)

107035 @ 음, 게니까, 맞수다. 게난 수제비는 밀ᄀᆞ를도 허고 ᄆᆞ멀ᄀᆞ를도 허고. 그 뭐 다른 ᄀᆞ를로는 수제비는 허진 안 헤나고마씨?(음,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

니까 수제비는 밀가루도 하고 메밀가루도 하고. 그 뭐 다른 가루로는 수제비는 하지 않고요?)

107035 #1 딴 ᄀᆞ를은 헐 게 엇어.(다른 가루는 할 게 없어.)

107036 @ 아, 두 가지. 혹시 칼국수도 만들안 먹엇수가?(아, 두 가지. 혹시 칼국수도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36 #2 예, 칼국수도 멘들안 먹엇수다.(예, 칼국수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107036 @ 그거는 뭘로 만들안 먹엇수가?(그건 뭘로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36 #1 ᄆᆞ멀ᄀᆞ를도 만들앙 먹곡, 밀ᄀᆞ를도 만들앙 먹곡.(메밀가루도 만들어 먹고, 밀가루도 만들어 먹고.)

107036 @ 만들앙 먹고, 건 어떤 식으로 만들안 먹엇수가?(만들어 먹고, 그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36 #2 어떵허여마씨, 그냥 영 반죽허영 돔베에 놔근에 영 미는 걸로 펭 허여당 미는 걸로 영 밀어근에 영 펭펭 몰앙 짤라근에.(어떻게요, 그냥 이렇게 반죽해서 도마에 놓아서 이렇게 미는 것으로 병 해다가 미는 것으로 이렇게 밀어서 영 둘둘 말아서 짤라서.)

107036 @ 칼로예?(칼로요?)

107036 #2 예, 잘라근에, 칼국수 헤십주.(예, 잘라서, 칼국수 했습니다.)

107036 @ 돔베에서 잘라근에 놓는 거?(도마에 잘라서 놓는 거?)

107036 #2 예.(예.)

107036 @ 그건 칼로 자르난 칼국수.(그건 칼로 자르니까 칼국수.)

107036 #1 예.(예.)

107036 @ 그거는 그 웨에 다른 건 뭘 서끕니까, 칼국수 헤 먹을 때, 다른 거 들어가는 거?(그건 그 외에 다른 건 뭘 섞습니까, 칼국수 해 먹을 때, 다른 거 들어가는 거?)

107036 #1 국수헐 때, 송키 놓은다면 무우 ᄀᆞ튼 거, 체 썰엉 좀 놓곡.(국수할 때, 푸성귀 놓는다면 무 같은 거, 채 썰어서 좀 놓고.)

107036 @ 음, 무우체?(음, 무채?)

107036 #1 예. 무우체 썰언 놓고, 간장만 놓고.(예, 무채 썰어서 놓고, 간장만 놓고.)

107036 #1 예.(예.)

107036 @ 거의 간장만 놩은에 허는구나.(거의 간장만 놓아서 하는구나.)

107036 #2 예게, 아니 이젠 메리치가 잇이난양 다시 끌여근에 허는디 옛날은 메리치가 엇어부난예, 그냥 허여낫수게게.(예, 아니 이젠 멸치가 있으니까 다시 끓여서 하는데 옛날을 멸치가 없어버리니까, 그냥 했었습니다.)

107036 @ 칼국수 헐 땐 지실도 ᄒᆞ끔 놓지 안 헙니까?(칼국수 할 때에는 감자도 조금 놓지 않습니까?)

107036 #2 아니 거 지실도 시믄 썰어 놓곡, 엇이믄 말곡 헷수다게.(아니 거 감자

도 있으면 놓고, 없으면 말고 했습니다.)

107036 @ 늠삐, 지슬.(무, 감자.)

107036 #2 무수나 ᄒᆞ끔 썰어 놓곡예, 무수 엇인 땐 ᄯᅳ시 무신 배추 ᄀᆞ튼 거나 그런 거예, 채소, 체소 ᄒᆞ끔 썰어 놓고 경 헤십주. 옛날은 그것저것 경 셔낫수가게, 옛날은예.(무나 조금 썰어 놓고, 무 없을 때는 다시 무슨 배추 같은 거나 그런 거요, 채소, 채소 조금 썰어 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은 그것저것 그렇게 있었습니까, 옛날은요.)

107036 @ 호박죽도 헨 먹어나지 안 헷수가, 호박죽?(호박죽도 해서 먹지 않았습니까, 호박죽?)

107036 #1 예, 호박죽도.(예, 호박죽도.)

107036 #2 호박죽은 잘 헨 먹어낫수게게, 옛날은게. 옛날에사 호박덜 하영 싱경 양 호박죽은예.(호박죽은 잘 해서 먹었었습니다, 옛날은. 옛날에야 호박들 많이 심어서 호박죽은요.)

107036 @ 호박죽 많이 헤 먹엇구나예? 호박죽을 안 물어봐져신게예. 호박죽은 어떤 식으로 헤 먹엇수가?(호박죽은 많이 해 먹었군요? 호박죽을 안 물어봤네요. 호박죽은 어떤식으로 해 먹었습니까?)

107036 #2 호박 솖아근에 영 으께믄, 거 저 뭣고게, 막 영 주물렁 으께믄 문작허게 뒙니께게, 경허믄게 그걸로 죽쑤는 겁주게.(호박 삶아서 이렇게 으깨면, 거 저 뭐니, 마구 이렇게 주물러서 으깨면 문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죽쑤는 겁니다.)

107036 @ 그걸 그니까 물에, 물에 ᄃᆞᆼ가, 아니면?(그걸 그러니까 물에, 물에 담가, 아니면?)

107036 #2 아니 그냥 솖앙 놩.(아니 그냥 삶아서 놓아.)

107036 @ 그냥 솖앙.(그냥 삶아서.)

107036 #2 솖앙.(삶아서.)

107036 #1 문짝 솖앙.(모두 삶아서.)

107036 #2 건졍, 문작허게 솖앙 건졍, 건져근에 무신 다락이나 무신거 낭푼이에 놔 놩 막 영 주물르믄 문작허게 다 허영 뭐 헙니께, 경허믄 그거 놩 죽 쑤는 겁주게.(건져서, 문적하게 삶아서 건져서, 건져서 무슨 대야에나 뭐냐 양푼이에 놓아 놓고 마구 이렇게 주무르면 문적하게 다 해서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거 놓아서 죽 쑤는 겁니다.)

107036 @ 음, 그건 오로지 호박만, 다른 건 안 놓고?(음, 그건 오로지 호박만, 다른 건 안 놓고?)

107036 #2 예.(예.)

107036 #1 게난 호박죽, 호박죽입주.(그러니까 호박죽, 호박죽입니다.)

107036 #2 올린양 호박 싱근 것도 줄도 아이 번엄수다.(올해는 호박 심은 것도 줄기도 안 뻗고 있습니다.)

107036 #1 예.(예.)

107036 #2 줄도 안 벋언 요만이벳기 안 벋언, 그전인.(줄기도 안 뻗어서 요만큼밖에 안 뻗었어, 그 전에는.)

107036 @ 가물어신가마씨, 요새 어떵?(가물었나요, 요새 어떻게?)

107036 #2 아니 이 날씨가, 날씨가 밤에는 쌀쌀헙니께, 게난 밤이가 뜨셔야만이 농사가 뒈는디 뭐든지예.(아니 이 날씨가, 날씨가 밤에는 쌀쌀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따뜻해야만 농사가 되는데 뭐든지요.)

107036 @ 게메 요새 밤이 ᄒᆞ끔.(그러니까 요새 밤에 조금.)

107036 #1 아침 저녁은 쌀쌀허고 밤에도 쌀쌀헴수게. 경허난예 뭘예 크질 안허여.(아침 저녁은 쌀쌀하고 밤에도 쌀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뭘요 크질 않아.)

107036 @ 예, 덥질 안허연예.(예, 덥질 않아서요.)

107036 #2 크질 안 헴수다.(크지를 않습니다.)

107036 @ 아.(아.)

107036 #1 요새 에어컨을 틀어보질 안 헤서마씨.(요새 에어컨을 틀어보지를 안 했어요.)

107036 @ 게메예, 요새는 덥질 안허여마씨, 맞아예.(그러게요, 요새는 덥지를 않아요, 맞아요.)

107036 #2 우리집인예 ᄯᅳ시 마당에 잔디난양 모기가 저픕니다게, 마당에 잔디고 나무가 울담이라부난, 나무 막 하부난 허는디.(우리집은요 다시 마당에 잔디가 나서 모기가 심합니다, 마당에 잔디고 나무가 울담이라서, 나무 아주 많아서 하는데.)

107036 @ 이젠 모기 엇수가?(이젠 모기 없습니까?)

107036 #2 모기가 요새는양 경 엇어마씨. 그전엔양 이때 뒈믄예 모기장도 치곡 헷는디 올리는 아 이거 밤에 쌀쌀헤노난, 경허난 농사도 잘 안 뭼젠.(모기가 요새는 그렇게 없어요. 그전에는 이때 되면 모기장도 치고 했는데 올해는 아 이거 밤에 쌀쌀하니까, 그러니까 농사도 잘 안 된다고.)

김치

107037 @ 음, 이 김치를 당간 먹어낫지예?(음, 이 김치를 담가서 먹었었죠?)

107037 #2 김치사게 해년마다 당그는 거난.(김치사게 해년마다 담그는 거니까.)

107037 @ 김치는 종류를 ᄒᆞᆫ번 ᄀᆞᆯ라봅서. 김치 종류?(김치는 종류를 한번 골라보십시오. 김치 종류?)

107037 #2 김치 무스거게, 배추김치도 담곡, 무수김치도 담곡, 게난 옛날은 이젠 집이서 다 소금으로 절여도 옛날은양 바당에 강.(김치 뭐, 배추김치도 담고, 무김치도 담고, 그러니까 옛날은 이젠 집에서 다 소금으로 절여도 옛날은 바다에 가서.)

107037 #1 바당ᄀᆞ디 강.(바닷가에 가서.)

107037 #2 바당이 강 영, 웅뎅이 잇이민 거기 강 절영, 구루마로 시껑 강, 난, 호호.(바다에 가서 이렇게, 웅덩이 있으면 거기 가서 절여서, 수레로 실어서 가서,

난, 호호.)

107037 #1 졍 강.(져 가서.)

107038 @ 배추를?(배추를?)

107038 #2 우린양 친정엔 바닷물, 바닷쪽에 사난 그런 걸 몰라신디 이디 시집오난양 김치 담젠 허난양 구루마에 배추 시껀예, 저 용운동[227] 간에, 거기서 웅뎅이 신디 간 담갓단 뚜시 이제 이틀인가 시난 뚜시 간에 그거 바닷물에 싯언 뚜시 구루마로 간 또 시꺼완 담읍디가게, 그땐.(우리는 친정에는 바닷물, 바다 쪽에 사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여기 시집오니까 김치 담으려고 하니까 수레에 배추 싣고, 저 '용운동' 다서, 거기서 웅덩이 있는 데 가서 담갔다가 다시 이제 이틀인가 있으니까 다시 가서 그거 바닷물에 씻어서 다시 수레로 가서 또 싣고 와서 담았습니다, 그땐.)

107038 @ 김장김치예?(김장김치예?)

107038 #2 예. 경허난예, 그때는 냉장고도 엇고, 아무것도 엇이난 그거 시쳥 오랑 허믄게 마늘허곡게, 멜젓.(예. 그러니까, 그때는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씻어서 와서 하면 마늘하고, 멸치젓.)

107038 #1 고치ᄀᆞ를허고.(고춧가루하고.)

107038 @ 멜젓허고 고추가루허고, 그거 놔근에 버므려근에 그전인 이제 ᄀᆞ찌무신 액젓 이런 것도 엇어낫수게. 경허영 담으믄 뒤에 항 놔근에 뒤에 항에가근에 담앙 놔두고 헷수다, 냉장고 엇어부난. 경헤낫수다. 무수도 경헤근에 김치 ᄒᆞ끔 담아근에양.(멸치젓하고 고춧가루하고, 그거 놓아서 버무려서 그전에는 이제까지 무슨 액젓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담으면 뒤에 항아리 놓아서 뒤에 항아리에 가서 담아서 놔두고 했습니다, 냉장고 없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도 그렇게 해서 김치 조금 담아서요.)

107038 @ 것도 겨울에 같이, 김장헐 때?(그것도 겨울에 같이, 김장할 때?)

107038 #2 예, 김장헐 때 무수도양 김치에, 게난 우리집이덜은 영 막 홁게 썰어 담으렌 헌게, 깍두기로 담지 말앙 홁게 허믄 고기 보깡 먹을 때 ᄀᆞ튼 때도 그거 거져당 아레 놔근에 고기 놩 생선 ᄀᆞ뜬 거 보끌 때도, 고등어 ᄀᆞ뜬 거 보끌 때도 놓민 헌 덴 허영 그추룩 헤낫수다게. 게난 이제 ᄀᆞ찌 김치 담을 때 경양, 그거 저거 놩 담지 안 헤낫수다게.(예, 김장할 때 무도 김치에, 그러니까 우리집 아들은 이렇게 아주 굵게 썰어 담으라고 한 것이, 깍두기로 담지 말고 굵게 하면 고기 볶아서 먹을 때 같은 때에도 그거 가져다가 아래 놓아서 고기 놓아서 생선 같은 거 볶을 때도, 고등어 같은 거 볶을 때도 놓으면 한다고 해서 그처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김치 담글 때 그렇게, 그거 저거 놓아서 담지 않았습니다.)

107038 @ 게난 배추김치는 멧 포기나 담아봅디가?(그러니까 배추김치는 몇 포기나 담아봤습디까?)

107038 #2 멧 포기사 담아져신지 그땐 식구 하노난 멧 포기나 담아져신지.(몇 포기야 담가졌는지 그땐 식구 많아서 몇 포기나 담가졌는지.)

227) '용운동'은 한림읍 수원리에 있는 바닷가 마을이다.

107038 #1 항으로 두 갠 담앗수다. 허허허.(항아리로 두 개는 담았습니다. 허허허.)

107038 @ 하하하.(하하하.)

107038 #2 그땐예, 식구가 하노난.(그때는요, 식구가 많아서.)

107038 #1 게고 배추가 요즘은 홁어도 그땐 홁질 안 헷수다게.(그리고 배추가 요즘은 굵어도 그땐 굵지 않았습니다.)

107038 @ 아.(아.)

107038 #1 씨가 좀 개량됀난 그거 가젼 헷주.(씨가 좀 개량되니까 그거 가지고 했지.)

107038 #2 이젠 하영 속 앚으믄 이만큼썩 큽니께게. 겐디 그때는양 속이 안 앚아낫수다게. 경헹 그자.(이젠 많이 속 앉으면 이만큼씩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속이 안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107038 #1 퍼데기[228]로.('퍼데기'로.)

107038 @ 퍼데기로만.('퍼데기'로만.)

107038 #2 퍼데기로 허여근에.('퍼데기'로만 해서.)

107039 @ 퍼데기로. 열무김치 열무 잇지 안허우꽈예, 그건 언제 만듭니까, 그거는?(퍼데기로. 열무김치 열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언제 만듭니까, 그건?)

107039 #2 그거는, 열무김친예, 여름에 담읍니다게.(그건, 열무김치는요, 여름에 담급니다.)

107039 @ 여름에?(여름에?)

107039 #2 이제 담읍니다, 이제.(이제 담급니다, 이제.)

107039 @ 음.(음.)

107039 #2 이제 나는 허지 안 허난 헤도 나도 그거 허영 그거 소금에 절엿당 배추김치 담듯이 양념 놩 영 버므령은에.(이제 나는 하지 않으니까 해도 나도 그거 해서 그거 소금에 절였다가 배추 김치 담듯이 양념 놓아서 이렇게 버무려서.)

107039 @ 거 열무는 보통 그것이 언제 갈앙 언제 수확헙니까?(거 열무는 보통 그것이 언제 갈아서 언제 수확합니까?)

107039 #2 그거예, 봄 나가믄예.(그거요, 봄 되면요.)

107039 #1 열문 혼 ᄉᆞ월달쯤 갑주게,(열무는 한 사월달쯤 갑니다.)

107039 #2 갈앙 허믄양 이제 요새 열무김치덜 담을 땔 거우다. 이제 우리 혼자 사난양 그것저것 안 허난에 김치, 겨울에 당근 김장김치도양 다 못 먹쿠다게.(갈아서 하면 이제 요새 열무김치들 담을 때일 거예요. 이제 우리 혼자 사니까 그것저것 안 하니까 김치, 겨울에 담근 김장김치도 다 못 먹겠습니다.)

107039 #1 허허허.(허허허.)

107039 #2 아니 식구가 엇이난양, 아덜네도 식구가 엇이난 원 거져가질 안 헴신게마씨.(아니 식구가 없으니까, 아들네도 식구가 없으니까 원 가져가지를 않네요.)

228) '퍼데기'는 '퍼데기ᄂᆞ물'로 '속이 없는 배추'를 말한다.

107039 #1 이제 믄 쉬어불지 안 헷수가?(이제 다 쉬어 버리지 않았나요?)

107039 @ 하하하.(하하하.)

107039 #2 김치 냉장고에 놔두난 쉬진 안 헤실 거우다. 요 우리 아덜도예, 아침이 조반만 먹엉 가민 저녁인 퇴근허멍 친구덜이영 술 먹곡, 저녁 먹곡 헹 와 불고 허여불민 우리 메누린 나 혼자만 밥 먹을 때가 합니덴헨.(김치 냉장고에 놓아두니까 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 우리 아들도요, 아침에 아침밥만 먹어서 가면 저녁에는 퇴근하면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저녁 먹고 해서 와 버리고 해버리면 우리 며느리는 나 혼자만 밥 먹을 때가 많다고 했어요.)

107039 @ 아.(아.)

107039 #2 똘은 또시 직장 가믄 싯다근에 저 무시것고?(딸을 다시 직장 가면 있다가 저 뭐지?)

107039 @ 거의 다 시에 간 살암구나예?(거의 다 시에 가서 살고 있군요?)

107039 #2 아니우다, 이디 한림 살고.(아닙니다, 여기 한림 살고.)

107039 @ 한림 살고.(한림 살고.)

107039 #2 아덜은 군인 가 불고 허난에. 식구 엇이난양 새혜엔 김치 담지 말켄 헤사쿠다. 먹지 아니허연. 이제 묵은지도양 막 읏라 통 싯수다게, 냉장고에.(아들은 군인 가 버리고 하니까. 식구 없으니까 새해에는 김치 담그지 말겠다고 해야 되겠어요. 먹지 않아서. 이제 묵은지도 아주 여러 통 있습니다, 냉장고에.)

107039 @ 거 물김치는 언제? 물김치도 여름에 당그는 거지예?(거 물김치는 언제? 물김치도 여름에 담그는 거죠?)

107039 #2 예.(예.)

107040 @ 물김치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물김치는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107040 #2 물김치 어떤 식으로 만들어마씨게, 그냥.(물김치 어떤 식으로 만들어요, 그냥)

107040 @ 뭐 뭐 들어갑니까?(뭐 뭐 들어갑니까?)

107040 #2 물김친 그자 생강이나 마늘 ᄒᆞ끔 놓곡, 고치가루 ᄀᆞ튼 건 안 놉니다게. 경 허영 허믄.(물김치는 그저 생강이나 마늘 조금 놓고, 고춧가루 같은 건 안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107040 @ 뭐, 뭐 들어갑니까?(뭐, 뭐 들어갑니까?)

107040 #2 국물은 무시거 혀영 어떵사 담는지 모르컨게마씨. 난 나 담는 식으로만, 경허믄예 거 소금물 허영예, 이제 무시거 서꺼근에양 베나 허영 갈아근에양 영 즙 짜근에 허영 담아근에 놔두믄 맛좋덴덜 허영 잘 먹어신디 이젠 그런 것도 난 안 헴수다.(국물은 뭐 해서 어떻게 담그는지 모르겠어요. 난 나 담그는 식으로만, 그러면요 거 소금물 해서요, 이제 뭐 섞은 거에 배나 해서 갈아서 이렇게 즙 짜서 해서 담아서 놔두면 맛좋다고들 해서 잘 먹었는데 이젠 그런 것도 난 안 해요.)

107040 @ 게난 거 놈삐 썰어놔예, 무우 썰고.(그러니까 거 무 썰어놓아요, 무 썰고.)

107040 #2 예.(예.)

107040 @ 무우 썰고 그다음 저기 뭐 무우 이파리를 뭐렌 허지?(무 썰고 그다음 저기 뭐 무 이파리를 뭐라고 하지?)

107040 #1 베춧입.(배춧잎.)

107040 @ 아니, 아니.(아니, 아니.)

107040 #2 ᄎᆞ마귀[229].(열무.)

107040 @ ᄎᆞ마기. 것도 이제 썰어 놓고 허는구나예.(열무. 그것도 이제 썰어 놓고 하는군요.)

107040 #2 ᄎᆞ마기도양 속닙이나 멧 개 놓주양, ᄎᆞ마기 하영 안 놉니다. 이파린 하영 안 놔마씨.(열무도 속잎이나 몇 개 놓지, 열무 많이 안 놓습니다. 이파리는 많이 안 놓아요.)

107040 @ 음, 음.(음, 음.)

107040 #2 그냥 무수만 놩.(그냥 무만 놓아서.)

107040 @ 무수만 놓고.(무만 놓고.)

107040 #2 게난 그전에 그런 걸 막 백김치로 담곡 헤나신디.(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걸 마구 백김치로 담고 했었는데.)

107040 @ 아, 예.(아, 예.)

107040 #2 이제덜은 먹질 안 허난 그런 걸 안 담가마씨. 뚤덜은 시에 사난 느네 냥으로 헹 먹으라, 나 이제 늙으난 못 헤부난 그전엔 담아 줘신디 ᄒᆞᆫ 삼사 년 전부떠 지네냥으로 담앙 먹으난 집이서양 나 뭐 헤지질 안 헙니다게.(이제들은 먹지를 안 하니까 그런 걸 안 담가요. 딸들은 시에 사니까 너네대로 해서 먹어라, 나 이제 늙어서 못 하니까 그전에는 담가 줬는데 한 삼사 년 전부터 자기대로 담가 먹으니까 집에서 나 뭐 하지를 않습니다.)

107041 @ 동지김치도 담아낫지예?(장다리김치도 담갔지요?)

107041 #2 동지김치도예 옛날은 담아낫수다.(장다리김치도 옛날은 담갔습니다.)

107041 @ 어떤 식으로 담앗수가?(어떤 식으로 담갔습니까?)

107041 #2 옛날 그자 다른 김치 담는 거나 마찬가지우다게. 양념 허영 버무리믄.(옛날 그저 다른 김치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양념 해서 버무리면.)

107041 @ 게난 그거는.(그러니까 그거는.)

107041 #2 동지 꺼꺼다근에.(장다리 꺾어다가.)

107041 @ 게난 시기가 언제쯤 당그는 거우꽈?(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쯤 담그는 겁니까?)

107041 #2 봄이 담을 거주.(봄에 담글 거지.)

107041 @ 봄에 담는 거, 동지 꺼꺼다근에 담는 데 봄에, 그냥 것도 저기 그자 김치 담는 식으로?(봄에 담그는 거, 장다리 꺾어다가 담그는 데 봄에, 그냥 그것도 저기 그저 김치 담그는 식으로?)

229) ‘ᄎᆞ마귀’는 뿌리가 들기 전의 무를 말한다.

107041 #2 예, 김치 담는 식으로 그 양념에 버무립니다, 그 양념으로 헹.(예, 김치 담그는 식으로 그 양념에 버무립니다, 그 양념으로 해서.)

107041 #1 게난 아주머닌 옛날이라든지 뚠 사름 ᄀᆞᆫ는 거라도 먹는 김치에 대허영 다 ᄀᆞᆯ읍서.(그러니까 아주머니는 옛날이라든지 다른 사람 말하는 거라도 먹는 김치에 대해서 다 말하십시오.)

107041 #2 호호호.(호호호.)

107042 @ 그 무우, 놈삐로는 아까 백김치도 만들지만 그냥 그 깍두기 김치도 만들잖아예?(그 무, 무로는 아까 백김치도 만들지만 그냥 그 깍두기 김치도 만들잖아요?)

107042 #2 예.(예.)

107042 @ 그건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그건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107042 #2 그것도예, 깍두기는예, 깍둑깍둑 썰엉예, 배추 양념 헌 거, 배추 양념 헌 걸로 버무령.(그것도요, 깍두기는요, 깍둑깍둑 썰어서, 배추 양념 한 거, 배추 양념 한 것으로 버무려서.)

107042 @ 버무려?(버무려?)

107042 #2 예.(예.)

107042 @ 음, 그건 또 언제 헙니까?(음, 그건 또 언제 합니까?)

107042 #2 김장 헐 때 ᄀᆞ찌 담읍니다.(김장 할 때 같이 담급니다.)

107042 @ 김장 헐 때 같이 담는구나예.(김장할 때 같이 담그는군요.)

107042 #2 예, 예, ᄀᆞ찌 헤집니다.(예, 예, 같이 합니다.)

107042 @ 그때 무우가, 무는?(그때 무가, 무는?)

107042 #2 그때 무우는, 무우 막 큽니다.(그때 무는, 무 아주 큽니다.)

107042 #1 큰 거 잘 나옵니다.(큰 거 잘 나옵니다.)

107042 @ 거난 시월 십일월예?(그러니까 시월 십일월요?)

107042 #1 예.(예.)

107042 #2 막 큽니다.(아주 큽니다.)

107042 @ 그때가.(그때가.)

107042 #2 예,(예,)

107042 @ 그 무우도 월동 무우가 잇고, 여름에 크는 무우가 잇수가?(그 무도 월동무가 있고, 여름에 크는 무가 있습니까?)

107042 #2 열무가 잇고.(열무가 있고.)

107042 @ 여름에 크는 무우가 잇고, 월동 무우가 잇구나?(여름에 크는 무가 있고, 월동 무가 있구나?)

107042 #2 예, 예. 겨울에 꺼, 겨울에 꺼는예, 밧 구석에 강 저 무시거 엇고 양배출 싱그나 쪽파를 싱그나 허믄양, 그 구석에 담구석에 싱경 놔두민양 막 이만큼씩 큽니다.(예, 예. 겨울의 것, 겨울의 것은요, 밭 구석에 가서 저 뭐 없고 양배추를 심거나 쪽파를 심거나 하면, 그 구석에 담구석에 심어서 놔두면 마구 이만큼씩 큽

니다.)

107042 @ 겨울에예?(겨울에요?)

107042 #2 예.(예.)

107042 @ 건 월동무우고?(그건 월동무고?)

107042 #2 예.(예.)

107042 @ 보통 가을에 수확허는 무우가 잇구나, 건 언제 갈아마씨?(보통 가을에 수확하는 무가 있구나, 그건 언제 갈아요?)

107042 #2 가을에 수확허는 무우는 무슨 열무김치, 열뭅주. 열무벳기 더 셔, 가을엔양 무우 경 수확 안 헙니다게.(가을에 수확하는 무는 무슨 열무김치, 열무죠. 열무밖에 더 있어, 가을에는 무 그렇게 수확 안 합니다.)

107042 @ 아 게난 그 무우김치 헐 땐 열무 무로?(아 그러니까 그 무김치 할 때에는 열무 무로?)

107042 #2 아니.(아니.)

107042 @ 그냥 놈삐로 허는 거 아니라예?(그냥 무로 하는 거 아니라요?)

107042 #2 예, 예.(예, 예.)

107042 @ 그냥 놈삐로.(그냥 무로.)

107042 #2 겨울 무로마씨게.(겨울 무로요.)

107042 @ 겨울무우로, 게믄 보관헷당?(겨울 무로, 그러면 보관했다가?)

107042 #2 아니우다게.(아닙니다.)

107042 #1 요새 갈면 벌초헐 때 벌초헐 때 뒈민 그게 요만이 헤영헌 게 요만이 나근에 그걸로 저 뭣꽈 그 저 이파리만 가져근에 곳사 골은 거.(요새 갈면 벌초할 때 벌초할 때 되면 그게 요만큼 하얀 게 요만큼 나서 그걸로 저 뭡니까 그 저 이파리만 가져서 아까 간 거.)

107042 #2 그거예, 엇가리기마씨. 엇가리김치.(그거요, 갯나물요. 갯나물김치.)

107042 #1 그거 허영 막 클 때.(그거 해서 아주 클 때.)

107042 #2 게난 무수가 크질 안 허여마씨.(그러니까 무가 크지를 않아요.)

107042 #1 벌초헐 때 요만이 컹 김장김치 헐 때 뒈면은 이만큼 무우가 이만큼 커, 게믄 그걸로 담그는 겁주. 배추 김장김치 헐 때 놈삐도 이만큼 큽주게.(벌초할 때 요만큼 커서 김장김치 할 때 되면은 이만큼 무가 이만큼 거, 그러면 그걸로 담그는 겁니다. 배추 김장김치 할 때 무도 이만큼 큽니다.)

107042 @ 아, 예. 게난 이 무우가 보통 혼 십이월까지 가잖아예, 십이월꼬진.(아, 예. 그러니까 이 무가 보통 한 십이월까지 가잖아요, 십이월까지는.)

107042 #1 십이월꼬지 더 갑니다.(십이월까지 더 갑니다.)

107042 #2 예, 십이월까지 더 갑니다.(예, 십이월까지 더 갑니다.)

107042 #1 혼 삼월꼬지도, 삼ᄉᆞ월꼬지도 갑니다. 그거 풀지 못 허민 그냥 밧디 데껴 내불기도 허고에.(한 삼월까지도, 삼사월까지도 갑니다. 그거 팔지 못하면 그냥 밭에 던져 내버리기도 하고요.)

107042 #2 밧디 싱근체 그냥 허믄예, 흔 이월 사월까지는예 동지도 안 사마씨. 너무 인칙만 안 싱그믄, 너무 인칙 싱거분 건.(밭에 심은 채 그냥 하면, 한 이월 사월까지는 장다리도 안 서요. 너무 일찍 안 심으면, 너무 일찍 심어버린 건.)

107042 #1 ᄉᆞ월 넘어야 그것이 동지 납니다.(사월 넘어야 그것이 장다리 납니다.)

107042 #2 예.(예.)

107042 #1 원래 배추 김장헐 때 요것도 먹을 것덜인디 풀지 못 허민 그냥 내부는 거주마씨.(원래 배추 김장할 때 이것도 먹을 것들인데 팔지 못하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죠.)

107042 @ 음, 게니까 그냥 갈아 어펑 내부는 거 아니?(음, 그러니까 그냥 갈아 엎어 내버리는 거 아니?)

107042 #1 경도 허고마씨.(그렇게도 하고요.)

107042 #2 무수 하영 가는 딘게 가격 엇으믄 갈아 어펴불곡게, ᄉᆞ뭇.(무 많이 가는 데는 가격 없으면 갈아 엎어버리고, 사뭇.)

107042 #1 옛날엔 그거 소곱에 무시거 든덴 헙니까, ᄇᆞ름 ᄇᆞ름 든덴 허지예?(옛날에는 그거 속에 뭐 든다고 합니까, 바람 바람 든다고 하지요?)

107042 #2 예.(예.)

107042 #1 그거 동지 사믄 곳아마씨, 곳이믄.(그거 장다리 서면 곱아요, 곱으면.)

107042 #2 게난 양. 봄 나근에 늦도로 내불엉은양 그 소곱에 고사근에양 고망뽕뽕뽕 뚤라졍.(그러니까. 봄 돼서 늦도록 내버려서 그 속에 곱으면 구멍 뽕뽕뽕 뚫려서.)

107042 #1 겐디 요샌 경 안 허는 거 닮기도 허고예. 겐디 봄 뒈민 걸 다 메어 가지고 보관을 잘 허믄 경 안 허는디. 놈삐 그냥 놔뒀다가 곧 메엉 싯지 말앙 섭만 깍아뒁 흑 부뜬양 신문지에 그걸 쌍 그늘에 놔두면은 여름 이때꺼지도 먹어집니다.(그런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봄 되면 그걸 다 매어 가지고 보관을 잘하면 그렇게 안 하는데. 무 그냥 놔뒀다가 곧 매어서 씻지 말아서 잎만 깎아두어서 흙 붙은 채로 신문지에 그걸 싸서 그늘에 놔두면은 여름 이때까지도 먹을 수 있습니다.)

107042 @ 아.(아.)

107042 #. 나신디 잇수다.(나한테 있습니다.)

107042 #2 저장 창고에 놔두난예, 저장 창고에 놔두난 이제도 메누리, 멧 개 메어당 저장 창고에 놔두켄 헨 게 메어당 놔두난양 이제도.(저장 창고에 놔두니까, 저장 창고에 놔두니까 지금도 며느리, 몇 개 매어다가 저장 창고에 놔두겠다고 하던데 매어다가 놔두니까 지금도.)

107042 @ 아, 소들지 안 허게 허고.(아, 시들지 않게 하고.)

107042 #1 예, 그늘에 놔두민, 그냥은 놔두민 다 소들아불지만 신문지에 영 쌍 놔두민 보관됩니다.(예, 그늘에 놔두면, 그냥은 놔두면 다 시들어 버리지만 신문지

에 이렇게 싸서 놔두면 보관됩니다.)

107042 #2 신문지 안 싸도양 나도 두어 개 싯언에 냉장고에 놔두난예 아무충도 안 헤십니다.(신문지 안 싸도 나도 두어 개 씻어서 냉장고에 놔두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107042 @ 습기를 제거허는 거 닮은게예, 신문지 같은 걸로 싸 노면예.(습기를 제거하는 것 같은데요, 신문지 같은 것으로 싸 놓으면요.)

107042 #2 어떵 아니헤선게. 신문지 안 싼 허여도. 자꾸 올지 안 허는 우리 창고에 신 냉장곤예, 자꾸 올질 안 헙주게. 부엌에 신 냉장고는 아침 저녁 열어도.(어떻게 안 했던데. 신문지 안 싸서 해도. 자꾸 열지 않는 우리 창고에 있는 냉장고는, 자꾸 열지를 않습니다. 부엌에 있는 냉장고는 아침 저녁 열어도.)

107042 #1 햇빗만 안 들어가도.(햇빛만 안 들어가도.)

107042 #2 예. 창고에 신 냉장고는예, 열질 안 허난.(예. 창고에 있는 냉장고는요, 열지를 않으니까.)

107042 #1 그거 신문지에 쌍 놔두믄.(그거 신문지에 싸서 놔두면.)

107042 #2 이 무우는 자꾸 올앗다 더껏다 아니허난양 어떵 안 허여마씨. 김치도 그런 디 논 거는 경 빨리 안 쉬어.(이 무는 자꾸 열었다 닫았다 안 하니까 어떻게 안 해요. 김치도 그던 데 놓은 것은 그렇게 빨리 안 쉬어.)

107043 @ 파김치는 어떵 만듭니까, 파김치?(파김치는 어떻게 만듭니까, 파김치?)

107043 #2 파김친 그냥 파김친양, 셍강도 마늘도 안 놉니다. 그냥 고추가루허고 액젓만 놔근에 버무령, 파난예 마늘 ᄀᆞ뜬 거 놀 필요가 엇어마씨.(파김치는 그냥 파김치는, 생강도 마늘도 안 놓습니다. 그냥 고춧가루하고 액젓만 놓아서 버무려서, 파놓고 마늘 같은 거 놓을 필요가 없어요.)

107043 @ 액젓하고 고춧가루.(액젓하고 고춧가루.)

107043 #2 예.(예.)

107043 @ 딱 두 가지?(딱 두 가지?)

107043 #2 예. 경 허영 담읍니다게.(예. 그렇게 해서 담급니다.)

107043 @ 건 언제 담아, 언제 담앙 먹읍니까?(그건 언제 담가, 언제 담가 먹습니까?)

107043 #2 겨울에 쪽파 헐 때마씨.(겨울에 쪽파 할 때요.)

107043 @ 쪽파 헐 때에, 음.(쪽파 할 때에, 음.)

107043 #2 쪽파도 세기 전이 헤사 헙니다. 봄 뒈기 전에 담아야주, 세어불민양 질겨마씨.(쪽파도 쇠기 전에 해야 합니다. 봄 되기 전에 담가야지, 쇠어 버리면 질겨요.)

107043 @ 곧는 게 맞수다게. 질겨불믄 안 뒈고, 하하하.(말하는 게 맞습니다. 질겨 버리면 안 되고, 하하하.)

107043 #2 경 허연에 담앗수게.(그렇게 해서 담갔습니다.)

107043 @ 음.(음.)

107043 #2 옛날은 음식도 잘 헌덴 허영 잔치집이 강 날고라만 훼도 무치라 뭐도 허라 혀영 들구 헤나신디 이젠양 아무것도 못 허쿠다.(옛날은 음식도 잘 한다고 해서 잔칫집에 가서 나보고만 회도 무쳐라 뭐도 해라 해서 계속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 것도 못하겠어요.)

107043 #1 게난 이런 때 ᄀᆞ튼 땐 아주머니가 아이 먹어도 옛날 헤 난 거라든지 뚠 사름 먹는 거라든지 김치 종류는 다 ᄀᆞᆯ아줍서.(그러니까 이런 때 같은 때에는 아주머니가 안 먹어도 옛날 했던 거라든지 다른 사람 먹는 거라든지 김치 종류는 다 말해주십시오.)

107043 #2 아이고 옛날은, 옛날엔 음식 잘 헌데 헤나신디.(아이고 옛날은, 옛날에는 음식 잘 한다고 했었는데.)

107043 #1 혼자 특별헌 거만 말앙, 뚠 거.(혼자 특별한 것만 말고, 다른 거.)

107043 @ 꿩마농으로도 뭐 김치 담간 먹엇수가?(달래로도 뭐 김치 담가서 먹었습니까?)

107043 #2 우린 꿩마농으론 안 헤봣수다.(우리는 달래로는 안 해봤습니다.)

107043 @ 안 헤봣수가?(안 해봤습니까?)

107043 #2 안 헤봣수다, 꿩마농도 어디 강 캐어와야 뒈난.(안 해봤습니다, 달래도 어디 가서 캐와야 되니까.)

107043 @ 그렇지, 어디 강 캐어와야 뒈는 거예.(그렇지, 어디 가서 캐와야 되는 거요.)

107043 #2 예. 거고예, 웃드리 닮질 안 허영 여긴 하질 안 헙니다. 저 웃드리레 가민양 그 꿩마농도 합니다게, 경헌디 이렌 경 하질 안 허여마씨.(예. 그리고, 웃드르 같지를 않아서 여긴 하지를 않습니다.)

107045 @ 하하하, 게니까. 김치 지금 먹는 거 말앙 옛날에 먹엇던 김치도 다.(하하하, 그러니까. 김치 지금 먹는 거 말고 옛날에 먹었던 김치도 다.)

107045 #1 예.(예.)

107045 #2 아이 그런 것벳기 더 안 헤낫수다. 물김치 허영은에 양념 안 허여근에.(아이 그런 것밖에 더 안 했었어요. 물김치 해서 양념 안 해서.)

107045 #1 갓김치. 저.(갓김치. 저.)

107045 #2 갓김친, 갓 어디 셩 담아낫수가게. 갓이 어디 셩.(갓김치는, 갓 어디 있어서 담갔습니까. 갓이 어디 있어서.)

107045 #1 저 뭣고, 갯나물김치.(저 뭐냐, 갓김치.)

107045 #2 게메, 그건 우린양 겟ᄂᆞᆯ 갈지 안 허난. 백김치 헹 배추에 거 무시 것고,베추에 양념 안 허영은에양 그냥 셍강 마늘 허영은에 무시거 험벅에 싸근에양 국물에 뭐엔 헙니까 아이고 이젠 잊어불엇져. 파인애플? 아니 아니, 파인애플이 아니고 하이고 옛날 헤나난 멧 년 전이 헤 난 것도 잊어불어신게. 그거 허곡, 배 허영 예, 갈아근에 저 영 헤근양 뭣에 쌍 즙 짜곡.(그러니까, 그건 우린 갓 갈지 않으니

까. 백김치 해서 배추에 뭐지, 배추에 양념 안 해서 그냥 생각 마늘 해서 뭐지 헝겊에 싸서 국물에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이젠 잊어버렸네. 파인애플? 아니 아니, 파인애플이 아니고 아이고 옛날 해나니까 몇 년 전에 했던 것도 잊어버렸네. 그거 하고, 배 해서 갈아서 저 이렇게 해서 뭐에 싸서 즙 짜고.)

107045 @ 음, 즙 짜고.(음, 즙 짜고.)

107045 #2 이제 소금물 허영양 소금물러레 아, 사이다 ᄒᆞ끔 사단 놓으믄 소금물이 ᄒᆞ끔 쫍지롱허믄 그거 사다놩 허믄 간이 맞읍주게. 경허믄 베추 거기 배 하나 까깡양 갈앙도 놓곡 영영 썰어근에양 같이 놔근에 허영 놔두민 백김치도 경 여름에 맛좋덴도 허영양 먹읍디다게. 겐디 이젠 안 허난 다 잊어불언 모르컨게. 호호호.(이제 소금물 해서 소금물에 아, 사이다 조금 사다가 놓으면 소금물이 조금 짭짜래하면 그거 사다 놓아서 하면 간이 맞습니다. 그러면 배추 거기 배 하나 깎아서 갈아서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썰어서 같이 놓아서 해서 놓아두면 백김치도 그렇게 여름에 맛좋다고 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젠 안 하니까 다 잊어버렸어 모르겠네. 호호호.)

젓갈

107048 @ 음. 자연냉장고난 그렇게 뒈는구나, 자연냉장고난. 그 젓갈 만드는 건, 젓갈 좀 만들어봣수가, 젓갈 어떵 만듭니까?(음. 자연냉장고니까 그렇게 뒈는구나, 자연냉장고니까. 그 젓갈 만드는 건, 젓갈 좀 만들어봤습니까, 젓갈 어떻게 만듭니까?)

107048 #2 젓갈사 옛날 자리젓.(젓갈이야 옛날 자리젓.)

107048 #1 자리젓, 멜첫.(자리젓, 멸치젓.)

107048 @ 멜첫예.(멸치젓요.)

107048 #1 주로 그겁주게, 여기서는.(주로 그겁니다, 여기에서는.)

107049 #2 경헌디 담긴 헤나신디 이젠양 자리 얼마허믄 소금 얼마 놓는 것도 다 잊어불언 모르쿠다게.(그런데 담긴 했었는데 이제는 자리 얼마하면 소금 얼마 놓는 것도 다 잊어버려서 모르겠습니다.)

107049 @ 음.(음.)

107049 #2 셍각이 나질 안 허여.(생각이 나질 않아.)

107049 @ 자리젓.(자리젓.)

107049 #1 전이는 집집마다 자리를 헤 가지고 자리 그 흔 말이라면 그 뒈로 흔 말이디든지 대승 석 뒈를 헤야 그 자리로 겨울내낭 ᄀᆞ슬내낭.(전에는 집집마다 자리를 해 가지고 자리 그 한 말이라면 그 되로 한 말이 되든지 대강 석 되를 해야 그 자리로 겨울내내 가을내내.)

107049 #2 반찬을 허여.(반찬을 해.)

107049 #1 반찬을 허여마씨. 밥 반찬이라든지 겨울에라든지 자리를 많이 헤십주.(반찬을 해요. 밥 반찬이라든지 겨울에라든지 자리를 많이 했습니다.)

107049 @ 자리 반찬으로예.(자리 반찬으로요.)

107049 #2 자리 반찬덜은 이 잘덜 헤나신디.(자리 반찬들은 잘들 했었는데.)

107049 #1 젓으로 그대로 국도 끌려 먹고 뚜로 그런 식으로도 먹고, 그대로 셍으로 놀 거로다 먹고.(젓으로 그대로 국도 끓여 먹고 따로 그런 식으로도 먹고, 그대로 생으로 날 거로다 먹고.)

107049 #2 놀 거로도 먹고.(날 거로도 먹고.)

107049 @ 놀거론 금방 들어온 땐 놀 거로 먹고.(날 거로는 금방 들어온 때는 날 거로 먹고.)

107049 #1 예.(예.)

107049 #2 아니, 젓 담앙 놀 거로 먹엇수다게.(아니, 젓 담가서 날 거로 먹었습니다.)

107049 @ 게 맞수다, 젓 담앙.(맞습니다, 젓 담가서.)

107049 #1 놀 거로 먹고, 그때.(날 거로 먹고, 그때.)

107049 #2 게난 그때 자리, 자리 혼 말허믄 소금 대승 혼 뒈 놔낫수가? 거 나 모르쿠다게, 잊어불언.(그러니까 그때 잘리, 자리 한 말하면 소금 대강 한 되 놓았습니까? 거 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

107049 @ 혼 두어 뭰. 음, 자리 혼 말이믄 넉 뒈예?(한 두어 되는. 음, 자리 한 말이면 넉 되요?)

107049 #2 예.(예.)

107049 @ 뒈로 넉 뒈.(되로 넉 되.)

107049 #2 게난 소금을 얼마나 놔난 걸 모르컨게.(그러니까 소금을 얼마나 놓았던 걸 모르겠네요.)

107049 #1 봄내낭 자리젓을 헤 가지고 단지에 두믄 버렝이만 안 들믄 걸로 밥반찬을 헤 나십주.(봄내내 자리젓을 해 가지고 단지에 두면 벌레만 안 들면 그걸로 밥반찬을 했었습니다.)

107050 @ 멜첫은 어떤 식으로 헷수가?(멸치젓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107050 #2 멜젓도 마찬가지마씨, 자리젓 담듯.(멸치젓도 마찬가지요, 자리젓 담듯.)

107050 #1 멜첫도 역시 멜 놩 소금에 버무리민, 알맞게 버무령 놔두민 것이 멜첫입주.(멸치젓도 역시 멸치 놓아서 소금에 버무리면, 알맞게 버무려서 놔두면 그것이 멸치젓입니다.)

107050 @ 보관은 어떵 헙니까?(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107050 #1 보관도 마찬가지고 단지에 놔근에.(보관도 마찬가지고 단지에 놓아서.)

107050 #2 단지에 놔근에, 뒤에.(단지에 놓아서, 뒤에.)

107050 #1 버렝이 안 먹게.(벌레 안 먹게.)

107050 #2 영 선선허게 놉주.(이렇게 선선하게 놓습니다.)

107050 #1 놩.(놓아서.)
107050 #2 경 양 이제ᄀᆞ찌 놀 디 엇고 허난예, 딴 딘 안 놔난, 놀 디가 셔 낫수가게.(그렇게 이제까지 놓을 데 없고 하니까요, 다른 데는 안 놓아 노니까, 놀 데가 있었습니까.)
107050 #1 버렝이 일지 안 허게 험벅으로 영 딱 무껑.(벌레 일지 않게 헝겊으로 이렇게 딱 묶어서.)
107050 #2 딱 쳐 메여근에.(딱 쳐 매어서.)
107050 @ 게난 항, 어디 항 이신디 강은에.(그러니까 항아리, 어디 항아리 있는데 가서.)
107050 #2 벳 안 난 디예, 벳 안 난 디 강 놩 놔 두믄.(볕 안 나는 데에, 볕 안 나는 데 가서 놓아두면.)
107050 @ 게난 것도 멜첫도 담는 시기가 잇수가?(그러니까 그것도 멸치젓도 담는 시기가 있습니까?)
107050 #2 멜 날 때마씨게.(멸치 날 때요.)
107050 @ 여름에?(여름에?)
107050 #1 요즘도 뒈고게, 가을에도 뒈곡 허는디, 멜 날 때마씨.(요즘도 되고, 가을에도 되고 하는데, 멸치 날 때요.)
107050 #2 멜 날 때.(멸치 날 때.)
107050 @ 여름철이 하영 나는 거 아니예?(여름철에 많이 나는 것 아니에요?)
107050 #1 예, 그것이.(예, 그것이.)
107050 #2 자리젓은 이제 여름에.(자리젓은 이제 여름에.)
107050 #1 자리젓도 그자 자리 들 때만 허믄 뭡니다.(자리젓도 그저 자리 들 때만 하면 됩니다.)
107050 @ 음, 그니까 그것도 여름철?(음, 그러니까 그것도 여름철?)
107050 #1 예. 자리 경 허주만은 멜은 봄에도 나오곡 허는 거난.(예. 자리 그렇게 하지마는 멸치는 봄에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107050 @ 아, 멜은.(아, 멸치는.)
107050 #1 봄이도 담을 수 잇고,(봄에도 담을 수 있고.)
107053 #2 게난 자리젓은 이제 자리 날 때난 이제 담으믄 또 새 자리 날도록은 먹어집니다.(그러니까 자리젓은 이제 자리 날 때니까 이제 담그면 또 새 자리 나도록 먹을 수 있습니다.)
107053 @ 요새 자리 폴레 옵니까?(요새 자리 팔러 옵니까?)
107053 #1 예, 매일 뎅입니다.(예, 매일 다닙니다.)
107053 @ 아.(아.)
107053 #2 매날 옵니다.(맨날 옵니다.)
107053 @ 매날 뎅깁디가?(맨날 다닙니까?)
107053 #2 매날 뎅겨.(맨날 다녀.)

107053 @ 아, 요새 자리 하영 나는구나예? 하하하.(아, 요새 자리 많이 나는구나? 하하하.)

107053 #2 게도 그게 모슬포 자리엔 헙디다예. 여기 비양도에서 뜬 자리가 옛날은 막 맛좋덴 허영 젓도 담으믄 맛좋곡 꽝도 부드럽곡예, 경허영 허영 이 비양도 거기선 헌디, 이젠예 거기서 자리 뜨는 베가 엇어마씨. 게난 모슬포 자리는예 크기는 헌디 꽝이 쎄어.(그래도 그게 모슬포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 비양도에서 뜬 자리가 옛날은 아주 맛좋다고 해서 젓도 담그면 맛좋고 뼈도 부드럽고요, 그래서 해서 이 비양도 거기에서는 하는데, 이제는 거기에서 자리 뜨는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슬포 자리는 크기는 한데 뼈가 세.)

107053 @ 꽝 쎄어.(뼈 세.)

107053 #2 예, 경 헤부난양 할망덜은 사근에 옛날은 보깡 먹으멍 복삭복삭허게 먹어신디 이제는 경 못 헤부난양 할망덜 사질 안 헴수게게.(예, 그렇게 해서 할머니들은 사서 옛날은 볶아서 먹으면서 복삭복삭하게 먹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해서 할머니들 사지를 않습니다.)

107053 @ 꽝 쎄언에 못 먹을 거우다게. 우리도 그거 씹젠 허믄 너무 쎄어. 궈먹어도 너무 쎄어. 하하하.(뼈 세서 못 먹을 겁니다. 우리도 그거 씹으려고 하면 너무 세. 구워서 먹어도 너무 세. 하하하.)

107053 #2 경 허난 모슬포 자리가 꽝이 쎄어마씨. 이 비양도 자리, 비양도 옆에서 뜨는 건예, 꽝도 부르럽곡 맛좋덴 헤나신디 이디선 안 헴수게, 경 헤부난.(그러니까 모슬포 자리가 뼈가 세요. 이 비양도 자리, 비양도 옆에서 뜨는 건요, 뼈도 부드럽고 맛좋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7053 @ 그건 소문낫수다게, 모슬포 자리 꽝 쌔덴 헌 거는. 그 뭐 다른 젓은 담아 본 거 엇수가?(그건 소문났습니다. 모슬포 자리 뼈 세다고 한 것은. 그 뭐 다른 젓은 담가 본 것 없습니까?)

107053 #2 다른 젓은 무슨거, 난 몰르쿠다.(다른 젓은 뭐, 난 모르겠습니다.)

107053 #1 다른 젓은 준 갈치로, 준 갈치.(다른 젓은 잔 갈치로, 잔 갈치.)

107053 #2 아니, 준 갈치로도 아니 헤봣수다. 난 자리젓이나 멜첫허고, 친정이서사 뭣을 헤봣수가게, 어린 때 나간, 열일곱에 나간게 육지로 간 뎅기멍 허난게 아무것도 안 헤봣주기게. 물 흔 허벅 안 져봔 이디 오란 물 졍 오젠 허난 ᄉᆞ뭇 오죽 고생헷수가게. 물 둥가놀 충 몰란. 이제 이제 그 ○○ 웨할망 골목에 살 때양 몰란에, 그디 강 비왓젠 물 강 져오렌 헨 가난 물 둥가놓지 못헨 박세기로 질엄시난 그 할망 그디 사둠서 아이고 야이야, 그거 어떵허영 경 헐디 허멍 시 번 들러줭 항에 오랑 비울 때 우리 신랑이 그거 항에 비와주곡.(아니, 잔 갈치로도 안 해봤습니다. 난 자리젓이나 멸치젓하고, 친정에서야 무엇을 해봤습니까, 어린 때 나가서, 열일곱에 나간게 육지로 가서 다니면서 하니까 아무 것도 안 해봤지. 물 한 허벅 안 져보고 여기 와서 물 져서 오려고 하니까 사뭇 오죽 고생했습니까. 물 담가 놓을 줄 몰랐어. 이제 이제 그 ○○ 외할머니 골목에 살 때 몰라서, 거기 가서 비왔다고 물 가서

져오라고 해서 가니까 물 담가놓지 못해서 바가지로 깃고 있으니까 그 할머니 거기서서 아이고 이 아이야, 그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거냐 하면서 세 번 들어줘서 항아리에 와서 비울 때 우리 신랑이 그거 항아리에 비워주고.)

107053 @ 음.(음.)

107053 #2 우리 어머닌예 물도 흔 번 져오렌 아니허곡예, 밧디도 흔 번도 안 가나신디 이디 오란예 일 베왕 허젠 허난 아이고 잘도 고셍헷수다.(우리 어머니는 물도 한 번 져오라고 안 하고, 밭에도 한 번도 안 갔었는데 여기 와서 일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아이고 매우 고생했습니다.)

107053 @ 그 거난 젓은 두 가지네예? 바닷가에 보믄 게우젓도 담아 먹고 허는디예.(그 그러니까 젓은 두 가지네요? 바닷가에 보면 게우젓도 담가 먹고 하는데요.)

107053 #1 겐디 여긴 그자 멜첫허고.(그런데 여기는 그저 멸치젓하고.)

107053 #2 멜첫, 자리젓 담곡 그때 젊으난 깅이 강 잡아당 깅이젓.(멸치젓, 자리젓 담그고 그때 젊으니까 게 가서 잡아다가 게젓.)

107053 @ 아, 깅이젓, 깅이젓은 헷구나예.(아, 게젓, 게젓은 했구나.)

107053 #2 예, 잡아당 홁은 거는예, 죽 쒕도 먹곡, 그 준 건 뚜시 깅이젓 담앙예, 그거 진짜 맛좋아나신디.(예, 잡아다가 굵은 것은요, 죽 쒀서도 먹고, 그 잔 것은 다시 게젓 담가서, 그거 진짜 맛좋았었는데.)

107053 @ 음, 깅이젓.(음, 게젓.)

107053 #2 예, 바당에 갓다온 지가 멧 십년.(예, 바다에 갔다 온 지가 몇 십년.)

107053 @ 깅이 보깡도 먹고예?(게 볶아서도 먹고요?)

107053 #2 예.(예.)

107053 @ 깅이는 여러 가지로 맛좋게 먹엇수다게.(게는 여러 가지로 맛좋게 먹었습니다.)

107053 #2 깅이 맛좋아낫수다.(게 맛좋았습니다.)

107054 @ 뽀독뽀독 씹으멍. 그 여기도 뭐 반찬을 뭐 출레엔 헙니까, 출레, 출레는 뭐 어떤 거를 출레엔 허는 거우꽈?(뽀독뽀독 씹으면서. 그 여기도 뭐 반찬을 뭐 '출레'라고 합니까, '출레', '출레'는 뭐 어떤 것을 '출레'라고 하는 겁니까?)

107054 #2 호호호, 반찬고라 출레엔 허주게.(호호호, 반찬보고 '출레'라고 하지.)

107054 @ 반찬고라?(반찬보고?)

107054 #1 예.(예.)

107054 @ 게난 다 문딱 다 출레엔 허진 안 허잖아예?(그러니까 모두 다 '출레'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107054 #1 예, 멜젓고라도 출레헌 허고, 자리젓도 출레엔 허고.(예, 멸치보고도 '출레'라고 하고, 자리젓도 '출레'라고 하고.)

107054 @ 그런 걸 출레엔 허고예.(그런 걸 '출레'라고 하고요.)

107054 #2 옛날 할당덜 말은예, 우린 이제 반찬이엔 헤도 옛날 할망덜은 출레,

출레,(옛날 할머니들 말은, 우린 이제 반찬이라고 해도 옛날 할머니들은 '출레', '출레'.)

107054 @ 게난 출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찬으로 늘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믄 뭐 젓인가?(그러니까 '출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찬으로 늘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면 뭐 젓인가?)

107054 #1 젓덜입주. 젓 종류는 다 출레엔.(젓들입니다. 젓 종류는 다 '출레'라고.)

107054 #2 젓이나 허고양, 저 무시것고 뒌장에 양념허영은에 이 여름철에는 고추나 경 안 허믄 상추나예, 콩입, 콩입은 ᄐᆞ다다근에 멜젓에 먹곡, 깻입 ᄀᆞ뜬 거는 뒌장에양 밥 쌍 먹곡, 옛날은 경 헤낫수게게.(젓이나 하고, 저 뭐냐 된장에 양념해서 이 여름철에는 고추가 그렇지 않으면 상추나, 콩잎, 콩잎은 뜯어서 멸치젓에 먹고, 깻잎 같은 것은 된장에 밥 싸서 먹고, 옛날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107054 #1 이제도 경 헴수다게.(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7054 #2 반찬이 경 엇입니다게. 옛날이사 경 셔낫수가게?(반찬이 그렇게 없습니다. 옛날이야 그렇게 있었습니까?)

107054 @ 게난 젓갈 종류로 봐야 뒈겟네예, 젓갈 종류로, 출레는.(그러니까 젓갈 종류로 봐야 되겠네요, 젓갈 종류로, 출레는.)

107054 #2 이제도 콩입은 멜젓에 먹어집니께. 난 우리 마당에 난양 콩입 좋아허난 해년마다 그거 싱거근에 ᄐᆞ당 먹어 집니다.(지금도 콩잎은 멸치젓에 먹습니다. 난 우리 마당에 난 콩잎 좋아하니까 해마다 그거 심어서 뜯어서 먹습니다.)

107054 #1 우리도 깻입 ᄐᆞ당 먹젠 천 원어치 사당 심어신디 문딱 죽어불언.(우리도 깻잎 뜯어서 먹으려고 천 원어치 사다가 심었는데 모두 죽어 버렸어.)

107054 #2 기우꽈. 아 이제 우리도 작년인 막 하영 헤낫수게게. 경 헌디 그디 쪼깐 싱거부난게 하영 안 허연 ᄒᆞᆫ 멧 낭 싱거도게 돋아남수다. ᄒᆞ끔 ᄐᆞ다당 안네카?(그래요. 아 이제 우리도 작년에는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금 심어 버리니까 많이 안 해서 한 몇 나무 심어도 돋아나고 있습니다. 조금 뜯어다가 드릴까요?)

107054 #1 고맙수다. 하하하.(고맙습니다. 하하하.)

장아찌와 회

107056 @ 하하하. 장아찌는 뭐 어떵 만들앗수가?(하하하. 장아찌는 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7056 #2 장아찌사 이제는 장아찌렌 헤도 이제는 마농지, 마농 나근에 ᄒᆞ끔 연ᄒᆞᆫ 때에 허여당은에 간장에 허영 담곡 헤낫수게게.(마늘장아찌야 이제는 마늘장아찌라고 해도 이제는 마늘장아찌, 마늘 놓아서 조금 연한 때에 해다가 간장에 해서 담그고 했었습니다.)

107056 #1 건 장 ᄒᆞ끔 꿰왕 식영 헤 나십주.(그건 장 조금 끓여서 식혀서 했었

습니다.)

107056 #2 예게, 장 팔팔 끌영예, 끌여근에. 식형 놔근에 담그는 거, 요만헌 단지에 허여근에 그레 비왕.(예, 장 팔팔 끓여서, 끓여서, 식혀 놓아서 담그는 거, 요만한 단지에 해서 거기에 비워서.)

107056 @ 마농지 말앙 지 만드는 것이 따로 잇지 안 허우꽈? 무슨 뭐, 저 요즘 오이 같은 것도 오이지도 만들고.(마늘장아찌 말고 장아찌 만드는 것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저 요즘 오이 같은 것도 오이지도 만들고.)

107056 #2 하이고, 오이지 ᄀᆞ뜬 것덜은 안 멘들아집니다.(아이고, 오이지 같은 것들은 안 만들어집니다.)

107056 @ 음, 거 양엣간으로도 지 만듭니까?(음, 그거 '양엣간[230]'으로도 장아찌 만듭니까?)

107056 #2 양엣간도 지 만들지 안 허영, 제사 때에나 허주. 아니 헤집니다.(양엣간도 장아찌 만들지 않아서, 제사 때에나 하지. 안 합니다.)

107056 @ 올리곡. 음 게난 해산물 같은 거 뭐 다른 건 지 만들아난 건 엇수가?(올리고. 음 그러니까 해산물 같은 거 뭐 다른 건 장아찌 만들었던 것은 없습니까?)

107056 #2 예, 안 멘들아봣수다.(예, 안 만들어 봤습니다.)

107056 @ 마농진 어떤 식으로 담앗수가?(마늘장아찌는 어떤 식으로 담갔습니까?)

107056 #2 마농지는 그거 마늘 그냥 썰어근에게 간장 끌영 어디 통에 담아근에게 식영은에게 그레 영 담는 거고게, 허는 거난.(마늘장아찌는 그거 마늘 그냥 썰어서 간장 끓여서 어디 통에 담아서 식혀서 거기에 이렇게 담그는 거고, 하는 거니까.)

107056 @ 그 마농지는 그 마농, 그 쪽마늘로 담근 거랑, 마늘, 마늘대로 담근 거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잇수가?(그 마늘장아찌는 그 마늘, 그 쪽마늘로 담근 거랑, 마늘, 마늘대로 담근 거랑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습니까?)

107056 #2 마농, 마농대로 담은 거는 마농지[231]엔 허고, 이제 또 그 뿌리로 담은 것도 그거는 옛날엔 뭣이엔사 골아신지 모르켜. 이젠 장아찌엔 허영예, 마농 뿌리로.(마늘, 마늘대로 담근 것은 '마농지'라고 하고, 이제 또 그 뿌리로 담근 것도 그건 옛날에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 이젠 장아찌라고 해서요, 마늘 뿌리로.)

107056 @ 그니까 마늘 쪽, 쪽마늘예, 쪽마늘로 담은 거는 마늘장아찌?(그러니까 마늘 쪽, 쪽마늘요, 쪽마늘로 담근 것은 마늘장아찌?)

107056 #2 예, 예.(예, 예.)

107056 #1 예.(예.)

107056 @ 마늘지는 그 마늘대로?(마늘장아찌는 그 마늘대로?)

107056 #2 저 영 대로, 마늘대로예, 연헌 때에 담은 거.(저 이렇게 대로, 마늘대

230) '양엣간'은 양하의 땅속 줄기에서 솟아나는, 죽순(竹筍) 비슷한 꽃 이삭을 말한다.
231) '마농지'는 여기서 제보자가 과거 마늘 줄기를 잘라서 담근 지를 말한다.

로요, 연한 때에 담그는 거.)
107056 @ 게난 그것이 마농지?(그러니까 그것이 마늘장아찌?)
107056 #2 예.(예.)
107056 @ 그것이 마농지?(그것이 마늘장아찌?)
107056 #2 예, 예.(예, 예.)
107056 @ 그것이 마농지구나. 그런 차이가 잇네예, 음, 게난 대부분 옛날은 마늘대로 만들엇지예, 마늘대.(그것이 마늘장아찌구나. 그런 차이가 있네요, 음, 그러니까 대부분 옛날은 마늘대로 만들었지요, 마늘대.)
107056 #2 예.(예.)
107056 @ 쪽마늘 가졍 마농지 만든 건 아니고?(쪽마늘 가지고 마늘장아찌 만든 건 아니고.)
107056 #1 쫑으로도 만들엇수다.(쫑으로도 만들었습니다.)
107056 @ 옛날에도.(옛날에도.)
107056 #1 마늘 허는디 그거 쫑은 이중 역할을 헙주게. 그거 저 짤랑 쫑을 빠불면은.(마늘 하는데 그거 쫑은 이중 역할을 합니다. 그거 저 잘라서 쫑을 빼버리면.)
107056 @ 음.(음.)
107056 @ 불리가 굵어져마씨. 굵어지기 위헤서 쫑을 자르는 것이고, 잘른 것을 놔근에 지를 만드는 겁주게.(뿌리가 굵어져요. 굵어지기 위해서 쫑을 자르는 것이고, 자른 것을 놓아서 장아찌를 만드는 겁니다.)
107056 @ 아 그거는 마늘 속에 마늘, 쪽마늘이 마늘 알이 아니고마씨? 마늘쪽이렌 허는 말이 어떤 걸 말허는 거우꽈?(아 그거는 마늘 속에 마늘, 쪽마늘이 마늘 알이 아니고요? 마늘쪽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107056 #1 쫑이라는 건 그저 사월 하순쯤 뒈믄 마늘 다 자라믄 우로 쫑이 나와 가니까, 그걸.(쫑이라는 건 그저 사월 하순쯤 되면 마늘 다 자라면 위로 쫑이 나와 가니까, 그걸.)
107056 @ 아, 마늘쫑, 우에 꺼.(아, 마늘종, 위에 거.)
107056 #1 예, 쫑 나오게 뒈믄 것도 꼿 ᄀᆞ찌 발아가 뒈는 겁주게. 게난 쪽을 끈어 가지고, 쫑은 그 이 넌 이상 싱거야 마늘이 더 굵어지곡 병충해도 강호곡 헙주게.(예, 쫑 나오게 되면 그것도 꽃 같이 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을 끊어 가지고, 쫑은 그 이 년 이상 심어야 마늘이 더 굵어지고 병충해도 강하고 합니다.)
107056 @ 마늘짱아찌, 마늘쫑도 짱아찌 담앙 먹어 봅디가? 난 마늘쪽으로만.(마늘장아찌, 마늘종도 장아찌 담가 먹어 봤습니까? 난 마늘쪽으로만.)
107056 #1 쫑으로도 담앗수다. 우리집 할망 허는 거 보믄, 그거 ᄀᆞ졍.(쫑으로도 담갔습니다. 우리집 할머니 하는 거 보면, 그거 가지고.)
107056 #2 아니라마씨,(아니에요.)
107056 #1 그거 허영.(그거 해서.)
107056 @ 그거는 그거만 뽑앙?(그건 그것만 뽑아서?)

107056 #1 예.(예.)
107056 @ 그거만 강 뽑아부는 거?(그것만 가서 뽑아버리는 거?)
107056 #1 예. 뽑으나 게 아니믄.(예. 뽑으나 그렇지 않으면.)
107056 #2 그거 뽑아사 마늘 불리가 큽니께, 그거 잘라부난.(그거 뽑아야 마늘 뿌리가 큽니다, 그거 잘라 버리니까.)
107056 @ 아, 뽑아불어야 위로 안 자라니까, 안 올라와근에.(아, 뽑아 버려야 위로 안 자라니까, 안 올라와서.)
107056 #2 마늘쫑을 안 잘르믄예, 마늘 불리가 안 커마씨.(마늘종을 안 자르면, 마늘 뿌리가 안 커요.)
107056 #1 작아마씨.(작아요.)
107056 @ 그렇지, 그런 이유가 잇네. 그것도 빼당 먹는다?(그렇지, 그런 이유가 있네. 그것도 빼다가 먹는다?)
107056 #1 예.(예.)
107056 @ 그 아래 것도 마늘지 하고.(그 아래 것도 마늘지 하고.)
107056 #1 예.(예.)
107056 @ 그것도 빼당 먹는구나, 음, 겐 마늘지 허는 건 언제 마늘지 헙니까?(그것도 빼다가 먹는구나, 음, 그래서 마늘지 하는 건 언제 마늘지 합니까?)
107056 #2 마늘지양 그 쫑 나오기 전에.(마늘지 그 쫑 나오기 전에.)
107056 #1 절기상으로는 흔 오월달에.(절기상으로는 한 오월달에.)
107056 #2 오월 뒈기 전이 마늘지 담아사 뒈지 안 허카마씨?(오월 되기 전에 마늘지 담가야 되지 않을까요?)
107056 #1 마늘지는 오월 전에 담고, 쫑으로는 오월에 담고.(마늘지는 오월 전에 담그고, 쫑으로는 오월에 담그고.)
107056 @ 음, 마늘쫑은 그 뒤에 나오니까.(음, 마늘종은 그 뒤에 나오니까.)
107056 #1 예, 예.(예, 예.)
107056 @ 음.(음.)
107056 #1 게니까 마늘종이 나오기 전에 마농지는 담아야 헙주. 마농지는 그거 담으면은 마농이 세어.(그러니까 마늘종이 나오기 전에 마늘장아찌는 담가야 합니다. 마늘장아찌는 그거 담그면 마늘이 쇠어.)
107056 @ 음, 세어불어예.(음, 쇠어버려요.)
107056 #1 예.(예.)
107056 @ 그때는 못 허지 마농지를.(그때는 못하지 마늘장아찌를.)
107056 #1 예.(예.)
107056 @ 게난 이제 지금 허민 지금이 마농을 수확헐 때우꽈?(그러니까 이제 지금 하면 지금이 마늘을 수확할 때입니까?)
107056 #1 아이 수확이 다 끗낫수다.(아이 수확이 다 끝났습니다.)
107056 #2 다 끗난. 다 끗낫수다게, 다 판매도 다 혜신디.(다 끝났어요. 다 끝났

습니다. 다 판매도 다 했는데.)

107056 @ 유월달에 허는구나, 보통?(유월다에 하는구나, 보통?)

107056 #2 예, 예.(예, 예.)

107056 #1 그 저 파는 것은 유월, 유월달엔 건즘 수확이 끗납니다.(그 저 파는 것은 유월, 유월달에는 거의 수확이 끝납니다.)

107056 @ 끗나고?(끝나고?)

107056 #1 예, 유월달엔.(예, 유월달에는.)

107056 @ 게믄 아까 마늘쫑 나는 건 오월달에?(그러면 아까 마늘종 나는 건 오월달에?)

107056 #1 예. 오월 초순부떠 오월 중순ᄁᆞ지 납니다. 오월 중순이 넘어불민 마늘쫑이 막 커붑니다.(예. 오월 초순부터 오월 중순까지 납니다. 오월 중순이 넘어버리면 마늘쫑이 아주 커버립니다.)

107056 @ 지엔 헤수가? 지시엔 헷수가?('지'라고 했습니까? '지시'라고 했습니까?)

107056 #1 지, 지.('지', '지'.)

107056 @ 지?('지'?)

107056 #1 지, 마농지.('지', 마늘장아찌.)

107056 #2 마농지.(마늘장아찌.)

107056 @ 지시엔 허는 말은 안 들어봣수가, 지시?('지시'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봤습니까, '지시'?)

107056 #2 아니, 육지 사름덜은 마농지엔 안 허영 짱아찌엔 헙니다.(아니, 육지 사람들은 '마농지'라고 안 하고 장아찌라고 합니다.)

107056 @ 짱아찌.(장아찌.)

107056 #2 예.(예.)

107056 #1 장아찌는 거 불리 허영 까근에 담은 거고.(장아찌는 거 뿌리 해서 까서 담근 거고.)

107056 #2 불리 허영 깡, 아니, 그런 것도양 육지 사름덜은 장아찌엔 헙니다.(뿌리 해서 까서, 아니, 그런 것도 육지 사람들은 장아찌라고 합니다.)

107056 @ 맞수다게. 육지 사름덜은 다 장아찌엔 헤마씨. 지란 말은 제주도 말이고. 그 뿔리 가졍 담는 거는 별로 많지 안헷지예?(맞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다 장아찌라고 해요. '지'라는 말은 제주도 말이고. 그 뿌리 가지고 담근 것은 별로 많지 않았죠?)

107056 #2 아니, 뿔리로 담는 사람도 합니다. 또 그전에는 쫑 꺼껑양 쫑 꺼꺼근에 흔 메칠 잇이믄 뿔리가 영 갈라집니께. 게믄 그거 헤당 연헌 때엔 그냥 뿌리체 깨끗허게 뿌리 영 가위로 짤라근에 그냥 뿌리째지 안 허영.(아니, 뿌리로 담그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그전에는 쫑 꺾어서 쫑 꺾어서 한 며칠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그거 해다가 연한 때에는 그냥 뿌리째 깨끗하게 부리 이렇게

가위로 잘라서 그냥 뿌리째지 않고.)

107056 @ 뿌리체로?(뿌리째로?)

107056 #2 예. 경 허여근에예 소금물 헹은에 소금물에 또 무시거 저 ᄒᆞ끔 서꺼근에 설탕 같은 거나 무시거 ᄒᆞ끔 서껑 팔팔 끌영 식여근에 마농뿌리 그냥 당강 놔뒷당 허믄예, 그걸 아이덜이 좋아허영예 잘 갖당 먹읍니다게.(예. 그렇게 해서 소금물 해서 소금물에 또 뭐냐 저 조금 섞어서 설탕 같은 거나 뭐 조금 섞어서 팔팔 끓여서 식혀서 마늘뿌리 그냥 담가 놔뒀다가 하면요, 그걸 아이들이 좋아해서 잘 갖다가 먹습니다.)

107056 @ 게난 그거 알만 까 먹는 거 아니라예.(그러니까 그거 알만 까 먹는 거 아니라요.)

107056 #2 그걸 허여근에 먹게 뒈민 그걸 영영 째영.(그걸 해서 먹게 되면 그걸 이렇게 이렇게 째서.)

107056 @ 게니까 째기만 허믄.(그러니까 째기만 하면.)

107056 #2 연헌 때 담으난예, 연헌 때 담으믄 그냥 영 까기가 쉬와마씨.(연한 때 담그니까, 연한 때 담그면 그냥 이렇게 까기가 쉬워요.)

107056 @ 게니까.(그러니까.)

107056 #2 경 허연 먹어낫수다게. 경 헌디 이젠 ᄒᆞᆫ 멧 년 경 허단 이거 안 담은 지가 ᄒᆞᆫ 사오 년 뒙주.(그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몇 년 그렇게 하다가 이거 안 담은 지가 한 사오년 됩니다.)

107056 #1 마농지[232]허고 마농장아찌는 일년 사시로 먹읍니다. 그거 겨울에 담앙 놔뒷다가라도.('마농지'하고 마늘장아찌는 일년 사시로 먹습니다. 그거 겨울에 담가 놔뒀다가라도.)

107056 #2 일년 내낭 담앙 먹읍니께게, 그건.(일년 내내 담가 먹습니다. 그건.)

107056 #1 여름에도 먹읍니다. 우린 장아찌 사시로 먹어마씨.(여름에도 먹습니다. 우린 장아찌 사시로 먹어요.)

107056 @ 주로 영 까 먹기도 허고 썰엉 먹기도 헷지예.(주로 이렇게 까 먹기도 하고 썰어서 먹기도 했지요.)

107056 #2 예, 예.(예, 예.)

107056 @ 반으로 썰엉.(반으로 썰어서.)

107056 #2 게난 큰 거는 뿌리가 큰 거는 영 반으로 썰엉 먹곡, 뿌리가 작은 거는 그냥 떼어 먹는 겁주게.(그러니까 큰 것은 뿌리가 큰 것은 이렇게 반으로 썰어서 먹고, 뿌리가 작은 것은 그냥 떼어 먹는 겁니다.)

107056 #1 그 껍질 강 판찍 싯어놩 그걸 뚜로 장 꿰왕 장에, 사이다에 저 뭣고.(그 껍질 가서 깨끗하게 씻어 놓아서 그걸 따로 장 끓여서 장에, 사이다에 저 뭐냐.)

107056 #2 난 장에 담아보지 안 헨 하얗게, 소금물 허영양 사이다 ᄒᆞ끔 서꺼근에예, 끌여근에 그냥 마늘뿌리 다 잘라뒁 막 깨끗이 싯어근에 거 담강 놔두민양 그

232) 여기서 '마농지'는 마늘대를 잘라 지를 만든 것이고, 마늘장아찌는 마늘 뿌리로 담근 장아찌이다.

추룩 맛잇덴 허멍 잘 먹읍디다게.(난 장에 담가보지 안 하고 하얗게, 소금물 해서 사이다 조금 섞어서 끓여서 그냥 마늘 뿌리 다 잘라 두어서 아주 깨끗이 씻어서 그거 담가 놔두면 그처럼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습니다.)

107056 @ 그 저 뭣고, 소금 놓곡, 뚜로 저 사이다나 ᄒᆞ끔 놓곡, 거 뭣고, 식초, 식초 놩근에 허민 삼삼허여마씨. 삼삼허게 허영.(그 저 뭐냐, 소금 놓고, 따로 저 사이다나 조금 놓고, 그거 뭐냐, 식초, 식초 놓아서 하면 삼삼해요. 삼삼하게 해서.)

107056 #2 많이 담지 말아야 헤마씨.(많이 담그지 말아야 해요.)

107056 #1 그렇게 담으믄 일년 사시 먹읍니다게. 우리 할망 담은 거 이제도 먹엄수다게. 일년이 넘어도, 장아찌.(그렇게 담그면 일년 사시 먹습니다. 우리 할머니 담근 거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107056 @ 게난 마농 하나 가졍은에 너 가지 지가 나왐구나예?(그러니까 마늘 하나 가져서 네 가지 장아찌가 나오는구나?)

107056 #1 쫑으로도 허고, 마늘대로도 허고, 뿌리로서도 두 가지 아까 저 뭐냐 그냥 통으로도 허고.(쫑으로도 하고, 마늘대로도 하고, 뿌리로서도 두 가지 아까 저 뭐냐 그냥 통으로도 하고.)

107056 #2 그냥 통으로 담는 사름도 싯곡, 깡 담는 사름도 잇곡, 경 헙니다게.(그냥 통으로 담그는 사람도 있고, 까서 담그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107056 @ 통으로 담는 건 완전이 수확허기 전이.(통으로 담그는 건 완전히 수확하기 전에.)

107056 #2 예, 연헌 때, 쫑 거껑예 메칠 안 뒈영근에 쫑 꺼끌 때는 이 뿌리가 뭐 허질 안 허여마씨. 게난 꺼껑 메칠 안 뒌 때 연헌 때.(예, 연한 때, 쫑 꺾어서 며칠 안 되어서 쫑 꺾을 때는 이 뿌리가 뭐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꺾어서 며칠 안 된 때 연한 때.)

107056 @ 다 수확허여근에 다 깡 알멩이만 허는 것도 잇고예.(다 수확해서 다까서 알맹이만 하는 것도 있고요.)

107056 #1 알멩이만 허는 건 보통 구, 시월 나가지고 알멩이로만 헙니다. 웨 그런고 허니 여름철엔 이 아주머니 ᄀᆞ찌 마늘지나 통으로 헹은에 먹곡, 그 구 시월 날 때는 마늘 다 심어 뒁, 심어 두고 나머지 것덜은 뚜로 까 가지고 아까 곧듯이 장물허고 식초허영 헤다놔근에 빈 그릇에 그 저 장아찌 담앙 경만 허믄 뚠 건 아이 놔도 그디로 일년 내낭 먹어도 어떵도 아니허여마씨.(알맹이만 하는 건 보통 구, 시월 나가지고 알맹이로만 합니다. 왜 그런고하니 여름철에는 이 아주머니 같이 마늘지나 통으로 해서 먹고, 그 구 시월 날 때는 마늘 다 심어 두고, 심어 두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 까 가지고 아까 말하듯이 간장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해다 놓아서 빈 그릇에 저 장아지 담아서 그렇게만 하면 다른 건 안 놓아도 그대로 일년내내 먹어도 어떻지도 않아요.)

107056 @ 통으로 허는 건 통조림 허연 풀암십디다.(통으로 하는 건 통조림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107056 #2 예, 경도 헙니다.(예, 그렇게도 합니다.)

107056 @ 통조림으로.(통조림으로.)

107056 #2 경 헹도 픕니다.(그렇게 해서도 팝니다.)

107057 @ 통으로 뭰 거예. 그 훼예, 혹시 새끼훼 허연 먹어낫수가?(통으로 된 거요. 그 회요, 혹시 새끼회 해서 먹었습니까?)

107057 #1 도새기 새끼훼?(돼지 새끼회?)

107057 @ 예.(예.)

107057 #1 아, 거야 좋읍주게.(아, 그거야 좋습니다.)

107057 @ 게난 그건 어떤 식으로 멘들안 먹엇수가?(그러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만들어 먹었습니까?)

107057 #1 건 아주 쉬웁니다, 뭐. 건 도새기 새끼훼야 이제라도 새끼덜 막 프는디, 전인 먹는 식당덜 잇는데, 그건 그 새낏물이 참 시원헙니다. 시원허고 맛도 좋고. 것 그대로 새끼보체 사당, 그 봇은 칼로 막 즘질게 썰엉 놓고, 또 새끼도 역시 썰어 놩 식초허고 그 저 또 뭣고 담근장 놓고, 거곡 또 마늘 삐져 놓은 거 놓으면 그것이 다 뭰 겁주.(그건 아주 쉽습니다, 뭐. 그건 돼지 새끼회야 지금이라도 새끼들 막 파는데, 전에는 먹는 식당들 있는데, 그건 그 새낏물이 참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맛도 좋고. 그것 그대로 새끼보째 사다가, 그 태는 칼로 마구 가늘게 썰어서 놓고, 또 새끼도 역시 썰어 놓아서 식초하고 그 저 또 뭐냐 담근장 놓고, 그리고 또 마늘 빻아져 놓은 거 놓으면 그것이 다 된 겁니다.)

107057 @ 거기다 무신거 뭐 썰어 놓는 거 엇수가?(거기다 무슨 뭐 썰어 놓는 거 없습니까?)

107057 #1 식초허고, 마늘 썰어 놓고, 뜨로 저 고치가루, 뀃ᄀᆞ를 놓민, 뭐, 그게 저 새끼휀 최곱주, 뭐. 이젠 흔 만오천 원 갈거우다. 그 저 터미널 즈끗디도 그거만 전문허는 디 잇고.(식초하고, 마늘 썰어 놓고, 따로 저 고춧가루, 깻가루 놓으면, 뭐, 그게 저 새끼회는 최고입니다, 뭐. 이젠 한 만오천 원 갈 겁니다. 그 저 터미널 가까운 데에도 그것만 전문하는 데 있고.)

107057 @ 음.(음.)

107057 #1 거 옛날 술 먹을 때쯤은 새끼훼 최고라낫수다.(거 옛날 술 먹을 때쯤은 새끼회 최고였습니다.)

107057 @ 하하하.(하하하.)

107057 #1 나도 젊은 땐 술 많이 먹어낫는디, 도새기 새끼훼 많이 먹어십주기.(나도 젊은 때에는 술 많이 먹었었는데, 돼지 새끼회 많이 먹었습니다.)

107057 @ 게난 그거는.(그러니까 그건.)

107057 #1 도새기 새끼훼만 아니라 송아지 새끼훼도 먹읍니다.(돼지 새끼회만 아니라 송아지 새끼회도 먹습니다.)

107057 @ 송아지 새끼훼?(송아지 새끼회?)

107057 #1 예. 막 크기 전에.(예. 아주 크기 전에.)

107058 @ 고사리 반찬덜은 어떤 식으로덜 헨 먹엇수가?(고사리 반찬들은 어떤 식으로들 해서 먹었습니까?)

107058 #2 고사리 반찬은 그냥 고사리 솖아근에게 양념 허여근에 후라이판에 보깡 먹어십주.(고사리 반찬은 그냥 고사리 삶아서 양념해서 프라이팬에 볶아서 먹었습니다.)

107058 @ 옛날부터?(옛날부터?)

107058 #2 예, 제사, 제사 때 고사리 솖아근에 먹엇고. 저 간장 놓곡 허여근에 후라이판에서 보깡은에, 그것도 솖앙은에 양념 허지 안 허영 보까근에 제사 때도 허곡, 먹는 것도 경 헹 먹읍니께.(예, 제사, 제사 때 고사리 삶아서 먹었고. 저 간장 놓고 해서 프라이팬에서 볶아서, 그것도 삶아서 양념하지 않고 볶아서 제사 때도 하고, 먹는 것도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107058 @ 그거 몰리왓당예?(그거 말렸다가요?)

107058 #2 예, 몰리왓당 솖앙.(예, 말렸다가 삶아서.)

107058 @ 몰리왓당은에 물에 컹 놔 뒷당 허지예?(말렸다가 물에 불려서 놔뒀다가 하지요?)

107058 #2 예, 물에 컹 놧당 솖아사마씨. 경 헤사 그 놀 거 ᄀᆞ찌 영 불어나근에.(예, 물에 불려서 놓았다가 삶아야 해요. 그렇게 해야 그 날 거 같이 이렇게 불어나서.)

107058 @ 게난 원래데로 크기가 나오는 거예?(그러니까 원래대로 크기가 나오는 거요?)

107058 #1 예.(예.)

107058 @ 막 ᄀᆞ늘단 게예?(아주 가늘던 게요?)

107058 #2 예게.(예.)

107058 #1 게고 놀 걸로 헷당은 싹 솖앙 데우쳥 냉장고레 놔 두믄 것도 오래 먹읍니다.(그리고 날 걸로 했다가는 싹 삶아서 데쳐서 냉장고에 놔두면 그것도 오래 먹습니다.)

107058 @ 예, 요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허는 거 닮고예. 요즘은 몰리지 안 허영.(예, 요즘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같고요. 요즘은 말리지 않고.)

107058 #1 냉장고에 놧당 먹는 사름도 하마씨.(냉장고에 놓았다가 먹는 사람도 많아요.)

107058 @ 몰리왕예, 게난 그거는 제삿상에 올리는 거하고 보깡 먹는 거예?(말려서요, 그러니까 그건 제사상에 올리는 거하고 볶아서 먹는 거요?)

107058 #1 예.(예.)

107058 @ 그 웨에 뭐 다른 거 멘들앙 먹는 건 엇수가, 고사리로?(그 외에 뭐 다른 거 만들어서 먹는 건 없습니까, 고사리로?)

107058 #1 예, 예. 아 저 이 육개장.(예, 예. 아 저 이 육개장.)

107058 @ 아, 육개장에 들어가는 걸로. 맞아 육개장에 들어가지예.(아, 육개장에 들어가는 걸로. 맞아 육개장에 들어가죠.)

107058 #1 예.(예.)

107058 #2 게도 집이선 육개장 잘 안 헹 먹어집니다.(그래도 집에서는 육개장 잘 안 해 먹어집니다.)

107058 @ 하하하.(하하하.)

107058 #2 무사 허영 먹는 사름덜토 실 거우다.(왜 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장 담그기

107059 @ 그 장을 언제 담감수가, 장, 장 담그는 것은 언제(그 장을 언제 담급니까, 장, 장 담그는 것은 언제.)

107059 #2 장은 섣둘뒈믄 당급니다.(장은 섣달되면 담급니다.)

107059 @ 그 메주로예?(그 메주로요?)

107059 #2 예.(예.)

107061 @ 게난 그건 어떤 식으로 장을 담갓수가?(그러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장을 담갔습니까?)

107061 #1 어떤 식으로 담아마씨, 메주 솖아근에 놔 두믄 터근에 물르믄 소금물 골아근에 허엿다근에게, 담는 날은 메주 싯어근에 소금물에 들이쳠수게, 게난 소금물은 군을 맞추젠 허믄예.(어떤 식으로 담가요, 메주 삶아서 놔두면 터서 마르면 소금물 갈아서 했다가, 담그는 날은 메주 씻어서 소금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소금물은 간을 맞추려고 하면요.)

107061 #1 독새기.(달걀.)

107061 #2 독새기를예, 계란을 영 소금물에 놓으믄 오백 원짜리 동전만이 계란이 밖으로 나와마씨. 영 나오믄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만 나오믄 간 맞아마씨.(달걀을, 계란을 이렇게 소금물에 놓으면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 계란이 밖으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오백 원짜리 동전만큼만 나오면 간 맞아요.)

107061 @ 아 기꽈? 소금간이 그걸로 파악이 뒈어? 독새기 딱 헤 가지고 보그락허게 올라오믄.(아 그렇습니까? 소금간이 그걸로 파악이 돼요? 달걀 딱 해 가지고 봉긋하게 올라오면.)

107061 #2 예.(예.)

107061 #1 너미 막 짜믄 많이 올라오고 너무 싱거우믄 골라앚아불고.(너무 아주 짜면 많이 올라오고 너무 싱거우면 가라앉아버리고.)

107061 #2 골라앚아불곡예, 짜믄 더.(가라앉아버리고요, 짜면 더.)

107061 @ 게니까 그게 염분이 뜨게 만드는구나예.(그러니까 그게 염분이 뜨게 만드는구나.)

107061 #1 예, 예, 지혭주게.(예, 예. 지혜입니다.)

107061 @ 아 그게 염분의 농도를 맞추는 거네예. 진짜 그것도 지혜네.(아 그게 염분의 농도를 맞추는 거네요. 진짜 그것도 지혜네.)

107061 #2 겐디 이 장 담아난 지가 멧 년이우꽈게. 나도 장 담아나건 지 잘도 오랫수다.(그런데 이 장 담갔던 지가 몇 년입니까. 나도 장 담갔던지 매우 오래 됐습니다.)

107061 @ 게난 일단 콩으로, 불 솜앙 콩을 솖아 가지고.(그러니까 일단 콩으로, 불 때서 콩을 삶아 가지고.)

107061 #2 솖앙, 솖앙은에게.(삶아, 삶아서.)

107061 #1 문짝 솖앙.(전부 삶아.)

107061 #2 솖으믄예, 그전에는 집이서 솖앙 ᄲᅡ사신디 나중뒈어가난예, 저 떡방앗간에 가믄 ᄀᆞᆯ아줘마씨.(삶으면요, 그전에는 집에서 삶아서 빻았는데 나중되어가니까요, 저 떡방앗간에 가면 갈아줘요.)

107061 @ ᄀᆞᆯ아줘.(갈아줘.)

107061 #2 ᄀᆞᆯ아주믄 ᄀᆞ져 오랑 집이 오랑 메주 멘들아근에 어디 뭐 헌 디 뜨신디 놔둬사 틉니께. 경 아니허믄 무꺼근에 영 ᄃᆞᆯ아메나양 어디 경 허영 허기도 허영 ᄆᆞᆯ르믄 섣ᄃᆞᆯ 뒈믄 장 담아마씨.(갈아주면 가져 와서 메주 만들어서 어디 뭐 한 데 따뜻한 데 놔둬야 틉니다.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이렇게 달아매거나 어디 그렇게 해서 하기도 해서 마르면 섣달 되면 장 담가요.)

107061 @ 게난 그게 메주 만들 때는 어느 시기에 만듭니까, 멧 월 달쯤?(그러니까 그게 메주 만들 때는 어느 시기에 만듭니까, 몇 월 달쯤?)

107061 #1 저 십일월 하순부떠.(저 십일월 하순부터.)

107061 #2 동짓ᄃᆞᆯ 뒈사 허는디.(동짓달 돼야 하는데.)

107061 @ 십일월쯤 만들고 ᄒᆞᆫ ᄃᆞᆯ쯤 잇당, ᄒᆞᆫ ᄃᆞᆯ 정도 지낭 그 메주가 트면 그때야 담그는구나.(십일월쯤 만들고 한 달쯤 있다가, 한 달 정도 지나서 그 메주가 트면 그때야 담그는구나.)

107061 #1 예.(예.)

107061 #2 예.(예.)

107061 #1 뜨로 ᄆᆞᆯ리왕. 잘 ᄆᆞᆯ이왕은에.(따로 말려서. 잘 말려서.)

107061 @ 게난 거는 담강은에 얼마나 놔둡니까?(그러니까 그것은 담가서 얼마나 놔둡니까?)

107061 #1 장에 담가 가지고 뜨지 아니허게 우로 그 저 장항에 딱 맞은 대나무 ᄀᆞᆺ당은에 똑똑 놔근에 지들립주게.(장에 담가 가지고 뜨지 않게 위로 그 저 장독에 딱 맞는 대나무 갖다가 똑똑 놓아서 지지릅니다.)

107061 @ 대나무로?(대나무로?)

107061 #1 예, 대나무로 그 우로 돌 톡 지둘뢍 놔두믄.(예, 대나무로 그 위로 돌 톡 지질러서 놔두면.)

107061 @ 광목 헝겁으로 영 쌍 허는 건.(광목 헝겊으로 이렇게 싸서 하는 건.)

107061 #1 아 그건 다 헤논 끗데 버렝이 아이 들게 광목으로 싸는 거고.(아 그건 다 해놓은 끝에 벌레 안 들게 광목으로 싸는 거고.)

107061 #2 벌레 일지 안 허게 픗리 ᄀᆞ뜬 거 강 똥 안 싸게끔 영 허는 거 아니우꽈.(벌레 일지 않게 파리 같은 거 가서 똥 안 싸게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107061 @ 게난 그거 대나무는.(그러니까 그거 대나무는.)

107061 #2 그거예, 메주 신 디 항 안네 영 허믄 그 소곱에 무신걸로 영 허영 눌르믄 대나무로 눌르믄 메주가 물 우터레 뜨지 아니허영.(그거요, 메주 있는 데 항아리 안에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뭐로 이렇게 해서 누르면 대나무로 누르면 메주가 물 위로 뜨지 않아서.)

107061 @ 음.(음.)

107061 #1 ᄀᆞᆯ라앚주.(가라앉지.)

107061 #2 ᄀᆞᆯ라앚입니께게. 대나무로 영 눌러주믄, 경 아니허믄 메주가 떠부니까.(자라앉습니다. 대나무로 이렇게 눌러주면, 그렇지 않으면 메주가 떠버리니까.)

107061 @ 떠부니까.(떠버리니까.)

107061 #2 경 헤근에 허영 허믄.(그렇게 해서 해서 하면.)

107061 @ 물에 ᄃᆞᆼ그젠 허믄 ᄒᆞᆯ 수 엇이 그걸 헤야겟다예.(물에 담그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걸 해야겠네요.)

107061 #2 예. 그추룩 허영.(예, 그처럼 해서.)

107061 @ 게믄 그걸 어느 정도 놔두는 거우꽈?(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놔두는 겁니까?)

107061 #2 아 그건 빨리 거리는 사름 잇곡, 천천이 거리는 사름 잇곡 헙니다게.(아 그건 빨리 퍼내는 사람 있고, 천천히 퍼내는 사람 있고 합니다.)

107061 #1 전이는 그건 장물 만들젠 허면은 조끔 물을 하영 놔 가지고 허엿다가 장물 거려당 먹엇는디 이젠 장물 장이 엇입주기. 이젠 뒌장으로 다 먹엉. 게난 그 저 장물 뒝 허젠 허믄 오래 놔뒷당 허기 위헤서는 ᄒᆞᆫ 이삼 월ᄁᆞ지는 그냥 ᄃᆞᆼ강, ᄃᆞᆼ강 놔뒷다가 ᄒᆞᆫ 삼월쯤 뒈어가면은 저 장물만 ᄯᅳ로 건져 놩 장물 망데기 헤 가지고 장물 만듭니다. 먹기 위헤서 장물만 담아두고, 메주는 ᄯᅳ로 흠뻑 보리쏠 솖앙, 아주망네 경 안 헷수가?(전에는 그건 간장 만들려고 하면 조금 물을 많이 놓아 가지고 했다가 간장 퍼다가 먹었는데 이젠 간장 장이 없습니다. 이젠 된장으로 다 먹어서. 그러니까 그 저 간장 되어서 하려고 하면 오래 놔뒀다가 하기 위해서는 한 이삼 월까지는 그냥 담가서, 담가서 놔뒀다가 한 삼월쯤 되어가면 저 간장만 따로 건져 놓고 간장 망데기 해 가지고 간장 만듭니다. 먹기 위해서 간장만 담아두고, 메주는 따로 흠뻑 보리쌀 삶아서, 아주머니네 그렇게 안 했습니까?)

107061 #2 예, 보리밥 허영은에 ᄀᆞ찌 놩 ᄯᅳ시 반죽허여근에 뒌장은 ᄯᅳ로 담앙 놔두믄. 콩만 허는 것보단예 보리쏠 밥 허여근에 허믄 뒌장도 하곡 맛도 더 좋아마씨.(예, 보리밥 해서 같이 놓고 다시 반죽해서 된장은 따로 담아서 놔두면. 콩만 하는 것보다는 보리쌀 밥 해서 하면 된장도 많고 맛도 더 좋아요.)

107061 @ 음, 보리 솖은 거 그레 서껑은에.(음, 보리 삶은 것 거기에 섞어서.)
107061 #1 예. 보리밥 허여근에 서껑.(예. 보리밥 해서 섞어서.)
107061 @ 그래야 뭰장이 맛이 잇어예, 음.(그래야 된장이 맛이 있어요.)
107061 #2 경허곡 뭰장도 하곡 경 허연 허여나건디 요 장 담근 지 멧 십년 뒈엇수다.(그리고 된장도 많고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요 장 담근 지 몇 십년 되었습니다.)
107061 @ 게난 뭰장은 그런 식으로 멘들고 고추장은 어떤 식으로 멘들아낫수가?(그러니까 된장은 그런 식으로 만들고 고추장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습니까?)
107061 #2 고추장은 그자 그거 무시것고.(고추장은 그저 뭐냐.)
107061 #1 뭰장에다.(된장에다.)
107061 #2 저 메주 ᄀᆞ를, 아 요새에 담는 것덜은 요새 담는 건 메주ᄀᆞ를 폽니께, 메주ᄀᆞ를 사당은에게 고치ᄀᆞ를, 고치허고 뭐 허여근에 반죽허영 멘드는 겁주.(저 메줏 가루, 아 요새는 담그는 것들은 요새 담그는 건 메주가루를 팝니다, 메줏가루를 사다가 고춧가루, 고추하고 뭐 해서 반죽해서 만드는 겁니다.)
107061 @ 겐 그건 어떤 식으로?(그래서 그건 어떤 식으로?)
107061 #2 소금, 소금도 헹 놓곡 허영.(소금, 소금도 해서 놓고 해서.)
107061 @ 아 게난 그건 게믄 그것도 어느 정도 숙성은 시켜야 헐 거 아니우꽈?(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정도 숙성은 시켜야 할 거 아닙니까?)
107061 #2 고춧가루 다 놩 반죽허여예, 담앙은에 단지에 담앙 놔두믄예, 다 숙성뒙니께게.(고춧가루 다 놓아서 반죽해요, 담아서 단지에 담아서 놔두면요, 다 숙성됩니다.)
107061 @ 다 숙성뒈불어.(다 숙성돼버려.)
107061 #2 예, 경헌디 그 고추장 담아난 건 오렛수다. 간장, 뭰장 담아난 디도 혼 거제 삽십 년 뙘실 거라.(예, 그런데 그 고추장 담갔던 건 오래됐습니다. 간장, 된장 담근지도 한 거의 삼십 년 되었을 거야.)
107061 #1 우리 뭰장 ᄀᆞ튼 건, 우리 할망 죽기 전꺼진 담아낫수다.(우리 된장 같은 건, 우리 할머니 죽기 전까지는 담갔었습니다.)
107061 @ 고추장은 ᄆᆞ멀ᄏᆞ를로.(고추장은 메밀가루로.)
107061 #2 아니우다.(아닙니다.)
107061 @ 뭘로?(뭘로?)
107061 #2 메주ᄀᆞ를로마씨.(메줏가루로요.)
107061 @ 아, 메주ᄀᆞ를.(아, 메줏가루.)
107061 #2 예.(예.)
107061 @ 콩 메주ᄀᆞ를? 메주가 아니라.(콩 메줏가루? 메주가 아니라.)
107061 #2 ᄀᆞ를.(가루.)
107061 @ ᄀᆞ를?(가루?)
107061 #1 아, 메주, 메줍주.(아, 메주, 메주입니다.)
107061 #2 메주ᄀᆞ를, 메주. 콩 솖은 메주, 장 담은 거.(메줏가루, 메주. 콩 삶은

메주, 장 담그는 거.)

107061 @ 그걸 가루 만들엉?(그걸 가루 만들어서?)

107061 #2 예, 예.(예, 예.)

107061 @ 어디 강 가루 만들어?(어디 가서 가루 만들어?)

107061 #2 어디 강 가루 만들어마씨게, 집이서 그냥 그거예 허영은에 찧믄. 그것이 물 우뜬 거난 장물 우뜬 거난예, 무랑무랑헙니께게. 경허믄 고치가를 놓곡 허영 반죽허는 겁주게.(어디 가서 가루 만들어요, 집에서 그냥 그것에 해서 찧으면. 그것이 물 적신 거니까 간장 적신 거니까요, 물렁물렁합니다. 그러면 고춧가루를 놓고 해서 반죽하는 겁니다.)

107063 @ 게난 옛날에 그때 장 담그멍 무슨 뭐 조심허렌 허는 얘기덜이 엇어낫수가?(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장 담그면서 무슨 뭐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들이 없었습니까?)

107063 #2 조심은 무시거마씨. 날 잡앙 담으믄 뒈는 거난.(조심은 뭐요. 날 잡아서 담그면 되는 거니까.)

107063 #1 날은 보믄 그 집안 장 먹는 사름이 띠가 드는 날은 제외허여.(날은 보면 그 집안 장 먹는 사람이 띠가 드는 날은 제외해요.)

107063 @ 음,(음.)

107063 #1 그날을 피혜 가지고 장을 담급주.(그날을 피해 가지고 장을 답급니다.)

107063 @ 음.(음.)

107063 #1 우리집이 만약 저 독해치가 잇이민 독날은 아니허고. 또 소날, 소날 ᄀᆞ튼 때에는 장 담그믄 장이 늬치름[233] ᄀᆞ찌 흘린다고 허여 가지고 소날도 아니 허고.(우리집이 만약 저 닭띠가 있으면 닭날을 안 하고, 또 소날 소날 같은 때에는 장 담그면 장이 '늬치름' 같이 흘린다고 해 가지고 소날도 안 하고.)

107063 #2 게난 그런 말만.(그러니까 그런 말만.)

107063 #1 개날, 독날, 묘일 이런 날 장을 많이 담앗수다.(개날, 닭날, 묘일 이런 날 장을 많이 담았습니다.)

107063 @ 개날, 독날, 묘일?(개날, 닭날, 묘일?)

107063 #1 예.(예.)

107063 @ 묘일.(묘일.)

107063 #1 이런 때 많이 담아십주.(이런 때 많이 담갔습니다.)

107063 @ 음.(음.)

107063 #1 ᄆᆞᆯ날.(말날.)

107063 #2 겐디 섣둘 그믐날 잘 담아낫수다게. 섣둘 그믐날 장 담아낫수다.(그런데 섣달 그믐날 잘 담갔었습니다. 섣달 그믐날 장 담갔었습니다.)

107063 #1 책엔 보면 거 저 뭐냐, 임일, 그것을 피허라고 뒈십디다. 그 장 담는 날은.(책에는 보면 거 뭐냐, 임일, 그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장 담그는 날은.)

---

233) '늬치름'은 어린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을 말한다.

107063 @ 뭘 피헤마씨?(뭘 피해요?)
107063 #1 예, 임일.(예, 임일.)
107063 @ 인일, 호랑이날?(인일, 호랑아날?)
107063 #1 예.(예.)
107063 @ 음 그날을 피헌다.(음 그날을 피한다.)
107063 #1 임 맡길 임자 임일예.(임 맡길 임자 임일요.)
107063 @ 아, 맡길 임자에 임자, 음.(아, 맡길 임자에 임자, 음.)
107063 #2 이제는 다 잊어불언 허여나도 몰르쿠다.(이제는 다 잊어버렸어 했었어도 모르겠습니다.)
107063 #1 우리는 흔 오 년 전이꺼지는 집이서 메주 솖앙 장 다 헷수다.(우리는 한 오 년 전에까지는 집에서 메주 삶아서 장 다 했습니다.)
107063 #2 성님은 경 헤실 거우다게.(형님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107063 #1 경 헤근에 저 오 년이 뭐여, 흔 삼사 년 전꺼진 우리집서도 담앙 먹곡, 뚜로 걸 아덜네 집이덜토.(그렇게 해서 저 오 년이 뭐야, 한 삼사 년 전까지는 우리집에서도 담가 먹고, 따로 그걸 아들네 집에들도.)
107063 @ 보낸.(보냈어.)
107063 #1 올라갈 때 섣둘에 갈 때라도 거정 강 그걸로 이제 거기서 소금 골아 놩 그걸 시경 아덜네냥으로 시경 담아주고 헤십주.(올라갈 때 섣달에 갈 때라도 가져 가서 그걸로 이제 거기서 소금 갈아놓고 그걸 시켜서 아들네대로 시켜서 담아주고 했습니다.)
107063 #1 멧 해를 담아줫수다, 뭐. 서울 올라 강.(몇 해를 담아줬습니다, 뭐. 서울 올라 가서.)
107063 #2 성님은 부지런허난 경 헤실 거우다게, 올라 강. 난예, 일본 가지 전이만 헷주, 일본 간 흔 삼 년 살안 온 다음에는양, 온 디가 이거 흔 삼십 년 뒈엇수게. 경 허난 그루후첸 흔 번도 안 담아봣수다게, 흔 번도 안 담아봔.(형님은 부지런하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올라 가서. 난, 일본 가기 전에만 했지, 일본 가서 한 삼년 살아서 온 다음에는, 온 지가 이거 한 삼십 년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담가봤습니다, 한 번도 안 담가봤어.)
107063 #1 흔 사오 년 전꺼지 헤 낫수다.(한 사오 년 전까지 했었습니다.)
107063 #2 성님은 경 헤실 거우다.(형님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107063 #1 아덜네 집이 간 뚜로 장 만드는 걸 다 ᄀᆞ르쳐십주게.(아들네 집에 가서 따로 장 만드는 걸 다 가르쳤습니다.)
107063 #2 우리 큰뚤넨양 이제도 장 담아마씨.(우리 큰딸네는 지금도 장 담가요.)
107063 #1 집이도 게난 다.(집에도 그러니까 다.)
107063 #2 메주 사당. 저 아라동서 사는디.(메주 사다가. 저 아라동 사는데.)
107063 @ 아, 예.(아, 예.)
107063 #2 아라동 사는디 이제도예 메주 흔 말에치 상 강예, 담앙, 야 사당 먹

으라 허믄, 이제 경 허단에 집 질 들어가게 뒈언 집이 들어가부난에 아파트 간 사난, 담지 못 허난 저 어디 ○○이네 담는 디, 규태 아덜 담는 디 그 디 오란에 흔 말 담안 그 공장에 오란 담안 놔둠서 거져단 먹어낫수다. 경 헌디 몰르쿠다, 이젠 어떵 헴신지.(아라동 사는데 지금도 메주 한 말어치 사서 가서, 담아서, 야 사다가 먹어라 하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집 길 들어가게 되어서 집이 들어가 버리니까 아파트 가서 사니까, 담지 못하니가 저 어디 정선이네 담는 데, ○○ 아들 담는 데 거기 와서 한 말 담아서 그 공장에 와서 담아서 놔두니까 가져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젠 어떻게 하는지.)

107063 #1 우리 담아주는 장, ○○ 아덜네 집이 가믄 뭰장 다 셔마씨.(우리 담아주는 장, ○○ 아들네 집에 가면 된장 다 있어요.)

107063 #2 게난 가넨 그추룩 허여근에 그 장 공장에 오란양 담아단 먹어낫주기게. 저 아라동에 사난에 대학병원 가는 디 그 다리 신 알로 질이 요만이벳기 안 헤나신디 그디 질 늘루멍양 집 오꼿 들어가불언, 집 들어가부난에 아파트 강 살젠 허난 못 담으난에 이디 오란 장 공장에 완 담안 먹어신디, 이제도 그디 것사 곶단 먹엄신디 어떵 헴신디 몰르쿠다. 아 이젠 아파트 아니허연 집 짓언 가난.(그러니까 그 아이네는 그처럼 해서 그 장 공장에 와서 담갔다가 먹었습니다. 저 아라동에 사니까 대학병원 가는 데 그 다리 있는 아래 길이 요만큼밖에 안 했었는데 거기 길 늘리면서 집 그만 들어가 버렸어,[234] 집 들어가 버리니까 아파트 가서 살려고 하니까 못 담그니까 여기 와서 장 공장에 와서 담아서 먹었는데, 지금도 거기 아까 말하다가 먹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젠 아파트 안 하고 집 지어 가니까.)

107063 #1 난, 뭰장은 지금 담은 걸로 충분히 먹어졈직 허여마씨. 게난 그 고추장도 사당도 조끔 먹어집니다만은 혼자 헐 때라도. 그 웨에도 뭰장 안네영 그자 그레 물 놔 가지고 고치ᄀᆞ를 놩 식초 ᄀᆞ튼 거, 놩 젓으믄 뚜로 고추장이 뒈어가지고 그추룩도 먹어지고, 고치ᄀᆞ를 많이 놩.(난, 된장은 지금 담근 걸로 충분히 먹어짐직해요. 그러니까 그 고추장도 사다가도 조금 먹어집니다마는 혼자 할 때라도. 그 외에도 된장 드려서 그저 거기 물 놓아 가지고 고춧가루 놓고 식초 같은 거, 놓아서 저으면 따로 고추장이 되어 가지고 그처럼도 먹어지고, 고춧가루를 많이 놓아서.)

107063 #2 고치장도 사당 먹어불곡, 뭰장도 사당 먹어불곡 헴수다.(고추장도 사다가 먹어버리고, 된장도 사다가 먹어버리고 합니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집에 대헤서 물어보쿠다.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잇수가?(집에 대해서 물

234) 집이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버렸다는 의미이다.

어보겠습니다.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잇습니까?)

108001 #1 난 집도 나냥으로 지어보진 안 헷수다.(난 집도 나대로 지어보진 않았습니다.)

108001 @ 이 집은 언제 어떵 지은 집이우꽈?(이 집은 언제 어떻게 지은 집입니까?)

108001 #1 집은 이거 우리 조상 때부떠 대대로 물려온 집이우다.(집은 이거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물려온 집입니다.)

108001 @ 게 고치멍 살아구나예?(그래 고치면서 살았군요?)

108001 #1 예.(예.)

108001 @ 그때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를 거고예?(그때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를 거고요?)

108001 #1 예. 내부 구조만 뚜납주 나머진 뭐.(예. 내부 구조만 다르지 나머진 뭐.)

108001 @ 아니 속에 대들보도 이실 거고 뭐 이신디 이걸로 막아부니까예.(아니 속에 대들보도 있을 거고 뭐 있는데 이걸로 막아버리니까요.)

108001 #1 건 포가.(건 보가.)

108001 @ 예, 포.(예, 보.)

108001 #1 제일 둔둔헌 것이 포, 포가 중요헙주. 포옌 헌 것은 집 주위로 헤 가지고 두 개, 세 개도 허는 집들도 신디. 네 칸짜리, ᄉᆞ 칸짜리, 삼 칸 이렇게 헤 가지고 포를 놓고 포 앞으로 그 새는 상ᄆᆞ르[235] 잇고, 그다음은 도리라고 헤 가지고 네 도리 뚜로 도리를 놉니다, 뭐. 겐 그거 헤 놩 그 우터레 뚜로 서리 걸청.(제일 단단한 것이 보, 보가 중요하지. 보라고 한 것은 집 주위로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도 하는 집들도 있는데. 네 칸짜리, 사 칸짜리, 삼 칸 이렇게 해 가지고 보를 놓고 보 앞으로 그 사이는 용마루 있고 그다음은 도리라고 해 가지고 네 도리 또 도리를 놓읍니다, 뭐. 그래서 그거 해 놔서 그 위로 또 서까래 걸쳐서.)

108001 @ 음, 서리.(음, 서까래.)

108001 #1 서리 걸쳐 가지고 허고, 뚜로 그 우엔 서리 우에는 대나무라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ᄀᆞ는 나무를 두 개로 깨어 가지고 여껑 딱 더꺼마씨. 더꺼놓고 그 우터레는 뚜로 흑을 끼어 가지고 뭣 조금 흑으로 다림질허영 저 틈틈이 놔놩 그다음부떠는 뚜로 거 새 허영.(서까래 걸쳐 가지고 하고, 또 그 위에는 서까래 위에는 대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는 나무를 두 개로 깨어 가지고 엮어서 딱 덮어요. 덮어놓고 그 위로는 또 흙을 끼어 가지고 뭣 조금 흙으로 다림질해서 저 틈틈이 놔놔서 그다음부터는 또 거 띠 해서.)

108001 @ 게난 그 세 칸이여, 네 칸이여 헌 거는 어떵 구분헴수가?(그러니까 그 세 칸이야, 네 칸이야 한 거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108001 #1 아, 칸이라는 게 ᄒᆞᆫ 칸은 촘 일메다 팔십을 ᄒᆞᆫ 칸이라고 허주만은.

235) '상ᄆᆞ르'는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을 말한다.

(아, 칸이라는 게 한 칸은 참 일미터 팔십을 한 칸이라고 하지만은.)

108001 @ 일메다 팔십, 일메다 팔십 정사각형? 게믄 혼 평이 뒈겟네예?(일미터 팔십, 일미터 팔십 정사각형? 그러면 한 평이 되겠네요?)

108001 #1 예, 혼 평이 뒈는디 이 칸이엔 허믄 보통 이디 초가집덜은 ᄉᆞ 칸집을 지습니다, 뭐. 게 아니믄 좀 어려운 집에는 삼 칸. 우리 집은 이거 옛날 삼 칸이우다.(예, 한 평이 되는데 이 칸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 초가들은 사 칸집을 짓습니다, 뭐. 그렇게 아니면 좀 어려운 집에는 삼 칸, 우리 집은 이거 옛날 삼 칸입니다.)

108001 @ 요거, 요거, 요거가.(요거, 요거, 요거가.)

108001 #1 욜로 이 삼방이 혼 칸, 저 부엌 쪽이 혼 칸, 저쪽에 뚜로 혼 칸이 잇언 삼 칸집, 삼 칸이고, 또 이것을 뚜로 삼방 다음에 챗방 만들곡 구들 만들곡 다음 것 만들고 이런 집은 ᄉᆞ 칸집.(여기로 이 대청이 한 칸, 저 부엌 쪽이 한 칸, 저쪽에 또 한 칸이 있어서 삼 칸집, 삼 칸이고, 또 이것은 또 대청 다음에 찻방 만들고 방 만들고 다음 것 만들고 이런 집은 사 칸집.)

108001 @ 삼방이, 상방이 주로 가운데 잇지예?(대청이, 대청이 주로 가운데 있지요?)

108001 #1 예, 예.(예, 예.)

108002 @ 가운데 잇구나예, 가운데 잇고. 그 집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네에도 집 종류가 따로 이실 거 아니우꽈예?(가운데 있군요, 가운데 있고, 그 집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동네에도 집 종류가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108002 #1 예, 초가집, 기와집 잇고.(예, 초가, 기와집 있고.)

108002 @ 또?(또?)

108002 #1 또 저 양철집.(또 저 양철집.)

108002 @ 아, 양철집.(아, 양철집.)

108002 #1 예.(예.)

108002 @ 양철집, 초가집, 기와집, 또?(양철집, 초가, 기와집 또?)

108002 #1 그 전부 그 정돕주.(그 전부 그 정도지.)

108002 @ 그 정도.(그 정도.)

108002 #1 전인 그레낫다가 지금은 스레트 잇이니까 스레트집이여, 뚜로 슬라브집이 이십주.(전에는 그랬었다가 지금은 슬레이트 있으니까 슬레이트집, 또 슬라브집이 있지요.)

108002 @ 이제는예,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예?(이제는요,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요?)

108002 #1 예.(예.)

108002 @ 그 집을 헐 때는 흑으로만은 집을 안 지엇지예?(그 집을 할 때는 흙으로만 집을 안 지었지요?)

108002 #1 예, 거 전인 협동심이라 헤 가지고 그 집 둘레를 다 돌 쌓아십주게. 이제는 저 부로끄라든지 뚜로 넹가돌 싸주만은, 돌로 쌓은 디는 그냥 그거만으로는

못 쌉주게. 그 흑을 파 가지고 여기는 작지왓이니까, 저 알쪽에 강은에 작지 읏인 딜로 그 질왓[236] 입구레 강 많이 팡 걸로 허곡 헤낫수다. 걸로 허믄 마당 거뜬이 놔 가지고 그 물 놩 다리면서 보리낭 ᄀᆞ뜬 거를 썰어 놓멍 걸 막 다림질을 헙주게. (예, 거 전에는 협동심이라 해 가지고 그 집 둘레를 다 돌 쌓았습지요. 이젠 저 블록이라든지 또 블록 쌓아주면은, 돌로 쌓은 데는 그냥 그거만으로는 못 쌓지요. 그 흙을 파 가지고 여기는 자갈밭이니까, 저 아래쪽에 가서 자갈 없는 데로 그 '질왓' 입구로 가서 많이 파서 걸로 하고 했었습니다. 걸로 하면 마당 가득히 놔 가지고 그 물 넣어서 다리면서 보릿짚 같은 거를 썰어 넣으면서 걸 마구 다림질을 하지요.)

108002 @ 예.(예.)

108002 #1 담 흔 도리 다와 놩 흑 놓곡 그레 다와 놩 흑 놓곡 허면서 웨벽을 다 담을 쌓읍주게. 게 가지고 걸 허다가 그것도 역시 해방 이후에는 츠츰츠츰 그 담, 족은 담으로만 축담[237] 쌓으니까 흑도 더 들곡 든든치 않으니까 뚜로 그 맞담 큰 돌로 허영 담을 싸낫수다. 이제는 부로크 쌓는디. 부로크라든지 저 넹가돌 쌓은 데를 그 큰 담 돌쳉이덜이 귀 바르게 벌르믄 그 돌을 겆당 축담을 쌓아십주.(담 한 도리 쌓아 놔서 흙 놓고 그리 쌓아 놔서 흙 놓고 하면서 외벽을 다 담을 쌓습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하다가 그것도 역시 해방 이후에는 차츰차츰 그 담, 작은 담으로만 축담 쌓으니까 흙도 더 들고 단단하지 않으니까 또 그 맞담 큰 돌로 해서 담을 쌌었습니다. 이제는 블록 쌓는데. 블록이라든지 저 블록 쌓은 데를 그 큰 담 석공들이 귀 바르게 깨면 그 돌을 갖다가 축담을 쌓았습지요.)

108002 @ 게난 그 맞담이란 건 집을 지을, 집에, 집 지으멍 맞담을 쌓앗수가?(그러니까 그 맞담이란 건 집을 지을, 집에, 집 지으면서 맞담을 쌓았습니까?)

108002 #1 예, 축담을 허는디 전이 게 그런 큰 돌이라던지 귀 영 맞은 돌이 얼마 없을 때니까, 기구가 엇인 때난 그자, 또 돌덜토 많고 허니까 그 돌 읏이대길 겸헤 가지고 아까ᄀᆞ찌 흑 영 놓멍 또 돌로, 준돌 맞춤으로 흔 도리 놔 놩 흑 놓곡 흔 도리 놔 놩 흑 놓곡 영 헤서 둘레 쪽을 다 헷수다. 우리도 저거 뒤엔 그 돌 그냥 잇수다.(예, 축당을 하는데 전에 그래 그런 큰 돌이라든지 귀 이렇게 맞은 돌이 얼마 없을 때니까, 기구가 없을 때니까 그저, 또 돌들도 많고 하니까 그 돌 없게 할 겸 해 가지고 아까까지 흙 이렇게 해서 놓고 또 돌로, 잔돌 맞춤으로 한 도리 놔 놔서 흙 놓고 한 도리 놔 놔서 흙 놓고 이렇게 해서 둘레 쪽을 다 했습니다. 우리도 저거 뒤엔 그 돌 그냥 있습니다.)

108002 @ 게난 건 맞담이란 건 이쪽도 이쪽이영 두 줄로 올라가는 거우꽈?(그러니까 건 맞담이란 건 이쪽도 이쪽이랑 두 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108002 #1 예, 예.(예, 예.)

108002 @ 그니까 하난 좀 약허니까?(그니까 하나는 좀 약하니까?)

108002 #1 예. 겐디 지금은 저기 박거리 ᄀᆞ뜬 디라든지 쉐막 ᄀᆞ뜬 디는, 나중에

236)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이다.
237) '축담'은 집채 둘레에 돌로 쌓은 담이다.

나가 짓은 거난 돌 사단 다 다음직헌 담으로만 시꺼당 다앗는디 지금은.(예. 그런데 지금은 저기 바깥채 같은 데라든지 외양간 같은 데는, 나중에 내가 지은 거니까 돌 사다가 다 쌓을 것 같은 담으로만 실어다가 쌓았는지 지금은.)

108002 @ 그건 웨담?(그건 외담?)

108002 #1 예, 웨담으로 축석을 헤십주. 전인 헤도 그 농촌에는 인심이 좋아 가지고 놈의 집 큰일 헌덴 허믄예, 여자들은 물 져다 주고 뚜로 흑도 뀌어주고, 또 일 때도 서로 수눌엉덜 허고, 영 헤십주.(예, 외담으로 축석을 했습지요. 전에는 해도 그 농촌에는 인심이 좋아 가지고 남의 집 큰일 한다고 하면요, 여자들은 물 져다 주고 또 흙도 이겨주고, 또 일 때도 서로 품앗이해서 하고, 이렇게 했습지요.)

108002 @ 음. 집에는 여러 집들이 잇어나지 안 헷수가? 그러면 그런 집들은 어떤, 어떤 집들이 잇어낫수가?(음. 집에는 여러 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집들은 어떤, 어떤 집들이 있었습니까?)

108002 #1 집에는 여기는 대게 초가집.(집에는 여기는 대개 초가.)

108003 @ 예, 초가집인데 일반적으로 안커리가 잇고.(예, 초가인데 일반적으로 안채 있고.)

108003 #1 예, 안꺼리가 잇고, 안꺼리.(예, 안채 있고, 안채.)

108003 @ 이건 안커리고?(이건 안채이고?)

108003 #1 밖거리, 모커리.(바깥채, 곁채.)

108003 @ 모커리는 어떤 걸 모커리엔 헷수가?(곁채는 어떤 걸 곁채라고 했습니까?)

108003 #1 밖거리엔 헌 건 안꺼리영 마주 상 잇인 마주 보는 집고라 밖거리엔 허고, 모커리는 옆으로 선 거를.(바깥채라고 한 건 안채랑 마주 서 있는 마주 보는 집더러 안채라고 하고, 곁채는 옆으로 선 거를.)

108003 @ 아, 그러면.(아, 그러면.)

108003 #1 우리도 이쪽 저건 모커리고.(우리도 이쪽 저건 곁채고.)

108003 @ 아, 이거는 모커리가 뒈겟다예, 영 헹 영 헌 거니까.(아, 이거는 곁채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108003 #1 예.(예.)

108003 @ 이렇게 직각으로 뒈니까. 근데 이렇게 마주 보면 안커리, 밧거리, 요거는 모커리.(이렇게 직각으로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마주 보면 안채, 바깥채, 요거는 곁채.)

108003 #1 예.(예.)

108003 @ 주로 이제 그렇게.(주로 이제 그렇게.)

108003 #1 게고 바꼇디 지은 건 뚜로 웨양간이라고 쉐막이라든지 몰막, 이렇게 뒈어십주. 게고 뚜로 전인 뒈지를 질루는 뒈지울.(그리고 바깥에 지은 건 또 외양간이라고 외양간이라든지 마구간, 이렇게 되었지. 그리고 전에는 돼지를 기르는 돼지우리.)

108003 @ 통시?(돼지우리?)

108003 #1 예, 통시를 그디서 흑 파 가지고 그걸로 허고, 또 눌굽[238] ᄀᆞ뜬 디는 ᄯᅳ로 그디서 역시 흑을 파네근에 그 흑 이엉 허고, 경 헷수다.(예, 돼지우리를 거기서 흙 파 가지고 그걸로 하고, 또 '눌굽' 같은 데는 또 거기서 역시 흙을 파내서 그 흙 이어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108003 @ 음, 그러면 눌 누는 데도, 눌굽도 하나의 터가 잇는 거 아니라예?(음, 그러면 가리 쌓는 데도. 눌굽도 하나의 터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8003 #1 예, 눌 누는 디는게, 우리도 이디 저 눌 눌어난 디우다만은, 거기는 그 저 흑이 우선뒐 거니까 그디 흑덜 다 파내엉 다 뀌엉 건 안네 흑으로 불르고 그 디는 자갈로 메와 가지고 그 눌굽을 허고.(예, 가리 가리는 데는요, 우리도 여기 저 가리 가렸던 데입니다만, 그 저 흙이 우선될 거니까 거기 흙들 다 파내어서 다 이겨서 건 안에 흙으로 바르고 거기는 자갈로 메워 가지고 그 '눌굽'을 하고.)

108003 @ 아, 밋테 자갈 메우는 게 좋으니까, 눌굽 헐 때.(아, 밑에 자갈 메우는 게 좋으니까, '눌굽' 할 때.)

108003 #1 예.(예.)

108004 @ 음, 그 삼칸집을 짓는 거는 아까 얘기헷지만 그 구조 다시 한 번 골아줘봅서.(음, 그 삼간집을 짓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구조 다시 한 번 말해보십시오.)

108004 #1 삼칸집이엔 허믄 제일 가운데 잇는 건 마루 칸, 마루 칸, 또 큰 구둘 잇는 디광 뒤에 고팡이라고 헤 가지고, 그 저 창곱주게.(삼간집이라고 하면 제일 가운데 있는 건 마루 칸, 마루 칸, 또 큰 방 있는 데와 뒤에 고방이라고 해 가지고, 그 저 창고지요.)

108004 @ 고팡.(고방.)

108004 #1 고팡을 허믄 두 칸.(고방을 하면 두 칸.)

108004 @ 두 칸.(두 칸.)

108004 #1 이 펜이 ᄯᅳ로 부엌허는 디는 삼 칸. ᄯᅳ로 ᄉᆞ칸집은 이런 맞구들허고 안팟으로 구들 잇고, 또 옆이는 쳇방이라고 싯수다, 식사도 허고.(이 편에 또 부엌하는 데는 삼간. 또 사간집은 이런 맞방하고 안팎으로 방 있고, 또 옆에는 찻방이라고 있습니다, 식사도 하고.)

108004 @ 쳇방예?(찻방요?)

108004 #1 예. 식기 ᄀᆞ뜬 것도 놓고, 쳇방. 그다음 ᄒᆞᆫ 칸 더 헌 것은 부엌 헤서 ᄉᆞ칸집.(예. 식기 같은 것도 놓고, 찻방. 그다음 한 간 더한 것은 부엌 해서 사간집.)

108004 @ 음, 아, 저쪽은 정지예, 부엌?(음, 아, 저쪽은 부엌요, 부엌?)

108004 #1 예.(예.)

108004 @ 정지ᄁᆞ지 포험헤서 사칸집.(정지까지 포함해서 사간집.)

---

238)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108004 #1 예.(예.)

108004 @ 삼 칸은 그 안네서 정지까지 다 포함헤서 삼칸집?(삼 간은 그 안에서 부엌까지 다 포함해서 삼간집?)

108004 #1 예, 예.(예, 예.)

108004 @ 그러면 삼 칸은 요쪽은 방?(그러면 삼 간은 요쪽은 방?)

108004 #1 저쪽이 큰 구둘이 혼 칸이난, 큰 구둘허고 뒤에는 고팡, 마루방은 이 가운디 이추룩 터진 디고.(저쪽이 큰 방이 한 칸이니까, 큰 방하고 뒤에는 고방, 마루방은 이 가운데 이처럼 터진 데고.)

108004 @ 여기는 부엌이고.(여기는 부엌이고.)

108004 #1 여긴 족은 구들허고 쳇방.(여긴 작은 방하고 찻방.)

108004 @ 쳇방.(찻방.)

108004 #1 또 저펜인 부엌.(또 저편에는 부엌.)

108004 @ 게믄 그건 사칸집?(그러면 그건 사간집?)

108004 #1 예.(예.)

108004 @ 그건 사칸집예?(그건 사간집요?)

108004 #1 예.(예.)

108005 @ 그것이 사칸집이구나, 아, 그 여기 지줏돌 잇지 안 허꽈예? 지줏돌.(그것이 사간집이구나, 아, 그 여기 주춧돌 있지 않습니까? 주춧돌.)

108005 #1 예, 지줏돌.(예, 주춧돌.)

108005 @ 주춧돌, 지줏돌하고 뭐 포하고, 그 도리엔 허잖아예, 서까래? 그 도리는 서까래 사이에 놓는 나무잖아예?(주춧돌, 주춧돌하고 뭐 보하고, 그 도리라고 하잖아요, 서까래? 그 도리는 서까래 사이에 놓는 나무잖아요?)

108005 #1 예. 도리는 세 개를 놓는디 질 가운디는 상ᄆᆞ를 잇고, 다음부떠는 그 칸과 칸 새이에는 도리가 잇수다.(예. 도리는 세 개를 놓는데 젤 가운데는 용마루 있고, 다음부터는 그 칸과 칸 사이에는 도리가 있습니다.

108005 @ 도리가.(도리가.)

108005 #1 도리는 진 낭 든든헌 걸로 헤 가지고, 그 저 곧고 든든헌 거라야 그 도리를 메웁주게.(도리는 긴 나무 단단한 걸로 해 가지고, 그 저 곧고 단단한 거라야 그 도리를 메우지요.)

108005 @ 서리가 잇고.(서까래가 있고.)

108005 #1 게난 그 도리 메와난 우이 서리를 메우는 겁주.(그러니까 그 도리 메우니까 위에 서까래를 메우는 거지.)

108005 @ 도리 메와난 우에 서리 메우는 거예?(도리 메워난 위에 서까래 메우는 거요?)

108005 #1 예.(예.)

108005 @ 더 우에 서리, 밋테가 도리?(더 위에 서까래, 밑에가 도리?)

108005 #1 예.(예.)

108005 @ 건 직각으로 연결뒈엇수가?(건 직각으로 연결되었습니까?)

108005 #1 예, 예. 게난 도리는 하나, 둘, 셋, 일로 세 개, 절로 세 개 헤서 여섯 개를 놉주, 도리.(예, 예. 그러니까 도리는 하나, 둘, 셋, 이리로 세 개, 저리로 세 개 해서 여섯 개를 놓지, 도리.)

108005 @ 음.(음.)

108005 #1 그 우에는 좃게 뚜로 서리, 낭을 걸치고, 그 서리 우엔 뚜로 그 저 새라든지 일기 좋게 그 대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믄 여꺼 가지고 서슬[239]이엔 허는 거.(그 위에는 잦게 또 서까래, 나무를 걸치고, 그 서까래 위엔 또 그 저 띠라든지 이기 좋게 그 대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엮어 가지고 '서슬'이라고 하는 거.)

108006 @ 서슬?(서슬?)

108006 #1 예, 서슬 헹은에 노로 여끄멍 헤 놩 그 우터렌 뚜로 그 새로 일르는 겁주.(예, 서슬 해서 새끼로 엮으면서 해 놔서 그 위로는 또 그 띠로 이는 거지.)

108006 @ 고대[240], 고대렌 허는 말 들어붑디가?('고대', '고대'라고 한 말 들어봤습니까?)

108006 #1 예, 고대옌 헌 건 지붕 우터레 불리지도 안 하곡, 서슬 헌 디 트망트망이 흑을 영 놓는 것고라 고대옌 헙주.(예, '고대'라고 한 건 지붕 위로 불리지도 않고, 서슬 한 데 틈틈이 흙을 이렇게 넣는 것더러 '고대'라고 하지.)

108006 @ 게난 고댄 흑이네예?(그러니까 '고대'는 흙이네요?)

108006 #1 예, 예.(예, 예.)

108006 @ 그리고 개위는?(그리고 '개위'는?)

108006 #1 아, 개위[241]옌 헌 것은 시 번체 돌이 바꼇디 것고라 개위옌 헷수다.(아, '개위'라고 한 것은 세 번째 돌이 바깥에 것더러 '개위'라고 했습니다.)

108006 @ 시 번째 돌?(세 번째 돌?)

108006 #1 예를 들면 돌 트망 허믄은 우리 난간, 난간에 트망난 디를 개위 트망, 개위 트망 헷수다.(예를 들면 돌 틈 하면은 우리 난간, 난간에 틈난 데를 개위 틈, 개위 틈 했습니다.)

108006 @ 그건 나무로 헷수가?(그건 나무로 했습니까?)

108006 #1 아니, 거 ᄀᆞ뜬 도린디 그 트망에 놓는 것을 개위.(아니, 거 같은 도리인데 그 그 틈에 넣는 것을 개위.)

108006 @ 게난 그 개윗도리[242]는 돌로 뒌 거우꽈?(그러니까 그 '개윗도리'는 돌로 된 것입니까?)

108006 #1 아니우다.(아닙니다.)

108006 @ 나무?(나무?)

108006 #1 예, 나무로 뒌 거.(예, 나무로 된 거.)

---

239)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이다.
240) '고대'는 제보자에 의하면 서슬 틈틈이 흙 뀐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241) '개위'는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이다.
242) '개윗도리'는 보와 보 사이에 있는 도리이다.

108006 @ 개윗도린예, 나무로 헤 가지고.(‘개윗도린’요, 나무로 해 가지고.)

108006 #1 이 안네 문 둘단 베꼇딥주게.(이 안에 문 달다가 바깥이지요.)

108006 @ 베꼇디, 베꼇디 기둥?(바깥에, 바깥에 기둥?)

108006 #1 예, 예. 베꼇디 그 저 질 베꼇디광 안방광 그 트망.(예, 예. 바깥에 그 저 젤 바깥과 안방과 그 틈.)

108006 @ 아, 아, 그 사이에 세워진 거.(아, 아, 그 사이에 세워진 거.)

108006 #1 예, 것이 개위.(것이 개위.)

108006 @ 개윗기둥. 퉷지동, 퉷지동옌도 헙니까?(퇏기둥. 퇏기둥, 퇏기둥이라고도 합니까?)

108006 #1 예, 예.(예, 예.)

108006 @ 음, 퉷지동. 개윗도리는?(음, 퇏기둥. ‘개윗도리’는?)

108006 #1 개윗도리는 아까 곧은 나무로 질 우에 걸치는 것고라 개윗도리옌 헙니다.(‘개윗도리’는 아까 곧은 나무로 젤 위에 걸치는 것더러 ‘개윗도리’라고 합니다.)

108006 @ 그건 역할이 포하고 연결이 뒈는 거 아니우꽈예?(그건 역할이 보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8006 #1 예, 예.(예, 예.)

108006 @ 그러면 개윗도리는 그것이 포는 이렇게 세로로 뒈면 개윗도리는 가로로 이렇게?(그러면 ‘개윗도리’는 그것이 포는 이렇게 세로로 되면 ‘개윗도리’는 가로로 이렇게?)

108006 #1 아니, 포가 세 개 뒐 거니까 그 질 바꼇디 포허고 두 번째 포 그 새에 트망을 난간 트망이라든지 이 저 신장 ᄀᆞ뜬 디 잇수게, 그런 트망.(아니, 보가 세 개 될 거니까 그 젤 바깥에 보하고 두 번째 보 그 사이에 틈을 난간 틈이라든지 이 저 신장 같은 데 있습니다, 그런 틈.)

108006 @ 아, 예.(아, 예.)

108006 #1 그런 신장 ᄀᆞ뜬 디고라 개위 트망이렌 헙니다.(그런 신장 같은 데 ‘개위’ 틈이라고 합니다.)

108006 @ 그 혹시 천아반틀, 천아반틀이렌 헌 거를?(그 혹시 반자틀, 반자틀이라고 한 거를?)

108006 #1 예, 그 저 복밧낭[243]이엔 헙니다, 천아반틀을, 그 복밧낭이엔 헌 거는 구들과 구들방을 꾸미는디 천장을 불르기 위해서는 그 ᄀᆞ로로 영 놓은 거고라 복밧낭이엔 헙니다.(예, 그 저 ‘복밧낭’이라고 합니다, 반자틀을. 그 ‘복밧낭’이라고 한 거는 방과 구들방을 꾸미는데 천장을 바르기 위해서 그 가로로 이렇게 놓은 것더러 ‘복밧낭’이라고 합니다.)

108006 @ 아, 예.(아, 예.)

108006 #1 게서 그거 헤 놩은에, ᄯᅳ로 역시 그 우터레 이 대나무라든지, 거의

243) ‘복밧낭’은 벽지로 천장을 바르기 위해서 대나무를 엮어서 흙을 바를 수 있도록 만든 틀인 것 같다.

다 대나무로 헙니다. 대나무로 대 알로 흑 불랑 종이 불르믄 것이.(그래서 그거 해 놔서, 또 역시 그 위로 이 대나무라든지, 거의 다 대나무로 합니다. 대나무로 대 아래로 흙 발라서 종이 바르면 그것이.)

108006 @ 천아반틀은 게난 천장을 영 만들어 주젠 허니까 천아반틀을 놔야 뒈는 거구나예?(반자틀은 그러니까 천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반자틀을 놔야 되는 거군요?)

108006 #1 예, 예.(예, 예.)

108006 @ 음, 천아반틀이예?(음, 반자틀요?)

108006 #1 겐 그디 올라간 질 가운디 잇는 것고라 복밧낭이엔 허고마씨.(그래서 거기 젤 가운데 있는 것더러 '복밧낭'이라고 하고요.)

108006 @ 복밧낭?('복밧낭'?)

108006 #1 복밧낭.('복밧낭'.)

108006 @ 복밧낭인디 그러면 이 천아반틀은 다른 말로 뭐 써낫수가? 귀틀.('복밧낭'인데 그러면 이 반자틀은 다른 말로 뭐 썼었습니까? 귀틀.)

108006 #1 아니, 그런 말 엇수다.(아니, 그런 말 없습니다.)

108006 @ 그런 말 엇고예. 그다음에 그 천아반틀 우에는 뭐가?(그런 말 없고요. 그다음에 반자틀 위에는 뭐가?)

108006 #1 그 우에는 저 대를 가까 가지고 그 천장 놓는 겁주.(그 위에는 저 대를 깎아 가지고 그 천장 놓은 거지.)

108006 @ 천장 놓고.(천장 놓고.)

108006 #1 천장 놔 놩 우에 거 뚜로 이때도 이 흑을 톡톡 두드립니다. 안으로 흑질허기 좋게. 게 헤 놩 도비허는 겁주.(천장 놔 놔서 위에 거 또 이때도 이 흙을 톡톡 두드립니다. 안으로 흙질하기 좋게. 그렇게 해 놔서 도배하는 거지.)

108006 @ 아, 게난 그때 흑은 서끈 거 아니라예?(아, 그러니까 그때 흙은 섞은 거 아니에요?)

108006 #1 예, 흑허고, 흑 헐 때는 그 저 마당 하나썩 흑을 파다 놩 그디 쉐로도 불리고 사람도 불르고 헤 가지고 흠뻑 뀌우면서 그 수세[244]엔 헌 것이 잇입니다. 건 뭐냐 허믄 보리낭 ᄀᆞ뜬 거 썰엉 그레 ᄀᆞ치 서껑 허는 것고라 수세옌 헙주기. 경 헹은에 그걸 허영 불라놓곡 동네 사름덜 날라다 주믄 불리는 사름덜, 날라가는 사름덜 영 헤 가지고 허면은 그 누게 집, 새집 짓어가믄 온 동네 사름덜이 다 도웨줍주게.(예, 흙하고, 흙 할 때는 그 저 마당 하나씩 흙을 파다 놔서 거기 소로도 밟고 사람도 밟고 해 가지고 흠뻑 뀌면서 그 '수세'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건 뭐냐 하면 보릿짚 같은 거 썰어서 그리 같이 섞어서 하는 것더러 '수세'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그걸 해서 밟아놓고 동네 사람들 날라다 주면 밟는 사람들, 날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은 그 누구 집, 새집 지어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도와주지요.)

244) '수세'는 초가집을 지을 때 흙과 함께 섞어 벽이나 천장에 바르는 보릿대를 잘게 자른 짚이다.

108006 @ 게난 그거 천장에도 ᄇᆞ르는 흑이나 벽ᄇᆞ름에 ᄇᆞ르는 흑이나 다 ᄀᆞ튼 거우꽈?(그러니까 그거 천장에도 바르는 흙이나 바람벽에 바르는 흙이나 다 같은 것입니까?)

108006 #1 예, ᄀᆞ튼 거우다.(예, 같은 것입니다.)

108006 @ 같은 거. 저기 돌에 부치는 흑도?(같은 거. 저기 돌에 붙이는 흙도?)

108006 #1 예.(예.)

108006 @ 똑같이 그자.(똑같이 그저.)

108006 #1 겐디 그 우에 허는 것은 조금 존돌은 끼어도 뒈는데 그 방에 안으로 ᄇᆞᆯ리는 것들은 수월이 허젠 허믄 자갈 엇인 흑이라야 헙주기. 게난 그 자갈 없는 흑을 만들젠 허믄 그 저 집이, 그 저 질왓[245] ᄀᆞ뜬 디 잇는 디는 예를 들어 고사리라든지 ᄯᅳ로 산소 잇는 데는 그대로 자갈 없는 돌이니까 뒈도 여기는 체가 셔 가지고 대나무 다 여끕니다. 여꺼 가지고 큰 방석을 걸쳐 가지고 흑을 팡은에 그레 탁 지치곡 지치곡 헤 가면은 자갈은 우에 널어지곡 좀진 흑은 알더레 떨어질 겁주. 게믄 그추룩 헤서 헙니다, 뭐.(그런데 그 위에 하는 것은 조금 잔돌은 끼어도 되는데 그 방에 안으로 밟는 것들은 수월하게 하려고 하면 자갈 없는 흙이라야 하지요. 그러니가 그 자갈 없는 흙은 만들려고 하면 그 저 집에, 그 저 '질왓' 같은 데 있는 데는 예를 들어 고사리라든지 또 묘 있는 데는 그대로 자갈 없는 돌이니까 돼도 여기는 체가 있어 가지고 대나무 다 엮습니다. 엮어 가지고 큰 방석을 걸쳐 가지고 흙을 파서 그리 탁 지치고 해 가면은 자갈은 위에 널어지고 자잘한 흙은 아래로 떨어질 거지. 그러면 그처럼 해서 합니다, 뭐.)

108007 @ 음. 그 방은 잇지 안 허우꽈? 아까 사칸집은 방 두 개, 게믄 하난 큰 방, 하나는?(음. 그 방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칸집은 방 두 개, 그러면 하나는 큰 방, 하나는?)

108007 #1 족은, 족은 구들.(작은, 작은 방.)

108007 @ 족은 구들, 이 큰 구들, 족은 구들허고, 그다음에 아까 고팡?(작은 방, 이 큰 방, 작은 방하고, 그다음에 아까 고방?)

108007 #1 챗방.(찻방.)

108007 @ 챗방.(찻방.)

108007 #1 부엌.(부엌.)

108007 @ 부엌, 정지예. 음, 그렇게 뒈고 혹시 시렁이라고 들어봅디가? 시렁.(부엌, 부엌요. 음, 그렇게 되고 혹시 벽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벽장.)

108007 #1 시렁.(벽장.)

108007 @ 시렁?(벽장?)

108007 #1 시렁이 아니고.('시렁'이 아니고.)

108007 @ 벡장?(벽장?)

108007 #1 아, 그 저 벡장이엔 헙니다, 벡장.(아, 그 저 벽장이라고 합니다, 벽

245) '질왓'은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이다.

장.)

108007 @ 벡장이엔 허지예? 시렁이엔 안 허고.(벽장이라고 하지요? '시렁'이라고 안 하고.)

108007 #1 예.(예.)

108007 @ 벡장, 여기선 벡장이렌 허는구나예. 시렁이 아니고예?(벽장, 여기선 벽장이라고 하는군요. '시렁'이 아니고요?)

108007 #1 예.(예.)

108007 @ 음, 벡장허고.(음, 벽장하고.)

108007 #1 벡장 우에는 그 저 궤 ᄀᆞ뜬 거라든지 올려놓고.(벽장 위에는 그 저 궤 같은 거라든지 올려놓고.)

108007 @ 올려놓고, 그 벡장에 이불도 놓고예?(올려놓고, 그 벽장에 이불도 놓고요?)

108007 #1 예.(예.)

108007 @ 혹시 이불상도 잇어낫수가?(혹시 이불상도 있었습니까?)

108007 #1 예, 이불상은 또 근래에는 옷장이라든 셔도 그 해방 이후ᄁᆞ지도 흔 칠십 년대 후반까지도 시집가젠 허믄 이불상 꼭 헨 가낫수다. 이제는 안 헤도.(예, 이불상은 또 근래에는 옷장이라든지 있어도 그 해방 이후까지도 한 칠십년대 후반까지도 시집가려고 하면 이불상 꼭 해서 갔었습니다. 이제는 안 해도.)

108007 @ 밥상보단 큰 거우꽈?(밥상보다 큰 것입니까?)

108007 #1 예, 큰 거, 이 정도는 헌 겁니다.(예, 큰 거, 이 정도는 한 겁니다.)

108007 @ 아, 이불 하나 놀만 헌 거예?(아, 이불 하나 놓을만 한 거요?

108007 #1 예, 식탁 정도.(예, 식탁 정도.)

108007 @ 이불 탁 쌓아 놓게 뭰 거, 그게 이불상이구나예? 그것도 만들앙 가져가낫구나예?(이불 탁 쌓아 놓게 된 거, 그게 이불상이군요? 그것도 만들어서 가져갔었군요?)

108007 #1 예, 예.(예, 예.)

108007 @ 예, 그러면 보통은 큰 방에는게 아랫목은 어디 굴묵[246] 옆에가 아랫목이랏수가?(예, 그러면 보통은 큰 방에는요 아랫목은 어디 '굴묵' 옆에가 아랫목이었습니까?)

108007 #1 예, 예. 굴묵이엔 헌 것이 대게 그레 땔감으로서는 ᄆᆞᆯ똥, 쉐똥이나 또 ᄀᆞ시락 이런 걸로 허는디 그 우에 돌을 저 어귀돌[247]이라든지 그 저 구들돌이라든지 그것을 어디 강 헤 오느냐 허면 저 월령[248] 우의 정원[249]이엔 헌 디 가서 것을 구루마 끗엉 강은에 그 저 마차라던지 헤 가지고 돌을 봉가당 바닥을 펜펜허게 놉주게. 놔 놩 앞으로 불 때면은 그것이 방이 전체가 더워지고, 또 돌 그때ᄁᆞ지 그런

246)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이다.
247) '어귀돌'은 아궁이 양 쪽에 놓인 돌이다.
248) '월령'은 제주시 한경면 월령리이다.
249) '정원'은 제주시 한경면 월령리에 있는 지경 이름이다.

돌 그 월령끄지라도 강 시꺼오지 아니 허영 이 근처서 하나썩 하나썩 봉가 왕 언 디만 요만이 넓은 디만 굴묵을 짇으믄 그자 그 방 전체가 뜨거운 것이 아이라 가운디만 영 뜨거와낫수게.(예, 예. '굴묵'이라고 한 것이 대개 그리 땔감으로서는 말똥, 소똥이나 또 까끄라기 이런 걸로 하는데 그 위에 돌을 저 '어귀돌'이라든지 그 저 구들장이라든지 그것을 어디 가서 해 오느냐 하면 월령 위에 '정원'이라고 한 데 가서 것을 마차 끌어서 가서 그 저 마차라든지 해 가지고 돌을 주워다가 바닥을 편편하게 놓지요, 놔 놔서 앞으로 불 때면은그것이 방이 전체가 더워지고, 또 돌 그때까지 그런 돌 그 월령리까지라도 가서 실어 오지 안 해서 이 근처나 하나씩 하나씩 주워 와서 언 데만 요만큼 넓은 데만 굴묵을 때면 그저 그 방 전체가 뜨거운 것이 아니라 가운데만 이렇게 뜨거웠었습니다.)

108007 @ 게난 그것은 더프는 디가 그 부분만 돌을 더퍼?(그러니까 그것은 덮는 데가 그 부분만 돌을 덮어?)

108007 #1 예, 예.(예, 예.)

108007 @ 게니까 구들 놀 때 전부 다 놓은 게 아니고 그디만 놓는 거라.(그러니까 방 놓을 때 전부 다 놓은 게 아니고 거기만 놓는 거야.)

108007 #1 예, 예. 게다 그것이 츠츠 발달뒈어 가니까 여기서 저 월령 우의 가민 구들돌 그 얄브랑헌 게 넙은 돌이 셔낫수다. 그걸 봉가당 구들 전체를 그런 돌을 쓰면은 거의 다 구들이 전체가 더워집주기.(예, 예. 그러다 그것이 차차 발달되어 가니까 여기서 저 월령리 위에 가면 구들장 그 얄브스름한 게 넓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걸 주워다가 방 전체를 그런 돌을 쓰면은 거의 다 방이 전체가 더워지지요.)

108007 @ 게난 구둘 놀 때는 뭘로, 돌로 세웁니까?(그러니까 방 놓을 때는 무엇으로, 돌로 세웁니까?)

108007 #1 예. 돌로 세우곡 트망에 돌로 하나썩 바투멍 그 연기로라도 다 돌게끔.(예. 돌로 세우고 틈에 돌로 하나씩 받치면 그 연기로라도 다 돌게끔.)

108007 @ 그거 흑 불르진 안 허고예?(그거 흙 바르진 않고요?)

108007 #1 게 놩 그거 아레 구들 놓는 사람이라고 저 기술자가 십니다. 그 사름 빌어당 걸 놔 놩 그 우터레 뚜로 흑을 문딱 불랑은에 도비헤십주게.(그래 놔서 그거 아래 방 놓는 사람이라고 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 빌어다가 걸 놔 놔서 그 위로 또 흙을 모두 발라서 도배했습지요.)

108007 @ 최종적으로 흑을 불라야 구들이 뭘 거난예?(최종적으로 흙을 발라야 방이 될 거니까요?)

108007 #1 예, 예.(예, 예.)

108007 @ 게난 그 돌, 구둘돌을 놔서 흑을 바르는구나.(그러니까 그 돌, 구들장을 놔서 흙을 바르는구나.)

108007 #1 예, 예. 게 허믄 넙은 돌로만 논 구들은 전체가 뚜상 좋곡, 뚜로 그 굴묵 아궁이 어귀돌이라고 헤 가지고 그디만 허영 가운디만 들어가게끔 헌 디는 그

자 영 가운디만 ᄃᆞ시고, 경 헤십주기.(예, 예. 그래 하면 넓은 돌로만 놓은 방은 전체가 따뜻해서 좋고, 또 그 굴묵 아궁이 '어귀돌'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만 해서 가운데만 들어가게끔 한 데는 그저 이렇게 가운데만 따뜻하고, 그렇게 했습지요.)

108008 @ 음, 게난 마리도 놓지예? 마리도.(음, 그러니까 마루도 놓지요? 마루도.)

108008 #1 예, 마리도, 마루에는 그 저 널로 허는디 최고 좋은 마리는 요즘도 그 굴무기라든지 ᄯᅳ로 저 이런 나무로 허는 것이 아주 좋고, 또 사오기라든지 허면은 마루가 오래 갑주게. 오래 가고 그 나무는 좀을 아이 먹어마씨. 좀 아이 먹으니까 그런 걸로 마루를 놧수다.(예, 마루도, 마루에는 그 저 널판으로 하는데 최고 좋은 마루는 요즘도 그 느티나무라든지 또 저 이런 나무로 하는 것이 아주 좋고, 또 저 벚나무라든지 하면은 마루가 오래 가지요. 오래 가고 그 나무는 나무좀을 아니 먹어요. 나무좀 아니 먹으니까 그런 걸로 마루를 놨습니다.)

108008 @ 게난 포나 서슬[250] ᄀᆞ뜬 거 헐 땐 어떤 나무 씁니까?(그러니까 보나 '서슬' 같은 거 할 땐 어떤 나무를 씁니가?)

108008 #1 포, 서슬 ᄀᆞ뜬 것은, 웃도리 포는 제일 좋은 게 가볍곡 오래 좀 아이 먹곡 허는 것이 소리낭이라예.(보, '서슬' 같은 것은, 웃도리 보는 제일 좋은 게 가볍고 오래 좀 아니 먹고 하는 것이 소리나무입지요.)

108008 @ 소리낭.(소리나무.)

108008 #1 소리낭으로 포를 허고 ᄯᅳ로 포나 상ᄆᆞ르 ᄀᆞ뜬 것도 그 저 소리낭으로 헙니다. 겐디 소리낭으로 헐 때는 전인 저 웃드르[251] 가 가지고 저 이 소리낭이라든지 ᄃᆞᆫᄃᆞᆫᄒᆞᆫ 낭, 그 가시낭 이런 걸로 헤당 헷수다.(소리나무로 보를 하고 또 보나 '상ᄆᆞ르' 같은 것도 그 저 소리나무로 합니다. 그런데 소리나무로 할 때는 전에는 저 '웃드르' 가 가지고 저 이 소리나무라든지 단단한 나무, 그 가시나무로 이런 것으로 해다가 했습니다.)

108008 @ 큰 나무들이 잇구나예, 지금도예?(큰 나무들이 있군요, 지금도요?)

108008 #1 예, 게도 질 처음은 백양목 들어올 때, 하기는 백양목으로도 헤낫는디 그것은 ᄒᆞᆫ ᄃᆞᆯ 가지 못헤서 보가 좀 들어마씨.(예, 그래도 젤 처음은 백양목 들어올 때, 하기는 백양목으로도 했었는데 그것은 한 달 가지 못해서 보가 좀 일어요.)

108008 @ 아, 좀 일어예?(아, 나무좀 일어요?)

108008 #1 그런 것을 피허기 위헤 가지고는 백양목 이거 좋은 나무로구나, 그렇게 헤 가지고 것을 한참 거 저 집집마다 권장헤 가지고 울타리에 싱거십주게. 겐 걸로 헨 보니까 재게 좀 먹어불고 허니까 아, 이것은 ᄯᅳ로 목재로 안 뒈겟다, 영 헤 가지고, 게서 그때는 그 소나무로 많이 헷수다, 뭐.(그건 것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는 백양목 이거 좋은 나무로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한참 거 저 집집마다 권장해 가지고 울타리에 심었습지요.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보니까 재우 나무좀 먹

250)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이다.
251) '웃드르'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이나 마을이다.

어버리고 하니까 아, 이것은 또 목재로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그 소나무를 많이 했습니다, 뭐.)

108008 @ 음, 소나무로예? 기둥도 소나무로 썻수가?(음, 소나무로요? 기둥도 소나무로 썼습니까?)

108008 #1 예, 소나무 그 전이는 가시낭이라든지 뚜로 저 이 사오기나무라든지 뚜로 저 이.(예, 소나무 그 전에는 가시나무라든지 또 저 이 벚나무라든지 또 저 이.)

108008 @ 굴무기.(느티나무.)

108008 #1 굴무기, 이런 걸로 헌 것은 아주 최고 좋은 거고, 것이 엇일 때는 소나무로 헤십주기.(느티나무, 이런 걸로 한 것은 아주 최고 좋은 거고, 그것이 없을 때는 소나무로 했습지요.)

108008 @ 음, 마루 까는 것도 주로 굴무기로 헷수가?(음, 마루 까는 것도 주로 느티나무로 했습니까?)

108008 #1 예, 그걸로만 헤 주민 최고 좋은 겁주게.(예, 그걸로만 해 주면 최고 좋은 거지요.)

108008 @ 아, 오래 가지 안 헙니까예?(아, 오래 가지 않습니까?)

108008 #1 예, 예. 건 좀도 아이 먹고 빗깔이 좋아마씨.(예, 예. 건 나무좀도 아니 먹고 빛깔이 좋아요.)

108008 @ 빗깔이 좋고. 게난 이 집도 원래는 그런 게 다 잇어낫구나예?(빛깔이 좋고. 그러니까 이 집도 원래는 그런 게 다 있었었군요?)

108008 #1 예, 이디서 살안 저 문 단 것도 다 헤십주기.(예, 여기서 살아서 저 문 단 것도 다 했습지요.)

108008 @ 게니까 이게 마루에예, 혹시 부섭[252]이렌 헌 거 들어봅디가? 부섭.(그러니까 이게 마루에요, 혹시 '부섭'이라고 한 거 들어봤습니까? '부섭'.)

108008 #1 부섭이라니?('부섭'이라니?)

108008 @ 그 돌화리.(그 돌화로.)

108008 #1 아, 돌화리.(아, 돌화로.)

108008 @ 예.(예.)

108008 #1 예, 돌화리 ᄀᆞ뜬 거, 것도 혼 멧 집에 하나썩 다 셔낫수다.(예, 돌화로 같은 거, 것도 한 몇 집에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108008 @ 게난 요런 디 왕 설치, 그 밋테 영 집어 놓고 허는 건 안 허고예?(그러니까 요런 데 와서 설치, 그 밑에 이렇게 집어넣고 하는 건 않고요?)

108008 #1 아, 그 돌화리는 이렇게 마릿방을 저 널짝으로 놓은 디는 아니허고, 그 마루 놓지 못헹 가난헌 집 ᄀᆞ튼 딘 흔디 영 심어 가지고 거기서 돌화리 불 부쩡, 또 불도 쪼이곡 경 헤낫수다.(아, 돌화로는 이렇게 마루방을 저 널판으로 놓은

252) '부섭'은 '상방'이라는 초가 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 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이다.

데는 안 하고, 그 마루 놓지 못해서 가난한 집 같은 데는 함께 이렇게 잡아 가지고 거기서 돌화로 불 붙여서, 또 불도 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108008 @ 아, 마리에 놓지 안 허고?(아, 마루에 놓지 않고?)

108008 #1 안 헌 집이는 돈이 없어 가지고 마리를 다 놓지 못헌 디는 거기 저 돌화리로 헤낫수다. 돌화리는 뜨로 흔 동네에 흔 예실곱 밧디벳기 아이 뭽주게. 그건 뜨로 잔치헐 때라든지 이럴 때에 전 ᄀᆞ뜬 거 지질 때 돌화리 이용헤 가지고 빌어당 쓰고, 돌화리는.(안 한 집에는 돈이 없어 가지고 마루를 다 놓지 못한 데는 거기 저 돌화로로 했었습니다. 돌화로는 또 한 동네에 한 예닐곱 곳밖에 아니 되지요. 그건 또 잔치할 때라든지 이럴 때에 전 같은 거 지질 때 돌화로 이용해 가지고 빌어다가 쓰고, 돌화로는.)

108009 @ 음, 게난 그거는 마리에도 허고 혹시 부엌에도 헤낫수가?(음, 그러니까 그거는 마루에도 하고 혹시 부엌에도 했었습니까?)

108009 #1 부엌에는 그거 불덕[253]이라고 잇엇는디 그건 큰 돌 아니고 막 곤란헌 집이 가운디 영 놩은이 가운디서만 불솔뢍 허는 디 것이 불덕입주게.(부엌에는 그거 '불덕'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큰 돌 아니고 아주 곤란한 집에 가운데 이렇게 놔서 가운데서만 불살라서 하는 데 것이 '불덕'이지요.)

108009 @ 아, 그거는 이제 솟 앚치는 게 아니고 그냥 불 쬐는 걸로?(아, 그거는 이제 솥 앉히는 게 아니고 그냥 불 쬐는 것으로?)

108009 #1 예, 예.(예, 예.)

108009 @ 불덕?('불덕'?)

108009 #1 예, 예.(예, 예.)

108009 @ 아, 그렇구나예. 게난 마루에다 사실 그 돌 놔불믄 마루가 혹시 타불지 모르커라예?(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루에다 사실 그 덜 놔버리면 마루가 혹시 타버릴지 모으겠어요?)

108009 #1 예, 거니까 ᄀᆞᆯ암수게. 곤란헌 집이 마루를 놀 형편이 아이 뭰 집에는 그렇게 허고, 게 아니면은 마루라십주.(예, 그러니까 말하고 잇습니다. 곤란한 집에 마르를 놓을 형편이 아니 된 집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아니면은 마루였지요.)

108009 @ 음, 마루 안 놓으믄 이딘 무신 방이엔 헷수가?(음, 마루 안 놓으면 여기는 무슨 방이라고 했습니까?)

108009 #1 삼방은 삼방인디 마루 아이라도 그 저 가운디 불덕 놩 불도 쬐곡, 그디 강.(대청은 대청인데 마루 아니라도 그 저 가운데 '불덕' 놔서 불도 쬐고, 거기 가서.)

108009 @ 게난 마루가, 안 ᄁᆞᆯ믄 따로 무슨 방이엔 안 헷수가?(그러니까 마루가, 안 깔면 따로 무슨 방이라고 않았습니까?)

108009 #1 그냥 삼방이엔 헙니다.(그냥 대청이라고 합니다.)

108009 @ 삼방이엔 허고마씀?(대청이라고 하고요?)

253) '불덕'은 언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부엌 가운데 화로처럼 만들어 불을 쬐던 곳이다.

108009 #1 삼방이엔 ᄀᆞᆯ아도.(대청이라고 말해도.)

108009 @ 삼방이엔 허고.(대청이라고 하고.)

108009 #1 건 가정생활이 곤란헌 집에 그렇게 헤십주기.(건 가정생활이 곤란한 집에 그렇게 했습지요.)

108009 @ 여긴 고팡이렌 헙니까? 궤팡이렌 헙니까?(여긴 '고팡'이라고 합니까? '궤팡'이라고 합니까?)

108009 #1 궤팡이렌 헙니다.('궤팡'이라고 합니다.)

108009 @ 궤팡예, 그 궤팡에 대헤서 ᄀᆞᆯ아줍서.(고방요, 그 고방에 대해서 말해 주십시오.)

108009 #1 궤팡은 거의 다 쏠, 일 년 먹을 양식을 보관허는 건디, 큰 항들 놔 가지고, 건 항에 보리도 놓곡, 조도 놓곡, 콩도 놓곡 헤십주.(고방은 거의 다 쌀, 일 년 먹을 양식을 보관하는 건데, 큰 독들 놔 가지고, 건 독에 보리도 넣고, 조도 넣고, 콩도 넣고 했습지요.)

108009 @ 거기에도 무슨 저 창곰[254]이 잇어낫수가?(거기에도 무슨 저 '창곰'이 있었습니까?)

108009 #1 예, 창곰이엔 헌 건 이추룩 문을 ᄃᆞᆯ면 훤허영 좋은디 경을 못허니까 고망을 요만이 뚤랑 만들고 글로 ᄒᆞ끔 영.(예, '창곰'이라고 한 건 이처럼 눔을 달면 훤해서 좋은데 경을 못하니까 구멍을 요만큼 뚫어서 만들고 거기로 조금 이렇게.)

108009 @ ᄇᆞ름 통허게.(바람 통하게.)

108009 #1 ᄇᆞ름 통허는 것보다도 일광이 통허영 ᄒᆞ끔 베롱헙주기, 전기 엇인 때난.(바람 통하는 것보다도 일광이 통해서 조금 약간 밝지요, 전기 없는 때니까.)

108009 @ 햇빗이 들어오게.(햇빛이 들어오게.)

108009 #1 예, 전기가 엇어 놓니깐.(예, 전기가 없어 놓으니까.)

108009 @ 창곰, 그다음은.('창곰'. 그다음은.)

108009 #1 저 ᄯᅳ로 가시낭이라고 헌 것이 잇엇수다. 건 어떤 말이냐 허믄 전이 그 저 그 요즘은 도둑놈들 들면은 돈 들러가도 그때는 돈도 엇고 헌 때니까 쌀이 대단이 힘들어십주게. 게난 축담[255]을 헐엉 글로 도둑 들엉 쌀도 퍼 가니까 걸 못허게 허기 위헤서 축담 안으로 나무를, 이런 축담 셔도 사름 들어 다니지 못허게 나무를 세워낫수다. 그 축담 다으멍.(저 또 가시나무라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건 어떤 말이냐 하면 전에 그 저 요즘은 도둑놈들 들면은 돈 들러가도 그때는 돈도 없고 할 때니까 쌀이 대단히 힘들었습지요. 그러니까 축담을 헐어서 거기로 도둑 들어서 쌀도 퍼 가니까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축담 안으로 나무를, 이런 축담 있어도 사람 들어 다니지 못하게 나무를 세웠었습니다. 그 축담 쌓으면서.)

108009 @ 가시낭?(가시나무?)

108009 예, 예.(예, 예.)

---

254) '창곰'은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낸 구멍이다.

255) '축담'은 집채 둘레에 돌로 쌓은 담이다.

108009 @ 가시낭 닮은 거 사람 못 들어오게예?(가시나무 같은 거 사람 못 들어오게요?)

108009 #1 예, 예.(예, 예.)

108009 @ 거난 이제 못 들어오게 허는 거네예, 방비용으로, 그런 것도 잇구나예. 그 혹시 뭐 여기도 안칠성[256]이렌 허영 이 고팡 귀신안테 뭐?(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거네요, 방비용으로, 그런 것도 있군요. 그 혹시 뭐 여기도 '안칠성'이라고 해서 이 고방 귀신한테 뭐?)

108009 #1 아, 건 우리 고향에는 그런 것이 없엇수다. 없고 저 대림사동[257]에 가면은 그디 역시 건 할망당[258]이라고 헤 가지고 신이 잇고, 또 저 옹포[259]도 가면은 그 저 옹포 장칩 ᄀᆞ뜬 디는 이 저 칠성[260]을 위헤사 뒌다 허여 가지고 그 뱀을 위허는 사름덜은 칠성이엔 헙니다.(아, 건 우리 고향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없고 저 대림사동에 가면은 거기 역시 건 '할망당'이라고 해 가지고 신이 있고, 또 저 '옹포'도 가면은 그 저 '옹포' 장씨 집 같은 데는 이 저 '칠성'을 위해야 된다 하여 가지고 그 뱀을 위하는 사람들은 '칠성'이라고 합니다.)

108009 @ 뱀?(뱀?)

108009 #1 뱀을 그 신앙허는 걸 칠성이엔 헤마씸. 겐에 그런 것을 허영 저 뒤 ᄀᆞ뜬 디 강 주지 톡 더껑은에 큰일 넘어난 때는 음식물 ᄒᆞ끔 케우림도 허곡 뱀을 위헤서.(뱀을 그 신앙하는 걸 '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 것을 저 뒤 같은 데 가서 주저리 톡 덮어서 큰일 넘어난 때는 음식물 조금 고사도 하고 뱀을 위해서.)

108009 @ 게난 안칠성은 칠성인데 궤팡에 잇인 칠성 귀신이난 안칠성이엔 헷수가?(그러니까 '안칠성'은 '칠성'인데 고방에 있는 칠성 귀신이니까 '안칠성'이라고 했습니까?)

108009 #1 아니, 궤팡엔 그걸 아니허고 그것을 위허는 집은 보통 뒤 ᄀᆞ뜬 디 강 그 저 주지라고 헤 가지고, 눌 문딱 눌어난 끗데 가운데 영 더끄는 거, 요런 것을 톡 놔 가지고 그런 걸 헷수다만, 우리 어른 뒌지 후제는 대림 ᄀᆞ뜬 디는 그런 거 엇엇수다.(아니, 고방엔 그걸 않고 그것을 위하는 집은 보통 뒤 같은 데 가서 그 저 주저리라고 해 가지고, 가리 모두 쌓았던 끝에 가운데 이렇게 덮는 거, 요런 것을 톡 놔 가지고 그런 걸 했습니다만, 위리 어른 된 후에는 대림리 같은 데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108009 @ 게믄 여기 뭐 제사 지낼 때 고팡에 뭐?(그러면 여기 뭐 제사 지낼 때 고방에 뭐?)

108009 #1 아, 그건 저 그 그런 예가 어떤 예냐 허면 제사 지낼 때는 첫째는 문호, 그 집안에 가면은 가신이라고 헙주게. 문호, 게 가지고 조상제를 지내기 전에

256) '안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한다.
257) '대림사동'은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이다.
258) '할망당'은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을 모시는 당이다.
259) '옹포'는 제주시 한림읍 옹포리이다.
260) '칠성'은 부를 관장하는 신으로, 뱀을 말한다.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다.

문전제[261]를 지냅니다, 뭐.(아, 그건 저 그 그런 예가 어떤 예냐 하면 제사 지낼 때는 첫째는 문호, 그 집안에 가면은 가신이라고 하지요. 문호, 그래 가지고 조상제를 지내기 전에 '문전제'를 지냅니다, 뭐.)

108009 @ 문전제?('문전제'?)

108009 #1 예, 문전제를 지내는 거는 가신을 위한 것으로서 문전제를 지내고 다음은 뚜로 그 저 다 지내놩 그때 ᄒᆞ끔썩 종지에 놔 가지고 뚜로 저 부엌신을 위혜 가지고 뚜로 ᄒᆞ끔썩 ᄐᆞ나논 걸 부엌에 보내고.(예, 문전제를 지내는 거는 가신을 위한 것으로서 문전제를 지내고 다음은 또 그 저 다 지내놔서 그때 조금식 종지에 놔 가지고 또 저 부엌신을 위해 가지고 또 조금씩 뜯어놓은 걸 부엌에 보내고.)

108009 @ 아, 건 고팡신 아니고 조왕신[262]. 정지에 잇는 조왕신.(아, 건 고방신 아니고 '조왕신'. 부엌에 있는 '조왕신'.)

108009 #1 예, 겐디 저 고팡에도 그레 허곡.(예, 그런데 저 고방에도 그리 하고.)

108009 @ 게난 거기도 귀신이 잇덴 말 아니라예?(그러니까 거기도 귀신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108009 #1 예, 예. 다 미신입주게.(예, 예. 다 미신이지요.)

108009 @ 게난 뚜로 들에 나가면은 영장 묻을 때 토신제 ᄀᆞ뜬 것도 토신을 위한 것이고, 집에서 문전제 지내는 것은 가신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조상보단도 문전제를 지내는 것이, 지내놩 조상제를 지내십주게.(그러니까 또 들에 나가면은 영장 묻을 때 토신제 같은 것도 토신을 위한 것이고 집에서 문전제 지내는 것은 가신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조상보다도 문전제를 지내는 것이, 지내놔서 조상제를 지내습지요.)

108009 @ 건 뭐 가신안테 일단 지내놓고. 집귀신안테 먼저 올려놓고.(건 뭐 가신한테 일단 지내놓고, 집귀신한테 먼저 올려놓고.)

108009 #1 예, 그래서 부모를 또 섬겨십주. 건 지금도 그러는 디는 하우다.(예, 그래서 부모를 또 섬겼습지요. 건 지금도 그러는 데는 많습니다.)

108009 @ 아, 예, 우리도 문전제 헙니다.(아, 예, 우리도 문전제 합니다.)

108009 #1 예, 예.(예, 예.)

108009 @ 문전제 해 놓고 시작을 헙니다.(문전제 해 놓고 시작을 합니다.)

108009 #1 것이 가신입주게.(것이 가신이지요.)

108010 @ 예, 그 정지 잇지 안허우꽈예, 정지에 잇는 구조가 어떻게 뒙니까? 정지는.(예, 그 부엌 있지 않습니까, 부엌에 있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부엌은.)

108010 #1 정지는 보통 정지는 그 저 곧 대문을 올앙 들어오면서 눈에 아이 띠는 곳으로 솟을 앚집니다. 게 그 처음에는 축담 그 부쪄 가지고 저 솟을, 솟을 니개ᄁᆞ지 앚지게끔 만들어서 불치는 베꼇더레 털으치멍 경 내쳐낫는디 그게 뚜로 ᄒᆞ끔썩 발달뒈어 가니까 그 베꼇디 경 불치 내치멍 그디 솟 앚진 것이 아니라, 온돌

261) '문전제'는 제사 때 가신에게 문전에서 지내는 제이다.
262) '조왕신'은 부엌을 맡은 여신이다.

시겨서 온돌방을 놓멍 거기서 불을 때면 방도 뜻시고, 또 항상 그 저 솟디서는 더운 물도 써지곡 허니까 온돌방을 놔십주게. 온돌방을 놀 때도 아까도 이야기헷수다만 그 뭣이냐 월령 ᄀᆞ뜬 디 가 가지고 넙작헌 돌덜을 겆당 구둘 딱 놩은에 온돌 때면은 온 방이 다 뜨십주게. 그추룩 허여 가지고.(부엌은 보통 부엌은 그 저 곧 대문을 열어서 들어오면서 눈에 아니 띄는 곳으로 솥을 앉힙니다. 그래 그 처음에는 축담 그 붙여 가지고 저 솥을, 솥을 네 개까지 앉히게끔 만들어서 재는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그렇게 내쳤었는데 그게 또 조금씩 발달되어 가니까 그 바깥에 그렇게 재를 내치면서 거기 솥 앉힌 것이 아니라, 온돌 시켜서 온돌방을 놓으면서 거기서 불을 때면 방도 따뜻하고, 항상 그저 솥에서는 더운 물도 써지고 하니까 온돌방을 놨습지요. 온돌방을 놓을 때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뭣이냐 '월령리' 같은 데 가 가지고 넓적한 돌들을 갖다가 바 딱 놔서 온돌 때면은 온 방이 다 따뜻하지요. 그처럼 해 가지고.)

108010 @ 굴묵 안 짇어도예?('굴묵' 안 때어도요?)

108010 #1 게곡 뜻로 굴묵 짇는 디는 그냥 가운딜로만 허영 ᄆᆞᆯ똥이나 그자 ᄀᆞ시락으로 때곡.(그리고 또 굴묵 때는 데는 그냥 가운데로만 해서 말또이나 그저 까끄라기로 때고.)

108010 @ 게난 부엌 부튼 방은 굴묵 안 헤도 뒈고.(그러니까 부엌 붙은 방은 굴묵 안 해도 되고.)

108010 #1 예, 예.(예, 예.)

108010 @ 부엌 안 부튼 디는 굴묵을 짇엇고.(부엌 안 붙은 데는 굴묵을 때었고.)

108010 #1 예, 예. 그 굴묵 아이 부뜬 방도 전이는 그대로 그 솟을 뜻로 앚져 가지고 헷는디 이제는 방을 때기 위헤서는 ᄎᆞᄎᆞ 발달뒈어 가니까 온돌방도 시설뒈니까 불을 때멍도 헤나십주.(예, 예. 그 굴묵 아니 붙은 방도 전에는 그대로 그 솥을 또 앉혀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방을 때기 위해서는 차차 발달되어 가니까 온돌방도 시설되니까 불을 때면서도 했었습지요.)

108010 @ 게난 솟덕은 처음에 바께로 헷다가 좀 지나니깐 방 쪽으로?(그러니까 봇돌은 처음에 밖으로 좀 지나니까 방 쪽으로?)

108010 #1 예, 방 쪽으로 헤 가지고 구둘 뒈면은 그 솟 앚져난 우에는 그 저 뭣고 벡장 헤 가지고, 벡장 허곡, 벡장 밋테는 부엌, 구들에서 이용허는 것이 아이라 부엌에서 이용해지게끔 헤근에 솟 앚졍 불 솜아십주.(예, 방 쪽으로 해 가지고 방 되면은 그 솥 앉혀난 위에는 그 저 뭣이고 벽장 해 가지고, 벽장 하고, 벽장 밑에는 부엌, 방에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엌에서 이용해지게끔 해서 솥 앉혀서 불 때었습지요.)

108010 @ 아, 그렇지 그니까 벡장 밋테가 솟을 앚진 거라예?(아, 그렇지 그러니까 벽장 밑에가 솥을 앉힌 거지요?)

108010 #1 예, 예.(예, 예.)

108010 @ 그 부엌, 정지 옆에 찻방예, 그 찻방은 살레레는 안 허고마씨?(그 부엌, 부엌 옆에 찻방요, 그 찻방은 살강이라고는 않고요?)

108010 #1 쳇방을 살레레는 안 허고, 살레레는 것은 저 이 식기 놓는 그런 것고라 살레렌 헙니다.(찻방을 살강이라고는 않고, 살강이라는 것은 저 이 식기 넣는 그런 것더러 살강이라고 합니다.)

108010 @ 아, 그런 걸 살레렌 허고, 찻방은 부엌, 정지 가기 전이 지금 말허믄 식탁 잇는데.(아, 그런 걸 살강이라고 하고, 찻방은 부엌, 부엌 가기 전에 지금 말하면 식탁 있는데.)

108010 #1 예. 식탁도 놓고, 살레도 놓고 경 허는 디, 그 정지에서 밥 거려 내치면 이 마루방에서 먹는 게 아니라 쳇방에서 먹는 거.(예. 식탁도 놓고, 살강도 놓고 그렇게 하는 데, 그 부엌에서 밥 떠 내치면 이 마루방에서 먹는 게 아니라 찻방에서 먹는 거.)

108010 @ 음, 쳇방예, 그거는예. 쳇방 안에는 뭣들? 살레도 잇고?(음, 찻방요, 그거는 요. 찻방 안에는 뭣들? '살레'도 있고?)

108010 #1 살레도 잇고, 거기가 식사, 식사 거기서 주로 헤십주게.('살레'도 있고, 거기가 식사, 식사 거기서 주로 했습지요.)

108010 @ 밥도 거기서 먹어시난예?(밥도 거기서 먹었으니까요?)

108010 #1 예.(예.)

108010 @ 거기서 무슨 쏠?(거기서 무슨 쌀?)

108010 #1 쏠 망데기 ᄀᆞ튼 것도 잇어도 거 오래도 이 저 대게 고팡에 강 거려당 헤마씨.(쌀 옹기 같은 것도 있어도 거 오래도 이 저 대개 고방에 가서 떠다가 해요.)

108010 @ 고팡에?(고방에?)

108010 #1 거곡 ᄯᅳ로 망데기쯤 놔 가지고는 좁쏠 ᄀᆞ뜬 거라든지 이런 거 겆다가, 손쉽게 허기 위헤서 허는 겁주.(그리고 또 옹기쯤 놔 가지고는 좁쌀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108010 @ 게난 밥상이나 좀 놔두고?(그러니까 밥상이나 좀 놔두고?)

108010 #1 예, 게 가지고 허는디 그 저 보통 부엌 ᄌᆞᄁᆞᆺ데는 바꼇드로는 장항, 장독이라든지 이런 걸 놉주. 게고 부엌 ᄌᆞᄁᆞᆺ디 통지 이런 거 안 헤낫수다.(예, 그래 가지고 하는데 보통 부엌 곁에는 바깥으로는 장독, 장독이라든지 이런 걸 놓지. 그리고 부엌 곁에 돼지우리 이런 거 안 했었습니다.)

108010 @ 예, 맞수다게.(예, 맞습니다.)

108010 #1 부엌 반대쪽으로만 허고.(부엌 반대쪽으로만 하고.)

108010 @ 부엌허곤 멀리 떨어지게?(부엌하고는 멀리 떨어지게?)

108010 #1 예.(예.)

108011 @ 혹시 입쟁이[263], 문입젱이는?(혹시 '입쟁이', 문설주는?)

263) '입쟁이'는 간가름도리와 장지틀 사이에 세우는 세로 부재이다.

108011 #1 아, 문입젱이는 이런 것고라 문입젱이엔 헙니다. 게서 그 어떠냐 허면은 그 문광 문, 벽ᄇᆞ름광 문 새이에 칸을 가르는 것이 문입젱이라마씨.(아, 문설주는 이런 것더러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냐 하면은 그 문과 문, 바람벽과 문 사이에 칸을 가르는 것이 문설주지요.)

108011 @ 게, 문지둥?(그래, 문기둥?)

108011 #1 예, 문지동.(예, 문기둥.)

108011 @ 문지둥예, 문지둥? 게 이 문지둥은 삼방에 문지둥이나 방에 문지둥덜은 어떵?(문기둥요, 문기둥? 그래 이 문기둥은 대청에 문기둥이나 방에 문기둥들은 어떻게?)

108011 #1 그것도 역시 춤낭으로 헤지믄, 뭐 가시낭이라든지 뚜로 오갈피라든지 뚜로 이 소리낭이라든지 이런 거 잇으믄 좋읍주만은 엇이믄 것도 소나무로 대게 햇수다만은, 그 옛날에는 소나무도 웃곡 경 헐 적에는 그 화전에 가 가지고 나무를 비어다가 다 헷는디 근래에는 소나무집을 많이 지어십주게. 게믄 그 소낭으로 헤다가 집에서 그 제재소가 없을 때에는 거 가끄고 톱질허영 헤 가지고 올림도 허곡 헤 낫수다. 걸 문지동을 헷수다, 뭐.(그것도 역시 참나무로 해지면, 뭐 가시나무라든지 또 오갈피라든지 또 이 소리나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좋습지만 없으면 그것도 소나무로 대개 했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소나무도 없고 그렇게 할 적에는 그 화전에 가 가지고 나무를 베어다가 다 했는데 근래에는 소나무집을 많이 지었습지요. 그러면 그 소나무로 해다가 집에서 그 제재소가 없을 때에는 거 깍고 톱질해서 해 가지고 오리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걸 문기둥을 했었습니다, 뭐.)

108011 @ 그러면 그 밋테는 그 문지동 밋테 끼우는 데는?(그러면 그 밑에는 그 문기둥 밑에 끼우는 데는?)

108011 #1 그 저 이 주춧돌더레 이으는 거.(그 저 주춧돌로 잇는 거.)

108011 @ 돌철귀, 뭐 돌철귀?(돌쩌귀, 뭐 돌쩌귀?)

108011 #1 아, 돌체기.(아, 돌쩌귀.)

108011 @ 돌체기?(돌쩌귀?)

108011 #1 돌체기는 저 그 문광 문 새이에 올앗다 더껏다 허는, 이제 ᄀᆞ뜨믄 조방[264]입주, 조방. 그것ᄀᆞ라 돌체기옌 헙주게.(돌쩌귀는 저 그 문과 문 사이에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제 같은면 '조방'이지, '조방'. 그것더러 돌쩌귀라고 하지요.)

108011 @ 올앗당 더껏당?(열었다 닫았다가?)

108011 #1 예, 현재 그것은 돌체기고, 대문에는 문지도리라고 허고마씨.(예, 현재 그것은 돌쩌귀고, 대문에는 문지도리라고 하고요.)

108011 @ 문주도리?(문지도리?)

108011 #1 예, 문지도리는 대문에 헌다든지 매 방마다 그 이제는 호차로 올앗다 더껏다 헙주마는 그때는 거의 다 베껏디 돌아가멍은 문주도리 허여 가지고, 지방 우터레 문 둘앙 허곡 그 문주도리 헤 가지고 올앗닥 더껏닥 허는 거라마씨. 올앗닥

264) '조방'은 옛날 돌쩌귀를 뜻하는 건축 용어다. 합장이라고도 한다.

더껏닥 허는 것고라 밀창, 밀문이라고 헤십주, 이런 것들은 밀문.(예, 문지도리는 대문에 한다든지 매 방마다 그 이제는 호차로 열었다 닫았다 하지만 그때는 거의 다 바깥에 돌아가면서는 문지도리 하여 가지고, 문지방 위로 문 달아서 하고 그 문지도리 해 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지요.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더러 미닫이, 미닫이라고 했습지요, 이런 것들은 미닫이.)

108011 @ 영 영 허는 거예?(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요?)

108011 #1 예, 건 밀문. 게 아닌 건 그냥 문주도리, 게 가지고 그 저 요즘 저 문주도리에는 활동허는 사름은 건강헤진다는 격으로 흠치 물 들어가는 디 잇지 안 허우꽈게? 건 어떠냐 허면은 문주도리를 올앗닥 더껏닥 허니까 좀을 아이 먹나 이런 뜻에서 그 흠치 물도 영 헹은에 건강헌 사름은 그추룩 계속 운동허면은 병도 아이 걸리곡 헌다는 이런 뜻에서 좀을 아이 먹읍주게.(예, 건 미닫이. 그래 아닌 건 그냥 무지도리, 그래 가지고 그 저 요즘 문지도리에는 활동하는 사람은 건강해진다는 격으로 한꺼번에 물 들어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건 어떠냐 하면은 문지도리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니까 나무좀을 아니 먹나 이런 뜻에서 그 한꺼번에 물도 이렇게 해서 건강한 사람은 그처럼 계속 운동하면은 병도 안 걸리고 한다는 이런 뜻에서 나무좀을 아니 먹습지요.)

108011 @ 그 문지방에 보면 그 문지방에다가 그 홈을 파야 끼워 놓을 거 아니라예?(그 문지방에 보면 그 문지방에다가 그 홈을 파야 끼워 놓을 거 아니에요?)

108011 #1 예, 예.(예, 예.)

108011 @ 그 홈들은 건 뭐렌 헙니까? 아까 돌체기?(그 홈들은 건 뭐라고 합니까? 아까 돌쩌귀?)

108011 #1 예, 예. 돌체기옌도 허고 문주도리.(예, 예. 돌쩌귀라고도 하고 문지도리.)

108011 @ 문주도리, 음, 문주도리옌도 허고예?(문지도리, 음, 문지도리라고도 하고요?)

108011 #1 예.(예.)

108012 @ 그러면 그건 문기둥이고 문이난 창문 잇지 안 허우꽈예? 그러면 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잇는디 어떤, 어떤 문들이 잇수가?(그러면 그건 문기둥이고 문이니까 창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어떤 문들이 있습니까?)

108012 #1 제일 처음에는 이런 미닫이엔 헌 것이 잇어십주기. 문주도리 대게 허여 가지고 그 올앗닥 더껏닥 허는 문으로 허다가 이게 그 일제 말 뒈어가니까 이런 집이라든지 뚠 집이덜토 다 미닫이, 올앗닥 더껏닥 허는 이런 문들이예. 이렇게 뒈어십주.(제일 처음에는 이런 미닫이라고 한 것이 있었습지요. 문지도리 대개 해 가지고 그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문으로 하다가 이게 그 일제 말 되어가니까 이런 집이라든지 딴 집들도 다 미닫이,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이런 문들요. 이러게 됐습지요.)

108012 @ 게난 그 이런 상방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올앗닥 더껏닥 허는 문?(그러니까 그 이런 대청으로 들어올 때는 그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문?)

108012 #1 것고라 대문이엔 헷수다.(것더러 대문이라고 했습니다.)

108012 @ 대문이잖아예. 대문이고, 이건 대문이고.(대문이잖아요. 대문이고, 이건 대문이고.)

108012 #1 이 구들에 잇는 것은 지게문.(이 방에 있는 것은 지게문.)

108012 @ 지게문? 이건 지게문이고. 또 창이 잇는 거는?(지게문? 이건 지게문이고, 또 차이 있는 거는?)

108012 #1 창문은 그, 창문은 역시 저 문지도리 안 헤 가지고 돌체기 가지고 허는 건디, 건 싸 가지고 창오지로 볼라야 뒈는 거라, 창문.(창문은 그, 창문은 역시 저 문지도리 안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건 싸 가지고 창호지로 발라야 되는 거야, 창문.)

108012 @ 게난.(그러니까.)

108012 #1 거는 일광이 들어오게끔 허젠 허난 볼르는 창문들입주. 겨다가 창문이 자꾸 변경뒈어 가지고 이제 유리도 박고 미닫이도 다 뒈어십주게.(거는 일광이 들어오게끔 하려고 하니까 바르는 창문들이지. 그러다가 창문이 자꾸 변경되어 가지고 이제 유리도 박고 미닫이도 다 되었습지요.)

108012 @ 뭐 상깃이렌 헌 건, 생깃, 상깃 뭐 이렇게 헤서?(뭐 상기둥이라고 한 건, 상기둥, 상기둥 뭐 이렇게 해서?)

108012 #1 아, 상기는.(아, '상기'는?)

108012 @ 상깃?('상깃'?)

108012 #1 상기는 그 저 집안에 놓질 안 헙니다. 그 저 동네 물방에 ᄀᆞ뜬 디 강 놔 두지. 건 어떠냐 허면 상기는 사름이 죽어 가지고 화단 ᄀᆞ뜬 거 놓는 것ᄀᆞ라 상기엔 허는디.('상기'는 그 저 집안에 놓지를 않습니다. 그 저 동네 연자매 같은 데 가서 놔두지. 건 어떠냐 하면 상여는 사람이 죽어 가지고 화단 같은 거 놓는 것더러 상여라고 하는데.)

108012 @ 아니, 상기둥?(아니, 상기둥?)

108012 #1 아, 상기둥.(아, 상기둥.)

108012 @ 상기둥, 상기둥 허지 안 헙니까?(상기둥, 상기둥 하지 않습니까?)

108012 #1 예, 저 기둥은 질 중요헌 게 ᄉᆞ 지둥이라 헤 가지고 건 든든헌 거 폿지둥을 허믄 상기둥이엔 헙니다.(예, 저 기둥은 젤 중요한 게 상기둥이라고 해 가지고 건 단단한 거 봇기둥을 하면 상기둥이라고 합니다.)

108012 @ 게난 문에는 이 보니까 상기둥, 상기둥 헤 가지고 문에 그, 것이 잇는데 그거는 이 뭐꽈? 문설주?(그러니까 문에는 이 보니까 상기둥, 상기둥 해 가지고 문에 그, 그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입니까? 문설주?)

108012 #1 예.(예.)

108012 @ 문설주에 창곰[265], 창곰이 문설주지예? 아, 아니다 창곰이 아니고 창

곰은 요만헌 것이 창곰이고, 그 문기둥하고, 문기둥하고예, 상기둥은 같은 건 아니우꽈?(문설주에 '창곰', '창곰'이 문설주지요? 아, 아니다 '창곰'이 아니고 '창곰'은 요만한 것이 '창곰'이고, 그 문기둥하고, 문기둥하고요, 상기둥은 같은 건 아닙니까?)

108012 #1 아니우다.(아닙니다.)

108012 @ 다른 거?(다른 거?)

108012 #1 예.(예.)

108012 @ 상기둥은 어떤 것이 상기둥이우꽈?(상기둥은 어떤 것이 상기둥입니까?)

108012 #1 상기둥은 그 저 문주도리 말고, 이런 문지방이, 이런 것고라 상기둥이엔 헙니다.(상기둥은 그 저 문지도리 말고, 이런 문지방이, 이러 것더러 상기둥이라고 합니다.)

108012 @ 문지방을?(문지방을?)

108012 #1 예, 예.(예, 예.)

108012 @ 아, 기둥이 아니고?(아, 기둥이 아니고?)

108012 #1 아랫 건 이건 지방이고, 옆인 편방[266], (아래 건 이건 문지방이고, 옆에는 편방.)

108012 @ 편방?('편방'?)

108012 #1 것ᄀᆞ라는 편방이엔 헙니다.(것더러 '편방'이라고 합니다.)

108012 @ 아, 편방, 기둥하곤 좀 다른 거?(아, '편방', 기둥하고는 좀 다른 거?)

108012 #1 예, 기둥보다는 조끔 약헌 건디.(예, 기둥보다는 조금 약한 것인데.)

108012 @ 게난 거 바로 이 문지방허고 이 뭐야 문지둥허고 바로 연결뒈는 게 아니라?(그러니까 거 바로 이 문지방하고 이 뭐야 문기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야?)

108012 #1 예, 예, 문지둥이엔, 편방이 도리하고 밋테 알도리ᄁᆞ지 연결시켜 가지고 허는 건디 그 편방을 부쪄야 가운디 도리도 그 축ᄇᆞ름도 멘들고 헐 겁주게. 축ᄇᆞ름이엔 헌 것은 그 편방과 편방 새이에 그 낭, 낭으로 영 막아 놩 그 우터레 대라든지 여꺼 가지고 흑을 불르면 방이 갈라지곡 허는 겁주.(예, 예, 문기둥이라고, '편방'이 도리하고 밑에 아랫도리까지 연결시켜 가지고 하는 건데 그 편방을 붙여야 가운데 도리도 그 벽 만들고 할 거지요. 벽이라고 한 것은 그 '편방'과 '편방' 사이에 그 나무, 나무로 이렇게 막아 놔서 그 위로 대라든지 엮어 가지고 흙을 바르면 방이 갈라지고 하는 거지.)

108012 @ 그 창문은, 그 일반 구들에도 창곰, 창곰을 만들아낫수가?(그 창문은, 그 일반 방에도 '창곰', '창곰'을 만들었었습니까?)

108012 #1 전인 일반 구들에도 창굼은 읏엇수다, 창굼은. 창굼이엔 헌 건 그 저

265) '창곰'은 고방을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낸 구멍이다. '창굼'이라고 한다.
266) '편방'은 문기둥을 뜻하는 건축용어다.

고팡이라든지 문을 둘 수 없는 디, 베롱허게 안에 것을 봐 질 수 잇게끔 허기 위헤 가지고 그 창굼을 헤십주기.(전에는 일반 방에도 '창굼'은 없었습니다. '창굼'이라고 한 건 그 저 고방이라든지 문을 달 수 없는 데, 불빛이 희미하게 안에 것을 봐 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창굼'을 했습지요.)

108012 @ 음.(음.)

108012 #1 게믄 글로 어떤 젠 고넹이 ᄀᆞ튼 것도 왕 창굼으로 들곡.(그러면 거기로 어떤 빠른 고양이 같은 것도 와서 '창굼'으로 들고.)

108012 @ 게난 옛날에는 그,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창문이나 대문이나 옆에예, 그 쪼그만 거?(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창문이나 대문이나 옆에요, 그 조그만 거?)

108013 #1 아, 호령창[267]. 호령창이라고 헌 것이 잇어십주. 대문 ᄌᆞ꼿디 조그만 문이 잇어양.(아, '호령창'. '호령창'이라고 한 것이 있었습지요. 대문 곁에 조그만 문이 있어요.)

108013 @ 예.(예.)

108013 #1 문 시면 그디서 양반이라든지 누구냐 허멍 이 문을 올지 안 허영 호령창이라고 헤 가지고 그 문만, 족은 문입주.(문 잇으면 거기서 양반이라도 누구냐 하면서 이 문을 열지 않아서 '호령창'이라고 해 가지고 그 문만, 작은 문이지.)

108013 @ 족은 문, 거 올앙 사름 확인허는 거구나예?(작은 문, 거 열어서 사람 확인하는 거군요?)

108013 #1 예, 예.(예, 예.)

108013 @ 그거 영 올앙예?(그거 이렇게 열어서요?)

108013 #1 예, 예.(예, 예.)

108013 @ 경 헹 호령헌다 헨 그건가마씨?(그렇게 해서 호령한다 해서 그건가요?)

108013 #1 예, 겐 호령창입주.(예, 그래서 '호령창'이지.)

108013 @ 아, 그래서 호령창, 그 호령창에 대헌 거 ᄀᆞᆯ아줍서, 호령창.(아, 그래서 '호령창', 그 '호령창'에 대해서 거 말해주십시오, 호령창.)

108013 #1 호령창이엔 헌 건 이 가운데는 대문 싯고 옆에게 트망으로 좁은 문을 헤 가지고 그 일반 사름덜이 출입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올앗닥 더껏닥 허는 것고라 호령창.('호령창'이라고 한 건 이 가운데는 대문 있고 옆에요 틈으로 좁은 문을 해 가지고 그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것더러 '호령창'.)

108013 @ 이렇게 열지 않고 영 올아마씨?(이렇게 열지 않고 이렇게 열어요?)

108013 #1 아이, 그냥 영 올앗닥 더껏닥 허는 거마씨.(아니, 그냥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거요.)

108013 @ 미닫이예?(미닫이요?)

---

267) '호령창'은 마루방인 대청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마한 창이다.

108013 #1 미닫이가 아니고, 저 그 일반 문ᄀᆞ찌 뭔 겁주게. 대문, 대문ᄀᆞ찌.(미닫이가 아니고, 저 그 일반 문같이 된 거지요. 대문, 대문같이.)

108013 @ 대문ᄀᆞ찌.(대문같이.)

108013 #1 예, 예. 그 미닫이라는 대문 허젠 허믄 문이 구짝 그건 좋은 낭이라야 허는 건디 이건 그것보단 낮은 거, 족읍주기.(예, 예. 그 미닫이라는 대문 하려고 하면 문이 곧게 그건 좋은 나무라야 하는 것인데 이건 그것보다는 낮은 거, 작습지요.)

108013 @ 안에서 영 헹 보곡, 영 헹 닫아불곡?(안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 이렇게 해서 닫아버리고?)

108013 #1 예.(예.)

108013 @ 호령창. 여기도 그 옛날에는 호령창 다 잇어낫수가?(호령창. 여기도 그 옛날에는 호령창 다 있었습니까?)

108013 #1 아니, 호령창 잇는 집이 드물엇수다.(아니, 호령창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108013 @ 드물엇수가?(드물었습니까?)

108013 #1 예, 부잣집이나 조금 저 뭐 헌 집이나 허주, 경덜 매 집이 호령창 헤나지 안 헷수다.(예, 부잣집이나 조금 더 뭐 한 집이나 하지, 그렇게들 매 집이 호령창 했었지 않습니다.)

108014 @ 그 굴묵에 대헤서 ᄀᆞᆯ아줘봅서.(그 '굴묵'에 대해서 말해줘 보십시오.)

108014 #1 굴묵[268]은 그 저 대게 방을 때게 허는 디ᄀᆞ라 굴묵이엔 헙니다. 방을 때 가지고 허는 건데 그 궤 트망으로 벡장 아레, 벡장 알로 굴묵을 멘듭주게. 베껫디는 ᄀᆞ시락 ᄀᆞ뜬 거 놓고, 그 안에 들어강 그 당그네로 ᄃᆞᆼ여 놩 그걸 가졍 그 ᄀᆞ시락이라든지 쉐똥을 줏어당 베껫디서 영 불 부찌믄 것이 굴묵입주.('굴묵'은 그 저 대개 방을 때게 하는 데를 '굴묵'이라고 합니다. 방을 때 가지고 하는 건데 그 궤틈으로 벽장 아래, 벽장 아래로 '굴묵'을 만들지요, 바깥에는 까끄라기 같은 거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고무래로 당겨 놔서 그걸 가져서 그 까끄라기라든지 소똥을 주워다가 바깥에서 이렇게 불 붙이면 것이 '굴묵'이지.)

108014 @ 아까 구들 놓을 때도 그런 식으로 불이 싹 돌아가게 놓는 거 아니라예?(아까 방 놓을 때도 그런 식으로 불이 싹 돌아가게 놓는 거 아니에요?)

108014 #1 예, 예.(예, 예.)

108014 @ 그 온기가 싹, 불기가 싹 돌게예?(그 온기가 싹, 불기가 싹 돌게요?)

108014 #1 예, 예.(예, 예.)

108014 @ 그 구들에예, 게난 그 굴묵은 굴묵을 때는 곳이 보통은 정지하곤 달리?(그 방에요, 그러니까 그 '굴묵'은 '굴묵'을 때는 곳이 보통은 부엌하고는 달리?)

108014 #1 예, 정지, 정지는 밋트로 솟 놔 가지고 때면은 자동적으로.(예, 부엌, 부엌은 밑으로 솥 놔 가지고 때면은 자동적으로.)

---

268) '굴묵'은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이다.

108014 @ 들어가게 뒈어 잇고.(들어가게 되어 있고.)

108014 #1 저 온기가 들어강 방이 ᄃᆞ시는 거고, 굴묵은 일부러 보리 ᄀᆞ시락이라든지 또는 쉐똥이라든지 ᄆᆞᆯ똥이라든지 이런 걸로 헤서 그레 영 저 당그네라 헤 가지고 걸 영 ᄃᆞᆼ이는 것고라 당그네엔 헙니다.(저 온기가 들어가서 방이 따뜻하는 거고, '굴묵'은 일부러 보리 까끄라기라든지 또는 소똥이라든지 말똥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그리 이렇게 고무래라 해 가지고 걸 이렇게 당기는 것더러 고무래라고 합니다.)

108014 @ 예, 예.(예, 예.)

108014 #1 그걸로 헹 영 쑤욱이 ᄀᆞ시락이든지 걸 디믈앙 ᄀᆞᆺ디 불 때는 것고라 굴묵이라고 헙주기. 게난 ᄒᆞ를 두 번 때는 것고라 허믄 ᄒᆞ를해원 뜨시고, 경 안 허면은 그냥 강은에 ᄌᆞ냑이만 때믄 안네 다 탄 재를 당그네로 ᄆᆞᆫ딱 ᄃᆞᆼ겨 뒁, ᄯᅳ로 ᄃᆞᆼ영 재 욮더레 저 재, 불체는 밀려두고, ᄯᅳ로 역시 저 보리 ᄀᆞ시락이라든지 쑥 밀려 가지고 불을 때는 겁주기.(그걸로 해서 이렇게 쑥 까끄라기든지 그걸 집어넣어서 가에 불 때는 것더러 '굴묵'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루 두 번 때는 것더러 하면 하루종일 따뜻하고, 그렇게 안 하면은 그냥 가서 저녁에만 때면 안에 다 탄 재를 고무래로 모두 당겨 둬서, 또 당겨서 재 옆으로 저 재, 재는 밀려두고, 또 역시 저 보리 까끄라기든지 쑥 밀려 가지고 불을 때는 거지요.)

108014 @ 굴묵은 특별헌 명칭이 엇구나?('굴묵'은 특별한 명칭이 없구나?)

108014 #1 예, 예.(예, 예.)

108014 @ 게난 아궁이하고 밖에 입구 사이에' 그 공간이 굴묵이구나예?(그러니까 아궁이하고 밖에 입구 사이에 그 공간이 '굴묵이군요?)

108014 #1 예, 예. 게난 그 안터레 들어가는 도에 공간ᄀᆞ란, 공간에는 ᄯᅳ로 ᄀᆞ시락이라든지, 저 쉐똥, ᄆᆞᆯ똥을 놓고.(예, 예.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도에 공간더러, 공간에는 또 까끄라기든지, 저 소똥, 말똥을 놓고.)

108014 @ 놔두고.(놔두고.)

108014 #1 예, 그디서 그 안네 가운딜로는 ᄯᅳ로 불 때고, 그걸 ᄯᅳ로 새로 때젠 허믄 당그네로 ᄆᆞᆫ딱 불체 내뒁 그레 또 담앙 불 부치곡. 이게 역할입주, 뭐.(예, 거기서 그 안에 가운데로는 또 불 때고, 그걸 또 띠로 때려고 하면 고무래로 모두 재 내둬서 그리 또 담아서 불 붙이고. 이게 역할이지, 뭐.)

108014 @ 게난 그거는 얼마나 때믄, 그 시간은?(그러니까 그거는 얼마나 때면, 그 시간은?)

108014 #1 시간은 보통 ᄒᆞ를 그 저 농촌에서도 ᄒᆞ를 ᄒᆞᆫ 번 뗍니다. 나는 저 추운 겨울에는 ᄒᆞ를 두 번을 헤서마씨.(시간은 보통 하루 그 저 농촌에서는 하루 한 번 뗍니다. 나는 저 추운 겨울에는 하루 두 번을 했어요.)

108014 @ 음.(음.)

108014 #1 두 번을 허믄 ᄒᆞ를해원 덥곡게, 아니믄 밤새낭 더웁주게.(두 번을 하면 하루종일 덥고요, 아니면 밤새도록 덥지요.)

108014 @ 두 번이면 언제, 언제 걸 때낫수가?(두 번이면 언제, 언제 걸 땠었습니까?)

108014 #1 보통 겨울 들면 흔 다섯 시쯤에.(보통 겨울 들면 한 다섯 시쯤에.)

108014 @ 때고.(때고.)

108014 #1 때고, 또 뒷날 아침 두 번 때젠 허믄 뒷날 아침 가서 불 시믄 그냥 뚜로 역시 쑥 밀려뒁 그 ᄀᆞ시락이든지 ᄆᆞᆯ똥을 디믈면 자동으로 다 뒈는 겁주.(때고, 또 뒷날 아침 두 번 때려고 하면 뒷날 아침 가서 불 있으면 그냥 또 쑥 밀려둬서 그 까끄라기든지 말똥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다 되는 거지.)

108014 @ 아, 게난 아침까지 불기가 남아 잇이믄예?(아, 그러니까 아침까지 불기가 남아 있으면요?)

108014 #1 예, 예.(예, 예.)

108014 @ 게믄 그건 계속 온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네예?(그러면 그건 계속 온기가 그냥 들어가는 거네요?)

108014 #1 예.(예.)

108014 @ 계속.(계속.)

108014 #1 예. 게난 거 질레에 뎅일 때라든지 소덜 물 멕이레 갈 때, 그런 디 강 똥 싸 놓으믄 부지런헌 사름덜은 망텡이 멩 강 질레에 것을 다 줏어와십주게. 겆당 올레 ᄀᆞ뜬 디 널엉 놔뒀당, 거 ᄆᆞᆯ르믄 그거 굴묵더레 들여뒀당 경 헤십주게. 경 허난 그 저 굴묵 웨엔, 뚜로 대충은 닭덜, 둑, 둑텅엘 멘들앙 그 저 올리기도 헤낫수다.(예. 그러니까 거 길에 다닐 때라든지 소들 물 먹이러 갈 때, 그런 데 가서 똥 싸 놓으면 부지런한 사람들은 망태기 메어서 가서 다 주워왔습지요. 갖다가 올레 같은 데 널어서 놔뒀다가, 거 마르면 그거 굴묵으로 들여뒀다가 그렇게 했습지요. 그렇게 하니까 그 저 '굴묵' 외에는, 또 대충은 닭들, 닭, 닭둥우리을 만들어서 그 저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108014 @ 둑텅에?(닭둥우리?)

108014 #1 예, 둑, 닭집입주, 닭집.(예, 닭, 닭집이지요, 닭집.)

108014 @ 닭집, 아, 닭집, 거기 집을 멘들앙 뚜뜻헌 디 닭 들어왕 살게?(닭집, 아, 닭집, 거기 집을 만들어서 따뜻한 데 닭 들어와서 살게?)

108014 #1 살게 허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도둑놈이 와서 베꼇디서 둑을 심어가붑주게.(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도둑놈이 와서 바깥에서 닭을 잡아가 버리지요.)

108014 @ 예.(예.)

108014 #1 심어가니까 그걸 방지허기 위헤 가지고 문 ᄌᆞ꼿디 걸.(잡아가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문 곁에 걸.)

108014 @ 둑텅에?(닭둥우리?)

108014 #1 예, 둑텅에, 예.(예, 닭둥우리, 예.)

108014 @ 둑텅에, 둑서렁이엔도 헷수가?(닭집, 닭의어리라고도 했습니까?)

108014 #1 예. 그건 쪼끔썩 지역에 따랑 다르기도 헙니다.(예. 그건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도 합니다.)

108014 @ 게난 여기선 듹텅에?(그러니까 여기선 닭둥우리?)

108014 #1 예. 게난 지금은 거 저 그런 거 아니 헤도 겨울 들민양 그 젊은 놈덜 부량헌 놈덜 놈의 집 듹덜 심어당 잡아먹어버려나십주게. 게난 그걸 방지허기 위헤서 그레 들어가당 누구나 허믄 도망치곡 허는, 게난 그걸 방지허는 걸로 경 헤낫수다. 경 허다가 그것이 ᄒᆞ끔 누그러지니까 ᄯᅳ로 듹망이라고 헤 가지고 ᄯᅳ로 짓엉 허고마씨.(예. 그러니까 지금은 거 저 그런 거 아니 해도 겨울 들면요 그 젊은 놈들 불량한 놈들 남의 집 닭들 잡아다가 잡아먹어 버렸었습지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들어가다가 누구나 하면 도망치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조금 누그러지니까 또 닭망이라고 해 가지고 또 지어서 하고요.)

108014 @ 게난 굴묵 짇을 때는 쉐똥허고 ᄆᆞᆯ똥허고 ᄀᆞ시락 ᄀᆞ찌 담아낫수가?(그러니까 굴묵 땔 때는 소똥하고 말똥하고 까끄라기 같이 담았었습니까?)

108014 #1 예.(예.)

108014 @ 그냥 담안예?(그냥 담아서요?)

108014 #1 예. 게난 그 소똥허고 ᄆᆞᆯ똥이란 것은 불이 오래 가고, ᄀᆞ시락만 담은 것은 오래 가지 안 헤마씨.(예. 그러니까 그 소똥하고 말똥이란 것은 불이 오래 가고, 까끄라기만 담은 것은 오래가지 않아요.)

108014 @ 오래 가지 안 헤예?(오래가지 않아요?)

108014 #1 예.(예.)

108014 @ 그니까 일단은 불 처음 살리는 것은 ᄀᆞ시락으로 살리고, 은근이 계속 이어가는 거는 쉐똥이나 ᄆᆞᆯ똥으로?(그니까 일단은 불 처음 살리는 것은 까끄라기로 살리고, 은근히 계속 이어가는 거는 소똥이나 말똥으로?)

108014 #1 예.(예.)

108014 @ 오래 이어가는 거고예?(오래 이어가는 거고요?)

108014 #1 예.(예.)

108015 @ 그 저 초가집에 풍체 잇지 안 허우꽈예? 앞에 영 허는 거, 그거에 대허영 좀 ᄀᆞᆯ아줍서.(그 저 초가에 차양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말해주십시오.)

108015 #1 풍체옌 헌 건 말 그대로 바람 가리개입주게.(차양이라고 한 건 말 그대로 바람 가리개이지요.)

108015 @ 바람 가리개예?(바람 가리개요?)

108015 #1 예, 예. 그건 역시 긴, ᄀᆞ늘고 길게 벋은 나무덜 줄라 가지고 것을 귀바르게 한 일 메다 너벅지로 헤 가지고 걸 짜 놩 그 우터레 ᄂᆞ람지[269] 두 판이 헹 그 풍체에 입주게. 일어 가지고 비 가림이라든지 바람막이로 헤 가지고 걸 무뚱[270]

269)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에 세웁주, 것고라 풍체엔 헙주기. 겐디 건 아무 때라도 뒈는디 집 이는 거 ᄀᆞ튼 것은 저 화일은 안 헤낫수다.(예, 예. 그건 역시 긴, 가늘고 길게 벋은 나무들 잘라 가지고 그것을 귀 바르게 한 일 미터 넓이로 해 가지고 그걸 짜 놔서 그 위로 'ᄂᆞ람지' 두 판이 해서 그 차양에 이지요. 이어 가지고 비 가림이라든지 바람막이로 해 가지고 걸 '무뚱'에 세우지, 것더러 차양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건 아무 때라도 되는데 집 이는 거 같은 것은 저 화일은 안 했었습니다.)

108015 @ 화, 화?(화, 화?)

108015 #1 화일이라고 헤 가지고.(화일이라고 해 가지고.)

108015 @ 화일, 화일은 안 허고?(화일, 화일은 않고?)

108015 #1 예, 예.(예, 예.)

108015 @ 불나카부덴. 하하하.(웃음)(불날까 싶어서. 하하하.(웃음))

108015 #1 자, 오, 묘, 유, 인을 저 화일이엔 헙니다. 게난 그날은 저 집 일질 아니허여마씨.(자, 오, 묘, 유, 인을 저 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저 집 이질 않아요.)

108015 @ 게난 이 초집 이는 거는 ᄒᆞ끔 잇당 들어볼 거고예. 그 풍체는 한 가지이꽈? 아니면 서 잇는 풍체, 달린 풍체?(그러니까 이 초가 이는 거는 조금 잇다가 들어볼 거고요. 그 차양은 한 가지입니까? 아니면 서 있는 차양, 달린 차양?)

108015 #1 아, 건 그대로 풍체는 집 우에, 영 ᄃᆞᆯ아진, 집 가지에 ᄃᆞᆯ아메 가지고 비 올 때라든지 이것을 방지시키는 것은 풍체엔 허고, ᄯᅳ로 산풍체라고 싯수다. 건 박거리라든지 뚠 디 그 ᄯᅳ로 영 세왓다가 옆더레 세우곡 허는 거 셔나십주.(아, 건 차양은 집 위에, 이렇게 매달린 집 가지에 달아매 가지도 비 올 때라든지 이것을 방지시키는 것은 차양이라고 하고, 또 선차양이라고 있습니다. 건 바깥채라든지 딴데 그 또 이렇게 세웠다가 옆으로 세우고 하는 거 있었습지요.)

108015 @ 아, 산풍체.(아, 선차양.)

108015 #1 예, 건 그 이렇게 흔 이칸집이라든지 좀 곤란헌 집에는게 삼방에 강덜 다 못허면은 그 베낏더레 그거 영 세왓다가 ᄯᅳ로 날 좋으면 옆더레 들여놓고.(예, 건 그 이렇게 한 이칸집이라든지 좀 곤란한 집에는요 대청에 사서들 다 못하면은 그 바깥으로 그거 이렇게 세웠다가 또 날 좋으면 옆으로 들여놓고.)

108015 @ 게난 이동식이네예, 이동식으로?(그러니까 이동식이네요, 이동식으로?)

108015 #1 예.(예.)

108015 @ 딱 고정형으로 처마에 영 부텅 헌 게 아니라.(딱 고정형으로 처마에 이렇게 붙어서 한 게 아니라.)

108015 #1 그건 그냥 풍체고, 산풍체라 헤 가지고 세와진 풍체가 셧수다.(그건 그냥 차양이고, 선차양이라 해 가지고 세워진 차양이 있었습니다.)

108016 @ 세와진 풍체. 그 옛날에 물허벅, 물 떠단 먹엇지예?(세워진 차양. 그

270) '무뚱'은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옛날에 물허벅, 물을 떠다가 먹었지요?)

108016 #1 아, 예. 것고라 물팡[271]이엔 헙니다.(아, 예. 것더러 '물팡'이라고 합니다.)

108016 @ 게난 이디 집에 물팡이 잇지 안 허꽈예? 이 집에. 그 물팡 잇어낫수가?(그러니까 여기 집에 물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 그 물팡 있었습니까?)

108016 #1 예, 건 집집마다 물팡이 셔마씨. 건 부엌 밋테, 부엌 베꼇디 축담[272] 부쪄 가지고 허벅 부릴 디 쓸 만큼만 돌 쌍 우터레 넙작헌 돌 하나 놩 그레 물 질어당 부엌엔 뚜로 그 어느 집을 막론하고 물항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헤십주게.(예, 건 집집마다 물팡이 있어요. 건 부엌 밑에, 부엌 바깥에 '축담' 붙여 가지고 허벅 부릴 데 쓸 만큼만 돌 쌓아서 위로 넓적한 돌 하나 놔서 그리 물 길어다가 부엌엔 또 그 어느 집을 막론하고 물독을 하나 내지 두 개 정도는 했습지요.)

108016 @ 음.(음.)

108016 #1 저 우리 대림 ᄀᆞ뜬 디는, 또 그렇지 안 헌 디는 이 물이 흔헌 디는 물항 하나로 뭽니다만은, 것이 저 그 부엌에 물항을 꼭 헤낫수다.(저 우리 대림리 같은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이 물이 흔한 데는 물독 하나로 됩니다만은, 것이 저 그 부엌에 물독을 했었습니다.)

108016 @ 그 저 물 떠오는 거는 물허벅 말고 다른 거 또 잇어낫수가?(그 저 물 떠오는 거는 물허벅 말고 다른 거 또 있었습니까?)

108016 #1 그 일반 농촌, 뚠 디도 그 해방이 뒈 가고 허니까 바가쓰 ᄀᆞ뜬 것도 나고양, 이거 들렁 뎅이는 거 시니까 가까운 디 건 걸로 들러십주만은, 전이는 집집마다 물허벅, 걸로 물 질엇수다, 뭐.(그 일반 농촌, 딴 데도 그 해방이 돼 가고 하니까 양동이 같은 것도 나고요, 이거 들러서 다니는 거 있으니까 가까운 데 건 걸로 들렀습지만, 전에는 집집마다 물허벅, 걸로 물 길었습니다, 뭐.)

108016 @ 음. 혹시 대베기[273]란 말 들어봣수가?(음. 혹시 '대베기'란 말 들어봤습니까?)

108016 #1 아, 대베기는 허벅이 족은 것고라 대베기엔 헙니다.(아, '대베기'는 허벅이 작은 것더러 '대베기'라고 합니다.)

108016 @ 허벅이 족은 거?(허벅이 작은 거?)

108016 #1 예.(예.)

108016 @ 게난 무사 족은 거마씨?(그러니까 왜 작은 거요?)

108016 #1 건 큰 허벅은 어른덜이나 져 뎅이는 것이고, 여자덜은 욱아 가믄 우선 물 질부떠 베와사 헌다 허연에, 어린아이덜 졍 뎅길 거 대베기엔 헹은에 구덕도 뚜로 십니다, 뭐. 것에, 열 술 넘어가믄 것에.(건 큰 허벅은 어른들이나 져 다니는 것이고, 여자들은 성장하여 가면 물 지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해서, 어린아이들 져

271) '물팡'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이다.
272) '축담'은 집채 둘레에 돌로 쌓은 담이다.
273) '대베기'는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이다.

서 다닐 거 '대베기'라고 해서 바구니도 따로 있습니다, 뭐.)

108016 @ 지게 허는 거?(지게 하는 거?)

108016 #1 예, 열 술 넘어가믄 물 강 질어오라 허믄 아이덜 강 질어옵주게.(예, 열 살 넘어가면 물 가서 길어오라 하면 아이들 가서 길어오지요.)

108016 @ 그게 족은 물허벅?(그게 작은 '물허벅'?)

108016 #1 예, 예. 족은 허벅고라 대베기.(예, 예. 작은 허벅더러 '대베기'.)

108016 @ 족은 허벅고라 대베기, 게난 그 물구덕은 뭘로 만들앗수가?(작은 허벅더러 '대베기', 그러니까 그 물구덕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16 #1 물구덕[274]은 대로 만드는데, 거 이젠 나이롱 ᄀᆞ뜬 거 하영 나오기도 허주만은 거의 다 대나무로 허는 광주리를 만들어십주기. 게난 그걸로 그 저 구덕을 만들어가지고 아레 뚜로 역시 배로 흔 줄 여껑, 창 빠지지 안 허게예, 그추룩 헤 가지고 무끄멍 헷는디 그 구덕만 멘든 것이 아니라, 대로 떡 구덕도 멘들곡, 아기구덕[275]도 만들곡, 뚜로 이것저것 가구덜을 다 만들아십주기. 게난 그때는 그 저 흔 동네라든지 이 개 ᄆᆞ을에 그 구덕 준는 사람이라 허여 가지고 그런 사름덜이 셧수다.('물구덕'은 대로 만드는데, 거이젠 나일론 같은 거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거의 다 대나무로 하는 광주리를 만들었습지요. 그러니까 그걸로 그 저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또 역시 참바로 한 줄 엮어서, 창 빠지지 않게요, 그처럼 해 가지고 묶으면서 했는데 그 바구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로 떡 바구니도 만들고, 아기구덕도 만들고, 또 이것저것 가구들을 다 만들었습지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저 한 동네라든지 이 개 마을에 그 바구니 겯는 사람이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8016 @ 음.(음.)

108016 #1 좀 솜씨 좋게 헤 가지고 대나무로 만드는 사름덜이 셧수다.(좀 솜씨 좋게 해 가지고 대나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8016 @ 그 대나무는 어디서 가져온 건고예?(그 대나무는 어디서 가져온 건가요?)

108016 #1 건 족대를, 그 저 족대허고 뚜로 검은 왕대허고, 왕대로 대나무 시 가지로 헙니다게. 겐디 그 보통 그런 가구를 만드는 것은 족대, 족대라는 저디 저 밧 이염이.(건 이대를, 그 저 이대하고 또 검은 왕대하고, 왕대로 대나무 세 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그 보통 그런 가구를 만드는 것은 이대, 이대라는 저기 저 밭 옆에.)

108016 @ 집이, 집 울타리에 영 심어 놓은 것이구나예?(집에, 집 울타리에 이렇게 심어 놓은 것이군요?)

108016 #1 예, 예.(예, 예.)

108016 @ 그걸로, 그걸 썻구나예?(그걸로, 그걸 썼군요?)

108016 #1 예, 그걸로 헹은에 허믄 꼭 집집마다 대왓이 셔십주.(예, 그걸로 해서

274) '물구덕'은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이다.
275) '아기구덕'은 대오리로 엮어 만든, 아기를 눕혀 재우는 장방형의 바구니이다.

하면 꼭 집집마다 대밭이 있었지.)

108016 @ 대왓이 이섯구나예, 맞아예.(대밭이 있었군요, 맞아요.)

108016 #1 예, 대왓 신 것은 우리 집이서만 못허면은 그 구덕 짜는 사름, 기술자안티 걸 하영 줭 우리 걸랑 멧 개 꼭 짜ᄃᆞ라이 허영은에 경 헤나십주.(예, 대밭 있는 것은 우리 집에서만 못하면은 그 바구니 짜는 사람, 기술자한테 그걸 해서 줘서 우리 것이랑 몇 개 꼭 짜달라 해서 그렇게 했었습지요.)

108016 @ 아, 게난 집에 이신.(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108016 #1 게난 기술자가 필요헌 것이 그 구덕도 줃곡 아기구덕도 줃곡, 물허벅도 줃곡 모든 것을 그 저 가정용품을 다 대로 만들아십주게. 허고 ᄯᅳ로 집 짓일 때 서슬[276]도 놓곡.(그러니까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그 바구니도 겯고 아기구덕도 겯고, 물허벅도 겯고 모든 것을 그 저 가정용품을 다 대로 만들었습지요. 하고 또 집 지을 때도 '서슬'도 놓고.)

108016 @ 음, 맞아, 서슬도 놓고.(음, 맞아, 서슬도 놓고.)

108016 #1 이 저 벽ᄇᆞ름도 대로 여끄곡, 게서 그땐 그 저 대가 상당이 중요헤 가지고 허연 경 집집마다 대를 심어나십주.(이 저 바람벽도 대로 엮고, 그래서 그땐 그 저 대가 상당히 중요해 가지고 해서 그렇게 집집마다 대를 심었었습지요.)

108016 @ 음.(음.)

108016 #1 겐 지금도 보면은 저 임야 베꼇디라도 멀리서 보믄 밧 구석이라도 대가 잇이민 하, 저기 집 잇어난 디로구나, 짐작헐 수 이십주게.(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 임야 바깥에라도 멀리서 보면 밭 구석이라도 대가 있으면 하, 저기 집 있었던 데로구나, 짐작할 수 있습지요.)

108017 @ 그 골목허고 올레허고 좀 다른 건가마씨?(그 골목하고 올레하고 좀 다른 건가요?)

108017 #1 그 올레옌 헌 것은 여러 사름이 ᄀᆞ찌 뎅겨 가야 허는 거고, 또 골목질이엔 헌 질 안질고라 골목질이엔 헙니다.(그 올레라고 한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다녀 가야 하는 거고, 또 골목길이라고 한 젤 안길더러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108017 @ 게믄 올레는 집 하나만 들어오는 디가 올레꽈?(그러면 올레는 집 하나만 들어오는 데가 올레입니까?)

108017 #1 예. 아니, 하나나 둘이나 큰질에서 안터레 들어온 디를 올레라고 허여예.(예. 아니, 하나나 둘이나 큰길에서 안으로 들어온 데를 올레라고 해요.)

108017 @ 게믄 이것도 올레우꽈?(그러면 이것도 올레입니까?)

108017 #1 예, 이건 올레입주.(예, 이건 올레이지.)

108017 @ 이것도 올레라?(이것도 올레야?)

108017 #1 예.(예.)

108017 @ 골목이 아니고예.(골목이 아니고요.)

108017 #1 예.(예.)

276) '서슬'은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이다.

108017 @ 골목은 게믄 어디?(골목은 그러면 어디?)

108017 #1 골목질은 거 길에 막 들어간 디.(골목길은 거 길에 아주 들어간 데.)

108017 @ 골목은 또 나가는 디가 이신 건가마씨?(골목은 또 나가는 데가 있는 건가요?)

108017 #1 아니, 아니, 골목은 다 막은 창이우다게.(아니, 아니, 골목은 다 막혀 있는 곳입니다.)

108017 @ 다 막은 창?(다 막혀 있는 곳?)

108017 #1 우리 집도 이 막은 창, 이게 골목이고. 그 질ᄀᆞ 집이서 큰질러레 들어가는 디는 가까웁주게, 그 들어가는 도, 입구를 올레옌 헤예.(우리 집도 이 막혀 있는 곳, 이게 골목이고. 그 길가 집에서 큰길로 들어가는 데는 가깝지요, 그 들어가는 도, 입구를 올레라고 해요.)

108017 @ 올레.(올레.)

108017 #1 질ᄀᆞ 집이는 이게 이염에서 대문 ᄃᆞᆯ아질 거니까 대문 ᄌᆞᄁᆞ디를 올레옌 협주게, 들어오는 입구.(길가 집에는 이게 옆에서 대문 달아질 거니까 대문 곁을 올레라고 하지요, 들어오는 입구.)

108017 @ 좌우지간 길가에서 들어오는 입구?(좌우지간 길가에서 들어오는 입구?)

108017 #1 예.(예.)

108017 @ 그 안으로 들어왕 쭉 들어온 건 골목?(그 안으로 들어와서 쭉 들어온 건 골목?)

108017 #1 골목.(골목.)

108017 @ 골목길, 그렇게 구분을 허는구나예?(골목길, 그렇게 구분을 하는군요?)

108017 #1 예. 게고 그 정낭[277]이라고 헌 것이 셔마씨. 지금 그 저 대문을 대신헤 가지고 정낭이란 것은 두 개도 걸치고 ᄒᆞ나도 걸치고 허는 것인디 건 어디 가젠 허믄 정낭을 톡 걸쳥 놔두민 아, 이 집인 사름이 없구나, 게 가지고 ᄄᆞᆫ 사름덜이 그디 드나들질 아니허곡, ᄯᅳ로 그 쉐나 ᄆᆞᆯ이, 우마덜토 그 정낭 놓으민 들어오지 아니헤 가지고 허고. 그 전이는 질레에 노는 쉐덜토 막 잇어나십주게. 집안에 그것도 방지허기 위헤서 올레 정낭이 필요헤십주.(예. 그리고 그 '정낭'이라고 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저 대문을 대신해 가지고 정낭이란 것은 두 개도 걸치고 하나도 걸치고 하는 것인데 건 어디 가려고 하면 정낭을 톡 걸쳐서 놔두면 아, 이 집에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 가지고 딴 사람들이 거기 드나들지 않고, 또 그 소나 말이, 우마들도 그 정낭 놓으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하고. 그 전에는 길에 노는 소들도 마구 있었습지요. 집안에 그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올레 정낭이 필요했습지요.)

108017 @ 정낭이예, 그 정낭 걸쳐 놓는 건 무슨 형식이 엇수가? 이렇게 끼워 넣는 방법?(정낭요, 그 정낭 걸쳐 놓는 건 무슨 형식이 없습니까? 이렇게 끼워 놓는

277) '정낭'은 거리의 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 대신 가로 걸쳐놓는 길고 굵직한 나무이다.

방법?)

108017 #1 아, 그 저 그건 뭐 큰 방법은 엇수다, 뭐.(아, 그 저 그건 뭐 큰 방법은 없습니다, 뭐.)

108017 @ 사람이 잇고 엇고 허는 표시는 안 허고마씨?(사람이 있고 없고 하는 표시는 않고요?)

108017 #1 예, 정낭을 영 놔뒁 가믄 아, 이거 사름 없는 집이로구나, 영 헹 들어가지 안 헙주기.(예, 정낭을 이렇게 놔둬서 가면 아, 이거 사람 없는 집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들러가지 않지요.)

108017 @ 아, 영 ᄀᆞ로 영 놔불민?(아, 이렇게 가로 이렇게 놔버리면?)

108017 #1 예, 예. ᄀᆞ로 영 걸쳐 놔불민, 아, 이거 어디 강 사름이 엇다 헹.(예, 예. 가로 이렇게 놔버리면, 아, 이거 어디 가서 사람이 없다 해서.)

108017 @ 이시믄 영 내려놓고?(있으면 이렇게 내려놓고?

108017 #1 예, 예.(예, 예.)

108017 @ 요렇게 내려놓고예?(요렇게 내려놓고요?)

108017 #1 예, 예.(예, 예.)

108017 @ 그런 형태로예, 뭐 특별허게 헌 건 아니고예?(그런 형태로요, 뭐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요?)

108017 #1 예, 예. 그렇게 도둑도 없고 살기 좋은 때라노난게, 그 저 인심 좋은 때라노난 그 안끄지 들어가질 아이 헤십주게.(예, 예. 그렇게 도둑도 없고 살기 좋은 때니까, 그 저 인심 좋은 때니까 그 안까지 들어가질 안 했습지요.)

108018 @ 그 이문간에, 이문간은 어떤 식으로 헤낫수가?(그 문간채에, 문간채는 어떤 식으로 했었습니까?)

108018 #1 아, 이문간은 웨, 웨문도 잇고, 뚜로 집 안터레 들어오는 첫 도, 돈디 거긴 집을 짓어 가지고 대문을 둡주기.(아, 문간채는 외, 외문도 있고, 또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도, 도인데 거긴 집을 지어 가지고 대문을 달지요.)

108018 @ 게니까 대문을 돌아예.(그러니까 대문을 달아요.)

108018 #1 대문을 돌아 가지고 그러는데 것만 아니고 욮인 뚜로 쉐막, 양쪽이예.(대문을 달아 가지고 그러는데 것만 아니고 옆에는 또 외양간, 양쪽에요.)

108018 @ 쉐막 허기도 허고.(외양간 하기도 하고.)

108018 #1 예, 쉐막도 허곡, 대게 쉐막, 물막을 박거리 이문간에 헤낫수다.(예, 외양간도 하고, 대개 외양간, 마구간을 바깥채 문간채에 했었습니다.)

108018 @ 그러면 박거리, 쉐막 옆이 박거리가 이신 거우꽈?(그러면 바깥채, 외양간 옆에 바깥채가 있는 것입니까?)

108018 #1 예, 쉐막 그 박거리광 그 쉐막이 ᄀᆞ찌 올리는 디도 싯곡, 뚜로 박거리부떠 사름 살게끔, 박거리도 역시 삼방도 싯곡 구들도 싯곡 헌 디는 아주 그 큰 집이고, 족은 집에는 그 저 이문간허고 뚜로 그디 쉐막만 헤 가지고 싯고, 또 역시 더 어려운 집이는. 집이서 쉐 ᄀᆞ뜬 거 메지 아니허는 집이는 이문만도 허고, 뚜로

그 정낭, 정낭을 헤낫수다.(예, 외양간 그 바깥채와 그 외양간이 같이 올리는 데도 있고, 또 바깥채부터 사람 살게끔, 바깥채도 역시 대청도 있고 방도 있고 한 데는 아주 그 큰 집이고, 작은 집에는 그 저 문간채하고 또 거기 외양간만 해 가지고 있고, 또 역시 더 어려운 집에는. 집에서 소 같은 거 매지 않는 집에는 문간채도 하고, 또 그 정낭, 정낭을 했었습니다.)

108018 @ 그렇지예, 이문간 엇인 디는 정낭, 맞아.(그렇지요, 문간채 없는 데는 정낭, 맞아.)

108018 #1 예.(예.)

108018 @ 울타리 돌 다아 가지고.(울타리 돌 쌓아 가지고.)

108018 #1 예, 예.(예, 예.)

108018 @ 정낭으로 허고, 이문간 잇인 디는 안커리, 박거리도 잇고, 그런 디는 이문간 잇고예?(정낭으로 하고, 문간채 있는 데는 안채, 바깥채도 있고, 그런 데는 문간채도 있고요?)

108018 #1 예, 예.(예, 예.)

108018 @ 그 거기에는 보면 아까처럼 거기에 쉐막도 잇고. 거기는 첫 대문 아니라예?(그 거기에는 보면 아까처럼 거기에 외양간도 있고. 거기는 첫 대문 아니지요?)

108018 #1 예.(예.)

108018 @ 여기는 두 번째 대문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눌굽, 눌굽에 대헤서 좀 골아줍서.(여기는 두 번째 대문이고.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눌굽, 눌굽에 대해서 좀 말해주십시오.)

108019 #1 눌굽[278]은 그 눌을 놓는 디고라 눌굽이엔 헙주게. 겐디 그것은 어느 집을 막론허고 눌굽이 셔낫수다. 그 아레 멘흑 우에 그대로 저 나무들이라든지 뚠 것들 겆당 놓면 알로 찍이 올랑 썩읍주게. 썩고 경 허니까 그디서 흑 파내엉 집 짓을 때 흑은 쓰곡 그레 자갈을 놓곡 허면은 저 눌굽은 경 헹은에 자갈이라든지 돌로만 놔둔 디는 눌굽이라고 헙주. 그 저 부잣칩이는 양옆을 눌어십주게. 경 헌 디는 눌을 많이 눌게 뒈믄, 첫째는 보리낭 눌어 가지고 그 저 땔감을 허고.('눌굽'은 그 가리를 놓는 데더러 눌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느 집을 막론하고 눌굽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 맨흙 위에 그대로 저 나무들이라든지 딴 것들 갖다가 놓으면 아래로 짚이 올라서 썩지요. 썩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흙 파내어서 집 지을 때 흙은 쓰고 그리 자갈을 놓고 하면은 저 눌굽은 그렇게 해서 자갈이라든지 돌로만 놔둔 데는 눌굽이라고 하지. 그 저 부잣집에는 양옆을 쌓았습지요, 그렇게 하는 데는 가리를 많이 쌓게 되면, 첫째는 보릿짚 쌓아 가지고 그 저 땔감을 하고.)

108019 @ 아, 땔감을 허고.(아, 땔감을 하고.)

108019 #1 그 저 크게 허는 것은 보리눌, 그다음에는 촐눌, 촐눌허곡 뚜로 그다음에는 조집 ᄀᆞ튼 거라든지 많이 허면 조집눌, 또 짇을켓눌.(그 저 크게 하는 것은

278)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보리가리, 그다음에는 꼴가리, 꼴가리하고 또 그다음에 조짚 같은 거라든지 많이 하면 조짚가리, 또 땔감가리.)

108019 @ 예?(예?)

108019 #1 짇을케.(땔감.)

108019 @ 짇을케눌.(땔감가리.)

108019 #1 땔감용.(땔감용.)

108019 @ 그니까 짇을케눌.(그니까 땔감가리.)

108019 #1 그거, 보통 집에는 그거 네 개, 네 개, 저 눌이 흔 너댓 개 뭽주기. 겐디 거 막 소 하영 메는 사름은 촐눌도 흔 두어 개썩 허고예. 겐디 바닥에는 그추룩 흑 파낸 우에 저 작지 꼴아 놩 눌굽을 헙니다, 뭐.(그거, 보통 집에는 그거 네 개, 네 개, 저 가리가 한 네댓 개 되지요. 그런데 거 아주 소 많이 매는 사람은 꼴가리도 한 두어 개씩 하고요. 그런데 바닥에는 그처럼 흙 파낸 위에 저 자갈 깔아서 놔서 눌굽을 합니다, 뭐.)

108020 @ 음, 뭬지우리예, 통시는, 그 통시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잇수가?(음, 돼지우리요, 돼지우리는, 그 돼지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08020 #1 통지는 그거 저 집 방에 뜨라 가지고 집 작에 따라서 부엌을, 그 보통 안거리를 트망, 트망난 디를 통지를 허는디 그 저 얼풋 올레서 들어오면서 눈에 띠지 아니헌 곳으로 거기 통지허고 헷는디.(돼지우리는 그거 저 집 방에 따라 가지고 집 작에 따라서 부엌을, 그 보통 안채를 틈, 틈난 데를 돼지우리를 하는데 그 저 얼핏 올레서 들어오면서 눈에 띄지 않은 곳으로 거기 돼지우리하고 했는데.)

108020 @ 정지하곤 반대편?(부엌하고는 반대편?)

108020 #1 예, 위치가 족곡 영 헌 디는 정지 즈꼿디도 헙니다. 허지만은 경 안 허면은 바로 이디가 정지면 저쪽으로. 경 헹 거기서는 흑을 다 파내 가지고 집 짓을 디 헤놩, 거기 막 파 이실 거 아니우꽈게? 파지면은 거기 저 소거름이라든지 뚜로 보릿대라든지 놩은에 뒈질 질루아십주게.(예, 위치가 작고 이렇게 하는 데는 부엌 곁에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은 바로 여기가 부엌이면 저쪽으로. 그렇게 해서 거기서는 흙을 다 파내 가지고 집 지을 디 해놔서, 거기 마구 파 있을 거 아닙니까? 파지면은 거기 저 쇠두엄이라든지 또 보릿대라든지 놔서 돼지를 길렀었습지요.)

108020 @ 음.(음.)

108020 건 웨 그런고 허면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뒈어 가지고 비료 나오니까 허뒈 그 거름을 아이 놓으면 안 뒈니까, 그 통지에는 뒈지를 질루와십주마씨.(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어 가지고 비료 나오니까 하되 그 거름은 안 놓으면 안 되니까, 그 돼지우리에는 돼지를 길렀었지요.)

108020 @ 예.(예.)

108020 #1 그 소 거름이라든지 농작물 그 부식덜 놩 내불믄 이놈이 뒈지가 뎅기멍 자기기 먹은 똥도 싸곡 발로 붋으기도 허곡 오줌 싸면서 것을 다 거름을 만들

어마씨. 그러기 위헤서 뒈지를 질루아십주.(그 쇠두엄이라든지 농작물 그 부식들 놔 내버리면 이놈의 돼지가 다니면서 자기가 먹은 똥도 싸고 발로 밟기도 하고 오줌 싸면서 그것을 다 거름을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돼지를 길렀지요.)

108020 @ 게난 그 것도 역시 군사혁명 나기 전ᄁᆞ지는 통지에 뒈지를 질루와낫수다. 질루곡 또 거기서 새끼도 내우고, 영 헷는디 그 이후에는 ᄯᅳ로 품종 개량, 부엌허고 변소 개량허렌 행정에서 막 시겨낫수다. 그때부떠는 그것이 읏어져십주게.(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군사혁명 나기 전까지는 돼지우리에 돼지를 길렀었습니다. 기르고 또 거기서 새끼도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따로 품종 개량, 부엌하고 변소 개량하라고 행정에서 마구 시켰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것이 없었습지요.)

108020 @ 게난 그 뒈지우리 보면 변소가 잇고, 그 뒈지집 이실 거 아니우꽈? 뒈지집은 또 어떤 식으로?(그러니까 그 돼지우리 보면 변소가 있고, 그 돼지집 있을 거 아닙니까? 돼지집은 또 어떤 식으로?)

108020 #1 거 [279]돗집이엔 헙니다, 돗집.(그거 '돗집'이라고 합니다, 돗집.)

108020 @ 예, 돗집.(예, 돗집.)

108020 #1 게난 그 돗집, 자그맣게 뒈지울 안에 ᄯᅳ로 ᄋᆞ소록허게 허영 집을 지읍니다. 담 닿아 놩 경 헹은에 그것도 역시 새라든지 [280]ᄂᆞ람지 더껑은에 이뤄 줘야 헙주게.(그러니까 그 돗집, 자그맣게 돼지우리 안에 따로 아늑하게 해서 집을 짓습니다. 담 닿아 놔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역시 새라든지 'ᄂᆞ람지' 덮어서 이뤄 줘야 합니다.)

108020 @ 아.(아.)

108020 #1 저 비 들지 아니허게. 경 헹은에 그거 영 도새긴 돗집에만 눕곡, 경 아니헌 땐 베꼇디도 눕곡 허다가 사름이나 강 그 저 대변이나 보레 가믄 얼른 돌아왕 먹곡 헤나십주기.(저 비 들지 않게.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돼지는 돗집에만 눕고, 그렇지 아니한 때는 바깥에도 눕고 하다가 사람이나 가서 그 저 대변이나 보러 가면 얼른 돌아와서 먹고 했었습지요.)

108020 @ 그다음 것 주는 디?(그다음 것 주는 데?)

108020 #1 그건 돗도고리[281]라고 헤 가지고,(그건 '돗도고리'라고 해 가지고,)

108020 @ 음, 돗도고리.(음, 돗도고리.)

108020 #1 것허고 또 그 ᄌᆞᄭᅩ디 그 것항[282], 것항은 ᄒᆞ끔 저 안네서 물 ᄀᆞ뜬 거라든지 세영 터진 것도 시믄 그걸 놓곡.(그것하고 또 그 곁에 그 '것항', 것항은 조금 저 안에서 물 같은 거라든지 새어서 터진 것도 있으면 그걸 놓고.)

108020 @ 것항?(것항?)

108020 #1 예.(예.)

---

279) '돗집'은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게 한 막이다.

280) 'ᄂᆞ람지'는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이다.

281) '돗도고리'는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는 함지박 모양의 것이다.

282) '것항'은 가축의 먹이를 담는 항아리이다.

108020 @ 항아리?(항아리?)

108020 #1 예, 예. 항아리 놓고, 뚜로 그 즈꼿디 오줌항이 잇엇수다.(예, 예. 항아리 놓고, 따로 곁에 오줌항아리가 있었습니다.)

108020 @ 오줌항.(오줌항아리.)

108020 #1 오줌은 그 저 요소 성분이 잇어 가지고 그 오줌항에, 오줌 싸면 헛뒈이 버리지 아니허고 오줌항에 강 비와뒷다가 것도 썩으면은 밧디 가서 뿌리고, 또 그것덜로도 모자람직허믄 부지런헌 사름은 뚜로 바다에 가서 물 흔 허벅, 바닷물 져당 오줌에 서껑 분량을 늘리왕, 늘리왕 밧디 뿌리고 경 헤십주기.(오줌은 그 저 요소 성분이 있어 가지고 그 오줌항아리에, 오줌 싸면 헛되이 버리지 않고 오줌항아리에 가서 비워뒀다가 그것도 썩으면은 밭에 가서 뿌리고, 또 그것들로도 모자람직하면 부지런한 사람은 따로 바다에 가서 물 한 허벅, 바닷물 져다가 오줌에 섞어서 분량을 늘려서, 늘려서 밭에 뿌리고 그렇게 했었습지요.)

108020 @ 아, 예. 그 짓도 잇지 안허꽈예, 그 짓이엔 헤 가지고 뭐 이렇게 그디 놔 주는 거, 뒈지우리 속에 뭐 영 놔주지 안 헙니까게. 그 뭐냐 허믄 그 보리낭이든 뭐 놓지 안 헙니까?(아, 예. 그 짓도 있지 않나요, 그 짓이라고 해 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 놔주는 거, 돼지우리 속에 뭐 이렇게 놔주지 않습니까. 그 뭐냐 하면 그 보리나무든 뭐 놓지 않습니까?)

108020 #1 아, 건 돗 짓 준다, 짓 준다, 예.(아, 건 돼지 깃 준다, 깃 준다, 예.)

108020 @ 예, 짓 준다.(예, 깃 준다.)

108020 #1 건 어떤 말인고 허믄 도새기덜이 그냥 내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땐 그 저 짓 준덴 허는 것은 뚜시게 허젠, 따뜻허게 허젠 겡 거기 보리낭 좀 놩, 거 도새기도 추운 딘 아이 뭽주게. 그디 들어갓수다, 짓.(건 어떤 말인고 하면 돼지들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저 깃 준다고 하는 것은 따뜻하게 하려고, 따뜻하게 하려고 그렇게 거기 보릿짚 좀 놔서, 거 돼지도 추운 데는 안 되지요. 거기 들어갔습니다, 깃.)

108020 @ 그거는 뭐 보리낭도 잇고?(그거는 뭐 보릿짚도 있고?)

108020 #1 거의 다 보릿대 줫수다.(거의 다 보릿대 줬습니다.)

108020 @ 보릿대로예, 보릿대로 헤서 그걸 줫고예?(보릿대로요, 보릿대로 해서 그걸 줬고요?)

108020 #1 예.(예.)

108020 @ 게난 돗도고리는 그 뒈지 먹이 주는 그릇이고예.(그러니까 '돗도고리'는 그 돼지 먹이 주는 그릇이고요.)

108020 #1 뒈지 먹이 주는 그릇입주게.(돼지 먹이 주는 그릇이지요.)

108020 @ 음, 그다음에 뒈지 막 영 울담[283], 울타리 거 넘어가카부덴 뭐 다른 장치도 잇어낫수가?(음, 그다음에 돼지 마구 이렇게 '울담', 울타리 거 넘어갈까 싶어서 뭐 다른 장치도 있었습니까?)

283) '울담'은 집터의 주위에 둘러쌓은 담이다.

108020 #1 아이, 도새기가 그 저 그 평소에 어진 도새기는 경 안 허주만은 행실이 궂인 것은 담을 밀어 가지고, 베고프니까 베껏디 도망치는 것덜 십니다게, 겐 것덜 막기 위헤 가지고 그 통지 주위에 담을 다와마씨.(아니, 돼지가 그 저 그 평소에 어진 돼지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행실이 궂은 것은 담을 밀어 가지고, 배고프니까 바깥에 도망치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돼지우리 주위에 담을 쌓아요.)

108020 @ 담을 다고.(담을 쌓고.)

108020 #1 예, 담을 다와마씨. 담 다으곡 허는데 경 어질엇던 도새기도 저 발정 오면 그 저 담을 튀엉 기어나젠 허여마씨.(예, 담을 쌓아요. 담 쌓고 하는데 그렇게 어질었던 돼지도 저 발정 오면 그 저 담을 튀어서 기어나려고 해요.)

108020 @ 게믄 담을 튀어 넘는 도새기가 이서낫구나예?(그러면 담을 튀어 넘는 돼지가 있었었군요?)

108020 #1 예, 그거 도새기 일러불엇젠 ᄯᅳ로 ᄎᆞ지레도 뎅이고. 어떤 젠 영 영 일러부는 수도 싯고.(예, 그거 돼지 잃어버렸다고 또 찾으러도 다니고. 어떤 빠른 이렇게 이렇게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108020 @ 일러불 수도 잇고. 게믄 이제 뒈지우리 속에 이제 변소?(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돼지우리 속에 이제 변소?)

108020 #1 예.(예.)

108021 @ 변소는 어떵 만들아낫수가?(변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108021 #1 변소는 뒈지우리를 동글락이 지엇다가 ᄒᆞ끔 더 약간 베껏더레 내쳐 가지고 사름 앚아도 가려지지 않게끔 우리 키만큼은 쌓곡, ᄯᅳ로 진 돌을 겆다가 영 걸터앚게 진 돌을 두 개 놔 가지고 걸 지둘롸, 지둘롸 가지고 지둘롸 놔근에.(변소는 돼지우리를 둥글게 지었다가 조금 더 약간 바깥으로 내쳐 가지고 사람 앉아도 가려지지 않게끔 우리 키만큼은 쌓고, 또 긴 돌을 갖다가 이렇게 걸터앉게 긴 돌을 두 개 놔 가지고 걸 지질러서, 지질러 가지고 지질러 놔서.)

108021 @ 걸 뭐렌 헷수가? 거 진 돌 영 놓은 거?(걸 뭐라고 했습니까? 거 긴 돌 이렇게 놓은 거?

108021 #1 드들팡.(부춘돌.)

108021 @ 드들팡, 거 돌이지예, 돌.(부춘돌, 거 돌이지요, 돌.)

108021 #1 예, 예, 거난 드들팡이엔 허고예.(예, 예, 그러니까 부춘돌이라고 하고요.)

108021 @ 드들팡이고 그거를 허고 그러면 그 사람 키만큼 그걸 쌓고예?(부춘돌이고 그거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 키만큼 그걸 쌓고요?)

108021 #1 아니우다. 그 곧 드들팡에 올라가젠 허믄 두 도리 놔놩 바로 앚게끔 만듭니다. 게난 통진 막 지픕주게.(아닙니다. 그 곧 부춘돌에 올라가려고 하면 두 도리 놔놔서 바로 앉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돼지우리는 아주 깊지요.)

108021 @ 예.(예.)

108021 #1 지프니까 그 정도만 놓민 충분허여마씨.(깊으니까 그 정도만 놓으면 충분해요.)

108021 @ 그 위로 보는 사람 막아 지게는 안 허여마씨?(그 위로 보는 사람 막아 지게는 안 해요?)

108021 #1 아, 겐 질 처음 막아 진 건 앞이만 저 베꼇드로 통지에서 베꼇드로만 들어어오게끔 얼추 막아 지게는 자기 키만큼 앚앙, 앚은키.(아, 그래서 젤 처음 막아 진 건 앞에만 저 바깥으로 돼지우리에서 바깥으로만 들어오게끔 얼추 막아 지게는 자기 키만큼 앉아서, 앉은키.)

108021 @ 앚은키.(앉은키.)

108021 #1 앚은키만큼 앞으로 영 막아 집니다.(앉은키만큼 앞으로 이렇게 막아 집니다.)

108021 @ 게서 그렇게 헹은에 일을 보는구나예, 게믄 그때는 종이도 엇고 허믄 뭘로 걸, 처리를 햇수가?(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보는군요, 그러면 그때는 종이도 없고 하면 무엇으로 걸, 처리를 했습니까?)

108021 #1 저기 변소 뭐냐 해방이 뒈어 가지고 부엌, 변소 개량허렌 허니까 부엌도 그 저 온돌 구들로 놓고, 뚜로 저 전이는 집이 읏엇수다, 화장터에. 변소간은 그냥 노출뒌 디, 앚앙 누단 앞으로나 베리지 안 허게 담 요만이 쌍 막아 지게만 허영, 통지 펜으로도 드들낭 영 놔놩, 이 질 들어가는 입구도 경 허고, 겨당 개량변소라든지 영 허난 그때부떠 화장실, 그 집을 짓어십주.(저기 변소 뭐냐 해방이 되어 가지고 부엌, 변소 개량하라고 한까 부엌도 그 저 온돌 방으로 놓고, 또 저 전에는 집이 없었습니다, 화장터에. 변소는 그냥 노출된 데, 앉아서 누다가 앞으로나 보이지 않게 담 요만큼 쌓아서 막아 지게만 해서, 돼지우리 편으로도 부출 이렇게 놔놔서, 이 길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개량변소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화장실, 그 집을 지었지요.)

108021 @ 혹시 드들팡 말고 널판지 놓거나 허진 안 헷수가?(혹시 부춛돌 말고 널빤지 놓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108021 #1 널로도 그 저 돌 긴 돌 구허지 못허믄 널도 놧수다.(널로도 그 저 돌 긴 돌 구하지 못하면 널도 놨습니다.)

108021 @ 널도 놓고, 건 뭐 다른 말로는 뭐?(널도 놓고, 건 뭐 다른 말로는 뭐?)

108021 #1 건 그자 드들낭이엔 허연.(건 그저 부출이라고 해서.)

108021 @ 드들낭, 디딜낭, 드들낭이고예.(부출, 부출, 부출이고요.)

108021 #1 드들낭, 예.(부출, 예.)

108021 @ 드들팡, 드들낭예?(부춛돌, 부출요?)

108021 #1 예.(예.)

108021 @ 그때는 그거 휴지 엇이난 뭘로 썻수가?(그때는 그거 휴지 없으니까 무엇으로 썼습니까?)

108021 #1 뭣마씨?(뭣요?)

108021 @ 휴지가 없으니까 뭘로 그거를, 저 처리를 헷수가? 우리가 일 본 다음에.(휴지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그거를, 저 처리를 햇습니까? 우리가 일 본 다음에.)

108021 #1 아, 뒤 본 건 뒈지가 왕 먹읍니다.(아, 뒤 본 건 돼지가 와서 먹습니다.)

108021 @ 뒈지가 먹는디 그냥 일어살 수 없고.(돼지가 먹는데 그냥 일어설 수 없고.)

108021 #1 아, 건 화장지가 없으면 그 ᄌᆞᆺ디 보릿대, 보릿대 겆당 저 영 무껑 놔둡주. 화장실, 변소 봐난 끗데 보릿대 영 혼 줌 빵은에 그걸로 보릿대로 항문도 다끄고.(아, 건 화장지가 없으면 그 곁에 보릿대, 보릿대 갖다가 저 이렇게 묶어서 놔두지. 화장, 변소 봤던 끝에 보릿대 이렇게 한 줌 빼서 그걸로 보릿대로 항문도 닦고.)

108021 @ 다끄고, 보릿대로예?(닦고, 보릿대로요?)

108021 #1 예, 이게 그 종이가 그렇게 어려와 가지고 그 저 전이는 학교 뎅인다든지 공무원 집인 담베 ᄆᆞᆯ 종이를 빌려낫수다, 종이가 막 어렵고 허연.(예, 이게 그 종이가 그렇게 어려워 가지고 그 저 전에는 학교 다닌다든지 공무원 집에는 담배 말 종이를 빌렸었습니다, 종이가 아주 어렵고 해서.)

108021 #1 음, 겐 이 그만큼 저 보릿대로만 화장실 봐 노믄 저 똥꼬망, 항문도 다끄곡 헤십주게.(음, 그래서 이 그만큼 저 보릿대로만 화장실 봐 놓으면 저 똥구멍, 항문도 닦고 했습지요.)

108021 @ 도새기 들어왕 막 털어불곡 허믄. 허허허.(웃음)(돼지 들어와서 마구 털어버리고 하면. 허허허.(웃음))

108021 #1 그런 것도 셔십주. 데겡이 우이난 그레 똥 싸믄 설사 날 때쯤은 탁탁 털믄 사름 우터레도 좀 튀어십주.(그런 것도 있었지. 대가리 위니까 그리 똥 싸면 설사 날 때쯤은 탁탁 털면 사람 위로도 좀 튀었습지요.)

108022 @ 좀 튀곡. 그 헛간도 따로 잇어낫수가?(좀 튀고. 그 헛간도 따로 있었습니까?)

108022 #1 아, 예, 헛간이엔 헌 건 그 저 ᄀᆞ시락 ᄀᆞ뜬 거 데민다든지 제라헌 방이 아이 뒈고, 이제 ᄀᆞ뜨믄 창고, 창곱주게.(아, 예, 헛간이라고 한 건 그 저 까끄라기 같은 거 쌓는다든지 온전한 방이 아니 되고, 이제 같으면 창고, 창고지요.)

108022 @ 건 박거리에 주로?(건 바깥채에 주로?)

108022 #1 예, 박거리에도 허곡, ᄯᅳ로 그 저 ᄀᆞ시락 ᄀᆞ뜬 거 놓는 딘 ᄯᅳ로 집덜 구석에 강 조그맣게.(예, 바깥채에도 하고, 또 그 저 까끄라기 같은 거 놓는 데는 또 집들 구석에 가서 조그맣게.)

108022 @ 별도 집을 만들엉?(별도 집을 만들어서?)

108022 #1 예, 예.(예, 예.)

108022 @ 별도로 집을 만들엉.(별도로 집을 만들어서.)

108022 #1 별도로 조그마헌 집을 만듭주.(별도로 조그마한 집을 만들지.)

108022 @ 헛간은예?(헛간은요?)

108022 #1 예, 헛간은 그렇게 헤 가지고 헛간 내에는 농기구 ᄀᆞ뜬 것도 놓고.(예, 헛간은 그렇게 해 가지고 헛간 내에는 농기구 같은 것도 놓고.)

108022 @ 게난 그게 창고네예?(그러니까 그게 창고네요?)

108022 #1 예, 예.(예, 예.)

108023 @ 창고로 쓰는데. 거 쉐막은 또 어떵?(창고로 쓰는데. 거 외양간은 또 어떻게?)

108023 #1 아, 쉐막은 저 보통 이문간에 쉐막을 씁주게. 거기서 것도 역시 이문간이 없으면 ᄯᅳ로 모커리에도 쉐막 별도로 짓어 가지고.(아, 외양간은 저 보통 문간채에 외양간을 쓰지요. 거기서 것도 역시 문간채가 없으면 또 곁채에도 외양간 별도로 지어 가지고.)

108023 @ 아, 모키리에예?(아, 곁채에요?)

108023 #1 예, 예. 것도 쉐 집입주게, 막이엔 헌 게.(예, 예. 것도 소 집이지요, 막이라고 한 게.)

108023 @ 쉐 집, 지금 말하믄 웨양간, 소 웨양간.(소 집, 지금 말하면 외양간, 소 외양간.)

108023 #1 예.(예.)

108023 @ 거기에는 보통 쉐 멧 마리 정도나 들어가게 헙니까?(거기에는 보통 소 몇 마리 정도나 들어가게 합니까?)

108023 #1 보통 부잣칩이는 쉐 둘 메게 허는 것이 보통이고마씨.(보통 부잣집에는 소 둘 매게 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108023 @ 둘 정도.(둘 정도.)

108023 #1 게 아니헌 디는 세 개, 네 개는 ᄒᆞ끔 낫게 허고. 게 아닌 집에는 하나 메고 조끔 족게 짓고, 거의 다 집집마다 소가 잇어십주기.(그래 않은 데는 세 개, 네 개는 조금 났게 하고. 그래 않은 집에는 하나 매고 조금 작게 짓고, 거의 다 집집마다 소가 있었습지요.)

108023 @ 두 개 허는 집은, 두세 개 허는 집은 큰 집이고예?(두 개 하는 집은, 두세 개 하는 집은 큰 집이고요?)

108023 #1 허곡 ᄯᅳ로 남자덜이나 싯곡 허믄 쉐를 두세 개 메영 헤십주.(하고 또 남자들이나 있고 하면 소를 두세 개 매어서 했습지요.)

108024 @ 이 장항, 장항은 어디에다 헷수가?(이 장독, 장독은 어디에다 했습니까?)

108024 # 장항은 부엌 뒷문이라고 헙니다게.(장독은 부엌 뒷문이라고 합니다.)

108024 @ 부엌 뒷문?(부엌 뒤문?)

108024 # 예, 부엌 뒷문만 올면은 저 베꼇디 장독이라고 헤 가지고 장독에 장항을 멘들아십주.(예, 부엌 뒷문만 열면은 저 바깥에 장독이라고 해 가지고 장독에 장

독을 만들었습지요.)

108024 @ 아.(아.)

108024 # 뚜로 ᄒᆞ끔 저 깨끗헌 딜로, ᄌᆞᆺ디도 저 통지가 없곡, 진 ᄆᆞ살이라도 그런 디 강은에.(또 조금 저 깨끗한 데로, 곁에도 저 돼지우리가 없고, 긴 모래라도 그런 데 가서.)

108024 @ 장항허고 뒤에 터를 뭐렌 헙니까?(장독하고 뒤에 터를 뭐라고 합니까?)

108024 # 저 장항, 장독이렌 헙주게.(저 장독, 장독이라고 하지요.)

108024 @ 장독도 잇고, 그 뭐 갈아먹고 허는?(장독도 있고, 뭐 갈아먹고 하는?)

108024 # 아, 건 엇엇수다.(아, 건 없었습니다.)

108024 @ 엇어낫수가?(없었습니까?)

108024 # 장항 쪽엔.(장독 쪽에는.)

108024 @ 장항 쪽에는예?(장독 쪽에는요?)

108024 # 예, 예. 우영팟 ᄀᆞ뜬 디는 갈아먹는 디고.(예, 예. 터앝 같은 데는 갈아먹는 데고.)

108025 @ 근데 이 저 춤[284], 춤항[285]이렌 말 들어봣수가?(그런데 이 저 '춤', '춤항'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108025 #1 ᄎᆞ궹이?(도롱이?)

108025 @ 춤항, 춤항?('춤항', '춤항'?)

108025 #1 아, 오좀항을 말허는 겁주.(아, 오줌독을 말하는 거지.)

108025 @ 춤항이예?('춤항'이요?)

108025 #1 예.(예.)

108025 @ 아니, 아니, 물 영 받는 거, 물 영 내려오믄 받는 거, 영 위에서 빗물 내려오믄.(아니, 아니, 물 이렇게 받는 거, 물 이렇게 내려오면 받는 거, 이렇게 위에서 빗물 내려오면.)

108025 #1 아.(아.)

108025 @ 빗물 내려오믄 영 그.(빗물 내려오면 이렇게 그.)

108025 #1 예.(예.)

108025 @ 그거 영 항아리에 영 담는 거.(그거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담는 거.)

108025 #1 예.(예.)

108025 @ 담곡 허는 그런 거.(담고 하는 그런 거.)

108025 #1 예.(예.)

108025 @ 걸 뭐렌 헙니까?(걸 뭐라고 합니까?)

108025 #1 그거 지싯물, 지싯물항이엔 헙니다.(그거 낙숫물, 낙숫물독이라고 합

284) '춤'은 새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이다.

285) '춤항'은 '춤'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는 항아리이다.

니다.)

108025 @ 지싯물항, 게난 그거는 위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저 새 같은 거 헤 가지고 내려오게 허는 거 아니라예?(낙숫물독, 그러니까 그거는 위에서 지붕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 저 띠 같은 거 해 가지고 내려오게 하는 거 아니에요?)

108025 #1 예, 지싯물 내려오믄, 그건 무슨 용처가 뒈냐 허믄 뒈지 ᄀᆞ튼 거 것 타는 디 씁주, 뭐.(예, 낙숫물 내려오면, 그건 무슨 용처가 되냐 하면 돼지 같은 거 가축의 먹이 타는데 쓰지, 뭐.)

108025 @ 게난 이건 지싯물항예?(그러니까 이건 낙숫물독요?)

108025 #1 예.(예.)

108025 @ 츰항이렌 말은 안 들어보고예?('츰항'이라는 말은 안 들어보고요?)

108025 #1 예.(예.)

108025 @ 음, 지싯물항, 거기에는 지싯물항에 물 내려올 땐, 물 내려오게 허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꽈?(음, 낙숫물독, 거기에는 낙숫물독에 물 내려올 땐, 물 내려오게 하는 건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108025 #1 그건 저 일반 초가집엔 만들 게 아니고, 또 양철집이라든지 기와집 ᄀᆞ뜬 딘 걸 받앗다가, 우리 대림 ᄀᆞ뜬 딘 물이 어렵곡 허니까 걸로 저 손발도 싯곡, 그런 역활을 헙니다, 뭐.(그건 저 일반 초가에 만들 게 아니고, 또 양철집이라든지 기와집 같은 데는 걸 받았다가, 우리 대림리 같은 데는 물이 어렵고 하니까 걸로 저 손발도 씻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108025 @ 혹시 뭐 영 띠 같은 거, 새예, 새 영 감앙 무껑은에 글로 물 영 조로로 내려오게 허는 건 못 봐봅디가?(혹시 뭐 이렇게 띠 같은 거, 띠요, 띠 이렇게 감아서 묶어서 거기로 물 이렇게 조로로 내려오게 하는 건 못 봐봅디까?)

108025 #1 아, 그런 건 못 봣수다.(아, 그런 건 못 봤습니다.)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이번엔예, 초가집에 대허영 물어보쿠다. 초가지붕은 이어밧수가?(이번엔요, 초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초가지붕은 이어봤습니까?)

108026 #1 예.(예.)

108026 @ 거 멧 년에 흔 번씩 이읍니까?(거 몇 년에 한 번씩 잇습니까?)

108026 #1 초가지붕은 이 헤변더레는 이 년에 흔 번썩 일고, 저 산간더레 한라산 가까운 디,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헤마다 입니다.(초가지붕은 이 해변으로는 이 년에 한 번씩 일고, 저 산간으로는 한라산 가까운 데, 비가 많이 오는 곳은 해마다 입니다.)

108026 @ 아, 남쪽에?(아, 남쪽에.)

108026 #1 남쪽이라든지 한라산 ᄌᆞ꼿디 웃드리[286] 산간엔 헤마다 일어마씨.(남쪽이라든지 한라산 곁에 '웃드리' 산간엔 해마다 일어요.)

286) '웃드리'는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 근처의 들이나 마을이다.

108026 @ 헤마다예. 게난 이쪽은 이 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오는 디는 일 년에 흔 번예?(해마다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 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오는 데는 일 년에 한 번요?)

108026 #1 예.(예.)

108027 @ 각단[287] 알지예?('각단' 알지요?)

108027 #1 예.(예.)

108027 @ 각단이나 새에 대허영 준비허는 거 좀 골아줍서.('각단'이나 띠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 좀 말해주십시오.)

108027 #1 새, 각단은 보통은 매 집마다 잇는 것이 아니고 웃드리 밧이라든지 잇는 디덜은 ᄒᆞ끔 물드는 밧디, 저 새가 좀 잘 뒈는 밧디는 이런 디는 다 새왓덜ᄀᆞ집니다, 조그만썩 헌 밧덜. 또 밧 구석이라든지 이런 디허고, 그추룩 못헌 디는 십일월달이 넘어가면은 그 고망새[288]라 헤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고 놈이 땅이라든지 내분 것덜 이런 걸 비어다가도 일곡, 이렇게 두 가지로 헤십주.(띠, '각단'은 보통은 매 집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웃드리' 밭이라든지 있는 데들은 조금 물드는 밭에, 저 띠가 좀 잘 되는 이런 데는 다 띠밭들 가집니다. 조금씩 한 밭들. 또 밭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그처럼 못한 데는 십일월이 넘어가면 그 '고망새'라 해 가지고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이라든지 내버린 것들 이런 걸 베어다가도 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했습지요.)

108027 @ 아, 예.(아, 예.)

108027 #1 게난 자기 밧덜 잇는 사름덜은 그 저 것도 해마다 남의 땅덜 비어가불면은 그 사름덜은 일러불믄 억울하니까 새는 십이월 일 일이라든지 십일월 하순부터 시작허여 가지고 비어 옵주게. 비어오다가 자기 땅이라도 그 저 새 검부레기니까 다 비지 못헤도 내불민 것도 새 없는 사름덜은 강 그걸 비어다가 일곡, ᄯᅳ로 줄 놓곡 헤십주게.(그러니까 자기 밭들 있는 사람들은 그 저 그것도 해마다 남의 땅들 베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들은 잃어버리면 억울하니까 띠는 십이월 일 일이라든지 십일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베어 오지요. 베어오다가 자기 땅이라도 그 저 띠 검부러기니까 다 베지 못해도 내버리면 것도 띠 없는 사람들은 가서 그걸 베어다가 일고, 또 줄 놓고 했습지요.)

108027 @ 음.(음.)

108027 #1 각단이엔 헌 건 ᄀᆞ뜬 샌 샌디 그 짧을 단자 써 가지고 새라도 다리 줄른 거, 다리 각자 썬양. 게 가지고 다리 줄른 새를 각단이라고 헙주게. 겐 그걸로는 거 헤다가 줄 놓곡 허는데, 그게 보통 ᄉᆞ간집 하나 일젠 허믄 각단덜이 대충은 흔 시 바리쯤은 들어낫수다, 뭐, 각단만으로도.('각단'이라고 한 건 같은 띠는 띠인데 그 짧을 단자 써 가지고 띠라도 다리 짧은 거, 다리 각자 써서요. 그래 가지고 다리 짧은 띠를 '각단'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걸로는 거 해다가 줄 놓고 하는데,

287) '각단'은 굵은 줄을 드리는데 쓰는 짧은 띠이다.
288) '고망새'는 바위틈의 구멍에서 마련한 띠이다.

그게 보통 사칸집 일려고 하면 ‘각단’들이 대충은 한 세 바리쯤은 들었었습니다, 뭐, ‘각단’으로도.)

108027 @ 음.(음.)

108027 #1 게 시 바리쯤 들고 나머지 새는 그 집 지붕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지붕 형태가 족은 디는 덜 들고, 뚜로 아이, 등 놋은 디는 저 하영 들곡 영 헤낫수다. 경 헤 가지고 이것을 지붕에 상태가.(그래 세 바리쯤 들고 나머지 띠는 그 집 지붕 형태에 따라 가지고 그 그 지붕 형태가 작은 데는 덜 들고, 또 아니 등 낮은 데는 저 많이 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지붕에 상태가.)

108027 @ 아까 각단에 대허영 얘기헤신디 각단에 대헤영 좀 더 골아줍서.(아까 ‘각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각단’에 대해서 좀 더 말해주십시오.)

108027 #1 각단은 그 저 새가 졸른 거.(‘각단’은 그 저 띠가 짧은 거.)

108027 @ 졸른 거예.(짧은 거요.)

108027 #1 짧을 단 자, 다리 각 자, 각단입주. 지레가 졸르단 말입주게. 그런 것은 각단이라고 헤 가지고 지붕 이는 데 쓰지 안 허고 줄 놓는 디만 써십주.(짧을 단 자, 다리 각 자, ‘각단’이지요. 길이가 짧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은 ‘각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붕 이는데 쓰지 않고 줄 놓는 데만 썼습지요.)

108027 @ 줄 놓은 용으로예. 요것이 이 집이 삼간집 아니우꽈양?(줄 놓는 용으로요. 요것이 이 집이 삼칸집 아닙니까?)

108027 #1 예, 원래 삼간집이우다.(예, 원래 삼칸집입니다.)

108027 @ 게민 새 멧 바리나 들어낫수가?(그러면 띠 몇 바리나 들었었습니까?)

108027 #1 새 각단 시 바리쯤허곡.(띠 ‘각단’ 세 바리쯤하고.)

108027 @ 시 바리허고. 새는?(세 바리하고. 띠는?)

108027 #1 저 새 혼 마흔 남은 뭇 들엇수다.(저 띠 한 마흔 남은 뭇 들었습니다.)

108027 @ 마흔 남은 뭇.(마흔 남은 뭇.)

108027 #1 예, 영 무끈 거.(예, 이렇게 묶은 거.)

108027 @ 마흔 남은 뭇.(마흔 남은 뭇.)

108027 #1 예.(예.)

108027 @ 그거 비어당 눌엇당은에 언제쯤 이거?(그거 베어다가 쌓았다가 언제쯤 이거?)

108027 #1 물 아이 들게 어디 눌굽[289]이라든지 데며뒷다가 그게 다 일이 끗나가지고 농한기 뒈야, 농한기 뒈젠 허면은 보리 다 갈곡 그 끗데라야 농한기가 뒈는 겁주게. 그래서 그 끗데 뒈면 입니다.(물 안 들게 어디 ‘눌굽’이라든지 쌓아뒀다가 그게 다 일이 끝나서 농한기, 농한기 되려고 하면은 보리 다 갈고 그 끝에라야 농한기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끝이 되면 입니다.)

108028 @ 게난 줄 놀 때 어떵 ᄀᆞ치덜 막?(그러니까 줄 놓을 때 어떻게 같이들

289) ‘눌굽’은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이다.

마구?)

108028 #1 아, 줄 놀 때는 춤 동네 사름덜 수눌어 가지고 헙니다. 수눈다는 것은 서로 나도 우리 것도 헤주렌 허곡, 강 헤주곡, 경 수눌엉 허고, 지붕도 경 수눌엉 더끄곡 일곡 헤십주.(아, 줄 놓을 때는 참 동네 사람들 품앗이해 가지고 합니다. 품앗이한다는 것은 서로 나도 우리 것도 해주라고 하고, 가서 해주고, 그렇게 품앗이해서 하고, 지붕도 그렇게 품앗이해서 덮고 이고 했습지요.)

108028 @ 이 집도 원래는 초집이엇수가?(이 집도 원래는 초가였습니까?)

108028 #1 예, 초집이랏수다.(예, 초가였습니다.)

108028 #2 다 초집이주, 무신 초집 아닌 집이 셔낫수가, 무사.(다 초가이지, 무슨 초가 아닌 집이 있었습니까, 왜.)

108029 @ 게믄 이 집줄 만드는 거에 대헤서 골아줍서.(그러면 이 집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해주십시오.)

108029 #1 집줄 만드는 것은 거 저 호롱이[290]란 게 잇수다. 영 줄 비는 것고라 호롱이라고 허는데.(집줄 만드는 것은 거 저 '호롱이'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줄 뒤트는 것더러 '호롱이'라고 하는데.)

108029 #2 영 영 돌령 허는 거.(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108029 @ 예, 예.(예, 예.)

108029 #2 남자 어른은 앚앙은에 각단으로 영 영 허믄, 앚앙 영 영 영 허믄.(남자 어른들은 앉아서 '각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108029 @ 호롱이.('호롱이'.)

108029 #2 호롱이로 영 영 돌령 허믄 저만큼 가믄.('호롱이'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하면 저만큼 가면.)

108029 #1 뒤에 어울어지게 허는 것은 뚜로.(뒤에 어울려지게 하는 것은 따로.)

108029 #2 남자 어른덜이.(남자 어른들이.)

108029 #1 뒤치는[291] 거라 헤 가지고 허면은.('뒤치는' 거야 해 가지고 하면은.)

108029 @ 뒤치기.('뒤치기'.)

108029 #1 예.(예.)

108029 #2 남자 어른이랑 영 허영.(남자 어른들이랑 이렇게 해서.)

108029 #1 세 사름이 걸 헤 가지고 다 올립주게. 둘이 다 놩 가면은. 네 사름은 셔사 허는디 네 사름은 셔사 헙니다, 뭐. 혼 사름은 손으로 놔 주고 혼 사름은 비어[292] 가면은 것이 쑥 놔집주게. 게 가지고 그걸 뚜로 일정한 거리 집줄 놓젠 허믄 진줄[293], 즈른줄[294] 헤 가지고 거리를 맞춰마씨.(세 사람이 걸 해 가지고 다 올리

290) '호롱이'는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이다.
291) '뒤치다'는 집줄을 만들 때 뒤치기를 돌리다는 뜻이다.
292) '비다'는 돌려서 꼬다란 뜻이다.
293) '진줄'은 각단으로 만들어서 초가지붕을 얽어매는 기다란 줄이다.
294) '즈른줄'은 각단으로 만들어서 초가지붕을 얽어매는 짧은 줄이다.

지요. 둘이 다 놔서 가면은. 네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네 사람은 있어야 합니다, 뭐. 한 사람은 손으로 놔 주고 한 사람은 꼬아 가면은 그것이 쑥 놔지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일정한 거리 집줄 놓으려고 하면 '긴줄', '짧은줄' 해 가지고 거리를 맞춰요.)

108029 @ 예.(예.)

108029 #1 맞추앙 그꺼지 표실 헌다든지 뚜로 그뭇을 긋어준다든지 헤근에 그꺼지 놔 가면 줄 비는 사름이 그만 놉서 허믄 줄이 뚜로 혼쪽더레 넹경 그걸 뚜로 하나로 메우쳐 놩 치는 것더레 헤 가지고 연결시경 혼 사름은 줄 치곡, 줄 비는 사름은 계속, 그 저 줄 놓은 사름, 미리 나간 사름은 들곡, 혼 사름은 뚜로 어울린다 헤 가지고 배[295]를 멘드는 겁주게. 거 쭉 이서 가면은, 경 헨 멘들앗수다.(맞추어서 그까지 표시를 한다든지 또 금을 그어준다든지 해서 그까지 놔 가면 줄 꼬는 사람이 그만 놓으세요 하면 줄이 또 한쪽으로 넘겨서 그걸 또 하나로 모이게 해 놔서 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연결시켜서 한 사람은 줄 치고, 줄 꼬는 사람은 계속, 그 저 줄 놓는 사람, 미리 나간 사람은 들고, 한 사람은 또 어울린다 해 가지고 집줄을 만드는 거지요. 그거 쭉 이어가면은,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108029 @ 음. 게난 집줄은 얼마나, 초가 한 채, 하나를 허젠 허믄 집줄을 얼마나 멘들아낫수가?(음. 그러니까 집줄은 얼마나, 초가 한 채, 하나를 하려고 하면 집줄을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108029 #1 집줄은 보통은 줄 놓곡, 뚜로 알 거시리덴 헤 가지고 알로 영 바툽주게, 알 거시리곡 허는 것을 어울어 가지고 그냥 보통 삼칸집이도 너댓 바리 헤사 줄 놓곡, 뚜로 걸 알 거시리곡 헙니다.(집줄은 보통은 줄 놓고, 또 아래 거스른다고 해 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받쳐요. 아래 거스르고 하는 것을 어울려 가지고 그냥 보통 삼칸집에도 네댓 바리 해야 줄 놓고, 또 그걸 아래 거스르고 합니다.)

108030 @ 여기 뭐 평고대옌 허는 말 압니까?(여기 뭐 연죽이라고 하는 말 압니까?)

108030 #1 아, 평고대[296]옌 헌 거는 초가집을 헤 가지고 우에 서실 여깡 그 우터레 안으로 흑 불르기도 좋곡 허기 위헤서 흑을 틈틈이 영 줍주기, 이걸 평고대 올렴젠 헙니다.(아, '평고대'라고 한 거는 초가를 해 가지고 위에 산자 엮어서 그 위로 안으로 흙 바르기도 좋고 하기 위해서 흙을 틈틈이 이렇게 주지요, 이걸 '평고대'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108030 @ 아, 게난 흑 우에 그걸 놔마씨?(아, 그러니까 흙 위에 그걸 놔요?)

108030 #1 아니, 그 저 서실 우에. 서실 우에 흑을 비운 것을, 흑을 비운 것을 틈틈이 영 영 드밀라 주는 겁주게.(아니, 그 저 산자 위에. 산자 위에 흙을 부은 것을 틈틈이 이렇게 이렇게 디밀어 주는 거지요.)

108030 @ 음. 겐 건 뭐로, 그건 새우꽈? 아니면.(음. 그래서 건 뭐로, 그건 띠입

295) '배'는 '바'의 뜻이나, 여기서는 집줄의 의미로 쓰였다.
296) '평고대'는 연죽을 말하나 제보자는 알매흙을 말하는 '고데'와 혼동하여 쓰고 있다.

니까? 아니면.)

108030 #1 건 흑을, 자갈 없는 흑을 파다가 마당이 그뜩 놩은에 그걸 동네 사름덜이영 모다들어 가지고 여자덜이나 그땐 수돗물이 없으니까 물 져오곡, 남자덜은 거 흑 뀌영 불릅니다. 흑을 막 발로라든지 손으로라든지 헤 가지고 걸 불르는 겁주게. 경 헤야, 흠빡 붋아 줘야 그 흑이 풀이 좋아마씨, 잘 부뜨고.(건 흙을, 자갈 없는 흙을 파다가 마당에 가득 놔서 그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들어 가지고 여자들이나 그땐 수돗물이 없으니까 물 져 오고, 남자들은 거 흙 이겨서 바릅니다. 흙을 막 발로라든지 손으로라든지 해 가지고 걸 바르는 거지요. 그렇게 해야, 흠빡 밟아줘야 그 흙이 풀이 좋아요, 잘 붙고.)

108030 @ 게난 그때 평고대는 무시걸로 만들앗수가?(그러니까 그때 연죽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8030 #1 평고대는 대로도 만들고 그 아까 낭 ᄀᆞ뜬 걸로도 만들고, 또 그냥 소낭이라도 ᄀᆞ느스름헌 거, 둘로 깨영, 깨엉 지붕이 딱 여꺼서 허는 겁주게.(연죽은 대로도 만들고 그 아까 나무 같은 걸로도 만들고, 또 그냥 소나무라도 가느스름한 거, 둘로 깨어서, 깨어서 지붕에 딱 엮어서 하는 거지요.)

108030 @ 아, 기구나예. 혹시 뭐 철사 같은 걸로도 헤낫수가?(아, 그렇구나. 혹시 뭐 철사 같은 걸로도 했었습니까?)

108030 #1 철사는 그 옛날 철사는 없엇고, 철사는 뭣에 좀 썻냐 허면은 저 줄영 무끄는 거, 거왕, 것ᄀᆞ라 거왕이라고 허는디 거왕을 지붕 알러레 쑥 둘릅니다, 뭐. 건 ᄀᆞ느다란 거, 줄 멜 걸로, 겐디 그런 것을 서실광 거왕 새이에 노로 무끄믄 약허니까 거 든든허게 허기 위헤서 철사로 걸 헤나십주. 거 철사는 옛날은 잘 없엇고 그 노로 무꺼낫는디 나중 뒈어가니까 점점 그 저 쒜 나오고 철사 셍기고 허니까.(철사는 그 옛날 철사는 없었고, 철사는 뭣에 좀 썼느냐 하면은 저 줄 이렇게 묶는 거, 연죽, 것더러 '거왕'이라고 하는데 연죽을 지붕 아래로 쑥 두릅니다, 뭐. 건 가느다란 거, 줄 맬 걸로. 그런 것을 산자와 연죽 사이에 노로 묶으면 약하니까 거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철사로 걸 했었습지요. 거 철사는 옛날은 잘 없었고 그 노로 묶었었는데 나중 되어가니까 점점 그 저 쇠 나오고 철사 생기고 하니까.)

108031 #1 예, 집줄을 메는디, 그 저 두 사름, 아멩 아이 들어도 집 일게 뒈면 두 사름은 일곡, 또 나머지 두 사름은 아래에서 줄을 메야 헙주게. 줄을 메는디 우에 다 일어나면 두 사름이 지붕 우에서 불려나지 않게끔 든든이 무끄는 것고라 집줄메기라고 헤십주게. 게 가지고 걸 매엉 메어뒷다가 뚜로 그게 그 비 혼 번 맞곡 혼 열 보름 넘으면 뚜로 걸 줄을 ᄇᆞ똬야 뒈어마씨. 원래 내불믄 저 베가 집줄 맨 줄이 흘랑흘랑헤불 거난 것도 ᄇᆞ뜨곡, 겐 두 번 헤낫수다, 뭐.(예, '집줄'을 매는데, 그 저 두 사람, 아무리 아니 들어도 집 일게 되면 두 사람은 일고,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아래에서 줄을 매야 하지요. 줄을 매는데 위에 다 일어나면 두 사람이 지붕 위에서 불리지 않게끔 단단히 묶는 것더러 '집줄매기'라고 했습지요. 그래 가지고 걸 매어서 매어뒀다가 또 그게 그 비 한 번 맞고 한 열 보름 넘으면 또 걸 줄을 느

슨하지 않게 돼요. 원래 내버리면 저 참바가 '집줄' 맨 줄 헐렁헐렁해 버릴 거니까 것도 줄이고, 그래서 두 번 했었습니다, 뭐.)

108031 @ 두 번?(두 번?)

108031 #1 예, 것도 흔 번 메어 놧다가 흔 보름 후에 뚜로 ᄇᆞ뜨고.(예, 것도 한 번 매어 놨다가 한 보름 후에 또 느슨하고.)

108031 @ ᄇᆞ뜨고.(느슨하지 않게 하고.)

108031 #1 예.(예.)

108032 @ 거 혹시 쓰당 남은 집줄은 뭐 다른 디 써낫수가?(거 혹시 쓰다가 남은 집줄은 뭐 다른 데 썼었습니까?)

108032 #1 쓰당 남은 것은 사름에 따라 가지고 허는디 그 저 각단 ᄀᆞ뜬 거라든지 그걸 두 번 매어난 건 쓰당 놔뒷당 풀엉 다시 놓는 수도 싯고, 또 경 아니헌 때는 그 저 줄로 줄방석[297]이라고 허여 가지고 여끄는 걸로. 부엌에 꼴아 앚는 방석을 멘들아낫수다. 것고라 줄방석이엔 허영.(쓰다가 남은 것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그 저 '각단' 같은 거라든지 그걸 두 번 매었던 건 쓰다가 놔뒀다가 풀어서 다시 놓는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한 때는 그 저 줄로 '줄방석'이라고 하여 가지고 엮는 걸로. 부엌에 깔아 앉는 방석을 만들었습니다. 것더러 '줄방석'이라고 해서.)

108032 @ 줄방석?('줄방석'?)

108032 #1 예.(예.)

108032 @ 게난 이 초집은 잇젠 허믄 ᄒᆞ루믄 뒙니까?(그러니까 이 초가는 이려고 하면 하루면 됩니까?)

108032 #1 아이, 건 저 빨리 출려 가지고 너이 들어사 건 ᄒᆞ루에 뒈는 거고, 경 아니헌 때는 오늘 줄 놔뒷다가 다음 붓날[298] 영 ᄇᆞ름도 자곡 영 헌 날을 저 집을 일엇수다, 뭐. 집이는 것도 뚜로 역시 거 화일은 안 일어서마씨.(아니, 건 저 빨리 차려 가지고 넷이 들어야 건 하루에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한 때는 오늘 줄 놔뒀다가 다음 '붓날' 이렇게 바람도 자고 이렇게 한 날을 저 집을 일었습니다, 뭐. 집이는 것도 또 역시 화일은 안 일었어요.)

108032 @ 화일.(화일.)

108032 #1 예, 화일. 건 자, 오, 유일입주게. 그날은 아니헌다. 그레 가지고 아니허는 겁주게. 웨 그러냐 허면은 그 저 요즘 책 ᄀᆞ뜬 디서 보면은 그 화일이엔 잇지만은 그 전이는 ᄃᆞᆨ날에 집 일믄 촌사름덜은 집은 ᄃᆞᆨ 파분다, 쥐일에 일믄 쥐 고망 ᄯᅳᆯᄅᆞᆫ다.(예, 화일. 건 자, 오, 유일이지요. 그날은 안 한다. 그래 가지고 않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저 요즘 책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화일이라고 있지만 그 전에는 닭날에 집 일면 촌사람들은 집은 닭 파버린다, 쥐날에 일면 쥐구멍 뚫는다.)

108032 @ 음.(음.)

297) '줄방석'은 '집줄'을 하다가 남은 것으로 만든 방석이다.
298) '붓날'은 바람 없이 잔잔한 날이다.

108032 #1 예, 이렇게 헤 가지고 헤나십주만은 것이 즉 말허면 화일입주게.(예,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습지만 그것이 즉 화일이지요.)

108032 @ 음.(음.)

108032 #1 예, 자, 오, 유일이 파일이라.(예, 자, 오, 유일이 화일이야.)

108032 @ 화일, 화일예, 불 화 자에 화일, 그날 피헷구나예.(화일, 화일요, 불 화 자에 화일, 그날 피했군요.)

108032 #1 예.(예.)

연장

108033 @ 그 집 짓는 연장 종류는 알아지쿠가?(그 집 짓는 연장 종류는 알겠습니까?)

108033 #1 집 짓는 거?(집 짓는 거?)

108033 @ 집 짓는 연장?(집 짓는 연장?)

108033 #1 아, 집 짓는 거야게, 보통은 산에 가 가지고 나무를 끊어 올라믄 첫째는 톱과 도치가 듭주게. 건 끊어 오고, 걸 놓면은 집이 오믄 다 일일이 그 소낭ᄀᆞ뜬 거 거의 다 여기는 소낭집을 짓는디 소낭 ᄀᆞ뜬 거라든지 겁죽 아이 벳경 놔두면은 좀 일어 가지고 빨리 삭는다 헤 가지고 걸 좀을, 겁죽을 다 벳깁니다.(아, 집 짓는 거야, 보통은 산에 가 가지고 나무를 끊어 오려면 첫째는 톱과 도끼가 들지요. 건 끊어 오고, 걸 놓으면 집에 오면 다 일일이 그 소나무 같은 거 거의 다 여기는 소나무집을 짓는데 소나무 같은 거라든지 껍데기 안 벗겨서 놔두면은 나무좀 일어 가지고 빨리 삭는다 해 가지고 걸 나무좀을, 껍데기를 다 벗깁니다.)

108033 @ 음.(음.)

108033 #1 다 벳겨 놔 가지고 아레 낭덜 집 짓을 낭덜 그 저 담에 걸쳥 아레 놩 걸 조끔 기실려마씸.(다 벗겨 놔 가지고 아래 나무들 집 지을 나무들 그 저 담에 걸쳐서 아래 놔서 걸 조금 그을려요.)

108033 @ 음.(음.)

108033 #1 기실리면은 좀이 덜 인다, 오래 간다 헤 가지고, 게 가지고 헨 짓엇수다, 뭐.(그을리면 나무좀이 덜 인다, 오래 간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서 지었습니다, 뭐.)

108033 @ 게난 톱허고 도치허고 그다음 그거?(그러니까 톱하고 도끼하고 그다음 그거?)

108033 #1 예, 집 짓는 과정은 자귀허고 끌.(예, 집 짓는 과정은 자귀하고 끌.)

108033 #2 대패도 잇어낫수다.(대패도 있었습니다.)

108034 @ 아, 끌, 대패. 저 톱은 어떤 종류, 멧 가지가 잇지 안 허우꽈예?(아, 끌, 대패. 저 톱은 어떤 종류,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108034 #1 톱은 그 저 낭 끊는 톱 잇곡, ᄯᅳ로 목수일 허는 톱 잇는데, 낭 끊는 톱은 웨놀베기[299]로 헤 가지고 그건 그 저 톱날이 좀 굵읍니다. 굵곡 ᄯᅳ로 집안에

서 목수덜 써 가지고 문짝 멘들곡, 집 짓는 디 쓰는 톱은 ᄒᆞ끔 놀이 좀집주게.(톱은 그 저 나무 끊는 톱 있고, 또 목수일 하는 톱 있는데, 나무 끊는 톱은 '웨날베기'로 해 가지고 그건 그 저 톱날이 좀 굵습니다. 굵고 또 집안에서 목수들 써 가지고 문짝 만들고, 집 짓는 데 쓰는 톱은 조금 날이 잘지요.)

108034 @ 좀질고예.(잘고요.)

108034 #1 예, 좀질고 허는디.(예, '좀질고' 하는데.)

108034 @ 예, 그런 차이가 잇구나예. 허고 산에 강 베는 톱은?(예, 그런 차이가 있군요. 하고 산에 가서 베는 톱은?)

108034 #1 산에 강 베는 톱은 보통 웨놀베기로 헤 가지고 씁니다.(산에 가서 베는 톱은 보통 '웨놀베기'로 해 가지고 씁니다.)

108034 @ 날이 막 큰 거?(날이 아주 큰 거?)

108034 #1 예.(예.)

108035 @ 그 못 뽑는 거 잇지 안 허우꽈, 거 뭐렌 헙니까? 영 못 뽑는 거?(그 못 뽑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못 뽑는 거?)

108035 #1 아, 그 저 뺀찌옌도 허고, 건 족은 못을 빼는 데는 뺀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허고 그 지렛대옌, 지렛대옌 헙니다.(아, 그 저 펜치라고도 하고, 건 작은 못을 빼는 데는 펜치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지렛대라고, 지렛대라고 합니다.)

108035 @ 지렛대? 장도리?(지렛대? 장도리?)

108035 #1 예, 장도리, 지렛대.(예, 장도리, 지렛대.)

108035 @ 아니, 게난 거린장이[300]렌 말도 들어봅디가?(아니, '거린장이'라고 들어봤습니까?)

108035 #1 거린장이렌 말을 이디서 얼마 안 ᄀᆞᆯ읍니다. 저 남군[301]더레덜은 좀 씁니다만.('거린장이'라는 말을 여기서 얼마 안 말합니다. 저 남군쪽에는 좀 씁니다.)

108035 @ 음, 거난 지렛대로 이렇게 영 못을 뽑는 거를 거린장이렌도 허고.(음, 그러니까 지렛대로 이렇게 이렇게 못을 뽑는 거를 '거린장이'라고도 하고.)

108035 #1 예.(예.)

108035 @ 그 저 쒜로 뭰 거예?(그 저 쇠로 된 거요?)

108035 #1 예, 겐디 여기서는 거린장이렌 아니허고 저 지렛대.(예, 그런데 여기서는 '거린장이'라고 않고 저 지렛대.)

108035 @ 지렛대. 그거하고 거린장이 지렛대하고 장도리렌 헌 거는 압니까?(지렛대. 그거하고 '거린장이' 지렛대하고 장도리라고 한 거는 압니까?)

108035 #1 장도리옌 헌 건, 그런 건 여기선 안 써봇수다.(장도리라고 한 건, 그런 건 여기선 안 써봤습니다.)

108035 @ 안 써보고, 게난 작은 못 같은 것은 뽑을 때는 어떵 뽑앗수가?(안 써

299) '웨놀베기'는 톱날이 좀 크고 굵은 톱을 말한다.
300) '거린장이'는 못을 뽑는데 쓰는 도구인 것 같다.
301) '남군'은 제주도에서 한라산 남쪽을 말한다.

보고, 그러니까 작은 못 같은 것은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108035 #1 아, 거는, 게난게 족은 못 ᄀᆞ뜬 거는 짚이 들기 전에는 그 저 뺀찌 ᄀᆞ튼 거라든지.(아, 거는, 그러니까요 작은 못 같은 거는 깊이 들기 전에는 그 저 펜치 같은 거라든지.)

108035 @ 뺀찌나 아니믄 망치에 부뜬 걸로?(펜치나 아니면 망치에 붙은 걸로?)

108035 #1 예. 망치에 부뜬 걸로 영 가 둘라 가지고 좁쪄진 걸로.(예, 망치에 붙은 걸로 이렇게 가 둘러 가지고 끼어든 걸로.)

108035 @ 예,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108035 #1 게난 그 마께가, 그 보통 목수덜 허는 마께는 그냥, 돌쳉이 마께는 어떤 그냥 둥그런 걸로 때리믄 뒈는 것이고, 그 목수덜 쓰는 마께는 혼쪽은 못을 박게 뒈고, 혼쪽은 못 ᄀᆞ뜬 거를 빼게 뒈고, 이런 걸 씁니다.(그러니까 그 방망이가, 그 보통 목수들 하는 방망이는 그냥, 돌장이 방망이는 어떤 그냥 둥그런 것으로 때리면 되는 것이고, 그 목수들 쓰는 방망이는 한쪽은 못을 박게 되고, 한쪽은 못 같은 거를 빼게 되고, 이런 걸 씁니다.)

108035 @ 음, 게난 망치도 종류가 잇인 것 닮고예.(음, 그러니까 망치도 종류가 있는 것 같고요.)

108035 #1 예, 망치가 게난 두 가지, 세 가지가 이십니다, 뭐. 두 가지, 세 가지엔 헌 건 아까도 얘기헷주만은 목수덜 쓰는 거, 혼펜이선 못을 박을 수 잇는 거고, 또 혼펜으로는 또 못을 뺄 수 잇는 거, 이런 마께가 잇곡, ᄃᆞ로 일반 저 돌일 ᄀᆞ뜬 거 허는 사름덜은 그냥 마께로 헤 가지고 그건 어떤 형태가 없이 쒜붙이에다가 가운딜로 고망만 뚤랑 ᄌᆞ루 박앙 쓰고.(예, 망치가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수들 쓰는 거, 한편에서는 못을 박을 수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또 못을 뺄 수 있는 거, 이런 방망이가 있고, 또 일반 저 돌일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망이로 해 가지고 그건 어떤 형태가 없이 쇠붙이에다가 가운데로 구멍만 어서 자루 박아서 쓰고.)

108035 @ 또 하나는예, 다른 망치?(또 하나는요, 다른 망치?)

108035 #1 다른 망치는 두 가지 망치가 잇인 겁주게. 게난 그 저 쒜붙이 헤 가지고 양쪽으로 그 와이자 뒈게 헤 가지고 가달 셍긴 거, 이것은 목수덜이 쓰는 마껩주.(다른 망치는 두 가지 망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저 쇠붙이 해 가지고 양쪽으로 그 와이자 되게 해 가지고 다리 생긴 거, 이것은 목수들이 쓰는 방망이지.)

108036 @ 음, 망치고예. 대패는 또 종류가 잇수가?(음, 망치고요. 대패는 또 종류가 있습니까?)

108036 #1 대패는 톱으로 모든 것을 잘르고 벌러 놔 가지고 그것을 미끈허게 멘들젠 허믄 대패엔 헌 것이 필요헙주. 게난 이것은 대패질 판찍허게 헤야 문ᄀᆞ찌 미끈허게 뒙주게.(대패는 톱으로 모든 것을 자르고 쪼개 놔 가지고 그것을 미끈하게 만들려고 하면 대패라고 한 것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대패질 깨끗하게 해야

문같이 미끈하게 되지요.)

108036 @ 대패도 여러 용도가 잇지 안 허우꽈?(대패도 여러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108036 #1 대패는 그 저 주로 두 가지로, 보통은 두 가지로 허는데 큰 대패는 거친 거만 헤 놩 다음은 그 저 문장 ᄀᆞ뜬 거라든지 ᄯᅳ로 이거 허젠 허믄 좀진 거 그런 대패로 헤십주.(대패는 그 저 주로 두 가지로, 보통은 두 가지로 하는데 큰 대패는 거친 거만 해 놔서 다음은 그 저 문장 같은 거라든지 또 이거 하려고 하면 잔 거 그런 대패로 했습지요.)

108036 @ 음, 게난 그 거친 거 까끄는 게 잇고, 또 그거 문짝허게 까끄는 거 잇고?(음, 그러니까 그 거친 거 깎는 게 있고, 또 그거 반드럽게 깎는 거 있고?)

108036 #1 예, 그런데 그게 비교적 잘 ᄀᆞᆯ면은, 또 잘 ᄀᆞᆯ면은 두 가지라도 ᄒᆞᆫ 가지만 헤십주.(예, 그런데 그게 비교적 잘 갈면은, 또 잘 갈면은 두 가지라도 한 가지만 했습지요.)

108037 @ 음, 그 자는 어떤 것덜이 잇수가? 자.(음, 그 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108037 #1 아, 자덜은 집 짓는 디, 그 저.(아, 자들은 집 짓는 데, 그 저.)

108037 #2 곱은자, 곱은자 잇엇수다.(곱자, 곱자 있었습니다.)

108037 #1 곱은자라 헤 가지고.(곱자라 해 가지고.)

108037 @ 곱은자?(곱자?)

108037 #2 영 기억자로 뭰 거.(이렇게 기억자로 된 거.)

108037 @ 예, 기억자로 뭰 거예.(예, 기억자로 된 거요.)

108037 #1 기억자로 뭰 건디 ᄒᆞᆫ쪽으로는 그 저 구십 센치 지러기 뒈고, ᄯᅳ시 ᄒᆞᆫ쪽으로는 삽십오 센치 내지 ᄉᆞ십 센치, 그것이 기억자로 뭰 그것이 자로 썻수다, 뭐.(기억자로 된 것인데 한쪽으로는 그 저 구십 센티미터 길이로 되고, 다시 한쪽으로는 사십오 센티미터 내지 사십 센티미터, 그것이 기억자로 된 그것이 썼습니다, 뭐.)

108037 @ 예, 주로 그것이 자로예?(예, 주로 그것이 자로요?)

108037 #1 예, 목수덜 자로 썻수다.(예, 목수들 자로 썼습니다.)

108037 @ 일자로 뭰 거는 거의 엇고예?(일자로 된 거는 거의 없고요?)

108037 #1 예, 예.(예, 예.)

108037 @ 음, 기억자로 뭰 거.(음, 기억자로 된 거.)

108037 #1 예.(예.)

108038 @ 이 먹통허고 먹줄에 대헤서 좀 ᄀᆞᆯ아줍서.(이 먹통하고 먹줄에 대해서 좀 말해주십시오.)

108038 #1 아, 먹통은 그 저 나무를 곧게 만들기 위헤 가지고, 비틀비틀 안 헤 가지고 구짝 만들기 위헤서는 그 저 먹통에는 물 놓곡 먹 ᄀᆞᆯ앙 놓은 것을 놔서 글로 실을 뽑아 가면은 그것이 검정 실이 뭽주게. 게믄 그거 양쪽이서 잡아 가지고

구짝 이쪽에 사름 심곡 저쪽에 사름 심으멍 팍 튀기면은 그게 일직선이 뒙주.(아, 먹통은 그 저 나무를 곧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비틀비틀 않아 가지고 곧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저 먹통에는 물 넣고 먹 갈아서 넣는 것을 놔서 거기로 실을 뽑아 가면은 그것이 검정 실이 되지요. 그러면 그거 양쪽에서 잡아 가지고 곧게 이쪽에 사람 잡고 저쪽에 사람 잡으면서 팍 튀기면은 그게 일직선이 되지.)

108038 @ 구짝 나와예.(곧게 나와요.)

108038 #1 게 가지고 것이 먹통이 헐 일입주.(그래 가지고 그것이 먹통이 할 일이지.)

108038 @ 그때 그 먹술은 무시걸로 만들엇수가?(그때 그 먹줄은 무엇으로 만들엇습니가?)

108038 #1 먹술은 그냥 여기 실로서도 보통은 헤나십주. 여기 실로 허뒈 거기 놓는 먹통이엔 헌 거 ᄀᆞ트면 뭐냐 그 저 머리털도 놓곡, 뚜로 그 저 누에 멩지 허단 디 그 저 뭣고, 고치.(먹줄은 그냥 여기 실로서도 보통은 했었습지요. 여기 실로 하되 거기 넣는 먹통이라고 한 거 같으면 뭐냐 그 저 머리털도 넣고, 또 그 저 누에 명주 하던 데 그 저 뭣이고, 고치.)

108038 @ 고치, 음.(고치, 음.)

108038 #1 고치 숢아난 것덜, 그거, 그걸 놔 가지고 저 먹통에 먹을 놔 놔십주.(고치 삶았던 것들, 그거, 그걸 놔 가지고 저 먹통에 먹을 놔 놨습지요.)

108038 @ 먹을 보관허기 위헤서.(먹을 보관하기 위해서.)

108038 #1 예.(예.)

108038 @ 먹, 먹물을 보관허젠.(먹, 먹물을 보관하려고.)

108038 #1 겐 그디 먹통을.(그래서 거기 먹통을.)

108038 @ 먹물을 보관허젠 헌 거구나예?(먹물을 보관하려고 한 거군요?)

108038 #1 예, 그디 보관허영 놔 두민 ᄒᆞ끔 오래 갓주기.(예, 거기 보관해서 놔 두면 조금 오래 갔지요.)

108038 @ 오래 가고예?(오래 가고요?)

108038 #1 예.(예.)

108038 @ 게난 실은 일반실?(그러니까 실은 일반실?)

108038 #1 예, 일반실로 헙니다.(예, 일반실로 합니다.)

108039 @ 일반실로 허고예. 그다음에 흑손이엔 헙니까?(일반실로 하고요. 그다음에 흙손이라고 합니까?)

108039 #1 아, 그건 저 이 쒜손, 흑손 이렇게 허는디 건 어떻게 허냐 허면은 제일 처음 그 마당에 동네 사름덜이 다 모영, 요즘에는 그걸 흠뻑 일 때는 흑만 놩 뀌는 것이아니라, 뚜로 수세[302]라 헤 가지고 보리낭 쫄랑 놩 뒛싹, 가리싹 허면서 불릅니다. 불르면은 그게 잘 뀌어지면은 이게 그 저 지붕 우이 올라간 사름 신더레

302) '수세'는 흙을 이길 때 섞는 볏짚이나 띠 등을 말한다. 이것을 섞어야 벽이나 지붕에 바른 흙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만썩 거렁 흑 뎃겨주면은, 걸 흑을 받앙 트망트망이 우이 올라간 사름덜이 걸 놔 줍주기.(아, 그건 저 이 쇠손, 흙손 이렇게 하는데 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제일 처음 그 마당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즘에는 그걸 흠빡 일 때는 흙만 놔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수세'라 해 가지고 보릿짚 잘라서 놔서 뒤집고, 또 뒤집고 하면서 바릅니다. 밟으면은 그게 잘 이겨지면은 이게 그 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사람 있는 데로 이만씩 떠서 흙 던져주면, 걸 흙을 틈틈이 이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것을 놔주지요.)

108039 @ 음.(음.)

108039 #1 그러면, 그렇게 허젠 허면 사름이 많이 들어갑주기. 그 지붕에 그런 것도 허곡, 안네도 뚜로 역시 이젠 세멘트라든지 뚜로 저 먹돌[303]로 허니까 고단입주만, 그 돌로 다은 집덜이난, 담으로 쌓은 집덜 미끈허게 흑을 볼르젠 허믄 많이 드니까 흑질헐 때는 동네 사름덜이 모다들엉 물도 떠다주곡, 또 볼라도 주곡 날라도 주곡 이렇게 헙니다. 그때 그 날라주는 것도 마당이 것을 이 뒤꺼지 날라오젠 허믄 그 삼태[304]라 헤 가지고 양쪽에 나무를 헤 가지고 가운데 가마테기를 놩 딱 허믄 그레 그 베껫디는 흑을 더 놩 둘이 들러 가지고 그꺼지 날라다 주고, 삼태로.(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 지붕에 그런 것도 하고, 안에도 또 역시 이젠 시멘트라든지 또 '먹돌'로 하니까 고단이지만, 그 돌로 쌓은 집들이니까, 담으로 쌓은 집들 미끈하게 흙을 바르려고 하면 많이 드니까 흙질할 때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물도 떠다 주고, 또 밟아도 주고 날라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그 날라주는 것도 마당에 그것을 이 뒤까지 날라오려고 하면 그 '삼태'라 해 가지고 양쪽에 나무를 해 가지고 가운데 가마니를 놔서 딱 하면 그리 그 바깥에는 흙을 더 놔서 둘이 들러 가지고 그까지 날라다 주고, '삼태'로.)

108039 @ 삼태로예?('삼태'로요?)

108039 #1 예.(예.)

108039 @ 게난 그 저 흑손은 나무로 만들엇수가?(그러니까 그 저 흙손은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108039 #1 아니우다. 쒜로, 쒜로도 허고 나무로도 만든 것도 잇수다. 나무로 만든 건, 그 저 질 처음 막 거칠게 지붕 곧 나무로 만든 손으로 대충 그 저 볼르고 헷주만, 쒜로 만든 쒜손으로 헤야 거 미끈허게 볼라주는 겁주게.(아닙니다. 쇠로, 쇠로도 하고 나무로도 만든 것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건, 그 저 젤 처음 아주 거칠게 곧 나무로 만든 손으로 대충 그 저 바르고 했지만, 쇠로 만든 쇠손으로 해야 거 미끈하게 발라주는 거지.)

108039 @ 음. 그 저 흑 받는 거? 흑 받는 거는?(음. 그 저 흙 받는 거? 흙 받는 거는?)

108039 #1 아, 저, 판, 그 흑 받는 것고라 그 저 판대[305], 판대.(아, 저, 판, 그

303) '먹돌'은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이다.
304) '삼태'는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이다.
305) '판대'는 흙 바르는 사람이 이겨진 흙을 받는 나무 판이다.

흙 받는 것더러 그 저 ‘판대’, ‘판대’.)

108039 @ 판대예.(‘판대’요.)

108039 #1 판대라 헤 가지고 그 저, 일을 헐 때는 분담허여 가지고 ᄒᆞ끔 기술자라던지 잘허는 사름은 그 쒜손으로 허여 가지고 흑을 ᄇᆞᆯ라가면은 밑에 잇던 사름은 판대로 허여 가지고 ᄒᆞ끔썩 떵 그 판대레 놔 줍니다. 놔 주믄 흑 ᄇᆞ르는 사름ᄀᆞ라 그 저 잘허는 사름고라 사깡이엔 헙니다, 사깡.(‘판대’라 해 가지고 그 저, 일을 할 때는 분담하여 가지고 조금 기술자라든지 잘하는 사람은 그 쇠손으로 하여 가지고 흙을 발라가면은 밑에 있던 사람은 판대로 하여 가지고 조금씩 떠서 그 판대로 놔 줍니다. 놔 주면 흙 바르는 사람더러 그 저 사람더러 미장이라고 합니다, 미장이.)

연구 참여자

이름	소속	분야	지역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국어학(제주도방언)	총괄 제주시 외도동, 안덕면 덕수리
김미진	〃	〃	연구 책임 대정읍 인성리
강영봉	(사)제주어연구소	〃	교열 및 감수
허영선	제주대학교	한국학(제주역사)	제주시 외도동
김보향	제주대학교	국어학(제주도방언)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토평동
최연미	돋을양지책드르	국문학	안덕면 덕수리
권미소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국어학(제주도방언)	대정읍 인성리
김성룡	귀일중학교	〃	대정읍 구억리
문덕찬	(사)제주어연구소	〃	한림읍 대림리
고창근	제주어보전 및 육성위원회	〃	애월읍 봉성리
현혜림	제주학연구센터	〃	위촉연구원
서수빈	〃		연구 보조
현혜경	〃	국어국문	〃

2020년도 제주어구술자료집 35

발행인 김순자

발행일 2020년 12월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63196 제주시 동광로 51(이도1동) 3층

전화: (064) 726-5623, **모사전송:** (064) 747-6140

누리집: www.jst.re.kr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